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키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빗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ə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러'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샤이바니 조(Şayboniyl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괭(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괭'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트'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설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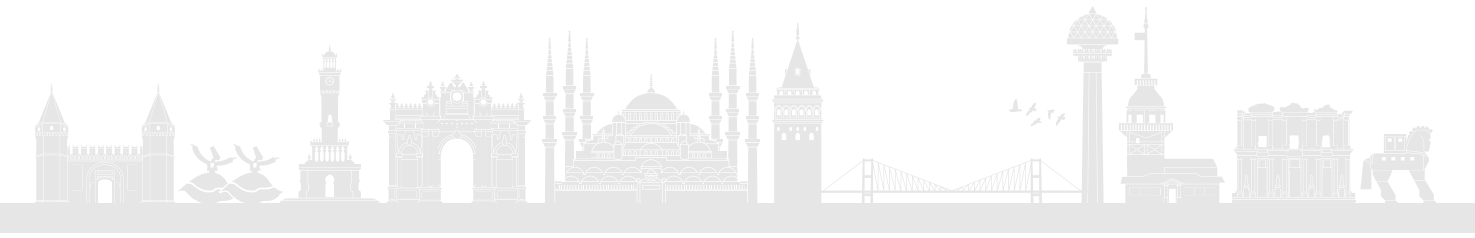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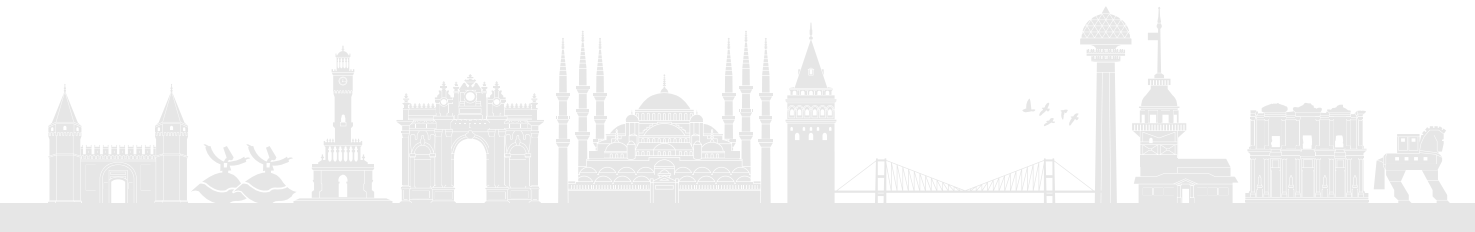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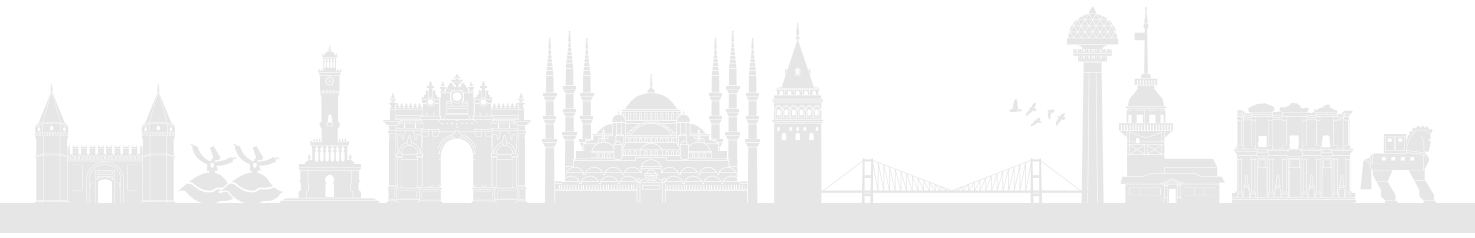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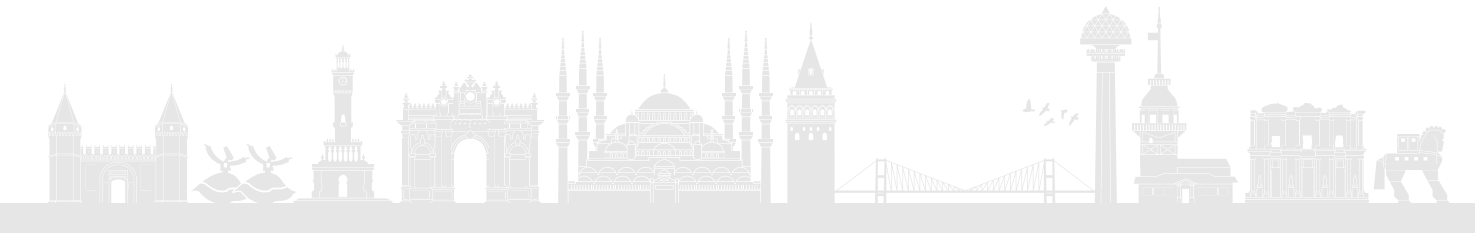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서문	003	I F021 에민 오나트	062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006	I F022 에브도키아 옴도 니키티치나 콜라가세바	065
알려두기	008	I F023 에브루	066
		I F024 에브릴 투런	068
I F001 에게해 분쟁	021	I F025 에블리아아 첼레비	070
I F002 에디르네	022	I F026 에블리아아 첼레비 여행기	073
I F003 에디르네 궁전	025	I F027 에슈레프 공국	074
I F004 에디프 잔세베르	028	I F028 에스나프	077
I F005 에레트나 공국	030	I F029 에스키 사라이	079
I F006 에렘세크	032	I F030 에스티르트	081
I F007 에르케네큰 서사시	033	I F031 에잔	082
I F008 에르킨 권체	036	I F032 에제기틴 호지트	084
I F009 에르더나비아	039	I F033 에페스	085
I F010 에르 소고투흐	040	I F034 에프사네	086
I F011 에르주름 대 모스크	042	I F035 에프탈리테	088
I F012 에르킨 버히더브	045	I F036 에헤	089
I F013 에르킨 사만다르	047	I F037 엔게링 보트	090
I F014 에르킨 아잠	049	I F038 엔베르 곱체	091
I F015 에르투으를	050	I F039 엔베르 파샤	095
I F016 에를릭	052	I F040 엘리프 샤파크	098
I F017 에미네 으순은수	054	I F041 엘바르스 1세	100
I F018 에미르 바이인디르 영묘	056	I F042 엘벡	102
I F019 에미르 살투크 영묘	058	I F043 엘스트 아르 유적	104
I F020 에민 모스크	060	I F044 엘-오이인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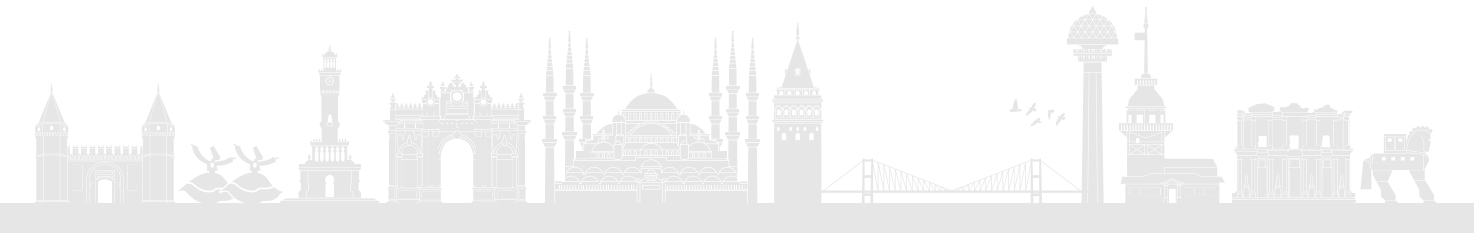
F045 엘친 애팬디예브	106	F069 오르타 오유누	151
F046 엘친 휘세인배일리	108	F070 오르한	154
F047 역사적 전설(아제르바이잔)	110	F071 오르한 웰리 카누크	157
F048 연합진보당	111	F072 오르한 케말	160
F049 영묘	114	F073 오르한 파무크	163
F050 영훈과 관련된 민속신앙	117	F074 오본 하르	165
F051 예니세이 비문	119	F075 오비강	166
F052 예니세이 키르기스	121	F076 오손	168
F053 예니체리	122	F077 오수오하이	169
F054 예루살렘	125	F078 오스만 1세	170
F055 예르-수	127	F079 오스만 2세	172
F056 예르-튀스틱	128	F080 오스만 3세	174
F057 예브게니 드미트리예비치 폴리바노프	130	F081 오스만 네담 투나	175
F058 예언자	133	F082 오스만 문서고	177
F059 오구즈	135	F083 오스만 투란	179
F060 오구즈나메	136	F084 오스만 투르크어	181
F061 오구즈 투르크어와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	138	F085 오스만 파즈완토을루	183
F062 오구즈어파	139	F086 오스만 피크리 세르트카야	185
F063 오쿨착 칸	140	F087 오스만 함디 베이	186
F064 오글라트이	141	F088 오스만 화가 협회	189
F065 오달르크	142	F089 오야 바이다르	191
F066 오르고이툰	145	F090 오우즈 아타이	193
F067 오르도스	146	F091 오우즈 카안 서사시	196
F068 오르콘 비문	149	F092 오우즈 탄셀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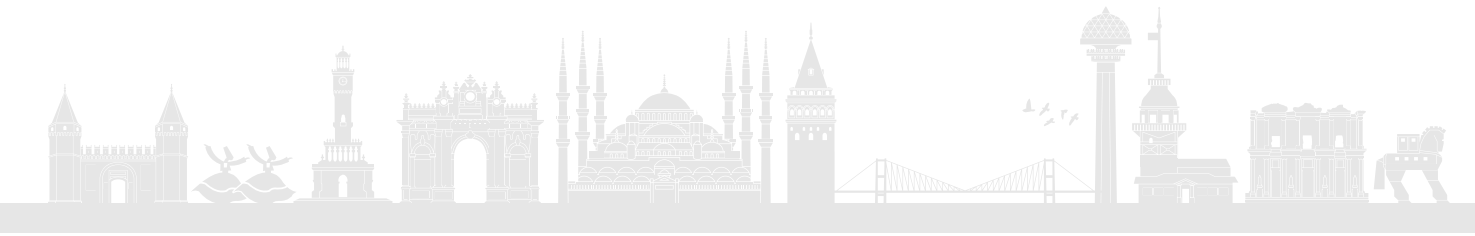
F093 오윤과 우다간.....	201	F117 울더쉬 삼샤러브.....	239
F094 오이 이야세.....	202	F118 울더쉬 술라이먼.....	241
F095 오일 레슬링.....	203	F119 옷거르 무함마드 미르저.....	242
F096 오즈겐 세 개의 영묘.....	206	F120 용사 추라.....	243
F097 오쿠네프 문화.....	208	F121 용사 코빌란디.....	244
F098 오토라르.....	209	F122 우드.....	246
F099 옥타이 시난오을루.....	211	F123 우랄 바티르.....	248
F100 옥탐 우스머너브.....	213	F124 우랑카이.....	249
F101 온곤.....	214	F125 우루굴칭 성.....	250
F102 울룬 구린 굴 유적.....	215	F126 우르미야 칸국.....	251
F103 울롱호.....	216	F127 우르케르 신화.....	254
F104 엘리아스타이 걸 유적.....	217	F128 우마르 칸.....	255
F105 옷키르 허쉬머브.....	218	F129 우마르베커브 올마스.....	257
F106 와기프 새매트오글르.....	220	F130 우마르샤이흐 미르저.....	259
F107 와기프 술탄르.....	222	F131 우마르전 이스머일러브.....	260
F108 와르카와 쿨샤.....	224	F132 우마이.....	261
F109 와크프.....	226	F133 우므레.....	262
F110 와흐다트 알 우주드.....	228	F134 우바이둘라 칸.....	264
F111 완 대 모스크.....	230	F135 우바이둘라호자 아샤둘라호자예브.....	265
F112 외올레 나마즈.....	231	F136 우바이드 알라 호자 아흐라르.....	268
F113 외즈데미르 아사프.....	232	F137 우비르.....	270
F114 외즈베그 한 모스크.....	235	F138 우스먼 너시르.....	271
F115 요람 잔치.....	237	F139 우스투우 후레.....	273
F116 요르트 이예시.....	238	F140 우스티-에디간.....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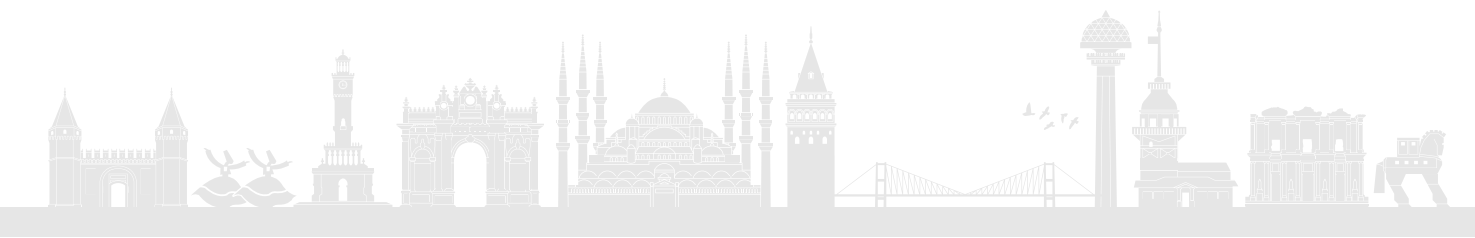
F141 우야브.....	276	F165 위제이르 하자배일리.....	315
F142 우엘리올라흐 예블만수르 칸.....	277	F166 워츠 세레펠리 모스크.....	318
F143 우이군.....	279	F167 워탕 무덤.....	321
F144 우즈베크어.....	281	F168 워태로운 시대, 사랑의 희생자.....	322
F145 우즈베크 유제품.....	282	F169 유누스 라자비이.....	323
F14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284	F170 유누스 라티프.....	326
F147 우콕공주.....	287	F171 유대교.....	327
F148 우투란 유적.....	289	F172 유리잔(홍노).....	329
F149 운두르 도브.....	290	F173 유브하.....	330
F150 울겐.....	291	F174 유스티드 IX.....	331
F151 울라마 위원회.....	292	F175 유스티드 XII.....	332
F152 울란 시베르 유적.....	294	F176 유시프 샤페드오굴르.....	333
F153 울레마.....	295	F177 유시프 왜지르 채맨재민리.....	335
F154 울루 후르투야흐 타스.....	297	F178 유시프 이븐 퀴세이이르.....	338
F155 울루그 베그.....	299	F179 유연.....	341
F156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301	F180 유연-아바르 동족론.....	343
F157 울루그-호름.....	303	F181 으클라스 두켄울르.....	345
F158 울루스.....	304	F182 으흐야흐.....	346
F159 움마.....	306	F183 음철시인 5인.....	348
F160 움군트.....	307	F184 이그낙 쿠노스.....	351
F161 월지.....	308	F185 이니타스.....	352
F162 위구르 공양차도.....	309	F186 이데게이.....	353
F163 워대한 세기.....	311	F187 이데알.....	354
F164 위스퀴다.....	313	F188 이덱티그 톤.....	355



I F189 이드 카흐 모스크	356	I F213 이브러힘 하즈랏	397
I F190 이라마스	359	I F214 이븐 네즈자르 모스크	398
I F191 이라크 투르크어	360	I F215 이븐 바투타	400
I F192 이라흐 아알다	361	I F216 이븐 툴룬 모스크	401
I F193 이란호구	362	I F217 이블리스	405
I F194 이라반 칸국	363	I F218 이비릭	406
I F195 이레넥	368	I F219 이사 무간나	407
I F196 이르샤틸 뮐룩 베스 셀라틴	369	I F220 이사 베흐자트	409
I F197 이르티시	370	I F221 이사 해빔배일리	411
I F198 이리흐	372	I F222 이스라엘 이브라기머프	413
I F199 이마레트	373	I F223 이스릭	414
I F200 이맘	375	I F224 이스마이일 시이오허르	415
I F201 이맘 마흐디	377	I F225 이스마이일 가스프랄르	416
I F202 이맘 무함마드 이븐 이스마이일 알 부하리	379	I F226 이스마이일 사마니 영묘	419
I F203 이맘 알리	381	I F227 이스마툴라 막심	421
I F204 이맘 하산	382	I F228 이스메트 이뇌뉘	422
I F205 이맘 후세인	384	I F229 이스탄불(도시 역사 개괄)	423
I F206 이မ်쿨리 칸	386	I F230 이스탄불(오스만 제국 시기)	426
I F207 이볼가	387	I F231 이스탄불 국립 고고학박물관	430
I F208 이볼가 무덤	389	I F232 이스파한	432
I F209 이브라힘 1세	390	I F233 이스파한 금요 모스크	434
I F210 이브라힘 파샤	392	I F234 이스헉켄 토라 이브랏	437
I F211 이브러임 유수퍼브	393	I F235 이슬람 위원회	439
I F212 이브러힘 라힘	396	I F236 이슬람 이전 투르크 기록문학	441



I F237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학	443	I F261 일 아슬란 영묘	487
I F238 이슬람 호자	445	I F262 일투트미쉬 영묘	489
I F239 이시 맬리크자데	446	I F263 일모바야 파디	491
I F240 이에르반트 오스칸 에펜디	447	I F264 일야스 애팬디예브	492
I F241 이에실 영묘	449	I F265 일 칸국	494
I F242 이에	451	I F266 일한 바쉬괴즈	497
I F243 이완	452	I F267 임-툼	499
I F244 이원	455	I F268 임호	501
I F245 이우누스 엠레	456	I F269 잇치	502
I F246 이우수프 약추라	462	I F270 임판 유적	503
I F247 이이라우	463		
I F248 이이이인	465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507
I F249 이자트 술턴	466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510
I F250 이즈니크 도자기	467		
I F251 이즈니크 이에실 모스크	471		
I F252 이즈미르	473		
I F253 이지크 한	475		
I F254 이치치	476		
I F255 이킨디 나마즈	477		
I F256 이프타르	478		
I F257 이흐산 외즈소이	480		
I F258 인사디 수트라	482		
I F259 인산 알 카밀	483		
I F260 인질(성경)	485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중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F001 | 에게해 분쟁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분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egean dispute

에게해 분쟁이란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에게해의 영역과 관련한 주권과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분쟁을 지칭하는데 1970년대부터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에게해는 동쪽으로 튀르키예, 서쪽과 북쪽으로 그리스, 남쪽으로는 크레타섬 등에 둘러싸여 지중해 동부 해역을 이룬다. 에게해 인근에는 크고 작은 400여 개의 섬이 산재해 있는데, 그중 튀르키예 영토인 소아시아 반도 서해안의 몇몇 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리스 영토에 속한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서 에게해를 둘러싼 그리스와 튀르키예 간의 영유권 분쟁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으로, 주된 갈등은 대륙붕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유전 발굴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1973년 튀르키예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대륙붕 지도를 근거로 하여 에게해에서 석유 탐사를 시도했다. 그리스는 튀르키예가 일방적으로 획정한 대륙붕에 자국의 대륙붕이 포함되어 주권이 침해 당했다고 반발하며 전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강력 대응에 나섰다. 1974년 6월 그리스는 국제법에 따라 영해를 종전의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한다고 발표했는데, 튀르키예는 이렇게 되면 그리스 영해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중해로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양국은 1975년 1월 그리스는 이건을 국제사법재판소와 동시에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 395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분쟁이 이어졌다. 1987년에는 그리스가 에게해 북부의 타소스섬에서 유전 탐사에 나서자 튀르키예가 에게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타소스섬 점령을 시도한 적도 있다. 이 사태는 나토(NATO)와 유엔의 중재로 인해 다행히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 않고 수습되었다. 그 외에 1995년 12월에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이 에게해 해상의 이미아(Imia) 섬 근처에서 좌초했는데, 이 배의 구조 문제를 놓고 양국이 서로 이미아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양국은 번갈아 이 섬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군함

을 파견하여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사태로 치달았으나 국제사회의 중재에 힘입어 양국의 군대가 철수함으로써 위기 국면이 해소되었다.

잡은 충돌과 위험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었는데 모두가 동의하면서 1997년 7월 양국은 상호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1999년 양국에 발생한 지진 사태를 계기로 서로 협력했고 또한 그리스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튀르키예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면서 오랜 불화에서 벗어나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게해의 영유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며, 에게해 상공의 비행정보구역(FIR)과 관련해서도 영공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게해 문제, 에게해 분쟁
- 다국어 표기 Ege Sorunu(튀르키예어), Aegean dispute(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Full text of the Treaty of Lausanne(1923)
https://www.lib.byu.edu/index.php/Treaty_of_Lausanne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에게해 분쟁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0541&cid=40942&categoryId=40465>
- 참고문헌(오프라인) Dyke, J.M. van, An analysis of the Aegean disputes under international law,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2005.
Kemal Başlar. *Two facets of the Aegean Sea dispute: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In: K. Başlar (ed.), Turkey and international law. Ankara. 2001.

I F002 | 에디르네

- 시기 A.D. 10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Edirne

에디르네(Edirne)는 튀르키예의 그리스-불가리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도시로 오스만 제국 시대의 제2수도이다. 에디르네는 툰자 강과 아르다 강이 마리차 강과 만나는 지점 가까이에 있



에디르네 중심지의 보행자 거리

는 교통의 요지여서 예로부터 많은 이주와 침략의 목적지가 되었고, 무역과 문화 교류의 활발한 중심지이기도 했다. 원래는 트라키아인들이 세운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도시는 B.C. 2세기 무렵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도시를 재건하고 확대한 다음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Hadrianopolis). 그 후 고트족(378년), 아바르족(586년), 불가르족(914년)이 정복했고 십자군이 두 차례 약탈했으며, 1360년대에는 오스만 국가에 정복된 적도 있다.

오스만 제국 이전에는 2개~3개의 교회와 5개~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였다. 오스만 치하에서 도시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에디르네가 발칸에서의 군사적 팽창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에디르네를 정복한 ‘술탄 무라드 1세’는 마리차 강 계곡에서의 치르멘(케르마논)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 도시의 지배를 천명하며 ‘에디르네’라고 새로 이름을 붙이고 궁전을 지었다. 1402년 앙카라 전투로 ‘바이에지드 1세’가 티무르에게 잡혀가고 왕자들 사이의 내전기(1403년~1413년)가 시작되었을 때는 장남 쉴레이만 왕자가 국고와 문서고를 부르사

에서 에디르네로 옮기고 스스로 술탄이라 선언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 이후 내전을 거쳐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1453년) 이전까지 에디르네는 계속 수도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는 무라디에 모스크(1436년), 삼단 발코니 모스크(위츠 세레펠리 메스지드, 1447년), 새 궁전(1450년~1452년) 등이 지어졌고, 왕자들의 할례를 기념하는 축제 행진 등 장엄한 대규모의 축하 의례를 거행했다. 이런 축하 의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도시 전체가 ‘축하 의례를 거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났다.

그러던 중 ‘메흐메드 2세’가 이스탄불로 천도하면서 에디르네는 수도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도시로서 가치를 잃지 않고 유럽으로 향하는 군사작전의 지휘가 이곳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후대의 술탄들도 사냥을 나올 때 머무는 용도로 에디르네의 궁전을 꾸준히 사용했다.

‘바이에지드 2세’(재위: 1481년~1512년)와 ‘셀림 2세’(재위: 1566년~1575년)가 각각 에디르네에 대규모 모스크 복합단지를 건설했고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메흐메드 4세’(재위: 1648년~1687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에디르네에서 경비가 많이 드는 사냥을 자제하지 않아 크게 지탄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술탄 무스타파 2세’(재위: 1695년~1703년)는 에디르네에 오래 머물면서 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이스탄불에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 폐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후 에디르네는 1745년의 대화재, 1751년 지진으로 초토화되었고, 에디르네의 명사들은 셀림 3세의 개혁에 반대하여 1801년과 1806년 반란을 일으키더니 1829년에는 러시아군이 3일간의 포위 끝에 도시를 점령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1877년~1878년의 러시아-오스만 전쟁 때 러시아군이 에디르네를 점령하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다. 제1차 발칸 전쟁 당시에는 불가리아군이 에디르네를 4개월간 점령한 시기도 있었는데,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에는 그리스인들이 차지했으나(1920년~1922년) 무다냐(무드로스) 휴전 협정 후 1922년에 튀르키예군이 다시 들어왔고, 급기야 로잔 조약으로 튀르키예의 국경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17세기까지 2만~3만 정도였던 에디르네의 인구는 화재, 지진, 전쟁 등 근대사의 굴곡 가운데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나, 전쟁 중 무슬림 인구의 도주에 의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셀리미에 모스크에서 바라본 에디르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디리네
- 다국어 표기 Edime(튀르키예어), Edirne(우즈베크어), Ədirnə(아제르바이잔어), Едирне(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unus Uğur, "Edirne,"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195~197.
- M. Tayyip Gökbilgin, "Edirn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0. 1994. pp.425~431.

I F003 | 에디르네 궁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 1 건축 ● 유형 소분류 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dirne Palace

에디르네 궁전은 크게 두 번에 걸쳐 건설되는데, 첫 번째는 '무라드 1세'(I. Murat, 재위: 1383년~1389년) 시대에 공무를 목적으로 지금의 셀리미에 모스크가 있는 자리에 세워졌다. 당시 에디르네 궁의 정식 이름은 '사라이-으 아틱'(Sarây-ı Atîk: 옛 궁전, 오래된 궁전)이었다. 두 번째는 신궁으로 에디르네 시 북쪽, 툰자(Tunca) 강이 가로질러 둘로 나뉜 섬 위에 세워졌는데 1450년 '무라드 2세'(II. Murad, 1차 재위: 1421년~1444년, 2차 재위: 1446년~1451년) 시대에 건설을 시작했으나 '무라드 2세'의 사망으로 건설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메흐메드 2세'(II. Mehmed, 1차 재위: 1444년~1446년, 2차 재위: 1451년~1481년)의 명으로 공사가 재개되어 1475년 비로소 완공되었다.

완성된 후 궁전의 정식 이름은 '사라이-으 제디드'(Sarây-ı Cedîd: 새로운 궁)이다. 이 외에



에디르네 궁전의 흔적

도 힌카르 바흐체시 사라이(Hünkâr Bahçesi Sarayı: 왕의 정원 궁전), 에디르네 사라이 휘마원누(Edirne Sarây-ı Hümâyunu: 에디르네의 왕의 궁전), 에디르네 사라이이 데디니 아미레시(Edirne Sarây-ı Cedîd-i Âmiresi, 에디르네의 국가의 새 궁전) 등의 이름이 있다. 이 궁전의 건축가는 무슬리후딘(Muslihuđdin)으로 추정된다.

‘메흐메드 2세’는 이 성을 건설한 이후에도 꾸준히 수리하며 새로운 건물을 증축했다. 그때 건설된 ‘왕좌가 있는 방(Cihannüma Kasrı 또는 Taht-ı Hümayun)’이 결국 궁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사실(私室: Has oda)을 비롯해 도서관과 같은 건물도 건설되었다. 후에 옥좌가 있는 방 남쪽에 ‘메흐메드 4세’(IV. Mehmet, 재위: 1642년~1693년), ‘무스타파 2세’(II. Mustafa, 재위: 1664년~1703년), ‘아흐메드 3세’(III. Ahmet, 재위: 1703년~1730년)의 방이 추가되었다. 그 밖에는 왈리데 술탄과 네 부인, 왕자들, 첩의 방과 같은 하렘, 환자 병동, 아아(Ağa)의 방과 함께 접견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접견실 앞에 ‘아크 아아 문’(Bab’üs Sa’ade 또는 Ak Ağalar

Kapısı)이 자리하고 있다.

‘설레이만 1세’(I.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와 유명 건축가 ‘미마르 시난’(Mimar Sinan: 1489년/1490년~1588년) 시대에 에디르네 궁전은 큰 변화와 발전을 한 차례 경험한다. 바로 이 시기에 궁전을 새롭게 계획하면서 지형을 새로 골라 튜자강 범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미마르 시난’은 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로로 성 주변을 둘러싸고 수로와 궁전 사이에 술탄의 정원을 배치해 성벽 없이도 궁전을 보호하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수로 위에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궁전의 대문의 위엄과 방위의 안전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필요에 의해 이후에도 궁은 꾸준히 증축되었다.

에디르네 궁전은 메흐메드 2세가 건설하는 이스탄불의 첫 번째 궁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1718년 ‘술탄 아흐메드 3세’ 이후로 1768년 ‘무스타파 3세’(III.Mustafa, 재위: 1757년~1774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술탄도 에디르네에 오지 않았던 기간에 에디르네 궁전은 손상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1752년 지진과 1776년 화재로 궁전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1827년 마흐무트 2세(II. Mahmud, 재위: 1808년~1839년) 시대에 궁전을 일부 수리했지만 또다시 1829년 러시아군의 침공과 이후 병영으로 사용되었던 전적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이후 1868년~1873년에 다시 수리하여 여러 건물이 복구되었으나 또다시 1876년~1877년 러시아 전쟁 당시 탄약 폭발 사고로 인해 건물의 대부분이 무너졌고 남은 건물 잔해는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분 복구공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흔적만 남은 상태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디르네 궁

● 다국어 표기 Edirne Saray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톱카프 궁전, 무라드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EtkinlikHaber/20180912103703554_20180217%202%2028755842%2030838382%20web,yfUVQ908SEa8lp%201BSGTCQ.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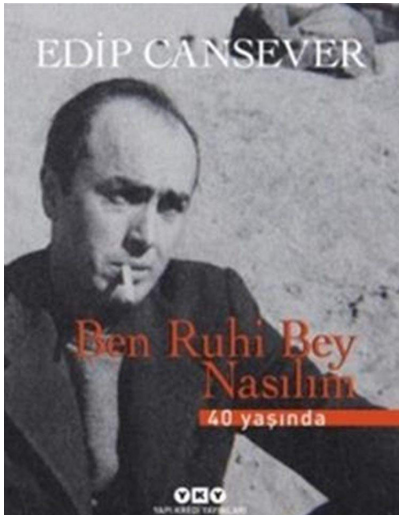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Akçık, N. Çiçek. “SARÂ-Y-ı CEDÎD”, *İslâm Ansiklopedisi* cilt 36, İstanbul: TDV, 2009, pp.126~128.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 İnkılâp Kitabevi, 2004.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F004 | 에디프 잔세베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EDIP CANSEVER



『나는 루히입니다. 어떤가요(Ben Ruhi Bey Nasılım)』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1928년 8월 8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에디프 잔세베르’는 찬크르에서 이스탄불로 이주해 무역업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쿰카프 중학교와 이스탄불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무역학교에 진학한 그는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했다. 곧바로 아버지 곁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탄불 그랜드바자르에 본인의 가게를 열어 관광객 기념품과 카펫을 취급하는 무역상이 됐다.

그가 온전히 시 창작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흘러 1976년이 되었을 때이다. 본명이 ‘외메르 에디프 잔세베르’인 그는 ‘외메르’라는 이름은 첫 시집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1947년 4월 12일 19살이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가까운 친척의 소개로 ‘메프하레트’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1954년 그랜드바자르에 화재가 발생해 가게가 불에 탄 것은 그의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이 새로운 가게를 얻는 데 부족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복층 가게를 선택했다. 1층에서는 장사를 하고, 자신은 온종일 2층에서 시를 읽고 쓰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에디프 잔세베르는 경제적 걱정을 덜게 되면서 마음껏 시를 쓰면서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에디프 잔세베르’의 첫 번째 시는 1944년에 잡지 <이스탄불>에 실렸다. 그는 청소년기에 잡지 <숭고(Yücel)>, <사상(Fikirler)>, <문학세계(Edebiyat Dünyası)>, <원천(Kaynak)>에 기고했던 시를 모아 1947년 시집 『오후 예배(İkinci Üstü)』를 발간했다. 그러나 당시 시인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듣지 못했다. 심지어 ‘오르한 벨리’는 “시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했다. 결국 그는 책을 배포하지 않고 거둬들였다.

1951년 그는 살라흐 비르셀 그리고 알프 쿠란과 함께 문예지 <녹타>를 창간했다. 총 8권을 발간한 이 잡지에는 주로 청년 시인과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고, 새로운 작가들이 문단에 진입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되었다. <녹타>는 잔세베르가 알려지는 데도 유용한 공간이었다.

첫 시집 출간 이후 7년이나 지난 1954년에 출간된 『화기애애(Dirlik Düzenlik)』는 특히 시대 문제를 잘 녹여낸 작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독특한 문장과 적당한 형식을 찾아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사회 비판을 해학이라는 통로를 통해 표현했다. 특히 음절 운율과 가리프(Garip)파의 시에서 영향을 받았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에제 아이한, 투르구트 우야르, 제말 쉬레야, 세자이 카라코취가 길은 님은 ‘두 번째 혁신파(İkinci Yeni)’처럼 추상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시를 쓰기 시작했고 두번째 혁신파의 고유한 느낌을 잘 살려냈다.

1957년에 출간한 『마음을 끄는 카네이션(Yerçekimli Karanfil)』에는 자신의 세계관을 잘 나타냈다. 이 책으로 1958년 예디테페상 시 부문 수상했고, 1976년에 출판된 『나는 루히입니다. 어떤가요(Ben Ruhi Bey Nasılım)』로 1977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시 부문 상을 수상했다. 1981년에 그는 시선집 『다시(Yeniden)』을 출판했는데, 이 책으로 1982년 세다트시마비 문학상을 받았다.

에디프 잔세베르는 ‘사람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를 추상과 상상에 지나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감을 우선시하면서 시에는 시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디프 잔세베르는 현대 튀르키예 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다작 시인 중 한 명으로서 통사론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대화와 내적 독백처럼 다양한 산문 형식을 시도하면서 시의 가능성을 넓혔다. 그는 독창적으로 시어(詩語)를 만들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시 세계를 열었다고 평가 받는다.

1986년 5월 28일 눈을 감은 잔세베르의 묘지는 이스탄불 진지르리쿠유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디프 잔세벨, 에딤 잔세벨
- 다국어 표기 EDİP CANSEVER(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오프라인) Akın Gülten, *Şiiri Düzde Kuşatmak*, AlanYayıncılık, İstanbul, 1983.

Canberk Eray, *A'dan Z'ye Edip Cansever*, Yapı Kredi Yay, İstanbul, 2003.

Çolak Veyse, *Şair Censever'de Şairin Kanı*, Era Yayıncılık, İstanbul, 1997.

Dirlikyapan Devrim, *Ölümü Gördüm, Geliyorum: Edip Cansever Şiirinde Varolma Biçimleri*, Metis Yayınları, İstanbul, 2013.

Öz Erdal, "Edip Cansever'le Konuştum", *Gül Dönüyor Avucumda*, Adam Yayınları, İstanbul, 1998.

I F005 | 에레트나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Eretna

에레트나 공국은 아나톨리아 중앙부에서 룸 셀주크와 일 칸국의 뒤를 이어 1336년~1380년 사이에 존속했던 공국이다. 에레트나 공국을 세운 '에레트나'는 본래 위구르 출신으로, 일 칸국의 재상인 추반 가문의 관료였다. 그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보석을 의미하는 'Ratna'에서 유래한다.

그는 추반의 아들인 '티무르타시'를 따라 아나톨리아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티무르타시가 일 칸국의 마지막 칸인 '아부사이드'에 의해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파견되었으나 되려 일 칸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뒤이어 1326년 티무르타시가 이집트로 쫓겨나 사망하면서 후계 계승 문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에레트나'는 아제르바이잔의 '하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하산이 곧 티무르타시의 동생인 또 다른 '하산'에게 패배하고 에레트나는 맘루크 술탄인 '알 나시르 무함마드'의 보호를 받아 티무르타시의 동생 '하산'을 물리치고 아나톨리아의 중앙부에서 독립된 세력을 확보했다.

당시 '에레트나'의 영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와 아마시아, 에르진잔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는데 처음에는 시바스에 수도를 두었으나 훗날 카이세리로 이전했다. 그는 자신을 술탄이라 칭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동전을 주조하는 등 독자 군주로서의 지배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행보를 펼쳤다. 워낙 아랍어를 잘 알고 있었고, 학문에도 능한 편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아나톨리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일정한 질서와 안정을 부여했던 그에게 '수염이 적은 예언

자(Köse Payghambar)’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이후 1352년 에레트나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기야스 옛딘 메흐메드’가 등극하면서 그는 맘루크 조와의 평화조약을 이용하여 동생인 ‘자파르’의 반란을 진압했고 당분간 평화가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1366년에 ‘기야스 옛딘 메흐메드’의 아들인 ‘알리 벡’이 등극하면서 휘하에 있던 여러 벡들, 즉 아마시야, 토카트, 카라히사르 동부, 시바스, 특히 에르진잔의 벡 타하르탄 등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카라만 공국과 오스만이 에레트나의 서쪽 영역

을, 아크코윤루가 동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분리통치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국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결국 알리 벡이 사위로 삼았던 카이세리의 ‘부르한 앓 딘’이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고 1380년에 ‘알리 벡’이 반란 세력 정벌에 나서자 도중에 살해해 버렸다. 뒤이어 ‘부르한 앓 딘’은 ‘알리 벡’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그의 아들 ‘무함마드 2세’에 대항하여 자기 스스로 술탄이라 선포했고, 비로소 에레트나 공국은 종말을 맞이했다.

이 공국에 대한 정보는 매우 드문 편인데, 이는 아나톨리아 일대의 여러 공국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정리했던 ‘이븐 바투타’나 ‘알 우마리’, 그리고 여행기인 ‘싯베르게르’와 ‘클라비호’ 등의 기록이 절묘하게 이 공국의 시대를 비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문화나 상업은 아랍어를 쓰는 시리아-이집트 지역에 더욱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문화를 잃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다. 한편 에레트나 공국과 그 주변에서는 또한 도시의 강력한 아히 세력이 성장했고 그후 메블레비나 대중 수피 종단 등의 여러 수피 종단의 영향이 더해져 투르크어 문학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에레트나의 이름이 적힌 은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레트나 공국, 아레트나 베이리이
- 다국어 표기 Eretna Beyliği (튀르키예어), اَرْتِن (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룸 셀주크, 일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387.
CL. Cahen, "Eretna," *Encyclopaedia of Islam* 2, Leiden: Brill, 1991, pp.705~707.

I F006 | 에렘세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Eremsek

‘에렘세크’는 타타르인과 바시키르인이 주로 먹는 전통 유제품이다.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키질 에렘세크(кызыл эремсек: 붉은 트보록)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유제품은 장기 저장이 불가능한데 에렘세크는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동이 필요한 유목민의 특징이 반영된 전통음식이다.

에렘세크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 없고 완전히 시큼하게 발효된 소젖이나 염소젖을 끓여 ‘아이란(айран)’을 만든다. 아이란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크림, 캅카스 지역 고유의 유제품으로 응유된 덩어리를 채에 걸러 마포 자루에 담아 매달아 두거나 무거운 추 아래 두어 발효시킨다. 한 번 끓여 시큼해진 우유로 오븐에서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장기간 저장하기



에렘세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위해 물기 없이 마른 에렘세크를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수분이 완전히 증발해서 우유 덩어리가 붉은 색채를 띠 때까지 데워야 한다. 보통은 요리가 끝나기 직전에 데운 기름과 설탕, 꿀을 첨가해 만들고, 조리가 끝난 다음에는 붓나무 상자에 보관한다.

지역에 따라 남우랄, 바시코르토스탄의 남부, 북부, 동부 지역에서는 수분을 증발시킬 때 딸기나 산딸기, 구름나무나 까치밥 나무의 열매, 체리 등을 첨가하여 ‘열매 에렘세크’를 만들기도 한다. 식탁에 내놓을 때는 스메타나, 샐러 크림, 꿀, 설탕 등을 함께 넣어 먹는다. 파이나 구바디아 등을 만들 때 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에렘세크의 영양성분 구성은 지방 20%, 수분 18%, 단백질 16.8%, 탄수화물 40.3%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렘섹
- 다국어 표기 Эремсе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인, 바시키르인, 아이란, 바시코르토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mGcMrmezC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if.ru/food/world/41706>
<http://rus.bashenc.ru/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745-eremsek>
- 참고문헌(오프라인) 미그라노바, 엘자 베너로브나, “Тради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питания башкир: На материалах юго-западных и юго-восточных рай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дисс. к. филол. н.”, Уфа, 2003, 41~44.

Ⅰ F007 Ⅰ 에르게네콘 서사시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ERGENEKON MYTH

튀르키예 문학에서 ‘데스탄(destan)’은 영웅서사시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원래 페르시아어에서 기원한 것이며, 프랑스어로 에포페(epope), 그리스어로는 에포스(emos)라고 한다. 데스탄은 투르크 민족의 고유한 운문 시와 설명, 그리고 노래로 구연된다. 에르게네콘(Ergenekon)

서사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첫 번째는 중국 북주(A.D. 557년~ A.D. 581년) 시대의 돌궐족(투르크족)이 신화적 인물 원형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 버전은 수나라(A.D. 581년~618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두 버전 모두 투르크족이 린(Lin)족에게 패하면서 몰살당할 때 홀로 살아남은 한 사내아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아이는 팔과 다리가 잘려서 늪에 버려졌는데, 늑대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산으로 데려다 키워서 훗날 10명의 아이를 낳는다. 아쉬나족 신화로도 불리는 이 투르크족 탄생 신화는 그 사내아이와 여자 늑대(Asina)가 낳은 10명으로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부족원이 늘어나게 된다. 투르크족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신성한 장소인 에르게네콘에서 수 세기 동안 농사를 짓고, 사냥과 광물을 채굴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산다.

이 에르게네콘 서사시를 처음 기록한 이는 13세기 몽골 역사가 ‘라시드 알딘 파달알라 하마 다니’(Reşidüddin Fazlullah bin Ebu’l Hayr bin Ali; 1245년~1318년)이다. 서사시 하나만 단독으로 출판한 것은 아니었고, 페르시아어로 쓰여진 라시드의 책 『역사(Reşididdin Tarihi)』의 「집사(Cami’üt-Tevarih)」중 일부 내용이었다. 아마도 작가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투르크-몽골 명창(ozan)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채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르게네콘 서사시의 축약본은 히바 칸국의 ‘아불 가지 바하우르’(Hiyve Hanı Ebulgazi Bahadır Han)가 1663년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 에누셰(Enuşe)가 완성한 『샤지라이 투르크(Şecere-i Türk)』라는 작품에 수록되었다.

에르게네콘 서사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다른 서사시와의 차이점은 ‘집단 영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 카얀(Kayan)은 개인이 아니라 카이으한(Kayıhan) 부족을 대표한다. 그리고 투쿠즈(Tukuz)도 돌궐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홉 오우즈(Dokuz Oğuzlar) 부족의 이름이다. 또한 에르게네콘 서사시는 완전한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서사시를 잘 살펴보면 이야기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장장이, 지명이나 그것의 위치, 훈족이 해체된 이후 투르크족이 알타이산맥 주변에서 철을 제련(製鍊)하면서 거주했던 곳의 위치도 실제 위치와 매우 유사하다.

에르게네콘 서사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돌궐족(투르크족)이 타타르족에게 습격을 당했다. 생존자는 모두 체포되었고 일한(İl Han)의 작은 아들 카얀(Kayan)과 조카 뉘퀴즈(Nüküz)의 부인만 탈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 말과 낙타와 양과 염소 등 가

축을 챙겼다. 하지만 이미 적군들이 주위를 에워싸서 더 이상은 고향에 더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황무지로 피신하기로 결정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험난한 산맥을 걸어서 넘었다. 가파른 산꼭대기와 험준한 암석들 사이를 지나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랐는데, 길이 짐을 실은 동물들은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좁아졌다.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 가파른 언덕이라 넘어가기 어려웠다.

마침내 갖은 고생 끝에 그들은 산을 넘어 초원에 이르렀다. 초원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여러 가지 풀과 열매가 가득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겨울에는 동물의 고기를 먹고, 여름에는 우유를 마시면서 버텼다. 그리고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터전을 마련한 그곳을 ‘에르케네콘’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흘러 가족은 점점 늘어났고 그렇게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후손들은 여러 씨족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자 그들은 에르케네콘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마침내 원로들의 회의가 열렸다.

“조상들에게 듣기로는 에르케네콘 밖에 넓고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 적들이 우리의 선조들을 모두 죽이고 그곳을 차지했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울 동지가 많아졌고 강해졌다. 더 이상 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산속에 틀어박혀 살 이유도 더는 없다. 그러니 우리 함께 산을 타고 길을 찾아 밖으로 빠져나가자. 가서 우리 선조들의 고향에 정착하자. 우리에게 맞는 자들이 있으면 전쟁을 하면 되고 우리와 친구를 맺고자 한다면 우호적으로 지내면 될 것이다.”

결정이 내려지자 그들은 에르케네콘에서 나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려가는 길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때 대장장이가 말했다.

“이 산에 철광석이 있다. 광산을 녹이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 암석을 살펴보니 대장장이 말이 맞았다. 곧이어 사람들은 나무와 석탄을 모으기 시작했고 암석의 위, 아래, 양 옆을 나무와 석탄으로 한겹씩 덮었다. 그리고 70개 동물 가죽을 모아 풀무를 만든 다음 불을 지폈다. 그러자 암석이 녹기 시작했고, 짐을 실은 낙타가 지나갈 만큼 길이 생겼다. 그렇게 그들은 성스러운 기운이 도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에르케네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대장장이 장군의 이름은 ‘보르테 체네(Börte Çene)’로 보즈쿠르트(Bozkurt)이다. 보르테 체네는 에르케네콘에서 나와서 가능한 모든 곳에 사절단을 보냈고 자신

들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매년 그들이 산을 빠져나온 그날, 같은 시간에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이미 정확한 달, 날짜,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았기에 축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카안을 선두로 모든 사령관과 원로들은 철침 위에 쇠조각을 놓고 두드렸으며 이 기념일이 고유한 풍속이 되었다.

이 에르게네콘 서사시는 돌궐족(투르크족)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신화이다. 이야기를 실제 역사적 사실에 빗대보면 그 정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투르크족이 산지로 후퇴해 450년 동안 아바르(Avar)족의 지배하에 대장장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독립에 성공한다. 산을 녹여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갔다는 내용도 역사서 기술과 유사하다. 에르게네콘에서 탈출해 나온 날 역시 튀르키예력에서 새해 첫 달로 인정하고 있고, 3월 21일에는 철을 녹여 불을 던지는 종교행사도 병행하는데 노브루즈(Nevruz) 축제에서 이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르게네콘

● 다국어 표기 Ergenekon Destanı(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narlı Nihad Sami, *Resimli Türk Edebiyatı Tarihi I*, Milli Eğitim Basımevi, İstanbul, 1983.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 Türk Tarih Kurumu Yayın, Ankara, 1971.

Özkan İsa, “Ergenekon Destanı Hakkında”, *Türk Yurdu Dergisi*, C.29, s.256 Eylül, 2009.

Turan Metin, *Türk Halk Edebiyatı*, Anadolu Üniversitesi, Eskişehir, 1998.

Sakaoğlu Saim, Duymaz Ali, *İslamiyet Öncesi Türk Destanları*, 7. Basım, Ötüken Yayınları, İstanbul, 2012.

I F008 | 에르긴 권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ERGIN Günçe

튀르키예의 유명한 현대 시인 에르긴 권체(M. Ergin Günçe)는 1938년 2월 기레순에서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는 ‘에디르네(Edirne)’로 되어 있다. 그는 철학교사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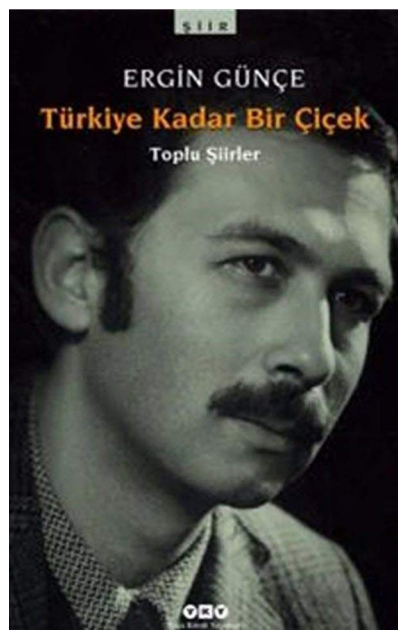
사인 어머니의 잦은 전근으로 인해 아나톨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다. 1959년 이스탄불 남자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후 앙카라대학교 정치학부에 입학했으며, 1964년 런던 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시절인 1961년 그는 제말 쉬레야(Cemal Süreya)와 함께 문예지 <파피루스(Papirüs)>를 창간했다. 이 저널은 단 4회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그가 문단에 이름을 알린 문예지로 기억되고 있다. 이후 그는 1964년 첫 번째 단행본 「청년의 죽음(Genç Ölmek)」을 출간했으며, 1967년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휴학을 결정했고, 결국 1972년 이스탄불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독일에 머물렀던 그는 1980년부터 중동공과대학교(METU)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1971년 3월 12일 군사 쿠데타(12 Mart Muhtırası)가 발생했을 때 일명 ‘쇠망치 작전(Balyoz Harekâtı)’ 사건으로 구금되기도 했는데,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그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우여곡절을 겪어낸 후인 1988년에야 비로소 그는 잡지에 실렸던 시 「청년의 죽음(Genç Ölmek)」이 포함된 시집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시를 포함한 모든 문학작품에도 수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어린 나이부터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학 방정식을 확립했다. 그는 문학 이외에도 다른 과목에도 늘 다방면으로 관심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겨드랑이에 노트 3권을 항상 끼고 다녔을 정도로 여러 과목에 대한 학구열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 노트 3권 중 한권은 시, 다른 하나는 영어, 나머지 노트는 프랑스어였다. 그는 시의 첫 행과 마지막 마무리 행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했다.

시는 이제 권총이 되었다



에르긴 귄체 시집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날짜를 여기에 남겨보자
단어와 마스터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랑은 떠나가고 다른 성(城)이 남았다

장미는 장미이다. 장미도 웃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

(*튀르키예어: 장미=gül/ 웃다=Gülmek, 두 단어의 여간이 같다.)

이 시에 사용한 은유에서 그의 언어적 유희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도 알 수 있다. 그는 유머를 지성의 한 요소로 생각했고, 어리석음도 유머의 도구이고 원리라고 생각해 수학화하려고 시도했다. 1970년대는 그가 한참 작품 발표에 몰입하던 시기였다. 그는 잡지 <새로운 A(Yeni A)> 1972년 12월 호에 수필 「원주율과 자유(Pi Sayısı ve Özgürlük)」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도 수학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정형화된 언어와 문화적 표현, 격언과 속담에 의문을 제기했다. 역사 의식 또한 원주율이라는 수학적 계산(hesaba)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그는 ‘본질(özü)과 어휘(sözü)의 근원은 생각이다. 나는 생각의 산물인 지식과 감정으로 만든 사실주의 예술과 문학을 보여주고 싶었다. 각종 슬로건과 기존에 존재하는 ‘원주율’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열정과 천재성을 불사르지 못한 채 1983년 1월 16일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르긴 귤체

● 다국어 표기 ERGIN GUNCE(영어), Ergin Günç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çe Ergin, *Gencölmek*, Dost Yayınları, Ankara, 1964.

Günçe Ergin, “Pi Sayısı ve Özgürlük”, *Yeni a Dergisi*, Sayı: 7, Ekim, 1972.

Günçe Ergin, *Türkiye Kadar Bir Çiçek*, Can Yayınları, İstanbul, 1988.

Özyalçiner Adanan, “Onun Başlattığı Şarkı Sonsuzca Sürecektir”, *Cumhuriyet*, 25 Ocak, 1983.

I F009 | 에르더나비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rdonabiy

‘에르더나비이’는 1720년 히바 칸국의 칸이었던 ‘압두라힘비이’(Abdurahimbiy, 재위: 1721년~1733년)의 아들이자 ‘압둘카림비이’(Abdulkarimbiy, 1733년~1750년)의 조카로 태어났다. 1751년 그는 전대 칸이었던 ‘압두력흐먼 버티르’(Abdurokhmon-Botir, 재위: 1750년)와 그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제위에 올랐다. 당시 ‘압두력흐먼 버티르’의 가족 중 유일하게 아들 나르보타비이(Norbo‘tabiy, 재위: 1763년~1798년)가 마침 할머니를 방문했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752년 ‘버버베크’(Bobobek, 재위: 1752년~1753년)에 의해 잠시 제위를 탈취당했다. 약 10개월간 ‘버버베크’가 통치하다가 에르더나비이가 그다음 해인 1753년부터 비로소 자리를 되찾았다.

즉위 후 ‘에르도나비이’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1754년 우라테페(Ura-tepe)로 진격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 코칸트로 잠시 후퇴했던 그는 1758년에야 정복에 성공한다. 같은 해 다른 지역에서는 외국의 침략도 일어나고 있었다. 1758년 중국 청나라가 중가르 국을 멸망시킨 후 페르가나 지역까지 진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에르더나비이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두라니 제국을 통치하던 ‘아흐마드 샤 두라니’(Ahmad Shah Durrani, 재위: 1747년~1772년)를 비롯해 키르기스, 후잔드, 우라테페와 함께 반(反)청 동맹을 맺었다. 훗날 이 동맹은 실패했다고 평가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나라가 타슈켄트, 사이람(Sayram), 수자크(Suzak), 투르키스탄까지 영토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막아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6년 뒤인 1764년 에르더나비이는 사망했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딸만 다섯이었기 때문에 제위는 마르길란(Marghilan)의 통치자이자 셔디비이(Shodibiy)의 아들이었던 ‘술라이먼’(Sulaymon, 재위: 1770년)에게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 역시 3개월 만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르다나 베이, 압둘카움한, 이르다나 칸

- 다국어 표기 Erdonabiy(우즈베크어), İrdana Bey(튀르키예어), İrdana Khan(영어)
- 연관 검색어 아브두라힘비이, 나르보타비이, 코칸드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1~82.
Dubovitskii, Victor.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I F010 | 에르 소고토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서사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r Sogotoh

사하의 야쿠트인들의 영웅서사시 ‘에르 소고토흐’는 야쿠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에르 소고토흐(Эрсоготох)의 이야기이다. 이 영웅서사시는 구전되는 판본에 따라 디테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야쿠트인들을 위협하는 악마(악령)와 싸워 이겨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에르 소고토흐의 내용은 1996년에 카라타에바(V.O.Karataeva)가 정리한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시르 사브으 바아이 토온(Сир Сабыы Баай Тойон)과 사브으 바아이 호툼(Сабыы Баай Хотун)이라는 늙은 부부가 기도 끝에 사내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진다. 늙은 부부가 슬퍼하며 당황할 때 신의 사자 아이으 차르글 우다간(Айыы Чаргыл Удаган)이 나타난다. 그는 아이를 천계로 데려갔으며, 에르 소고토흐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한다. 어느 날 마왕의 부하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Таас Чантаар Дара Буурай)가 노부부 앞에 나타나 아이를 신들이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에르 소고토흐는 어느 날 노부부 앞에 다시 나타난다. 에르 소고토흐는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와 싸우게 되고, 그를 뒤쫓아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에르 소고토흐는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가 잘 때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가 깨어난다.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는 에르 소고토흐의 운명의 여인인 투날르칸 쿠오(Туналыкан Куо)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었다.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는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 운명의 여인을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에르 소고토흐는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를 죽이지 못하고 지상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에르 소고토흐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지만, 어느 날 갑옷을 입지 않고 사냥을 하다가 번개에 맞아 죽는다. 투날르칸 쿠오가 그의 아들을 낳고 어느 날 사라진다. 아이도 어느 날 사라진다. 에르 소고토흐의 부모는 다시 한번 신의 사자를 맞이하는데, 손자도 천계로 신들이 데려갔다고 말한다. 에르 소고토흐의 아들 케무스 크룩타이(Көмүс Кыбыржытай)는 어느 날 지상으로 돌아와 그의 아버지처럼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의 뒤를 쫓아 지하로 내려간다.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에게 납치된 어머니를 구하고, 그와 싸워 이겨 지상으로 돌아온다. 케무스 크룩타이는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 생명의 수호자 아안 알라흔 호툰(Аан Алахын Хотун)에게서 얻은 불사의 물을 뿌린다. 에르 소고토흐는 이렇게 부활한다. 케무스 크룩타이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다시 지하 세계로 내려가 타아스 찬타아르 다라 부우라이를 죽이고 지상을 돌아온다. 케무스 크룩타이는 신의 사자로부터 테멜리케엔 쿠오(Тэмэликээн Куо)라는 여성이 그의 운명의 연인으로 점지되었다고 듣는다. 이에 케무스 크룩타이는 테멜리케엔 쿠오를 찾아 모험을 떠나고, 그녀를 찾아 결혼한다.

행복하게 살던 에르 소고토흐 가족은 어느 날 다시 투날르칸 쿠오를 잃어버리고, 그녀를 찾아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그녀를 찾고 사랑을 나누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진짜 아내가 아니고 악마(абааны)가 가족을 바꿔입고, 그를 속였음을 깨닫는다. 에르 소고토흐를 속인 악마 우옷 출보다이(Уот Чолбодай)는 에르 소고토흐의 아이를 임신한다. 우옷 출보다이는 자신의 형제인 우옷 우르발촌(Уот Урбалчын)이 그의 아내를 데려갔으며, 자신처럼 임신한 여자와 싸우는 대신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말한다. 에르 소고토흐는 우옷 우르발촌과 싸워 이기고 아내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악마가 납치했고 아들도 그녀를 구하러 떠났던 것이다. 에르 소고토흐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 우옷 출보다이가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에르 소고토흐는 아들 하르아슬라안 베르겐(Харыасылаан Бэргэн)에게 장남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하르아슬라안 베르겐은 장남

과 형수를 구해 지상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하르아슬라안 베르겐은 천계의 신에게 불려가는데 신에게서 크으으스 사르아드만 쿠오(Кыыс Сарыадыман Куо)라는 여인이 그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크으스 사르아드만 쿠오도 악마 타아스 쿠두스타이(Таас Кудустай)에게 납치당했기에 그녀를 찾아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하르아슬라안 베르겐의 앞에 나타난 어머니 우옷 출보다이가 나타나 타아스 투두스타이는 심장을 산 밑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하르아슬라안 베르겐은 그 말을 믿지 않고 타아스 쿠두스타이와 싸운다. 오랫동안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아서 3년간의 휴전을 선언한다. 하르아슬라안 베르겐은 타아스 쿠두스타이의 심장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바다의 정령 오이돔 수우론(Ойдом Суорун)의 도움을 받아 타아스 쿠두스타이의 심장을 찾는다. 결국 하르아슬라안 베르겐은 휴전 기간이 끝나자 타아스 쿠두스타이와 다시 싸우고 아내를 구출한다. 이후에 이들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르 소오토흐, 에르 소고토그

● 다국어 표기 Эрсоғотох(아쿠트어), Er-Soğotoh(튀르키예어), Er-Sogotox(아제르바이잔어), Er-Sog'otox(우즈베크어), Er-Cogotox(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올롱호

● 참고문헌(오프라인) Fatih Kirişçiöğlü, “Er-Soğotoh Destanının Kurgusu”, *Çağdaş Türklük Araştırmaları Sempozyumu*, Türkiye, 27 Kasım 2007 - 30 Kasım 2017.

Vasilyev Yuriy, Fatih Kirişçiöğlü, Gülsüm Killi, *Saha(Yakut) Halk Edebiyatı Örnekleri*, Ankara: Türk Dil Kurumu, 1996.

I F011 | 에르주름 대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rzurum Great Mosque

에르주름 대 모스크는 아타베이 모스크(Atabey Camii) 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스크에 남은 석문에 따르면, 살투루 베이릭(공국)의 ‘에미르 이젯딘 살투크’(Emîr İzzeddin Saltuk, 재



에르주름 대 모스크

위: 1145년~1174년)의 아들 ‘멜릭 나스뤼딘 무함메드’(Melik Nâsrüddin Muhammed, 재위: 1174년~1185년)가 1179년도에 ‘에빌 페트흐 메흐메드’(Ebü'l-Feth Mehmed)에게 명해 건축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모스크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원형은 키블라 벽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수리 및 복구공사를 걸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모스크는 가로로 긴 형태이며 주재료는 석재이다. 내부는 45mx45m의 크기로 7개의 중랑과 6개의 경간 구획으로 나뉘어 있다. 건물 내부에는 28개의 기둥이 있다. 천장은 돔과 볼트로 처리되어 있으며 동쪽에 있는 키블라 벽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북쪽 정문에서 남쪽의 미흐랍까지 이어지는 중랑은 다른 곳보다 더 넓다. 기록에 의하면 원형은 목재 및 평천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건물의 북쪽과 동쪽 면에 각각 2개의 입구가 있다. 북쪽 가운데 문은 건물 내의 가운데 중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첨두아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복문은 작은 기둥 형태의 장식으로 인해 대문으로 인지되며 대문의 상단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이 모스크에는 중정과 주랑 현관이 없어 입구에서 바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흐랍은 정사각형 형태로 밖으로 약간 돌출된 형태이며 상단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미흐랍 주변부는 넓은 띠로 둘러싸여 있고, 다시 이 부분은 아치 형태의 벽감으로 둘러져 있다. 미흐랍 양옆에는 두 개의 벽감이 더 존재한다. 이 부분이 살투루 시대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미흐랍 옆에 위치한 민바르도 새로 만든 것이다. 특이한 점은 미흐랍 벽을 상단에 위치한 천장이 '클랑그츠 쿵베(kırlangıç kubbe: 목제나 기타 자재의 끝을 교차하여 쌓아 올린 지붕)로 처리되어 있다. 자재를 교대로 쌓아 올려 만들어진 이 천장은 육각형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천장 형태가 원형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수리와 복원 과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부분은 돔과 배럴 볼트로 처리했다. 내부도 석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식은 거의 없다. 창문은 대체로 바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보이나 내부에서는 첨두아치 형태로 보인다. 모스크의 북서쪽에 솟은 미너렛은 석재 밑받침 위에 벽돌로 둥글게 쌓아 올렸다. 그리고 1971년 보수 공사 시 무카르나스 지지대가 있는 발코니를 만들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보수와 공사를 거치며 에르주рум 대 모스크의 초창기 형태는 현재까지 전해오지는 않으나 그 존재 자체로 살투루 시대에 남은 두 개의 모스크 중 하나로 당대의 미흐랍을 중심으로 한 건축 인식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르주룸

● 다국어 표기 Erzurum Ulu Cami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에르주рум 대 모스크_외부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SehirRehberi//GezilecekYer/20161205150748586_ERZURUM%20ULU%20CAMII%200450.JPG?format=jpg&quality=50

에르주рум 대 모스크_내부

https://www.kulturportali.gov.tr/contents/images/20161205150816432_ERZURUM%20Ulu%20Camii%200259.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1951>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mağaralı, Halit. "Erzurum Ulu Camii", *AÜİlâhiyat Fakültesi Yıllık Araştırmalar Dergisi*, III, Ankara 1981, pp.137~1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pevi, 1997.

Uluçam, Abüsselam. "Uluçamii, Erzurum", *TDVİsâm Ansiklopedisi*cilt 42, Istanbul: TDV, 2012, pp.101~102.

I F012 | 에르킨 버히더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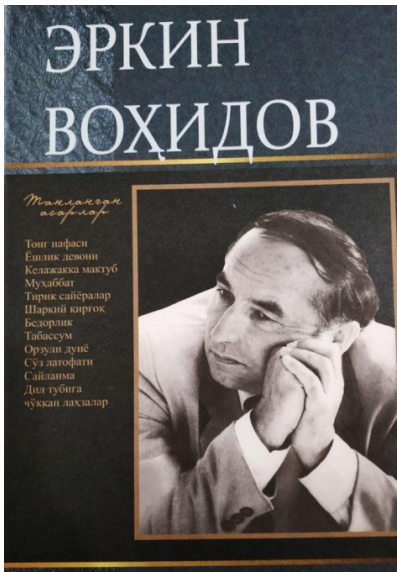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Erkin Vohidov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 에르킨 버히더브(Erkin Vohidov)는 1936년 페르가나 올티아리크(Fergana Oltiariq)에서 태어났다. 1960년에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어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젊은 수호단(Yosh gvardiya)>과 가푸르 굴롬(Gafur Gulom) 문학예술 출판사 및 <청춘(Yoshlik)> 잡지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나비이(Navoiy), 푸줄리(Fuzuli), 알렉산드르 푸시킨(Alexander Pushkin), 세르게이 예세닌(Sergei Yesenin), 하미드 올림전(Hamid Olimjon), 가이라티이(G'ayratii) 등의 작가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의 대표 시집은 『새벽의 숨결(Tong nafasi, 1961)』, 『정신과 마음(Aql va yurak, 1963)』, 『나의 별(Mening yulduzim, 1964)』, 『틀립 나들이(Lola sayli)』, 『젊음아, 와줘(Yoshligim, kel)』, 『모든 행복 너에게 가길(Barcha shodlik senga bolsin)』, 『쉬린(Shirin)』, 『친구와 집이 편안해진다(Do'st bilan obod uying)』, 『위대한 생명의 아침(Buyuk hayot tongi, 1960년)』, 『꿈의 샘물(Orzular chashmasi)』, 『외침(Nido, 1964년)』, 『텐트에 적성된 서사시(Palatkada yozilgan doston, 1966)』, 『벨벳(Baxmal, 1974)』, 『유령들의 반란(Ruhlar isyoni, 1979)』 등이 있다.

에르킨 버히더브(Erkin Vohidov)는 사실주의 적품과 서정시 등 다양한 시를 썼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근면, 인본주의, 애국심, 친절, 관대함으로 우즈베크인들의 이미지를 그려내고자 했다. 특히 『나의 우즈베크(O'zbekim)』, 『사랑과 충정담(Muhabbatnoma, Sadoqatnoma)』에는 우즈베크인들의 일상과 기쁨, 슬픔, 불안, 고난, 꿈, 욕망 등 다양한 감정들이 묘사되어 있다.



에르킨 버히더브 선집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img_knigi/5572.jpg

에르킨 버히더브(Erkin Vohidov)는 극작가로서도 다양한 희곡을 집필했다. 대표작으로 「황금 벽(Oltin devor, 1970)」, 「이스탄불의 재앙(Istanbul fojiasi, 1985)」등이 있다.

더불어 그는 아부 알리 이븐 시노(Abu Ali ibn Sino), 허피즈 셰로지이(Hofiz Sheroziy), 베딜(Bedil), 프리드리히 폰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알렉산드르 푸시킨(Alexander Pushkin), 세르게이 예세닌(Sergei Yesenin), 알렉산드르 블로크(A. Blok), 미카일 세베트로브(Mikhail Svetlov), 알렉산드르 트바르도프스키 (Aleksandr Tvardovsky), 실바 카푸티칸(Silva Kaputikyan), 말리스코(A. Malyshko), 라술 감자토프(Rasul Gamzatov)와 같은 시인들의 작품들을 다수 번역

했다.

에르킨 버히더브(Erkin Vohidov)의 작품들은 1960년대부터 줄곧 문학비평가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시집 『동부 해안(Sharqiy qirg'oq)』으로 1983년 함자(Hamza) 우즈베키스탄 국가 상 및 명예 훈장(Hurmat belgisi)을 받았다.

그는 2016년 5월 30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르킨 바히도프, 엘킨 바히도프, 엘킨 와히도프, 엘킨 워히도프
- 다국어 표기 Erkin Vohidov(우즈베크어), Эркин Вахид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함자, 이스탄불, 타슈켄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kun.uz/uz/96125763?utm_source=uznet.press&utm_campaign=topic#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va boshqalar,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Toshkent: O'qituvchi, 1995. .
- Mirzayev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I F013 | 에르킨 사만다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Erkin Sama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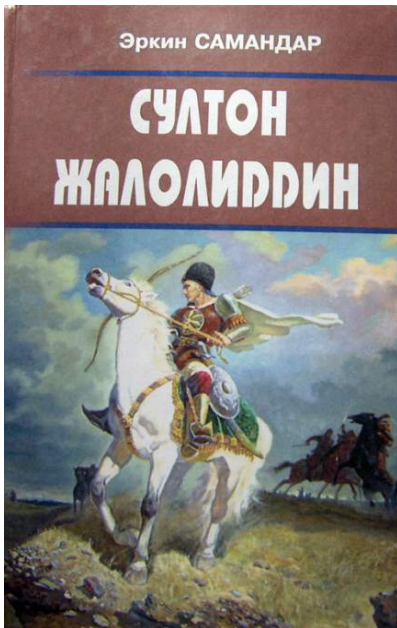
에르킨 사만다르(Erkin Samandar)는 1935년 호라즘 현카(Xonqa) 지역나브허스(Navxos) 마을에서 평범한 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957년 호라즘 국립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알렉산드르 푸쉬킨 이름을 딴 언어문학 연구소(현 알리셰르 나보이 언어문학 연구소)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그 후 호라즘 주 지방 신문 <호라즘의 사실(Xorazm haqiqati)>에서 일하게 된 그는 1977년에 편집장까지 승진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청년(Yoshlik)에서 문학 및 드라마 담당자로 일하기도 했으며, 그가 문학에 입문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다. 그는 첫 시집 『아무의 광택(Amu jilolari)』을 1966년에 출간했다. 이후 1970년에는 『하늘은 빛으로 가득하다(Osmon to'la nur)』와 『세계의 젊음(Dunyoning yoshligi)』을 출간하면서 꾸준히 창작을 이어갔다. 1973년에는 『사랑의 계절(Sevgi fasllari)』과 『새벽의 여유로움(Шедпрость рассвета)』, 1975년에는 『충정이라는 진주(Vafo degan gavhar)』, 1979년에는 『나의 청년 시절(Mening yigit vaqtim)』, 1980년에는 『접수 시간(Qabul soatlari)』, 1982년에는 『해변가 아이들(Sohildagi bolalar)』,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Yablonya vo dvore)』, 1984년에는 『봄밤(Bahor oqshomlari)』을 발표했다.

그의 시는 대부분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사랑, 충성, 선량함, 노동과 생활고, 꿈과 불안 등을 다루었으며, 인간의 내면 깊숙히 내재돼 있는 영적 뿌리를 발견하려는 열망을 담았다.

그 밖에도 『연인들의 도시(Sevishganlar shahri)』, 『위원(Komissar)』, 『자유의 목소리(Erk sadolari)』, 『조상의 검(Ajdodlar qilichi)』 등 서사시도 창작했다. 에르킨 사만다르는 극작가이자 소설가이기도 했다. 희곡 『다이아몬드(Javohir)』, 『조상의 검(Ajdodlar qilichi)』, 『사과가 익을 때 오세요(Oлма pishganda keling)』는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상연되는 작품이다.

1989년에 출간한 첫 소설 『신의 우물(Tangri qudugi)』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설들이 세상



『술턴 잘랄리딘(Sulton Jaloliddin)』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img_knigi/527.jpg

에 나왔다. 같은 해에 출간된 『우물 바닥에서 나오는 소리 (Quduq tubidan sadolar)』, 역사 소설 『물이 사라진 강가 (Daryosini yo‘qotgan qirgoq)』 역시 소설가로서의 그의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이 사라진 강가(Daryosini yo‘qotgan qirgoq)』에서는 아랄해의 비극과 정신적 빈곤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아랄해 고갈의 원인과 결과를 고발하고, 사랑과 악(惡)의 투쟁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악이나 배신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외에도 2000년에는 『파흘라번 마흐무트 푸르요이발리(Pahlavon Mahmud Puryoyvaliy)』, 2007년 『술턴 잘랄리딘(Sulton Jaloliddin)』, 2009년 『폭풍의 얼굴들 또는 어가히(Qyuyun yuzlari yoxud Ogahiy)』를 비롯하여, 2011년에는 단편소설집 『서방에서 날아오는 새들(G‘arb qushlari)』를 출간했다.

『술턴 잘랄리딘(Sulton Jaloliddin)』 표지

에ркин самандар는 『레닌은 호라즘에서(Lenin Xorazmda)』와 『연인들의 도시』로 공화당 청년상을 받았으며, 1990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명예 기자 칭호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가진 언론인이었으며, 동시에 사회평론가, 시인, 극작가, 소설가였다. 그는 소비에트 시대 우즈베크 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킨 사만다르
- 다국어 표기 Erkin Samandar(우즈베크어), Эркин Самандар(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Samandar Erkin, *Sulton Jaloliddin*. Toshkent: Sharq, 2007.

I F014 | 에르킨 아잠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Erkin A'zam

에르킨 아잠(Erkin A'zam)은 1950년 수르헌다리요(Surxondaryo) 주 보이순(Boysun) 지역에서 태어났다. 1967년 타슈켄트 국립 대학교 언론 학부에 입학하여 1972년 졸업했다. 졸업 후 그는 1972년~1976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라디오에서 편집자로 일했으며, 1976년~1981년에는 잡지 <굴리스턴(Guliston)>에서 편집자 및 문학 담당 비서로 근무했다. 그리고 1981년~1986년에는 잡지 <청춘(Yoshlik)>에서 일했고, 에르킨 버히더브(Erkin Vohidov, 1936년~2017년)의 지도하에 문예지의 발전과 새로운 구독자를 찾는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산문을 집필하던 작가로서 자신의 창작을 위해 힘쓰면서도 재능 있는 새로운 예술가 발굴과 그들을 작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1986년~1992년에는 가푸르 굴럼 문학예술 출판사에서 기획한 문학 시리즈 편집책임자가 되었고, 우즈베키스탄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선집을 출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1980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회원이 되었으며, 1992년 5월 우즈베키스탄 국가 정보원 초대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1994년 7월부터는 문예지 <사유(Tafakkur)>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199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명예 기자>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1994년~200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학창 시절 지역신문에 작품을 기고하기도 했으나, 더 나은 작품을 위하여 대학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 1977년에 이르러서야 단편집 『불이 꺼지지 않은 밤(Chiroqdar o'chmagan kecha)』을 출판했다. 이 책은 우즈베키스탄의 재능있는 새로운 작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청춘과 대학 시절 경험을 진솔하게 묘사했으며, 거침없는 이야기 스타일로 독자를 매료시켰다. 그리고 1981년에 출판된 단편집 『어타이가 태어난 해(Otoyining tug'ilgan yili)』에서는 독자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는 작품 속에서 서정적인 스타일로 생동감 있고 유머러스한 표현을 마음껏 표현해냈다.

1984년 『세계는 녹색이다(Olam yamyashil)』, 1987년 『대답(Javob)』, 1989년 『휴일 이외

의 날(Bayramdan boshqa kunlar)』, 1989년 『세상은 꽃으로 가득하다(Mir v tsvetax)』와 같은 작품들이 차례로 출판되면서 그는 동시대인의 삶과 그들의 도덕성, 신앙, 의무, 인간관계를 예술적인 스타일로 표현한 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후 에르킨 아잠의 작품은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카자흐어, 타지크어, 투르크멘어, 그루지야어, 불가리아어 및 체코어로 번역되었으며 에르킨 아잠 본인도 여러 외국 작가의 작품을 러시아어에서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1982년 그는 공화국 청소년연맹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공로훈장을 받았다. 그의 작품 『아내의 자이다리 사과(Anoyining jaydari olmasi)』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이 외에도 다수가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에르킨 아잠은 지금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앨킨 아잠

● 다국어 표기 Erkin A'zam(우즈베크어), Эркин Арзам(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m.kun.uz/news/2020/08/27/prezident-mustaqillik-bayrami-arafasida-ijtimoiy-sohadan-166-kishini-mukofotladi-royxat>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Rasulov A., *Uslub - iste'dod portreti Erkin A'zam ijodi*, Toshkent: Yangi asr avlodi, 2013.

I F015 | 에르투으룰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Ertuğrul

‘에르투으룰’(이슬람력 680/서력 1281년~1282년)은 오스만 왕조의 개창자 ‘오스만 1세’의 아버지의 이름이라 전해지는데 그의 삶에 대한 전승은 불확실하고 전설적인 부분이 많아서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원래 오스만 왕조의 역사서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편찬되기 시작한데다 다양한 연대기들의 기사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왕조 개창 이전의 역사

는 매우 불분명하고 혼란스럽다. 특히 ‘에르투으를’에 대한 기록은 주로 오스만 연대기에만 등장하고 그가 살았던 동시대의 비잔티움이나 이슬람권 사료에는 나오지 않으며 14세기 ‘이븐 파즐룰라 알 우마리’ 혹은 ‘이븐 바투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유추해보면 비록 오스만 연대기에서 그가 룸 셀주크의 ‘술탄 알라엠티딘 케이쿠바드’를 보좌하여 몽골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데르비쉬 메흐메드가 그린 에르투으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또한 여러 오스만 연대기 사이에서도 ‘에르투으를’의 아버지 이름이 ‘권뒤즈 알프’라는 설과 ‘실레이만 샤’라는 설 두 가지가 있을 정도로 출신이 불분명하다. 유추해보면 오스만 1세 당시의 동전에 ‘권뒤즈 알프의 아들 에르투으를의 아들 오스만’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권뒤즈 알프’설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확실한 것은 그와 그의 조상들이 몽골의 침입에 쫓겨 동쪽으로부터 서부 아나톨리아로 이주해와서 정착했다는 것 정도이며, 흔히 오우즈 계열의 카이으 부족 출신일 것이란 점이다. 19세기 후반 오스만 무슬림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이 점은 중요시되었고 ‘부르사 율라예트’의 한 산작 이름도 ‘에르투으를’이라고 짓게 되었다.

현재 쇠위트(Söğüt) 바로 가까이에 있는 영묘가 그의 묘라고 알려져 있고 참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1863년에 진수되어 일본의 와카야마 현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한 군함 이름도 ‘에르투으를’이라고 지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르투으를
- 다국어 표기 Ertuğru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V. L. Menage, “Ertoghrl”,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2, pp.710~711.
Fahmett'n Başar, “Ertuğrul Gazi,” *TDV İslam Asniklopedisi*, Vol. 11 , pp.314~315.

I F016 | 에를릭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Erlik

‘에를릭’은 사안-알타이계 투르크 민족과 몽골계 민족의 신화에 나오는 죽은 자의 세계, 저승의 최고 재판관, 악마, 조물주 또는 조물주에 의해 처음 창조된 존재이다. 에를릭은 에를릭-칸, 에를렌-칸(부랴트), 에를릭 노문-칸(몽골), 에를릭 노민-칸(칼미키야), 에를릭 로분-한(투바), 이를릭(하카스) 등으로 불리며, 에르릭이란 이름은 고대 위구르의 에르클리그 ‘카칸’(Эрклиг каган 강력한 지도자)에서 기원한다. 그중 ‘노문-칸’이란 수식어는 몽골의 ‘법왕’(法王), ‘신왕’(信王)에서 유래했다.

불교 전설에 따르면 에를릭은 먼 옛날 성자의 반열에 오른 수도승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획득했으나 모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목이 잘린 에를릭이 머리가 없는 채로 살아남아 황소의 머리를 목에 얹고는 무시무시한 파괴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죽음의 신 ‘야만다그’(Ямантака, 대위덕금강)가 그를 길들여 지하로 내려보내어 에를릭은 저승의 통치자이자 재판관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처럼 서로 대립하기는 했지만 에를릭과 야만다그는 서로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으며 몽골에서는 이 둘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별칭으로 에를릭을 불교 나락의 지배자인 염라대왕(Яма)으로 부르기도 한다. 염라는 불화(佛畵)에서 황소 뿔이 달린 머리에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세 개의 눈과 불꽃이 이는 혀를 가진 존재로 뇌신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묘사된다. 또한 해골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해골로 장식된 지팡이와 영혼을 낚아채기 위한 올가미, 그리고 칼과 보석으로 장식된 부적을 쥐고 있다. 그리고 저승의 지도자로서 에를릭의 징표 또한 저울과 명부, 죄인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보통 에를릭의 왕국은 지하에 있지만 때로는 이승의 어느 곳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칼미키야’의 경우) 이때 저승은 다른 차원처럼 여겨질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투바 미신에 따르면 에를릭은 천신에 포함되며 ‘탱그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대 투르크 문헌에서도 에를릭을 천신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에를릭이 창조주의 기능을 하는 것과 연관성

이 있다. 알타이 미신에서 에를릭은 예로부터 있었던 시초의 정령들에 속한다. 여기서 에를릭은 ‘아버지’나 ‘인간’으로 불리는 노인이다. 또 그는 ‘울겐’의 형제이며 울겐을 도와 인간 세계 창조를 돕지만,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울겐이 모르게 인간에게 영혼을 주고,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을 취한다. 울겐이 ‘밝은’ 인간을 창조한다면 에를릭은 ‘어두운’ 인간을 창조한다. 울겐의 저주를 받은 에를릭은 지하 세계로 추락한다. 처음에 그는 밤에 땅 밑에서 나와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남성을 죽이고 그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지만, 다시 울겐에 의해 지하로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에를릭은 망자의 영혼을 복종시키고 악을 행하기 위해 지상으로 보내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그는 피에 굶주려 피투성이의 붉은 음식을 먹고 피를 마시곤 한다.

그의 형상은 무릎까지 기른 수염, 흐트러진 머리카락, 검은색의 꼬인 콧수염, 검은 눈썹과 눈을 가진 거대한 키의 강력한 노인이다. 그는 검은 대머리 황소나 검은 경주마, 노가 없는 검은 배를 타고 채찍 대신 검은 뱀을 가지고 다닌다. 검은 진흙 또는 검은 쇠로 된 그의 궁전은 지하 바다 근처의 아홉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세워져 있다. 이 강 중 하나는 인간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아무도 거슬러 갈 수는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를리크, 에를리그

● 다국어 표기 Эрли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울겐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ербицкий,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and A. A. Ивановский. «Алтайские инородцы: сборник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статей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алтайского миссионера, протоиерея ВИ Вербицкого.», 1893, 43~45.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7, 667~668.

I F017 | 에미네 으슈은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Emine İşınsu



『내게서 나에게(Kendimden Kendime)』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에미네 으슈은수(Emine İşınsu)는 현대 튀르키예 문학에서 중요한 여성 작가이다. 그녀는 1938년 5월 17일 군인 아버지가 근무하던 카르스에서 태어났다. 앙카라 제베지 중학교, TED고등학교를 거쳐 앙카라대학교 영문학과에 잠시 다니다가 포기하고, 중동공과기술대학교(METU) 경영학과로 재입학했다. 이후 또다시 법대로 전과했다가 다시 앙카라대학교 철학과로 옮겼다. 하지만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고 말았다. 대학생활 포기는 곧바로 결혼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1959년 결혼해 첫 번째 결혼 생활을 10년 이어갔고, 이어 1972년에 재혼해 슬하에 자식을 세 명 두었다.

그녀는 메흐리케 아르다(Mehlike Arda), 제이넵 탄(Zeynep Tan), 누르 일레리(Nur İleri), 메흐리카 에르뎀(Mehlika Erdem), 에미네 아블라(Emine Abla), 괴닐 에르뎀(Gönül Erdem) 등 여러 필명을 사용했다.

뎀(Gönül Erdem) 등 여러 필명을 사용했다.

으슈은수의 집안은 문인을 여러 명 배출했다. 그녀의 이모 '이스멧 퀴르'(İsmet Kür)와 그녀의 딸 '프나르 퀴르'(Pinar Kür)는 튀르키예 문학사에 중요한 여성작가들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글을 쓰고 시를 창작했던 으슈은수는 TED고등학교 다닐 때도 '시인(şaire)'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녀가 첫 번째 시집 『두 가지 지점(İki Nokta)』을 발표한 것은 1956년이다. 이 시집에 실린 49편 시는 그녀의 청년기 방향과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훗날 그녀는 '당시는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글쓰기 외에도 출판계에서 활발하게 다양한 역할을 맡아온 으슈은수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잡지 <교육(Eğitim)>에서 편집장 경험을 쌓았다. 1962년~1965년에 그녀는 이르판 아타귄(İrfan Atagün), 갈리프 에르뎀(Galip Erdem), 에르귄 괴즈(Ergün Göz)와 함께 튀르키예 출판사에서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 시각을 가진 신문 <아침(Sabah)>을 창간했다. 이후에는 잡지 <성(城)(Hisar)>에는 여성 문제를 주제로 하는 글을 주로 발표했고, 투르크-이슬람 정체성과 반공산주의-민족주의의 성격의 저널 <관습(Töre)>에도 글을 기고했다.

그녀의 희곡 「심장이 팔렸다(Bir Yürek Satıldı, 1967)」, 「백만 개 바늘(Bir Milyon İğne, 1967)」, 「이름 없는 영웅들(Adsız Kahramanlar, 1975)」은 TRT 라디오 극으로, 또 희곡 「심장이 팔렸다(Bir Yürek Satıldı)」와 소설 「작은 세상(Küçük Dünya)」은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됐다.

사회 문제를 문화와 연결시키거나 역사적 인물에 대입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풀어 나간 작가 에미네 으슈은수는 문화부를 필두로 튀르키예 문학재단, 튀르키예 라디오 공영방송, 튀르키예 국립 문화재단, 튀르키예 작가협회 등 많은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

2021년 5월 5일 앙카라에서 숨을 거둔 에미네 으슈은수의 묘는 앙카라 필바쉬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미네 으시은수

● 다국어 표기 EMINE İSİNSU(영어), Emine İşıns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ytaş Gıyasettin, “Emine İşınsu’nun Tiyatroları”, *Töre*, Yıl: 1, Sayı: 1, s. 64, Şubat 2012.

Ercilasun Ahmet Bican, “Türk Romanı ve Emine İşınsu”, *Töre*, Yıl: 1, S.1 s.76~77, Şubat 2021.

İslâm Aşşenur, “Emine İşınsu’nun Sekiz Romanında Şahıslar Dünyası”, yayımlanmamış Doktora Tezi, Gazi Üniversitesi, Ankara, 1992.

Tuncer Hüseyin, “Emine İşınsu ile Söyleşi”, *Dil-Kültür-Edebiyat ve Sanat Penceresimizden*, Akademi Kitabevi Yayınları, İzmir, 2000.

I F018 | 에미르 바이인디르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mir Bayindir Mausoleum

튀르키예 아흘라트(Ahlat) 지방에 있는 에미르 바이인디르 영묘는 1481년 사망한 백양조의 아미르였던 ‘바이인디르 이븐 뤼스탐’(Bayindir ibn Rüstem)을 위하여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샤 셀리메 하툼(Sah Selime Hatun)이 후원자로 지정되어 있다. 1491년 완공된 이 영묘의 건축가는 해당 영묘의 비문에는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에미르 바이인디르 모스크(Emir Bayindir camii)의 석문에 건축가로 ‘바바잔 베이’(Baba Can Bey)가 언급되어 있어 같은 건축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영묘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반(半)개방, 반(半)폐쇄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6.37mx6.47m 넓이에 12면으로 이루어진 밑받침의 북동쪽 모서리에 계단이 있다. 동쪽 면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무덤방으로 내려갈 수 있으며, 배럴볼트로 덮인 무덤방의 동쪽 면, 서쪽 면 남쪽 면 중앙에는 총안이 있는 창문이 있다. 밑받침 위에는 가느다란 두 개의 양각 장식 띠로 밑받침과 원통형의 몸체를 연결하고 있다. 북쪽 면에 위치한 계단을 통하면 입구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영묘에서 가장 장식성이 돋보이는 부분이 입구의 양옆에 서 있는 벽인데 이 북쪽 면과 달리 남쪽 면은 기둥으로만 이루어져 개방형 공간이다. 남쪽 면은 절반 가량이 개방된 형태로 8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폐쇄된 북쪽 면 벽 양 끝에도 반기둥이 있다.

주두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으며, 각 기둥은 둥근 아치로 연결되어 있다. 기둥 받침대도 기하학 문양 및 덩굴 문양으로 장식한 패널이 있는 벽감으로 장식되었다. 입구 벽감 두 모서리에는 꼬인 문양으로 장식된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며 아치형의 입구 벽감 상단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입구 벽감 양옆에 있는 조금 낮은 높이에 좁은 형태로 된 벽감의 장식은 마름모꼴이다. 그리고 처마 아래쪽이 무카르나스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무카르나스 하단부에 코란 구절이 적혀 있는 비문이 존재한다. 지붕은 원뿔형으로 면은 단순하게 되어 있다.

영묘의 2층 키블라 벽면에 작은 미흐랍이 있기 때문에 영묘 윗부분은 기도 공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반 개방 반 폐쇄형 영묘는 투르크 미술사에 있어 보기 드문 예이다.



에미르 바이인디르 영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미르 바인디르 튀르베시, 에미르 바인디르 투르베시

● 다국어 표기 Emir Bayindir Türb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백양조

● 멀티미디어 링크 에미르 바인디르 영묘_그리고 모스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0402/original/IMG09043.jpg?1384711439

에미르 바인디르 영묘_서쪽 면과 정문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0403/original/IMG09044.jpg?1384711439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638>

<http://www.kulelimimarlik.com/tarihi-yapi-mimarlik-proje-bitlis-emir-bayindir-kumbeti>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Erken, Sabih. *Türkiye'de vakıf abideler ve eski eserler*, cilt.2, Ankara: Vakıflar Genel Müdürlüğü Yayınları, 1977.

I F019 | 에미르 살투크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mir Saltuk Mausoleum

에미르 살투크 영묘는 튀르키예 에르주름, 치프테, 미나렐리, 마드라사 남쪽에 위치한 네 개의 영묘 중 하나이다. 네 개의 영묘 중 에미르 살투크 영묘를 제외한 남은 세 개의 영묘의 이름은 없다. 또한 과거에는 영묘 근처에 묘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영묘는 투르크가 아나톨리아에 이주한 후 건설된 초창기 영묘 중 하나로 언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현재 붙여진 이름인 에미르 살투크 역시 인근에 위치한 살투크루 공국 시대(Saltuklular, 영문명: Saltukids)의 성 및 모스크와 양식 면에서 유사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연구자 대부분은 살투크 시대인 12세기 후반에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석재 양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14세기 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영묘의 몸체는 팔각형이고 몸체 면마다 몰딩을 이용하여 3층 형식으로 나뉘어 있다. 각 면 최상단부는 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몸체와 지붕을 이어주는 부분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팔각형의 몸체보다 약 50c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붕 바로 아래는 노끈 문양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지붕은 석재로 완만한 원뿔형 모양으로 중앙이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다. 영묘의 몸체는 두 가지 색상의 석재를 배치하여 장식했고, 몸체 각 면의 중앙에는 창문과 창문 형태의 벽감이 있다. 이 창문은 단순한 형태의 다각형의 주두를 가진 둥근 아치 형태이다. 창문은 동서남북 사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영묘의 입구는 북쪽 면에 있는데 둥근 아치 형태의 벽감에 몰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 주변부는 육각별 문양과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원통형 부분과 팔각형 몸체의 모서리가 닿는 부분은 삼각형 형태로 잘려있고, 이 주변을 둥근 아치로 마감했다. 이 삼각형과 아치가 만

들어낸 방사형 공간 안에 각기 다른 동물 문양과 식물 문양이 그려져 있다. 동물 문양은 한 쌍의 용과 박쥐로 추정되는 동물, 독수리, 토끼로 추정되는 동물, 황소 머리와 황소 뿔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 얼굴, 독수리 머리에 사람 몸을 가진 상상의 동물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문양은 투르크 달력의 12 동물 중 선별하여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 영묘 내부는 돔으로 덮여 있으며,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지하에는 배럴 볼트로 덮여 있는 직사각형 봉안당이 존재한다. 이 봉안당에 관이 있다.

이 영묘는 아나톨리아에 투르크가 건설한 최초의 영묘로 알려져 있을 만큼 오래되었으며, 영묘의 형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독특한 형태이다.



에미르 살투크 영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미르 살투크 쿰베티, 에미르 살투 쿰베티, 에미르 살투 투르베시, 에미르 살투 튀르베시
- 다국어 표기 Emîr Saltuk Kümbet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에미르 살투크 영묘_전체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9100/medium/ITH1760.jpg?1384690643
- 에미르 살투크 영묘_장식
<https://i0.wp.com/www.sanatiyolculugu.com/wp-content/uploads/2019/01/Erzurum-%C3%9C%C3%A7-K%C3%BCmbetler-Emir-Saltuk-K%C3%BCmbeti7.jpg?w=800&ssl=1>
- 참고문헌(오프라인) Denknalbant, Ayşe. “Üç kümbetele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Ankara: TDV, 2012, pp.276~2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Oluş, Arık. “Erken Devir Anadolu Türk Mimarisinde Türbe Biçimleri”, *Anadolu: Anatolia*, XI, Ankara, 1967. pp.57~100.

I F020 | 에민 모스크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min mosque

투르판의 중심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모스크는 1779년 투르판의 통치자 ‘아민 호자’(Emin Khoja, 1694년~1777년)를 기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 ‘슐레이만’(Suleyman)이 건설했다. 이 모스크의 미너렛은 중국에서 가장 큰 미너렛으로 모스크의 이름보다 미너렛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다. 그에 따라 에민 미너렛(Emin Minaret), 수공타(苏公塔) 모스크, 에민타(额敏塔) 모스크라고 칭하기도 한다.

원래 대형 요새형의 모스크는 도시 밖에 부속 건물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 모스크의 경우 진흙과 벽돌을 주재료로 지어 신장 지구 스타일의 다주식 건축 양식에 돌출된 높은 전면부와 미너렛 형식으로 건설되었다. 이는 이란과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면부는 모스크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치형 벽감으로 장식되어 있고, 모스크는 계단과 연결된 테라스로 둘러싸여 있다. 입구 주변은 역시 아치형의 벽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아이티카 모스크와 유사하다. 전면부 최상단에는 아치형 창문이 뚫려 있으며, 그 주변에 작은 갤러리를 형성하고 있다. 돔이 있는 팔각형 현관은 기도실로 연결되어 있다. 직사각형의 기도실 오른쪽에 위치한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왼쪽에 연결된 복도로 연결된 방에는 미너렛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모스크의 남동쪽에 있는 미너렛은 높이 44m, 하단부 지름은 14m 정도인데 최상단에 이르면 약 2.8m 가량 줄어든다. 이 미너렛이 15개의 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벽돌을 배치하여 장식했다. 기도실은 대부분 투르판 스타일로, 중정은 서까래와 석재 지지대가 있는 목제 기둥으로 떠받친 낮고 평평한 지붕으로 덮여 있다. 중정의 삼면은 석제 갤러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붕의 작은 두 개의 구멍에서 빛을 받아 실내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미흐랍은 키블라 벽 중앙에 돔이 있는 방에 위치해 있으며, 문은 양 갤러리와 중정을 통해 나 있다. 돔은 육중한 기둥 위에 위치한 첨두아치로 떠받쳐지고 있다. 내부는 벽돌로 된 벽에 아치형 벽감으로 단순하게 장식되었고 바닥은 석재로 만들어져 부분적으로 직물로 된 깔개가 깔려



에민 모스크

있다. 미흐랍이 있는 방은 커다란 원뿔형 돔으로 덮여 있으며, 드럼 부분은 창문이나 있다. 그리고 드럼은 블라인드 아치로 둘러싸인 팔각형 받침대 위에 있다. 서쪽 키블라 돔은 입구의 둥근 돔으로 인해 동쪽 기도실의 돔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키블라 벽 근처의 영묘는 외국 성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모스크는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1992년 중국 정부에 의해 폐쇄되어 지금까지도 기도객을 받지 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민 모스크, 에민 미나레트, 아민 미나레트
- 다국어 표기 苏公塔(중국어), 额敏塔(중국어), 苏公塔礼拜寺(중국어), نىمىن ۋاڭ مۇسىي(위구르어), Amin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드 카흐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에민 모스크 전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d/Turpan-minarete-emir-d01.jpg/1280px-Turpan-minarete-emir-d01.jpg>

에민 미나레트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d/Turpan-minarete-emir-d06.jpg/800px-Turpan-minarete-emir-d06.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4978>

● 참고문헌(오프라인) Qiu, Yulan. *Ancient Chinese Architecture: Islamic Buildings*(ed:Sun Dazhang), 1Vienna: Springer-Verlag, 2003

I F021 | 에민 오나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min Onat

‘에민 오나트’는 1908년 이스탄불의 공무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이스탄불의 전근대 형식의 초등학교(sıbyan mektebi)를 다녔고, 이후 중-고등학교는 새로 개장한 신식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1926년 훗날 이스탄불 공과대학교가 된 기술고등학교(Mühendis Mekteb-i Alisi)에 입학했다. 평범했던 중고교 시절과 달리 대학 입학 후 특출함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3학년 재학 중에 대학교는 후에 ‘에민 오나트’를 대학 교수직에 임용시키기 위해서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건축 학과에 유학을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토 루돌프 살비스베르그(Otto Rudolf Salvisberg, 1882년~1940년)에게서 사사받았다. 1933년 그는 하숙집 딸 힐다와 결혼을 했으며, 1934년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후 튀르키예로 돌아왔다.

1935년 27세에 기술고등학교의 부교수 겸 건축과 부학과장이 되었고, 1938년에는 정교수로 승진했고, 건축학과 학과장이 된다. 1942년~1943년에 그는 이을드즈 기술 대학교(Yıldız Teknik Üniversitesi)에 건축학과를 설립했다.



이stanbul 대학교 인문대 정문

귀국 후 다양한 건축물 설계를 맡았던 그는 1941년 튀르키예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년~1938년) 영묘 건축 설계 공모전에서 1등을 했다. 그는 동료 '오르한 아르다'(Orhan Arda, 1911년~2003년)와 함께 아타튀르크의 영묘인 아נט카비르(Anıtkabir, 앙카라 소재, 1942년~1953년)를 설계했는데, 이 영묘는 그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는 1946년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의 명예 회원이 되었으며, 1950년~1953년 이스탄불 공과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다. 1956년에는 하노버 공과 대학교(Hannover Technische Hochschule) 개교 125주년 기념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3년 국제 건축가 연합(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의 튀르키예 지부를 만들었으며 1961년 건축가 상공 회의소 제1회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해 7월 17일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다.

에민 오나트는 아נט카비르 외에도 여러 건축물을 설계했다. 귀국 초기에는 이스탄불 극예술 극장(Istanbul Tiyatro ve Konservatuarı, 이스탄불 소재, 1935년)과 같이 독일에서 배웠

던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기능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 건물을 설계했다. 이후로는 기능적이고 수평적인 초기 모더니즘 양식 건물을 설계했다. ‘에민 오나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아나톨리아반도의 전통 주택을 재해석하여 작품에 반영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케피르테페 향토연구소(Kepirtepe Köy Enstitüsü, 크르크랄레리 소재, 1941년~1942년)이다.

그는 이후 지속적으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을 건설하며 기능적이고 보편적인 건축 양식을 추구했다. 1961년 사망 전까지 그가 설계한 작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작품 목록

- 이을드즈 공과대학교[Yıldız Teknik Okulu Binası dönüşüm projeleri](1937년)
- 향토 연구소[Köy Enstitüleri Hamidiye와 Mahmudiye, Kepirtepe](1941년~1942년, Leman Tomsu와 공동작업)
- 빌라 마랄[Villa Maral], Göztepe, Istanbul(1941년)
- 아느트카비르[Anıtkabir](1942년~1953년, Orhan Arda와 공동작업)
- 에민 오나트의 집[Emin Onat Evi], Moda, Istanbul(1944년)
- 이스탄불대학교 인문대[Istanbul Üniversitesi Fen ve Edebiyat Fakültesi], Istanbul(1944년, Sedad Hakkı Eldem과 공동 작업),
- 앙카라대학교 과학대[Ankara Üniversitesi Fen Fakültesi], Ankara(1947년, Sedad Hakkı Eldem 과 공동작업),
- 이스탄불 법원[İstanbul Adalet Sarayı], Istanbul(1949년, Sedad Hakkı Eldem 과 공동작업)
- 주지사 관저[Vali Konağı], Bursa(1945년~1946년)
- 울루다으 요양원[Uludağ Sanatoryumu],Bursa(1946년, Leman Tomsu과 공동작업)
- 이아프 크레디 은행[Yapı Kredi Bankası], Bursa(1948년)
- 에민 오나트의 모친 자택[Emin Onat'ın Annesinin Evi], Istanbul.(1951년)
- 제납 안드 자택[Cenap And Evi], Kavaklıdere, Ankara(1952년)
- 대통령실 건물[Cumhurbaşkanlığı Sekreterlik Binası], Çankaya, Ankara(1953년)

- 아파트[Apartment] Taksim Mete Caddesi, Istanbul(1955년)
- 경찰청[Emniyet Sarayı], Ankara(1956년)
- 데브레스 오피스 빌딩[Devres İş Hanı], Gümüşsuyu, Istanbul(1961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민 오나트
- 다국어 표기 Emin Ona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너트 카비르, 제2차 민족 건축 양식
- 참고문헌(온라인) Arkitera 건축가 센터
<https://web.archive.org/web/20091130215518/http://arkiv.arkitera.com/m626-emin-onat.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Hasol, Doğan. *20. yüzyıl Türkiye Mimarlığı*, Istanbul : YEM Yayın, 2017.

I F022 | 에브도키아 옴도 니키티치나 쿨라가셰바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Evdokiya(Obdo) Nikitchna Kulagasheva

‘에브도키아 옴도 니키티치나 쿨라가셰바’는 하카스 영토의 아흐 티게이 키스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1896년 11월 20일 태어났다. 그녀는 투르크 샴어니즘 신화 민담꾼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하카스 전통문화 및 예술 분야에 있어서 유명한 인물로 남았다.

1932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소련의 부유층이라고 낙인 찍혀 이르쿠츠크 지역으로 추방된 적이 있다. 그들은 1956년이 되어서야 아바칸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이후 1960년~1970년대까지 민담꾼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민담, 영웅서사시를 채록하여 기록했다. 이후 그녀의 기록들은 하카스 구전문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퀸 사릭(Kün Sariğ)』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알튼 타이지(Altın Taycı)>, <쿤 사룩(Kün Sarğ)>은 하카스에서 발행된 레닌 출르(Lenin Çolu)에서 1970년대 연재된 적이 있다. 이 쿤 사룩 서사시는 하카스 사회학자 티무르 다브레토프(Timur B. Davletov)와 튀르키예 출신 민속학자 다투크헤트 오쿠탄 다브레토프(Nükhet Okutan Davletov)에 의해 2021년 최초로 하카스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녀는 1977년 10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브도카 옴도

● 다국어 표기 Evdokiya Nikitichna Kulagasheva / Евдокия Никитична Кулагашева(러시아어), Obdo Kulagasheva / Обдо Кулагашева(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ün Sarğ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 Yayına Hazırlayanlar ve Aktaranlar: Nükhet Okutan Davletov, Timur B. Davletov. Ankara: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2021.

Майногашева, В. Е. «Кулагашева Евдокия (Обдо) Никитична».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в Т. 1 (С. 324). Абакан: изда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I F023 | 에브루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최선아, 우덕찬
- 라틴 문자 Ebru

‘에브루’는 영어로는 보통 ‘마블링’이라고도 부르는 서책 예술의 한 장르이다. ‘에브루’라는 단어는 이란어의 ‘아브-루’(ab-ru: 물의 표면) 또는 차가타이어의 ‘에브레’(ebre: 물방울이 있는 종이)에서 유래했다.

에브루는 트래거캔스(나무 수액의 일종)이나 유사한 물질과 섞은 물 위에 말 털과 장미 나뭇가지로 만든 붓으로 오커를 뿌린 후 도구를 이용해 형태를 잡아 만든다. 그 후 종이를 물 위에 덮어 수면에 나타난 문양을 옮겨낸다. 전통적으로는 단독적인 예술보다는 주로 서책 제작에 있어 표지나 내지의 주변부를 꾸미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외에도 공식적인 초대장이나 중

요 공문서의 바탕 종이, 상자의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에브루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존재했던 마블링 아트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통해 이란을 거쳐 아나톨



책 표지를 장식한 에브루(17세기)
Source: <https://ich.unesco.org/img/photo/>

리아로 들어왔을 것이라고만 추정하고 있다. 16세기 미르 무함마드 타히르(Mir Muhammed Tahir)에 의해 인도에서 시작했다고 전해지지만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셀주크 시대와 오스만 초창기 시대의 서책에 사용된 에브루 작품은 후에 책을 정비하며 덧대어진 것으로, 대개의 에브루 작품은 정확한 연도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브루의 정확한 기원뿐만 아니라 작품의 연도 추정도 어렵다. 에브루에 대해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로는 1608년 또는 1595년에 작성된 『에브루 준비에 관한 작은 책(Tertib-i Risâle-i Ebrî)』이다. 이 책에서는 에브루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책 예술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에브루는 20세기 이후로는 기술의 발달로 유리나 도자기에 에브루를 구현하고 추상화 예술의 발달에 응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안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합성 안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색상이 구현된다. 에브루는 1인의 스승과 제자 관계 안에서 한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전승된다. 이들은 에브루 안에 전통문화는 물론 정체성, 생활까지 담겨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인지 에브루 예술가들은 연령, 성별, 인종이 다양하다.

역사적으로는 16세기 말~17세기 초 오스만 제국과 거래하던 유럽 상인들이 유럽으로 가져간 에브루가 서양 마블링 아트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에는 에브루를 두고 ‘마블링 종이’ ‘투르크 마블 종이’ 또는 ‘투르크 종이’로 부르기도 했으며 이후 꾸준히 자신들만의 방식으

로 발전시켜 현재에 이르렀다. 에브루는 2014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선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블링, 투르크 마블링, 에부르

● 연관 검색어 테즈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fPSwshlkv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ch.unesco.org/en/RL/ebru-turkish-art-of-marbling-00644>

● 참고문헌(오프라인) Dere, Ömer Faruk. *Ebrû Sanatı: tarihçe, malzeme, uygulama*, İstanbul: ISMEK, 2007.

Derman, Uğur. *Türk Sanatında Ebrû*, İstanbul : AkYayınları, 1977.

Tokaş, Pınar. “Türk Ebru Sanaçlarının Kronolojik olarak İncelemesi”, *Akdeniz Sanat Dergisi*, 2012, Cilt 5, Sayı 9, pp.123~132.

Gabriele, *How to Marbleize Paper*, Dover, 2003.

I F024 | 에브릴 투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Evril Turon

에브릴 투런(Evril Turon)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우즈베키스탄의 20세기 현대 작가 마마달리 마흐무더브(Mamadali Mahmudov)는 1940년 12월 12일 지자흐(Jizzakh) 퍼리쉬(Forish) 지역 버그던(Bogdon) 마을에서 태어났다. 타슈켄트 국립 대학교 저널리즘학과를 졸업한 후 잡지 <사어다트(Saodat)>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산(山)사슴(Tog'ohusi, 1974)』으로 문단에 데뷔했고, 곧바로 사회참여적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1975년 발표한 『버그던의 늑대(Bog'don qashqiri)』에서 그는 바스마치운동(bosmachi harakati)에 참여한 사람들을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한 투사로 묘사했고, 1981년 <동방의 별(Sharq Yulduz)>에 실린 소설 「불멸의 바위(O'lmas qoyalar)」에서는 19세기 제정 러시아 짜르에 맞서 싸웠던 투르크인들의 투쟁을 그려냈다. 이 작품은 당시 소련 정부가 금서로 지정했기 때문에 1981년 독일과 튀르키예에서만 출판될 수 있었다. 1991년 독립 이후에야 우즈

베키스탄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어 그는 이 작품으로 출판(Cho'lpon)상을 수상했다. 이어 2008년 파리와 2013년 런던에서 출판돼 비로소 유럽 전역에 알려졌다.

그러나 1999년 ‘마마달리 마흐무더브’는 우즈베키스탄의 초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 질서 교란 혐의를 받아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간이 흘러 2013년 2월 14년 수감생활을 마친 직후 또다시 ‘교도소 내부 규칙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에 그의 소설을 프랑스로 번역했던 ‘필립 프리송’(Philippe Frison)은 출판인들과 함께 ‘마마달리 마흐무더브(Mamadali Mahmudov)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2017년 봄 석방됐다.

그는 2018년 11월에야 작가연합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 2020년 10월 16일에 7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에브릴 투런

Source: <https://www.uzreport.news/fotobank/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마달리 마흐무도브, 메메들리 마흐무도프
- 다국어 표기 Mamadali Mahmudov, Evril Turon(우즈베크어), Мамадали Махмудов, Эврил Туро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출판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yangiliklar/yozuvchi-mamadali-mahmudov-evril-turon-vafot-etdi/>
<https://www.gazeta.uz/ru/2020/10/16/evril-turon/>
- 참고문헌(오프라인) Turon Evril, Bu tog'lar - ulug' tog'lar, Toshkent: Yozuvchi, 1991.
Turon Evril, *Oynur*, Toshkent: Akademnashr, 2021.

I F025 | 에블리이아 첼레비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이은정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Evliya Çelebi

‘에블리이아 첼레비’(Evliya Çelebi)는 튀르키예 문학에서 기행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여행기를 남긴 인물이다. 그가 남긴 글에 의하면 그는 이슬람력 1020년 1월 10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1611년 3월 25일이다. 에블리이아 첼레비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았다. 그는 마을학교에 다녔고, 세이흘리슬람 하미트 신학교에서 7년간 수학한 이후 오스만 제국 궁정에서 설립한 엔데룬(Enderun)으로 옮겨 학업을 이어 나갔다. 학교생활 동안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개인 과외로 이슬람 문화와 아랍어, 음악, 체육, 외국어 수업을 들었고, 코란 전체를 암기하여 하프즈(코란 전체를 외워 암송할 줄 아는 사람)가 되기도 했다.

첼레비의 할아버지는 큐타야 제레엔 마을 출신의 ‘유와즈 에르 베그’(Yavuz Er Beg)이다. 이스탄불 파티흐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고, 이후에 운카파느 동네에 정착한 다음 에블리이아 첼레비가 태어난 집을 모스크와 상점으로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데르비쉬 메헴메드 즐리’(Derviş Mehemed Zillî)인데, 에블리이아 첼레비는 그의 아버지를 ‘예술혼을 지닌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그의 아버지 메헴메드는 궁전의 귀금속 세공사(serzengerân)로 카바신전(메카에 있는 이슬람교의 성전)에 있는 황금수관을 정비했고,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의 문과 창문 장식도 만들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다양한 사교 모임에 참석했고, 커피하우스와 튀르키예 전통주 라크 술집 메이하네를 드나들면서 이스탄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1640년에는 처음으로 이스탄불을 벗어나 부르사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아버지 메헴메드는 첼레비가 여행하는 것을 반대했었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앞으로는 여행할 때마다 여행기를 기록하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그는 부르사에서 이스탄불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국내 여행을 떠나났고, 1640년 6월 21일(이슬람력 1050년 3월 1일)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이즈미트로 향했다. 같은 해 8월 19일(이슬람력 1050년 6월 1일)에는 케텐지 외메르 파샤의 수행원과 같이 흑해로 떠났다. 이후 그의 행보는 흑해에 있는 시노프와 삼순을 거쳐 트라브존에 들렀다가 조지아, 압하지야로 옮겨졌다. 그렇게

그는 1640년부터 1681년까지 무려 42년을 여행자로 살며 오스만 제국 국경 안 대부분의 지역을 여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가족의 경제적 뒷받침이 충분했고 노예와 수행원, 친구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스만 제국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그가 보고 느낀 것, 체험과 에피소드,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 등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기록했다. 총 10권 분량의 견문기를 펴냈는데 그 책이 『여행기(Seyahatname)』이다. 이 책에는 술탄 무라드 4세, 술탄 이브라힘, 메흐메드 4세가 가까이 지낸 이야기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튀르키예 문화는 물론 여행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역사, 지리, 문학, 민속, 음악,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귀중한 지식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에블리아아 첼레비가 여행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관찰하고 전달할 때 실제로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언어와 지역 연구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여행기 에블리아아 첼레비(Seyahatname-i Evliya Çelebi)』 혹은 『에블리아아 첼레비의 여행기(Evliya Çelebi Seyahatnamesi)』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일명 『여행자의 역사(Tarih-i Seyyah)』라고도 불린다. 그가 42년 여행하면서 10권으로 정리한 작품 『여행기(Seyahatname)』에 기록된 여행 시기와 지역은 다음과 같다.

1630년 - 이스탄불과 그 주변

1640년 - 아나톨리아, 카프카스, 크레타, 아제르바이잔

1640년 -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르메니아, 루멜리아

1655년 -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이라크, 이란

1656년 - 러시아와 발칸반도

1663년~1664년 - 헝가리 군사 원정

1664년 - 오스트리아, 크림반도, 두 번째 카프카스

1667년~1670년 - 그리스와 두 번째 크림반도, 두 번째 루멜리아

1671년 - 성지순례를 위해 다녀온 헤자즈, 메카, 메디나

1672년 - 이집트와 수단

그는 때때로 오스만 제국의 변두리로 발령받은 공무원들 곁에서 일을 돕거나, 전쟁에 참전하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오스만 영토인 부르사, 이즈미트, 트라브존, 에르주룸, 시바스, 반, 디야르바키르, 비틀리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헤자즈(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루멜리아, 발칸반도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 이 외에도 이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캅카스, 크림반도,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그리스, 알바니아, 크레타섬, 펠로폰네소스섬, 키오스섬, 사모스섬, 로도스섬에서 겪은 내용을 책에 담았다.

반세기에 걸친 여행 덕분에 폭넓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기에 정치적 압력에 대한 걱정 없이 직접 목격한 사건들의 내막까지 공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고위층이었던 ‘멜렉 아흐메트 파샤’의 최측근이라는 사적인 배경도 한몫했다. 그의 책 속에는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부당한 관행이 녹아 있으며, 무엇보다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지역에서의 예술가들과 친분 등을 엿볼 수 있다.

에블리아아 첼레비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이집트였다. 그는 1682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한 곳과 묘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메이트 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블리아 첼레비

● 다국어 표기 Evliya Çelebi(튀르키예어), Evliya Celebi(영어)

● 연관 검색어 에블리아아 첼레비 여행기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kçen İlhami, *Evliya Çelebi Seyahatnamesinde Çalgılar*, Ürün Yayınları, Ankara, 2017.

Kim Sooyong, “Evliya Çelebi Nasıl Bir Seylahtı?”, *Doğumunun 400. Yılında Evliya Çelebi*, (Hazırlayanlar: Nuran Tezcan-Semih Tezcan),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1.

Tezcan Nuran, Tezcan Semih, *Doğumunun 400. Yılında Evliya Çelebi*,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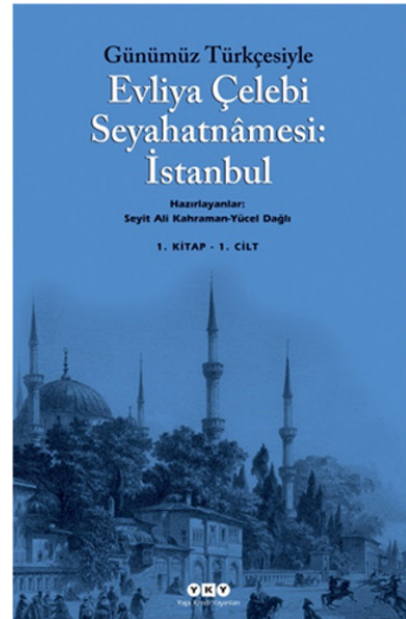
I F026 | 에블리아아 첼레비 여행기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여행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vliya Çelebi Seyahatnamesi

에블리아아 첼레비 여행기의 원제는 『에블리아아 에펜디의 여행 역사(Târîh-i Seyyâh Evliyâ Efendi)』이지만 일반적으로 여행과 문서라는 단어가 합쳐진 세이아하트나메(seyahatname: 여행기)로 불린다. 저자인 ‘에블리아아 첼레비’(Evliya Çelebi, 1611년~1684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오스만 제국과 그 인근 국가를 1630년부터 1681년까지 약 40년간 여행 후, 말년을 이집트에서 보내면서 이 여행기를 저술했다고 전해지며, 책에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꿈에서 본 예언자 무함마드가 여행을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1742년 여행기를 완성한 다음 이스탄불에 있는 ‘하즈 베쉬르 아아’(Hacı Beşir Ağa)에게 보내 출판했으며 현재는 튀르키예 국내외 여러 도서관에 다양한 판본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 책은 여행 연대순으로 기술되었으며 1권에서는 저자가 살았던 도시이자 오스만 제국의 2대 대도시였던 이스탄불과 부르사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2권에서는 흑해, 조지아, 동부 아나톨리아, 3권에서 아나톨리아 중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발칸반도, 4권에서 동부와 동남부 아나톨리아와 이란, 5권에서 이란과 발칸반도, 트라키아 지방, 6권에서 세르비아, 헝가리, 루마니아, 7권에서 독일(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림반도, 캅카스, 다게스탄, 8권에서 크림반도, 그리스, 알바니아, 9권에서는 이슬람 성지순례인 하지와 관련된 내용을, 10권은 메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행기의 주요 내용은 목적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문한 장소가 오스만 제국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저자는 일정한 체계를 두고 지방 정부 개요, 이슬람 이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에블리아아 첼레비 여행기』
Source: <https://i.dr.com.tr/>

전 시대의 짧은 역사, 오스만 제국에 편입 시기, 일반적인 사항과 풍경, 민간 어원에 기반한 지방/도시 이름의 어원 등의 순으로 기술했다. 또한 그 외에도 중요도에 따라 도시 내의 중요 모스크,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 그 외 교육기관, 시민들의 교육 수준, 대상 숙소, 여관, 목욕탕, 시장과 해당 지역의 제조업과 상품, 식품, 커피하우스와 같은 사회생활 공간, 남녀의 성명, 의상, 먹을거리, 음료, 해당 지역민들의 주요 수입원, 날씨와 주요 영묘 등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여행기는 17세기 오스만 제국을 비롯하여 인근 국가의 사회, 문화 및 민속, 언어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블리아아 첼레비 세야하트 나메시, 에블리아 첼레비 여행기, 여행기 에블리아아 첼레비, 에블리아아 첼레비의 여행기, 여행자의 역사

● 다국어 표기 Evliya Çelebi Seyahatnamesi(튀르키예어), Seyahatname-i Evliya Çelebi(튀르키예어), Tarih-i Seyyah(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에블리아아 첼레비

● 참고문헌(오프라인) Evliya Çelebi, *Günümüz Türkçesiyle Evliya Çelebi Seyahatnâmesi* (Çev: Yücel Dağlı-Seyit; Ali Kahraman), İstanbul :Yapı Kredi Yayınları, 2013.

Dankoff, Robert. “Bir Edebiyat Anıtı: Evliya Çelebi Seyahatnamesi”, *Türk Edebiyatı Tarihi* (ed. Talât Sait Halman), Ankar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06.

Tezcan, Nuran. “Seyahatnâm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7, Ankara: TDV, 2009, pp.16~19.

İlgürel, Mücteba. “EVLİYA ÇELEB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1, Ankara: TDV, 1995, pp.529~533.

I F027 | 에슈레프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Principality of Eshref

‘에슈레프 공국’은 룸 셀주크 투르크의 멸망 후에 아나톨리아 중부에 나타난 투르크 공국 중 하나이다. 설에 의하면 13세기 후반에 룸 셀주크의 세력이 약화되던 시점에 일부 투르크



에슈레프 공국 시기에 건설된 베이셰히르 베데스텐
Source: <https://www.beysehir.bel.tr/gezilecekyergorseller/>

멘 부족이 베이셰히르(Beyşehir)를 차지하여 세웠다고 한다. 공국의 이름은 이 공국을 다스린 지배 가문의 첫 번째 인물이자 셀주크의 아미르인 ‘사이프 앳 딘 술라이만 베이’(Sayf al-Din Sulayman Bey)의 부친인 ‘에슈레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술라이만 베이는 룸 셀주크의 술탄 기야스 앳 딘 카이후스로우 3세(A.D. 1284)의 재위 기간에 그의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미르였다. 카이후스로우가 일 칸국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후 몽골은 ‘기야스 앳 딘 마수드 2세’를 후계자로 세웠으나(1308년) 카이후스로우의 모친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등극시켰고 그의 섭정으로 이 술라이만 베이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섭정으로 코니아에 잠시 머무르다가 몽골의 지지를 얻은 마수드 2세를 피해 베이셰히르로 달아났고, 1288년에 다시 마수드 2세에게 복속하며 코니아로 돌아왔다. 이후 마수드 2세와 혼인 동맹을 맺은 술라이만 베이는 마수드 2세의 경쟁자이자 형제인 시야부시를 감금했으나 카라만 공국 귀네리 베

이의 위협을 받아 곧 시야부시를 풀어주어야 했다.

이루 셀주크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술라이만 베이도 주변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협 세력은 카라만 공국과 일 칸국의 ‘게이하투 칸’이었다. 결국 술라이만 베이는 1302년에 사망했고 생전에 베이세히르에 지어놓은 자신의 성묘에 안장되었다. 그 후 그의 장자인 ‘무바리즈 앳 딘 무함마드 베이’(Mubariz al-Din Muhammad Bey)가 공국의 수장이 되어 아크세히르와 볼바딘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그리고 1314년에 일 칸국의 장군, 아미르 추반이 아나톨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를 맞이하며 복속하기도 했다.

‘무함마드 베이’는 1320년 사망했고, 그의 아들 ‘술라이만 베이 2세’가 등극했으나 6년 정도 밖에 자리를 보전하지 못했다. 일 칸국에서 아나톨리아로 파견한 아미르 추반의 아들 ‘티무르타시’가 이 지역 공국들의 독자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차례차례 기존세력을 진압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티무르타시’는 1320년에 카라만 공국 치하의 코니아를 차지한 후 베이세히르로 진격했다. 그리고 ‘술라이만 베이 2세’를 살해했으며 그의 시신을 베이세히르 호수에 던지면서 에슈레프 공국은 멸망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1328년에 ‘아부사이드 칸’의 명에 따라 맘루크의 ‘술탄 알 나스르’가 ‘티무르타시’가 살해하면서 에슈레프 공국의 영토는 하미드 공국과 카라만 공국이 분할하여 차지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슈레프 공국, 에슈레프오울라르, 에쉬레프오울라르

● 다국어 표기 Eşrefoğul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룸 셀주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79.

Ismail Hakki Uzunçarşılı, "Ashraf Oghullari,"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p.702~704.

I F028 | 에스나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계급 ● 유형 소분류2 제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snaf

‘에스나프’(Esnaf)는 오스만 제국에서 상공업, 서비스업, 생산, 유통업, 판매업을 하는 모든 계층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혹은 때에 따라 이들 상공인의 직종별 조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공식적으로는 이 상공인 조합을 ‘에흘리 히레프’(ehl-i hiref: 상공인 모임)이라고 부른다.

오스만 제국에서 에스나프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가에 직접 소속되어 국가 소유의 작업장에서 일하며, 국가는 이들을 직접 통제하는 에스나프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궁전과 카프쿨루(Kapıkulu: 술탄의 직속 부대)의 필수품을 생산한다. 요리사, 제빵사와 같은 생산직 장인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서예가까지 다양한 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도 직급과 역할이 나뉘어 감독관, 최고장인, 도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데브쉬르메 제도가 약화된 이후, 궁전의 필수품은 궁 밖 자영업자들로부터 구매하도록 바뀌었다. 두 번째 에스나프는 일종의 자영업자 및 자유 공인들로서 국가는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권만을 가졌다. 에스나프가 필요할 일이 생기면 국가가 그들을 국가 조직의 일원으로 차출할 수 있었는데 특히, 전시에 식량 공급이나 의복, 전쟁 물품 생산 및 수리를 위하여 차출되었다.

이 에스나프는 직종별로 조합을 결성한다. 즉,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다른 조합이 결성되는데 예를 들면 뱃사공 조합과 짐꾼 조합, 제빵사 조합, 양초 제조 조합과 같은 조합뿐만 아니라 양 도축업자 조합, 소 도축업자 조합과 같이 유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별도의 조합이 존재했다. 각각의 조합은 조합 대표라 할 수 있는 에스나프 셰이히(esnaf şeyhi), 조합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에스나프 켄히다스(esnaf kethüdâsı), 조합의 감독과 처벌을 맡은 이이트바쉬(yiğitbaşı), 전문 장인(usta), 직공(kalfa), 도제(çırak)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계층 및 직분이 맡은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고유한 영역과 국가적 일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었던 만큼 에스나프 조합의 결성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특정 직종 조합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카디(kadı: 재판관)가 관리하는 행정 구역 단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했다. 즉, 카디 한 명이 책임지는 행정 구역

도 하나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특별히 행정 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만 여러 개의 조합이 존재할 수 있었다.

에스나프 조합은 조합 내에서 통용되는 정관이 있었으나 이 정관은 국가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아야 했다. 일례로 일반적인 에스나프 조합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일부 생필품의 경우 가격 결정이나 생산량 등에 있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특히 생활 필수 식품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 국가의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식품 이외 상품과 용역은 광범위한 가격 위반이 발견되면 국가가 나서서 재결정했다. 그때 모든 가격은 카디와 전문가가 모여 결정하며, 식품 가격은 매해 변동이 있으나 그 외 재화와 용역은 2년~3년에 한 번씩 재결정했다.

위 내용으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오스만 제국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기본 정책에 따라 각 에스나프에 법적,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조직화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들어서 에스나프도 국가적 조직화 의지에 부응하며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6세기 말에 이르러 에스나프 조합은 더욱 성숙화되고, 독점권이라는 개념도 탄생하게 되었다. 조합 차원에서 조직을 시스템화하기 위하여 보증제도와 면허제도를 도입했고, 독점권도 더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17세기 중반부터는 게딕(gedik: 독점권)이 도입되었는데 막상 도입 후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폐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스나프 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산 공장제 제품과 경쟁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갈수록 와해되기 시작했다. 한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지마트 이후 에스나프 조직 차제 내에서 새로운 규정 마련과 재편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879년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stanbul Ticaret Odası)가 설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에스나프가 자신들만의 협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은 제2차 제헌 군주 시대(İkinci Meşrûtiyyet Devri, 1908년~1920년)부터였고 결국 1913년 게딕 권리와 길드 형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이후 에스나프는 튀르키예 법에 따라 튀르키예 에스나프 및 예술가 소규모 연합(Türkiye Esnaf ve Küçük Sanatkârlar Konfederasyonu) 산하에 에스나프 협회를 구성했다. 이에 현재도 에스나프 협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Sanayi ve Ticaret Bakanlığ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에스나프는 소속 지역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다국어 표기 Esnaf(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Faroqi, Suraiya N. "Guildsmen and Handicraft Producers." *The Cambridge History of Turkey, vol. 3: The Later Ottoman Empire, 1603-1839*, New York: Cambridge UP, 2006, pp.336~355.

Kal'a, Ahmet. "ESNAF",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1, Istanbul: TDV, 1995, pp.423~430.

I F029 | 에스키 사라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ski Saray

에스키 사라이(Eski Saray)는 ‘고궁(古宮)’, ‘구궁(舊宮)’이라는 의미인데, ‘사라이-으 아텍 아미레’(Sarây-ı Atik Âmire: 나라의 오래된 궁전)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가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 지금의 베야즈트 모스크(Beyazıt Camii)와 쉴레이마니예 모스크(Süleymaniye Camii) 자리를 포함하는 이스탄불대학교 총장실과 대학 일부 자리에 궁전 건설을 명하여 건축됐다. 그리고 후에 톱카프 궁전을 건설하면서, 두 궁전을 구별하기 위해 ‘구(舊)궁’(Eski Saray 또는 Sarây-ı Atik Âmir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구궁전이 있었음에도 메흐메드 2세가 신궁전, 즉 톱카프 궁전 건설을 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1866년에 궁전은 철거되었고, 현재는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아 기록에 의거하여 그 모습을 추측할 뿐이다.

궁전 건축이 시작된 시기는 1453년 이스탄불을 정복한 직후부터였고, 완공 시기는 1455년 즈음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궁전은 위치는 바다와 육지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으며, 성벽에는 4개의 대문이 있었다고 한다. 궁전 내에 중정이 있고, 중정 주변에 높은 지붕이 있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또한 궁전 주변에는 두 개의 성벽이 있었고,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가 여러 건물과 함께 외벽과 내벽 사이에 위치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다. 아마 내벽 안에 주요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궁전은 1540년 2월 5일 밤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소실되었

다. 이후 더 아름답게 다시 건설할 것을 명했지만 이미 건설 중이었던 베야즈트 모스크(Beyazıt Camii)로 인하여 궁전 부지가 좁아져 예전 모습대로 복원이 불가능했다. 다만 당시 궁전의 모습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16세기에 그려진 세밀화를 보면 기록과는 다소 다른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속에는 도시 풍경 속에 구궁전 건물이 나무 속의 기와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베야즈트 모스크 근처에서는 도금 지붕과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 근처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뾰족한 기와지붕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이전이나 이후 그림 모두 두 개의 성벽과 주요 건물이 내벽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은 동일하다. 또한 작은 크기로 묘사된 건물은 부속 건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궁전 안에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테페바시으(Tepebaşı)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었다. 이곳은 실제로 술탄(오스만의 군주)이 구궁전에 살던 술탄들(술탄의 친척들)과 명절 인사를 이 테페바시으에서 나누었고, 스포츠 경기 따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술탄이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을 보내는 궁전이 신궁전, 즉 톱카프 궁전이 되면서부터 구궁전의 하렘은 사망하거나 퇴위한 술탄의 여성 가족들이 머무는 곳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구궁전에 머무르다가 아들이 술탄에 즉위하게 되면 그제야 톱카프 궁전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외 대다수의 여성들은 구궁전에서 여생을 보냈고, 관리들과 결혼할 경우에만 출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26년 무렵 군대 개혁으로 예니체리 제도가 해체되고, 그 자리에 세르아스케르(Serakser) 제도가 들어서자 이 구궁전은 세르아스케르 건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원래 거주하고 있던 여성들은 톱카프 궁전과 에이위프 치프테 궁전(Eyüp Çifte Saray)로 옮겨갔다.

이후 1866년에는 구궁전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세워진 건물은 오늘날 이스탄불 대학교 총장실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스키 사라이, 구궁전
- 다국어 표기 Eski Sara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톱카프 궁전
- 참고문헌(오프라인) Withers, R. *Büyük Efendi'nin Sarayı* (çev: Cahit Kayra), İstanbul:Pera Turizm ve Tic. 1996.
Bilgicioğlu, Banu. "Sarây-ı Atîk Âmîre" *TDV İslâm Ansiklopedisi*cilt.36, İstanbul: TDV, 2009, pp.122~125.

I F030 | 에스티르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Estirtw

‘에스티르트’는 카자흐의 의례 노래로 죽음을 알리는 부고시(訃告詩)이다. 기악극 큐이(кҮй)의 형태로 공연하기도 한다. ‘에스티르트’는 카자흐어로 ‘알리다’, ‘공개하다’라는 동사이데, ‘죽음을 가족에게 알린다’는 동사이며 명사로는 ‘부고’를 의미한다.

에스티르트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 부분은 자연 현상이나 동물, 역사적 인물로서 지상에 사는 존재의 의미는 덧없이 지나가며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슬픈 소식 자체를 전하면서 고인의 업적과 활동을 열거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위로의 노래인 애도곡(Көңіл айту)을 부른다.

백조는 호수 아름다움 속에 자신을 비추며 물에서 헤엄치고
날아오른 매는 구름 덮인 절벽에 앉았네.
당신의 아들은 해매지 않고,
언젠가 모두가 떠나야만 하는 그곳으로
몸을 숨겼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것은 잊어버리게.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울지 마오.

전통적으로 장례 소식은 악사칼(Ақсақал)이나 아킨(Ақын)이 전달한다. 그들은 침착한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장례를 알린다. 첫 마디로 “бекем болыңыз. (힘과 용기를 내세요.)”를 말한다.

에스티르트는 대화체 노래이다. 주치에게 그의 아들의 죽음을 큐이 <악사크 쿨란(Ақсақ кҮлан)> 공연으로 알렸다는 전설이 있다. 여러 민족의 민속에서 에스티르트와 유사한 형태(곡소리 등)의 노래가 발견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스티르티
- 다국어 표기 Естірту(카자흐어), Естирт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악사칼, 큐이, 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Алматы: Қазақ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2005. — Т. II. С. 264.

I F031 | 예잔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전통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Ezan

‘예잔’은 아랍어 ‘아단(adhan)’에서 파생된 튀르키예어다. 아랍어 아단은 ‘듣다’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 1형 동사 ‘아디나’의 동명사형이다.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예잔’, 예배를 알리는 사람을 ‘뮌엠티진’이라고 부른다. 마치 그리스도 교회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슬람 역사에서 예잔은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한 ‘해나’ 그다음해(이슬람력 1년 또는 2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근대 이전에는 뮌엠티진이 모스크에서 가장 높은 곳인 미너렛(첨탑)에 올라 육성으로 예배 시간을 알렸는데, 오늘날은 마이크를 사용한다. 예잔은 종교적인 절차라는 의미 이외에 낭송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슬람의 종교 예술적 표현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예잔이 울린 후 예배자들이 모이면 카메트(Kamet, 아랍어 Iqamah)를 낭송하는데 이슬람교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귀에 예잔이나 카메트를 나지막이 낭송한다.

하지만 튀르키예에서는 1932년부터 1950년까지 18년 동안 아랍어 예잔과 카메트를 금지하고 튀르키예어로만 허용했다. 튀르크인 절대다수는 수니파에 속하는데, 위와 달리 수니파의 예잔은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1.(4번)하나님(알라)은 가장 위대하시다.(알라 후 아크바르). 2. (2번)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한다. (아슈하드 안 라 일라하 일랄라). 3. (2번)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한다. (아슈하드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4. (2번) 예

배를 서두르시오. (하이야 알랏 살라트). 5. (2번)성공(구원)의 길로 서둘러 나르시오. (하이야 알랄 팔라흐). 6. (2번)(첫 번째 예배 때) 예배가 잠보다 더 낫다. (앗살라투 카이루 민안나움). 7. (2번)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알라후 아크바르). 8. (1번)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라 일라하 일랄라).

반면 시아파의 예잔은 수니파와 달리 이맘 알리를 존경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위 6번 첫 번째 예배 때 하는 문구가 없다. 1. (4번)하나님(알라)은 가장 위대하시다. (알라후 아크바르). 2. (2번)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한다. (아슈하드 안 라 일라하 일랄라). 3. (2번)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한다. (아슈하드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4. (2번)알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증언한다. (아슈하드 안나 알리운 왈리올라). 5. (2번)예배를 서두르시오. (하이야 알랏 살라트). 6. (2번)성공(구원)의 길로 서둘러 나르시오. (하이야 알랄 팔라흐). 7. (2번)최상의 행위 참여를 서두르시오. (하이야 알라 카이릴 아말). 8. (2번)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알라후 아크바르). 9. (2번)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라 일라하 일랄라).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잔**

● **다국어 표기** Ezan(튀르키예어), Adhan(아랍어), Ezan(튀르키예어), Azon(우즈베크어), Azan(아제르바이잔어), Азан(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намаз, 위에즈진, 카메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Azak, Umut. "Secularism in Turkey as a Nationalist Search for Vernacular Islam: The Ban on the Call to Prayer in Arabic (1932–1950)."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124, Novembre 2008, 161~179.

Juybol, Th. W. "Adhān." In *Encyclopaedia of the Qurʾān*, 187~188. Vol. 1.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1986.

Özdemir, A. and Kenneth Frank. *Visible Islam in Modern Turke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I F032 | 에제기틴 호지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Eezgiitiin khujirt

‘에제기틴 호지트’는 아르항가이 아이막 바트첵겔르 솜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으로, 호드긴 톨고이 무덤군과는 서쪽으로 약 5km 거리에 있다. 이 유적은 평원의 야트막한 구릉 동남사면에 있으며, 지름이 5m~7m인 묘도 없는 방형의 무덤 72기가 분포해 있다.

이곳은 1981년에 몽골과 소련이 공동 연구한 끝에 무덤 6기가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2기는 무덤이 아닌 제사시설로 확인되어서 총 4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고 결론 지어졌다. 1981년에 발굴된 무덤은 발굴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약식 보고에 따르면 4기 무덤 모두 도굴된 상태였다. 인골은 이미 많이 교란되어 있었고, 원위치에 있던 일부 인골을 보건데 피장자의 머리가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호 무덤에서는 인골과 토기편, 2호 무덤에서 동체부에 손잡이가 달린 토기, 재갈과 재갈뭇추개, 철제 고리 등이 출토되었다. 3호 무덤에서는 목관이 발견되고 양 뼈와 철제 손칼이 수습되었으며, 4호 무덤에서는 완형 토기 3점과 심하게 부식된 대형 칼, 동물 뼈 등이 출토되었다. 도굴이 심해서 정확한 연대 파악은 힘들지만 북 타미르 강의 건너편인 가까운 곳에 있는 호드 톨고이 유적의 연대가 B.C. 1세기인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애지깃틴 쿠지르트
- 다국어 표기 Иезгитийн хужирт(러시아어), Eezgiitiin khujirt(몽골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11, 『몽골 도르릭 나르스 훙노 무덤(1)』.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I F033 | 에페스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Efes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진 ‘에페스’는 튀르키예 에게해 근처의 ‘셀축’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 로마 유적지이다. 201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거의 붕괴되어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고대 도시 유적에 보존된 대부분의 기념물과 건물들은 그리스 로마 시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도시의 성벽은 B.C. 30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인 ‘리시마코스 왕’의 치세에 헬레니즘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또한 산마루를 따라 바다에서 동쪽으로 약 3km에 걸쳐 뻗어나가는 성벽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주요 유적으로는 이즈미르 아고라와 쿠레테스(Curetes) 거리를 비롯한 도시의 거리, 켈수스 도서관(Celsus library)과 원형 대극장 등이 있다. 특히 A.D. 100년~A.D. 110년 사이에 건설된 켈수스 도서관은 아시아 속주의 총독을 지낸 ‘켈수스 폴레마이아누스’(Celsus Polemaeanus)의 무덤과 도서관을 겸한 2층 구조로 1만 2000여 건의 두루마리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B.C. 3세기에 조성된 원형 대극장은 약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도시의 융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페스 근처에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다. 성모 마리아의 집은 예수가 죽은 지 4년~6년 후부터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의 여생을 돌보며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성모 마리아를 위한 집을 지었고, 4세기에 폐허가 된 집터에 십자 모양에 돔 구조의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이는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건물이다. 이곳은 카톨릭 교도들의 대표적 성지로 손꼽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베소, 에페수스, 에베수스
- 다국어 표기 Ephesus(영어), "Εφεσος Ephesos(그리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책문, 2010,



켈수스 도서관

Athas Daphne, *Entering Ephesus*. Sag Harbor, NY: Second Chance Press. 1991.

Michael Gagarin,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Greece and Rom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I F034 | 에프사네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efsane

‘에프사네(efsane)’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한국문학에서는 전설과 신화 사이 지점에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신화적 전설(Mifoloji əfsanələr)’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표현이 보다 정확한 용어일 수 있다. 에프사네(efsane)는 튀르키예어 표기이며, 아제르바이잔어로는 ‘에프사네(əfsanələr)’, 우즈베크어로는 ‘아프소나(afsona)’로 표기된다.

에프사네는 현실과는 관련이 없으며 기적과 환상의 매카니즘을 통해 창작된다. 다만, 신화적 사고가 두드러지는게 특징이다. 묘사된 이야기나 사건은 주로 신화적 연대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신화적 전설은 투르크 설화문학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에프사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텍스트 첫머리에 이야기의 도덕적인 결말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속담과 같은 문장이 하나 나온다는 점이다. 주로 활용되는 모티프는 토렘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신부가 새로 변신하는 것을 토렘이나 옹곤(onqon, 신성한 동물과 동물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나타낸다. 신부는 낯선 남자를 피하기 위해 신에게 새로 변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이삭 도둑(Sünbül oğrusu)’에는 사람이 황소로 둔갑할 수 있다는 모티프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는 황소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투르크-아제르바이잔 신화에서는 개, 늑대, 뱀, 사슴 등과 함께 특히 황소는 특별한 신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러한 동물들은 환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토렘 기능보다는 주인공에게 조언을 해 주고, 주인공을 구출하는 등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때 인간과 동물은 서로 환생할 수 있다.

에프사네는 보통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이 창조한 존재나 사건을 다루며 어느 특정한 지역(local)’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대표적으로 ‘괴이궐 호수(Göygöl)’, ‘마랄궐 호수(Maralgöl)’, ‘아그르다흐(Ağrıdağ)’, ‘궐린가야(Gəlinqaya)’ 같은 지역 관련 에프사네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프사네, 아프소나
- 다국어 표기 Mythological legends(영어), efsaneler(튀르키예어), мифологические легенды(러시아어), əfsanələr(아제르바이잔어), Mifoloji əfsanələr(아제르바이잔어) Mythological legends(영어)
- 연관 검색어 레와예트, 신화적 전설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I c., Bakı, 2018, s.340~357

I F035 | 에프탈리테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Ephtalites

흉노의 서천(西遷)에 이어 동방 대 서방의 민족사적 배경으로 기능한 거족적 이동으로는 중앙 아시아와 서아시아로 집단 이주한 유목민족 엽달(嚙噠)의 서천을 들 수 있다. 불가를 지나 서진한 ‘훈’의 일부는 다시 남하하여 이란 남부와 아프가니스탄 서부로 진출했고 5세기 중엽 그곳에 있던 에프탈리테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훈과 에프탈리테 사이의 종족적 친근 관계나 흔히 ‘중동(中東) 훈’이라 지칭되는 이 지역의 훈 역사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몽골을 중심으로 한 스텝 중앙부를 지배하면서 돌궐과 겨루던 연연(蠕蠕)과 에프탈리테와의 관계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에프탈리테’(Ephtalites)라는 명칭은 사산 조 페르시아를 격퇴한 훈족(Huns)의 왕 ‘에프탈라노스’(Ephtalanos)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엽달의 종족적 기원에 관해서는 훈족설·이란설·투르크설·고차(高車)설·차사(車師)설·대월씨(大月氏)설 등 10여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백흉’(白匈, Ak Hun)의 ‘백’ 자는 그들의 피부색이 흰 데서 유래한 접두사다.

‘훈’은 에프탈리테 왕조의 주요 지배 세력으로 5세기~6세기경 서아시아 역사 전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에프탈리테 지역주민 중 대부분이 인도-이란계로 인도-유럽 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카칸’(Khakan)이란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왕자들도 ‘테긴(Tegin)’이라 불리는 등 지배 계층에 투르크족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엽달은 당초 유목민족이었으나,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역에 서천하면서 점차 정주 농경민으로 변신해갔다. 엽달은 동로마와 사산 조 페르시아 및 중국 남북조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동서 교류의 매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엽달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5세기~6세기 무렵에는 동서 교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되었다. 일례로 518년경 북위(北魏) 호태후(胡太后)의 명으로 중국을 떠나 520년 에프탈리테의 왕을 알현한 불승 송운(宋雲)도 에프탈리테인이 훈족과 같은 일파라고 전하고 있어서 이런 기록들이 모두 에프탈리테와 훈의 상호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카스피해에서 북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동으로 내륙 아시아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에프탈리테의 기원과 역사에 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중국과 그리스의 기록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한 체글레디(K. Czegledy)의 연구에 따르면, 에프탈리테의 역사는 350년경 알타이 지역에서 시작된 중앙아시아 민족의 대서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다국어 표기 ηβοδαλο(박트리아어) 嚙噠(중국) Hephthalites(영어) White Hun(영어) Ak Hu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훈, 흉노, 돌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transoxiana.org/Eran/Articles/Tezcan_Apar.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Dickens Mark, “Hephthalites (White Huns, Abdelai, Hayatila, Hua)”. In Nicholson, Oliver (ed.), *The Oxford Dictionary of Late Antiqu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Litvinsky B.A.,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The crossroads of civilizations, A.D. 250 to 750*. Paris: UNESCO, 1996.

I F036 | 에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ehe

‘에헤’(ehe)는 야쿠트어로 ‘곰’을 의미하는 동시에 ‘할아버지’를 뜻한다. 곰에 대한 숭배 의식은 거의 모든 북방 민족에게 퍼져 있는데 야쿠트인들에게도 보편적이다.

야쿠트 신화에는 곰은 한때 여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야구트족 여자들은 곰을 만나면 가슴을 열어젖히고 “나의 신부야!”라고 소리쳤다. 사냥을 나갈 때 사냥꾼들은 가짜 이름을 이용했는데 이러한 금기는 곰이 귀가 밝아 어디에 있든 다 알아듣는다는 미신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신성한 존재인 곰을 죽이고 나면 사죄의 내용을 담은 사설을 늘어놓아야 했다.. 고기도 경건한 의식을 치른 뒤 먹었으며 뼈는 아랑아스(аранас)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통째로 묻는다. 그리고 곰의 내장들은 일상생활에서 악령을 쫓는 부적으로 사용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흐, 으흐
- 다국어 표기 эһэ(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어, 야쿠트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야쿠티아.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 Books. 2011. 62.

I F037 | 엔게링 보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Engerin buuts

‘엔게링 보트’ 유적은 수흐바타르 아이막 툽썬씨레 솜 부렌척트 농업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17km 떨어진 델르한 산 동남쪽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엔게링 보트라는 계곡의 평탄지에 있다. 1991년에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1기를 발굴했고, 그 뒤에 몽골국립대학교에서 발굴했으나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103호는 묘도가 없는 방형의 무덤이다. 발견 당시 지표면에 가운데가 꺼진 둥근 적석이 6m 가량 드러난 상태였는데 이 적석을 드러내자 깊이 1.15m에 묘광을 채운 적석층이 노출되었고, 깊이 2.6m에 이르자 매장주체부가 드러났다. 그다음으로 판석이 나타났고, 그 아래에 판재 목관 뚜껑이 함몰되어 있었다. 묘광(2.7m×0.95m)은 장방형이고, 목관은 길이 1.87m, 단벽은 0.7m, 높이 0.38m이다. 목관은 ‘卍’자형으로 결구되어 있었으며 목관 안에 인골이 확인되었다.

인골은 허리 부분에 철제 칼, 오른손 옆에는 동근 나무막대기, 왼손 옆에는 흙을 판 나무 막대기, 가슴 위에 철기가 놓인 채로 발견되었다. 관의 북쪽에는 자작나무로 제작된 원형 용기, 목제 쟁반 등이 있었으며 사유사휘경(四乳四虺鏡) 파편도 확인되었다. 두개골 주변에서 심하게 부식된 철편 2점이 출토되었으며 목관의 밖에 북쪽에서는 말 머리뼈 1개체, 양 머리뼈 2개체가 확인되었다. 사유사휘경(四乳四虺鏡)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A.D. 1세기 중반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엔제린 부으트

● 다국어 표기 Энгерин буутс(러시아어), Engerin buuts(몽골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흥노무덤 (1)』, 2011.

G. Eregzen. 『몽골 흥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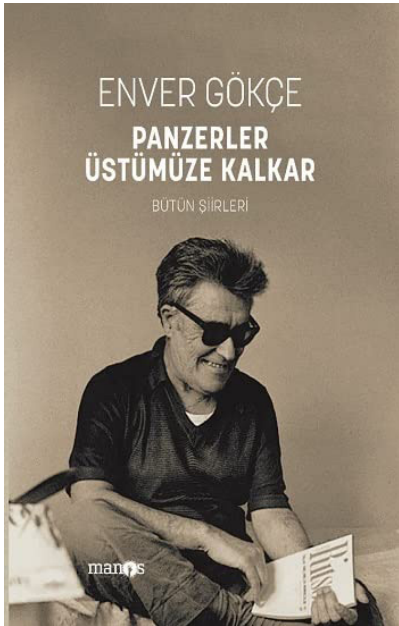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I F038 | 엔베르 곱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ENVER GÖKÇE

‘엔베르 곱체’는 1920년 에르진잔의 케말리에 지역에서 태어나 10살이 되던 해에 앙카라로 이사했다. 그리고 1930년에 앙카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제베지 중학교와 가지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젤라렛틴 테비크’(Celalettin Tevfik bey), ‘페브지에 압둘라 탄셀’(Fevziye Abdullah Tansel), ‘이사크 레페트’(İsak Refet) 세 분의 교사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앙카라대학교 언어역사지리 대학(DTCF)으로 진학해 투르크학을 전공했다. 그는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Pertev Naili Boratav), 무자페르 셰리프(Muzaffer Şerif), 베히제 보란(Behice Boran), 니야지 베르케스(Niyazi Berkes), 메디하 베르케스(Mediha Berkes), 압뿔바키 고틀프나를르(Abdulbaki Gölpınarlı), 사페트 코르쿠트(Saffet Korkut) 등 교수에게서 배웠다.

그가 예술과 문학에 처음 눈을 뜨게 된 시기도 바로 대학시절이었다. 본래 개혁적 기질을 갖고 있던 데다 더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는 출판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상(Ülkü)> 잡지의 편집자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학 분야에 관한 내공을 쌓으며 동료들과 교류를 이어가던 중 <할크에브레리> 잡지를 통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던 ‘세페르 아이테킨’(Sefer Aytekin)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함께 <안트(Ant)>잡지를 창간했다. 이 외에도 당시 <이상(Ülkü)>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계기로 당시 유명한 문학가였던 ‘아흐메트 함



엔베르 곱체 시집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디 탄프나르’(Ahmet Hamdi Tanpınar), ‘누룰라흐 아타츠’(Nurullah Ataç)과 만나 교류하기도 했다.

앙카라에서 문단에 몸 담았던 동료 중에는 ‘아리프 다마르’(아리프 바리카트),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가장 오래된 친구 ‘메흐메트 케말’(Mehmet Kemal)과 ‘제이훈 아투프 칸수’(Ceyhun Atuf Kansu)가 있었다. 그리고 ‘15주년’이라는 커피하우스에서 만나 절친한 친구가 된 ‘니야지 아큰즈오을루’(Niyazi Akıncıoğlu)는 훗날 1940년대 가장 중요한 시인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었다. 그의 시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아시옥 알리 이즈제트’, ‘아시옥 웨이셀’, ‘하빕 카라슬란’과 같은 민중 음유시인과도 만났다.

그가 대학교 졸업논문에서 밝힌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그는 1950년 9월에 이스탄불 기숙사 관리청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처음 맡은 업무 지역은 차르식 카프 학생 기숙사였다. 근면하고 성실한 직원이라 기숙사가 개관할 때 투입이 됐고 이을드즈 테크닉 대학교와 해사 기숙사에서도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카드르가 학생 기숙사로 배정을 받은 후 1951년에는 그가 ‘1951년 테브키파트(1951 Tevkifatı)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사건을 훗날 엔베르 곱체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들은 고문, 매질 등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고, 우리 168명은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모두 벌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재판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168명 모두 형을 받았다. 우리는 총 7년 선고 받았고, 이 기간의 1/3 동안 유배를 가야 했다. 재판은 이렇게 끝났고 모두가 다른 교도소로 뿔뿔이 흩어졌다.”

‘할크에브레리’에서 출판하는 여러 잡지 중 <이상(Ülkü)>은 엔베르 곱체에게 중요한 출판물이었다. 특히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Ahmet Kutsi Tecer)와 ‘베트레틴 툰젤’(Bedrettin Tuncel)이 이 잡지의 간행 정책과 방향성을 알려줬다. 엔베르 곱체는 잡지에 실는 첫 번째 글의

주제를 태어난 동네에 있는 울타리로 정하고 ‘마을에서 마을’이라는 코너에 「울타리가 있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수필 한 편을 썼다. 이 글은 1943년 <이상(Ülkü)> 잡지 36권에 실렸고,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엔베르 곱체를 처음으로 아시옥 웨이셀 문학비평가 중 한 명으로 남게 해 주었다. 그는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의 허락으로 1944년에 발행된 <이상(Ülkü)> 잡지에도 아시옥 웨이셀 어록(Âşık Veysel Deyişler)을 포괄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출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페르 아이테킨’(Sefer Aytekin)의 주도하에 ‘비둘기 책(Güvercin Kitaplar) 시리즈’를 만들었다. ‘케말레틴 카무’(Kemâlettin Kamu)와 ‘외메르 베드레딘 우샤크’(Ömer Bedreddin Uşaklı)에 대해 「무스타파 곱체(Mustafa Gökçe)」라는 이름으로 1958년에 출판했다. 에멕 출판사에서는 ‘별 책(Arı Kitap) 시리즈’를 만들어 역시 「무스타파 곱체(Mustafa Gökçe)」라는 이름으로 냈다. 당시 출판작 중에는 처음으로 튀르키예어로 시를 출간했던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의 「선택(Seçmeler)」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 작품은 ‘아지즈 네신’이 경영 및 관리를 맡았던 뒤선(Düşün)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출판 활동 이외 순수 창작 활동도 쉴 새 없이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작품으로 작품은 『게시노비취 - 푸가초프의 난(1969)』, 『전래동화 데데 코르크트(1969)』, 『베이다바의 켈리레와 딘네(1969)』, 『베라 파노바 - 어린이(1972)』, 『친구와 다툼(1973)』, 『친구와 다툼 그리고 루바이야트(1975)』, 『장갑차 위에서 일어나다(1977)』, 『엔베르 곱체의 일생 - 시 모음(1981)』, 『에인 튀르퀴(1982)』 등이 꼽힌다.

‘엔베르 곱체’는 1940년대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 당시 가리프 파(Garip akımı)가 튀르키예 문단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오르한 벨리와 그의 친구들과는 조금 생각이 달랐다. 실제로도 “가리프 파는 시로 사회를 왜곡하는 집단이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발언으로 보아 그는 가리프 파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즘 히크메트의 시풍을 따른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은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시인 ‘아흐메트 아리프’(Ahmet Arif)와 몇몇 후대 사회주의 시인들이었다. 자신의 모든 작품에 녹여낸 그의 시상은 고민, 갈망, 예술, 사상으로 채워진 서민의 생활이 원천이었다. 그 자신이 좋은 교육을 받고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고 민속 문학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모국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의 소재도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엔베르 곱체가 투옥됐을 때 썼던 많은 글들은 분실됐다. 분실된 작품 중

에는 「이우수프와 악기 발라반 전설(Yusuf ile Balaban Destanı)」도 포함돼 있다. 이는 엔베르 픽체가 꾸준히 일하지 않았고 거주하는 공간도 딱히 없어서 이전에 했던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도 그 원인이 됐다.

워낙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가난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튀르키예 작가협회에 입회해 불가리아 작가 연합의 지원을 받았고, 3개월 동안 불가리아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마저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불가리아어도 몰랐던 그가 타향살이를 견디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리고 말년을 앙카라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 보냈다. 이후 조카 ‘아이텐 쉬니크’(Ayten Şinik)의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1981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앙카라 카르식야카(Karşıyaka)에 그의 묘지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엔베르 교체, 엔외르 픽체

● 다국어 표기 ENVER GOKÇE(영어), ENVER GÖKÇ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ınkaynak Hikmet, *Edebiyatımızda 1940 Kuşağı*, Türkiye Yazarlar Sendikası Yayınları, İstanbul, 1977.

Başgöz İlhan, “Enver Gökçe İle Bir Nice Yıl”, *Yazko Edebiyat*, S.17, 1982.

Başgöz İlhan, *Gemerek Nire Bloomington Nire Hayat Hikayem*, Türkiye İş Bankası Yayınları, İstanbul, 2007.

Doğan Aydın, *Yaba Yazın Dergisi*, Sayı: 27, 1981.

Gülvahapoğlu, Adil, “Enver Gökçe İle Bir Konuşma”, *Güney Dergisi*, Sayı: 76, Eylül 1973.

Kemal Mehmet, ‘Enver Gökçe Yeniden Doğarken’, *Soyut Dergisi*, Sayı: 61, Ağustos 1973.

Kemal Mehmet, *Acılı Kuşak*, DeYayınevi, İstanbul, 1985.

Turan Metin, *Enver Gökçe Üzerine*, Damar Yayınları, Ankara, 1991.

I F039 | 엔베르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가
● 집필자 이은정, 우덕찬 ● 라틴 문자 Enver Paşa

‘엔베르 파샤’는 튀르키예의 군인, 정치가이자 고위 관료(1881년~1922년)로서 본명은 ‘이스마일 엔베르’이다. 마케도니아의 마나스트르(Bitolj) 출신의 하급 관료 ‘아흐메드 베이’(그는 나중에 엔베르가 출세한 후 핫즈 순례를 관리하는 고위 관직에 올랐고, 아들보다 오래 살았다.)의 6남매 중 장남으로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아버지의 전근으로 가족이 마나스트르로 이주해 그곳에서 군사계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 사관학교(Mekteb-iHarbiyye)에 입학하여 1902년 졸업했다. 졸업 후 마케도니아의 제3군에 작전 참모장교로 임관했고, 마케도니아의 게릴라들을 토벌하는 데 3년간 복무했다. 그리고 마나스트르의 제3군 본부에 다시 배치되었으며, 이때 청년튀르크운동의 핵심 비밀결사 연합진보당(İttihad ve Terakki Cemiyeti)에 가입하여 조직의 확산을 위해 힘썼다. 그와 동료들은 비밀결사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이스탄불에서 파견된 감찰 장교들을 매복하여 기습했고, 추종자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명 행위는 1908년 7월 청년튀르크 혁명으로 이어져 혁명 당시 그의 나이가 26세라는 것까지 더해져 영웅처럼 떠올라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오스트리아 장교들과 교류하여 독일어와 군사 전략을 배웠다. 그리고 1909년 베를린에서 대사관 근무 육군 무관으로 주재하면서 독일군의 강력함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독일 사회의 여러 면에 감탄하며 친독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09년 3월 31일의 보수파 반혁명 사건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던 그는 1911년 리비아 전쟁에 자원하기 전까지 베를린에 머물렀다. 급기야 리비아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가 벵가지 지역 사령관직과 함께 벵가지 산작의 무타사리프(중앙정부 직할 산작의 수장)가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스탄불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연합진보당 내부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여 친구인 탈라트가 연합진보당 수장으로 취임하도록 도왔다.

1913년 1월 그는 결국 일부 장교와 병사를 동원하여 당시 국방장관을 포함한 3인의 인명피해

를 내면서 내각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대재상 ‘카밀 파샤’를 사임하게 만들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는 제1차 발칸전쟁의 영토상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13년의 전황은 더욱 나빠져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군부 일당독재가 1918년 패전까지 지속되었다.

엔베르는 1914년 1월 국방장관이 되어 약 5년간 국방부를 책임졌으며 그 기간 동안 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발칸 전쟁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된 압달하미드 시대의 늙은 장군들을 물갈이하고 젊은 장교들로 대체했으며 지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장교들을 일시적으로 높은 자리에 임명하는 실험을 도입했다. 그리고 3월에는 술탄의 조카였던 ‘에미네 나지에 공주’와 결혼했다.

그는 이전부터 일관성 있게 독일과 동맹국의 편에 가담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과의 협상은 그와 당시 대재상이었던 ‘사이드 할릴 파샤’를 중심으로 내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비밀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1914년 8월 러시아에 대한 방어 동맹이 맺어지자 엔베르는 전쟁에 빨리 돌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독일의 전투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베르는 반대의견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고, 결국 10월 말(엔베르로부터 허가를 얻은) 독일인 제독이 이끄는 오스만 함대가 흑해의 러시아 항구와 전함을 공격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이 돌입하게 되었다.

1차 대전 당시 엔베르의 전쟁 수행의 특징은 독일군의 전략 및 장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것, 빠르고 결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 정규군의 군사행동을 보완하기 위한 게릴라전과 선전전에 탁월하다는 점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오스만 군단은 독일인 장군이 지휘했거나 혹은 오스만 특의 장군이 지휘하더라도 독일인 참모장으로 보완하는 형식이었기에 엔베르는 또한 1914년 8월 5일 ‘설레이만 아스케리’를 우두머리로 하는 특무 조직(Teşkilat-ı Mahsusa)을 만들었으니, 이는 비밀 첩보조직과 게릴라 군대를 합쳐놓은 듯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이란, 카프카스, 리비아 등 상실된 영토에서 실지회복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엔베르의 정치선전들은 초기에는 주로 이슬람 혹은 범이슬람주의적 수사가 대부분이었으나 나중에는 범투르크적 성격으로 변해갔다.

1914년 말 엔베르는 아르메니아 산지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포위전을 수행하는 것을 망설였던 제3군 사령관 ‘하산 잇제트 파샤’를 대신해서 제3군을 이끌고 사르 카므쉬로 향했다. 그러

나 험준한 지형과 추위 속에서 식량과 외투의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제3군 병력의 대부분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이는 엔베르의 고향 마케도니아 출신자가 많은 제3군의 구성으로 볼 때 더욱 뼈아픈 패배였고, 실제로도 그때 이스탄불로 복귀한 후 엔베르는 다시는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후 갈리폴리와 이라크의 쿠트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1917년~1918년 사이 러시아 전선에서 진전을 보이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시리아 전선에서 영국군에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1918년 패전이 임박하자 연합진보당 내각은 휴전협정을 촉진하기 위해 총 사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엔베르, 탈라트, 제말 등 주요 고위 인사들은 아르나우트콰이에 모여서 독일 해군 군함을 타고 오데사로 건너갔다. 이때 엔베르는 원래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베를린에서 다른



엔베르 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사람들과 합류하여 1918년부터 1919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들이 망명한 후 이스탄불에서는 1918년 말~1919년 초에 걸쳐 궤석 재판이 열리면서 엔베르는 다른 연합진보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사형을 언도받았다.

엔베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으나 한 차례 시도를 실패한 후 1920년 초 드디어 모스크바로 향했다. 그는 소련 외무부, 레닌, 무스타파 케말 등과 접촉했고, 소비에트 당국의 사주로 ‘이슬람 혁명단체 동맹(İslam İhtilal Cemiyetleri İttihad)’을 조직하는가 하면 ‘인민위원회당’(Halk Şurular Fırkası)도 만들었으니, 훗날 전자는 이슬람 혁명 인터내셔널로, 후자는 그것의 튀르키예 지부로 구성되었다. 그는 소비에트가 튀르키예와 다른 나라들에서의 민족주의운동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오스만 포로들과 캅카스의 무슬림 주민으로 군대를 조직한 다음 튀르키예로 돌아가서 아나톨리아의 저항운동에 참여하며 지휘권을 넘겨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구체적인 계획들은 소비에트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무스타파 케말’ 조차도 엔베르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엔베르는 조지아의 바툼에서 1921년 9월 5일 연합진보당 옛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연합진보당 망명객들을 적대시하지 말 것을 튀르키예의 저항운동 정부에 촉구했고, 트라브존과 앙카라에서도 케말 대신 엔베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군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였던 사카리아강 전

투(1921년 9월 2일~13일)가 끝나고 나자 케말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이 굳어져 있었다.

결국 엔베르는 아나톨리아로 복귀할 계획을 버리고 트빌리시, 바쿠, 아쉬카바드, 메르브를 거쳐 부하라에 도착해 반(反)소비에트 저항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1년 11월 그는 부하라를 떠나 바스마치 집단에 합류했고 두산베 부근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전투를 계속하다가 1922년 8월 전사했다.

사후 그는 대단히 용감하고 정력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용감했던 정치군인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고 친구와 측근,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의 청렴함과 진지한 애국심을 널리 인정받았으며 사르카므쉬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전 동안 계속 인기를 유지했다. 여러 논란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발칸 전쟁 당시의 완패를 고려하면 오스만군을 영국, 러시아 등 강국들과 4년간의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건한 것도 엔베르와 독일군 장교들의 공로라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엔웨르 파샤

● 다국어 표기 Enver Paşa(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 A. Rustow, "Enwer Pash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2 (1991) pp.698~702.

M. Şükrü Hanioglu, "Enver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1 (1995) pp.261~264.

I F040 | 엘리프 샤파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온경 ● 라틴 문자 Elif Şafak

‘엘리프 샤파크’는 1971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하면서 외교관인 어머니를 따라 성장기를 스페인과 요르단에서 보냈다. ‘샤파크’라는 성도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다. 튀르키예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앙카라 중 동공과대학교를 졸업했다. 석사와 박사도 중동공과대학교에서 마쳤다.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유년기와 성장기에 걸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가부장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런 성장배경은 그녀의 작품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작가로서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 메블라나 문학상’과 ‘튀르키예 소설상’을 수상했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타임>,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글을 기고하는가 하면 미국 공영라디오(NPR)에도 출연한 적도 있다. 그녀는 영어와 튀르키예어로 동시에 작품 활동을 하며 튀르키예의 여성작가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다. 2010년 2월 영어와 튀르키예어로 동시 출간한 『40가지 사랑의 법칙』이 미국과 튀르키예에서 함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색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현재 그녀는 다문화주의, 인본주의, 여성 인권 등에 중점을 두고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튀르키예 국내의 내부적인 모순에 천착하는 작품도 다수 집필한 적도 있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여성문제, 민족문화 정체성,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섹슈얼리티와 젠더, 권력과 집단 기억, 이슬람교와 가톨릭의 갈등, 민족 학살과 같이 하나같이 무겁고, 심각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녀는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접목, 동서양 문화의 소통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소설 『이스탄불의 사생아』, 『벼룩의 성』, 『응시』, 『이브의 세 딸』 등이 있다. 그중 한국에 번역된 작품은 현재 『이스탄불의 사생아』와 『이브의 세 딸』이다. 『이스탄불의 사생아』는 영어에서 번역되었는데, 튀르키예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1차 세계 대전 때인 1915년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한 아픈 과거사를 들춰내고 있다. 이 문제로 그녀는 튀르



『이브의 세 딸』 한국어 번역본 표지

키에 정부로부터 ‘국가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이브의 세 딸』은 튀르키예어에서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작품으로 무슬림 여성 지식인의 분열과 자아 성찰을 다룬 자전소설에 가까운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리프 샤팍, 엘립 샤팍
- 다국어 표기 Elif Shafak(영어), Elif Şafa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ted.com/talks/elif_shafak_the_politics_of_fiction/transcript?awesm=on.ted.com_9tft&utm_campaign=sir_ken_robinson_bring_on_the_revolution&utm_medium=on.ted.com-twitter&utm_source=direct-on.ted.com&utm_content=ted.com-talkpage&language=ko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elifshafak.com/>
http://twitter.com/#!/Elif_Safak
- 참고문헌(오프라인) Sazyek Esra, “Elif Şafak’in Romanlarında Çokkültürlülük Aracı Olarak Tasavvuf”, *bilig*, YAZ, SAYI: 66, 2013, pp.205~228
Chancy MJA, “Migrations: A Meridians Interview with Elif Shafak” *Meridians*, Vol. 4, No. 1, 2003, pp.55~85

I F041 | 엘바르스 1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Elbarsxon I

15세기 중반 투르키스탄 지역에서 우즈베크인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향상시킨 ‘아불하이르 칸’(Abulxayr xon, 재위: 1412년~1468년)의 사망 이후 ‘무함마드 샤이버니이 칸’(Muhammad Shayboniy, 영문 표기: Muhammad Shaybani, 샤이바니, 1451년~1510년)이 등장했다.

샤이버니이 칸은 긴 정쟁 끝에 1505년 호라즘 지역의 중심인 우르겐치와 1506년 헤라트 지방을 탈취하고 히바와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우즈베크 국가를 수립했지만, 사피비의 ‘이스마일 1세’(Ismail I, 재위: 1501년~1524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망하고 말

았다. 그리고 이후 이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한 사파비 조는 히바, 하자르사프, 우르겐치와 베지르 등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천명했다.

그때 베지르의 카디(kadi) ‘오마르 아딜리’가 사파비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을 이끌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편에선 사파비 조의 지배를 받게 된 도시의 지도자들이 시아파를 없애고 세이트 아타 후손인 ‘휘사멧딘 카탈’을 칸으로 올릴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휘사멧딘 카탈’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샤이바니 조의 ‘웃거르 칸’의 손자이자 베르케 술탄의 아들인 ‘엘바르스’(Elbarsxon, 영문 표기: Ilbars khan, 재위: 1511년~1518년)를 추천했다.

‘엘바르스’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베지르 시에서 스스로를 칸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1512년 형제인 ‘발 바르스’를 예니셰헤르의 총독으로 임명한 다음, 칸으로 천명한 지 석 달 후 곧바로 우르겐치로 가서 ‘아랍 쉬브한 술탄 쿨루’로부터 도시를 탈취하고 ‘웃거르 한’을 우르겐치에 초대했다. 그러나 일부 세력이 ‘엘부렉 칸’과 ‘에미넥 칸’의 아들의 편에 서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펼쳐 자신은 베지르를 수도로 삼아 이곳에서 통치하고 이들에게는 우르겐치의 통치권을 주었다. 그러자 에미넥의 아들들은 사파비의 손에서 히바와 하자르사프 인근 지역을 탈환했으며 호라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524년 이스마일 1세이 사망하자 우즈베크인들이 호라산 산맥의 북쪽 지역을 탈취한 후 호라산의 남동쪽지역과 서쪽의 발한과 망그식락 투르크멘까지 공격했다. 이에 대부분의 투르크멘은 이 침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세금을 지급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엘바르스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가지(Gazi)라는 칭호를 하사하고, 형제인 발바르의 아들들에게는 하지(Haj)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그곳은 엘바르스 칸의 죽음 이후 발바르스의 아들 술탄 하즈가 베지르의 칸으로 천명되었다.

결과적으로 엘바르스 칸의 히바 칸국 건국은 다른 국가의 침략을 이겨내고, 우즈베크인들이 투르크스탄 지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바르스

● 다국어 표기 Elbarsxon(우즈베크어), I. Ilbars(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엘바르스칸, 일바르스 1세, 일바르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Adle, C., Irfan Habib; K M Baipakov; *History of civilizations in Central Asia. v.5 Development in contrast :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New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cations, 2004.

Budak, Mustafa. “İLBARS HAN”, *İslam Ansiklopedisi* Cilt 22, Istanbul: TDV, pp.78~79.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F042 | 엘벡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온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Elbek



엘벡

Source: <https://nevai.org/elbek-masrik-yusupov/>

‘엘벡’(Elbek-Mashriq Yusupov)은 1898년 타슈켄트 주 버스탄 릉(Bostanlyk)의 쿵산 시골(Khumsan kishlog)에서 태어났다. 엘벡 (Elbek-Mashriq Yusupov)의 본명은 ‘마쉬리크 유수퍼브’(Mashriq Yusupov)이다.

그는 1905년 구식 학교에서 4년간 공부했고, 1910년에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 품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타슈켄트 에스키 샤후르 데번베기 마을에 위치한 허키(Hokiy)학교에서 공부했다. 1914년에는 샤이크헌터 후르(Shaykhontohur) 마을에 위치한 베흐부디가 설립한 나무나(Namuna)학교에 다녔다. 이 기간동안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쇄소에서 일하며 신문을 팔았다.

그 후 1919년 10월 혁명이 일어나자 엘벡은 8개월간의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언어-철자법에 대한 연구를 했다. 1921년에는 투르크스탄 인민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교육 및 교사(Maorif va o'qitguvchi)>, <혁명(Inqilob)>, <지식 개방기(Bilim o'chog'i)>등의 잡지사 편집위원회에서 일했다.

그의 작품으로는 시집 『국민의 깃발(EI bayrog'i)』, 『투란(Turon)』, 『투르크 언어(Turk So'zi)』, 『위대한 투르크스탄(Ulug' Turkiston!)』, 『한개의 질문(Bir so'roq)』, 『고아의 죽음(O'ksizning o'limi)』, 『까마귀(Qarg'a)』, 『비비하눔 마드라사(Bibixonim madrasasi)』, 『투르크스탄(Turkiston)』, 『우즈베크의 젊은 시인(O'zbek yosh shoirlari)』, 『노동의 노래(Mehnat kuylari)』, 『꽃봉오리(Gunchalar)』, 『치르치크 강가에서(Chirchiq boylarinda(1935)』, 『노래 선집(Ashulalar to'plami)』, 『동요(Bolalar qo'shigi)』, 『시집(She'rlar to'plami(1936)』, 『레나의 피해자들(Lena qurbonlari)』, 『자유의 희생자들(Ozodlik qurbonlariga)』, 『프롤레타리아의 행진(Proletar marshi)』, 『직관(Sezgilar)』, 『아름다운 소녀(Go'zal qiz)』, 『우리의 것이다(Bizniki)』, 『목화(Paxta, 1929)』, 『나의 과거(O'tmishim, 1929)』, 『치르치크(Chirchiq, 1929)』, 『고용농의 콜호즈(Batrak Kolxozi)』, 『우즈베키스탄(O'zbekiston, 1934)』, 『정원사(Bog'bon, 1935)』, 『부채(Etik, 1935)』, 『사격수(Mergan, 1935)』 우화집으로는 『약한자들의 세상(Kuchsizlar dunyosi)』, 그 밖에 『글쓰기 방법(Yozuv yo'llari)』, 『초등학교 국어(Boshlang'ich maktab ona tili)』, 『아름다운 글쓰기(Go'zalk Yozgichlar, 1924)』 등의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많은 작품을 남기고 교육에 헌신한 엘베크는 안타깝게도 커디리이(Qodiriy), 출판(Cho'lpon), 피트랏(Fitrat), 어타전 허심(Otajon Hoshim), 카유 라마전(Qayum Ramazon), 거지 올림(G'ozi Olim)과 함께 1938년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처형되었고, 4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베크, 엘베그

● 다국어 표기 Elbek(우즈베크어), Эльбе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커디리이, 출판, 피트랏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yina.uz/uz/article/261>

● 참고문헌(오프라인) Boboxo'jayev M, *Kurash poeziyasi*, Toshkent: Fan, 1979.

Karimov Naim, *Usmon Nosir*, Toshkent: Sharq nashriyoti, 1993.

Karimov Naim, *XX asr adabiyoti manzaralari*, Toshkent: O'zbekiston, 2008.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Qobulov Nurmuhammad, *Elbek-tanqidiy biografik ocherk*,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88.

I F043 | 엘스트 아르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Elst ar

엘스트 아르 유적은 아이막 다신칠렌 솜의 도르곤트 밖에 있는 엘스트 고개의 북쪽과 산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는 23기의 무덤이 있는데 현재까지 모두 13기의 무덤을 발굴했다. 유적은 서쪽으로 열려 있지만 동쪽과 남쪽은 산과 언덕으로 막혀 있어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잘 비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발굴한 무덤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10m×9m, 가장 작은 것은 5m×5m이다. 외부 구조 형태는 넓은 돌로 쌓아 올린 타원형이다. 무덤 구조는 흉노 무덤과 동일하지만 시신을 안치한 목관의 동쪽에 돌로 두 개의 칸을 만들어 부장용 가축과 유물을 구분하여 묻는 점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발굴된 13기의 피장자는 남성 8명, 여성 5명이며 일찍이 도굴꾼에 의해서 파괴되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시신의 뼈가 한곳에 모아서 버려졌다. 좀 더 자세히 흔적을 살펴보면 시신을 목관에 안치한 다음 바깥으로 이중 석곽을 만들고, 뚜껑은 넓은 돌을 이용해서 덮었다. 그리고 부장한 음식물을 석제 격벽 옆에 따로 방을 만들어 넣었다. 관습 형태는 사망한 사람을 따라 수많은 가축과 동물을 부장했다.

특히 엘스트 아르 유적에서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유적과 비교해볼 때 많은 동물을 부장하면서 크고 작은 가축을 가리지 않고 새끼부터 큰 가축까지 한꺼번에 부장했던 독특한 특징이 있다. 특히 19A호에는 27마리를 부장했는데, 양 24마리, 소 2마리, 말 1마리를 부장한 것으로 보아 유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흉노족의 일반 계층 무덤처럼 내부와 외부 구조, 매장풍습, 출토 유물이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대형, 소형 가축을 비교적 많이 부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유적을 통해서 고대 흉노인의 생활관습 등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한편 흉노 무덤의 입지는 높은 산의 동쪽에 있는 작은 산의 남쪽 사면에 위치한다는 규칙성이 있는데, 그 점은 이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 다국어 표기 Elst ar(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Ц.Төрбат. Хүннүгийн жирийн иргэдийн булш. - УБ.,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흉노, 제국의 미술』,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20,

I F044 | 엘-오이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El-Oyin

‘엘-오이인’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알타이 공화국의 민속 경기 축제로서 ‘전국 시합’이란 뜻이다. 이는 알타이 공화국의 주요 축제 중 하나로 알타이인뿐만 아니라 투바, 하카스 공화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대표단이 참가하는 범 투르크계 민족들의 축제로서 다른 공화국에서 온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과의 화합과 우정을 위해 열린다.

이 축제는 1988년 온구다이스키 지역의 옐로 마을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2년마다 알타이 공화국의 여러 마을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어 왔다. 그리고 2006년 알타이 공화국 정부는 비로소 이 축제를 처음 축제가 열린 옐로 마을 근처의 ‘카바이루-메젤릭(Кабайлу-Межелик)’ 계곡에서 정기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현재 다양한 민족들이 축제에 참여해 자신들의 유르트(юрта)를 세우고 공연이나 경연, 운동 경기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정식명칭으로 엘-오이인 외에 엘-오이틴(Эл-Ойтын)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엘-오이인에서는 전설, 신화, 영웅담의 영웅들이나 알타이 민족의 과거를 칭송하는 화려한 민속극 공연과 여러 투르크 민족의 화려한 의상과 유르트와 아일(알타이, 키르기스 유목 민족 고유의 이동식 주택)의 화려한 군락을 볼 수 있다. 엘-오이인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민속 시합이다. 주요 종목으로는 쿠레시(куреш: 투르크 씨름), 알타이 샤프트라(Алтай-шатра: 장기), 코두르게 타시(Кодурге таш: 나무에 돌 올리기), 아트-차비시(Ат-чабыш: 말타기 시합의 한 종류), 채찍 놀이, 활쏘기, 테베크(тебек: 제기차기), 토크폭 차차리(токпок чачары: 곤봉 던지기), 엠디크 우레디시(Эмдик уредиш: 로데오 경기와 유사) 등이다.

엘-오이인은 소련 붕괴이후 알타이인들이 투르크계 민족으로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축제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오이틴
- 다국어 표기 Ёл-Ойин, Эл-Ойы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투바, 카자흐스탄, 쿠레시, 알타이인
- 멀티미디어 링크 코두르게 타시 <https://vimeo.com/255534451>
아트 차비시 <https://www.youtube.com/watch?v=4lOZalR1F-E>
테벡 <https://www.youtube.com/watch?v=uwV-TqAulol>
엠디크 우레디시 <http://elaltay.ru/34-gtrk-gorny-altay-novosti-men/gtrk-gorny-altay-novosti-dnja-kat/5099-emdik-uredish-natsionalnoe-rodeo-gornogo-altaya>
민속의상 경연
<https://kovchin.ru/wp-content/uploads/2016/07/45-%D0%9A%D0%BE%D0%BF%D0%B8%D1%80%D0%BE%D0%B2%D0%B0%D1%82%D1%8C.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ded-altai.ru/history/prazdnik_narodnykh_igr_el-ojyn/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ж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F045 | 엘친 애팬디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소설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Elçin Əfəndiyev

‘엘친 애팬디예브’(Elçin Əfəndiyev)는 1943년 5월 13일 바쿠에서 유명한 극작가 ‘일야스 애팬디예브’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문학환경에서 자란 것은 그가 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60년에 바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에 바쿠 국립대학교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 1968년에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의 니자미 문학연구소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석사논문 주제는 「문학평론으로 본 아제르바이잔 산문문학」이며, 「문

학에서의 역사와 현대성의 문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논문 모두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이론적, 심미적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가 문학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고교 학창시절이었다. 첫 번째 작품이 1959년 <아제르바이잔 청년들(Azərbaycan gəncləri)> 신문에 실리면서 그는 산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단편소설과 중편(povest)은 많은 문학평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소스(Sos)』, 『닭의 필생기(Toyuğun diri qalması)』, 『슈샤에는 안개가 자욱하다(Şuşaya duman gəlib)』



엘친 애펜디예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등의 중편소설(povest)이 인기를 얻었다. 그의 대표작인 『마흐무드와 매리엠(Mahmud və Məryəm)』, 『흰 낙타(Ağ dəvə)』, 『사형선고(Ölüm hökmü)』, 『머리(Baş)』 등의 소설들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희곡으로는 「셰익스피어(Şekspir)」, 「지옥의 시민들(Cəhənnəm sakinləri)」, 「내 남편은 미쳤다(Mənim ərim dəlidir)」, 「복수(Qisas)」, 「살인자(Qatil)」 등이 있다. 그의 희곡작품들은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주요 극장에서 상연됐다. 주요 대표작 『바오라그다르(Bayraqdar)』는 카라바흐(Karabakh) 영토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창작활동 외에도 아제르바이잔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부총리, 대외 문화교류협회인 ‘조국(Vətən)’ 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바쿠 국립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학과에 재직 중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Azərbaycan Respublikasının Prezidenti yanında Təhsil üzrə Komissiya)의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학술·문학·공공·정치 학술대회, 심포지엄, 의회, 미팅 및 정부의 공식 회담에 참가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그는 1998년에 ‘아제르바이잔의 인민작가’(Azərbaycan Xalq yazıçısı fəxri adı) 칭호를 받았고, 2003년에는 독립훈장(İstiqlal ordeni)을 수여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친 애펜디예브, 엘친 애펜디예프
- 다국어 표기 Elçin(튀르키예어), Elçin Efendiyev(튀르키예어), Elçin Əfəndiyev(아제르바이잔어), Elchin(영어),

Елчин(러시아어), Elçin(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쿠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d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Qəzənfər Paşayev, *Elçin haqqında düşüncələrim*, Bakı: Təhsil nəşriyyatı, 2013.

Yusifli Vaqif, *Bu nə sehrdir belə* (Elçin haqqında əlli altı söz), Bakı: Elm nəşriyyatı, 1999.

Nizami Tağısoy, *Elçinin "Baş" romanı struktur-funksional təhlil müstəvisində*, Bakı: Təhsil nəşriyyatı, 2017.

I F046 | 엘친 휘세인배일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Elchin Huseynbeyli

‘엘친 휘세인배일리’(Elçin Hüseynbəyli)는 1961년 12월 23일, 재브라일(Cəbrayıl rayonu)에서 태어났다. 1979년 재브라일 시골 마을에 있는 쉬퀴르배일리(Şükürbəyli)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80년~1982년에는 소비에트군에서 복무했다. 이어 1989년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V.Lomonosov adına Moskva Dövlət Universiteti)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인권 여름학교’에 참여했으며, 1999년부터 <자유(Azadlıq)> 라디오 방송국 아제르바이잔 지국을 만드는 등 여러 언론사에서 활동했다. 2004년 5월에는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의 기관지 <별(Ulduz)> 편집장으로 선출돼 2014년 5월 27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문학(Ədəbiyyat)신문>의 편집장으로도 잠시 활동했으나 너무 대담한 신문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 이후 그는 투르크 세계 문예지 협회(The Congress of the Turkic World Literature Magazines, Türk Dünyası Ədəbiyyat Dərgiləri Konqresi)에서 아제르바이잔 편집인으로 일했다.

창작활동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칼럼을 쓰면서부터였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여러 매체에 사회정치적 이슈로 칼럼을 썼다. 그러던 중 문학모임 ‘에고(Eqo)’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가라추하(Qaraçuxa)’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그는 2000년에 재능 있는 젊

은 작가로 선발돼 대통령 장학금을 받았고, 2001년에는 유시프 새 매드오글루 최고 문학작품상(Yusif Səmədoğlu adına ən yaxşı nəsr əsəri)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후마이(Humay) 문학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대통령 특별상을, 2009년에는 문화관광부의 황금문장(Qızıl kəlmə) 문학상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명예 예술인(Əməkdar İncəsənət xadimi) 칭호를 받았다.



엘친 후세인베일리

그의 대표작으로는 『춤추는 남자(Rəqs edən oğlan)』, 『두사람을 위한 게임(İki nəfər üçün oyun)』, 『미스터 21세기(Cənab 21-ci əsr)』, 『쑥 갈매기(Yovşan qağayılar)』, 『오디나무 따라(Tut ağacı boyunca)』, 『13번째 사도, 141번째 돈 후앙(On üçüncü həvari, 141-ci Don Juan)』, 『샤흐 압바스(Şah Abbas)』, 『지하철 계곡(Metro vadisi)』, 『갈림길에서 도망하기(Yol ayrıcında qaçış)』, 『아즈흐(Azıx)』, 『남녘 며느리(Şımalı gəlin)』, 『코펠하우스에서의 어느 날 저녁(Kopelhausda bir axşam)』 등이 있다.

그는 주로 역사와 민족문제를 소재로 다루었으며,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은 물론 희곡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었다. 그가 비중 있게 다룬 주제는 국가적 문제인 카라바흐(Qarabağ)였다. 그는 개성 있는 스타일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도저히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전개한다. 또한 예술과 대중성을 결합했다는 점도 작가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들은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리투아니아어, 페르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친 후세인 베일리

● **다국어 표기** Elçin Husseinbeyli(영어), Elçin Hüseynbeyli(튀르키예어), Елчин Гусейнбейли(러시아어), Elçin Hüseynbəyl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acıyev Tofiq, *Elçin Hüseynbəyli: günümüzün nəsri*, Mədəniyyət qəzeti, 2~9 dekabr, 2011.

İmdat Avşar, *Yenilikçi Azərbaycan yazarı Elçin Hüseynbəyli*, 525-ci qəzet, 22 iyun, 2011.

Yusifli Vaqif, *Ədəbi həyat*, Bakı: Vektor nəşriyyatı, 2014.

I F047 | 역사적 전설(아제르바이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이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전설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Historical legends

역사적 전설은 역사적 사실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동안 생긴 이야기로 전설의 한 종류이다. 이는 해당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사건과 관련이 깊어 인물이나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계층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전설도 역사적 전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비단(Cavidan), 바백(Babək, 8세기), নিজ미 갠재비(Nizami Gəncəvi, 1141년~1209년), 매흐사티 갠재비(Məhsəti Gəncəvi, 1089년~1160년), 이마맷딘 내시미(İmaddədin Nəsimi, 1369년~1417년), 매함매드 푸줄리(Məhəmməd Füzuli, 1494년~1556년), 샤 이스마일 해타이(Şah İsmayıl Xətai, 샤 이스마일 1세, 재위: 1501년~1524년), 샤 테흐마시브(I Şah Təhmasib, 재위: 1524년~1576년), 샤 압바스(Şah Abbas, 재위: 1587년~1629년)와 관련한 많은 전설이 생겨났다.

특히 오구즈 족의 현자 코르크트(Dədə Qorqud) 전설도 역사적 전설에 속한다. 오구즈 족의 원로였던 현자 코르크트는 300년을 살았으며, 많은 난제를 해결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에 관한 정보는 전설로 남아 있으며 『현자 코르크트의 서(Kitabi Dədə Qorqud)』 서사시와 여러 부분 일치한다.

전설 속에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로스 3세(Makedoniyalı İskəndər, 재위: B.C.336년~B.C323년), 티무르 베그 구르카니(Teymurləng, 재위: 1370년~1405년) 등과 같이 외부 정복자에 대한 역사적 전설도 같이 존재한다. 역사적 전설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해당 민족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샤 이스마일’의 전설에서는 그의 투지와 정복, 뛰어난 체력 등이 표현되었다.

작가와 시인들에 대한 역사적 전설은 주로 해당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의 생애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고향에 관한 전설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역사 전설
- 다국어 표기 Historial legend(영어), tarihi revayetler(튀르키예어), исторические легенды(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s. 360~369.

I F048 | 연합진보당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정치조직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

연합진보당(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는 1889년 오스만 제국 시기 만들어진 민족주의 단체이며 1926년 해산될 때까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다. 연합진보당의 기본적인 정치 사상은 세속주의, 서구화, 튀르크 민족주의, 중앙집권화를 표방했다.

연합진보당은 오스만 제국 압둘 하미드2세(Abdülhamid II, 재위 1876년~1909년) 시기 이스탄불의 왕립 의학 아카데미의 학생조직에서 시작했다. 연합진보당은 당 초기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단체 이름을 오스만 연합 위원회(İttihad-ı Osmanî Cemiyeti)라고 이름 붙였다. 당시 오스만 제국 이스탄불의 대학들은 반정부 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스만 연합 위원회는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오스만 연합 위원회는 세력을 확장했고 왕립 육군 사관학교, 행정학교의 학생들이 가담했다. 오스만 연합 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청년튀르크당(Young Turks)>으로 알려진 조직의 지도자들과 여러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1893년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연합 위원회는 사회에 저명한 울레마(Ulema)와 관료를 포섭하는데 성공했고,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지하조직으로 변신한다.

오스만 연합 위원회는 1895년 파리로 망명한 반정부 인사 아흐메드 르자(Ahmed Rıza)와 접선하게 된다. 오랜 협의 끝에 아흐메드 리자는 유럽 지역 대표로 오스만 연합 위원회에 합류한다. 아흐메드 르자는 실증주의 노선을 중시하는 인물로 오스만 연합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요구한다. 아흐메드 르자의 요구에 따라 오스만 연합 위원회는 ‘오스만 연합 진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며 파리에서 여러 간행물(Meşveret, Mechveret Supplément Français)을 발행한다.



연합진보당 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오스만 연합 진보는 1895년~1896년 이집트 카이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오스만 제국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세력을 확장한다. 하지만 아흐메드 르자, 메흐메드 미잔즈(Mehmed Mizancı)의 지지자들 사이에 노선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흐메드 르자와 추종자들은 오스만 연합 진보에서 추방되는 일을 겪는다. 1896년 오스만 연합 진보는 이스탄불 지부를 활용한 쿠데타를 시도하지만 실패했고 1897년 시리아 지부가 붕괴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근대적 개혁을 재차 추진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사면하는 술탄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오스만 연합 진보는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추방된 아흐메드 르자와 추종자들은 국외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반대활동을 계속했고 독립된 상태로 조직을 운영한다.

1899년 술탄의 처남인 다마드 마흐무드 파샤(Damad Mahmud Paşa), 이스마일 케말(İsmail Kemal) 및 중요 오스만 정부 인사들이 오스만 연합 진보에 합류하면서 조직 내부의 상부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당시 오스만 연합 진보 내부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했다. 첫번째 아흐메드 르자

를 따르는 파벌, 두번째 친영국파 고위관료들로 외국의 지원을 받아 오스만 제국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파벌, 세번째 의사, 대학생으로 구성된 지식인 파벌, 네번째로 무정부주의 노선을 통한 유혈투쟁을 추구하는 파벌, 다섯째로 울레마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파벌, 여섯째로 유럽 지부, 특히 발칸반도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벌로 나누어져 있었다.

1902년 파리에서 소집된 오스만 자유당 대회에서 오스만 연합 진보 조직은 새로운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한 오스만 자유-박애 조직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영국을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기도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아르메드 르자와 추종자들은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고 1903년 구 조직의 일부 구성원들이 오스만 연합 진보의 정통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며 조직은 와해된다.

1905년 청년튀르크당 지도자인 바하에딘 샤킬 박사(Dr. Bahaeddin Şakir)와 아흐메드 르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의기투합했고 ‘오스만 연합 진보 회의(CUP)’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재건한다. 연합진보당은 해외 조직을 재건하면서 크레타,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코카서스, 및 오스만 제국 전역에 지부들을 설립한다. 1907년 살로니카 지역의 공무원, 장교들이 운영하던 오스만 자유-박애 조직과 합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파리 지부는 위원회의 본부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국외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08년 연합진보당은 2000명의 회원과 수많은 군 장교들이 가담한 조직으로 성장한다.

연합진보당은 1908년 6월 활동을 시작하여 7월 23일~24일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의회 하원을 다시 개설하는 제국 법령을 발표하면서 의회활동에 참여한다. 연합진보당은 중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연합진보당 지부가 설립된다. 12월 선거에서 연합진보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의회를 장악한다. 1910년 오스만 제국 전역에 연합진보당 지부 수는 83개에서 360개로 증가했고, 개인 회원수는 2,250명에서 850,000명으로 증가하며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다.

연합진보당은 조직체계를 바꾸게 된다. 초창기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지하 혁명 조직이었던 연합진보당은 이제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 하는 대중조직으로 확장된 것이다. 조직은 중앙위원회와 지방 조직으로 나누어졌으며 정치적으로는 중앙위원회와 상, 하원의 의원으로 나누어 지게 된다. 하지만 중앙위원회가 상, 하원의 의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분이 지나지 않았다. 이후 1913년 연합진보당은 당을 초월한 단체, 의미로 확대된다.

연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는 하부조직을 확장하면서 강력한 통제, 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중앙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통치 조직으로 활동했고 상, 하원을 장악한 의회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1918년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11월 연합진보당은 폐지되고 새로운 혁신당을 설립한다. 일부 연합진보당 중요 지도자들은 해외로 도주했고, 오스만 제국 정부는 1919년 5월 혁신당을 해산시킨다.

연합진보당은 해산되었지만 연합진보당 네트워크는 1919년~1922년 터키 독립전쟁을 전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연합진보당 정치가들은 튀르크 민족주의운동을 전개했고 터키 공화국 수립에 일조한다. 이후 터키 공화국 수립 이후 연합진보당의 인사들은 활동을 재개하지만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암살을 시도하면서 1926년 재판을 통해 연합진보당은 최종적으로 해산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연합진보회, 연합진보회의, 연합진보위원회, 연합진보당

● 다국어 표기 Genç Türkler, İttihat ve Terakki

● 참고문헌(오프라인) Şükrü Haniöğlü, “İttihat ve Terakkî Cemiyet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3, 1997, pp.476~484.

Şükrü Haniöğlü, “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York: Facts On File, 2009, pp.139~141

I F049 | 영묘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건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qbara

위인이나 유명인이 묻힌 영묘를 이슬람권, 그중 튀르크권에서 지칭하는 말은 다양하다. 이는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영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영묘의 형식이 어떤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 영묘를 지칭하는 말은 경우에 따라 원래 이름이 아닌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샬레이만 1세 영묘(이stanbul)

투르크어에서 영묘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랍어의 영묘인 막바라(maqbara, مقبرة), 땅을 의미하는 아랍어 투르바흐(turbah, تربة)에서 변형된 경우와 그리스어(mafsoleio, μαυσωλείον)를 어원으로 하는 서구권 언어에서 변형된 경우, 페르시아어의 돔이 있는 건물을 뜻하는 굴바드(گمبد gombad, gumbad)에서 변형된 경우, 역시 페르시아어의 작은 집을 뜻하는 카샤네(کاشانه kâšâna, kâšâne)에서 변형된 경우 등 여러 단어가 있다. 이 단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튀르키예어의 경우 Türbe/Kümbet, 아제르바이잔어는 məqbərə/türbə/günbəz 우즈베크어의 경우 Mavzoley/maqbara, 투르멘어는 mawzoleý, 카자흐어는 кесене/күмбөз/мазар 등으로 표기한다.

죽은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슬람 사상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영묘 건축 문화가 이슬람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묘 건축 문화는 일반적으로 군주를 비롯하여 명망 있는 인사들의 개인적인 영광과 죽은 자에게 기도하여 복을 받으려는 일반

대중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왕실 영묘는 이슬람 전래 이후에도 조상숭배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투르크인의 문화권에서 확산된 것으로 수피즘이 조직화된 12세기 이후에는 성인(聖人) 숭배와 영묘 건축 문화가 연결되면서 영묘 건축이 더욱 확산되었다.

당대 민중들은 영묘를 방문하면 죽은 성인의 축복(barakah)이 여전히 남아 있어 방문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군주의 영묘는 일반적으로 영묘의 주인이나 그 후계자들에 의해 건설되고, 성인의 영묘는 제자나 군주의 선물 또는 평범한 신도들의 도움으로 건설되었다. 이슬람 이후 최초의 영묘로 기록된 것은 바그다드의 칼리프 ‘알 문타시르’(Al-Muntasir, 재위: 861년~862년)의 영묘이다. 사마라에 건설된 이 영묘는 팔각형 평면도 건물에 돔으로 덮인 영묘로 양식 면에서 유사한 영묘가 없는 유일한 형태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와 무관하게 대체로 영묘 내부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매장된 위치를 알려주는 비문이 있고, 영묘 내부의 지상에는 빈 관만 만들어두는 형태였다. 시신은 영묘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영묘에 따라 미흐랍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무덤(관)을 향하지 않도록 미흐랍이 배치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영묘의 건축은 다른 건축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 건축 자재와 양식에 따라 변형되었다. 사만 조의 이스마일 사마니드 영묘는 정사각형 건물에 돔으로 덮였는가 하면, 카라한 조의 아랍아타의 영묘는 스퀘어 위에 돔을 덮었다. 두 영묘는 모두 벽돌의 배치를 통해 장식되었다. 대 셀주크 조의 ‘아이샤 비비(Aisha bibi, 11세기~12세기)’의 영묘도 유사한 형태의 벽돌로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불 파즐(Abul-Fazl, 11세기~12세기) 영묘와 같이 입구를 이완으로 만들고, 쌍 돔을 사용하여 작은 건물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된 영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메르베 위치한 술탄 산자르(Sultan Sanjar, 재위: 1097년~1118년) 영묘와 같이 터키석 색상의 유약을 발라 구운 벽돌과 타일로 장식한 영묘도 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의 경우 기존의 영묘 양식을 취하면서도 벽돌보다는 석재를 구하기 쉬운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영묘도 석재로 건설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원통형 또는 다각형 몸체에 사각뿔이나 원뿔을 올린 형식의 영묘가 자주 건설되었다. 또한 내부와 외부를 화려하게 타일로 장식하는 영묘도 많아졌다.

일 칸국 시대의 아나톨리아반도에서는 석조 건축 위에 벽돌로 만든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이 있는 영묘를 주로 건설했다. 그리고 티무르 조의 경우 다양한 민족이 모여 다양한 예술적 경험

이 모인 총합체로서 건물 구조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되, 장식에서 새로운 방식을 취했다.

이집트의 경우 파티마 조 이후에 맘루크에서도 영묘 전통이 계속되어 높은 단 위에 올라간 뾰족한 돔(pointed dome)과 같이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기술을 적용해 영묘를 건설했다. 오스만 제국의 경우에도 팔각형이나 다각형 몸체 위에 돔을 얹는 형식으로 영묘를 만들었고 특히 복합단지 내에 영묘가 건설되거나 복합단지 건설에 있어 영묘 건설이 같이 계획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마르 시난’(Mimar Sinan, 1489년~1588년)은 ‘카누니 술탄 쉴레이만 영묘’(Kanûnî Sultan Süleyman Türbesi)를 만들 때 내부와 외부가 이중으로 된 돔을 얹은 영묘를 건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세기 이후에 이르자 오스만 제국에서는 마드라사와 같이 건설하는 형식의 영묘나, 유럽의 영향을 받은 장식으로 꾸민 영묘도 유행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베, 마크바라, 막바라

● 다국어 표기 türbe(튀르키예어), kümbet(튀르키예어), mawzoley(투르크멘어), məqbərə(아제르바이잔어), türbə(아제르바이잔어) günbəz(아제르바이잔어), mavzoley(우즈베크어), maqbara(우즈베크어), кесене(카자흐어), күмбөз(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바라카, 피르와 지아렛가흐, 카르버치, 지야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Orman İsmail, “TÜRB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1, İstanbul: TDV, 2012, pp.464~466.

Burckhardt Titus, Seyyed Hossein Nasr, Jean-Louis Michon, *Art of Islam: language and meaning*, Bloomington: World Wisdom, 2009.

I F050 | 영혼과 관련된 민속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 beliefs about the soul and mind

투르크족은 전통신앙인 천신사상을 비롯해 애니미즘, 샤머니즘과 함께 불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유대교와 이슬람교 영향을 받았으며, 투르크 문화에는 이러한 종교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투르크족의 창조 신화에서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영혼을 찾기 위해 하늘

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내려갔다고 설명된다. 또한 투르크 민간신앙에서 인간은 영혼 없이는 생명력을 지닐 수 없고, 또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삶을 살게 했다고 믿어진다. 튀르키예어 중 ‘네페스(nefes)’라는 단어는 아랍어에서 파생한 말로 숨, 활력, 삶의 활력 등을 나타내며 영혼이란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그 밖에도 영혼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튀르키예어 루흐(ruh)는, 옛 투르크어 틴(Tin)에 상응하는데 이는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현재에도 틴/틴(Tin/Tin)이란 단어는 투르크 종교학, 민속학에서 ‘영혼’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영혼이란 개념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또 다른 튀르키예어 단어인 잔(Can)은, 보편적으로 민속신앙에서 육신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투르크 신앙에서 영혼은 인간이 태어날 때, 육신으로 들어가고 죽을 때 육신에서 빠져나와 새 처럼 입 속(혹은 코)에서 빠져나와 날아가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인식되었다. 이때 잔(can)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는데 잔은 영혼이 잠시 몸을 빠져나가게 되면 혼절하며,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은 잔이 육신을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혹 의식 혼동(장애)의 상태 혹은 간질 등은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이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옛 투르크인들은 죽음을 ‘날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영혼이 육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투르크인들은 ‘날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설명했던 것으로 보아 영혼의 형상을 새나 나비와 같은 존재에 비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 민간신앙에서 영혼은 죽음 이후 육신을 떠나 창조신의 곁으로 날아간다고 믿었는데, 이는 천신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예로부터 투르크족은 창조신이 하늘에 있으며, 그는 곧 천신(킵 탄르, 텡그리)으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숭배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는 알타이 창조신화에서 영혼적 실체(무형의, 정령의 형체를 띠고 있는)인 월겐 신과 키쉬오을루(Kişioğlu, 후에 악령의 수장, 악마로 대표되는 존재)는 거위처럼 날고 있었다고 표현한다. 알타이계 투르크족은 아이의 영혼은 새처럼 하늘에서 날아와 어머니(여성)의 배(자궁)로 날아 들어간다고 믿었다.

이처럼 ‘영혼’과 ‘새’를 연관시키는 사상은 꾸준히 등장하는 개념인데 전통적으로 투르크 민속신앙에서는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것이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수많은 설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영혼의 형태에 관해서는 전설이나 민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경우가 거의 없이 통상 새의 모습이라고만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튀르키예인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추모식 때 새로 변하여 창문가로 날아와 가족, 친지, 지인들의 목소리, 기도 등을 듣는다고 믿는다. 집에서 초상이 나면 창문을 열어 죽은 이의 영혼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는 죽은 이의 영혼 또는, 죽은 이의 영혼을 데려가는 저승사자인 아즈라일(Azrail)이 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전해진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혼과 관련된 표현 및 개념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주장도 많지만, 적어도 투르크 문화권에서 영혼은 모든 존재(생명체)의 본질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생명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추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루흐 일레 일길리 겔레넥셀 튀르크 이나느쉬라르

● **다국어 표기** ruh ile ilgili geleneksel türk inanış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텡그리, 죽음과 관련된 민속신앙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ıcı yay, İstanbul, 2001.

I F051 | 예니세이 비문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비문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Yenisey Inscriptions

예니세이 비문은 러시아 남부 시베리아의 하카스와 투바 공화국 내에 위치하는 예니세이강 상류와 그 강줄기를 따라 위치한 지역에서 발견된 돌궐문자로 작성되어 새겨진 비문이다. 예니세이 비문은 아바칸(Абакан, Abakan)강, 켐치크(Kemchik, Хемчик)강, 켐(Кем, Хем)강, 오야(Оя, Oya)강, 엘레게스트(Elegest, Елөгест)강 등 예니세이강의 지류나 본류를 중심으로 하

카시아(Khakassia, Хакасия), 투바(Tuva, Тыва), 알타이 산지(Mountain Altai),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Красноярск) 등의 지역에 분포된 비문 형태의 문자 자료로 현재까지 158개가 발견되었다.

비문에는 기년이 나타나지 않기에, 작성 연대를 확정하는 것이 논의 대상이 된다. 빌헬름 톰슨은 예니세이 비문의 문자들이 오르혼 비문보다 더 초기 형태를 띠고 있기에, 6세기~7세기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라들로프(W.Radloff)는 이 비문이 7세기~8세기 초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어휘의 특징이나 씨족 표식인 탐가 등을 볼 때 8세기~10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초기 키르기스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기에, 예니세이 비문들은 대부분 키르기스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모든 예니세이 비문들이 키르기스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쓰여진 비문 중 일부는 다른 투르크 부족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투바 비문에 있는 ‘튀르기쉬 부족 속에서 나는 벵(Beg)이다’는 구문과 바르크 비문에서 발견된 ‘나는 13세에 알트(6) 오구즈 부족들로부터 독립했다’와 같은 표현들이 그 예이다.

예니세이강 상류에서는 특히 돌궐문자로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 예니세이 비문은 평범하고도 단순한 어투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로 비문의 화자, 즉 피장자가 가족, 친척, 친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피장자의 이름, 칭호, 나이, 생애 중의 업적 등을 함께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니세이 인스크립션
 - 다국어 표기 Yenisey Yazıtları(튀르키예어), Yenisey Inscriptions(영어)
 - 연관 검색어 돌궐문자, 키르기스, 하카스, 투바, 라들로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박원길, 「비교민속 자료로서의 몽골지역에 위치한 돌궐·위구르 비문 소개」, 『민속학연구』, (46), 2020, pp.255~289.
- Ercilasun, A., *Türk Dili Tarihi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Ankara: Akçağ Yayınları, 2004.

I F052 | 예니세이 키르기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jiankun

예니세이 키르기스인은 예니세이강 상류에 거주하던 유목민으로 B.C. 3세기에 흉노 목돌 선우에게 정복당한 유목민족이며, 키르기스인의 전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니키타 비추린이 남긴 글(1950년)에 따르면 중국 당나라 시대에 예니세이 키르기스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키가 크고 붉은 머리카락, 하얀 얼굴, 녹색 또는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비추린이 고대 키르기스 인을 몽골인과 투르크 계통의 혼합인종으로 보고 있었기에 중국의 기록과는 모순된 면이 있다. 이후 미국의 투르크학자(Turkologist) 마이클 로버트 드롬프(Michael Drompp)가 중국 자료에 남아 있는 키르기스어 단어가 실제 투르크어라는 점을 발견하면서 언어와 인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오르콘 비문에 남겨진 키르기스어도 투르크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오르콘 비문은 처음 ‘키르기스’라는 단어가 등장한 비문이었다. 예니세이 키르기스인이 남겨놓은 고고학 문화는 예니세이강 유역에서 B.C. 3세기부터 확인되는 ‘타쉬틱 문화’(Таштыкская культура, Tashtyk culture)로 예니세이 강변에서 A.D. 5세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 문화는 B.C. 7세기~B.C. 3세기의 스키타이 문화 중 하나인 타가르 문화의 후신으로, 특히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덤 안에서는 인간 모양으로 만든 인형이 발견되었다. 이는 매장 전 의식에서 죽은 시신을 화장한 후 석회화된 뼈를 모피 가방에 넣고 풀과 함께 꿰맨 후 사람 모양으로 된 인형 안에 넣은 것이다. 인형의 얼굴은 풀로 만든 후 고인의 얼굴 주형으로 본뜬 초상화 마스크를 덧입혔는데 이때 주형의 재료로 석고와 석회암을 첨가했기 때문에 짙은 하얀색을 띤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턱과 뺨에 붉게 반점을 그려 넣었다.

예니세이 키르기스인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오글라흐틴스키(Оглахтинский могильник, Oglakhtinsky)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의 직경은 10m~20m, 높이는 0.4m~1.5m로 쌓은 것이다.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서쪽에 출입구를 만들었다. 무덤 내부에는 고인의 화장뼈가 든 인형과 함께 불탄 인골이 100명 이상이 한 무덤방 안에 매장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타쉬틱 문화의 외곽

에는 입석을 설치해 놓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니세이 키르기스
- 다국어 표기 鞏昆(한자), Енисейские кыргызы(러시아어), Yenisey Kirgiz(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목돌 선우, 스키타이, 오르콘, 타쉬틱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М.-Л.: Т. I. 1950, 382 с.
Кызласов Л.Р., Таштыкская эпоха в истории Хакасско-Минусинской котловины (I в. до н.э. — V в. н.э.). М, 1960.
Michael Drompp, The Yenisei Kyrgyz from Early Times to the Mongol Conquest, The Turks 1 early ages, Angara, 2002..

I F053 | 예니체리

- 시기 A.D. 10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Janissaries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상비 군사조직으로 통치자의 친위부대이다. 1370년 ‘오스만 제국 무라드 1세’(Murad I, 재위: 1362년~1389년)에 의해 조직된 정예 군사조직이자 술탄의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상비군이였다. 예니체리를 조직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은 펜치크 제도(Pençik sistemi)를 통해 전쟁 포로와, 1380년 데브시르메 제도(Devşirme sistemi)를 통해 비무슬림, 기독교 가정의 남성 아동을 활용했다.

처음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 징집된 남성 아동들은 투르크 가정으로 보내져 가사일을 도우면서 투르크어, 전통, 문화를 습득한 후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했다. 이후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오스만 제국이 비무슬림, 기독교 가정에서 남성 아동을 징집한 이유는 투르크 귀족 및 군사집단이 사병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아동들은 군사훈련을 통해 예니체리가 되었고, 술탄의 노예로 불렸지만 상당한 특권과 임금을 받았다.

예니체리는 활, 석궁, 창으로 무장했고 무라드 2세(Murad II, 재위: 1421년~1444년, 1446년~1451년) 통치시기부터 화약 무기, 화승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니체리가 화승총으로 무장

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화력을 발휘했는데 1529년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군을 궤멸시켰다. 이후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고 주변 지역으로 활발한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국가는 늘 예니체리를 활용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은 16세기 후반에 화력 우위가 상실될 때까지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오스만 제국은 유럽 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오스만 제국은 예니체리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키기로 결정하고 1560년 후반 약 12,800명이었던 예니체리는 1606년 37,600명, 17세기 후반에는 50,000명~54,000명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니체리의 양적 증가는 오스만 제국 사회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먼저 데브시르메 제도가 붕괴되어 투르크, 무슬림들이 예니체리가 되기 시작했고, 예니체리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오스만 제국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예니체리는 부족한 자신들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상인, 상공업자들과 결탁하여 부족한 임금을 보상받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군사훈련은 등한시되었고, 혼인이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결국 이러한 예니체리의 타락은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유럽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졌다.

예니체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스만 제국은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들의 저항이 오스만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예니체리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빈번하게 반란까지 일으켰다. 이에 오스만 제국 술탄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고, 실제 일부 술탄들은 시해를 당하기도 했다. 예니체리가 담당하던 이스탄불과 주요 도시들의 치안, 소방 업무는 마비가 되었다. 1588년 이스탄불 화재 때는 화재를 진압하지 않고 상가를 약탈하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이러한 예니체리의 타락을 해결하고자 ‘셀림 3세’(Selim III, 재위: 1789년~1807년)는 신식 군대를 조직하지만 예니체리의 반란으로 실패한다.

이어 즉위한 마흐무드 2세(Mahmud II, 재위: 1808년~1839년) 역시 예니체리를 개혁하고자 신식 군대(Nizam-I Cedid)를 조직했다. 당연히 예니체리는 신식 군대에 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마흐무드 2세는 12,000명의 병력과 포병을 활용하여 예니체리 막사를 불태우고 약 6,000명의 예니체리를 처형한다. 그리고 이스탄불을 수색해 예니체리 잔당들을 일망타진한다. 이런 강력한 조치에 지방에 주둔하던 예니체리까지도 모두 처형, 해산되면서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조반니 장 브린디시가 그린 예니체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예니체리는 엘리트 군사 조직, 술탄의 친위부대로 14세기~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16세기 들어 타락의 길을 걸으며 오스만 제국이 유럽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8세기 근대적 개혁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면서 결국 자신들이 수호해야 하는 오스만 제국 술탄에 의해 1826년 불명예스럽게 강제 해산을 당한다.

- 다국어 표기 Yeniceri(튀르키예어) Yenîçeri(아제르바이잔어), Yanicharlar(우즈베크어), Жаға шерик(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데브시르메 제도, 펜치크, 경사스러운 사건, 셸림 3세, 마흐무드 2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yeniceri>
- 참고문헌(오프라인) Gábor Ágoston, “Janissarie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9년), pp.296~297.
Rhoads Murphey, *Ottoman Warfare, 1500–1700*,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9.

I F054 | 예루살렘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팔레스타인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Jerusalem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고대 이래의 성지이다. 오스만 시대에는 샴(다마스쿠스) 율라예트 아래에 산작의 소재지로 인구 1만~2만 명 사이의 작은 규모였기에 19세기까지만 해도 큰 도시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계열의 유일신교 모두에서 종교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은 곳이기도 했다.

특히 수니 무슬림에게 알 악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이 있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밤 여행과 승천의 기적이 있었던 성지인 예루살렘은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성스러운 도시였다. 따라서 1530년대 ‘술탄 쉴레이만 1세’(재위: 1520년~1566년)는 이 도시의 제반 시설인 수도교의 수리, 급수시설의 설치, 무너진 성벽의 재건 등을 다 해 주기도 했다. 그때 쉴레이만의 명에 의해 수리된 성벽은 지금도 구도시 둘레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당시 바위의 돔(Kubbetü's-Sahre)의 바깥 모자이크를 새 타일로 바꾸고 창문에 채색 유리를 붙이는 등 큰 보수작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오스만 왕실의 경건함을 공공연하게 선전하고자 했다. 또한 쉴레이만의 왕비였던 휘르레드 ‘하세키 와크프’라는 이름으로 모스크, 학교, 여관, 상점, 빈민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포함하는 모스크 복합단지 건설을 위촉했다.

예루살렘에는 물론 오스만 중앙에서 임명되거나 다마스쿠스의 관료들에 의해 임명된 지방관이 부임했으나, 지역 내의 가문들의 입김도 강했다. 강력한 토착 군사세력이 없었으므로 후세이니와 칼리다 가문 같은 울라마 출신으로 도시 내의 와크프를 관리하는 역할에서 유래한 지방명사(a'yan) 세력의 정치적 입김이 강했다.

예루살렘의 주된 수입원은 순례객에 대한 서비스업으로 특히 이 도시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순례자들이 많았다. 오스만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순례는 무슬림들의 ‘핫즈’에 비교할 만한 것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발칸 기독교인들은 흔히 ‘하지’라는 칭호를 자기 이름에 덧붙이곤 했다. 이와 비슷하게 아랍 기독교인은 ‘마크다시’(maqdasī, ‘성지에 다녀온 사람’)라는 칭호를 자기 이름에 덧붙였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묻히는 자는 세상의 종말이 도래할 때 부활



예루살렘 전경

하기 좋다는 믿음이 있어 늙고 병든 몸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사람도 많았고, 18세기 이스탄불 유대인들은 그런 노인들을 위한 자선기관을 세우기도 했다.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예수 그리스도가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장소)의 관할권은 여러 교파와 교회들 사이에서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했던 곳이다. 그 상황에서 서구 열강의 세력이 개입하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서, 오스만 중앙 정부와 예루살렘의 지방 관료들은 그들 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이 교회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1853년 크림 전쟁 발발의 빌미가 되기까지 했다.

예루살렘은 19세기 초에는 술탄 설레이만의 명으로 지어진 성벽 내부만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지만, 현재는 그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 1840년에 구도시 범위 내에는 4,650명의 무슬림, 3,350명의 기독교인, 5,000명의 유대인들이 존재했고, 구도시는 무슬림, 기독교인, 아르

메니아인, 유대인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을 선교 본부로 하여 성벽 밖 북쪽에 교회를 지었고 러시아 정부도 성벽의 서북쪽에 순례객을 위한 센터를 마련했으며 유럽 출신 유대인도 성벽 서쪽에 새로운 주거 단지를 지었다.

성벽 내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원래 토박이 무슬림과 기독교인들도 성벽 밖으로 이주해 나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19세기부터는 시온주의운동을 통해 해외 유대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1890년의 예루살렘 인구 추산에서는 무슬림 9,000명, 기독교인 8,000명, 유대인 20,0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1900년에 이르자 무슬림 1만명, 기독교인 1만명, 유대인 3만 5천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대 인구의 급증에 대해서 1909년 오스만 의회에서는 무슬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면서 러시아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유입이 금지되었다. 예루살렘은 전쟁 중 이집트에서부터 복진한 알렌비 장군 휘하의 영국군에게 저항없이 항복했다.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22년 팔레스타인이 영국에 위임통치령으로 위탁되었을 때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루살렘, 쿠뒤스

● 다국어 표기 al-Quds(아랍어), Yerushalayim(히브리어), Kudüs(튀르키예어), Qüds(아제르바이잔어), Иерусалим(카자흐어), Quddus(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 “Jerusalem, ”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299~300.

Kamil Cemil el-Aseli, “Kudüs, ”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6, 2002, pp.334~338.

I F055 | 예르-수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Yer-su

‘예르-수’는 고대 투르크 신화에 등장하는 투르크인을 보호하는 중계의 주신이다. 고대 투르크어로 ‘예르’는 땅이며, ‘수’는 물을 의미한다. 고대 투르크에서는 ‘으두크 예르-수’(ыдуқ ер-су)

Йер-Суб, 성스러운 땅과 물)라고 부르며 숭배했다. 예르-수는 고대 투르크 신화에서 알타이, 하카스, 키르기스 신화로 이어진다.

알타이 신화에서 예르-수는 선한 최고신들의 총합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존재이다. 17명의 예르-수가 눈 덮인 산 정상에 살고 있으며 강의 기원이 된다고 전해진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는 ‘이오-칸’(Йо-кан)인데, 그는 천신 ‘울겐’(Ульген)의 집까지 닿는 거대한 가문비 나무(세계수)가 자라는 땅의 배꼽이라 불리는 대지의 중심에 산다.

다른 예르-수는 쇼-칸(Сё-кан)과 테미르-칸(Темир-кан), 탈라이-칸(Талай-кан), 아담-칸(Адам-кан), 모르도-칸(Мордо-кан, Абакан-кан), 알타이-칸(Алтай-кан), 키르기스-칸, 야바시-칸, 예데르-칸 등이 있다. 이들은 아이들과 가축, 타이가 동물들의 혼과 탄생을 관장한다. 예르-수 의인화는 알타이 신화뿐 아니라 하카스 신화나 키르기스 신화에서도 발견된다. 하카스 신화에서 예르-수는 지역의 주인이면서 산이나 타이가, 강, 호수에 살고 있어서 키르키스인들은 예르-수를 대지 신, 물의 신으로 생각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예르-수
- 다국어 표기 Йер-С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키르기스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 261~262 с.

I F056 | 예르-퇴스틱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민담 ● 유형 소분류2 관습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Yer-Tostik

오랜 옛날에 유목 생활을 하던 예르나자르 노인 부부에게는 8명의 아들과 8명의 하인이 있었다. 이들의 삶은 힘들었다. 한때는 가뭄이 겹쳐 먹을 것이 거의 없어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그 후 소중히 보관하던 큰 상자 속에서 먹을 것을 발견하고 허기를 달랜 할머니는 이후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태어난 아홉 번째 아들이 '퇴스틱'이었다. 태어난 후 퇴스틱의 성장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 1년 만에 1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퇴스틱은 뛰어난 사냥 솜씨로 동물들과 새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제 집에서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녀가 나타나 계약을 부려 퇴스틱에게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는 이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었으나 어머니는 진실을 말해 주지 않았고 마녀는 퇴스틱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퇴스틱은 계속 곤경에 처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험을 시작해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으러 초원과 사막 여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어느 마을에서 형제들을 찾아서 함께 고향으로 되돌아 간다. 돌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가축을 잃기도 하고 붉은 암말이 말썽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길을 재촉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모든 형제들이 갈 수 있었다. 이후 스토리는 어머니가 9명의 아들을 한 여자와 혼인시키려 하고, 이후 아버지의 노력에 관한 새로운 무용담이 펼쳐진다.

이 민담은 출생의 신비가 있는 전설적인 무사의 힘과 특이한 말과 기지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요소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는 전형적인 옛날 카자흐인들의 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다국어 표기** Ер Тестік(카자흐어), Ер-Тости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구전문학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ertegi.ru/index.php?id=1&idnametext=1&idpg=1>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в трех томах. Том первый, Алма-Ата: Жазушы, 1971 г.

I F057 | 예브게니 드미트리예비치 폴리바노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Yevgeny Dmitrievich Polivanov



예브게니 드미트리예비치 폴리바노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예브게니 드미트리예비치 폴리바노프는 1891년 3월 12일 스몰렌스크의 가난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과학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일본학을 전공했으며, 1912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역사언어학부를 졸업했는데, 재학 당시 이미 러시아 언어학자로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던 ‘보두앵 드 코트네이’(I. A. Baudouin de Courtenay)와 슈체르바(L. V. Shcherba)의 지도하에 언어학적 관점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프랑스어, 러시아어, 라틴어, 일반 언어학, 음성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1914년 「일본어와 류큐어의 비교 음성」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일본어의 근원과 함께 일본 방언 연구를 시도했다.

1914년 그는 러일학회의 지원을 받아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일본 현지어를 습득했고, 이후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로 가서 교토 방언을 공부했다.

그리고 그는 1914년에는 도쿄 제국 대학 음성연구소에서 근무했다. 그는 그곳에서 일본 언어학자들과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러일학회의 지원이 끝나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석사과정에 지원해 ‘라들로프’가 이끄는 러시아-중앙 및 동아시아 연구위원회 지원을 받아 1915년 여름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도쿄와 일본을 오가며 일본 방언을 연구했다.

폴리바노프는 연구 활동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로도 활동했다. 1917년 좌파 멘셰비키에 합류하여 임시 정부 외무부 언론 부서를 지휘했으며, 10월 혁명이 발발하자 11월부터 트로츠키 외무부 인민위원 2인 중 한 명으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 조약’ 초안을 준비했다. 그 밖에도 그는 정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차르 정부와 다른 국가들과 맺은 비밀 조약문을 번

역하고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1917년에 그는 북부 지역 정보국의 부서장 직무와 페트로그라드 위원회 중국 공산당 부서 조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어의 러시아어 전사와 함께 1918년 말레이-일본어의 유사점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면서 소련 학계에 최초로 말레이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19년 볼셰비키당에 가입했고, 정치 및 교육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28세에 교수로 임명되었다.

1921년 그는 모스크바로 이주해 코민테른 극동부 부국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코민테른에 의해 타슈켄트로 파견되어 신장, 동간 지역과 관련된 비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해 말부터 그는 중앙아시아대학교 교수와 투르크 공화국 국가과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무했으며 이 기간에 그의 본격적인 투르크어와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22년 제2차 우즈베크 교육학회에서 우즈베크어의 라틴 문자 전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일부 투르크어 문자개혁에 대한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우즈베크 문자와 카자흐 문자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1924년에는 잠시 육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로 가서 일본어를 가르친 시기도 있었으나 그 동안에도 그는 투르크어 연구를 계속 이어 나갔다.

하지만 1929년 그는 이미 권위있는 학자였지만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진 러시아의 형식주의자(포르마리스트)들의 압박으로 모스크바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결국 사마르칸트로 떠나 그곳에 있는 우즈베크 국립 연구소에서 일했으며, 1931년에는 연구소가 타슈켄트로 옮겨지면서 타슈켄트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폴리바노프에 대한 형식주의자(포르마리스트)들의 박해는 계속 되었다. 결국 참다 못한 폴리바노프는 『마르크스주의를 위한 언어학』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포르마니즘을 비판했고 그로 인해 포르마리스트들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급기야 그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출판권마저 박탈당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1934년 키르기스 문화연구소 교수직을 맡고 서사시 마나스 번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1937년 말 모스크바 내무부 인민위원회의 체포 명령이 내려지며 8월 1일 체포되어 모스크바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폴리바노프는 간첩활동으로 기소되어 티르카 교도소에 수감되며 고문을 당하며 거짓 증언을 강요당한다. 1938년 1월 25일 소련 최고 재판소 군사 대학 비공개 회의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형법을 어기고 간첩 활동을 한 것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날 그는 코무나르카 사격장(komunarka)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다.

그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세르비아어, 폴란드어, 중국어, 일본어, 타타르어, 우즈베크어, 투르크멘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타지크어, 에스토리아어 등 18개 언어에 능통했으며, 평생 20권 이상의 책과 14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많은 작품들은 수기로 작성되어 남아 있다. 그는 「타슈켄트 방언의 소리 구성(Звуковой состав ташкентского диалекта)」, 「라틴 문자와 튀르키예 문자에 대한 비교 및 고찰(Проблема латинского шрифта и турецких письменностях)」, 「튀르키예어 모음에 대한 질문(К вопросу об обще-турецкой долготе гласных)」, 「우즈베크어의 라틴 문자 전사 프로젝트(Проект латинского шрифта узбек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우즈베크인의 민족지학적 특성(Этнографичес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узбеков)」, 「우즈베크어의 간단한 문법(Краткая грамматика узбекского языка.)」,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의 문법 비교 연구(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узбекским языком.)」, 「우즈베크어 문법에 관련된 자료(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узбекского языка)」, 「우즈베크인들을 위한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Опыт частной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збекам)」 등의 연구 결과물을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브게니 드미트리예비치 폴리바노브

● 다국어 표기 Yevgeny Dmitrievich Polivanov(영어)

● 연관 검색어 마나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лпатов В. М., “Марр, марризм и сталинизм“. Философ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 1994, 271~288.

Алпатов В. М., “Путешествия Поливанова“. Восточная коллекция. с., 2002, 106~113.

I F058 | 예언자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용어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rophet

예언자는 계시된 신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언자에 해당하는 영어 ‘Prophet’은 그리스어에서 ‘누군가를 위해 말하는 사람(Prophetes)’을 어원으로 한다. 대부분의 투르크어에서 예언자는 페르시아어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 ‘파암바르’(payām-bar: پیامبر)를 변형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대 투르크어로 ‘이알바츠’(yalvaç 또는 이알라바츠 yalavaç)라는 단어도 예언자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었으나 페르시아어 어원의 ‘파암바르’가 일치감치 투르크어에 자리잡았다. 이 단어는 현대어를 기준으로 튀르키예어로 Peygamber, 우즈베크어로는 Payg’ambar, 카자흐어는 Пайғамбар, 아제르바이잔어는 Peyğəmbər로, 투르크멘어는 Pygamber로 표기한다.

코란과 하디스에서는 예언자를 아랍어 나비(نبي)와 라술(رسول)이라고 했다. 나비는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라술은 ‘보내어진 사람’을 의미한다. 즉, 코란에서 나비와 라술은 모두 ‘알라가 그의 명령과 조언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선택한 사자(使者)’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슬람 신학에서 라술은 ‘책(성전)과 샤리아를 받은 예언자’이며, 나비는 ‘라술이 가져온 책으로 사람들을 종교로 초대하기 위하여 계시를 받은 자’로 구분한다. 일설에 의하면 라술의 수는 총 313명(또는 315명), 나비의 수는 12만 4천여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코란과 하디스에서 종종 예언자를 지칭할 때 나비와 라술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슬람교에서 일반적으로 최초의 예언자는 아담,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로 본다. 일부 신학자들은 최초 예언자가 아담이 아니라 노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코란에서 예언자로 언급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기독교 성경식 표기이다. 아담, 이드리스(예녹), 누흐(노아), 예벨(후드), 살리흐(살로), 이브라힘(아브라함), 루트(룻), 이스마일(이스마엘), 이스하크(이삭), 야쿠브(야곱), 유수프(요셉), 아이유브(욥), 슈아이브(이드로), 무사(모세), 하룬(아론), 돌키플(에제키엘), 다우드(다윗), 술라이만(솔로몬), 일라스(엘리아), 알야사(엘리사), 유누스(요나), 카자리야(스가랴), 야흐야(요한), 이사(예수) 그리고 무함마드이다.



라미이 헬레비가 16세기에 그린 설교하는 선지자 무함마드
 Source: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api/collection/>

하나님은 모세에게 토라를, 다윗에게 시편을, 예수에게 성경을 보내셨으며, 무함마드에게는 코란을 보냈다.

이슬람에서 이들 예언자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며, 진실한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하고, 내세가 반드시 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 알린다. 그들은 계시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고, 이것이 알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내적 경험을 통해 이해한다. 그래서 알라의 명령을 알리고, 그 명령을 예언자가 실행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고결한 생활방식을 확립함으로써 모범이 되도록 하여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알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언자를 선택하며,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사람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오로지 알라의 의지로만 행해

지며, 예언자가 신성의 자질을 갖는 것이 아니기에 예언자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알라로부터 보호받는다. 예언자에게는 함께 계시를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는 동료와 사도가 있다.

이슬람교에서 예언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며, 많은 신학자가 예언자는 천사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시를 받는 방식, 기간, 보편성 등에 따라 예언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러 조건에 따라, 무함마드가 최고의 예언자이며, 그 외에 이브라힘(아브라함), 무사(모세), 다우드(다윗), 이사(예수)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믿는 정설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이감베르, 파이감바르, 베예엠베르
- 다국어 표기 Peygamber(튀르키예어), Payg'ambar(우즈베크어), Пайғамбар(카자흐어), Peyğamber(아제르바이잔어)

어), Pygamber(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하디스, 코란

● 참고문헌(오프라인) Yavuz Yusuf Şevki, “PEYGAMBE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4, İstanbul: TDV, 2007, pp.257~262.

Çelebi İlyas, *İslâm'da İnanç Esasları*, İstanbul, 2019.

I F059 | 오구즈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Oghuz

오구즈(Oghuz)는 투르크멘(Turkmen)족이라고도 불리는데 중세에 존재하던 투르크계 유목 민족의 한 분파였다. ‘오구즈’의 언어적 의미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고대 투르크어에서 씨족의 뜻을 가진 ‘오크(Ok)’란 단어에 복수어미 ‘z’가 합성된 단어(Ok+uz)로서 ‘부족’을 뜻한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구즈는 고대에는 어떤 특정한 종족이나 부족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부족이나 종족 연맹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어 왔다.

오구즈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7세기 말로 오르콘 비문에 돌궐의 적대 세력으로 ‘도쿠즈(Dokuz: 9) 오구즈’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중국 사서에는 도쿠즈 오구즈를 ‘구성(九姓)’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때까지도 오구즈는 특정 종족으로서가 아닌 투르크 부족 연합체를 지칭했다. 그들은 8세기에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 지역에서 연맹을 구성한 다음 9세기부터 서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여러 부족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이후 셀주크 조 성립에 기여한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10세기 전후부터 다른 투르크 민족들과 다른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훗날 오스만 투르크의 주요 조상이 되었다.

오구즈족은 오구즈어파(Oğuz languages)를 형성시켰는데 이들은 투르크어족 한 분파로서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투르크멘어 등이 속해 있으며 사용 인구수는 1억 5천만 명을 넘을 만큼 광대하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투르크족의 한 분파인 오구즈 족에서 유래되었고, 민

족의 성립과 함께 분리되며 발전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오구즈어파는 서부, 동부, 남부 구우즈와 살라르로 세분할 수 있는데 오구즈족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투르크멘(Türkmen)인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아나톨리아반도에 정착해 있는 튀르키예 공화국 국민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오구즈족은 본래 하늘과 정령들을 숭배하던 텡그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셀주크 조가 건국되면서 페르시아인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이슬람으로 바뀌었다. 셀주크 조 치하에 오구즈족들은 수니파가 주류였다. 그런데 카프카스와 그 남쪽 부근의 오구즈족이 이후 시아파의 12이맘파로 개종했고, 그들이 현재 아제르바이잔인의 기원이 되었다. 더 나아가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사파비 제국이 발흥하면서 이제는 페르시아 전역이 12이맘파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우즈

● 다국어 표기 اوغوز(오스만튀르키예어), Oghuz(영어)

● 연관 검색어 오르콘, 텡그리,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수니, 시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Oghuz_Turks#/media/File:AD_750OguzYabgu.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Grousset R., *The Empire of the Steppes*, 1991, Rutgers University Press.

Aydın Mehmet, *Bayat-Bayat boyu ve Oğuzların tarihi*. Hatiboğlu Yayınevi, 1984.

Minahan James B., *One Europe, Many Nations: A Historical Dictionary of European National Groups*, Greenwood Press, 2000.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I F060 | 오구즈나메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Oguz-Name

『오구즈나메』는 오구즈 칸의 신화적 조상과 오구즈-투르크의 가계 전설에 관한 기념비적 서사시이다. 오구즈는 ‘오구즈 민족’이고, 나메는 ‘책’이란 뜻이어서 오구즈 나메는 ‘오구즈의 서

(書)'란 의미이다.

『오구즈나메』는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중세에 들어서 문자로 기록되었다. 이 서사시는 두 개의 이본이 전해 내려오는데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첫 번째 판본은 13세기~14세기 고대 위구르 문자로 쓰였으며 각 9행으로 이뤄진 4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판본은 라들로프(B.B. Радлов)와 셰르바크(A.M. Щербак)가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본은 17세기에 아랍어로 쓰였는데 히바의 칸인 '아불가지'(Абу-ль-Гази)가 『샤자라히 타라키마(투르크멘 족보: Шеэире-и тарахима)』라는 이름으로 집필했다. 이 두 번째 판본은 1958년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오구즈나메』에는 오구즈 용사들의 원정과 그들의 후손들의 영예로운 업적, 오구즈 집안의 계통도, 관습과 의례, 전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사건과 신화적 사건이 비슷한 비율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구즈 칸의 형상은 실존 인물보다는 여러 문학적 형상들의 집합체로 보이고, 투르크 민족의 전설, 신화가 풍부히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오구즈나메』는 역사서이며, 동시에 문학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구즈의 친구들인 킵차크벡(Кыпчакбек), 칼라쉬(Калаши), 칸갈릭(Кангалы) 같은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민족지학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우즈나메, 오구즈나마
- 다국어 표기 O'g'uznoma(우즈베크어), Огуз-Наме(러시아어), Oguz Name(영어), Оғызнама(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고대 위구르 문자, 샤자라히 타라키마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Т. 4. 2006. С. 184.
Короглы Х.Г. Огуз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М. 1976.

I F061 | 오구즈 투르크어와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itābu Bulgatu'l-Muštāk fī Luġati't-Türk we'l-Kıfçāk

오구즈 투르크어와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은 투르크인이었던 '제말레딘 에부 무함메드 압둘라'가 킵차크 투르크어와 오구즈 투르크어 방언을 설명하기 위해 집필했다. 작가가 투르크어에 능통한 투르크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때 그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바, 오구즈 투르크어와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은 언어사 및 어휘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작품의 연대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에부 베키르'(Ebu Bekir)라는 사람이 1451년에 이 작품을 읽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451년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유일한 판본은 현재 파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반면 첫 출판은 1938년 바르샤바의 '아나니아스 자야츠코프스키'(Ananiansz Zajaczkowski)가 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아나니아스 자야츠코프스키'(Ananiansz Zajaczkowski)가 연구한 첫 번째 파트는 사전의 명사와 관련된 부분, 명사의 색인 부분은 아랍 문자로 된 텍스트와 별도로 선정된 사진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동사와 관련된 부분, 동사의 색인과 동사 부분의 판본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작품과 관련하여 할라시 쿤(T. Halasi Kun), 베심 아탈라이(Besim Atalay) 등이 연구를 진행했던 기록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타부 불가툴 무쉬타피 루가티트 튀르크 벨 킵차크
- 다국어 표기 Kitābu Bulgatu'l-Muštāk fī Luġati't-Türk we'l-Kıfçā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베심 아탈라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Caferoğlu, Ahmet.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kçağ. 2004.

I F062 | 오구즈어파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어파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Oghuz languages

오구즈어파(огузские языки)는 투르크어족의 한 어파로 남서투르크어파(юго-западные тюркские языки)로 부르기도 한다. 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분포되어 있다. 오구즈어파의 특징은 우선, 음성적으로는 단모음이 6개~9개인 킵차크어파나 카를루크어파와 달리 단모음이 8개 존재한다. 둘째, 접사에서 비원순모음 대신 원순모음을 사용한다.(йарук > йарык) 셋째, 접사가 붙을 때 사라지는 g발음이 있다.(алан > алган) 넷째, 단어의 제일 앞에 오는 자음은 유성음화된다.(гөр- > көр-, дил > тил). 그 외에 문법적으로는 소유격과 목적격, 방향격, 1인칭 복수 동사 변화에서 음소가 생략되는 현상이 있으며, 킵차크어파와는 다른 어원에서 유래하는 단어들이 있다.

오구즈어파는 세 개의 하위어파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오구즈-투르크멘어파(огузо-туркменская подгруппа)인데, 10세기~11세기 중세 오구즈어에서 유래했고, 현대 투르크멘어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오구즈-불가르어파(огузо-булгарская подгруппа)이다. 오구즈-불가르어파는 중세 페체네지어(печенежский язык)와 우즈어(язык узов)에서 유래했고, 오늘날의 가가우즈어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오구즈-셀주크어파(огузо-сельджукская подгруппа)인데, 중세 셀주크어(сельджукский)와 고오스만어(староосманский)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크림타타르어의 일부 방언(крымскотатарский язык)이 여기에 속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구즈어파
- 다국어 표기 Огузские языки(러시아어), لغات الأوغوز(아랍어), Oğuz dilləri(아제르바이잔어), Oğuz dil grub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멘어, 가가우즈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킵차크어파, 투르크멘어, 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ru.wikipedia.org/wiki/%D0%9E%D0%B3%D1%83%D0%B7%D1%81%D0%BA%D0%B8%D0%B5_%D1%8F%D0%B7%D1%8B%D0%BA%D0%B8#/media/%D0%A4%D0%B0%D0%B9%D0%BB:Ogh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енишев Э.Р., Языки мира: Тюркские языки, М.: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1996, 17-30.

I F063 | 오굴착 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Oghulchak Khan

카라한 칸국의 칸이었던 ‘오굴착 칸’의 생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칸 위에 오른 후에 ‘아르슬란 칸(Arslan Khan)’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만 명확히 알 수 있다.

893년 오굴착 칸의 시대에 카라한 조는 사만 조의 ‘이스마일 사마니’(Ismail Samani, 재위: 892년~907년)와 탈라스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당시 탈라스는 동 카라한 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만 조의 승리로 전투가 끝나자 오굴착 칸은 수도를 카쉬가르(Kashgar)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될 계기가 다가오는데 사만 조에서 내전에 일어난 것이다. 당시 사만 조가 탈라스를 정복할 무렵 많은 투르크인들이 이미 이슬람교로 개종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굴착 칸은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만 조를 공격했고, 급작스럽게 피신한 사만 조의 왕자와 몇몇 학자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 후 무슬림들의 영향을 받은 오굴착 칸의 조카 ‘술탄 살투크 부그라 칸’(Sultan Satuq Bughra Khan, 재위: 932년~955년)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후 비 무슬림인 삼촌을 공격해도 된다는 파트와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위를 찬탈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오굴착 칸은 카라한 조에서 마지막으로 텡그리즘을 믿던 칸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울착 칸, 오울착 카디르 칸
- 다국어 표기 Oghulchak Khan(영어), Oğulçak Han(튀르키예어), Oğulcaq xan(아제르바이잔어), Oghulchak Qodirxo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조, 술탄 살투크 부그라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Genç, Reşat. “Karahanlılar Tarihi”, *Türkler* Cilt 4, Ankara: Ankara: Yeni Türkiye, 2002, pp.804~829.

Özaydın, Abdülkerim. “Karahanlıla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01, pp.404~412

I F064 | 오글라트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Oglakty

‘오글라트이’ 유적은 미누신스크 분지의 아바칸시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오글라흐타 산맥 부근 예니세이강의 좌안에 위치한다. 유적은 1902년에 우연히 발견해 아드리아노프가 두 지점에서 17개의 유적을 조사했던 것이 시초였다. 이후 1960년대 후반에 키즐라소프에 의해서 다시 발굴되었지만 두 차례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굴된 곳은 무덤의 극히 일부에 그쳤다. 그리고 최근 오글라타 산맥 자체가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더 이상의 발굴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키즐라소프가 발굴한 무덤 가운데 4호 안에서는 통나무관, 미라, 식물, 목제 등이 아주 잘 남아 있는데, 이는 건조한 토양과 밀폐된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면서 보존된 것이었다. 발굴 당시 2.5m×1.5m의 통나무로 된 목관 안에는 여성과 남성의 미라가 남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회반죽으로 된 마스크가 씌워진 상태였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까지도 남아 있었다. 미라 외에도 사람의 뼈를 태워서 넣은 주머니를 넣어 만든 인형이 발견되었는데 옷을 입히고, 가죽 공 모양의 머리에 채색을 한 가면을 씌운 모습이었다. 인형의 머리 아래에는 목침과 가죽 베개까지 두었다. 그 밖에도 목관 안에는 나무와 토제 접시, 창과 활 모형, 소형 굴레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미라와 인형은 초기 철기시대 문화였던 스키타이 문화권 중에서도 알타이 지역의 파지리크 문화에서부터 그 전통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적은 B.C. 2세기~A.D. 5세기까지 존재한 타쉬틱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스키타이 문화의 미누신스크 분지의 일종인 타가르 문화의 후속 문화라 할 수 있다. 타쉬틱

문화는 정령(丁零)이라고 생각되는 예니세이 키르키스 문화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문화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글라트
- 다국어 표기 Оглахтинский могильни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타쉬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25acFx_bU0&fbclid=IwAR1v0fPGjm3E4v8Wga4qItgMW Df3_A6WOBgbUwlQfY0oE5bJ-opddliL6tM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основский Г.П., О находках Оглахтин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1933. №7/8. С. 34~41.
Панкова С.В., Васильев С.С., Дергачёв В.А., Зайцева Г.И. Радиоуглеродное датирование оглахтинской гробницы методом «wiggle matching»// АЭАЕ. 2010. №2 (42). С. 46~56

I F065 | 오달르크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조직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Odalık

오달르크는 오스만 제국 시기 궁전의 사적 공간이며, 궁전 여성들의 생활공간을 의미하는 하렘(Harem)을 부르는 다른 말이다. 오달르크의 ‘오다(Oda)’는 방을 의미하는데 궁전 하렘에는 여러 방이 있었고 각각 전쟁 포로, 노예 출신의 여성들이 배속되어 술탄과 고위 관료들을 시중 드는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하렘은 ‘금지된’, ‘불법’을 의미하는 아랍어에서 유래했고 ‘신성한’, ‘불가침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입이 금지된, 혹은 통제된 사적 공간으로 이슬람 관습에 따라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라는 뜻으로 하렘이라고 불렸다. 가장 많이 알려진 오스만 제국 톱카프 궁전(Tokapı Sarayı)을 구성하는 하렘도 오스만 왕가의 사유지로서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오달르크라고 불렸다. 오스만 제국의 왕실 하렘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추가된 복도, 개인 공간, 모스크, 도



톱카프 궁전 하렘 내부

Source: https://muze.gen.tr/images/Topkapi_Harem_Museum

서관, 식당 등이 추가되면서 미로처럼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더욱 규모가 확장되었다.

궁전 하렘은 술탄의 어머니 '알리데 술탄'(Valide Sultan)을 중심으로 하렘 구성원들과 하렘의 관리자,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하렘의 구성원은 왕실 자손(미성년 소년,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은 소녀), 왕실 배우자, 미혼 또는 과부가 된 공주가 포함되었다. 하렘의 관리자는 모두 여성으로 많은 봉급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렸다. 이들은 하렘에서 일하는 수많은 하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새롭게 하렘에 배속된 여성 노예들을 훈련, 관리하여 술탄과 정부 관료들을 시중들게 했다. 일부 여성들이 오스만 제국 관료들과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 여성은 혼인 전에 하렘에서 강제 추방되었다.

하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오스만 왕조의 지속을 위한 남성 후계자를 배출하는 것이었다. 오스만 제국 통치자는 혼인을 통한 부인을 두지 않고 후궁을 두었다. 술탄이 혼인을 하지 않은 이

유는 많은 수의 후궁으로 많은 후계자를 배출해 왕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혼인의 경우 이슬람 율법하에 남편과 아내는 여러 권리가 주어지고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이런 점이 술탄의 절대적인 권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렘의 여성들은 신분 상승을 위한 방법은 술탄의 아들을 낳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 술탄에 오르면서 왈리데 술탄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렘에는 여러 통치자 후보자, 이들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렘은 궁정정치의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궁전 안팎에 파벌과 연대해 후계자 분쟁을 하기도 했다.

반면 하렘 여성들은 하렘에 고립된 처지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그들은 여러 자선 행사를 통해 대중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술탄 쉴레이만 1세’의 어머니 ‘아이세 합사 술탄’(Ayşe Hafsa Sultan)이 사망하자 대중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이처럼 오스만 제국의 하렘은 왕조의 지속을 위한 통치자를 배출하고, 정치적으로 후계자 문제로 암투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여러 자선 행사를 통해 대중들과 호흡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유럽,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인해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렘을 단순히 타락한 섹슈얼리티의 공간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달리스크, 오달릭, 하렘

● 다국어 표기 Odalisque(영어), Odalı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하렘, 톱카프 궁전, 하렘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harem--kadinlar>

● 참고문헌(오프라인) Molly Greene, “Harem”,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9, pp.249~250.

I F066 | 오르고이톤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Orgoidong

오르고이톤 유적은 B.C. 1세기~A.D. 1세기 유적으로 부랴트에서 자루비노 드지딘스키 지구 마을의 남쪽에서 4km 떨어진 산 위에 위치해 있다. 1898년에 이 지역을 최초로 발굴해 조사한 ‘탈코 그린체비치’는 부랴트족이 이주하기 전부터 이곳에 샤먼이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의 명칭은 부랴트어로 ‘샤먼의 왕관’이라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명칭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

‘탈코 그린체비치’의 발견 이후에는 ‘소몰리에프’가 20세기 초에 발굴에 나섰다. 유적은 높이가 1m, 양변이 15m~30m가 넘는 장방형의 봉분을 가진 외형을 갖고 있으며 남쪽 면은 완만한 경사를 가진 연도가 있고 길이 20m 정도의 석벽으로 틀을 축조했다. 묘광의 깊이는 10m~15m로 깊은 편이며 지하로 판 역(逆)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다. 무덤구덩이에는 무덤방이 설치되고 그 내부에 통나무 관이 매장되어 있었다. 그 목곽 안에는 목관이 있는데 표면이 모직의 카펫과 실크 천으로 덮여 있었고, 무덤에는 황금 장신구, 카펫, 실크제 의복, 무기, 마차, 마구, 동전, 철제 허리띠, 금제 장식판 등이 다수 부장되어 있었다. 무덤 안에서 제사를 위한 음식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고이동
- 다국어 표기 Оргойтон(러시아어), Orgoidong(몽골어)
- 연관 검색어 카펫. 탈코 그린체비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ru.wikipedia.org/wiki/%D0%9E%D1%80%D0%B3%D0%BE%D0%B9%D1%82%D0%BE%D0%BD>
- 참고문헌(오프라인) Н. Н. Николаев, С. С. Миняев, О. С. Емелина, Л. С. Сахаровская. 2009 Работы на могильнике Оргойтон в 2009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 Отчетна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сессия за, 2009 год.
Н. Н. Николаев. Могильник хунну в пади Оргойтон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오르고이톤 발굴 장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Евразии.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ённой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 Н. Бернштама. СПб: «Инфо-ол», 2010. 326 с.

I F067 | 오르도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Ordos

‘오르도스’는 오늘날 중국 내몽골 자치구(內蒙古自治區) 남쪽 끝에 있는 도시를 지칭하지만 한대에는 흉노의 대중국 침략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지역이다. 북쪽으로 흐르는 황허(黃



오르도스 전경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河)강이 인산(陰山) 산맥의 남쪽 기슭에서 만곡하는 부분과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로 사막과 초원, 염호(鹽湖)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넓은 방사림(防砂林)과 칭기즈 칸의 묘당이 조성되어 있다.

15세기 중엽 이후 이곳이 내몽골 여러 부(部)의 하나인 오르도스부의 목축지를 이룬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어얼뒤쓰(鄂爾多斯)라고 표기하고 있다. 원래 오르도(ordu)는 몽골어로 ‘궁전’이란 뜻이며, 오르도스는 그 복수다. 그러나 요(遼)·원(元)대에 오르도는 단지 궁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영유하고 있는 채읍(采邑)도 의미했다. 황제의 후비(后妃)를 이 오르도에 배속했으며, 친위대를 상비하고 중정원(中政院) 이하의 관부가 관리했다. 그리고 황제가 죽으면 후비들은 오르도를 주재했다.

역사적으로는 B.C. 3세기 이래 하남(河南), 후에는 하투(河套), 투중(套中) 등으로 불리며 몽골 유목민과의 교섭 또는 공방(攻防)의 요지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오르도스 내부의 사막화가 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실제 남북 간 교섭 내지 공방 관계는 지금의 바오란(包蘭) 철도 연변부 또는 장성선(長城線) 북쪽에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에는 산시(山西)의 조(趙)가 진출해서 인산에 장성을 쌓았고, 이어 진시황(秦始皇)이 흉노족을 북으로 쫓아 그 장성을 만리장성과 이었다. 또한 한무제(漢武帝) 때는 삭방(朔方)·오원(五原)·운중(雲中)·서하(西河)의 여러 군(郡)을 두었다. 그러나 대세는 오히려 흉노족의 세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의 하국(夏國)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나라 이후 또다시 한인(漢人)이 진출하면서 당대(唐代)에 오르도스 주변에 여러 주(州)가 생겼고, 인산 남쪽에 3개의 수항성(受降城)이 설치되면서 남북전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 뒤 당 왕조 말기에는 티베트계 탕구트족이 이곳에 서하국(西夏國)을 세웠으나 칭기즈 칸이 멸망시키면서 몽골족의 세력권에 들어갔다. 한편 중국측의 무력 진출이나 정치 지배에 따라 오르도스 주변의 수리 가능한 지역에 한인 농민이 투입되거나 이주하면서 경작지로 개발되었다. 이 일대에는 수많은 염호가 있어서 현재도 내몽골의 대표적인 소금, 소다 산지이자 석유 및 석탄 채굴 지역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두스

● 다국어 표기 鄂爾多斯(중국어), ᠶᠡᠷᠳᠣᠰ(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칭기즈 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blog.naver.com/aghon/220922834083>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어월두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015&cid=40942&categoryId=40024>

네이버 지식백과 실크로드 사전. 오르도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381&cid=62093&categoryId=62093>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 March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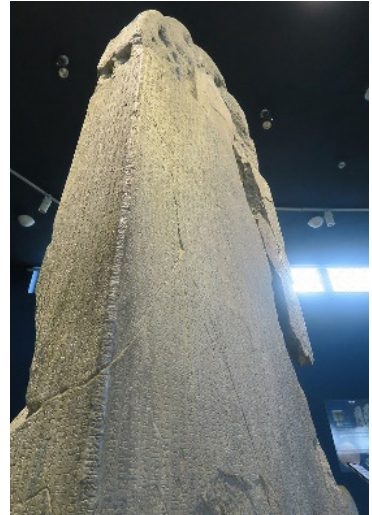
Maenschen-Helfen Otto, *The World of the Huns: Studies in Their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I F068 | 오르콘 비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비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Orkhon Inscriptions

돌궐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중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민족이다. 돌궐 문자 즉 투르크 문자는 고(古) 게르만족이 사용했던 룬(Rune) 문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룬체 문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양자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

이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개의 표의문자적 창작 문자 이외에는 아람 문자의 계통으로, 직접적으로는 고대 소그드 문자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문자의 제작 및 성립 과정은 밝혀진 바가 없다. 현재까지 총 40자가 알려져 있는데 모음자 넷 외에는 모두 음절문자이고 대부분은 모음을 나타내지 않고 쓴다. 돌궐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제2돌궐 제국기에 건립된 주요 비문들이 발견된 장소가 돌궐 제국의 중심지였던 오르콘강 주변의 호쇼차이담(Hosho Tsaidam) 분지



오르콘 비문 중 켈 테긴비문 비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였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이 비문들을 오르콘 비문(Orkhon Inscriptions) 또는 ‘호쇼차이담 비문’이라 부르고 있다.

주요 비문으로는 732년 건립된 켈 테긴비문(闕特勤碑文), 735년 건립된 빌게 카간 비문(毗伽可汗碑文), 720년 건립된 톤유곡비문(曠欲谷碑文)이 있다. 이 오르콘 비문의 존재를 기록한 최초의 문헌은 12세기 이슬람 사가 ‘주바이니’(Juvaini)가 남긴 역사서였다. 이후 근대에 들어와 스웨덴 장교 ‘스트라흐렌베르그’(Johann von Strahlenberg)가 그 존재를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 그는 1709년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졌던 폴타바(Poltava) 전투에서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 13년간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외몽골의 오르콘 강변에서 비문들을 발견했다. 이후 그는 고국에 돌아와 학계에 다수의 비문이 존재함을 알렸고 19세기 말부터 핀란드 학자들과 러시아 학자들에 의한 비문의 추가 발견과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1893년 덴마크의 언어학



Orkhon 비문.
오르콘 비문

자 톰센(Thomsen)에 의해 판독이 이루어졌고 이후 서양과 동양의 선진학자들에 훌륭한 연구 논저들이 발표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훈비문, 오르훈비문

● 다국어 표기 Orhun Yazıtları(튀르키예어), نورخون نابدلسرى(위구르어), Orxon-Yenisey abidasi(아제르바이잔어), Orhon ýazgylary(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위구르, 돌궐 문자, 빌게 카간 비문,

● 참고문헌(오프라인) 나가사와 가즈도시 저, 이재성 역,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민족사.

록 관텐 저,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Tekin, Talat, *A Grammar of Orkhon Turkic* (Uralic and Altaic). Routledge, 1997.

I F069 | 오르타 오유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연 ● 유형 소분류2 전통극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Orta Oyunu

튀르키예의 전통극 중 하나인 오르타 오유누(Orta Oyunu)는 콜 오유누(Kol oyunu), 메이단 오유누(meydan oyunu), 메이다느 쉬한(meydân-ı sühan), 주후리(zuhûri), 주후리 콜루(zuhûri kolu)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 연극의 기원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1703년 무스타파 2세(II.Mustafa, 재위: 1695년~1703년)를 폐위시키고 아흐메드 3세(III.Ahmed, 재위: 1703년~1730년)가 즉위한 사건을 주제로 만든 「서기(Yazıcı)」라는 제목의 연극이 이 전통극의 기원이라고 추정된다. 이와 동일한 제목의 그림자극이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스만 시대에 궁중에서 개최한 축제 또는 연회를 기록한 문서인 수르나메(Surnmae) 중 19세기에 쓰여진 수르나메에 특

히 오르타 오유누가 여러 번 등장한 것으로 보아 19세기 초 이후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통극의 구성 요소 중 첫째는 템실(temsil: ‘재현’이라는 의미)이라는 즉흥적인 극이다. 여기서는 오스만 사회를 구성하던 대표적인 인물상을 모방한다. 둘째는 음악이다. 주르나(Zurna), 나으라(Nağra)와 같은 악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와 튀르퀴(türkü)라고 하는 민요류의 노래가 반드시 함께 실연된다. 셋째 요소는 춤을 추는 무용수이다. 주로 악기를 들고 춤을 추는 여성 무용수(raksçı), 여성을 흉내 내는 젊은 남성 무용수(köçek). 그리고 유머러스한 옷을 입고 다른 무용수들을 어설피게 흉내 내며 사람들을 웃기는 역할을 하는 무용수(curcunabaz)로 구성된다. 넷째는 대화이다. 키워드를 던지고 이에 따라 웃기는 농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타클릿(taklit: 흉내내기)이다. 오스만 사회의 구성 민족인 아랍인, 알바니아인,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쿠르드인, 라즈인, 그리스인, 유대인 등을 흉내낸다.

연극은 주변이 관객으로 둘러싸인 둥근 공간에서 올려지며 이 무대에 입장하기 위한 곳과 기록자를 위한 자리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 과거에는 남성 관객과 여성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분리되어 있었다.

오르타 오유누 극의 두 주인공은 피췌카르(Pişekâr)와 카복루(Kavuklu)이다. 피췌카르는 엘리트처럼 행동하고 카복루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것은 그림자극의 주인공인 하지바트(Hacivat)와 카라괴즈(Karagöz)와 매우 유사하다. 이 둘 이외도, 투르크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카이세리인, 라즈인, 유대인, 그리스인, 프랑크인과 같은 인종별 캐릭터와 말더듬이와 곱사등이, 청각 장애인,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와 같은 캐릭터를 비롯하여 마법사나 진, 악마와 같이 다소 추상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특이한 의상과 행동으로 어떤 캐릭터인지 관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오르타 오유누는 도입, 대화, 파슬(장:fasıl)과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입부에서는 주르나(Zurna)로 곡을 연주하고 이에 피췌카르(Pişekâr)가 등장해 관객과 인사한다. 대화 부분에서는 카복루(Kavuklu)가 등장해 피췌카르(Pişekâr)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간다. 그 후, 본격적인 장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캐릭터들이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피췌카르(Pişekâr)가 무대에서 있었을지도 모르던 실수를 사과하고 다음 연극 제목과 공연 장소를 밝히고 관객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극은 끝을 맺는다. 오르타 오유누 극 종류



1900년대 이스탄불에서 공연한 오르타 오유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의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도 없으며, 일종의 즉흥극에 가까운 오르타 오유누에는 글로 쓰인 대본이 없다. 보통 도제식으로 전수된 주제가 반복해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탄지마트 이후 서구식 연극에 집중된 관심으로 인해 투르크 연극, 특히 오르타 오유누는 연극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몰락하기 시작했다. 연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극을 살려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테오도르 카삽(Teodor Kasap: 1835년~1897년)은 오르타 오유누의 일부분을 정리해 출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서구식 연극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오르타 오유누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오르타 오유누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던 배우 이스마일 뎀뵐뤼(İsmail Dömbüllü)가 1973년 사망함으로써 오르타 오유누의 막이 내린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도시 이외의 아나톨리아반도 시골 지역에서는 농한기인 겨울과 결혼식이나 명절 등에 시골식 오르타 오유누가 실연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타 오윤
- 다국어 표기 Orta oyun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라괴즈
- 참고문헌(오프라인) Albayrak, Nurettin. “Orta Oyunu”, *İslâm Ansiklopedisi* Cilt 33. Istanbul: TDV, 2007, pp.400~402.
;Boratav, Pertev Naili. *100 Soruda Türk Halk Edebiyatı*, Istanbul: GerçekYayınevi, 1969.

I F070 | 오르한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Orhan

오르한은 오스만 왕조의 제2대 군주로, 약 40년에 가까운 재위 기간 동안 아나톨리아 북서부의 작은 공국이었던 오스만 국가가 마르마라 양안의 발칸과 아나톨리아에 걸친 세력으로 성장하는 공적을 이루었다.

그는 오스만 왕조의 건국 군주 오스만 1세와 셰이흐 에데발리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으며 그의 어머니 셰이흐 에데발리가 데르위쉬, 아히 집단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스만 1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짐작된다. 오르한의 유년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는 오스만 역사서가 그의 치세가 끝나고 백여 년이 지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 대해서는 몇몇 문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비잔티움 자료, 특히 그레고라스와 칸타쿠제노스의 기록이 유용하다. 오스만 측 기록에 의하면 오르한에게는 야르히샤르의 성주의 딸 닐뤼페르와의 사이에서 낳은 쉴레이만 파샤와 무라드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또한 오르한은 아버지 오스만 1세가 이끄는 월정에 많이 참여했고, 그때 당시 이미 오스만 군대가 콘스탄티노플 건너편의 연안까지 차지하고 있었기에 즉위하고 나서 1326년 부르사가 항복하자 1331년 니케아(이즈니크), 1337년 니코메디아(이즈닉미트)가 연이어 항복해 들어왔다. 당시 이집트의 알 우마리와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도 이미 1330년대에 오르한이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가운데 하나라고 기록했다.



오르한 영묘

그러나 그의 권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준 것은 비잔티움 내전기 후반(1341년 ~1347년)에 요안네스 칸타쿠제노스와 동맹을 맺은 후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였다. 칸타쿠제노스는 1344년 오르한에게 동맹을 요청했고, 그가 이에 바로 응하면서 맺어진 동맹은 칸타쿠제노스의 딸 테오도라와 오르한의 결혼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동맹 이후 오르한은 오스만 군사들을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에 보내 전투를 치르며 현지에 적응시켰고, 군사들은 칸타쿠제노스의 적들을 약탈하며 점점 부유해졌다. 다만 칸타쿠제노스는 농촌에 대한 약탈까지는 제어할 수 없었다. 그리고 1346년 해상전에 능한 선단을 갖춘 카레시 공국까지 병합하면서 그는 공국의 인력을 동원해 그리스 연안을 약탈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갔다.

이러한 세력 확장은 그를 다른 제노바, 베네치아, 세르비아 같은 세력에게도 동맹을 맺고 싶은 유력한 군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발칸반도로의 팽창을 지휘했던 큰 아들 쉴레이만 파샤는 다다넬즈 해협의 침페(Tzympe, 1352년)와 갈리폴리(1354년) 지역을 점령하여 농촌을 넘어 성곽도시까지 거점으로 장악하기 시작했다. 1354년 그들은 아나톨리아의 앙카라까지 점

령했으며, 1357년 할릴 왕자가 비잔티움에 사로잡혀 인질이 되면서 잠시 발칸반도로의 팽창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때도 있었지만 1359년 하반기 이후부터 다시 약탈이 시작되어 1361년 무렵 디디모테이콘(디메토카) 정복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오르한은 건국 군주 오스만 1세 시대에 작은 공국에 불과했던 나라를 마르마라 해 양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국가로 변모시킨 군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그는 비정규적인 약탈 자들로 이루어져 있던 오스만 군사력에 ‘뮌셀렘’이라는 기병과 ‘야야’라는 보병을 더해 조직화했으며 여러 모스크, 수피 회관, 학교를 지어 모범적이고 경건한 무슬림 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그와 동시에 영내의 기독교인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는 1362년 3월 사망했다. 사망 당시 이미 장남인 쉴레이만 파샤가 죽은 후였으므로 무라드 왕자가 왕위를 계승했다. 흔히 튀르키예에서는 그를 변방의 성(聖) 전사라는 뜻의 ‘가지’라는 칭호를 붙여서 ‘오르한 가지’라고 부르지만, 그가 생전에 실제로 가지라는 칭호를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오스만 제국의 주요 연대기들은 대개 15세기 후반에 쓰여진 것이라 오르한의 재위 기간과 같은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다. 다만 그 사료의 빈틈을 비잔티움의 그리스어 기록이 많이 채워주는 형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한 가지

● 다국어 표기 Orh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Elizabeth Zachariadou, “Orkha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ition (Brill), Evgenia Kermeli, “Orhan Gazi,” *Encyclopaedia of the Ottoman Empire Cemal Kafadar, Between Two Worl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I F071 | 오르한 웰리 카르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ORHAN VELI KANIK

튀르키예에서 근현대 문학과 시 문단의 흐름을 주도한 시인 ‘오르한 웰리’는 1914년 4월 13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이스탄불에 보낸 그는 초등교육은 갈라타사라이에서 받은 후 아버지의 전근 때문에 앙카라로 이사했고, 앙카라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다.

오르한 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시를 썼고, 그때부터 창작을 시작했다. 당시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시를 꾸준히 습작했는데 처음 쓴 시가 1924년 <어린이 세상(Çocuk Dünyası)>에 실렸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였다. 당시 그의 교사였던 아흐베트 함디 탄프나르, 르프크 메룰 메리츠, 할릴 베다트 프라틀르, 야흐야 사임 시나오을루가 모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오르한 웰리를 지켜봤다고 한다. 그리고 1936년 12월 1일 그는 옥타이 르파트(Oktay Rifat), 멜리흐 제브데트(Melih Cevdet)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Sesimiz)>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옥타이 르파트와 멜리흐 제브데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무렵이었다. 당시엔 시에 관심을 가진 세 학생의 만남일 뿐이었으나 이 세 명의 만남은 훗날 튀르키예 문학사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리프 파(Garip akımı)’의 시작이었다. 이 삼총사는 꾸준히 문학과 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시를 쓰는데 몰두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르한 웰리는 몇 년 뒤에 이스탄불대학교에 진학해 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1936년에 그는 앙카라에서 다양한 관직을 체험한다. 1941년~1944년에 군복무를 마친 그는 제대 후 교육부 번역원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1946년 선거 후 정치 세력이 확대되면서 번역원이 중요성을 잃게 되자 그 이듬해 사임한다. 그는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15일 만에 <잎사귀(Yaprak)> 잡지를 만들어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잡지는 1949년 1월 1일부터 1950년 6월 1일까지 총 28호를 발간했다. 문예지 <잎사귀>의 초판 비용은 글을 쓰기도 했던 대사 ‘마흐무트 디케르데미’가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잎사귀>의 대표는 오르한 웰리였기에 그는 문예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외투를 팔아야 했다. 마지막 호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비딘 디노가 그에게



오르한 웰리 카누크 시집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선물로 주었던 그림마저 팔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예지는 폐간되었다.

그의 첫 번째 책은 학창시절의 삼총사였던 옥타이 르파트, 멜리흐 제브데트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가리프(Garip)』이다. 바로 이 책은 ‘가리프 파’ 혹은 ‘가리프 시’라고 이름 붙여진 1세대 혁신파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이 『가리프(Garip)』를 출간하면서 머리말에 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요약하면, 운율, 각운 등 모든 전통 시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시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가리프 파의 오르한 웰리는 튀르키예 전통 시, 나즘 히 크메트, 특히 민중 시와 디반 시의 기본형식을 깨뜨리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운율과 각운, 발음에 맞추기 위해 통용되지 않는 단어를 시어로 사용하는 방식 등이 가리프 파의 활동 이후 없어졌다. 또한 그는 기존 틀에 반기를 들거나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는 혁신주의자였기에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2세대 혁신파(İkinci Yeni)와 현대 튀르키예 시 전통 대부분이 오르한 웰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초반에는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1945년부터는 튀르키예 문예사조 ‘민중문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생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시의 소재가 됐다는 점이다. 그의 시는 유독 이스탄불에 대한 찬사가 많으며, 이전까지 오랜 시간 튀르키예 시 문학이 지켜오던 운율, 각운과 같은 형식과 규칙에서 벗어나 늘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늘 풍자적 요소를 활용하면서도 간결한 대중적 언어를 사용했다.

오르한 웰리는 어릴 적부터 연극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어릴 적 이스탄불 베이코즈 지역 정원이 있는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자신이 쓴 극본으로 공연하며 놀기도 했다. 그가 쓴 첫 극본 「의사 이흐산(Doktor İhsan)」은 16살~17살에 썼고, 본인이 직접 공연까지 했던 작품이었다. 앙카라에 있을 때 두 개의 학교 학예회에서 역할을 받아 배우 라시트 르자(Raşit Rıza)를 다룬 작품 「배우 킨(Aktör Kin)」을 공연한 적도 있다. 또한 앙카라 할크에비에서 그는 프랑스의 희극 작가 몰리에르(Molière)의 작품 「어려운 결혼식(Zor Nikah)」의 두 번째 마스터(Üstâd-i Sâni) 역할로 무대에 올랐다. 벨기에 작가 마테를링크(Maeterlinck)의 「몬나반나

(Monna Vanna)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아 관객과 호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무대 경험을 거치면서 그는 배우로서 한계를 느꼈다. 이후 연극배우가 아닌 번역가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는 많은 희곡 작품을 튀르키예어로 옮겼다.

그의 대표적인 시집은 『가리프(1941)』, 『가리프(1945)』, 『포기 못 하는(1945)』, 『전설 같은(1946)』, 『새로운 것(1947)』, 『반대(1949)』 등이다. 주요 번역서는 『문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어야 하오(알프레드 드 뮈세, 1943)』, 『스카팽의 간계(몰리에르, 1944)』, 『프랑스 시집(1947)』,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과 베니스의 상인(1949)』, 『존경할 만한 창부(사르트르, 1961)』, 『서방세계 시(1963)』 등이다.

오르한 웰리는 양카라를 잠시 방문했을 때 공사장 구덩이에 빠졌던 게 원인이 돼 1950년 11월 14일 이스탄불에서 뇌출혈로 사망했고, 루멜리히사르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한 웰리 카닉, 오르한 벨리 카닉

● 다국어 표기 ORHAN VELI KANI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양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Bezirci Asım, *Orhan Veli Şairliği ve Seçme Şiirleri*, Gözlem Yayınları, İstanbul, 1979.

Ercilasun Bilge, *Orhan Veli Kanık (Hayatı, Sanatı, Eserlerinden Seçmeler)*, İstanbul: Millî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2004.

Par Arif Hikmet, *Orhan Veli Kanık*, Serhat Yayınları, İstanbul, 2002.

Sazyek Hakan, *Cumhuriyet Dönemi Türk Şiirinde Garip Hareketi*,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İstanbul, 2006.

Uyguner Muzaffer, *Orhan Veli Kanık Hayatı Sanatı Eserleri*, Varlık Yayınları, İstanbul, 1967.

I F072 | 오르한 케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ORHAN KEMAL

튀르키예 문학에서 리얼리즘 소설의 선구자인 오르한 케말(Orhan Kemal)은 1914년 아다나의 제이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메흐메트 라쉬트 외으위트취’(Mehmet Raşit Ögütçü)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4살이 되었을 때는 프랑스가 고향 아다나를 점령했다. 그의 어머니 아지메 부인은 아다나 출신으로, 중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에서 교직 생활을 2년 동안 했다.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압달카디르 케말리는 법을 전공하고 연합진보당에서 활동했으며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장관, 국회의원, 국방부 차관, 도지사, 고등법원장, 변호사 등 주요 고위직을 지냈다.

오르한 케말은 점령군이 조성한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은 내부 반역자들 때문에 조성된 긴장감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으로 종종 어려움에 부딪치기도 했다. 1931년 무렵 그는 튀르키예를 떠나 한동안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지냈다.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야만 했던 상황은 그의 학업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중학교 3학년 무렵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이후 1936년 그는 일하던 공장에서 ‘너무나 예쁜 여인 누리에’와 만나 결혼했고, 1년 뒤에 딸이 태어나 아빠가 됐다. 그러나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군 입대를 하게 됐다. 군대에서는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나즘 히크메트의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1938년 10월 11일 5년 그는 실형을 받았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시를 썼다. 카이세리, 아다나, 부르사 교도소를 옮겨다니며 1943년 9월 26일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특히 부르사 교도소에 있을 때 나즘 히크메트와 만나 3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냈다. 나즘 히크메트와의 만남은 이후 그의 작품 성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가장 큰 변화는 나즘 히크메트의 시를 좋아하지 않았던 오르한 케말이 소설과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영향력 있는 잡지와 신문이 모두 이스탄불에 있음을 고려하여 아다나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1950년 4월 17일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덕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 그는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을 열심히 썼고 작가가 된 첫 해인 1949년에 잡지 <와르륵(Varlık)>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적은 원고료를 받으니 살기 위해서라도 늘 글을 써야 했다. 1951년에는 『술꾼(Sarhoşlar)』, 1952년에는 소설 『제밀레(Cemile)』과 『세탁소집 딸(Çamaşırcının Kızı)』을 출판했다. 그리고 소설 「경비원 무르타자(Murtaza)」는 신문 <조국(Vatan)>에 연재했는데 이후에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소설 「비옥한 땅에서(Bereketli Topraklar Üzerinde)」도 신문 <세계>에 게재하다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었다. 같은 해 『파업(Grev)』과 『72번 방(72. Kağuş)』도 출판되었다.

그렇게 작품 활동에 매진한 지 몇 년 후, 1958년 오르한 케말은 「균등 배분(Kardeş Payı)」이라는 단편으로 ‘사이트파이크 단편소설 상’을 받았다. 1967년에는 「72번 방」이라는 희곡으로 앙카라 예술 애호가 협회에서 최고의 극작가로 선정되었으며, 1969년에 『빵이 먼저(Önce Ekmek)』라는 책으로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상’과 두 번째 ‘사이트파이크 단편소설 상’을 수상했다.

오르한 케말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인생에서 온갖 고난과 수난을 겪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야기의 전개도 박진감 있고 사실적인 통찰력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또다른 이면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대부분 자기 주변이거나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상상, 꿈, 희망, 먹고 살기 위해 무너져 가는 자신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는데,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한결같이 그의 시선은 원한이 아니라 다정다감하고 희망적이며 따뜻함을 유지한다.

이후 그의 작품 중 「경비원 무르타자」, 「비옥한 땅에서」, 「고물장수와 두 아들(Eskici ve Oğulları)」 등이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연극무대에 올려졌다. 또한 「국민신부(El Kızı)」, 「부인의 농장(Hanımın Çiftliği)」은 드라마로 제작되어 튀르키예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오르한 케말은 1970년 5월 5일 불가리아 작가연맹의 초대를 받아 소피아로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1970년 6월 2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식은 튀르키예에로 돌아와서 진행됐고, 6월 7일 이스탄불 진지르리쿠유 묘지에 묻혔다.

이스탄불에는 오르한 케말 박물관이 세워졌고, ‘오르한 케말 재단’도 운영되고 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소설 공모전(오르한 케말 소설 상)을 꾸준히 열고 있다.



오르한 케말 문학 박물관 내부

● 다국어 표기 ORHAN KEMA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ınkaynak Hikmet, *Hikaye Yazarı Orhan Kemal*, Yazko Yayınları, İstanbul, 1983.

Altuğ Taylan, “Orhan Kemal’in Romancılığı Üzerine Genel Notlar”, *Türkiye Defteri*, Ağustos, 1974.

Bezirci Asım, *Orhan Kemal, Hayatı, Sanat Anlayışı, Hikayeleri, Romanları, Oyunları, Anıları*, Tekin Yayınları, İstanbul, 1984.

Eliuz Ülkü, “Orhan Kemal’in Romanlarında Dil ve Üslup”, *Orhan Kemal*(Hazırlayanlar: Ahmet Ümit-Işık Ögütçü)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2.

Otyam Fikret, “Arkadaşım Orhan Kemal”, *Cumhuriyet*, 2.1., 1973.

Uğurlu Nurer, *Orhan Kemal’in İkbâl Kahvesi*, Cem Yayınevi, İstanbul 1973.

Ümit Ahmet, Ögütçü Işık, *Orhan Kemal*,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2.

| F073 | 오르한 파무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Orhan Pamuk

오르한 파무크는 1952년 이스탄불에서 출생했다. 뉴욕에서 3년 정도 보내기도 했으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이스탄불의 니산타쉬에서 성장했다. 고등학교는 로버트 콜레지를 졸업했으며,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3년 정도 수학한 후 전공을 바꿔 이스탄불대학교 언론학과에 재입학해 1976년에 졸업했다.

본격적인 집필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4년이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으나 튀르키예 국내에서는 아르메니아 학살과 쿠르드인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는 콜롬비아 대학교 비교문학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79년 첫 소설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이 <밀리에트 신문> 문학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에 데뷔했고,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소설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로 튀르키예의 중요한 문학상인 ‘오르한 케말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튀르키예 문단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떠올랐다. 1983년에는 소설 『고요한 집』으로 ‘마다라르 소설상’을 받은 데 이어 1985년 세 번째 소설 『하얀 성』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2005년에는 문화 분야에서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평화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에 소설 『눈』은 프랑스 최고의 외국 소설 상인 메디시 외국상(Le Prix Médicis étranger)을 수상했으며, 1978년 이후 3년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인물에게 수여되는 리카르다 훅 프레이스(Richarda Huch Preis)까지 수상했다. 이후 명성이 높



『내 이름은 빨강』 튀르키예어판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오르한 파무크

아지며 <프로스펙트(Prospect)> 잡지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식인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2006년 TIME 매거진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소설로 지중해 외국인 상(Le Prix Méditerranée étranger)을 수상했다. 이어 틸부르크 대학교(Tilburg University)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 사회과학원과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의 명예회원이 되었다.

그는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반열에 올라섰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남긴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튀르키예 문학의 위상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문명의 충돌과 갈등, 튀르키예 내의 이슬람과 세속주의의 갈등, 권력의 문제, 여성 문제 등에 천착해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중 다수가 다분히 실험주의적인 작품들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2014년에 소설 『순수 박물관』이 에스토니아 탈린의 유럽 박물관 포럼(European Museum Forum)에서 올해의 박물관(EMYA)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유럽의 문화유산과 유럽의 이상을 알리는데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아 ‘헬레나 바즈 다 실바 유럽상(Helena Vaz Da Silva European Award)’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2016년에 소설 『내 마음의 낯섹(A Strangeness in my mind)』은 레오톨스토이 미술관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연례 러시아 문학상인 <야스나야 폴라나 문학상>(Yasnaya Polyana Literary Award)을 수상했다.

이런 유수한 수상 경력이 증명하는 그의 대표적 작품은 소설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 『고요한 집』, 『하얀 성』, 『검은 책』, 『새로운 인생』, 『내 이름은 빨강』, 『눈』, 『순수 박물관』, 『내 마음의 낯섹』, 『빨강머리 여인』 등이다. 에세이집 『이스탄불』은 작가 정신과 삶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현재까지 오르한 파무크의 작품은 조지아어, 말레이시아, 체코어, 덴마크어, 일본어, 카탈로니아 어 및 영어, 독일어 및 프랑스어를 포함한 63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르한 파묵

● 다국어 표기 Orhan Pamu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orhanpamuk.net/page.aspx?id=7>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knaş Erdağ, “Secular Blasphemies: Orhan Pamuk and the Turkish Novel”, *Novel: A Forum on Fiction*, Volume 45, Issue 2, 2012, pp.301-326.

Mrize Z. Esra, “Implementing Disform: An Interview with Orhan Pamuk”, *PMLA*, Volume 123, Number 1, January, 2008, pp.176-180.

I F074 | 오본 하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Ovon khar

오본 하르 유적은 고비-알타이 지역의 흉노시대 귀족 계층의 무덤으로 몽골 고비-알타이 아이막 타이시르 솜에 위치한다. 유적은 오랜 기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1년 한국-몽골의 공동문화유산보호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이 발견하고 조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유적은 초기에는 러시아와 몽골이 공동 조사하던 구역이었으나 그 뒤에 한국과 몽골이 조사를 이어 나가게 되었다.

조사 결과 타이시리 수력발전소에서 동쪽으로 계재 호수의 북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오본 하르 산맥의 동남쪽에 있는 고원지형 산맥의 북사면에 무덤 46기가 발견되었다. 그 중 16기는 묘도가 있는 네모난 돌담이 있는 무덤이며, 8기는 평균 지름 9m크기의 원형 무덤이고, 나머지는 22기는 지름 3m~5m크기의 소형 무덤이다. 대형 무덤 근처에는 소형 무덤이 위치하며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런 그룹화는 여러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인데 한 가족의 매장지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곳의 경우 인접한 타힐틴 호트고르 유적에 비해서 무덤수가 적기 때문에 더더욱 왕족의 단계는 아닌 한 귀족 가문의 무덤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자체로 고비 알타이 지역에도 귀족 계층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분 카르

● 다국어 표기 Ovoon khar(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Bryan K Miller, Bayarsaikhan J., Egiimaa Ts., Konovalov P.B., Logan J. “Elite Xiongnu Burials at the Periphery: Tomb Complexes at Tahiltin-hotgor, Mongolian Altai”; J. Bemann, H. Parzinger, E. Pohl, D. Tseveendorj (eds.), *Current Archaeological Research in Mongolia: Paper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aeological Research in Mongolia”*, Bonn: Contributions to Asian Archaeology, vol.4, 2009, pp.301~314.

I F075 | 오비강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Ob

오비강은 서(西)시베리아를 따라 흐르는 러시아의 강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로 길이는 3,560km(지류인 이르티시강부터는 5,410km이다), 수역은 약 3백만 제곱킬로미터이다. 북극해인 오비만과 카라해에 강 하구가 맞닿아 있다. 강은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상류지역은 지류인 토미강 하구까지, 중류지역은 이르티시강 하구까지, 하류지역은 오비만(灣)까지이다. 오비강 유역에는 비이스크(Бийск), 바르나울(Барнаул), 노보시비르스크(Новосибирск), 수르구트(Сургут), 네프테유간스크(Нефтеюганск) 등의 도시가 위치해 있다

이 강의 어원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이설들이 있는데, ‘눈’, ‘눈더미’를 의미하는 코미어에서 왔다는 설과 같은 코미어의 ‘오브바’(눈으로 된 물)에서 왔다는 설이 있으며, 이란어(타지키스탄)로 ‘물’(об)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강의 기원에 관해서는 알타이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전설에 의하면 알타이 칸의 고집불통 공주 ‘카딘’(Кадын, Катунь)은 목동 ‘비야’(Бия)를 사랑해 그와 도망을 간다. 칸은 군대를 모아 이 둘을 뒤쫓았고 카딘과 비야는 큰 강으로 변해 군대를 따돌렸다. 그리고 이 둘이 만든 강이 합쳐져 오비강이 생겼다. 그러자 공주를 잃어 화가 난 칸은 군대를 돌로 변하게 했는데 그 둘들이 오비강 유역의 산으로 변했다고 한다.



오비강 하류 전경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비, 오브
- 다국어 표기 Обь(러시아어), 鄂畢河(중국어), Обь мөрөн(몽골어), اوبى(아랍어)
- 연관 검색어 이르티시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turistka.ru/altai/pub.php?p=84>
- 참고문헌(오프라인) Аяган, Буркитбай. «Казakhstan. Национальнаяэнциклопедия. Т.4.» Алматы: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Қазақ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2006, 182.

I F076 | 오손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Wusun

B.C. 3세기~A.D. 5세기까지 기록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의 오손(Wusun)은 서역의 유목민족으로 이들이 세운 국가를 오손국이라고 한다. 오손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록을 통해 그 역사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일례로 『한서(漢書)』에는 흉노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로 중앙아시아의 강거국, 오손국, 월지국 등 세 나라가 흉노의 간접통치 혹은 연맹국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오손국의 건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톈산 산맥의 북쪽 기슭을 거점으로 삼아서 월지의 서진 과정에서 크게 타격을 입어 멸망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다른 기록인 『사기(史記)』에 오손을 공격해 멸망시킨 주체가 흉노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한서(漢書)』에서 말하는 월지에 의한 멸망과 다른 부분이다.

오손은 B.C. 116년~ B.C. 115년 전한(前漢) 무제 때 서역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나라, 흉노와의 외교 관계에서 양자 간의 이득을 취한 것인데, 흉노를 약탈했고 강거(羌渠, ? ~188년)를 견제하며 10만 기병을 통솔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손의 왕위 분쟁에 한이 개입하면서 대(大)오손과 소(小)오손으로 분열되고, 강거의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아 실패했고 오손에 관련된 기록마저 한이 서역에서 철수하면서 단절되었다.

A.D. 5세기경 오손은 다시 기록에 등장하는데 세력이 약해져 서역의 평범 국가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후 당이 서역으로 진출했을 무렵에는 이미 오손 민족은 멸망하고 극소수의 후예만이 톈산 일대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순
- 다국어 표기 Усун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렉젠,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F077 | 오수오하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춤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Osuokhay

오수오하이는 야쿠트인들의 전통 합창 원무이다. 이 춤은 야쿠트인들의 전통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고대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야쿠트인들의 상상력을 조형적인 형상으로 반영한다. 의례와 불가분의 관계인 고대 야쿠트인들의 춤은 의례적,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야쿠트인의 주요 의례이자 야쿠트인들의 민족적 상징이 된 이시아흐(Ысыах)에는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다채로운 춤이 현재까지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야쿠트 전통의례인 오수하이는 태양을 상징하는 고전적 원무이다. 이 춤은 고대 야쿠트인들이 예로부터 스스로를 태양의 종족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오수오하이 춤 사위에는 인간, 자연,



오수오하이 원무 장면

우주가 하나라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소하이
- 다국어 표기 Осухой(러시아어), оһуохай(야쿠트어), Osuoha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시아흐, 야쿠트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_8IS4Z2NS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kp.ru/daily/26004/2928991/>
- 참고문헌(오프라인) Лукина А.Г. Круговой танец осуохай: идеи обрзы символы, Вестник ЯГУ 3(4), 2006, 69.

I F078 | 오스만 1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Osman I

오스만 1세는 오스만 왕조의 초대 군주로 약 1300년~1320년대 중엽까지 오스만 국가를 통치했다. 그의 재위 기간이 시작되고 끝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가 살고 통치했던 시기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록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시작이 언제였는지 유추해보면 분명 1300년 이전까지는 주변의 투르크멘 부족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의 근거지였던 아나톨리아의 비티니아의 쇠위트라는 마을 특성상 동영지(冬營地)와 하영지(夏營地) 사이를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 한 지역에서 세력을 키울 기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1301년 바페우스(Bapheus) 전투에서 비잔티움의 군대에게 승전을 거두면서 이후 계속 승승장구해 사카리아 계곡의 상당한 영토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년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 오르한이 뒤이어 왕위를 계승하면서 오르한의 이름으로 와크프 문서가 만들어진 시기인 1324년부터 대도시 부르사를 점령한 1326년 사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것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과 존재에 대한 기록이 엇갈리는 점이 있어 확실한 정

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비잔티움 사료도 일부 참고자료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후 신뢰할만한 본격적인 역사서가 만들어진 것은 15세기 후반부터였다. 하지만 오스만 1세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이상으로 전설적인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예컨대 ‘아식파샤자데의 연대기’에서 그가 ‘수피 셰이흐 에데발리’의 집에 묵으면서 꿈에서 셰이흐의 가슴에서 달이 떠서 오스만의 가슴으로 들어간 후 배꼽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 그 아래에 온 세상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가문이 크게 성장할 것임을 예지하는 이야기로 신화처럼 전해진다. 모든 것을 종합해 유추해보면 그에 대한 확실한 사실적 기록은 드물지만 이후 왕조가 그의 이름을 따서 ‘오스만의 자손들 (Osmanoğuları)’ 혹은 ‘오스만 가문 (Al-i Osman)’ 등으로 불린 것을 볼 때 그만큼 그가 초기 오스만 집단을 대표했던 강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이이이드 로크만 첼레비가 그린 오스만 1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다국어 표기 I.Os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르한 가지
- 참고문헌(오프라인) Colin Imber, “Othman I,”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ition (Brill). Eugenia Kermeli, “Osman I (Osman Gazi),” *Encyclopaedia of the Ottoman Empire*.

I F079 | 오스만 2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문자 Osman II



레브니가 그린 오스만 2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오스만 2세(II. Osman, 1604년~1622년, 재위: 1618년~1622년)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 아흐메드 1세(I. Ahmed, 재위: 1603년~1617년)의 맏아들이다. 친모가 1610년경 사망했고, 13세였던 1618년에 아버지 아흐메드 1세도 사망했다. 아흐메드 1세 사망 당시 삼촌 무스타파 왕자가 즉위했으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3개월 후 폐위되었기에 13세의 오스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는 오스만 왕가의 형제살해 관행이 무너지기 시작한 17세기 초에 즉위한 군주였으므로 톱카프 궁에 살아 있는 형제들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즉위 무렵부터 왕자 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외메르 에펜디나와 하렘의 환관 실레이만 아아, 대재상 알리 파샤 등 측근에게 많이 의지했고,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스만 왕실의 전통을 벗어나 노예 출신의 후궁을 여럿 거느리는 형태가 아니라 엘리트 가문의 여성과 샤리아에 부합하는 정식 혼인을 했고, 의복을 검소하게 하는 등 특이하게 검박하고 종교적 원칙에 맞는 생활을 추구했다. 또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친히 원정을 이끄는 노력도 보였다. 일례로 폴란드군이 오스만 가신국인 몰다비아를 침입하자 이를 빌미로 군대를 친히 이끌고 폴란드가 차지한 호틴을 공격하며 전투에 참가했기에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군대를 친히 지휘한 술탄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그는 그 이유가 기강이 문란해진 예니체리에 있다고 보고 그

들을 엄격하게 다루어 예니체리 연대들과 갈등을 유발했다. 또한 호틴 원정을 나가기 전에 자신의 동생인 왕자들 가운데 최연장자(最年長者)였던 메흐메드 왕자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 살해했는데, 당시 셰이헨 이슬람이자 그의 장인이었던 에스아드 에펜디는 그것을 승인하는 파트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화를 통해 오스만 2세와 그의 측근 집단이 기성 종교인과 종교 관료들을 장악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스만 2세는 이전의 오스만 술탄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핫즈(메카 순례)를 계획했으며, 순례 준비를 대대적으로 거행했다. 오죽하면 당시 그가 핫즈를 빌미로 이스탄불을 떠나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돌아와서 예니체리를 격멸할 속셈이라는 소문까지 퍼져 나갔다. 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관측이었고 결국 예니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 톱카프 궁을 에워싸고 오스만 2세의 측근들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오스만 2세는 순례는 포기했지만 측근들을 보호하겠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반란을 무마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결국 예니체리들은 톱카프 궁의 하렘에 침입해 감금되어 있던 전임 술탄 무스타파 1세를 꺼내어 술탄으로 추대했고, 오스만 2세를 강제로 퇴위시킨 후 그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고 있던 다우드 파샤(무스타파 1세의 누이와 결혼한 부마)에게 넘겨주어 예디쿨레 성채에서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오스만 술탄들 가운데 신하에 의해 살해당한 최초의 군주였기에 그 사건은 당시 오스만 사회에 대단히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오스만 제국 역사상 예니체리가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술탄을 시해한 최초의 반란이었으며, 이는 이후 오스만 수도 이스탄불에서 군사 반란에 의한 크고 작은 규모의 정권 교체 패턴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다국어 표기 II.Os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형제살해법, 예니체리

● 참고문헌 온라인 J. H. Kramers, "Othman II,"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online version)

● 참고문헌 오프라인 Baki Tezcan, *The Second Ottoman Empire: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Kahraman Şakul, "Osman I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 446-447.

I F080 | 오스만 3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Osman III



콘스탄틴 카프다올르가 그린 오스만 3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오스만 3세(1699년~1757, 재위: 1754년~1757년)는 무스타파 2세의 아들이자 마흐무드 1세의 이복동생이다. 그가 즉위했을 때 나이가 이미 55세였기에 이는 오스만 술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나이로 즉위한 기록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새로 자리잡은 왕위계승 원칙, 즉 직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왕실의 남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술탄에 앉힌다는 연장자 계승제(ekberiyet)가 자리잡으면서 평생을 하렘에 유폐되어 있다가 아주 높은 나이에 즉위하는 사례들이 생겼는데, 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그런 경우 재위기간이 길지도, 왕위계승 후보를 생산하지도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했다.

오스만 3세는 까다롭고 불안하며 결단력이 부족해 주저하는 성격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도 2년 사이에 대재상을 7번이나 교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의 재위기간 중에는 베오그라드 조약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지속되었고, 지방에서의 일부 소요사태들도 어렵지 않게 진압되었다. 또한 그의 재위기간 내내 큰 정치적 사건 없이 무탈했기에 오스만 3세는 사치의 방지와 사회 신분질서 유지를 목표로 여성들과 비무슬림의 복장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엄격하게 시행한 술탄 정도로 기억된다. 또한 18세기 중엽의 번영기를 이끌었던 코자라급 파샤를 대재상으로 임명한 것도 그의 치세에서 기억할 만한 일이다.

- 다국어 표기 III. Os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Şakul, “Osman I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447.
Fikret Sarıcaoğlu, “Osman I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3, pp.456~459.

I F081 | 오스만 네딤 투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Osman Nedim Tuna

‘오스만 네딤 투나’는 1923년 1월 1일 튀르키예 뒤즈제(düzce)에서 태어났다. Tekel(튀르키예 담배 및 주류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이스탄불로 발령이 나서 이스탄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41년 이스탄불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우연히 참석한 레쉬트 라흐메티 아라트의 수업에 흥미를 느껴 이스탄불대학교 문학부 튀르키예어문학과로 편입해 1945년에 졸업했다. 이후 1950년 군복무를 마치고 1952년~1954년에는 튀르키예 아다나의 공공사업부 수도 유압사업에 참여해 초기에는 지형학자와 측량계획책임자를 거쳐 공공 사업부 지도과 전문가로 임명된다. 그 후 1958년~1959년 사이에 광물 연구 및 탐사 총국인 산업부의 지도부서로 이직했으며 1959년~1960년에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고대 투르크어 전문가로서 일했다. 1961년~1962년에는 아비딘 이틸(Abidin İtil), 아흐트 테미르(Ahmet Temir)와 함께 튀르키예 문화 연구소 설립 계획에 배정되어 연구소의 두 번째 소장으로서 선임되었다.

그러던 중 1962년 풀 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 가게 되었다. 그는 1968년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서 ‘니콜라스 포페’(Nicholas Poppe)의 지도하에 「네츨페라디스: 투르크 역사 방언학의 연구 방법(Nahju’l-Farâdis: A Method for Turkic Historical Dialectology)」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연구에서 네츨페라디스 텍스트는 쉴레마니에 도서관의 예니자미 사본을 기반으로 했고, 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음성학, 형태론을 적용하여 투르크 역사적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방법을 개발했다. 그는 1963년~1969년에는 박사

과정 동안 투르크학과 관련된 강의를 했다. 그리고 1969년부터 1976년까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근동 투르크 학과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쳤다. 1982년에는 이뇌뉘 대학교(İnönü University) 교육학부에 튀르키예어문학과를 설립했으며, 1984년에 부교수로 승진한다. 그리고 1983년 그가 이스탄불에서 출판한 『알타이언어이론(Altay Dilleri Teorisi)』은 튀르키예어로 된 최초의 알타이학과 관련된 연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튀르키예어, 몽골어, 통구즈(만주), 한국어 및 일본어가 알타이어라는 공통분모로부터 분파된다는 견해를 옹호했다. 그리고 오래된 문서와 함께 이러한 역사적 시대 분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알타이언어의 등장을 설명했다.

1987년 그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투르크학 적용 분과 책임자(Türkoloji Uygulama Kolu Başkanı)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9일 정교수로 임명 받았으며 12월 31일 이뇌뉘 대학에서 은퇴했지만 1991학년도까지 근무했다. 1993년 10월 6일 그는 사카리아 대학의 과학 문학부에 튀르키예어문학과를 설립하고 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은퇴를 한 후 1997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한달 후 미국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2001년 7월 17일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유해는 미국에 안치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 네디므 투나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레쉬트 라흐메티 아라트, 니콜라스 포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slamansiklopedisi.org.tr/tuna-osman-nedim>
- 참고문헌(오프라인) Zeki Kaymaz, *Prof. Dr. Osman Nedim Tuna (1923-2001)*, TDA, sy. 139, 2002, s. 1~6.

I F082 | 오스만 문서고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연구기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Ottoman archives

오스만 문서고의 정식 명칭은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 국가 문서국 오스만 문서고(Türkiye Cumhuriyeti Cumhurbaşkanlığı Devlet Arşivleri Başkanlığı Osmanlı Arşivi)>이다. 이곳은 오스만 시대의 문서를 보관한 문서 보관소로 2018년도까지는 <오스만 수상(총리) 문서고(Başbakanlık Osmanlı Arşivi)>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오스만 시대의 문서 보관소는 건국 초기부터 있으나 전쟁과 화재, 정쟁 등으로 인해 부르사와 에디르네가 수도였던 시기의 문서는 많이 소실되었다. 그래서 1453년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은 이후 이에디쿨레(Yedikule)에 문서를 보관하기 시작했다. 또한, 톱카프 궁전과 궁전에서 내각 회의가 열렸던 쿵베알트(kubbealtı) 옆 하지네이 아미레(Hazîne-i Âmire)에도 국세와 돈, 귀중품과 함께 보관되었다. ‘압뉘함이드 1세’(I. Abdülhamid, 재위: 1774년~1789년) 통치 기간에는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술탄 아흐메트(Sultan Ahmet) 지구의 사리이오 아틱(Sarây-ı Atik)이라는 지하창고와 궁 내 일부 보관소 등에 나누어 보관했다.

18세기 말 대재상 부서라 할 수 있는 바브으알리(Bâb-ı Âli) 산하에 네 개의 부서[(Bâb-ı Âli(대재상부 업무), Bâb-ı Defterî(재무 관련), Bâb-ı Seraskerî(군사 관련 업무) ve Bâb-ı Meşihat(종교 관련 업무)]가 신설되었고, 그때부터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보관했다. 그리고 이 문서 보관소는 각기 다른 장소에 비치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각기 다른 장소에 보관된 문서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었고, 문서의 보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 보관소와 규칙적인 분류 및 연구가 필요해졌고, 1846년 술탄 압뉘메지드(Abdülmecid, 재위: 1839년~1861년)가 새로운 문서 보관소 건설을 명령했다. 그렇게 1847년 하지네이 에브라크(Hazîne-i Evrâk: 문서 보관소)가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인 건축가 포사티 형제(Fossati, 형 가스파르 Gaspare, 1809년~1883년, 동생 주세페 Giuseppe, 1822년~1891년)가 설계한 건물이 1848년에 완공되었다. 건설 기간에 새로운 규칙을 정립해 위원회가 문서를 정리한 다음 1850년 하지네이 에브라크를 개장했다.



오스만 문서고

그렇게 오스만 제국 말기까지 대재상 부서 산하에서 운영되던 하지네이 에브라크는 1922년 양카라 정부의 결정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총리국 특별 문서부(Başvekâlet Kalem-i Mahsûs Müdüriyeti) 산하의 문서고 감독부(Mahzen-i Evrâk Mümeyyizliği)가 세워지면서 하지네이 에브라크와 그 외 문서고도 이곳으로 소속되었다. 이후 수 차례의 법령 개정으로 이름과 지위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1976년 10월 양카라에 공화국 기록 보관소(Cumhuriyet Arşivi Dairesi)가 설립되면서 공화국과 오스만 시대의 문서를 기록한 보관소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1984년 수상국(총리국) 산하로 국립 아카이브 국(Devlet Arşivleri Genel Müdürlüğü)이 설립되면서 오스만 수상 문서고(Başbakanlık Osmanlı Arşivi)는 이곳에 소속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2013년 이스탄불의 카트하네(kağıthane)의 새 건물로 옮긴 오스만 수상 문서고는 2017년 튀르키예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도에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 국가 문서국 오스만 문서고(Türkiye Cumhuriyeti Cumhurbaşkanlığı Devlet Arşivleri Başkanlığ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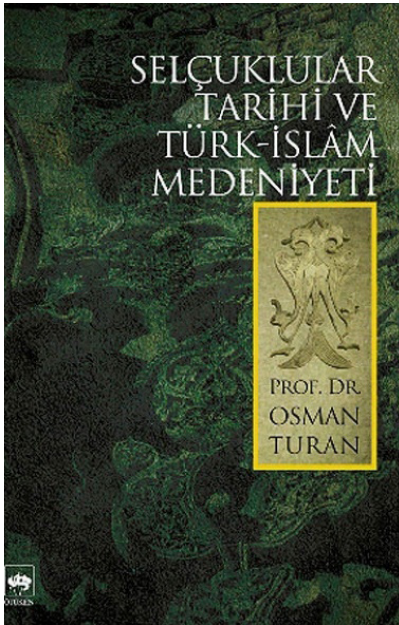
Osmanlı Arşivi)로 변경되었다. 현재 문서고에는 내각 회의록, 대재상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 서신, 일반인이 정부 고관에게 보낸 요청문, 외교 문서, 술탄의 칙령, 결정문, 군인 명부와 월급 장부, 세입 장부, 19세기 이후의 인구 문서를 비롯해 시대별 지도, 건축물 설계도 등 약 9,500만 개의 문서가 있다. 현재도 학자들은 문서 보관소의 문서를 분류하고 연구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르 아르쉬브, 오스만르 아르쉬비, 오스만 제국 아카이브
- 다국어 표기 Cumhurbaşkanlığı Devlet Arşivleri Başkanlığı Osmanlı Arşiv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devletarsivleri.gov.tr/Sayfalar/Sayfa.aspx?icerik=9&h=ADA45D7B737CBC58F13C672C0AECCA8E9F0DDB54A7AB8426349949A5FDEB9E15>
- 참고문헌(오프라인) Aktaş Necati, Yusuf Halaçoğlu, “BAŞBAKANLIK OSMANLI ARŞİV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5, İstanbul: TDV, 1992, pp.122~126.

I F083 | 오스만 투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Osman Turan

오스만 투란은 1914년 튀르키예 바이부르트 아이든테페(Bayburt Aydıntepe-Çatıksu)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0년 앙카라대학교 어문역사지리학부 역사학과에 입학하여 중세 역사를 전공했다. 이후 푸앗 코프뤼뤼(Fuad Köprülü)의 지도하에 「투르크 달력에서의 12간지 동물들(On İki Hayvanlı Türk Takvimi)」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밖에도 페르시아어, 아랍어 및 프랑스를 익혀 원문들을 읽고 연구 생활을 하며 대학교에서 중세 이슬람 역사를 가르치던 오스만 투란은 1943년 「중세 시대의 투르크 국가들의 투르크 명칭」이라는 주제의 논문과 함께 부교수로 승진했지만, 1944년 투르키즘과 관련되어 재판을 받은 ‘니할 앗스즈’(Nihal Atsız)를 접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교육부 장관에 의해 정직을 당했다. 하지만 멤두흐 쉐브켓 에센달과 하산 타흐신 반구오울루의 개입으로 같은 해 11월 30일 다시 교직에 복귀하게 된다.



『셀주크 조의 역사와 투르크 이슬람 문명
(Selçuklular Tarihi Ve Turk - Islam Medeniyeti)』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오스만 투란은 1946년~1947년 사이 군 복무를 마치고, 1948년~1950년에는 런던과 파리에 머물며 연구 생활을 계속했으며, 1951년에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그의 주 연구 분야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역사, 일반 투르크 역사 및 문화였다. 하지만 그는 지도 교수 푸앗 쿠피윈뤼를 따라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결국 교수직을 포기한다. 그리고 1954년과 1957년 두 차례에 걸쳐민주당에서 트라브존 대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1960년 5월 27일 혁명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고초를 겪게 되었는데 다행히 약 17개월의 구금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62년 6월 오스만 투란은 다시 교직에 복귀하기를 원했지만 교직원협회는 이를 거부한다. 때문에 그는 다시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1964년 당 의회 조직을 담당하는 정의당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965년에는 트라브존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1967년 <예니 이스탄불>에 투고한 사설로 인해 당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그리고 1969년 또다시 교직 생활로 복직하려 했지만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이 거부되었으며, 1972년에는 은퇴했다. 은퇴 후 이스탄불로 이주한 그는 『셀주크 투르크의 경제사』라는 제목의 책을 쓰며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던 중 1978년 1월 17일 뇌출혈로 사망하여 그 책은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사후 후대에 비로소 셀주크 역사 전문가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생전 집필한 수백 개의 논문이 재평가를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 투란
- 연관 검색어 푸앗 쿠피윈뤼(Fuad Köprül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slamansiklopedisi.org.tr/turan-osman>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turan-osman>
- 참고문헌(오프라인) TOPAL, Nevzat. «Osman Turan Bibliyografyası», *Türklük Bilimi Araştırmaları* 18. 2005, pp.187~194.

I F084 | 오스만 투르크어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어족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Ottoman Turkish

오스만 투르크어는 오스만 제국 시대 특히 이스탄불을 정복 후 대제국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사용되었던 언어로, 튀르키예 언어사에서 15세기 초~20세기 초를 주 사용시기로 본다. 당대 오스만 투르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해당 언어를 ‘투르크어(Türkçe, Türk dili, Türki)’라고 불렀다.

참고로 투르크어족의 남서투르크어(오우즈/오구즈어) 중에서 서부 오우즈어파에 속하며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쓰이는 투르크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3세기~15세기에 사용된 고대 아나톨리아 투르크어(고대 오스만 투르크어, 고대 오구즈어)
- 15세기~20세기에 사용된 오스만 투르크어
- 21세기~현재까지 사용 중인 튀르키예어

오스만 제국 시대의 공용어는 투르크어였지만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늘 공존했기에 오스만 제국도 그에 맞춰 다문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중 언어 정책을 살펴보면 공용어는 투르크어였으나, 이슬람 고등 교육 신학교(Medrese, 메드레세, 즉 마드라사) 교육을 받고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아는 계층과 정치, 교육, 종교계 등에서 통용되던 공식 문서에는 아랍어와 페르시아 어휘만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자체가 투르크어의 통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주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언어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 초기에 사용된 오스만 투르크어와 19세기 이후의 근대 오스만 투르크어는 현대 튀르키예어와 사용된 문자만 다를 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16세기~19세기에 공식 문서에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사용됨에 따라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어휘 다수와 일부 통사 구조가 투르크어로 유입되는 전통적 오스만 투르크어(Klasik Osmanlıca) 시기가 도래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의 투르크어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특정 계층이 사용한 오스만 투르크어는 예술적 재능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어휘 및 수식어 구조와 같은 문법적 측면에서도 구어체와 차이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다양한 문학 작품 및 문서들이 오스만 제국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문학적, 예술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언어 연구나 투르크학 관련 연구 자료는 대부분 이 전통 오스만 투르크어 시기의 사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스만 투르크어의 글자는 아랍과 페르시아 문자를 기반으로 34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글자가 단어의 첫머리, 중간, 말미의 쓰이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르며, 위에서 좌로 쓰고, 특정 문자는 이어 적는다. 오스만 투르크어 알파벳은 엘리프-바(الفبا, Elif-Bâ)라고 하는데, 아랍 문자의 첫 번째 글자 엘리프(ا, elif)와 두 번째 글자 베(ب, be)에서 따온 이름이다. 오스만 투르크어는 4개의 문자로 모음을 표기한다. 오스만 투르크어에서 아랍어나 페르시아어 어원의 어휘는 원어와 마찬가지로 자음과 장모음 'a'만 표기하나, 투르크어는 다른 모음들도 표기한다. 또는 투르크어가 지니는 모음조화 특징을 반영하여, 현대 튀르키예어에서 같은 'k'로 표기되는 어휘일지라도 구개수음 k는 (ق - kaf; /q/) 후설 모음과 (a, ı, o, u), 연구개음 k의 경우 (ك, ک - kef; /k/) 전설모음과 (e, i, ö, ü) 함께 사용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르 튀르크체씨, 오스만르자; 리싸니 튀르키, 리싸니 오스마니, 오스만어
- 다국어 표기 Osmanlı Türkçesi(튀르키예어 표기), Osmanlıca(튀르키예어 표기); لسان تورکی(Lisân-ı Türki; 오스만어), لسان عثمانی(Lisân-ı Osmânî; 오스만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osmanli-turkcesi> <http://www.osmanlidevleti.gen.tr/osmanli-turkcesi-alfabesi/>
- 참고문헌(오프라인) Timurtaş, Faruk K. *Osmanlı Türkçesine Giriş 1*, Alfa, 1997.
Ercilasun, Ahmet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Ankara:Akçağ Yayınları, 2004.
Kartallıoğlu, Yavuz. *Osmanlı Konuşma Dili*, İstanbul:Kesit Yayınları, 2017.

I F085 | 오스만 파즈완토을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불가리아,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방 명사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Osman Pazvantoğlu

오스만 파즈완토을루(1758년 또는 1762년경~1807년 경)는 18세기 말~19세기 초 불가리아 북서부와 세르비아 북동부를 반독립적으로 지배한 지방 명사(아이안)이며, ‘니잠 으 제디드 개혁’의 주된 반대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당시 발칸반도에서 거물급 유력자였으며 중앙정부가 그의 지역에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는 다뉴브의 항구 도시인 비딘의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예니체리 연대의 부유한 아아(ağa)였고 해당 지역에서 술탄의 권위에 반항하는 데 오랜 내력이 있었지만 결국 처형을 당하면서 오스만 파즈완토을루 자신도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로 도망하여 비적떼들을 이끄는 처지에 처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 복권되었다.

그는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오스만 제국과 예니체리의 영광을 재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므로 예니체리의 권력과 특혜를 축소하는 ‘니잠 으 제디드 개혁’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791년~1792년에 베오그라드에서 추방된 예니체리들과 발칸 중심부의 여러 비적 집단들과 동맹을 맺어서 큰 세력을 형성했으며, 또한 왈라키아 지역을 쳐들어가 세력권을 확장했다. ‘니잠 으 제디드 개혁’에 대해 말을 조심한 다른 아이안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처음부터 명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공공연한 반발은 중앙정부에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1795년~1796년, 1798년, 1800년 3회에 걸친 토벌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그는 1798년의 포위 후 ‘비딘의 웨지르’라는 칭호를 하사받기도 했다. 그를 견제하는 데 성공



크로아티아 아카이브에 소장 중인
오스만 파즈완토을루 초상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한 것은 오히려 루스축의 ‘아이안 이스마일 아아’ 세력이었고 영향을 준 사건은 세르비아 반란 (1804년~1813년)의 확산이었다. 특히 세르비아 반란을 살펴보면 그 자신이 세르비아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촉발한 주요 인물이어서 세르비아 반란은 그의 침입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그는 니잠 오 제디드와 그 기반이 되는 조세의 증가에 반항했는데 이점이 예니체리를 중심으로 하는 무슬림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는 일반인, 상인, 성직자를 막론하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친화 정책을 펼쳤고, 유럽의 급격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러시아와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 관할구역 내의 기독교인들을 중개인으로 이용했다. 또한 그리스 혁명가 리가스 벨레스틴리스와 접촉하는 등 상당한 종교적 자유와 생활 조건의 개선을 이루어주었다. 다만 그런 그의 행동이 종교 간의 평등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파즈완토올루는 1807년에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당시 엄청난 양의 현금과 부동산을 남겼는데 그의 통치 영역이 오스만 중앙정부에 의해 모두 파악되어 장악된 시기는 그로부터 7년 뒤인 1814년에 가서야 가능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넓었던 그의 대농장들은 185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지역 내에서 오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 파스완토올루, 오스만 파스반토올루, 오스만 파즈반토올루
- 다국어 표기 Osman Pazvantoğl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이안, 셀림 3세, 예니체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Rossitsa Gradeva, «Osman Pazvantoğlu,”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447~448.
Robert Zens, “Pasvanoğlu Osman Paşa and the Paşalık of Belgrade,” *International Journal of Turkish Studies*, vol. 8, 2002, pp.88~104.

I F086 | 오스만 피크리 세르트카야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Osman Fikri Sertkaya

오스만 피크리 세르트카야는 1946년 8월 11일 아다나에서 태어나, 제이한 아타튀르크 초등학교(1953년~1958년), 제이한 중학교(1959년~1961), 제이한 고등학교(1962년~1964년)를 졸업한 이후 1964년 이스탄불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부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 튀르키예의 저명한 학자로 꼽히는 아흐메트 자페르올루(Ahmet Caferoğlu), 사아뎃틴 불루취(Sâdettin Buluç), 파룩 카드리 티무르타쉬(Faruk Kadri Timurtaş), 무하렘 에르긴(Muharrem Ergin), 알리 니하드 타르란(Ali Nihad Tarlan), 파히르 이즈(Fahir İz), 압카디르 카라한(Abdülkadir Karahan), 메흐멧 카플란(Mehmet Kaplan), 외메르 파룩 아쿰(Ömer Faruk Akün) 밑에서 수학한다.



오스만 피크리 세르트카야
Source: <https://asya.bogazici.edu.tr/sites/asya.boun.edu.tr/>

1968년 '차가타이 시대의 대표작 미라즈 나메이(Mi'râc-nâmei) 텍스트 분석(원제: Çağatay Türkçesi sahasında Mi'râc-nâme(Metin-İndeks))'을 주제로 학사 논문을 제출했다. 1969년에는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70년 1월 이스탄불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 고대 튀르키예어 수업을 맡았던 무하렘 에르긴 교수의 조교로 일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이슬람 시대 위구르 문자로 쓰여진 시라철 쿨뤼브(Sirâcü'l-ḳulüb) 텍스트(원제: İslâmî Devrenin Uygur Harflî Eserlerinden Sirâcü'l-ḳulüb(Transkripsiyon ve İndeks))」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1977년~1979년에는 독일 알렉산더 훔볼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꺾투르크, 위구르, 카라한, 킵차크, 차가타이, 오스만 시대의 튀르키예어를 연구했다.

1982년 6월 6일 이스탄불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에서 고대 튀르키예어 전공 조교수로 임명을 받았다. 1982년부터 1983년까지 독일 기센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튀르키예어 강사로 근무

했으며 1986년 3개월 동안 훔볼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일 기센 대학에서 「위구르 의학 텍스트」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후 1989년에 「고대 위구르어의 음악 관련 용어(원제: Eski Türkçe'de Mûsikî Terimleri ve Mûsikî Âlet İsimleri)」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며 부교수로 승진했고, 이어서 1996년 8월 8일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그는 킵투르크, 위구르, 카라한, 킵차크, 차가타이, 초기 오스만, 현대 위구르어와 관련되어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예술, 음악, 민속학 전반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갔다. 그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작성된 425편 이상의 논문들을 세계 각국의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180회 이상의 학술 발표에 참여하며 투르크학 발전에 공헌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 피크리 셸트카야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키르기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Osman, M. Prof. Dr. Osman Fikri Sertkaya ve “Makaleler-2 (Seçme Araştırma Ve İncelemeler)” Adlı Eseri Üzerine. *Uluslararası Türkçe Edebiyat Kültür Eğitim (TEKE) Dergisi*, 2(4), 2005, pp.366~403.

I F087 | 오스만 함디 베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회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Osman Hamdi Bey

오스만 함디 베이는 1842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회화 예술에 흥미를 느껴 파리 미술대학(Ecole des Beaux Arts)에 입학하여 장 레온 제롬(Jean-Leon Gerome, 1824년~1904년)과 구스타브 블랑거(Gustave Boulanger, 1824년~1888년)를 사사했다. 그 후 1869년에 이스탄불로 귀국하여 187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여러 임무를 수행했다.

1881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제국 박물관(Müze-i Hümayun)의 관장으로 임명된 적도 있다.



오스만 함디 베이의 작품, 코란을 읽는 소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는 법학 공부의 경험을 살려 유물 관리법을 제정에 힘을 써, 1884년 ‘유물 반출 금지’가 포함된 유물 관리법(Asar-ı Atika Nizamnamesi)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1910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박물관장직을 수행하며 박물관 확장과 지방 박물관 건립, 박물관 카탈로그 작성 등을 해냈다. 또한 고고학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가 하면 고고학 원정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오스만 함디 베이의 책임하에 1883년 현 튀르키예의 넴루트(Nemrut) 산 발굴, 1887년 현 레바논의 시돈(Sidon) 발굴, 1891년~1892년 현 튀르키예의 라기나(Lagina) 헤카테 신전 발굴이 이루어졌다.

오스만 함디 베이는 박물관장직과 고고학 발굴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회화 작품



오스만 함디 베이의 작품, 거북이 조련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활동을 했다. 특히 파리 유학시절의 경험을 반영한 오리엔탈리즘 화풍이 작품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으나 서구 세계가 그려낸 중동지역의 미개한 이미지보다는 당대의 오스만 제국의 적극적인 지식인과 계몽 사상을 반영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의 작품은 인물이 구성의 주요 요소가 된 튀르키예의 첫 예시이기도 했는데 그는 작품에서 인물과 함께 튀르키예의 예술과 문화, 건축, 타일과 카펫, 장식품, 촛대와 영묘, 독서 대와 캘리그래피 현판 등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오스만 여성의 실내 외의 모습을 그림으로 옮기는가 하면 동양과 서양, 믿음과 사랑, 삶과 죽음과 같은 딜레마를 자주 다루었다.

그 외에 국제기관과의 관계 구축에도 애썼으며 그 업적을 인정받아 189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882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미술학교(Mekteb-i Sanayi-i Nefise-i Şâhâne: 지금의 미마르 시난 미술대학교)를 설립했다.

위와 같은 업적으로 알 수 있듯이 오스만 함디 베이는 20세기 말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근대화와 서구화 흐름의 선봉자라 할 수 있다. 그가 만들었던 유물 반출 금지법은 현대 튀르키예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고고학 발굴단이 발굴한 유적들은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그의 회화 작품도 튀르키예 근대 회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주요 작품은 코란을 읽는 소녀(Kuran Okuyan Kız, 1880), 라일락을 모으는 소녀(Leylak Toplayan Kız, 1881), 미흐랍(Mihrap, 1901), 무기 상인[Silah Taciri, 1908, 앙카라 회화 조각 박물관(Ankara Resim Heykel Müzesi) 소장], 거북이 조련사[Kaplumbağa Terbiyecisi, 1906, 페라 박물관(Pera Müzesi) 소장], 대서인[Arzuhalcı, 1910, 사쿱 사반즈 박물관(Sakıp

Sabancı Müzesi) 소장] 등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 함디
- 다국어 표기 Osman Hamdi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펫, 이스탄불, 미마르 시난, 앙카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a/Osman_Hamdi_Bey_-_The_Tortoise_Trainer_-_Google_Art_Project.jpg/800px-Osman_Hamdi_Bey_-_The_Tortoise_Trainer_-_Google_Art_Project.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1/Osman_hamdi_genclik.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Sanatta Batıya Açılış ve Osman Hamdi*,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1971.
Cezar, Mustafa. *Müzeci ve ressam Osman Hamdi Bey*, İstanbul : Türk Kültürüne Hizmet Vakfı, 1987.
Mansel, Arif Müfid. "Osman Hamdi Bey", *Türk Tarih kurumu Belleten*, XXIV/94, 1960, pp.291~301.

| F088 | 오스만 화가 협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조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Osmanlı Ressamlar Cemiyeti

오스만 시대 말기에 제2입헌군주제 시대(1908년~1920년)를 전후로 사회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조직이 창설되었는데 그 영향이 문화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오스만 화가 협회도 신설되었다.

협회 설립의 계기는 당시에 민간과 군대의 교육기관에서 미술 수업을 열면서 미술 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오스만 제국 최초의 미술학교였던 사나이이 네피세 맥테비(Sanayi-i Nefise Mektebi)가 개교하면서 나타난 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였다. 이후 언론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예술가 간의 교류가 빈번해졌고, 유럽 예술의 영향으로 국내의 문화적 수요 증가 및 오스만 고유의 문화적 욕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909년 군인 미술가와 민간의 오스만-투르크 화가들이 모여 오스만 화가 협회(Osmanlı Ressamlar Cemiyeti)를 창설하게 된다.

협회 창설은 화가인 메흐메드 루히 아렐(Mehmet Ruhi Arel, 1880년~1931년)이 앞장섰다. 초



<오스만 화가 협회지(Osmanlı Ressamlar Cemiyeti Mecmuası)>를 라틴 문자로 정리한 책 표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창기 멤버로 사미 이에티크(Sami Yetik, 1878년~1945년), 히크메트 오나트(Hikmet Onat, 1882년~1977년), 이브라힘 찰르(İbrahim Çallı, 1882년~1960년), 아흐멧 지야 아크볼르트(Ahmet Ziya Akbulut, 1869년~1938년), 호자 알리 르자(Hoca Ali Rıza, 1858년~1930년)를 비롯하여 수많은 화가와 조각가들이 참여했다. 이들 중에는 사니이이 네피세 맥테비의 졸업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협회의 중요성을 느낀 화가와 조각가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협회는 이른바 ‘1914 세대’(1914 kuşağı)라고 불리던 인상파 화가 그룹이 이 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협회의 회원들은 인상주의와 사실주의 화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협회는 어떠한 예술

적 화풍을 공유하는 단체가 아닌, 예술가의 전문화, 직업화에 대한 모색에서 탄생한 단체로서 성격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후 1911년 1월 20일 협회는 <오스만 화가 협회지(Osmanlı Ressamlar Cemiyeti Mecmuası)>라는 월간지를 발간한다. 1914년 7월 14일까지 총 18호가 발행된 이 잡지에서는 미술 비평을 비롯하여 미술계 비평, 작품과 작가가 소개되었다. 잡지의 가장 큰 지원자는 술탄 압둘아지즈(Sultan Abdülaziz, 재위: 1861년~1876년)의 아들이었던 셰흐자데 압둘메지드(Şehzade Abdulmecid, 1869년~1944년)였다. 이 잡지는 오스만 화가 협회의 회원 예술가에 의해 운영 및 출판되었으며 잡지의 책임자는 화가 오스만 아사프(Osman Asaf, 1869년~1935년), 편집장은 셰리프 압둘카디르타데 휘세이인 하심(Şerif Abdülkadirzade Hüseyin Haşim, 1860년~1920년)이었다.

잡지 발간 이외에도 협회는 전시회에서 작품 발표하거나 1916년 갈라타사라이 전시회(Galatasaray Sergisi) 개최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어 튀르키예 화가들을 꾸준히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던 중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 명확해 보이던 1921년에 오스만 화가 협회는 협회의 이름을 ‘투르크 화가 협회’(Türk Ressamlar Birliği)로 변경했고 1926년 다시 ‘미술 협회’(Güzel Sanatlar Birliği)로 명칭을 변경했다. 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칭은 바뀌었지

만 오스만 제국의 최초의 화가 협회이자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이후 두 번째 미술 조직이었던 오스만 화가 협회는 현대 튀르키예 예술의 기반과 현대 미술 양식을 준비하던 중요한 단체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스만 레삼라르 제미엣티, 오스만 레삼라르 체미엣티

● **다국어 표기** Osmanlı Ressamlar Cemiye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호자 알리 르자,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 **멀티미디어 링크** 오스만 화가 협회_오스만 화가 협회지 1호 표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a/ORC_gazetes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erk. Nurullah, Hüseyin Gezer, *50 yılın Türk Resim ve Heykeli,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73.*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 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 F089 | 오야 바이다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Oya Baydar

‘오야 바이다르’는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1940년생 튀르키예 작가이다. 중등교육은 프랑스에서 받았으며 프랑스의 노트르담 드 시온 프랑스 여자 고등학교에 다녔다. 문학과와의 인연은 고교 시절 시작되었고, 첫 작품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작품은 「신은 아이들을 잊었다」로 튀르키예 <휘리에트> 신문에 연재한 후 곧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퇴학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그 후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하지 못했다.

1964년 튀르키예 이스탄불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후 조교로 선발되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으로 「튀르키예 노동계급의 형성과 구조」라는 주제를 발표했으나 두 번이나 학위논문 심사에서 탈락한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스탄불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했고, 튀르키예의 학생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지자 결국 그녀는 앙카라



『고양이 편지』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로 옮겨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1971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튀르키예 노동당과 교사노조에 가입했던 것이 문제시되어 결국 구속됐고, 대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만다.

그 후 ‘오야 바이다르’는 1796년~1779년 사이에 여러 신문에서 정치적이며 반정부적인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9.12 쿠데타를 정점으로 결국 튀르키예를 떠나 독일행을 선택한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오랜 망명생활을 거친 후 1992년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이었으나 그녀의 저항은 결과적으로 이스탄불대학교를 비롯한 청년 및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아직도 ‘오야 바이다르’에 대해 언급할 때는 1971년 군사 쿠데타 시기 튀르키예 노동당과 튀르키예 교사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

되었을 때도 뜻을 굽히지 않고 언론 기고와 작품활동을 이어 나갔던 그녀의 의지는 높이 평가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녀를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한 위인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작으로는 작품활동의 재시작을 알린 1991년 출간작 『안녕 알료사』라는 단편소설집이 유명하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묘사와 체험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그 외에도 튀르키예로 돌아온 후 발표한 많은 단편과 소설들이 튀르키예 문단에서 상을 받았다. 오야 바이다르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여성작가임과 동시에 사회학자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제도권의 모순을 비판하며 평생을 인권탄압과 독재, 국가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갔다.

수상 경력으로는 『고양이 편지(1992)』로 유누스 나디 소설상(1992), 『그 어느 곳으로도 돌아가지 않기(1998)』로 지중해 문화상(2011), 『따뜻한 재만이 남았네(2000)』로 오르한 케말 상(2011), 『에르구반 문(2004)』으로 제브뎃 쿠드레트 문학상(2004), 『안녕 알료사(1991)』로 사이트 파이크 단편소설상(1991)을 받았다.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주요작품으로는 『실종된 언어(2007)』, 『쓰레기 장군(2009)』, 『전쟁 시대 희망의 시대(2010)』, 『그토록 장엄했던 당신의 인생(201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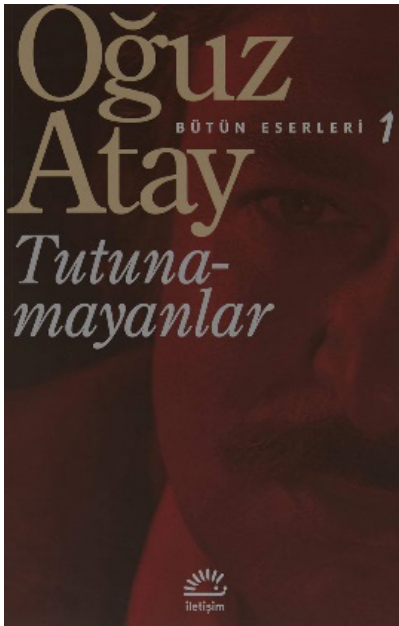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야 바이달
- 다국어 표기 Oya Bayd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고양이 편지, 안녕 알로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Baydar Oya, *Roman Toplumsal Zaman İçinde İnsanı Anlatır*, Istanbul: Toplumsal Tarih, 2002.
Köksal Alver, *Edebiyat Sosyolojisi İncelemeleri*, Ankara: HeceYayınları, 2006.

I F090 | 오우즈 아타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Oğuz Atay

오우즈 아타이(Oğuz Atay)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현대작가로 주로 소설과 에세이 작품을 집필했다. 1934년 10월 12일 카스타모누 이네볼루에서 태어난 그는 고학력자 부모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 제밀 아타이는 신의가 두텁고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로 경찰관으로 일하던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법을 공부하기 시작해 법률 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후 50세가 되어서야 앙카라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그의 어머니 무아제즈 제키 부인은 프랑스인 어머니와 튀르키예인 아버지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났으며 에디르네 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했다. 그녀는 튀르키예 공화국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의 여성 개혁의 수혜자로 일한 1세대 여성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다.

1939년에는 아버지 제밀 아타이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족 모두 카스타모누에서 앙카라로 이사했다. 그 후 오우즈 아타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앙카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앙카라의 대표 명문고 TED 예니셰히르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상당한 수재였던 그는 1951년 이스탄불공과대학교 건축공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공과대는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인기 좋은 과인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학과이기에 선택했지만, 오우즈는 평생 동안 공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



「견디지 못한 자(Tutunamayanlar)」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와중에도 문학과 예술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후 1957년 장교로 입대한 오우즈는 군 복무 첫 6개월은 이스탄불 예비 장교 공병학교에서, 나머지는 앙카라 육군 사령관 공병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앙카라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무자페르 에르도스트(Muzaffer Erdost)가 편집장이었던 잡지 <파자르 포스타스(Pazar Postası)>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었다.

졸업 후, 그는 1960년부터는 국립 이스탄불 건축·공과대학교(İstanbul Devlet Mühendislik ve Mimarlık Akademisi)에 교수로 임용됐다. 또한 꾸준히 집필해 출간했던 첫 번째 소설 「견디지 못한 자(Tutunamayanlar)」가 1970년 TRT가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큰 상을 받았음에도 아타이는 수상작

을 출판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했고, 여러 출판사 문을 두드린 끝에 1971년 하야티 아슬야즈즈(Hayati Aslyazıcı)가 운영하는 시난 출판사에서 소설을 출간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73년 두 번째 소설 「위험한 놀이(Tehlikeli Oyunlar)」를 마무리 지은 다음 이듬해 대학 시절 따르던 무스타파 이난(Mustafa İnan) 교수의 전기인 「어느 학자의 소설(Bir Bilim Adamının Romanı)」를 썼다. 그리고 이를 묶어 『연극과 함께 하는 사람들(Oyunlarla Yaşayanlar)』라는 희곡문집으로 펴냈다. 그밖에도 1975년 7개 이야기로 구성된 『공포를 기다리며(Korkuyu Beklerken)』를 출간했으며 1976년에는 끝내 미완성으로 남은 『행동학(Eylembilim)』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중 3권의 시리즈 소설인 『튀르키예의 혼(Türkiye'nin Ruhü)』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개인적으로 그는 1961년 피크리에 파트마 귀르뷔즈(Fikriye Fatma Gürbüz)와 결혼했고 1962년 딸 외즈게(Özge)가 태어났다. 그리고 같은 해 한 친구와 건축회사를 창업했다. 그러나 1967년에는 아내와 헤어졌고, 회사도 문을 닫았다. 짧은 결혼 생활을 접은 후 딸과 함께 지내다 딸이 이스탄불 베이오울루 근처로 독립하자 그는 10여년간 친구로 지내던 세빈 세이디(Sevin Seydi)와 재혼했다. 1974년에는 예술부 기자 파키제 쿠톨루(Pakize Kutlu)와 세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1969년~1972년에는 백과사전과 어학사전 제작에 참여하여 최종감수 작업을 하기도 한 그는 1975년 국립 이스탄불 건축·공과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오우즈 아타이의 작품 중 소설 「견디지 못한 자(Tutunamayanlar)」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으로 많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튀르키예 문학에 새로운 기법이자 소설식 수필(kurmaca denemesi) 형식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요소를 담고 있다. 1950년대 농촌소설이나 1960년대 사회문제를 앞세운 소설과도 상당히 다르다. 작가는 개인과 개인의 내면, 내적대화, 정신분석, 풍자, 모방, 패러디, 패스티시(pastiche) 등 다양한 포스트모던 기법을 사용하여 소설을 이끌어 나갔다. 또한 아이러니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 내면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개인을 그려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역할(oyun)’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있는 다양한 서사와 목소리, 상황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달라지는 텍스트를 찾아 읽는 추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1976년 말, 오우즈 아타이는 자신의 뇌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 교수직을 사임했다. 곧바로 치료를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1년 동안 런던과 이스탄불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1977년 12월 13일 눈을 감았다. 그의 묘지는 이스탄불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구즈 아타이

● 다국어 표기 Oğuz Atay(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Ecevit Yıldız, “Ben Buradayım...”, *Oğuz Atay’ın Biyografik ve Kurmaca Dünyası*, 4. Baskı,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2009.

İleri Selim, “Tutunamayanlar’ın Işığı Altında”, *Oğuz Atay’a Armağan* (Hazırlayan: Handan İnci),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2007.

Sheridan, R Aslıhan Aksoy, “Oğuz Atay’da Okurluk Halleri”, *Oğuz Atay İçin Bir Sempozyum (Yayına Hazırlayanlar: Handan İnci- Elif Türker)*,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2009.

I F091 | 오우즈 카안 서사시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우즈 카안 서사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B.C. 2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긴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A.D. 13세기 무렵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오우즈 카안 서사시는 오우즈 한(Oğuz Han)과 아들의 서사시를 설명하는 두 가지 버전이 각기 전해졌다.

첫 번째는 위구르 문자와 파리 국립 도서관 튀르키예어 자료실 1001번으로 등록된 원고이다. 1891년 라들로프(W. Radloff)는 오우즈 서사시의 필사본과 쿠타드구 빌리그(Kutadgu Bilig)도 같이 출간했다. 그 후 1932년에 빌리 방(W. Bang)과 레쉬드 라흐메티 아라트(Reşid Rahmeti Arat)에 의해 먼저 독일어로 발간됐고, 뒤이어 1936년에 『오우즈 카안 서사시(Oğuz Kağan Destanı)』라는 제목으로 튀르키예어로 출판됐다.

두 번째 판본은 일한르 궁전에서 살았던 라시드웃딘(Reşideddin)의 책 『집사(Câmi'ü't-Tevârih)』 2권에 있는 ‘역사적 오우잔과 튀르칸(Tarih-i Oğuzan ve Türkan)’ 부분이다. 이 책은 작가가 살아있을 때 출판됐고 현재는 사본이 이스탄불 톱카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서사시와 관련된 자료는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우준코프뤼(Uzunköprü)에서 동돌 꺾어로 쓰여진 글로 나므크 오르쿤(H. Namık Orkun)이 『오우즈와 관련하여(Oğuzlara Dair; Ankara 1935)』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나머지는 에불가지 바하드르(Ebulgâzi Bahâdir Han)가 『샤자라이 테라키마(Şecere-i Terâkime)』라는 작품에서 다룬 부분이다. 그리고 이에 관해 튀르키예의 저명한 학자 메흐메트 카플란(Mehmet Kaplan)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서사시는 투르크 민족이 정착 문명으로 가기 전 단계인 ‘기마 유목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우즈 카안은 기마 유목 공동체의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대표한다.
2. 오우즈 카안의 삶이 담겨 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냥을 나가고, 가축의 무리를 키우고, 침략해 약탈했다. 오우즈 카안은 어렸을 때 말을 키웠고, 말을 타고 사냥을 했다.
3. 오우즈 카안은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오우즈 카안은 천부적으로 통치력을 겸비했다.
4. 오우즈 카안이 속한 공동체는 유목 공동체였다. 유목민은 가축과 말에게 풀을 먹

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모든 존재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본성에 맞춰 더불어 살아간다.

5. 오우즈 카안의 말과 화살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고대 투르크인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정착민, 농민, 소극적인 부족민들보다 월등했다. 그들은 사냥에 능숙했고, 투르크 전사는 수없는 전쟁을 치렀다. 약탈한 전리품은 투르크인들로 하여금 끊임 없는 약탈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6. 오우즈 카안은 개인적 영웅이 아니다. 그는 기마 유목민들과 군중을 위해 행동한다.
7. 오우즈 카안은 대체로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다. 지속해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자신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의 종교관에서 우주와 동물은 중요하다. 회색 깃털, 회색 갈기 늑대로 상징되는 조상의 영혼이 오우즈에게 길을 인도했다.
8. 오우즈의 야망과 이상은 모두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
9. 그의 양육 방법, 인생관, 권력과 평화관, 매너와 호의와의 결합은 오우즈와 투르크 부족이 국가를 세우는 데 큰 힘을 부여했다.
10. 오우즈 카안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단순하다. 그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우즈 카안 서사시의 구조와 형식도 마찬가지이다.
11. 고대 투르크인의 예술과 의식에서 오우즈가 읊은 시(詩)와 금과 은 그리고 닭은 상징이다.
12. 서사시는 교훈의 목적이 있다.
13. 위구르어 「오우즈 카안 서사시」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오우잔과 튀르칸 역사(Tarih-i Oğuzan ve Türkan)」와 비교하면 더 월등한 가치를 갖는다. 그 이유는 기마 유목민의 신화적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위구르어 「오우즈 카안」에서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영웅의 일생이 신화적으로 묘사되며, 그 누구도 설득하려는 목표가 없었으며, 그토록 오래됐음에도 가감이 없다. 다만 「오우잔과 튀르칸 역사(Tarih-i Oğuzan ve Türkan)」의 경우, 작가는 사건을 합

리화하려고 했다. 신화에서는 억지스럽게 역사를 만들고자 하면 개성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우잔과 튀르칸 역사(Tarih-i Oğuzan ve Türkan)」는 이야기 구성 측면에서도 복잡하다.

서사시에서 오우즈는 출생부터 멋있고,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장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을 물리친다. 성장한 후에는 지구상의 사방 면에 특사를 보내 그 나라에 국기를 꽂았고, 나이 들어서는 국가를 여섯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는 투르크 군주이면서 영웅이다. 서사시는 이런 오우즈 카안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엮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오우즈 카안을 흉노의 목돌 선우(Mate)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오우즈 카안과 목돌 선우가 기마 유목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점,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투르크 민족의 이상적 영웅의 상징이라는 점 외에도 역사적 사실이나 영웅담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우즈 카간 서사시, 오우즈 칸 서사시

● 다국어 표기 OGUZ KAGAN MYTH(영어), OĞUZ KAĞAN DESTAN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집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Adalı Bilgin, *Oğuz Kağan Destanı*, Yapı Kredi Yayınları, İstanbul, 2012.

Bang W., Arat G. Rahmeti, *Oğuz Kağan Destanı*, Milli Eğitim Basımevi, İstanbul, 1970.

Kaplan Mehmet, *Oğuz Kağan Destanı*, Dergah Yayınları, İstanbul, 1979.

Özkırımlı Atilla, *Tarih İçinde Türk Edebiyatı*, ÜmitYayıncılık, Ankara, 1995.

Sakaoğlu Saim, Durmaz Ali, *İslamiyet Öncesi Türk Destanları*, Ötüken Yayınları, 7. Basım, İstanbul, 2012.

Togan Zeki Velidi, *Oğuz Kağan Destanı Reşideddin Oğuznamesi*, Tercüme Ve Tahlili, Kayı Yayınları, İstanbul, 1972.

Turan Metin, *Türk Halk Edebiyatı*, A.Ü. Açık Öğretim Fakültesi Yayınları, Eskişehir, 1998.

I F092 | 오우즈 탄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OĞUZ TANSEL

오우즈 탄셀은 코니아에 속한 보즈크르 지역의 메이레라는 마을에서 1915년 2월 15일 태어났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디반 시인인 휘세인'이며 할아버지는 '메흐메트 이엠오을루'이다. 그는 어릴 적 할아버지 집 마당에 책으로 가득한 건넌방을 몰래 본 것을 시작으로 어릴 적부터 꽤 많은 책을 접하며 성장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촌인 '뤼데리스 이브라힘 하크 도안'에게 페르시아어를 개인 과외로 배웠다. 그렇게 학문과 가까이 하며 어린시절을 보낸 후, 그는 이스탄불 다부트파샤 중학교, 페르테프이날 고등학교에 이어 이스탄불 대학교 문과대 튀르키예어문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시절 졸업 후에는 교직 생활을 시작해 1969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했다. 교편을 잡는 동안 그가 근무한 학교는 마르딘, 악히사르, 에스키쉐히르(농민 마을학교), 아마시아, 코니아, 카르마 중학교, 코니아 여자 사범학교, 코니아 무역 고등학교, 코니아 고등학교였으며, 튀르키예 어문학을 가르쳤다. 그는 학교장으로도 근무했다.

작품 활동을 살펴보면 형식과 운율에 맞춰 쓴 그의 첫 번째 시는 1937년 <세르베티 뿔눈>과 <와르륵>에, 첫 번째 산문은 <민속학 소식지>에 실렸다. 1940년 이후에는 자유시 형식으로 시를 썼는데 사실주의 관점으로 사랑, 우애, 자유, 화해, 평등과 같은 주제를 다뤘다. 그는 당시 그 어떤 동인들과도 연대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시를 쓰고자 했고, 특히 서정적인 시를 썼다. 그의 시에서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노력을 동화에서도 이어 나간 탄셀은 대중의 언어로 동화를 다시 쓰고자 했으며, 폭력과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했다. 이렇게 동화를 새로운 언어와 주제로 엮어 나갔는데, 그의 책은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덴마크어, 한국어로 번역됐다.

투르크학자 '팍소이'(Paksoy)는 오우즈 탄셀 시의 서정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오우즈 탄셀의 시는 독자를 세월에 의해 묻은 때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으로 데려다준다. 그래서 시를 읽고 나면 늘 마음이 반짝

이게 된다.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끝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바다처럼... 시인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확실하지 않은 대양 심연 속이다.”

1900년대 초에 활동하던 튀르키예 작가들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오우즈 탄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시인이면서 교사였고, 동화작가이자 민속학자이기도 했다.

그가 펴낸 시집은 『흠어지길 기다리는 추수(Savrulmayı Bekleyen Harman)』, 『마음에 든 눈(Gözünü Sevdiğim)』, 『낙타거미 여정(Sarıkoz Yolu)』, 『산에 입 맞추기(Dağı Öpmeler)』가 있다. 동화로는 『육남매(Altı Kardeşler)』, 『거인 일곱 명(Yedi Devler)』, 『소녀 3명(Üç Kızlar)』, 『푸른 신부(Mavi Gelin)』, 『말하는 물고기와 외로운 소녀(Konuşan Balıkla Yalnız Kız)』, 『목동과 베이의 딸(Çobanla Bey Kızı)』 등이 있다. 그는 『빨간 반짝이(Al'lı ile Fıfır)』로 1977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어린이 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창작 외에도 문학단체와 교사협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오우즈 탄셀은 자신이 근무했던 도시들, 특히 고향 코니아에서 여러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 그리고 시화전을 여는 데 앞장섰다. 그는 자주 “어린이들을 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동화를 썼다”고 많은 글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그 말은 오우즈 탄셀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는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재가 된 나무처럼 건조하고 무익하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겼다.

오우즈 탄셀은 1994년 10월 30일 앙카라에서 눈을 감았다. 탄셀의 무덤은 앙카라 카르쉬야카 묘지에 있다. 그의 사후 1994년 12월 2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오우즈 탄셀을 기념하기 위한 콘서트가 열렸으며, 동료들은 탄셀 사망 후 추모 글을 엮어 책으로 엮어 출판하기도 했다. 「날개 3개 달린 봉황(Üç Kanatlı Masal Kuşu): 오우즈 탄셀」이라는 시는 미국인 작곡가 ‘브루스 레이프리지’ 교수가 그를 추모하며 쓴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우즈 탄셀

● 다국어 표기 Oğuz Tansel(튀르키예어), Oguz Tansel(영어)

● 연관 검색어 코니아, 이스탄불, 앙카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오프라인) Paksoy Abdulkadir, “Ekmek Kokulu Sevgi Nerede?”, *Üç Kanatlı Masal Kuşu: Oğuz Tansel*, 3. Basım, s.3, Ürün Yayınları, Ankara, 2019.

Turan Metin, “Oğuz Tansel ve Şiiri,” *Littera*, Edebiyat yazıları 6, Ankara, 1996.

I F093 | 오윤과 우다간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Ojuun, udagan

야쿠트 민속신앙에서 ‘오윤’은 남자 샤먼이고, ‘우다간’은 여자 샤먼을 가리킨다. 여자 샤먼 우다간은 남자 샤먼 보다 더 강한 존재로 여겨지며 서사 문학작품에서는 보통 상부 세계에 살면서 인간을 곤경에서 구해 주는 샤먼으로 묘사된다. 애초에 샤먼의 어원은 에벤키어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즉 ‘예지자’라는 뜻의 ‘샤먼(saman)이라는 말이 러시아어를 통해 ‘샤먼’으로 전파되었다.

샤먼이 되기 위해서는 에테니이(ettenii)라는 통과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례는 지하세계의 영혼들에 의해 집행된다. 샤먼 예정자는 먼저 천막 유르트 안에 놓인 오른쪽 침상에 눕는다. 그 이후 3일 동안 죽은 듯이 지내며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소년의 시중을 받는다. 그 사흘 동안 침상 주변에 수많은 도깨비들이 모여드는데, 도깨비들은 예정자의 머리를 잘라 판자 위에 놓은 다음 몸을 꼬챙이로 찌르고 뼈와 살을 발라낸 후 물기를 모두 짜낸다. 발라낸 뼈와 고기는 도깨비들끼리 나누는데, 그때 분배에 불만이 있는 도깨비는 샤먼 예정자에게 자기의 신통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샤먼이 되어도 그의 육신을 먹지 못한 도깨비가 일으킨 병은 고칠 수 없게 된다. 이 의식을 예니떼이라고 한다.

도깨비들의 분배의식이 끝나고 나면 유르트에 누워 있던 샤먼 예정자는 다시 태어난다. 샤먼이 태어나면 친척들은 샤먼의 재탄생에 대한 보상으로 모두 죽게 된다. 대신 새로 태어난 샤먼에게 늙은 샤먼이 다가와 새 샤먼의 영혼이 양육된 성스러운 나무 등지로 안내한다. 늙은 샤먼은 새 샤먼의 영혼에 생선 ‘루오’의 정액을 먹인다. ‘루오’는 불행과 죽음의 원천이 되는 물고기로 샤먼에게 성사 집행 능력을 준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젊은 샤먼은 ‘죽음과 파멸’의 성령을 받을지, ‘치유와 구제’의 성찬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윤, 우다간
- 다국어 표기 ойуун, удаҕан(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ванов В.Н.(ed). Якут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ИГИ, Якутия. 2007, 530.

I F094 | 오이 이야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Oy iyase

오이 이야세(Oy iyase)는 카잔 타타르와 서시베리아 타타르, 바시키르 시화에 등장하는 ‘집의 주인’이다. 바시키르와 카잔 타타르 신화에서 ‘오이 이야세’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오이 이야세의 생김새가 불가강 유역의 핀 계열 민족이나 동슬라브 민족의 도모보이(집의 정령) 형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학적으로 핀-우고르 주민들의 신화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름으로는 ‘마당의 주인’이란 의미의 ‘요르트 이야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별칭이 붙은 배경에는 ‘오이 이야세’와 ‘아브자르 이야세’를 동일시했던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이 아야세의 모습에 대해서는 신화마다 의견이 각기 다르다. 서시베리아 타타르 신화에서 오이 이야세는 추악한 모습의 긴 머리를 가진 노파의 모습이다. 반면 바시키르와 카잔 신화에서는 여성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겉모습은 남성처럼 보인다. 어떤 모습이든 그들은 대체로 오이 이야세가 집의 마루 밑에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존재를 대접하려면 마루 밑에 음식을 두어야 하고, 밤이 되면 오이 이야세가 마루 밑에서 나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경우 오이 이야세가 좋은 일을 한다는 미담보다는 사람들에게 나쁜 장난을 치거나 일을 벌린다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평소 밤이 되면 마루 밑에서 나와 집안을 뛰어다니거나 바스락거리고, 때로는 울면서 사람을 귀찮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오이 이야세가 활동하면 집 안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도 믿었다. 나쁜 징조로 물레에 남아 있는 실을 돌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밀가루를 체로 거른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설이 내려오는 이유는 오이 이야세가 여러 방법으로 가

족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좋은 징조와 나쁜 징조를 모두 가지고 다니는 존재다 보니 어떤 문화에서는 오이 이야세가 집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집을 팔려는 풍습이 있기도 했다. 또한 반대로 새집으로 이사를 갈 때 오이 이야세를 초대해 모셔가는 풍습이 있던 지역도 있었다. 이처럼 투르크 언어를 쓰는 여러 민족의 신화에서 집 정령의 형상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유사하게는 미샤리 타타르나 카라차예프, 추바시, 튀르키예, 야쿠트, 노가이 신화에서도 집 정령의 풍습을 발견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이 이야세

● 다국어 표기 Ой иясе(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атары Среднего поволжья и риуралья, М., 1967, 361~362.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1991, 247.

I F095 | 오일 레슬링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스포츠
● 집필자 최선아, 우덕찬 ● 라틴 문자 Oil wrestling

오일 레슬링(Oil wrestling)이 시작된 시기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의 경우 B.C. 3천년 전, 아나톨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B.C. 2500년으로 보고 있다. 이후 레슬링은 세계 여러 문화권으로 퍼져나가 전통 무술 또는 스포츠로 발전되었다. B.C. 2세기 무렵 중국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투르크인들도 ‘토슬라마(toslama)’라고 부르며 공식 의식 때마다 했던 비슷한 전통 레슬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오구즈족의 데데 코르쿠트 전설과 마나스 데스탄에도 레슬링이 묘사된 적이 있다.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투르크족은 셀주크 시대부터 기존의 샤머니즘 규칙에서 벗어나 이란과 이슬람의 규칙에 맞추어 레슬링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어에서 레슬링 선수를 뜻하는 페흘리반(phelivan)은 이란어에서 온 단어로, 그 어원인 이란어의 페헤레반(phelevan)



크룩프나르 오일 레슬링 페스티벌에 참여한 선수들
 Source: <https://ich.unesco.org/img/photo/>

은 ‘화살을 쏠 수 있는 유명한 궁수’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나 튀르키예어에서는 ‘두터운 몸을 가진 영웅이자 레슬링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이때 당시 레슬링의 형태는 오일 레슬링은 아니었다.

투르크족이 처음 오일 레슬링을 한 것은 13세기 무렵 ‘사르 살투크’(Sarı Saltuk)이라는 인물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기원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와 비잔틴의 레슬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비잔틴의 레슬링과 오일 레슬링의 규칙에는 차이가 있었다. 물론 고대 올림픽의 레슬링에서도 선수에게 마사지를 해줄 때 올리브 오일을 발랐다는 기록이 있고 투르크족이 레슬링에서 몸에 기름을 바른 것은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대 올림픽 레슬링 선수들은 오일 마사지 후 다시 몸에 모래를 발랐기 때문에 오일 레슬링과는 명확히 차이가 있다.

셀주크 시대와 오스만 시대에 레슬링이 조직화가 되었고 오일 레슬링은 그 일부였다. 그래서

엔데룬에서 레슬링 과목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술탄과 관리들의 후원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고,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다양한 전통 레슬링이 보호되어야 할 전통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오일 레슬링이 일관된 규칙하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1931년 시작되었고, 1996년까지 오일 레슬링은 레슬링 협회(Güreş Federasyonu) 산하의 전통 스포츠 협회(Geleneksel Spor Dalları Federasyonu)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이후부터 레슬링 협회 산하 레슬링 위원회(güreşler komitesi)에 의해 레슬링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매년 6월 튀르키예 에디르네(Edrine)에서 크룩프나르 오일 레슬링 페스티벌(Kırkpınar Yağlı Güreşleri)이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에 UNESCO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크룩프나르 오일 레슬링 페스티벌 축제는 다불, 주르나와 같은 악기로 구성된 밴드 대열이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황금 벨트와 함께 도시를 행진하며 시작된다. 선수들은 셸리미이에 모스크에서 기도를 한 후 경기장으로 향하고 경기의 사회자는 레슬링 선수의 이름과 타이틀, 기술 등을 관객에게 소개한 다음 기름을 담당한 사람이 선수에게 기름을 뿌려주면 워밍업 경기를 먼저 치른 후 본 경기가 시작된다. 선수들은 크스펫(Kıspet)이라고 불리는 물소나 소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르 규레슈, 야을르 귀레슈, 야을르 규레슈, 크르크프나르, 크룩프나르

● 다국어 표기 Yağlı Güreş(튀르키예어), Kırkpınar(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크룩프나르 오일 레슬링 페스티벌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muljd2y3t-4&feature=emb_logo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ch.unesco.org/en/RL/krkpınar-oil-wrestling-festival-00386>

● 참고문헌(오프라인) Dervişoğlu, Mehmet. *Kırkpınar güreşleri'nin halkbilimsel açıdan incelenmesi*, Trakya Üniversitesi, 2012.

Çevik, Doğanay. *Pehlivan : Kırkpınar yağlı güreşleri*, İstanbul :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11.

I F096 | 오즈겐 세 개의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zgen 3 mausoleum

오즈겐 세 개의 영묘는 키르기스스탄 페르가나 계곡 우즈베키스탄 인접 지역의 오즈겐에 존재하는 영묘로 이름 그대로 세 개의 영묘가 나란히 붙어 있다. 이 영묘의 정문은 서북 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중 벽돌로 된 이 영묘의 중앙 건물이 가장 오래되어 처음 발굴 당시 트롬프 하나와 정문 일부만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복구된 상태이다.

이 영묘는 카라한 칸국의 '나스르 이븐 알리'(Nasr ibn Ali, ?~1012년)의 영묘 혹은 11세기에 초에 지어진 영묘로 추정된다. 내부는 8.5mx8.5m, 외벽은 13mx13m의 정사각형의 건물로 하나의 돔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다른 카라한 칸국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벽돌을 교차로 쌓아 올려 문양을 만들었다. 이처럼 기하학 문양과 특히 팔각형을 교차시켜 만들어낸 별 모양은 후에 투르크 미술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문양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트롬프를 장식한 양식화된 식물 문양도 마찬가지로 이후 투르크 미술에 다양하게 응용된다. 또한, 둥근 아치로 둘러싸인 스투코 벽감 부분은 사마라의 벨브드 스타일(beleved style)을 떠올리게 하는 팔메트 문양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발굴 당시 정문을 포함하여 세 개의 문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아 다른 영묘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쪽의 가장 잘 보존되었던 두 번째 영묘도 정사각형 평면에 돔 하나도 덮인 형식이다. 내부는 7.4mx7.4m, 외벽은 11.8mx11.8m의 정사각형 형태로, 중앙에 위치한 영묘보다 조금 작다. 정문의 벽감 아치 부분의 비문에 따르면 카라한 칸국의 '젤라레드 딘 휘세인'(Celaled din Hüseyin)을 위해 1152년에 만들어졌다. 이 건물은 벽돌과 테라코타를 이용하여 장식되어 있으며, 주 문양은 기하학 문양이다. 정문 벽감 아치의 경우 나스크 서체의 비문이 있으며, 루미(Rumi) 문양의 초기 형태가 남아 있다. 팔각형을 교차시켜 만든 별 문양의 빈자리에 루미와 팔메트, 덩굴 문양 등을 채워 장식했다. 입구의 이음새 부분을 경계 짓는 곳은 쿠픽 서체로 장식했고, 팔메트, 덩굴 문양, 루미로 주 문양 외의 빈 자리를 채웠다. 이 비문이 위치한 오지 아치(ogee arch)의 끝부분에 터키석 색의 타일이 있던 흔적이 보인다.



오즈켄 세 개의 영묘

남쪽에 위치한 무덤은 1187년 완성되었는데, ‘무함메드 이븐 나스르’(Muhammed ibn Nasr)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덤 내부는 6.3mx6.3m, 외부는 10.2mx10.2m 크기의 정사각형 플랜에 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돌이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정문 주변은 벽돌을 교차시켜 만든 마름모 모양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정문 벽감의 비문이 있는 아치는 가느다란 덩굴, 루미, 팔메트와 나스크 서체, 쿠팡 서체로 장식했다.

이 세 개의 영묘는 11세기 중앙아시아의 건축 장식성이 집결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영묘는 현재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대표적인 유물로 50 송 화폐의 뒷면에 등장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즈겐드 영묘들, 우즈겐드 3 영묘, 외즈켄트 영묘들, 우즈겐 영묘, 우즈겐 3영묘,
- 다국어 표기 Özkent Türbeler(튀르키예어), Өзгөндөгү күмбөз(키르기스어), Өзгөндөгү 3 күмбөздүн(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1/Uzgen_Mausoleu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Hillenbrand, Robert. *Islamic Architecture: Form, Function and Meaning*,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0.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 Türkiye İş Bankası, 1977.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F097 | 오쿠네프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Okunev Culture

오쿠네프 문화는 B.C. 3000년대 후반부터 B.C. 2000년대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 남시베리아 초원의 초기 청동기 시대 문화이다. ‘오쿠네프’라는 명칭은 하카스공화국 오쿠네프(Okunev) 마을 근처에서 수행된 발굴 조사에서 명명되었다. 아파나스예프(Afanasyev)인들과 한마을에서 살던 오쿠네프(Okunev)인들은 아파나스예프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무덤을 사용했는데 간혹 아파나스예프인들의 고분에 그들의 시체를 묻기도 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오쿠네프인들이 타지역에서 거주하다 이 지역으로 이동해 거주한 후발 세력이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정착 과정을 거치며 아파나스예프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쿠네프 시대의 경제적 발달 수준을 살펴보면 축산 사업은 아파나스예프 문화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 주변에 말뺨가 널리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주로 키웠던 동물은 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쿠네프 문화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구리 대신 합금인 청동을 생산했다는 것이다. 청동 재료는 구리보다 녹는점이 낮고, 청동으로 만든 제품은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강하며 내구성이 있다. 그러나 오쿠네프 문화는 타 시대에 비해 청동기 문화의 발전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착 그들의 고분에서 금속으로 된 장신

구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까지 발견된 남녀 고분에서 구리와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이 출토된 것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또 다른 오쿠네프 매장 문화의 특징은 무덤에 돌을 놓는 전통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시작한 그 전통은 5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오늘날의 하카스인들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 이러한 형태로 무덤을 만들고 있다. 오쿠네프인들은 죽은 자는 머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매장되었는데, 이 또한 오늘날 하카스인들의 장례 풍습과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송배를 위해 오쿠네프인들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상들은 오늘날 하카스공화국 초원에서 하카스인들에게 ‘초원의 신’이라 불리워지고 있으며, 현재 하카스인들은 이 석상 주위에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쿠네프 컬처
- 다국어 표기 Окунев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Okunev Kültürü(튀르키예어), Okunev Culture(영어)
- 연관 검색어 하카스인, 하카스공화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Хака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Глав. ред. В.Я. Бутанаев. Абакан: Изд. ХГУ им. Н.Ф. Катанова. 2008.

I F098 | **오토라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Otrar

‘오토라르’는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고도로서 기원전에 건설되어 페르시아 문헌에 파라브(Farab)라는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 문헌에는 ‘강규’라는 지명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주요 민족은 투르크인들이었다.

이곳은 중세기에 철학자 알파라비, 아리스탄 바브 등의 고향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중세기에 실크로드 상의 주요 중개지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 후로도



오토라르 유적

Source: <https://img.kapital.kz/>

호라즘-샤 국가의 동쪽 변방 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다가 칭기즈 칸의 몽골 국가와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교류를 위해 파견된 몽골 사절단이 오토라르 성주의 명령으로 거의 모두 희생된 것이 대립의 발단이 되었다.

1219년부터 몽골군의 파괴 행위가 시작되면서 도시가 폐허화되었으며 잠시 복구되기도 했지만 18세기에 중가르족의 침입으로 재차 도시가 파괴되었다. 그러다가 1405년에 명나라 정벌을 위해 나섰던 '아무르 티무르'가 오토라르에서 갑자기 병사하면서 그의 사후 티무르 제국의 동방 팽창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점점 실크로드가 퇴조하면서 연구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최근 독립 국가 카자흐스탄은 역사와 문화의 복구라는 차원에서 고도의 흔적을 발굴하고 재정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폐허화한 모습으로만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토라르
- 다국어 표기 Отырап(카자흐어), Отра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파라브, 카자흐스탄 역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WND5VsqrhU>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skyway.kz/places/ancient-city-of-otrar/>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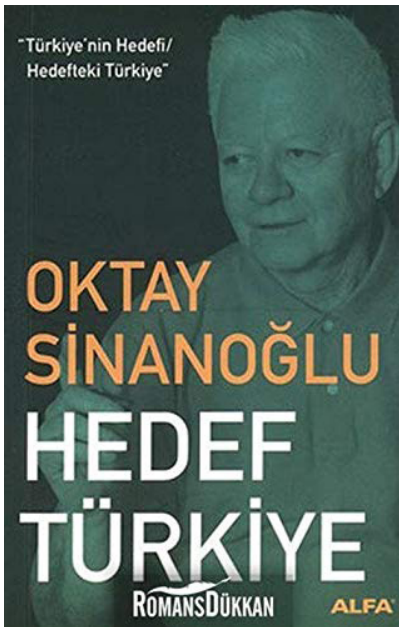
I F099 | 옥타이 시난오을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Oktay Sinanoğlu

옥타이 시난오을루(Oktay Sinanoğlu)는 1935년 2월 25일 이탈리아 바리 출신 튀르키예인 과학자로 화학자, 분자생물물리학자, 생화학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튀르키예인들의 튀르키예어에 대한 정체성을 일깨워준 사상가이기도 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뉘즈헤트 하심 시난오을루'(Nüzhet Haşim Sinanoğlu)가 이탈리아 바리의 튀르키예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태어났다. 이후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가족과 함께 튀르키예로 돌아와 성장했다. 1953년 TED양카라 콜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53년에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1956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화학공학 학사를 받고 졸업했다. 그리고 이듬해 MIT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슬론상(Sloan Reward)을 수상했다. 1958년~1959년에 부교수 학위 논문을 마친 후, 버클리에서 이론 화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60년 예일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63년 7월 1일 그는 화학 분야 정교수로 임명되었는데, 20세기에 예일 대학교에서 정교수 타이틀을 받은 최연소 교수이기도 했다.

그는 1964년 예일 대학교에 이론화학과를 설립했으며 예일대에서 재직하는 동안 「The Many-Electron Theory of Atomes and Molecules, 1961」, 「Solution Theory, 1964」, 「Theory of Chemical Reaction Mechanisms, 1974」, 「Microthermodynamics, 1981」 및



『목표는 튀르키예 (Hedef Türkiye)』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Valence Shell 상호 작용 이론, 1983」 등 많은 연구를 했다. 그는 실험실 환경에서 결합되는 화학 물질이 결합 후 반응하는 방식을 예측하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수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시난올루 감소법(Sinanoğlu Reduction)’이라는 방법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후로 37년을 예일에서 보낸 후 1997년에 은퇴했다. 예일대 재직 시절 튀르키예 내 여러 대학교, 튀비탁(Tübitak) 및 일본 과학진흥 협회(JSPS)에서 컨설턴트로서도 근무한 바 있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1962년 중동공과대학교(Middle East Technic University) 이사회는 그에게 컨설턴트 교수 직위를 부여했다. 그리하여 1975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튀르키예로부터 공화국 교수라는 칭호를 받게 된 그는 1997년 예일대 은퇴 이후 이을드즈 공과대학교 화학과에서 2002년까지 근무했다.

실질적으로 그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튀르키예 출신 학자로서 튀르키예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공헌한 위인으로 튀르키예인들에게 기억된다. 그는 튀르키예 내 교육 언어는 튀르키예어가 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추가적으로 교육하여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튀르키예어가 없어진다면, 튀르키예도 없어진다.(Türkçe giderse, Türkiye gider).” 언어를 잃은 민족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조차 지워진다는 그의 신념은 당시 언어와 문화가 무가치하다고 가르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반기를 든 것으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정체성, 자아, 존엄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는 2015년 4월 19일 플로리다에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옥타이 씨난올루
- 다국어 표기 Oktay Sinanoğlu(튀르키예어), Oktay Sinanoglu(영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haberler.com/oktay-sinanoglu/biyografisi/>
- 참고문헌(오프라인) Hakan, A. Oktay Sinanoğlu, Bir Türk Dehası, İstanbul, 2002.

I F100 | 옥탐 우스머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ktam Usmonov

언론인이자 작가인 옥탐 우스머너브(O'ktam Usmonov)는 1938년 타슈켄트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타슈켄트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1960년~1965년 신문 <레닌의 불꽃(Lenin uchquni)>, 이후 1972년까지는 신문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Sovet O'zbekistoni)>에서 일했다. 이후 1972년~1982년에는 공화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 비서관을 거쳐 1983년부터 말년까지는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Sovet O'zbekistoni)> 편집장을 맡았다.

그는 1964년에 첫 단편집 『꽃다발(Guldasta)』을 필두로 『논쟁을 시작한 아이(Bahs boylashgan bola, 1965년)』와 단편집 『봄의 번개(Bahor chaqmoqlari, 1970년)』를 출간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고요하지 않은 밤(Notinch kecha, 1976년)』과 『은밀한 해변(Sirli sohil, 1981년)』과 같은 단편집에서는 인간의 영성과 휴머니즘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세계관을 다양한 캐릭터와 디테일한 삶을 묘사함으로써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79년 발표한 소설 『소용돌이(Girdob)』는 다양한 학자 캐릭터를 선보이며 정의와 불의, 충성과 배신의 투쟁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능숙하게 전달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1980년 어이벡(Oybek)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명예(Честь, 1977년)』, 『이야기들(Рассказы, 1983년)』, 『외로움(Наедине, 1982년)』 등은 러시아어를 비롯해 여러 투르크어로 번역, 출간됐다. 또한 옥탐 우스머너브 자신도 미국 작가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 아르메니아 작가 알렉산더 쉬르반자데(Alexander Shirvanzade)의 『명예(Nomus)』를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옥탐 우스머너브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1990년 1월 3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옥탐 우스모노프, 옥탐 오스모노브
- 다국어 표기 O'ktam Usmonov(우즈베크어), Усманов Уктам(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ru/people/usmanov-uktam>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Usmonov O'ktam, *Girdob*, Toshkent: Sharq, 1995.

I F101 | 온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Ongon

온곤(Ongon)은 몽골어로 '깨끗한', '성스러운', '처녀의', '최초의'라는 의미로 몽골 샤머니즘 신화와 투르크 민족 문화에서 발견되는 조상 영혼의 조형물을 가리킨다. 또한 이와 동시에 바시 키르인에게 온곤은 토렘 동물이나 새, 나무를 의미도 갖고 있어서 때에 따라 늑대, 말, 사슴, 조류(황금 독수리, 매, 까마귀, 까치, 독수리, 올빼미 등)나 가문비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가 되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깃든 나무, 털, 모피, 가죽, 천, 금속 등 모든 것이 온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온곤 자체가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부족의 의식에 자리 잡았던 신앙적 요소 중 하나였던 것이다.

온곤은 여성용, 남성용, 종씨족용으로 구분되며, 개인용, 직업에 따른 목축, 대장간 온곤도 있다. 온곤은 처음에는 늑대나 곰 같은 토렘 기원이었지만 나중에는 애니미즘 형태로 발전했는데, 가장 인정받았던 것이 위대한 샤먼의 온곤이었다. 당시 샤먼들은 굿을 하면서 온곤을 불러낸 다음 종족 온곤을 산이나 동굴 같은 성스러운 장소에 보관했는데 이곳엔 여성의 출입은 금지되었다. 여성들이 관리하는 씨족 온곤은 크지 않은 나무 상자나 자루로 따로 유르트에 걸어서 걸어 놓았다.

온곤에게 음식을 바치고 고수레를 하고 동물이나 노예를 바치기도 했다. 투바인이나 알타이 인들은 온곤을 온구트(онгут), 에메겐데르(эмегендер)라고 부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온군
- 다국어 표기 Онгон(러시아어), Ongon(영어), Ongu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투바인, 알타이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 А., et al.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 1992.

I F102 | 올론 구린 골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OLON GUURIIN GOL

올론 구린 골 유적은 몽골 알타이에 위치한 파지리크 문화의 대표적 유적이다. B.C. 4세기경 번성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몽골의 파지리크 문화 유적은 76개소에 달한다. 이 유적들은 주로 알타이산에서 동쪽으로 뻗는 제3주산맥을 따라 흐르는 올론 구린 강의 상류역에 위치한 C자형 능선의 중간 지점에 형성된 곡부에 위치해 있다.

10호분은 상부의 적석이 직경 11m 정도이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묘광의 길이는 3m, 너비 2.4m, 깊이 1.8m로 묘광의 중앙에 통나무를 연결해서 목곽을 배치했다. 통나무로 제작된 목곽의 상면 북쪽에는 S자형 재갈멈추개와 재갈 등 마구를 갖춘 말 두 마리가 순장되었다. 말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그리핀 장식 등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했다. 피장자는 목곽의 서쪽 바닥에 몇 개의 통나무를 깔아 시상을 만들고 펠트로 덮은 후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도록 무릎을 접어 오른쪽으로 눕혀 매장되었다.

피장자의 머리카락 및 피부 일부가 양호하게 보존되었는데 문신 흔적이 가슴부위에서 약하게 남아 있다. 머리 아래에는 천으로 만든 베개를 두었는데, 그 안에는 풀을 채워 넣었다. 시신의 머리에는 펠트 모자가 씌워져 있었으며 양가죽으로 만든 옷과 천 바지를 입고 긴 장화를 신은 채 매장되었다. 피장자의 오른쪽 다리를 따라 나무 손잡이가 달린 전투용 곡괭이를 매납했으며 오른쪽 허리에는 목제 칼집을 갖춘 철도(鐵刀)를 부장했다. 허리 뒤쪽의 목곽 벽을 따라 나무 화살과 나무로 만든 화살집을 매납했다. 그 밖에도 양가죽 주머니에 담긴 빗, 오른쪽 무릎 주변

에서 양가죽 주머니에 넣은 청동거울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몽골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 구조와 출토유물은 러시아 알타이 파지리크 문화와 거의 유사하다. 아마도 파지리크 문화 자체가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의 지역 문화적 성격이 강한 만큼 흉노의 기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올론 구른 골 유적

● 다국어 표기 Олон-Курин-Гол(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олодин В.И., Парцингер Г., Цэвээндорж Д. Замерзшие погреба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пазырык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южных склонах Сайлюгема (Монгольский Алтай). - М.: ИД Триумф принт, 2012. - 566 с.

I F103 | 올롱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olongkho

올롱호(olongkho)는 영웅서사시로서 야쿠트 민족의 역사와 의식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이자 최대 문화유산이다. 2005년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의 정신 문화 유산을 구술하는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올롱호에는 「뉴르군 보오투르」, 「엘레스 보오투르」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올롱호는 다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첫째, 중간 세계에 사는 인간들의 단결 사상이다. 주요 영웅들이 벌이는 모든 행위는 자기 종족의 통일과 일치, 민족들의 우의와 협력의 성취로 이어진다.

둘째,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에 민족을 이끄는 철학으로 명예와 애민 사상을 들 수 있다.

셋째, 행복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주인공들의 협력 정신이다.

넷째, 선과 악의 대립에서 관대함과 인내심을 지닌 주인공들의 성공 스토리이다.

다섯째, 자연에 대한 경건한 태도, 자연과의 일치를 강조하는 자연과의 조화 사상이다.

여섯째, 민족과 씨족에 대한 보호 사상이다.

장르적 측면에서 올롱호는 서정시, 서사시, 연극적 요소를 두루 갖춘 통합적 작품이다. 영웅 서사시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고 사하 민족의 생활상, 윤리, 과거, 지리적 환경, 정신 세계가 담겨 있다.

올롱호는 문학작품이지만, 동시에 음악 작품이기도 한데 올롱호가 음악극으로 표현될 때는 멜로디가 주인공들의 성격에 따라 영웅적으로, 때로는 서정적으로, 때로는 코믹하게 바뀐다. 올롱호는 수 세기에 걸쳐 구전되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형식이 발전되었으며 1930년대 들어 야쿠트어에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사하 민족의 진정한 서사시로 정리되었다. 올롱호의 작품 중 하나인 『엘레스 보오투르』가 2005년 한국어로 번역된 바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올롱코

● 다국어 표기 олонхо(야쿠트어), олонхо(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야쿠티아.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 Books. 2011, 159~163.
오고토옌 저, 강덕수 역, 『엘레스 보오투르』, 지식과 경영, 2005.

I F104 | 올리아스타이 걸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의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Uliastain Gol

올리아스타이 걸(Uliastain Gol) 유적은 몽골의 고비 알타이 아이막 서쪽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보가트 솜에 있다. 보가트 솜의 올리아스타이 강 북편 산기슭에는 암각화, 무덤, 히르기수르, 석인상 제사유구 등 37기가 한 유적을 이루고 있는데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29기와 암각화 2지점, 그리고 투르크 시대의 무덤 2기, 석인상 1기, 제사 유구 2기 등이 남

아 있는 의례복합체이다.

석인상은 올리아스타이 강의 남쪽에 위치하며 높이 1.05m이다. 흉부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얼굴의 표정과 눈, 입, 수염, 턱 등이 잘 남아 있다. 그리고 석인상에서 동남쪽으로 22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제사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평면 형태가 방형(1.5m×1.7m)이다.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의례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무덤과 암각화가 남아 있다.

투르크 시대는 청동기시대의 의례물은 석인상과 제사유구로 그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만큼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장소를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는 러시아 알타이의 추야강 계곡에서도 발견되는데 보통 투르크 시대 무덤이 그 이전의 초기 철기시대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 옆에 설치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올리아스타이 골
- 다국어 표기 Улиастайн голын(몽골어)
- 연관 검색어 파지리크 문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문화재연구소·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12, 『몽골의 문화유산』 III.

I F105 | 옷키르 허쉬머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tkir Hoshimov

1941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옷키르 허쉬머브(O'tkir Hoshimov)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현재의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여러 신문사에서 경력을 쌓았는데, <타슈켄트의 진실(Toshkent haqiqat)>,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Sovet O'zbekistoni)>, <타슈켄트의 저녁(Toshkent oqshomi)> 신문사와 가푸르 굴림(Gafur G'ulom) 문학예술 출판사에서 기자직으로 근무했다. 졸업 후에는 문예지 <동방의 별(Sharq yulduzi)>과 <연극(Teatr)>의 편집장을 맡았다.

웃키르 허쉬머브는 1962년 산문집 『강철기사(騎士, Po'lat chavandoz)』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사막의 공기(Cho'l havosi, 1963)』,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Odamlar nima derkin)』, 『바람이 계속 불거야(Shamol esaveradi)』, 『봄이 돌아오지 않네(Bahor qaytmaydi, 1970)』, 『네 마음을 들어라(Qalbingga quloq sol, 1973)』, 『기나긴 밤들(Uzun kechalar, 1975)』, 『무슨 일이 일어났나(Nimadir bo'ldi, 1976)』, 『태양의 저울(Quyosh tarosuzi, 1980)』, 『세상의 일들(Dunyoning ishlari, 1982)』, 『채소 삼사(Yalpiz somsa, 1983)』, 『흰 무지개(Oq kamalak, 1984)』, 『신비한 별(Sirli yulduz, 1985)』, 『보물창고(Xazina, 1987)』, 『고통(Iztirob, 1991)』, 『미지의 섬(Notanish orol, 1990)』, 『장난(Shumlik, 1993)』, 『밝은 세상(Nulrli dunyo, 1998)』, 『노트 여백에 남겨진 글들(Daftar qoshiyasidagi bitiklar, 2001)』, 『사막의 공기(Cho'l havosi)』,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Odamlar nima derkin)』, 『이슬 방울(Bir tomchi shudrin)』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웃키르 허쉬머브 탄생 80주년 기념 우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웃키르 허쉬머브의 대표 소설로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다(Nur borki, soya bor, 1979)』, 『두 문 사이(Ikki eshik orasi, 1986)』, 『꿈속에 지낸 인생(Tushda kechgan umrlar, 1992)』 등이 있다. 그는 소설 속 주제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tsrealizm)가 아닌 모든 사건을 꾸밈없이 묘사하고 표현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문 사이(Ikki eshik orasi)』는 집단 농장, 전쟁 및 타슈켄트 대지진을 겪은 당시 마을 사람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며 다양한 숙명과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활기찬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작품은 구성 단계에서 알리셰르 나버이이의 서사시 『일곱 개의 행성(Sab'ai sayyor)』과 같은 고전문학의 형식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소설 『꿈속에 지낸 인생(Tushda kechgan umrlar)』에서는 1980년대 우즈베크 사람들의 민족의식, 인간애, 정직, 순결, 근면, 애국심 등과 함께 불의, 관료주의, 출세주의, 불순 및 무관심을 폭로했다.

그의 작품은 어머니와 조국에 대한 사랑, 이별, 헤어짐 등의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그는 독특한 기법으로 다양한 희곡을 집필했는데, 대표작으로

는 『무의미하게 지나간 봄(Xazon bo'lgan bahor)』, 『인간의 충성(Inson sadoqati)』, 『결혼 축하(Toylar muborak)』, 『양심이라는 약(Vijdon dorisi)』, 『탄압(Qatag'on)』 등이 있다.

오텔키르 허쉬머브는 1986년에 소설 『두 문 사이(Ikki eshik orasida)』로 국가상을 수상했으며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작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1996년에는 노동영광 훈장(Mehnat shuhrati), 2001년에는 국가 공로훈장(Buyuk xizmatlari uchun)을 수상했다.

그는 2013년 5월 24일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텔키르 호쉬모프
- 다국어 표기 O'tkir Hoshimov(우즈베크어), Утқур Хашим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알리셰르 나버이이, 타슈켄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o-tkir-hoshimov-1941-2013>
- 참고문헌(오프라인) Boltaboev Hamidulla, *El sevgan adib- O'tkir Hoshimov*, Mumtoz so'z, Toshkent, 2011.
Mirzayev Saydulla, *XX Asr O'zbek adabiyoti, O'tkir Hoshimov*, Yangi asr avlodi, Toshkent., 2005.
Мирзаев Сайдулла, *Узбек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XX век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Москва, 2010.*

I F106 | 와기프 새매트오글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Vaqif Səmədoğlu

유명한 아제르바이잔 시인이자 극작가인 와기프 새매트오글르(Vaqif Səmədoğlu)는 1939년 6월 5일 바쿠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아제르바이잔 시인 새매트 부르군(Səməd Vurğun, 1906년~1956년)의 아들이다. 그는 빌빌 음악학교(Bülbül adına Musiqi məktəbi)를 졸업했으며, 위제이르 하즈배예브 아제르바이잔 국립음악원(Üzeyir Hacıbəyov Azərbaycan Dövlət Konservatoriyası)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음악원에서 잠시 교사로 일한 뒤 아제르바이잔 영화 스튜디오(Azərbaycanfilm kinostudiyası)에서 문학부서장으로 일했

다. 특별한 이력으로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와기프 새매트오굴르의 문학 창작은 그가 아직 20대이던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첫 작품인 『시 일곱 편(Yeddi şeir)』은 문예지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에서 출판되었다. 그 밖에도 『길에서 텔레그램(Yoldan telegram, 1968)』, 『하루의 운(Günün baxtı, 1972)』, 『하나님, 난 여기에 있어요.(Mən burdayam, ilahi, 1996)』, 『멀고 푸른 섬(Uzaq, yaşıl ada, 2004)』, 『현명한 사람들과 마주보고(Müdrüklərlə üzüzə, 2013)』, 『나는 하나의 미소가 되었다.(Bir gün təbəssüm olmuşdum, 2016)』, 『귀르재철의 글(Gürzəçöl yazıları, 2016)』, 『상자 속 시(Sandıq şeirləri, 2016)』 등 많은 작품이 출간되었다.



와기프 새매트오굴르 묘비

와기프 새매트오굴르의 희곡으로는 『행운 반지(Bəxt üzüyü)』, 『여름에 하는 눈싸움(Yayda qartopu oyunu)』, 『초록 안경을 낀 사람(Yaşıl eynəkli adam)』 등이 있다. 『행운 반지』는 1991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

그는 1999년에 아제르바이잔 민족작가(Azərbaycanın Xalq şairi) 칭호를 수여받았다. 또한 명성훈장(Şöhrət, 2004), 영광훈장(Şərəf, 2009년), 독립훈장(İstiqlal, 2014)을 받는 행운을 이어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철학적 시를 쓴 시인으로 남았다.

와기프 새매트오굴르는 2015년 1월 28일 바쿠에서 사망했으며, 제1 명예(I Fəxri xiyaban)의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와기프 사마트오울루, 바기프 사매트오글루

● 다국어 표기 Vagif Samedoğlu(튀르키예어), Вагиф Самедоглу(러시아어), Вагиф Самедоглу(타타르어), Wagif Samedoglu(투르크멘어), Вагиф Самедоглу(카자흐어), Вагиф Самедоглу(키르기스어), واغيف سامد وافي (farsca), Vaqif Samedoğlu(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i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eşriyyatı, 2011.

Musayeva İradə, *Vaqif Səmədoğlu*,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4.

Xəyal Sona, *Vaqif Səmədoğlu: Yaradıcılığı Əsasında*, Bakı: Yurd nəşriyyatı, 2006.

I F107 | 와기프 술탄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Vaqif Sultanlı)는 1958년 3월 26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소도시 쿠르대미르(Kürdəmir rayonu)의 시골 마을 샤희세벤(Şahsevən kəndi)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6년~1981년 바쿠 국립대학교(Bakı Dövlət Universiteti)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를 다녔다. 1984년에 「1970년대~1980년대 아제르바이잔 희곡 등장인물 문제」라는 주제로 석사 논문을 발표했으며, 1997년에 「멤매드 애민 래술자대의 삶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1년에 세계 아제르바이잔학회의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이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소리> 신문 창간을 주도한 창립 멤버이다. 또한 그는 1995년~1998년에는 미국 라디오 방송국 <자유>와 <자유 유럽>의 아제르바이잔 지국에서 문학방송 기자로도 일했다. 그밖에 폴란드에서 발간된 <후다페린(Xudafərin, 1995년)>, 스웨덴에서 발간된 문예지 <아라즈(Araz, 1996년~1997년)>, 바쿠에서 발간된 학술지 <언어문학 연구(Filoloji araşdırmalar, 1996년~2001년)>와 미국에서 발간된 문예지 <세계의 아제르바이잔인들(Dünya Azərbaycanlıları, 2002년~2012년)>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했다.

그의 창작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됐다. 대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첫 단편 『쑤의 향(Yovşan ətri)』을 발표했다. 이후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 『인간의 바다(İnsan dənizi)』와 『사막의 전쟁(Səhra savaşı)』, 시집 『죽음의 꿈(Ölüm yuxusu)』을 연이어 출간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단편과 에세이 등의 작품을 저술했다.

문학비평서로는 1993년 『멤매드 애민 래술자대의 생애와 문학 활동』, 1996년 『힘든 길의 여행가』, 1997년 『자유의 수평선』, 1998년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 2000년 『문학이론

삽화』, 2007년에 『문학비평에서 교육적 문제들』, 2012년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 2014년 『해방적 사랑』, 2019년 『아제르바이잔의 문학비평』 등을 연이어 집필 및 출판했다. 한편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현대 아제르바이잔 산문집(2012)』, 『현대 아제르바이잔 여성작가 산문집(2014, 2019)』의 편집 책임을 맡기도 했다.

와기프 술탄르의 작품들은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됐다. 대표적 번역 작품으로는 역사소설인 『시라쿠사인 학자(Sirakuzlu alim)』가 있다. 이 작품은 세르게이 지토미르스키(Sergey Jitomirski)가 저술한 것으로 아르키메데스(Arximed)의 생애와 창작을 다루었다. 이외에 레샤드 누리 쿤태킨(Rəşad Nuri Güntəkin)의 소설 『낙엽의 몰락



와기프 술탄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Yaprak tökümü)』과 『제분소(Dəyirman)』도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한편 그는 1995년에 아제르바이잔 기자 연합에서 <자유>와 <자유 유럽> 라디오 방송국의 활동을 인정받아 ‘해산배 이 제르다비 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3년에는 투르크 국가 문학 공로자로서 KIBATEK(사이프로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상을 수상했다.

그는 현재 바쿠 국립 대학교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 아제르바이잔 기자연합 회원이자, KIBATEK의 카프카스 지부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기프 술탄르, 와기프 술탄리
- **다국어 표기** Vagif Sultanly(영어), Vagif Sultanlı(튀르키예어), Vagif Sultanli(영어), Вагиф Султанлы(러시아어), Воқиф Султонли(우즈베크어), واقف سلطان(아랍어), Vaqif Sultanlı(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acikerisim.bartın.edu.tr:8080/xmlui/bitstream/handle/11772/220/Seyfullah%20KO%C5%9EMAZ-Y%C3%BCKsek%20Lisans%20Tezi-.pdf?sequence=1&isAllowed=y>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i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eşriyyatı, 2011.

Hüseynoğlu Tofiq, “Zamandan məkana və ya əksinə”, *Müasir ədəbiyyat məsələləri*, III kitab,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4, s.15~23

Kaşmaz Seyfullah, *Vəqif Sultanının hikayelerinin incelenmesi*, Bartın: Bartın Üniversitesi yayınları, 2016

Sultanlı Vaqif, *Bibliografiya*,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I F108 | 와르카와 굴샤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Varka and Gulsha

「와르카와 굴샤(Varka and Gulsha)」는 이슬람 초기 시대 아랍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며 원전은 아랍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그 이야기들을 가즈나 조의 시인 아유키(Ayyuqi, 11세기)가 최초로 페르시아어 서사시로 작성했으며, 이후 튀르키어로 번역되었다. 대표적인 번역자는 16세기~17세기에 마쉬히'(Masihii, 1579년~1655년), 14세기에 유스프 마다흐(Yüsof Maddâh), 압달라흐 이븐 하지 이븐 미르 카림(Abdallâh b. Hâjji b. Mîr Karîm) 등이다.

「와르카와 굴샤」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와르카라는 남자와 굴샤라는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자 와르카는 결혼을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떠나게 되고 그사이에 굴샤는 부모의 강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굴샤의 부모는 와르카가 돌아오자 굴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안 와르카는 굴샤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모험 도중 우연히 친구가 된 이가 굴샤의 남편임을 알고 친절하고 명예로운 친구를 끊을 수 없었기에 다시 길을 떠나 결국 죽게 된다. 그리고 뒤늦게 와르카의 죽음을 알게 된 굴샤는 그의 무덤으로 가서 한탄하며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죽음은 사연을 알게 된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들을 부활시켜주며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 이야기는 현재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에 소장 중인 필사본[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841]이 세밀화가 포함된 유일한 판본이다. 총 71점의 세밀화가 포함된

이 판본에서 긴 종이 위에 가로로 길게 세밀화가 그려져 있으며, 남은 공간에는 운문 형식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리고 시문과 세밀화가 가느다란 선으로 분리되어 있다. 특히 주요 줄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궤사가 와르카를 구하기 위해 남장하고 전장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모든 장면을 담아내려 했던 작가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전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에서 서사시를 설명하는 세밀화 전통에서는 주요 몇 장면만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에 후대에 이 작품의 가치가 더욱 돋보일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새로운 경향은 13세기 몽골의 침략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서사시를 설명하는 회화 전통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또한 생생한 색상과 선명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인물은 중앙아시아 투르크인들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투르크 장식 문양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니 이 작품이 당대 아나톨리아반도와 인근 지방에 투르크 서책 예술의 손꼽히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이 훌륭한 판본을 만든 이는 13세기 셀주크의 세밀화가 압둘 무민 엘 루이(Abdül Mü'min el-Hûyî 또는 Hoy'ky Adb el Mu'min)였다. 그는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경계에 있는 호이 시 출신으로 이후 코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도 코니아에서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와르카와 궤사_궤사(왼쪽)_와르카(오른쪽)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와르카 외 궤사, 바르카와 궤사흐, 바르카 외 궤사
- **다국어 표기** Varka ve Gülşah(튀르키예어), Vərqa və Gülşah(아제르바이잔어), Варка мен Гүлшах(카자흐어), Varka va Gulshoh(우즈베크어), Warka we Gülşa(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레일랄와 메즈논
- **멀티미디어 링크** 와르카와 궤사_궤사(왼쪽)_와르카(오른쪽)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f/Varka_ile_G%C3%BCI%C5%9Fah_1.jpg

와르카와 귄샤_참전하여 적을 죽이는 귄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a/GulshahKilling.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yyuqi-a-poet>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14.

İpşiroğlu, Mazhar Ş. *İslamda Resim Yasağı ve Sonuçları*, İstanbul: YKY, 2009.

I F109 | 와크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Waqf

이슬람 법에 따라 자선을 위해 신탁(信託)하는 행위, 혹은 그 신탁한 대상을 의미한다. 어떤 무슬림이 경건한 행위의 일종으로 자신의 자산 일부를 와크프로 삼으면, 그 자산의 본래 주인이 지정한 수혜자 혹은 공익 단체(주로 종교 시설)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수혜를 얻게 된다. 이 제도는 코란과 하디스에서 보였던 유서 깊은 제도인 동시에, 이슬람권 전역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와크프 제도는 자선이 의무인 무슬림들에게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제도이나, 실제로 이 제도가 이슬람권 전역에 빠르게 확대되어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이다. 샤리아에 따르면 와크프로 설정된 부동산은 세금을 매기거나 지배자가 독단적으로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넓은 영역을 통치하는 군주가 토착 세력의 자산이나 토지를 몰수하는 일이 빈번했으므로, 이슬람법의 이론상 몰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와크프의 수혜자가 본래 주인의 자손들이나 친척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세금과 군주의 수탈을 피하여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다.

또한 이슬람법에는 한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일정한 몫을 분배해 주어야

하는 상속 관련 규율이 있는데, 이것을 재산의 과도한 분산으로 인식했던 이들은 부계를 통해 다수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주요 재산을 와크프로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을 와크프로 설정할 때,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 일부만 공익 목적 혹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실 소유자와 그 후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설정하거나, 와크프의 관리자를 실 소유자와 그 후손으로 설정하면 면세와 상속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산의 유지 보존을 위한 와크프를 ‘가문의 와크프’(Family waqf)라 하여 자선 목적의 와크프와는 구분 짓기도 한다.

단, 와크프를 설정하는 인물, 즉 설립자(al-Wakif)는 꼭 무슬림일 필요는 없지만 재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고 자유인인 성인이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으며, 이슬람법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며, 온전히 자기 자신의 소유여서 신탁 행위 자체에 법적 문제가 없는 대상(al-Mawqūf)을 선택하여 그것을 와크프로 설정한다. 특히 와크프로 설정할 당시 그 대상이 물리적으로 정의되고 존재해야 하므로, 몇몇 법학파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는 와크프로 설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즉 노예나 동물, 농기구 등은 와크프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와크프이다.

와크프의 수혜자는 개인과 공적 단체, 특히 종교 단체가 모두 가능하다. 비교적 넓은 개념의 ‘모든 무슬림’, 혹은 ‘여행객’, ‘학생’ 등 자선 기금이 필요한 대상을 수혜자로 지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문의 와크프’의 경우 ‘나의 남성 자손’, ‘나의 아들’ 등으로 수혜자를 한정 짓기도 한다. 이처럼 수혜자를 결정하여 와크프 설립자가 특정 선언하고 와크프나마(Wakfnāma)라고 불리는 문서에 그 상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와크프로 설정된 대상은 팔거나 누구에게 지급되거나 (명목적으로) 계승될 수 없음이 이슬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와크프 설립자가 규정한 기간만큼 와크프 설정 내역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와크프가 그 특별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와크프 대상도 영구적으로 존속 가능해야 한다. 만일 자연재해로 인해 와크프 대상이 파괴되었을 때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학파 간의 이견이 다분하다. 몇몇 법학파에서는 와크프 대상이 유지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때 와크프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 와크프 설립자는 와크프의 수혜자가 여럿일 때, 그 와크프를 관리하는 담당자(Mutawalli)

를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설립자가 살아생전에 그 일을 담당하고, 그 후에는 그가 임명한 담당자 및 그 후계자, 혹은 수혜자와 그 자손들이 담당했다. 특히 ‘가문의 와크프’가 설정된 많은 경우에 설정자의 자손들이 와크프의 담당자가 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와크프 제도는 이슬람권 전역에 확산되었고, 다양한 지역의 여러 시대에 걸친 와크프나마가 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와크프

● 다국어 표기 vakıf(튀르키예어), وقف(아랍어, 페르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R. Peters, “Wakf,” *The Encyclopaedia of Islam* 11, Leiden: Brill, 2002, pp.59~63.

R. D. McChesney, *Waqf in Central Asia: four hundred years in the history of a Muslim shrine, 1480-1889*,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I F110 | 와흐다트 알 우주드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이론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Wahdat al-Wujud

와흐다트 알 우주드는 ‘존재의 단일성’ 정도로 번역되는 이슬람 신비주의 철학의 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창시자는 이븐 아라비(Ibn Arabi, 1165년~1240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그가 ‘와흐다트 알 우주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븐 아라비의 주석가들이 그의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와흐다’는 ‘단일’, ‘하나 됨’ 등을 의미하며, ‘우주드’는 ‘존재’를 의미한다. 단일성, 유일성은 이슬람 신학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타우히드(Tawhīd), 즉 신이 유일성, 불가분성, 유일한 실재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할 때 많이 사용된다. ‘우주드’는 신, 바로 그 실재를 위하여 사용된다.

와흐다트 알 우주드 이론에 따르면 존재는 오직 하나(신)뿐이며, 물질계와 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현현과 계시이다. 이 현현과 계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영계와 물질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신의 존재로 인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신적 자아를 정체성으로 내포하고 그 신적 자아가 반영된 순수자아를 일부 드러내면서도 대부분은 숨겨져 있다. 이 순수자아는 신적 자아와 합일하는 것을 방해한다. 수피들은 계시를 통해, 좁은 길을 지나 신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합일을 인지하고자 한다.

이 사상은 일반적으로 수피 이외의 많은 법학자와 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힌두 철학이나 범신론과 같은 이단 사상과의 유사점을 들어 비판받거나, ‘존재의 단일성’은 세상과 알라 사이의 정체성으로 이해되면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절대적인 존재, 즉 신과 우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와하다트 아쉬 슈후드(Wahdat ash-Shuhud) 즉, ‘의식의 단일성’ 이론을 펴기도 했다. 일부 수피들도 이것은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보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많은 수피들이 받아들였으며, 특히 아나톨리아반도에서 발전했다. 존재의 단일성을 주제로 작품을 쓴 이우누스 엠레(Yûnus Emre, 1238년~1328년), 에슈레프 오을루 루미(Eşrefoğlu Rûmî, ~1469년), 니이아지이 므스리(Niyâzî-i Mîsrî, 1618년~1694년)와 같은 수피 시인들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존재의 단일성, 존재의 단일론, 존재의 합일론

● **다국어 표기** Vahdet-i vücûd(튀르키예어), Vəhdətül-vücud(아제르바이잔어) Ваҳдат Аль-Вуджуд(카자흐어), Wahdet-i wujûd(투르크멘어), Vahdet-i vujud(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이우누스 엠레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이슬람사전, 와하다트 알 우주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51377&cid=62098&categoryId=62098>

● **참고문헌(오프라인)** Demiri, Ekrem. “VAHDET-i VÜCÛD”,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 TDV, 2012, pp.431~435.

Gölpınarlı, Abdülbâki. *100 Soruda Tasavvuf*, İstanbul: GerçekYayınevi. 1985.

I F111 | 완 대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Van Great mosque

‘완 대 모스크’는 아나톨리아반도에 건설된 흑양조의 모스크이다. 발굴 당시 발견한 벽 장식과 볼트의 양식으로 보아 흑양조의 술탄 카라 유수프(Sultan Kara Yusuf, 재위: 1389년~1400년) 시대 초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곳은 1884년 지진으로 지붕이 무너진 후 다시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후 완전히 철거되고 미너렛 일부분만 남아 있다. 현재는 1913년 발굴 당시의 모습을 기초로 원형의 일부를 추정하고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남북을 축으로 약 26m, 키블라 벽은 약 30m, 서쪽 벽은 약 27.5m의 크기로 동-서 쪽은 두 줄, 북쪽은 세 줄로 나뉘어져 있으며, 팔각형 지지대 위에 솟은 교차 볼트로 덮여 있었다. 미흐랍 앞쪽에는 지름 약 9m의 돔이 존재했는데 특히 돔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었으며 돔의 외부는 원뿔형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내부 벽에 있는 16개의 창문을 통해 채광을 해결했다. 동쪽 벽의 북쪽 방향 끝에 위치한 피슈타크 외각에는 사각형 밑 받침대에 솟은 둥근 미너렛이 인접해 있었다. 이 부분은 오스만 제국 시대에 북쪽 벽 쪽에 배랑이 추가로 건설되었으며, 발굴 당시 유일하게 남은 벽면이기도 했다. 벽면 하단은 석재로, 상단의 볼트와 볼트 받침은 벽돌을 사용했다. 바닥은 육각형 벽돌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흐랍은 주로 쿠픽 서체의 비문과 기하학 문양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아치형 벽감에는 슐루스 서체의 비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돔의 무카르나스 장식도 일부분을 유약이 발린 벽돌로 패턴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쪽 벽, 동서쪽에는 풍부한 벽돌 장식과 스투코 장식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스투코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붉은색으로 색칠하여 장식성을 배가시켰던 것이었다. 이는 주로 대 셸주크 조의 장식 구성법을 따랐던 것을 보거나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돔과 볼트, 루미와 덩굴 문양의 스투코 패널 장식은 14세기의 양식과 유사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반 울루 자미, 반 대 모스크

● 다국어 표기 Van Ulu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흑양조

● 멀티미디어 링크 완 대 모스크_동쪽벽과 미너렛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4793/original/IMG13725.jpg?1384714472

완 대 모스크_동쪽 입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3374/original/IMG12242.jpg?138471346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634>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Aslanapa, Oktay. “Kazisi Tamamlandıktan Sonra Van Ulu Camii.” *Sanat Tarihi Yıllığı*5. Istanbul, 1973, pp.1~25.

I F112 | 외을레 нама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Öğle namazi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행하는데, 외을레 нама즈는 2번째 예배로 정오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하루의 예배는 임사크(İmsak, 아랍어 파즈르 Fajr, 새벽예배, 동 트기 전), 외을레(Öğle, 아랍어 주흐르 Zuhr, 정오 예배), 이킨디(İkindi, 아랍어 아스르 Asr: 오후 예배), 악시삼(Akşam, 아랍어 마그립 Maghrib, 저녁 예배), 야스(Yatsı, 아랍어 이샤 Isha, 밤 예배) 총 다섯 차례이다.

예배 전에는 반드시 소정례(小淨禮, 아브데스트)를 해야 한다. 크게 오염된 경우에는 대정례 후 소정례를 해야 한다. 무슬림은 예배할 때 신을 향해 절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바로 서서 절을 하고 난 후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일련의 동작을 라크아(rak'a)라고 한다. 하루 예배때 하는 라크아는 모두 17번이다. 라크아 횟수는 각 예배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임사크: 2회, 외을레: 4회, 이킨디: 4회, 악시암: 3회, 얏스: 4회, 금요 합동예배는 외을레 예배 직전에 근행한다. 수니 무슬림은 외을레 예배 전에 모여 예배 인도자가 행하는 두 번의 설교를 듣는다. 처음 설교는 길고, 두 번째는 짧다. 설교를 마치면 두 번의 라크아로 정오 합동 예배를 한다. 이로써 정오 예배 의무가 충족된다. 정오 예배는 원래 라크아가 4회지만, 설교가 라크아 2번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2번만 한다. 시아파의 경우 금요 합동 예배는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금요 합동 예배나 정오 예배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라크아는 수니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2번만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월레 нама즈, 이킨디 нама즈
- 다국어 표기 Salat al-Zuhr(아랍어 음사), Öğle namazı(튀르키예어), Peshin namozi(우즈베크어), Zöhr namazi(아제르바이잔어), Бесін намаз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브데스트, 주마, нама즈, 이킨디 нама즈, 악시암 нама즈, 얏스 нама즈, 두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Tyet1RWtY0><https://www.youtube.com/watch?v=uWOKB5EzHS><https://www.youtube.com/watch?v=uQ7mYuE0R8I>
- 참고문헌(온라인) Al-Sayyid Ali Al-Husseini Al-Sistani. "Rules of Namaz: The Friday Prayer (ṣalāt al-jumu'ah) and Its Laws." <https://www.sistani.org/english/book/48/2199/>
- 참고문헌(오프라인) G. Monnot. "Ṣalāt." In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8, 925~934. Leiden: Brill, 1995.

I F113 | 외즈데미르 아사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Özdemir Asaf

외즈데미르 아사프(Özdemir Asaf)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현대시인이자 번역가이다. 그의 본명은 할리트 외즈데미르 아룬(Halit Özdemir Arun)이며, 필명으로는 외데미르 아룬(Ödemir Arun), 외즈데미르 외즈뎀(Özdemir Özdem), 외즈데미르 야사만(Özdemir Yasaman) 등 여러 개를 썼다. 당초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메흐메트 아사프였는데, 1934년 성(姓)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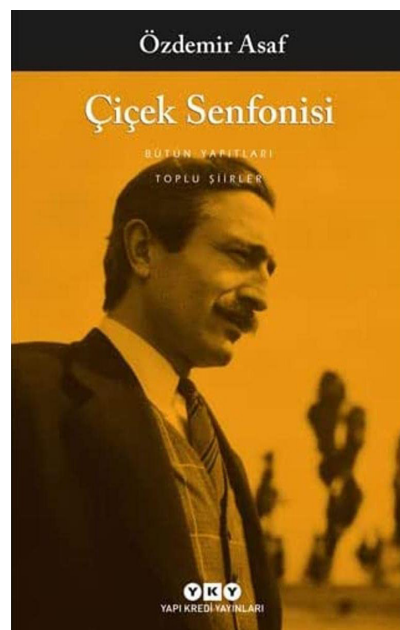
런 법이 제정되자 그의 어머니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진 아룬(Arun)으로 성을 변경했다.

외즈데미르는 1923년 6월 11일 앙카라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는 앙카라 하즈바이람에서 7살까지 거주하다가 1930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족들과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어머니 함디에 부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즈바렘 지역 저택가에서 재봉교육과정을 열었다. 그리고 아사프는 프랑스 남자고등학교에 다니다 얼마 뒤 학교가 문을 닫자 오르타콰이에 있는 갈라타사라이 기숙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나갔다. 그의 집안 사람들 대부분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본인도 프랑스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어 기본기가 탄탄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 재학시절부터 번역 일을 하면서 문학세계로 입문했고, 세계 문학과 시를 접할 수 있었다.

학창 시절부터 글쓰기를 이어온 아사프는 첫 번째 작품을 문예지 <세르베티 뤼논(Servet-i Fünûn)>에 실었다. 이후 1962년까지 여러 잡지에 시, 기사, 번역물을 기고했다. 1951년에는 인쇄소 경험을 살려 봉투, 편지지, 영수증, 명함 등 ‘판타지 작품을 찍는(fantazi işler basan)’ 예술 전문 인쇄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1955년부터 1970년까지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다. 1962년 튀르키예 노동당 간부 중 한 명인 메흐메트 알리 아이바르(Mehmet Ali Aybar) 주도로 만들어진 ‘생존 기본권 협회(Temel Hakları Yaşatma Derneği)’의 창립 멤버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인쇄소와 출판소를 접고 1971년 이스탄불 베베크에서 ‘비블리오 바’(biblio bar)를 창업하여 1980년까지 운영했다.

1950년대 당시 튀르키예에서는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변두리 마을에서도 시(詩) 낭송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당시 이스탄불 시 낭송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낭독자 중의 하나가 외즈데미르 아사프였다.

여행을 좋아하던 그는 1954년에 대서양을 거쳐 미국 동부 해안 도시, 1959년에는 핀란드를



외즈데미르 아사프 시 선집
Source: <https://m.media-amazon.com/>

시작으로 거의 모든 유럽을 여행했다. 1952년 그의 첫 시집 『내 눈에 세상이 들어왔다(Dünya Gözüme Kaçtı)』가 출판되었는데, 이 시집은 추상적인 관념과 기발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두뇌 게임으로 왕관을 씌우는 시인’ 같다고 묘사할 정도였다. 그 인기를 등에 업고 그는 1956년 『너, 너, 너((Sen Sen Sen)』, 1957년 『문 앞에서(Bir Kapı Önünde)』, 1962년 『부드러움이 아니고(Yumuşaklıklar Değil)』, 1970년 『잘 지내나요?(Nasılsın)』, 1975년 『꽃을 먹지 마세요(Çiçekleri Yemeyin)』, 이어 1978년 『외로움은 공유되지 않는다(Yalnızlık Paylaşılmaz)』 등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또한 번역가로서 1945년 이탈리아 작가 피티그릴리(Pitigrilli)의 『그 어떤 여성도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Hiç Bir Kadın Bana Hayır Demedi)』와 1968년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레딩 감옥의 발라드(The Ballad of Reading Gaol)』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그의 유일한 단편소설 『어제는 비가 올 거야(Dün Yağmur Yağacak)』는 시인이 사망한 이후인 1988년 출판되었다.

외즈데미르 아사프의 시는 형식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풍자와 아이러니도 녹아 있다. 그 점에 관해 그는 “나는 예술 분야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 중 한 명이다(...) 삶의 경험에서 서로 힌트를 얻어야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눈과 귀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81년 1월 28일 58세 나이로 삶을 마감했고, 그의 무덤은 이스탄불 아쉬안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외즈데미르 아삽, 오즈데미르 아사프, 오즈데미르 아삽
- 다국어 표기 OZDEMİR ASAF(영어), Özdemir Asa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Arun Seda, *Halit Özdemir Asaf Arun Sana Mektuplar*, Doğan Kitap, İstanbul, 2010.
Asaf Özdemir, *Kırılmadık Bir Şey Kalmadı*, Yapı Kredi Yayınları, İstanbul, 2019.

I F114 | 외즈베그 한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우크라이나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Özbek Han Mosque

본래 있었던 ‘한 모스크’는 킵차크 칸국의 건국 후 맘루크 술탄 바이바르스(Baibars, 재위: 1260년~1277년)의 후원으로 건설되었으나,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1314년에 새롭게 ‘외즈베그 한 모스크’가 건설되어 킵차크 칸국 최초의 모스크로 지금까지 남았다. 이에 관해 정문 위에 위치한 비문에는 당시 킵차크 칸국 통치자였던 외즈베그 칸(Muhammad Özbek Khan, 재위: 1313년~1341년) 시대에 압둘아지즈 이븐 이브라힘 엘 아르벨리(Abdulaziz ibn Ibrahim el Arbeli)의 후원으로 1314년 건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북을 축으로 길게 뻗은 직사각형 형태인 이 모스크의 넓이는 17.5mx13.5m 이고, 외벽 높이는 13m~14m 정도이다. 기도실은 키블라 벽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세 개의 열주가 있다. 중앙 열주는 다른 열주 보다 조금 더 높고 위치해 있으며 열주의 기둥은 팔각형으로 두 개의 무카르나스 장식으로 이루어진 주두가 있다. 이 기둥 위에 첨두아치가 자리하고 있으며, 첨두아치는 기울어진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입구는 건물에서 특 튀어나온 형식이며 입구의 상단부는 무카르나스와 첨두아치로 장식되어 있다. 입구 주변부의 패널에는 연꽃, 팔메트, 끝이 물방울처럼 마무리 된 루미와 세 가닥으로 나뉜 잎사귀와 편물과 비슷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또한 입구의 북동쪽 모서리에 솟은 원통형의 미너렛은 원뿔 꼭지로 마무리되어 있다. 미너렛에는 목재로 된 미너렛 발코니가 있으나 이것은 1990년 모스크 복원 시 추가한 것이다.

모스크 북쪽 벽은 인지 베이 하툰 마드라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마드라사는 인지 베이 하툰(Inci-Bey Khatun, ?~1371년)의 후원으로 건설되었으나, 대부분 훼손된 채 복원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8세기 이 지역을 방문했던 여행가의 기록화 등을 통해 당대의 모습을 추정할 뿐이다. 마드라사의 전체 크기는 22mx30m이고, 이완과 문을 통해 중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돌바닥으로 이루어진 중정에는 샤프르반이, 중정을 둘러싼 네 개의 이완과 연결된 아케이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아케이드 뒤로 마드라사의 17개의 아치형 방이 있었다. 이 방에서 종교



외즈베그 한 모스크 전면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교육과 철학, 과학, 천문학 등을 교육했다고 전해진다.

마드라사의 북쪽에는 볼트로 덮인 영묘가 있다. 영묘의 건물은 목재로 되어 있으며 터키식 색 유약 상회의 세라믹 타일로 장식된 대리석 관이 있다. 이 관의 주인에 대한 어떠한 석문도 남아 있지 않다. 언제 이 마드라사가 훼손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이 모스크는 1990년 타타르 시민 단체에 의해 복원된 후 기도객을 받기 시작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즈베그 한 모스크
- 다국어 표기 Özbek Han camisi(크림 타타르어), Özbek han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크림칸, 타타르
- 멀티미디어 링크 외즈벡 한 모스크 전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f/Stary_Krym_Meczet_Chana_Uzbeka.jpg/1280px-Stary_Krym_Meczet_Chana_Uzbeka.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3687>

Inci Bowman, "Crimean Tatar Architectur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Crimean Website. <http://www.iccrimea.org/monuments/monuments.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Kırım Türk Eserleri", *Sanatı, tarihi, edebiyatı ve musikişiiyle Kırım*(ed:Oktay Aslanap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3, pp.11~57.

I F115 | 요람 잔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촬영삼 ● 라틴 문자 Besik toyi

카자흐스탄에서는 아기가 출생한 후 3일차(혹은 5일차)가 되면 요람에 옮겨지는데 이를 요람 잔치(베씩 토이)라고 한다. 이때가 되어 비로소 아기의 땃줄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 어디에서나 중요하며 특히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인 카자흐인들에게는 아기를 소중히 다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아기의 침대인 요람은 소중하기에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는 상징성에 의미를 더해 하나의 잔치로 치르는 것이다.

이날을 위해 아기 부모는 이미 요람을 하나 선물로 받아두며 3일째에 남아 있던 땃줄을 처리한다. 그리고 땃줄을 리본이 장식된 보자기에 잘 싸서 요람의 구석에 둔 다음 양모 모자나 코트로 덮어둔다. 전통적으로 아기 요람은 나무로 만들어지며 위쪽으로 손잡이가 붙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날을 위해 요람은 철저히 준비되는데 요람 의식 전에 이미 아기의 모친은 요람을 청소하고 나쁜 기운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약초를 이용하여 훈증한다. 그리고 아기의 요람 위에는 카자흐인들의 상징인 굴레와 채찍을 걸어 둔다. 이 모든 행동은 노래와 함께 진행되며 견배의 행위도 이루어진다. 이런 의식이 종료되면 참여한 손님들에게 카자흐인들의 전통 음식인 바우르삭 등이 제공된다.

이 요람 잔치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우즈베키스탄에서 행해지는 요람 잔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식 토이, 베쉬 토이
- 다국어 표기 Бешик той(카자흐어), Бешик то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통과의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7u4YzPY6zc>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en/news/show/7637/>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F116 | 요르트 이예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Yort Iyase

요르트 이예시(Yort Iyase)는 카잔 타타르와 서시베리아 타타르, 미샤르, 바시키르 민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하위 신이다. 타타르어로 ‘요르트’는 ‘집’을 의미하며, ‘이예시’는 ‘주인’을 뜻하기 때문에 ‘요르트 이예시’는 ‘집의 주인’이란 의미이다. ‘요르트’는 고대 투르크어로 ‘주거지’, ‘숙영지’를 뜻하는 단어 유르트에서 유래한다. 요르트 이예시는 한국의 터주신이나 성주신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집 귀신이며, 투르크 민족의 여러 집을 지키는 정령 중 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미샤르 민족과 바시키르 민족은 요르트 이예시를 살림의 수호자(‘마당신’이란 의미)로 보아 한국의 성주신이나 터주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믿었다. 특히 미샤르인들은 요르트 이예시가 흰 옷을 입은 여성이나 드물게는 흰 개나 토끼의 형상을 하고 마구간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바시키르인들은 요르트 이예시를 아궁이에 사는 인간 모습의 정령으로 생각한다. 미신에 따르면 요르트 이예시가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을 즐겨서 아궁이에서 작은 돌을 사람에게 던진다고 한다.

바시키르 미신에서는 요르트 이예시가 말을 타고 마구간을 돌아다니며 말갈기를 땅아 준다고 하며, 주인이 집을 나르면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즐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바시키르 인들은 요르트 이예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늦은 저녁에 목욕탕에 가는 것을 피한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르트 이야세, 유르트 이예시
- 다국어 표기 Yurd iyesi(아제르바이잔어), Йорт иясе(타타르어), Yurt İy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바시키르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 273~274.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600.

I F117 | 올더쉬 샴샤러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Yo'ldosh Shamsharov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올더쉬 샴샤러브(Yo'ldosh Shamsharov)는 1907년 나망간(Namangan)에서 태어났다. 그는 구식 학교와 신식 학교 모두에서 수학했으며, 짧게 교육학 과정을 이수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이자 위원으로 일했다. 1933년에 뒤늦게 페르가나 국립대학교 언어문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타슈켄트와 신문 <젊은 레닌주의자(Yosh leninchi)>의 사무총장, 신문 <레닌의 불꽃(Lenin uchquni)>의 편집장으로 근무했다. 일정 기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출판부장과 신문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의 사무국장을 지낸 적도 있다.

작가로서 그는 수필가, 사회평론가, 소설가로서 폭넓은 독자층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어르지굴(Orzigul)』, 『용기의 길(Jasorat yo'li)』, 『인간의 마음(Inson qalbi)』, 『구름사



올더쉬 샴샤르브
Source: <https://ziyouz.uz/wp-content/>

러이의 사람들(G'urumsaroyliklar)』, 『목화 자원(Paxta manbai)』, 『인기(Mashhurlik)』, 『강(Daryo)』과 같은 수필집과 단편소설집이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근면한 우즈베크인들의 꿈과 열망을 그려내려 했다. 그 외에도 『램프(Chiroq, 1973)』 『인생의 필요성(Hayot taqozosi, 1974)』, 『봄의 이야기(Navbahor qissasi, 1975)』, 『사랑의 불(Ishq oti)』와 같은 장편소설이 있다. 번역가로서도 활동한 올더쉬 샴샤르프는 이반 투르게네프의 『전야』, 『귀족의 동지』, 『무무』,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갈리나 나콜라예바의 『수확』 등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우즈베키스탄 명예 예술가’와 ‘우즈베키스탄 국민 작가’라는 칭호를 받았고, 올더쉬 샴샤르브는 1987년에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올도쉬 샴샤로프, 올도쉬 샴샤로브
- 다국어 표기 Yo'ldosh Shamsharov(우즈베크어), Юлдаш Шамшаров(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ilm-va-fan/adabiyot/mahkam-mahmudov-amir-fayzulla-bolalar-adabiyotining-bilagon-tarjimoni/>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 Shokirova R.,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2016.

I F118 | 올더쉬 솔라이먼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Yo'ldosh Sulaymon

우즈베키스탄 작가 올더쉬 솔라이먼(Yo'ldosh Sulaymon)은 1935년 코난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 리더이자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 페르가나 국립 사범대학교를 마친 후에는 학교와 문화센터 그리고 신문사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페르가나 지부를 이끌면서 작가로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여행객(Biz sayohatchilarmiz)』와 『모두가 부러워해(Hamma havas qiladi)』와 같은 시집에는 순수한 어린 시절과 우정, 성실, 자연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 『위대한 길로 나갈 때까지(Katta yo'lga chiqquncha)』, 『인생아, 너의 요구를 듣는다(Da'vatingni eshityapman, hayot)』와 같은 수필집이나 『영원한 삶(Boqiy umr)』과 같은 단편소설은 예술성과 열정이 담겨있다. 『당신은 나의 태양(Sen mening quyoshimsan)』이라는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역사와 현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가 됐던 수 세기 동안 자유와 조국을 위해 투쟁했던 민족감정은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작가의 다양한 체험은 『이른 아침(Subhidam, 1973)』이나 『충성(Vafo, 1979)』과 같은 걸작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됐다. 이 두 작품 모두가 10월 혁명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희생, 꿈과 열망 등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자 더욱더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그중에 『코칸트 전(傳)(Qo'qonnoma, 1992)』, 『마르길란 전(傳)(Marg'ilonnoma, 1994)』, 『화전(花傳)(Gulnoma, 1994)』, 『페르가나 전(傳)(Farg'onanoma, 1995)』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는 시집 『하룻밤 동안 샤흐리저드가 되어주오(Shahrizod bo'l bir kecha, 1993)』, 『나는 페르가나의 노예다(Farg'onaning quliman, 1997)』, 동시집 『헤라트로의 여행(Hirotdga sayohat, 1996)』도 출간



올더쉬 솔라이먼
Source: <https://teletype.in/>

했으며, 「폭우 속에 남게 된 꽃(Jalada qolgan gul, 1997)」과 같이 한 우즈베크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다큐멘터리 단편소설도 발표했다. 마지막 단편소설 「실현되지 않은 희망(Armon, 1998)」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전쟁 이전의 삶과 도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올더쉬 술라이몬(Yo‘ldosh Sulaymon)은 1997년에 우정훈장을 수상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창작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던 그는 2003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올도쉬 술라이몬
- 다국어 표기 Yo‘ldosh Sulaymon(우즈베크어), Юлдаш Сулейман(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yo-ldosh-sulaymon-1935-2004>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 Shokirova 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I F119 | 옷거르 무함마드 미르저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Yodgor Muhammad Mirzo

옷거르 무함마드 미르저(Yodgor Muhammad Mirzo, 영문 표기: Yadgar Muhammad Mirza)는 술탄 무함마드 미르저(Sulton Muhammad Mirzo, 재위: 1447년~1451년)의 아들이자 샤흐 루크(Shah Rukh, 재위 1405년~1447년)의 증손자이다. 옷거르는 백양조의 우준 하산(Uzun Hasan, 디야르바크르 재위: 1453년~1471년, 테브리즈 재위: 1471년~1478년)와 친척 관계이기도 했다.

1470년 우준 하산과 사마르칸트 티무르의 아부 사이드(Abu Said, 재위: 1451년~1469년) 사이에서 발생한 카바라흐 전투에서 우준 하산은 아부 사이드를 사로잡은 후 옷거르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옷거르를 아부 사이드의 후계로 세우면서 그에게 헤라트 티무르의 술탄인 후사인 바이카라(Sultan Husayn Bayqara, 재위: 1469년~1506년)에 대항하여 호라산을 장악할 수 있는 군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거르의 군대는 후사인과의 전투에서 패배

해 버렸다. 그러나 우준 아산은 다시 지원군과 자신의 두 아들까지 파견하면서 옷거르의 승리를 도와주었다. 그 결과 옷거르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헤라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 6주 만에 후사인은 헤라트로 돌아와 옷거르를 체포하고 즉시 사형에 처했다. 이후 버부르(Babur, 우즈베크어 표기: Bobur, 버부르)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옷거르를 “경험이 없는 철부지였다.”라고 혹평했다. 그가 티무르 왕조에서 활약한 샤희 루크의 마지막 후손이었다는 의미만을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드가르 무함마드 미르자
- 다국어 표기 Yodgor Muhammad Mirzo(우즈베크어), Yadgar Muhammad Mirza(영어), یادگار محمد میرزا(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티무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Roemer, H. R. “The Successors Of Timur”,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ume Six: The Timurid and Safavid Period*(ed, Peter Jack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98~146.

I F120 | 용사 추라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Chura Batyr

「용사 추라」는 전설 속의 인물 추라를 주인공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카자흐어로는 ‘쇼라 바티르(Шора батыр)’, 타타르어로는 ‘추라 바티르(чура батыр)’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의 원형은 16세기 카잔 칸국의 장군이며 타마 가문의 카라치베크인 ‘추라 나르렌 우글리’(Чура Наррэн углы)이다. 추라에 대한 서사시는 과거 킵차크 칸국의 구성원에 포함된 적이 있는 민족들인 카자흐인, 노가이인, 바시키르인, 크림 타타르인, 불가 타타르인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서카자흐스탄과 남카자흐스탄에도 용사 추라에 대한 서사시가 있는데, 여러 판본이 있다. 서카자흐스탄의 것이 보다 더 역사적이라면 남카자흐스탄의 것은 더 예술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 서사시에서는 자식이 없는 노인 나리크의 이야기와 기적으로 추라를 낳은 것, 부모를 죽인 원수와 점령자에 대한 복수 등이 서술되는데, 이 줄거리는 「용사 추라」의 대부분 판본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공통된 기원과 다양한 판본을 가진 이야기는 문학의 진화 관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기에 「용사 추라」 이야기는 지르문스키나 오를로프 같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추라-바티르

● 다국어 표기 Чура-батыр(러시아어), Шора-баты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어, 타타르어, 카자흐인, 노가이인, 바시키르인

● 멀티미디어 링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cyberleninka.ru/article/n/tyurkskiy-epos-sravnitelnoe-izuchenie-knizhnoy-versii-dastana-povolzhskih-tatar-chura-baty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5.03.2020).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брагимова, Л. Х. «Дастан «Чура батыр» в творчестве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дисс.к. филол. н.», Казан, 2000, 3~9.

Мухаметзянова Лилия Хатиповна Тюркский эпос: сравнительное изучение книжной версии дастана поволжских татар “Чура батыр” // Вестник ТГГПУ. 2010. №20.

I F121 | 용사 코빌란디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obylandy batyr

「용사 코빌란디(Kobylandy batyr)」는 카자흐 민족의 영웅서사시이다. 운문 형태의 서사시 29개 판본이 존재하는데, 그중 26개가 용사 코빌란디의 군사적 업적에 관한 것이고, 3개가 용사의 아들인 보겐바이(Богенбай)와 키이크바이(Киикбай)에 관한 것이다.

이 서사시의 주요 줄거리는 킵차크의 지도자이자 용사인 코빌란디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여러 음유시인들에 의해 구연되었는데 구연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대체

로 민중의 삶을 서사적으로 반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인공의 감정과 기분을 전달하기 위해 사건과 현상들의 서술, 형상적 비교, 표현, 과장, 대립구조 같은 다양한 예술적 기법들을 사용했다.

서사시의 주인공 코빌란디는 15세기에 살았던 역사적 실존인물이었다. 당시 전통적인 서사적 모티프들은 고령의 부모에게서 기적적으로 영웅이 탄생하거나 영웅적인 청혼, 미녀와의 결혼, 현명한 조언자의 전형적인 서사적 형상을 가지는 아내, 남편을 위해 용사의 말을 기르는 아내를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코빌란디의 출정에 용사 카라스판(Караспан)과 오릭(Орык)이 참여하고, 코빅타 카를리가(Кобикта Карлыга) 칸의 딸이 주인공들이 포로로 잡히는 상황을 모면케 해준다. 하지만 코빌란디는 카를리가의 사랑을 거절했고 그녀는 분노에 차 그에게 부상을 입힌다. 그후 오직 주인공의 아들 보겐바이만이 카를리가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기에 코빌란디와 카를리가의 결혼으로 이야기를 마무리짓는다. 「용사 코빌란디」에서는 용사와 헤어질 때 주인공의 어머니, 누이들, 아내들의 ‘울음’이 특별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서사시의 옛 판본은 채록되지 않았고 19세기에 구연자 아킨의 구술을 받아 쓴 판본이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빌란디 바티르
- 다국어 표기 Кобланды батыр(러시아어), Қобыланды баты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킨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2005. — Т. III. С. 242~243.

I F122 | 우드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d

목이 짧은 발현악기의 일종인 우드(Ud)는 튀르키예나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투르크 국가뿐만 아니라 아랍국가와 이란, 아르메니아, 그리스 등에서 널리 쓰이는 현악기의 한 종류로서 유럽의 ‘류트’가 탄생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우드와 유사한 악기는 B.C. 1320년~B.C. 1085년대의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던 적이 있다. 유추해보면 그 악기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랍권까지 전파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산 조에서는 그 악기를 바르밧(barbat)이라고 불렀다. 우드라는 단어는 7세기 아랍어 문헌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페르시아와 아랍 문헌에서는 바르밧, 우드, 톱부르와 같은 여러 단어가 모두 사용되었다.

우드는 울림통이 있는 몸과 현과 지판이 있는 목, 머리 그리고 현으로 구성된다. 크기는 약 60cm~80cm 사이로 다양한 편이다. 목의 전체 길이는 약 15cm~20cm이며 머리 부분에는 줄 감개 집이 있다. 현은 두 현씩 동음으로 짝을 이룬 4코스~7코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코스가 있는 우드가 사용된다. 가장 하단의 2코스는 과거에는 내장을 꼬아 만든 줄을 썼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나일론 줄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줄은 은이나 구리로 감싼 명주실을 사용한다. 연주할 때는 앉아서 품에 안고 우드의 윗부분은 오른팔로, 아랫부분은 오른쪽 발로 붙든다. 그 다음 왼손가락으로 현을 누르고 오른손은 피크를 이용해 연주한다.

우드가 가장 선호되던 시기는 15세기~16세기 오스만 궁정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거의 연주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이후 잠시 고전 투르크 음악을 대표하는 악기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새로 제작되는 우드의 형태도 변형되었는데 옛 우드의 몸체에 있던 양옆의 구멍은 사라지고, 현의 수도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때 다시 이스탄불에 우드 연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드 제작 오방 수도 함께 증가했다.

현대 튀르키예에서 사용되는 우드는 다른 나라 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현의 길이가 튀르키예 것이 약 1cm 가량 길다. 우드의 몸체는 약 1mm 두께의 가문비나무나 전나무로 만든 판이 덮



우드 연주

여 있으며 몸에는 두 개의 작은 울림 구멍이 큰 울림 구멍 양옆에 위치해 있다. 큰 울림 구멍 하나만 있는 것은 주로 아랍권에서 사용된다.

- 다국어 표기 Ud(아제르바이잔어), ut(튀르키예어), Ud(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우드_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2-fKM82Azm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94082&cid=60476&categoryId=6047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0254&cid=40942&categoryId=33031>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kaya, Fikret. “Ud”, *İslâm Ansiklopedisi*Cilt.42, Istanbul: TDV, 2012, pp.39~41.

I F123 | 우랄 바티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영웅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Ural-batyr

「우랄 바티르」는 바시키르 문학을 대표하는 서사시(쿠바이르)이다. 우랄은 주인공 이름이며, ‘바티르’는 용사, 또는 장군이란 뜻이기에 해석하면 우랄 장군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수 천 년의 시간 동안 형성된 고대 신화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고대의 세계관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모티프들은 다른 바시키르 서사시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이 서사시의 대부분이 운문으로 구성되지만 약간의 산문 형태가 있으며,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랄 바티르」는 세센에 의해 구전되어 왔으며 1910년 부랑굴로프(Мухамедша Абдрахманович Бурангулов)가 처음 채록했다. 전설에 따르면 부랑굴로프는 이 서사시를 채록한 다음 세센에게 자신이 타고 온 말을 선물로 주고는 자신은 도보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 1956년에 산문 판본을 하리소프(А.И. Харисов)가 채록해 출판했다.

이 서사시는 줄거리가 꽤 복잡한데 전반적으로 우랄 바티르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용, 뱀, 귀신들의 모습을 한 자연의 악한 힘과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설의 주인공은 바티르(용사)들과 백성들, 천상의 신, 자연의 악한 세력들, 신화적 존재들이다. 여기서 세 세대에 걸친 주인공들의 운명이 묘사되고 있다. 노인 얀비르데(Янбирде)와 노파 안비카(Янбика), 이들의 아이인 우랄(Урал)과 술간(Шульген), 다시 이들의 자녀인 야이크, 이델, 누구시, 사크마르(Яик, Идель, Нугуш, Сакмар)가 주인공이다. 이들 세 세대의 삶이 3부작으로 묘사된다.

1부는 얀비르데와 안비케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사냥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 술간과 우랄을 낳는다. 얀비르데는 아이들에게 지상의 사람과 짐승 등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 그 후 우랄이 구해준 흰 고니 호마이(Хомай)는 생명의 샘인 얀시시마(Яншишима)에 대해서 알려주고, 얀비르데는 아들들에게 얀시시마를 찾아 ‘죽음’을 없애라고 충고한다. 그렇게 1부는 젊은 용사들이 불멸의 샘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 끝난다.

2부는 술간과 우랄의 활약을 다루고 있다. 우랄의 업적과 그의 형제 술간의 악행이 자세히 묘사된다. 2부는 죽은 적의 용사들의 시신이 변한 산맥(우랄산맥)에서 생겨난 악령과 용과의 전투

후에 우랄이 자연의 불멸을 위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3부는 우랄의 자손들의 업적과 사람들이 우랄 지역에 정착하고 동물과 새들이 번성하는 것이 묘사된다.

우랄 바티르에서는 천리안을 가진 용, 지혜로운 용, 천손 우랄, 주인공의 강력한 동반자인 천마 아크부자트, 우랄의 조력자가 되는 일곱 용과 큰 곰 별자리, 마술 지팡이, 생명의 샘, 새의 왕자 삼라우(самрай), 호마이 등이 등장하면서 풍부한 원형들과 상징들이 제시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랄 바트르

● 다국어 표기 Ural Batır(아제르바이잔어), Урал-батыр(러시아어), Ural H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쿠바이르, 아크부자트, 세센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отов В. Г. Башкирский эпос «Урал-батыр». Историко-мифологические основы. Уфа: Гилем, 2006. 408.

Сбор.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эпос. М. 1977. 265~372.

I F124 | 우랑카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urangxaj

우랑카이는 ‘용감한 무사’를 의미한다. 고대에 야쿠트인들은 스스로를 높여 가리킬 때 우랑카이라고 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에벤키와 에벤어를 포함하는 통구스어에 있다. 통구스어로 오란(oran, 에벤어) 또는 오론(에벤키어)은 순록을 뜻한다. 여기에 ‘-카이’라는 접미사가 붙어 파생된 ‘오랑카이’는 순록치기를 뜻했다. 이 단어가 야쿠트어를 비롯한 투르크어에 차용되어 ‘용감한 무사’라는 뜻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 원주민들에게 유능한 순록치기 ‘우랑카이’는 가장 선망되는 이름이었다. 에벤키족이나 에벤키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4월 초 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절정은 순록 경주 대회가

다. 북쪽의 강은 4월에도 단단하게 얼어 있다. 얼어 있는 강 위에서 순록을 타거나, 두 마리의 순록이 끄는 마차를 타고 수 킬로미터의 강 위를 달린다. 여기에서 우승하는 것은 순록치기로써 최고의 명예이다.

북부 시베리아에서는 ‘우랑카이’라는 이름이 보통명사처럼 쓰인 기록도 있다. 13세기 테무친이라 불리던 젊은 시절의 칭기즈 칸이 어려웠을 때 그를 도운 사람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우랑카이가 있었다. 이 사람은 당시 통구스 족의 한 사람이었다. 통구스 족이라는 이름은 에벤키족과 에벤키족이 분화되기 이전에 그들을 가리키던 통칭이었다. 칭기즈 칸은 그를 도와준 통구스 사람을 그냥 ‘우랑카이’라고 부른 것이다. 한국어에서 북방 야만족을 가리키는 비칭으로 사용되는 ‘오랑캐’라는 말은 이 ‘우랑카이’와 같은 어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라아안하이
- 다국어 표기 ураанхай(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야쿠트어, 칭기즈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лепцов, П.А. Якут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1972.

I F125 | 우루굴칭 성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Uglugchingol

우루굴칭 성(Uglugchingol)은 몽골 바트시레트 솜에서 서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으로 해발 1250m에 위치한다. 이곳은 다이칭산 동남면에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쌓은 성터인데 1998년 한-몽 공동학술조사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성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인데, 지형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북쪽의 험한 암산에 의지하고, 남쪽은 열린 지형을 그대로 이용했다.

한몽 조사 이전에 러시아 학자 콘드라티예가 1926년에 조사해서 12세기~14세기의 성으로 추정했고, 1962년에 조사한 페를레는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를 근거로 거란 시대로 보았다. 하지

만 2000년대 들어와서 몽골과학아카데미 연구소와 미국 조사팀이 공동조사를 실시해서 성 내부에서 무덤 3기를 발견했다. 당시 몽골 측에서는 몽골 시대 및 칭기즈 칸의 무덤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칭기즈 칸 무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성 내부에서는 온돌시설, 목관묘 등이 발견되었는데, 조사 당시에는 11세기~13세기 유적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유적에서는 흉노의 취락 유적에서 온돌시설이 발견되기 때문에 온돌시설만으로 연대를 규정하기 힘들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은 지형상 전쟁을 위한 성이라기보다는 요새의 기능을 했다는 설도 꽤 신빙성이 있다. 주변에서는 성의 위치 파악이 어렵고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남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 온돌시설이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그루그친골
- 다국어 표기 Uglugchingol(몽골어)
- 연관 검색어 칭기즈 칸,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C.B

I F126 | 우르미야 칸국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Afshars of Urmia

우르미야 칸국(Urmiya xanlığı, 1747년~1763년)은 나디르 샤(Nadir şah)의 사촌인 패탈리 칸 애프사르(Fətəli xan Əfşar , 1747년~1763년)에 의해 수립되었다. 우르미야(Urmiya)시를 중심으로 한 우르미야 칸국은 코이(Xoy) 칸국과 마라가(Marağa) 칸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패탈리 칸 애프사르는 나디르 샤의 장군 아자드'(Azad)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며 본격적

으로 칸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그는 우선 코이 칸국의 지배자 샤희바즈(Şahbaz) 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어서 코이 칸국의 군대까지 애프샤르군에 병합시켰다. 또한 카라다흐(Qaradağ), 마라가(Marağa), 타브리즈(Təbriz) 및 일부 소규모 봉건 귀족들까지 복종시켰다. 당시 패탈리 칸은 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했던 아자드(Azad)에게 칸의 칭호를 주며 연합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 후 아자드 칸 사령관은 우르미야 칸국(Urmiya xanlığı)의 모든 군사적 작전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패탈리 칸은 우르미야에 머무르며 행정 업무에 종사하던 아자드 칸이 군대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식량, 무기 및 추가 병력을 제공했다.

이후로도 여러 남 아제르바이잔 칸국을 통합, 합병하여 강력해지자 패탈리 칸은 카라바흐(Qarabağ) 칸국을 공격하고 슈샤(Şuşa) 요새를 포위했으며 페나흐엘리 칸(Pənahəli xan)에게 복종을 요구했다. 하지만 곧 이러한 행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 이브라힘 아가(İbrahim ağa)를 인질로 보내며 슈샤 요새를 해방시켰다. 이 사건으로 랜카란(Lənkaran) 칸국과 구트가시의 술탄국(Qutqaşın sultanlığı)은 우르미야 칸국(Urmiya xanlığı)에 병합되었다.

패탈리 칸 애프샤르의 이러한 정책은 캐림 칸 잔드(Kərim xan Zənd)와 가자르 제국의 군주 매함매드 해센 칸 가자르(Məhəmməd həsən xan Qacar)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패탈리 칸은 처음에는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결국 1751년 말에 이레반(İrəvan)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이라크리 2세'(II İrakli)가 파견한 가자흐(Qazax)와 보르찰리(Borçalı) 지역의 아제르바이잔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이레반 칸국(İrəvan xanlığı)을 원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우르미야 군대(Urmiya ordusu)를 퇴각시키고 말았다. 더불어 애프샤르 국가(Əfşarlar dövləti) 대신 자신의 세력을 확립하고자 했던 캐림 칸 잔드(Kərim xan Zənd)도 1752년 말 우르미야 칸국(Urmiya xanlığı)으로 진군했다가 미야나(Miyana) 인근 전투에서 패하고 페르시아 영토로 퇴각했다. 이후 패탈리 칸의 군대는 갬새(Qəmşə)에서 캐림 칸 잔드의 군대를 격파했고 그 결과 캐림 칸 잔드의 형제인 이스칸데르 칸(İsgəndər xan)은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다.

이때 호라산 부근에서 권력을 키워나가던 매함매드 해센 칸 가자르(Məhəmməd həsən xan Qacar)도 전투에 합세했다. 그는 1755년 봄에 캐림 칸 잔드와의 결투에서 승리해 이스파한(İsfahan)을 점령하는가 하면 캐림 칸 잔드와 패탈리 칸 애프샤르 사이의 싸움을 틈타 길란

(Gilan)까지 점령하는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애르데빌 칸국(Ərdəbil xanlığı)과 렌카란 칸국(Lənkəran xanlığı)의 무간 평원(Muğan düzü)을 통과하여 카라바흐(Qarabağ)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 여에 걸친 슈샤 포위와 공격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매함매드 해센 칸(Məhəmməd həsən xan)은 후퇴를 결심한 다음 타브리즈 우르미야(Urmiya)까지 점령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레 1759년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후 패탈리 칸이 타브리즈로 돌아와 권력을 강화한 다음 그해 여름에 바로 카라바흐 칸국(Qarabağa xanlığı)를 공격했다. 패탈리 칸은 슈샤 요새의 포위에는 성공하지만 끝끝내 점령하지 못하고 카라바흐 칸인 페나헬리 칸(Pənəhəli xan)과 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페나헬리 칸(Pənəhəli xan)은 패탈리 칸(Fətəli xan)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자기 아들 이브라힘헬릴(İbrahimxəlil)을 인질로 보냈다.

그 후, 케림 칸 잔드는 1760년 가을 아제르바이잔 남부를 공격하여 타브리즈를 포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그는 1761년 재공격했고 그마저 가라채맨 전투(Qaraçəmən döyüşü)에서 패배하면서 패탈리 칸(Fətəli xan)은 비로소 안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763년 케림 칸 잔드는 강력한 군대와 함께 등장해서 우르미야 도시를 포위해 함락시켰고, 패탈리 칸은 인질로 체포되었다.

결국 케림 칸 잔드는 우르미야(Urmiya)의 통치권을 루스탐 베이 아프쉬아르(Rüstəm bəy Əfşar)에게 넘긴다. 그는 승전을 핑계 삼아 '시라즈 환대(Şiraz qonaqlığı)'를 계획하고 동맹국 칸들을 시라즈로 데려간 다음 이스파한(İsfahan) 근처에서 패탈리 칸 아프샤르의 목을 쏘아 사살함으로써 자신의 승리와 권력을 보여주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르미야 칸국, 우르미야 칸국
- 다국어 표기 Urmiye Hanlığı(튀르키예어), Урмий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Urmiya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이레반 칸국,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də, 3-cü cild, Bakı, 2007, 563.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Çingizoğlu Ənvər, Avşar Aydın. *Avşarlar*, Bakı, Şuşa, 2008, səh. 139~140.
Əliyev F. *XVIII əsrin birinci yarısında Azərbaycanda ticarət*. Bakı, 1964.
Hüseyn Dəlili. *Urmiya xanlığının tarixi oçerki* (XVIII əsrin II yarısı XIX əsrin 30-cu illərində) – Namizədlik dissertasiyası. Bakı. 1967.

- Hüseyn Dəlili. *Azərbaycanın cənub xanlıqları* (XVIII əsrin ikinci yarısında). Bakı: “Elm”. 1979.
- Hüseynov Yunis. “*Qarabağnamələr*” *Azərbaycan tarixini öyrənmək üçün mənbə kimi*, Bakı, Elm nəşriyyatı, 2007, 216.
-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16.
-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88.
-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48.
- Məmmədli Bəhram, Çingizoğlu Ənvər. *Urmiya xanlığı (PDF)*. Bakı: SDU nəşriyyatı. 2013. səh. 188.
- Məmmədova Gövhər. *Urmiya xanlığı*. Ankara: Türklər jurnalı. 2002. səh. 133~148.
- Mustafayeva N.C. *Cənubi Azərbaycan xanlıqları*. Bakı. 1995.
- Mustafayev T. *XVIII yüzillik–XIX yüzilliyin əvvəllərində Osmanlı–Azərbaycan münasibətləri*. Bakı, 2002.
- Mustafazadə. *Tofiq Qarabağ xanlığı*, Bakı: Sabah. 2009. 333 səh.
- Nuriyeva İradə Tofiq qızı.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 Bakı: Mütərcim, 2015. – 336 səh.
- Süleymanov Mehman Gülüstan müqaviləsi – II hissə*. Elm və təhsil, Bakı, 2014, 608 səh.
- Tahirzadə Ədalət. *Ağa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F127 | 우르케르 신화

- 시기 고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Urker myth

우르케르(Urker)는 플레이아데스(Pleiades) 성단이라는 별자리이며 한국에서는 쯤생이자리, 서양에서는 일곱 자매(Seven Sisters)라고도 하는데 대개 황소자리에 해당한다. 우르케르 신화는 그 우르케르에 관해 예로부터 카자흐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설화 중 하나이다.

줄거리는 옛날 지구의 아직 늘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번성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어느 날 우연히 동물들이 우르케르를 붙잡아 지구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우르케르가 낙타, 말, 양, 소를 차례로 취했고 이윽고 염소 차례가 되자 동물들이 염소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염소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방심하는 사이 우

르케르는 염소의 발굽을 가르고 나와서 달아나 버렸다. 이때부터 염소 발굽이 갈라져 버린 것이다. 그 일에 대해 다른 동물들은 염소를 비난했다. 그래서 신이 꼬리를 부여했을 때 염소에게 가장 쓸모없는 꼬리를 줄 것을 신에게 요청했다. 그때부터 염소의 꼬리가 짧게 되었다.

그렇게 우르케르는 자유로워졌고 이후 사람, 동물과 관계없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이동했다. 그리고 지구에 접근할 때마다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고 만물이 따뜻함을 만끽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르케르가 왔다가면 날씨가 추워지니 만물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신화를 천문학에 적용해보면 천문학적으로 우르케르는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카자흐인들은 우르케르의 위치를 보고 한 해와 달력 밤 시간을 측정했다. 우르케르는 가을, 겨울에 관측되며 늦봄이 되면 밤하늘에서 안 보이다가 여름 중반이 되어서야 다시 나타난다. 초가을에 우르케르는 동쪽 하늘에 겨울에는 바로 머리 위에 봄에는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르케르 신화
- 다국어 표기 *Уркеп*(카자흐어), *Уркеп*(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mf0-Eofjsc>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ic.academic.ru/dic.nsf/ruwiki/1157784>
- 참고문헌(오프라인) Asma Kalybekov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F128 | 우마르 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marxon

히바 칸국의 칸 나르보타비이(Narbo'ta biy, 재위: 1764년~1801년)의 아들이자 얼림 칸(Olimxon, 재위: 1801년~1810년)의 동생인 우마르 칸(Umarxon)은 1787년 태어났다. 그는 형

얼림 칸이 살해당했다는 소문을 퍼트렸고, 이를 이용해 제위에 올랐다.

그는 즉위 후 형과 마찬가지로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우라테페(Ura-tepe)를 정복하고 야시(Yasi)를 차지했으며 타슈켄트 북쪽의 다른 작은 마을을 정복했다. 또한,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도 노력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연결로에 요새를 건설하여 오가는 대상들의 안전을 보장하려 했으나 파견을 보냈던 대사의 사망과 추방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여러 요새와 운하를 건설하고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건설해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안디잔(Andijan) 서쪽에 샤흐리칸(Shahrikhan) 마을을 세웠고, 카라 다리야(Kara Darya)로부터 이곳과 연결되는 거대 운하인 나흐리 칸 사이(Nahr-i Khan Say)를 건설했다.

그의 통치시기에 문학,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발전이 일어났으며, 농업, 수공업 품 생산 및 무역 상황도 개선되었다. 당시, 많은 문학인이 코칸드에 모여들었으며 우마르 칸은 아미리이(Amiriy)라는 필명으로 문학 활동을 했다. 그의 시는 1만 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아내였던 너디라(Nodira, 또는 머흐라레이임(Mohlaroyim), 1792년~1842년)도 뛰어난 문학가이자 예술 후원자였다.

당시 이전 시대에 시행되었던 종교 정책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성직자들의 지위와 혜택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마르 칸은 코칸드의 금요 모스크를 재건하여 ‘아미르 울 무슬림인(amir-ul-muslimin)’ 즉 ‘신자들의 대장’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1822년 병을 얻어 1년 후 사망했고 제위는 그의 아들인 무함마드 알리칸(Muhammad Alixon)이 이어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마르 칸, 오마르 칸, 외메르 칸, 우마르 한

● 다국어 표기 Muhammad Umar Khan(영어), Umarxon(우즈베크어), Омар хан(카자흐어), Омор хан(키르기스어), Ömer H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얼림 칸, 무함마드 알리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2005, pp.71~82.

Dubovitskii, Victor;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NewYork: Routledge, 2015, pp.29~68.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957~1045.

I F129 | 우마르베커브 올마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Umarbekov O'lmas

우마르베커브 올마스(Umarbekov O'lmas)는 1934년 타슈켄트에서 탄생한 우즈베키스탄 국민 작가이자 우즈베키스탄의 명예 예술가이다.

그는 1956년 중앙아시아 국립대학교 어문학부를 졸업했다. 스스로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어문학부에 입학했다고 밝힌 바 있는 우마르베커브 올마스는 1950년~1960년대 가장 다작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거의 40년 동안 연구와 창작에 매진했다.

그가 쓴 첫 단편집 『이야기들(Hikoyalar)』은 1958년에 출판된다. 이어 「너의 편지를 기다린다(Xatingni kuta man, 1969)», 「심장이 전하는 말들(Yurak so'zlari, 1960)», 「별(Yulduzlar, 1962)», 「나를 안 믿느냐?(Menga ishonmaysanmi?, 1962)», 「인생은 영원하다(Hayot abadiy, 1964)», 「차러스(Charos, 1966)», 「다리(Ko'prik, 1968)», 「불가리아의 노래(Bolgar qo'shiqlari, 1972)», 「황금 잎사귀(Oltin yaproqlar, 1972)」 등을 발표한다. 이 외에도 「나의 사랑(Sevgilim-sevgilim, 1963)», 「누군들 걱정이 없을까(Kimning tashvishi yoq, 1965)», 「전쟁고아(Urush farzandi, 1972)», 「여름비(Yoz yomg'iri, 1973)», 「흰 제비(Oq qaldirg'och, 1974)」 등이 그의 주요 작품이다.

그의 소설 「인간되기 어렵다(Odam bo'lish qiyin)», 「페티마와 주흐라(Fotima va Zuhra)」 과 단편소설 「갓지 못한 빛(Qiyomat qarz)», 「태양아, 잠깐만(Shoshma, quyosh)», 「흐르는 물(Oqar suv)», 「재판(Sud)», 「감사(Komissiya)», 「가을의 첫날(Kuzning birinchi kuni)», 「당신의 접수증에 따라(Arizasiga ko'ra)」 등도 유명한 작품이다. 그가 쓴 희곡으로는 「두 군인에 관한 이야기(Ikki soldat haqida qissa)», 「타인들을 생각하여(O'zgalarni deb)», 「높은 눈발에



우마르베커브 올마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ru/thumb>

서의 만남(Qalin qorlar bag'ridagi uchrashuv)」이 있다.

창작 외에도 1974년부터 약 10여년간 '우즈베크 필름(O'zbekfilm)' 스튜디오를 이끌기도 했다. 1982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1985년에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에 아시아-아프리카 작가연맹 의장을 맡았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공화국 내각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소설 「인간되기 어렵다(Odam bo'lish qiyin)」로 1971년에 우즈베키스탄 청년연맹 상을 수상했다. 「두 군인에 관한 이야기(Ikki soldat haqida qissa)」로는 1977년 함자(Hamza) 국가 상, 「다미르 우스모노프의 두 개의 봄(Damir Usmonovning ikki bahori)」이라는 작품으로는 1984년에 니콜라이 오스트롭스키(N. Ostrovsky) 청소년연맹 상을 받았다. 또한 그는 작가 탄생 50주년에 우즈베키스탄 명예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1992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작가 칭호를 받았다.

우마르베코프 올마스는 작가로 활동할 때나 공직에 있을 때 모두 국민들이 겪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단편소설이나 희곡 등 모든 장르에서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존중하고 삶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애쓰던 작가였다. 그는 1994년 11월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마르베코프 올마스

● 다국어 표기 Umarbekov O'lmas(우즈베크어), Ульмас Умарбеков(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o-lmas-umarbekov-1934-1994>
<https://arboblal.uz/uz/people/umarbekov-ulmas-kamal-rakhimbekovich>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eva G., *O'lmas Umarbekov hikoyalari*, Toshkent: Shams ASA, 2007.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Muxtor O., *O'lmas Umarbekov zamondoshlar xotirasida*, Toshkent: O'zbekiston, 2009.

I F130 | 우마르샤이흐 미르저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marshayx Mirzo

우마르샤이흐 미르저(Umarshayx Mirzo, 영문 표기: Umar Shaikh Mirza)는 1455년 아부사이드 미르저(Abu Sa'id Mirzo, 사마르칸트 재위: 1451년~1469년, 헤라트 재위: 1459년~1469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샤흐술턴 베김(Shaxsulton Begim)이다. 그에 대해서는 『바부르나마(Baburnama, 우즈베크어 표기: Boburnoma)』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함사(Xamsa), 샤나메(Shahnameh)와 같은 고전과 역사책을 많이 읽었으며 관대하고 용기 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부친 사후 1469년부터 1494년까지 페르가나 지역을 통치했다. 그리고 타슈켄트, 사이람, 샤흐루히야 지역 역시 한동안 그의 통치하에 있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올랐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례로 그는 그의 형 술탄 아흐마드(Sultan Axmad Mirzo, 재위: 1469년~1494년)와의 전쟁, 몽골과의 전쟁에서 모두 패배한다. 한때 술탄 아흐마드가 우마르에게서 타슈켄트를 빼앗기도 했다. 그래서 우마르는 장인인 유누스칸(Yunusxon, 재위: 1452년~1487년)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다시 전쟁을 벌이려 했으나 호자 아흐러르(Xoja Axror, 1404년~1490년)의 도움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조약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유누스칸이 타슈켄트를 차지하게 되면서 추후 유누스칸이 사망하자 우마르가 다시 타슈켄트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타슈켄트를 차지하고 있던 술탄 마흐무드 현(Sulton Maxmudxon, 재위: 1388년~1404년)은 우마르의 군대를 패퇴시킨다. 그리고 1494년 술탄 마흐무드 현은 술탄 아흐마드 미르저와 동맹을 맺고 페르가나를 침략한다. 이 전쟁으로 우마르는 악시 계곡에서 떨어져 사망한다. 그 후손으로는 아내 쿿루그 니가르허님(Qutlug' Nigorxonim)과의 사이에서 낳은 바부르 조 무굴 제국의 건국 군주 버부르(Babur, 우즈베크어 표기: Bobur, 버부르)가 남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마르 사이흐 미르자, 외메르 세히 미르자, 우마르 세이크 미르자

● 다국어 표기 Umar Shaikh Mirza II(영어), Ömer Şeyh Mirza(튀르키예어), Umarshayx Mirzo(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버부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Dale, Stephen F. *The garden of the eight paradises : Bābur and the culture of empire in Central Asia, Afghanistan and India (1483-1530)*, Leiden ; Boston : Brill, 2004.

Kaan, Oktay. "Hindistan'da Türklük-Müslüman Türk İmparatorları Zahirü'd-Din Muhammed Babür Şah Gazi", *Çankırı Karatekin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4(1), 2013, pp.271~278.

I F131 | 우마르전 이스머일러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Umarjon Ismoilov

우마르전 이스머일러브(Umarjon Ismoilov)는 우즈베키스탄의 작가로 1906년에 카자흐스탄 아블리요오타(Avliyoota)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에 마рки(Marki) 시 아마추어 연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한 적이 있다. 1920년에는 타슈켄트의 근로 농민학교에서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중앙아시아 국립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이후 그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교육문화 기구에서 근무했으며, 193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 프롤레타리아 작가연합(UzAPP)의 서기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시로 문단에 데뷔했다. 대표 시로는 「함자 하킴저다 니여지이(Hamza Hakimzoda Niyoziy, 1932)」, 「봄(Bahor, 1932)」, 「검은 집의 초가 든 램프(Qora uy shamchirog'i, 1932)」, 「하밀라헌(Hamilaxon, 1933)」, 「아버지들에게(Otalarga, 1935)」, 「나부르즈 명절(Navruz bayrami, 1935)」, 「나의 정당(Partiyam, 1935)」, 「볼셰비키의 말(Bolshevik so'zi, 1936)」, 「타슈켄트(Toshkent, 1960)」 등이 있다. 또한 「파스트캄 모스크에서 일어난 사건(Pastqam masjiddagi hodisa)」, 「한 편지의 서사시(Bir xat dostoni)」 등의 단편소설을 썼다.

그는 장르를 넘나들었지만, 대학시절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장르는 희곡이었다. 이미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희곡을 써 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1930년대를 조망하는 극본을 꾸준히 창작했다. 그가 집필했던 「목화 해충들(Paxta shumg'iyalari, 1930)」과 「루스탐(Rustam,

1934)이 우즈베크 국립 아카데미 극단에서 상연되면서 그는 희곡작가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목화와 집단농장화를 다룬 「목화 해충들(Paxta shumg'iyalari)」은 ‘우즈베크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첫 걸작’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생명수(Obi hayot)」, 「현명한 소녀(Donishmand qiz)」, 「세 영웅(Uch qahramon)」과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삼은 「승리(Zafar)」를 집필했는데, 「승리(Zafar)」는 오페라로 각색되어 사마르칸트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그는 1976년에 ‘우즈베키스탄 명예 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마르존 이스모일로프
- 다국어 표기 Umarjon Ismoilov(우즈베크어), Умаржон Исмаил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루스탐
- 참고문헌(오프라인) Ismoilov U., *Tanlangan asarlar she'rlar, proza, dramalar*, Toshkent: Adabiyot va san'at, 1975.

I F132 | 우마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Umay

우마이(Umay)는 투르크와 몽골의 여성신으로 ‘텡그리’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신이다. 흔히 텡그리신의 아내로 여겨진다. 오늘날까지도 알타이, 바시키르, 카자흐, 키르기스, 몽골, 타타르, 하카스 등의 민족들이 우마이를 믿고 있으며 켈테긴을 기리는 고대 투르크 비문에서도 우마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우마이의 원형을 이란의 신화 속에 나오는 새 ‘후마이(Хумай)’에 있다고도 본다. 후마이는 날개를 펴 인간에게 그늘을 만들면서 행복을 주는 새의 한 종류이다. 이는 우마이가 매우 높은 존경을 받는 대지 여신으로 자비로운 신이자 아이와 산모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마이는 여성이 출산하기 전에는 산모와 태아를 지키기 위해 유르트 출입

구 원편에 위치한다고 하며 우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의 기원, 자궁, 탯줄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키르기스인은 우마이가 풍년과 가축의 번성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늘 우마이를 기리기 위해 유르트 앞쪽에 푸른 천으로 만든 인형을 걸어 두었으며 아이가 아프면 이 인형에게 죽을 먹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가 빠지는 6세까지 우마이는 아이를 보호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은 우마이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다. 쇼르인은 작은 화살과 활을 요람 위해 매달아 우마이에게 바쳤으며, 텔레우트인은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 은발의 젊은 여성을 우마이로 상상하면서 우마이가 가진 황금활이 아이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키르기스인은 아이를 낳을 때 우마이에게 기도하며, 쿠만딘인은 우마이가 물을 무서워한다고 믿었다. 그 밖에도 아이와 출산의 수호신 외에도 우마이는 수확과 대지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크 여성신

● 다국어 표기 Umay(아제르바이잔어), Ума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텡그리, 유르트, 쇼르인, 텔레우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2, 547.

Потапов Л. П. Умай — божество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в свет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данных. — Тюрколог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1972. — М.: Наука, 1973. — С. 265—286.

I F133 | 우므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Umre

우므레(Umre)는 아랍어 ‘우므라’에서 나온 말이다. 우므라는 <어떤 곳이나 누구에게 가는 것> 과 <방문>이라는 뜻을 지녔다. 이슬람교의 종교 의례에서 우므레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순례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630년 메카를 정복하면서 무함마드가 무슬림들과 함께한 메카 순례를 이슬람 역사상 최초의 우므레로 본다. 이슬람교에서는 메카 순례를 대소로 구분하는데 대순례는 이슬람력 12월 8일부터 13일에 하는 순례를, 소순례는 그 외의 시기에 하는 순례를 각각 가리킨다. 대순례를 핫즈(Hajj), 소순례를 우므레라고 한다. 사실상 소순례는 기간 상 차이 외에는 대순례와 의식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므레 의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카오바(Ka'bah) 성원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곱 바퀴 도는 것, 타와프(tawaf)라고 한다. 둘째, 사파(Safa)와 마르와(Marwa) 사이를 빨리 걸어 일곱 번 왕복하는 것, 사이(sa'i)라고 한다. 이는 어린 아들 이스마일(Ismail)을 위해 물을 찾아다니던 하자르(Hajar)의 고통을 함께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셋째, 이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한다. 남성은 삭발을 하고(할끄 halq), 여성은 상징적으로 머리카락을 조금 자른다(타끄시르 taqsir).

핫즈와 달리 우므레는 의무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진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몇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다. 순전히 개인적인 순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순례 의례는 빠짐없이 준행한다. 오늘날 우므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핫즈와 우므레부(The Ministry of Hajj and Umrah)에서 관리 감독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므레, 우므라
- 다국어 표기 Umrah(아랍어), Ümmet(튀르키예어), Umma(우즈베크어), Ümmət(아제르바이잔어), Умма(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haj.gov.sa/en><https://www.youtube.com/watch?v=qZ9n4V9lZkE><https://www.youtube.com/watch?v=k3BhovGJMfo>
- 참고문헌(오프라인) Mohamed, Mamdouh. *Hajj & 'Umrah: From A to Z*. Beltsville, MD: Amana Publications, 1996. Paret, R. and Chaumont, E. "Umra." In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10, 864~866.

I F134 | 우바이둘라 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baydullaxon

우바이둘라 칸(Ubaydullaxon, 또는 Ubaydullah bin Mahmud bin Shah Budagh)은 1486년 호라즘 지역에서 태어났다. 우바이둘라 칸의 아버지이자 샤이버니이 칸(Shayboniyxon, 1451년~1510년)의 형제였던 마흐무드 술탄(Maxmud Sulton)은 호자 아흐러르(Xoja Axror, 1404년~1490년)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길 부탁했고 아흐러르는 자신의 본명 중 하나를 따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바이둘라 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유명 정치가이며 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압둘라 야마니이(Amir Abdulla Yamanii)에게서 군사학과 예술 관련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샤이버니이 칸의 1505년 호라즘 원정, 1506년 발흐 원정, 1507년 헤라트와 마쉬하드 원정에 종군한다. 그 후 1511년에 당시 샤이버니 조의 칸이었던 코츠클칸(Ko'chkhunchi-xon, 재위: 1511년~1530년)을 도와 사파비-버부르 동맹군을 패퇴시키고 부하라와 카르쉬의 통치권을 받게 된다. 사마르칸트를 무혈 정복하는 업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곧바로 코츠클칸에게 넘겨주고 부하라 통치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코츠클칸의 모든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사파비의 도전을 막고 1525년 메르브, 1529년 헤라트를 정복했다.

1533년 아부사이드 칸(Abusa'idxon, 재위: 1530년~1533년)이 사망하면서 그가 샤이버니 조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에 칸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칸에 오른 후 그는 먼저 수도를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옮겼다. 이후 그는 치세 동안 사파비 왕조의 영토 확장을 막는 데 애썼고, 이는 동시에 중앙아시아에 시아파의 확장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가 하면 부하라 칸국의 국제 관계를 위하여 오스만 왕조에 대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1538년 헤라트의 히바 칸국의 일부 영토를 정복한 후 호라즘 샤이버니 조가 이 영토를 돌려받아 매우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1539년 부라하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후 부하라 인근에 위치한 바히웃딘(Baxouddin)

복합단지 내 ‘왕들의 무덤(Daxmai shoxon)’에 묻혔다.

그렇다고 해서 우바이툴라 칸은 전쟁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치세 동안 부하라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지위가 함께 상승했다. 부하라에 모스크, 마드라사, 대교, 상·하수 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축물을 건설했으며 학문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면 그 자신도 시인으로 활약했다. 그는 우바이디이(Ubaydiy), 쿨 우바이디이(Qul Ubaydiy)와 같은 예명으로 투르크어, 페르시아어나 아랍어로 다양한 시 작품을 창작하고 투르크계 백성을 위하여 투르크어로 번역 작업을 하기도 했다. 573 수의 가잘(gazal)로 이루어진 데번(devon), 880수의 루바이(Rubai), 34수의 키타(qit'a), 16수의 파르드(fard), 32수의 마스나비(masnaviy), 10수의 무암모(muammo), 11수의 투육(tuyuk), 히크마트(hikmat)를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바이툴라한, 우베이툴라한, 우베이툴라칸
- 다국어 표기 Ubeydullah Han(튀르키예어), Ubaydullah khan(영어), عبیدالله خان ازبک(페르시아어), Ubaydullaxo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샤이버니이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С. Азимджанова. Государство Бабур в Кабуле и Индии. М., «Наука», 1977; К- Ражабов, Э. Очилов. Убайдуллахон. Т., «Abu matbuot-konsalt», 2011. А. Каюмов. Асарлар. (6-жилд). Т., «Mumtoz so'z», 2010. Yücel, Mualla Uydu. «Ubeydullah Ha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 2001, pp.22~23.

I F135 | 우바이툴라호자 아사둘라호자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언론인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Ubaydullaxo'ja Asadullaxo'jaev

우바이툴라호자 아사둘라호자예브(Ubaydullaxo'ja Asadullaxo'jaev)는 자디드(Jadid)운동의 주요 인물이며, 초창기 우즈베크 언론인이다. 그의 본명은 우바이툴라 호자예브(Ubaydulla Xo'jayev)이다. 그의 출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출처에 따라 1878년, 1882년, 1886년 등 여



우바이둘라호자 아사둘라호자예프
Source: <https://milliycha.uz/>

러 설이 있다.

그는 러시아어 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관에서 번역가로 근무하다 사라토프 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했다. 대학시절부터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러시아의 대 문호 ‘레오 톨스토이’와 편지를 주고받는 등 남다른 면이 있었다. 졸업 후에는 최초의 우즈베크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 후 1913년부터 타슈켄트 지방 법원에서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자디드운동에 합류했고 곧 자디드를 이끄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같은 해 ‘우미드(Umid: 희망)’라는 선진 이슬람 단체도 이끌었다. 우미드는 후에 타락키야파르바르(Taraqqiyparvar: 진보 지지자)로 이름을 변경했고, 투르크িস탄 자

디드운동의 주요 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그는 1913년 설립된 단체 ‘투런(Turon: 투란)’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1914년 4월 타슈켄트에서 발행된 신문 <투르크িস탄의 소리(Sadoi Turkiston)>의 발행과 편집을 맡았다. <투르크িস탄의 소리>에는 당대의 지식인 압둘라 아블러니이(Abdulla Avloniy), 무나바르 커리 압리쉬더브(Munavar qori Abdurashidov) 등이 참여했다. 신문은 일주일에 두 번 발행되었고, 이집트, 아라비아반도, 인도, 튀르키예를 비롯한 다른 나라 무슬림들의 삶과 소식이 기사로 실렸다. 당시 타타르스탄에서 발행되던 신문과 잡지에 실렸던 중요한 기사도 게재되었다. 특히 그는 신문 편집 이외에도 「목적과 조연(Maqsad va maslak)」, 「기념일 준비(Yubileyga hozirlanuv)」, 「감사와 기원(Tashakkur va o'tinch)」, 「샤리아법과 법에 따르면 우리의 땅의 일들이다(Shariat va zakun nazarida bizim ishlari)」, 「상업은 어떻게 되었는가?(Savdogarlik na o'ldi?)」, 「현금에 대한 증언은 존중 받을 만한가?(Naqd pul haqinda shahodat mo'tabarmi?)」, 「우리 아이들의 불행의 원인은 누구인가?(Bolalarimizning baxtsizligiga kim sabab?)」, 「우리에게 있는 도시 세금(Bizda shahar soligi)」과 같은 당대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다룬 칼럼을 집필했다.

그러나 투르크িস탄에서 시작된 모든 혁신을 식민정권의 타격으로 받아들여 확산을 저지하던 러시아 투르크িস탄 총독이 우바이둘라호자 아사둘라호자예브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1915년 <투르크িস탄의 소리(Sadoi Turkiston)>는 66호 발간 이후 각종 벌금이 부과되더니 곧

신문 발간이 중단되고 말았다. 신문 발행이 금지되자 안디잔으로 간 그는 러시아어로 <투르키스탄의 소리(Туркестанский голос)>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6년에 ‘투르키스탄 전시 동원 노동자 모집 위원회(Turkiston mardikorlikka olish qo‘mitasi)’의 의장을 맡아 노동에 관한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칙령을 저지시키기 위해 지역 유지이자 인도주의자인 미르코밀보이 미르모민보예브(Mirkomilboy Mirmo‘minboev)와 함께 페트로그라드로 떠났다. 그리고 결국 1916년 12월 두마 회의에서 이 법령이 러시아 제국의 법에 위반임을 입증했다.

그는 1917년 3월 타슈켄트에서 설립된 이슬람 위원회(Sho‘roi Islomiya)의 의장을 맡았고, 4월 제1차 전 투르키스탄 무슬림 대회에서 설립된 투르키스탄 무슬림의 ‘중앙 위원회(Markaziy Sho‘rosi)’의 서기 겸 위원으로 활동했다. 뒤이어 5월에는 전(全)러시아 무슬림 평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어 1918년 2월까지 투르키스탄 자치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런 많은 일을 진행시키는 동안 그는 좋지 않은 일도 여러 차례 겪어야만 했다. 1929년, 1931년, 1938년에 걸쳐 체포된 적이 있다. 1938년 2월 20일 타슈켄트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된 후 1939년 5월 14일에는 소련 NKVD 특별 위원회에 의해 노동 수용소 8년 형을 선고 받았고, 바로 당일 곧바로 코틀라스(Kaltos)역으로 수송되기도 했다. 그는 결국 1942년에 옥중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가 사망한 후 소련 당국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바이둘라호자 아사둘라호자예프
- 다국어 표기 Ubaydullaxo‘ja Asadullaxo‘jaev(우즈베크어), Убайдуллаходжа Асадуллаходжа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자디드운동, 자디드, 투르키스탄의 소리, 이슬람 위원회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ubaydullaxo-ja-asadullaxo-jayev-1878-1937>
<https://shosh.uz/uz/ubaydulla-xojaev-hidoyatbek-yurguli-va-boshqalar-turkiston-muxtoriyati-hukumati-vazirlarining-faoliyati-va-keyingi-taqdiri-3-qism/>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Karimov Naim, *Ubaydulla Xo‘jayev, 1937–1938 yillardagi “Katta qirg‘in”ning fojiali oqibatlari*, Toshkent, 2015.

I F136 | 우바이드 알라 호자 아흐라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bayd Allah Khoja Ahrar

1404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우바이드 알라 호자 아흐라르(Ubayd Allah Khoja Ahrar)는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며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20세가 되던 해 외삼촌이 그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사마르칸트로 데려가 마드라사에 입학하지만, 수피즘에 흥미를 느끼며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당시 알게 된 낙쉬반디 종단의 셰이크들과의 ‘대화’(수피즘에서 ‘대화’는 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리더의 지도에 따라 평화 속에서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에 열중한다. 그는 이미 사마르칸트에 머물던 초창기에는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낙쉬반디 종단의 유명한 셰이크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기에 2년 후 사파비 셰이크와의 대화에 참여한 다음 바로 헤라트로 향했다.

그리고 헤라트에서 쿠브라위야(Kubrawiya) 종단의 셰이크와 수피들의 대화에 참여한다. 1431년 낙쉬반디 종단의 셰이크 ‘야쿠비 체르히’(Ya‘kūb-i Cherhī)를 스승으로 모시고 석 달 가량 그의 대화에 참여한 후, 비로소 셰이크로부터 할리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후 1432년 타슈켄트에서부터 지도활동을 시작하며 농업과 상업을 병행했다. 1451년에는 사마르칸트를 정복한 티무르 조의 ‘아부 사이드 미르자’(Abu Sa‘id Mirza, 재위: 1451년~1469년)의 초대를 받고 사마르칸트로 이주한다. 사마르칸트 이주 후에는 상업과 농업 활동에 종사하며 인근 여러 도시의 많은 가게와 토지, 수로 등을 구매하여 그중 일부는 모스크와 마드라사, 텍케에 기부했다. 또한 ‘술탄 아흐마드 미르자’(Sultan Ahmed Mirza, 1469년~1494년) 통치 시대였던 1485년, 비무슬림 몽골인들과 우즈베크 군인들 사이의 전쟁을 막아냈다. 하지만 1490년 2월 20일 사마르칸트에서 사망하여 그곳에 묻혔다. 그에겐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으며 많은 작품과 제자를 남겼다. 그의 제자로 이어지는 낙쉬반디 종단의 계보를 아흐라이예(Ahrāriyye)라고 부른다.

생전에 그는 민중에 봉사하며, 술탄의 압제에서 민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중재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술탄 곁에서 술탄이 종교에

어긋난 활동과 압제를 행하려 하는 경우 막아서기도 했다. 그는 압제 받는 자를 구하는 것이 허무한 기도보다 우선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노동하여 돈을 버는 것을 중요히 여겼으며 누구로부터도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학술적으로는 존재의 단일성(Wahdat al-Wujūd) 사상을 받아들여 대화 때마다 ‘이븐 아라비’(Ibn Arabi, 1165년~1240년)의 저술을 인용했으며 자신의 저서에서도 이 사상을 바탕으로 저술했다. 황홀경 순간을 풍자적인 어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한 그는 “내가 옳다고 말하기는 쉽고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입문자들이 때때로 이 슬람의 규칙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욕하거나 심지어 개 한 마리를 불편케 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죽음 후에도 수피즘의 길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디스와 코란의 구절을 인용하며 말하기도 했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제자들에게 쓴 편지와 수피즘의 여러 개념을 주제로 쓴 글로 이루어진 『농담들(Fıkarât)』, 아부 사이드 아불 하이유(Abu Sa'id Abu'l-Khayr, 967년~1049년)의 『천국의 소녀들(havrâ)의 주해본(Risâle-i Havrâ'iyye)』, 그의 아버지가 좀 더 높은 영적 상태에도 달할 수 있는 조언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으로 쓴 『아버지의 책(Risâle-i Vâliyye)』, 친구들에게 쓴 편지를 모은 『편지들(Ruḳa'ât)』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베이둘라 아흐라르, 호자 아흐러르

● 다국어 표기 Khwaja Ahrar(영어), Ubeydullah Ahrâr(튀르키예어), Xacə Əhrar(아제르바이잔어), Xoja Ahror(우즈베크어), Xoja Axpap(카자흐어), Hoja Ahrar(투르크멘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ahrar-kaja-obaydallah-b>

● 참고문헌(오프라인) Tosun, Necdet. “UBEYDULLAH AHRÂ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 TDV, 2012, pp.19~20.

Tosun, Necdet. *Bahâeddîn Nakşibend: Hayatı, Görüşleri, Tarikati*, İstanbul; İnsan Yayınları, 2002.

I F137 | 우비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Ubir

우비르(Ubir)는 카잔 타타르, 타타르-미샤리, 서시베리아 타타르, 바시키르 신화에 등장하는 흡혈 귀신이다. 추바시 신화의 부바르, 부파르(Вубар, Вупар)와 바시키르 신화의 우피르(упырь)와 같다. 우비르는 공통 투르크어 오비르(obur)에서 유래하는데, ‘빨아들이다’, ‘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바시키르 민담에서 우비르는 피나 뇌수를 빨아먹는 노파로 등장하며 아이들을 잡아먹는 러시아의 바바-야가(Баба-яга)의 형상과도 유사하다. 우비르는 마법사의 영혼을 바꾸고 그를 조정한다. 그래서 서 시베리아 타타르 신화에서 우비르는 죽은 마법사나 자살한 이의 율혼이라고 한다. 우비르가 갖든 마법사를 ‘우비르리 케세’(убырлы кеше) 또는 ‘우비르리 카르칙’(убырлы карчык)이라고 부른다. 그는 마법의 힘을 가졌기에 그 힘으로 인간을 해친다.

카잔 타타르와 바시키르 신화에서는 우비르가 특히 임신한 여성에게 위험한데,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를 훔쳐 감추기 때문이다. 밤에 우비르는 마법사의 몸을 떠나기도 하는데 겨드랑이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 드나든다. 드나들 때는 불타는 공의 형상이나 불타는 바퀴, 개, 고양이, 돼지, 때로는 살이 없는 인간의 형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우비르는 집안 가축의 새끼들을 훔치기도 하고 젖소나 암말의 우유를 빨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인간에게 병을 옮기기도 한다. 숙주 마법사가 죽으면 우비르는 마법사의 무덤에 살면서 밤마다 무덤의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다. 우비르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비르가 살고 있는 무덤을 파서 참나무 말뚝을 박거나 죽은 이의 발바닥에 바늘을 찔러야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브르
- 다국어 표기 Ubir(아제르바이잔어), Убыр(러시아어), Ubir(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2, 544.

I F138 | 우스먼 너시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Usmon Nos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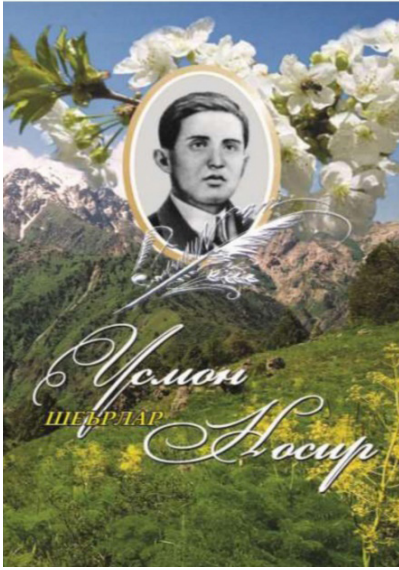
우스먼 너시르(Usmon Nosir)는 우즈베크의 시인이자 번역가 및 극작가이다. 1930년대 초 그는 우즈베크 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다.

그는 1913년에 나망간(Namangan)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코칸트로 이주했다. 신식 기숙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29년 문학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932년 그의 첫 시집인 『태양과의 대화(Quyosh bilan suhbat)』가 발표되고, 뒤를 이어서 차례로 『동원된 글(Safarbar satrlar)』과 『트랙터들의 나라(Traktorobod)』가 출간되었다. 「마음(Yurak, 1935)」과 「애정(Mehrim, 1936)」은 발표된 후 독자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모스크바의 언론이 ‘동방에서 푸쉬킨(Pushkin)이 등장했다’고 평할 정도였다.

그의 서사시 「노르보타(Norbo'ta, 1932)」는 우즈베키스탄에 일어났던 내전을 주제로 했으며, 「나흐션(Naxshon)」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유를 위한 열망을 묘사했다. 그밖에도 고대 세계 노예들의 투쟁을 반영한 「나일과 로마(Nil va Rim)」와 같은 시는 우즈베크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시로 남겨질만큼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우스먼 너시르의 시는 활력이 넘치고, 혁명적인 동시에 단순한 매력으로 독자들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우스먼 너시르의 작품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우스먼 너시르 자신도 외국 작가의 시를 번역하기도 했다. 그가 번역한 푸시킨의 『바흐치사라이의 분수』와 레르몬토프 『악마』는 번역시로서도 높이 평가 받는다.

시뿐만 아니라 희곡 창작도 이미 18세에 시작했다. 『나지르전 할리러브(Nazirjon Halilov)』, 『우승(Zafar)』, 『승리(G'alaba)』, 『원수(Dushman)』, 『아틀라스(Atlas)』와 같은 희곡 작품이 있다. 우스먼 너시르의 희곡은 우즈베크의 젊은 작가들의 희곡 중에서도 당시 현안을 반영한 독특한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1937년 7월 13일 그는 작가연합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이유로 탈퇴를 당했다. 심지어 ‘국민의 적’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까지 당하게 된다. 그 후로 여러 교도소와 수용소를 전전했고, 1943년에는 시베리아의 감옥에 투옥된다. 시베리아에 투옥되기 전



우스먼 너시르의 시집
Source: https://kitobxon.com/img_knigi

인 1940년 8월 20일 스탈린에게 자신의 사건을 고려해달라고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른바 ‘국민들의 아버지(스탈린)’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에서 자신은 옥중에서도 소설과 세 편의 희곡, 시를 썼다는 사실과 함께 아직 젊고 열정이 넘치니 인민을 위한 창작을 계속해야 하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청원서는 스탈린에게 전달됐고, 스탈린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그의 청원서를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1944년 말 비로소 버러커브(Borokov) 교수, 시인 막수드 샤이크흐저다(Maqsud Shaykhzoda)와 당시 신문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편집장인 싯디크라자버브(Siddiq Rajabov)로 심사위원단이 구성됐다. 심사 후 심사위원단은 우스먼 너시르가 무죄임을 선고했지만, 불행히도 그땐 이미 우스먼 너시르가 사망한 후였다.

우스먼 너시르는 무죄 선고를 듣지 못하고 1944년 3월 9일 사망했다. 그가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난 2003년이 되어서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 시인 우스먼 너시르 탄생 90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스먼 노시르, 우스먼 노스르
- 다국어 표기 Usmon Nosir(우즈베크어), Усман Насыр(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usman-nasyr>
<https://centrasia.org/newsA.php?st=1524990840>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Karimov Naim, *Usmon Nosir*, Toshkent: Sharq nashriyoti, 1993.

I F139 | 우스투우 후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사원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stuu-Khuree

불교 수도원인 우스투우 후레(Ustuu-Khuree)는 투바 공화국 춘 캄치키스키 주(Dzun-Khemchiksky)에 1905년~1907년 건설되었다. 당시 투바의 불교 지도자인 캄바 라마는 유르트, 즉 거주형 천막으로 된 수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수도원을 건설했는데 건설과정에서 하이둡의 ‘노아흐 노얀’이 명령했고, 티베트의 라마 ‘쿤타나 림포체’와 지역 주민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설계는 중국 건축가가 맡았다. 실제 1930년대까지 당시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으나, 이후 소련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 폐쇄 당시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는 라마였으며 잠시 잔존했다가 1937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사원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결국 어도비로 된 큰 벽 정도만 남게 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가 1992년 달라이 라마가 투바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우스투우 후레를 방문하여 “이곳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의 메시지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투바인들이 수도원 복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1999년 정부는 사원의 복원을 계획했고 이후 수도원 복원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인식 재고를 위하여 민속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그렇게 폐허에 남은 유적에 수도원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처음 복원은 원래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하기로 했으나, 인근 지역에 복원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원 작업이 2012년에 완료되었다. 현재 우스투우 후레는 투바에서 가장 큰 불교 수도원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 수도원은 1999년 처음 개최되었던 민속 음악 페스티벌인 우스투우 후레(Устүү-Хүрээ)의 개최지로 매년 활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으스투 후레, 으스투 후레에, 위스튀 후레
- 다국어 표기 Устүү-Хүрээ(러시아어), Устүү-Хүрээ(투바어), Üstü Xure(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티베트 불교, 캄바 라마, 투바
- 참고문헌(온라인) 우스투 후레 공식 사이트: <http://ustuhure.com/>



우스투우 후레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참고문헌(오프라인) Yu, Lepekhov S. “The Religious Policy of the Russian Government towards Buddhism at the End of the 19th and Beginning of the 20th Centu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20, 2013.02, 145~161

I F140 | 우스티-에디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Ust-Edigan

우스티-에디간(Ust-Edigan) 유적은 알타이의 카툰(Катун, Katun)강 우측 지류인 에디간(Эдиган, Edigan)강의 입구에서 남쪽으로 3k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흉노시기의 무덤 69기가 발굴되었다. 무덤은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가장 상부는 화산암 돌로 덮여 있는데 주로 원형으로 혹은 고리 모양의 돌을 얹었다. 그 아래에는 타원형 혹은 장방형 무덤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 안에 돌상자 혹은 드물게 나무상자 모양의 관이 설치되었는데, 관이 설치되지 않은 무덤은 드물다.

무덤은 대체로 동향이며 안에는 인간과 말이 매장되어 있다. 인간은 남녀 모두 매장되었으며 하늘을 보거나 혹은 옆으로 누운 것으로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많은 반면 함께 매장된 말은 하늘을 위로 한 자세로 부장되었다.

무덤에서는 골제 화살촉을 비롯해서 철제 검, 둥근 고리 모양의 허리띠 장식, 손가락 모양이 달린 허리끈 조이개, 버클, 청동 거울, 칼, 토기, 재갈과 재갈멈치, 장신구, 목제그릇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A.D. 1세기~A.D. 2세기로 보는 의견과 B.C. 2세기~B.C. 1세기까지 올라간다는 의견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스트-에디간

● 다국어 표기 Усть-Эдиг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ерегин Н.Н. Матренин С.С. 2016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во II в. до н.э. - XI в. н.э.; Ю.Н. Гаркуша, Ю.С. Худяков. 1994. Коллективное погребение поздне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могильнике Усть-Эдиган//Кирюшин Ю.Ф. (отв. ред.)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графия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орник тезисов докладов.

I F141 | 우야브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Uyav

우야브(Uyav)는 다양한 게임과 강강술래와 같은 라운드 댄스를 기반으로 한 추바시 문화이자 민속 전통 및 관습이다. 초기에 ‘우야브’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의식이라는 뜻을 의미했지만 이후, 우야브는 그 뜻이 바뀌어 휴일, 의식 축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야브는 라운드 댄스 및 청소년 게임을 통한 추바시인들의 단결을 도모와 더불어 작물의 풍부한 수확과 강수의 기원과 같은 자연의 힘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기반으로 한다.

우야브는 봄철 밭 작업을 시작으로 3주, 5주, 7주(반드시 홀수) 동안 지속된다. 시작은 풍요로운 수확의 안녕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며, 이 기간에 농업 활동, 짙은 색 혹은 혼합된 색의 옷을 입는 것, 세탁, 청소 및 세탁 시설에 대한 금기가 전통적으로 고수된다. 또한 불을 피워 음식을 가열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추바시인들은 우야브 기간 동안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 또한 우야브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추바시인들의 집에 들러 추바시 전통 음식인 크바스를 대접받는다.

우야브 기간에 추바시인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춤을 추는데 특히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그 주변을 빙빙 돌며 춤을 춘다. 추바시 소년과 소녀들은 손을 맞잡고 음악에 맞춰 불 주위를 걷는데, 노래의 각 구절이 끝날 때마다 방향을 바꾸며 춤을 춘다. 이때 연주되는 곡은 생명을 주는 자연의 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춤을 추며 동시에 추바시인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랫소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마을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기를 기원한다.

우야브의 연례 개최는 추바시 공화국의 전통과 역사적, 영적 가치, 추바시 문화의 보존 및 발전, 민족 단결을 위한 전통 문화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야프
- 다국어 표기 Уяв(러시아어), Uyav(영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인, 추바시공화국

● 참고문헌(온라인) <http://enc.cap.ru/?t=publ&lnk=525>

<https://www.culture.ru/events/1095442/respublikanskii-prazdnik-chuvashskoi-kultury-uyav>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шуева, Любовь Ивановна. «Уяв» Александра Васильева как явление чувашской хоровой культуры. Музыка. Искусство, наука, практика, 2013, 2: 69~75.

I F142 | 우엘리올라흐 에블만수르 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blai Khan

우엘리올라흐 에블만수르 칸(УәлиҰллаһ Әбілмансұр хан)은 1711년 카자흐스탄 남주 투르키스탄에서 출생하여 1781년 타슈켄트에서 사망한 카자흐 칸국의 18대 칸이었다. 그는 칭기즈 칸의 후손이라 전해지며 당시 동쪽의 준가르 및 청국과 서쪽의 제정 러시아 사이에서 뛰어난 외교술을 발휘하여 칸국의 안전을 유지한 영웅적인 국가 지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의 또 다른 호칭은 아블라이 칸(Ablai Khan)이었다. 그의 본명은 에블만수르(Әбілмансұр)이나 그가 준가르족과의 전투에서 조부인 “카니세르 아블라이”를 외친 데서 ‘아블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에블만수르 칸의 명성은 준가르족의 격퇴와 관련이 깊다.

18세기 카자흐 칸국은 1718년 ‘타우케 칸’ 사후 3개 쥬즈의 분열이 심화되어 대외적 침략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칸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카자흐인들을 공격하던 준가르족의 기세는 매우 높았고 카자흐인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그러던 중 1742년에 준가르족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1년간 그들과 생활하기도 한 에블만수르 칸은 서쪽에서 점차 팽창하던



우엘리올라흐 에블만수르 칸이 그려진 카자흐스탄 우표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우엘리울라흐 에블만수르 칸이 그려진 카자흐스탄 화폐

제정 러시아의 존재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준가르를 멸한 청국의 진출에도 우려를 표명하며 혼란한 시대에 카자흐 칸국의 안위를 위한 묘책을 연구했다. 고심 끝에 내린 그의 책략은 청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것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지내며 더 이상의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런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며 에블만수르 칸은 1771년에 3개 쥬즈를 통합하는 칸으로 선출되었고 카자흐 칸국의 세력은 다시 강성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1773년에는 제정 러시아에서 발생한 푸가초프의 봉기에도 가담할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1881년 에블만수르 칸이 사망한 후 자식들 간의 불화가 발생하면서 카자흐 칸국의 힘은 다시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독립 국가 카자흐스탄의 지폐 초상화에 에블만수르 칸이 사용된 적이 있고(1993년~2006년, 100 텡게화), 현재는 알마티에 있는 국제관계 대학교 정식 명칭이 ‘아블라이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교(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라고 할 만큼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위인 중 하나로 존경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블라이 칸, 에블만수르
- 다국어 표기 Әбілмансұр(카자흐어), Абылай х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8-_tybhm5U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ru/prominent-figures/show/12614/>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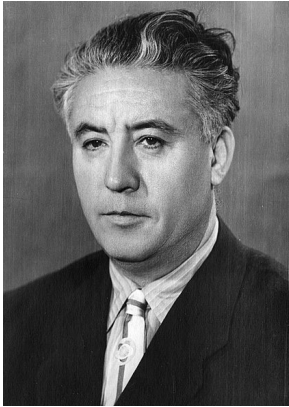
I F143 | 우이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Uyg'un

우이군(Uyg'un)은 1905년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출생신고에 기록된 그의 본명은 라흐마툴라 어타코지예브(Rahmatulla Otaqo'ziyev)이다. 그는 1923년~1925년 카를 마르크스 타슈켄트 교육 기술학교에서 수학한 후 1925년에는 타슈켄트 농업 기술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1927년에 사마르칸트 교육 아카데미에 입학했는데 이 아카데미 재학 기간 중의 다양한 경험은 이후 우이군이 문학인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 그는 1930년 대학 졸업 후 출판사와 잡지사 그리고 과학아카데미 언어 문학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그는 다양한 직업과 직책을 거치면서도 창작을 꾸준히 이어갔다.

1925년 문단에 첫발을 내디뎠던 우이군은 1928년 첫 번째 시집 『봄의 즐거움(Bahor sevinchlari)』을 발표한다. 이 시집에서 우이군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노동, 시대정신을 담아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수사가 많아 미숙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 후 시인 우이군의 도약은 1933년에 발표된 시집 『두 번째 책(Ikkinchi kitob)』에서 볼 수 있었다. 이어 우이군은 『태양의 나라(Quyosh o'lkasi, 1936)』, 『우이군 시선집(Uyg'unning she'rlari, 1936)』, 『사랑(Muhabbat, 1939)』과 같은 시집을 발표했다. 이 작품들에서는 우이군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독창적인 스타일이 더욱 돋보였는데, 1930년대 우이군의 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조국 건설, 국민들의 삶과 자유, 노동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과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문제로까지 주제를 확대해 주목을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우이군은 전시 상황에 맞아 여러 시집을 출간한다. 『승리의 노래(Zafar taronalari, 1942)』, 『분노와 사랑(Gazab va muhabbat, 1943)』, 『시선집(She'rlar, 1944)』에서는 전시 현안 문제를 다루었다. 「나의 전사 친구에게(Jangchi do'stinga)」, 「영웅(Qahramon)」, 「파르티잔들(Partizanlar)」, 「분노(G'azab)」, 「나는 너를 안다(Seni men



우이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uz/>

taniyman)」 등은 우즈베크군을 소재로 한 전쟁시의 사례로 꼽힌다.

전후에는 시집 『우즈베키스탄(O'zbekiston, 1947)』, 『삶에 대한 애착(Hayot ishqi, 1948)』, 『시선집(Tanlangan asarlar, 1974)』을 출간했다. 전후 발간된 시집에서는 전후 우즈베크인이 겪게 된 삶, 목화 재배에서 얻은 높은 수확량, 처녀지를 개발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동과 같은 내용을 소재로 다루면서 주로 우정과 평화, 조국애를 주제로 삼았다. 그런가 하면 음모, 뇌물수수 행위, 아침, 타락이나 불성실과 같은 악덕에 맞서는 도구로 풍자를 사용하면서 풍자 시인의 면모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시집 『선물(Hadya)』에서는 다양한 동시(童詩)를 선보이기도 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자 우이군은 희곡까지 창작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대표작으로 「어머니(Ona, 1942)」, 「짓궂은 농담(Qaltis xazil, 1944)」, 「삶의 노래(Hayot qo'shig'i, 1947)」, 「작품들(Asarlar, 1947)」, 「황금호수(Oltin ko'l, 1948)」, 「마지막 후회(So'ngi pushaymon, 1955)」, 「자유(Hurriyat, 1958)」, 「벚꽃들(Do'stlar, 1961)」, 「소용돌이(Girdob, 1962)」, 「거룩한 의무(Muqaddas burch, 1965)」, 「비상(Parvoz, 1966)」, 「명칭이(Laqma, 1971)」, 「덧(Qopqon, 1975)」, 「아부 알리 이븐 시나(Abu Ali ibn Sino, 1980)」 등이 있다. 그가 그런 삶의 현실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이다. 「아부 알리 이븐 시나(Abu Ali ibn Sino)」나 「알리셰르 나버이이(Alisher Navoyi)」는 과거 우즈베크인들의 역사적 현실을 보여준 작품이다. 우즈베크 민족의 역사와 선조들의 위대한 선업을 조명했다. 현재에 직면한 우즈베크인들의 고단하고 피폐한 현실 속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이군은 문학평론가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푸쉬킨, 톨스토이, 레르몬토프, 세브첸코, 셰익스피어, 안톤 체호프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과 카라칼파크 서사시 「40명의 소녀(Qirq qiz)」를 우즈베크어로 옮기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그의 작품활동과 업적은 현대 우즈베크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시와 극작법의 발전 부문에서 그의 공헌을 높이 평가받았고, 1957년 '우즈베키스탄 명예 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이어 196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 칭호를 받았다. 1974년에

그는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의 정식회원이 되었고, 1967년에는 함자 국가상을 수상했다. 1985년에는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다.

우이군은 1990년 4월 22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흐마틀라 어타코지예브 우이군, 라흐마틀라 어타코지예프
- 다국어 표기 Uyg'un(우즈베크어), Уйгу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라칼파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uyg-un-1905-1990>
- 참고문헌(오프라인) Ahmadjonova K., *Uyg'un - lirik shoir*,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79.
Kattabekov A. va boshqalar, *O'zbek sovet adabiyoti tarixi*, Toshkent: O'qituvchi, 1990.
Mirzayev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F144 | 우즈베크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Uzbek Language

우즈베크어는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일부 집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천만명의 우즈베크인이 있으며, 그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 등지에 약 5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크어는 최소 2천 5백만명 정도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라 할 수 있다.

어학적으로 우즈베크어는 투르크어족 중 동남 투르크어 그룹인 차가타이 투르크어, 카를루크 그룹으로 분류되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이 사용하는 위구르어와 가장 비슷하다. 우즈베크어에는 종교적 요인으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가장 많이 반영되

어 있으며, 과거 소련의 통치로 인하여 러시아 차용어가 많이 발견된다. 다만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이 정부 차원에서 외래어를 우즈베크어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크어는 표기를 위하여 다양한 문자를 사용했다. 1928년 이전에는 아랍 문자로 표기를 했지만, 이후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자 문자 체계에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29년 아랍 문자가 새로운 알파벳(Yanalif)이라고 하는 새로운 라틴 문자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1940년 후반에 또 한 차례 변화가 일어나 라틴 문자의 사용이 폐지되고 키릴 문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1993년 라틴 문자가 다시 사용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언은 각 지역별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즈베크어 방언은 크게 오구즈(O'g'uz) 방언, 킵차크(Qipchoq) 방언, 타슈켄트-페르가나(Toshkent-Farg'ona) 방언으로 나뉜다. 통상 표준 우즈베크어는 타슈켄트-페르가나 방언을 토대로 하는데 타슈켄트-페르가나의 방언은 투르크어의 특징인 모음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즈베크어, 우즈베크어, 오즈베크어
- 다국어 표기 Узбек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乌孜别克语(중국어), Idioma uzbeko(스페인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페르가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Mashrabbekova Aziza, 이지은. 『우즈베크어 표준 교재』, HUINE, 2019.
Azimove Nigora. *Uzbek Language An Intermediate textbook*,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0.

I F145 | 우즈베크 유제품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Sut mahsulotlari

우즈베크 전통요리에서 우유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재료이다. 정확히는 산악 지역의 양젖, 염소 젖, 낙타 젖, 말젖 등이 사용된다. 우유로 만드는 유제품으로는 카이막(qaymoq), 카틱



딸기와 섞은 카이맥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카틱

(qatiq/요거트), 아이런(ayron), 수즈마(suzma), 쿠르탑(qurtob/qurt), 사르요그(saryog'/버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제품은 단독으로 먹기도 하고, 요리 재료로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우즈베크 유제품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카이맥(qaymoq): 신선한 우유(젖)를 끓여 용기에 붓고 면보를 덮어 서늘한 곳에 12시간~15시간 둔다. 이 우유 위에 생긴 두꺼운 막, 즉 지방층(카이맥/qaymoq)을 거두어 다른 용기에 옮겨 서늘한 곳에 옮기는 것을 2일~3일간 반복한다. 덜어낸 막을 1분~2분 동안 끓여 섞어 식히면 카이맥이 된다. 주로 아침 식사에 먹거나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다. 현대화된 농가에서는 따로 기계가 있어 우유를 식혀 바로 지방층을 분리할 수 있다.
- 카틱(qatiq/요거트): 지방이 분리된 우유(젖)이나 갓 짠 젖을 끓인 후 상온에서 식힌다. 그 다음 유산균을 넣고 잘 섞어 밀봉한 다음 10시간~12시간 둔다. 카틱 만드는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요거트 만드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다.
- 수즈마(suzma): 수즈마는 우즈베크어의 '거르다'는 뜻의 동사 어근인 '수즈(suz-)'에서 파생된 말이다. 카틱을 면보에 넣어 20시간~24시간 매달아 둔다. 장시간 매달아두면 서서히 유청이 걸러지고 남은 부분은 보 안에서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굳어진 부분이 수즈마이다. 수즈마는 샐러드용 치즈로 사용되거나, 국물 있는 음

식에 넣기도 한다.

- 기타 그 밖에 쿠르텡과 아이런 역시 수즈마를 이용해 만든 대표적인 음식이다. 쿠르텡은 우즈베크어 동사 ‘말리다’라는 의미의 동사 어근 ‘쿠르(qur-)’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수즈마를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리면 쿠르텡이 된다. 또한 아이런은 수즈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청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물을 넣거나, 카탁에 물을 넣어 만든다.

우즈베크인의 유제품은 유목 문화를 공유한 중앙아시아 국가와 다른 투르크 민족의 식문화와도 공통점이 많다. 투르크인들의 유제품에서는 같은 어원을 가진 식품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트 마흐솔로트라리

● 다국어 표기 Sut mahsulotlari(우즈베크어), sūt ürünü(튀르키예어), Süd məhsulları(아제르바이잔어), Cyt тағамдары(카자흐어)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K. Maxmudov, *O'zbek tansiq taomlari*, Toshkent: Mehnat, 1989.

I F146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Uzbekistan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국토 면적은 447,000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3,200만 명으로 구소련이었던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름은 ‘우즈(Uz, 자신 의)’ + ‘베크(Bek, 왕)’ + ‘스탄(Stan, 땅, 나라)’이 합쳐진 말로, ‘자신들의 왕을 가진 나라’, 즉 다



우즈베키스탄 국기

른 민족에게 지배받지 않는 독립된 나라임을 뜻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3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공식 통계상으로는 80% 이상이 우즈베크인이며, 그다음으로 많은 민족은 타지크인이다. 수도는 타슈켄트이고 1개의 자치공화국과 12개의 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나라로서, 고려인 동포 약 18만명께서 거주하여 한국과는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국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크로드 문명의 중심이었던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더욱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9년부터 항공편이 증편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는 가스 및 전력 등 에너지, 자동차, 섬유, 물류, 금융 등 전통적 협력관계에서 ICT, 5G, 보건의료,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우즈베키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탄의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많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여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수교 이래 1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 교류와 이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는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즈베키스탄
- 다국어 표기 O'zbekiston(우즈베크어) Özbekist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실크로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Uzbekistan#/media/File:Flag_of_Uzbekistan.svg
- 참고문헌(온라인) http://overseas.mofa.go.kr/uz-ko/wpge/m_8537/contents.do(외교부)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1997.

I F147 | 우콕공주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미라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Printsessa Ukoka (Princess of Ukok)

1990년대 러시아 연방 공화국인 알타이 공화국의 우콕 고원에서 수행되었던 고분 발굴 작업에서 발견된 2500년 된 여성 미라를 <알타이 공주> 또는 <우콕 공주>라고 부른다. 이 미라는 스키타이-파지릭 문화권 유적에서 출토된 후 노보시비르스크로 이송되었고, 이송 후 알타이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알타이인들은 이 여성 미라가 공주 혹은 샤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라의 발굴 이후 이 지역에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믿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청원을 하기 시작했다.

2012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알타이로 가져온 이 미라는 현재 아노힌 국립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미라를 다시 영원한 안식처인 고분 속에 매장하여 공주(혹은 샤먼)의 영혼이 편안하고, 지역민들이 또 다른 재난이나 재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알타이 공화국의 고르노-알타이스크(Gorno-Altaysk)시 법원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샤머니즘의 조상 숭배의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조상과 그들의 안식처(무덤)에 대한 존경, 그리고 두려움은, 샤머니즘을 믿는 이 지역 투르크인들의 신앙 세계에 깊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스키타이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전투로 인해 손상될 것을 꺼려하여,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와의 전투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한번 모욕해보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당신들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틸라의 1차 발칸 원정을 정당하기 위해 비잔틴 제국의 마고스 주교가 훈족 통치자 가족묘를 도굴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사태를 두고 하자르인들은 “그가 죽어 문혔을 때 절을 하지 않고는 말에서 내려 무덤을 지나갈 수 없었으며, 무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한 다시는 말을 타고 돌아갈 수 없었다.(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알타이인들이 여성 미라가 다시 고분 속에 안치되기를 바라는 것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샤머니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콕공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타이공주
- 다국어 표기 Принцесса Укока (러시아어), Ukok Prensesi, Altay Prensesi (튀르키예어), Princess of Ukok, Ice Maiden (영어).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훈, 알타이적 현상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siarussia.ru/news/11019/>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 (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I F148 | 우투란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Wutulan

우투란 유적은 중국 신장성 일리카나흐자치주(伊犁哈薩克自治州) 니러커현(尼勒克縣)에 있는 카스강 남안의 하안 단구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모두 154기의 무덤이 분포해 있는데 무덤은 토광묘이며, 피장자는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가슴 앞에 둔 측신굴지의 자세로 안치되었다. 인골 위에는 붉은 돌가루를 뿌린 정황이 확인되며, 토기를 함께 매납했다.

2013년~2014년 신장 문물고고연구소에서 무덤 17기, 제사 유구 3기를 발굴했는데 청동기시대 무덤과 제사 유구 이외에도 초기 철기시대, 전국시대~한대 무덤 등이 포함되었다. 철기시대 무덤은 구덩이를 수직으로 파고 다시 동굴처럼 들어간 수혈편실묘와 구덩이를 파서 만든 수혈 토광묘도 발견되었다.

이곳은 신장 지역에서 체무레첵 문화 다음 단계의 시베리아 안드로노보 문화에 해당하는 시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청동기시대 무덤이 시베리아 안드로노보 문화와 매우 유사하며 함께 매장한 토기가 전형적인 안드로노보 문화의 것이다. 다만 시베리아 서부에는 목관묘를 만드는데, 이 유적에서는 다른 무덤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드로노보 문화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투란
- 다국어 표기 烏吐蘭(중국어)
- 연관 검색어 안드로노보 문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文物考古研究所, 「新疆尼勒克烏吐蘭墓地發掘簡報」, 『文物』12期, 文物出版社, 2014.

I F149 | 운두르 도브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Undur Dov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동북에서 남서 방향으로 흘러가는 헤를렌 강 우측에는 흉노 시대의 성터가 5기 존재한다. 5기는 북에서 남쪽으로 테렐진 두르불진, 부르HING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 성터가 일렬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운두르 도브 유적이다. 5기 중 가장 큰 유적은 후레트 도브 유적이고 나머지는 비슷하다.

발굴 연도는 1925년이었으나 1950년대 페를레가 유적의 평면도를 제작했다. 유적은 4면이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쪽벽의 길이는 285m, 동쪽벽은 292m, 북벽은 255m, 남벽은 285m이다. 높이는 2m~3m 정도이다. 성벽의 서쪽에 3개의 치가 남아 있으며 북벽에는 8개, 동벽에는 6개, 남벽에는 5개가 있고 각 벽의 모서리에는 큰 방어시설이 남아 있다. 그리고 헤를렌 강을 따라 배치된 유적이 20km~30km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성터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서 배치되는 양상은 몽골 제국 시대의 카한 계절 궁전과 수도에서 발견된 성의 배치와 유사한 것으로 계절 궁전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계절 궁전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역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몽골 제국의 카한은 수도에서 각종 대회가 열리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머물렀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수도 주변에는 여름 궁전이나 겨울 궁전과 같은 계절 궁전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례를 볼 때 헤를렌 강변의 5개 성지도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후레트 도브 유적은 주변에서 생산 유적이 발견되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고, 나머지 4개는 계절성 궁전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 운두르 도브 유적과 부르HING 두르불진 유적은 봄과 가을 궁전 지일 가능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운도르 도프

● 다국어 표기 Undur Dov(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TAR.

에릭센, 양시은 2017,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I F150 | 울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Ülgen

울겐(Ülgen)은 알타이, 하카스, 쇼르, 몽골 민족의 샤머니즘에 등장하는 최고신이자 창조주
로, 뇌우와 번개를 다스린다. 지역에 따라 유르겐(Юргень)으로 부르기도 한다. 울겐의 다른 이
름은 ‘밝은 이’, ‘흰 존재’, ‘희고 환한 것’, ‘하얗고 가장 밝은 지배자’, ‘번개의 지배자’, ‘뇌우의
지배자’, ‘불로 태우는 자’, ‘태양과 달을 움직이는 자’, ‘푸르른 자’, ‘부유한 자’, ‘풍요로운 이’
등의 의미를 가진다. 또 쿠르부스탄-아카(아버지 쿠르부스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몽골
의 호르무스타와 비슷하다.

울겐은 우주의 가장 높은 중앙점에서 전체 천체 위에 위치한 황금 대문의 황금 궁전에 있는
황금 왕좌에 앉아 있다. 울겐의 어머니는 타즈-카안(Таз-каан)이고 아내는 차아신 또는 솔톤
(Чаашин, Солтон)이다. 때때로 그는 긴 수염의 노인으로 묘사되는데(예를 들면 쇼르 신화) 세
개의 얼굴을 가진 그는 세 아들을 거느린다고 한다. 세 아들은 테미르-카안(Темир-каан), 솔
티간(Солтыган), 디아지간(Дьажиган)이다. 하지만 울겐에게 일곱 아들과 ‘순결한 처녀’인
일곱 딸(또는 아홉, 또는 열 둘)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빛나는 하늘의 신이자 울겐의 신성
을 차지하며 울겐과 인간을 매개하는 디아이이크(Дьайык, 야이이크Яйык으로도 표기)를 울
겐의 아들로 보기도 한다. 울겐은 에를릭과 대립하면서 그를 복종시키는데, 에를릭을 울겐의 형
제로 보기도 하고 울겐의 피조물로 보기도 한다.

어떤 신화에서는 어느 날 울겐이 태초의 광활한 대양에서 목욕을 했는데, 몸을 말릴 섬을 밟

견하지 못해 물에서 튀어나온 새의 형상을 한 작은 돌덩이 위에 앉았다. 그리고 울겐은 역시 새의 형상을 한 에를릭에게 대양의 바닥에 구멍을 뚫으라고 지시했다. 다른 신화에서는 울겐이 대지와 하늘, 모든 생물과 대지를 지탱하는 거대한 물고기를 창조했다고 한다. 「쇼르 신화」에서 에를릭과 함께 허공에 있던 울겐이 심심해서 하늘과 태양, 달과 별, 대지를 만들자, 에를릭은 대지를 움직여 산을 만들었고 울겐이 그중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을 골라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고 한다. 「알타이 신화」는 황금 산(알틴 투 Алтын ту)에서 세계를 창조했지만, 에를릭이 나쁜 마음을 품고 구름과 늪지로 대지를 덮어 버렸다고 한다. 그외에도 울겐이 새로운 대지 창조를 위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일곱 신실한 형제들 중 하나라는 신화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겐

● 다국어 표기 Ульге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에를릭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ербицкий,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and A. A. Ивановский. «Алтайские инородцы: сборник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статей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алтайского миссионера, протоиерея ВИ Вербицкого.», 1893, 43~45.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7, 546~547.

I F151 | 울라마 위원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ho'roi Ulamo

1917년 2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전복과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러시아 식민지였던 투르크스탄에도 다양한 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 1917년 4월 7일 설립된 대표적인 단체가 러시아 임시정부 투르크스탄 위원회였다. 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지방 군사 거버넌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뒤이어 지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투르크스탄 주요 도시에 러시아 볼셰비키, 멘셰비키 및 노동자당의 지역지부와 노동자 및 군인 대의원을 비롯

하여 무슬림 노동자 및 군인 대의원회, 각종 위원회도 조직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자디드(Jadid)운동 지도자들은 투르키스탄 원주민의 정치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자유 쟁취, 독립 투쟁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조직을 설립했는데 그 대표적인 조직 중 하나가 ‘이슬람 위원회’였다. 그러나 점진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위원회와 방향성과 맞지 않았던 인물들은 곧 이슬람 위원회를 탈퇴했고 1917년 6월 ‘올라마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무장 투쟁과 샤리아 법 준수 및 종교적, 국가적 가치 함양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올라마 위원회의 초기 지도자로는 세랄리 라빈, 압두말리크 호지 나비예브 등이 있다.

당시 주로 무슬림 성직자와 지역 유지 등이 이 조직을 따랐는데, 그들 대부분이 전통적인 토지 소유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간행하던 잡지 <해석(al-Izah)>과 <개혁(al-Islah)>등을 통해 사회 문제와 현안을 다루거나 기존 이슬람 위원회 세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올라마 위원회는 1917년 9월 투르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타슈켄트에서 함께 개최한 무슬림 회의를 통해 소련 이슬람주의자와 연합하여 무슬림 연합 정당을 구성했고 이로 인해 자디드 운동가들과 사상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 결과 결국 1917년 11월 개최된 제3차 소비에트 회의에서 그들은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반대하고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를 지원했으며 이후 바스마치운동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에 1918년 2월 소련 정부는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고, 무슬림 자치권을 주장한 올라마 위원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올라마 위원회는 해체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쇼라이 울레마, 쇼라이 올라머
- 다국어 표기 Sho'roi Ulamo(우즈베크어), Шура-и-Улема(러시아어), Şwro-i-Ulema(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이슬람 위원회, 자디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Usmonov, Q., M. Sodiqov; S. 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Mingnorov A., *Turkistonda 1917-1918 yillardagi milliyosiy tashkilotlar*, Tashkent, 2002.

I F152 | 울란 시베르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Ulaan shiver

울란시베르 유적은 투브 아이막 자마르 솜에 있는 바야골 분지와 울란 시베르 암에 위치한 광산 채굴지역에 위치해 있다. 유적은 표토층의 상부에 드러난 적석의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지름 10m, 작은 것은 5m로 구분된다.

매장주체부는 단일 목관과 이중석제 격벽이 있는 목관에 안치하며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매장했다. 목관의 바깥으로 넓고 편평한 돌로 사방에 벽을 만들고 큰 돌로 덮은 다음 작은 돌을 그 위에 다시 덮은 구조로 되어 있다. 목관의 크기는 190cm×70cm로 목관 안에는 석제로 격벽을 만들고 두향을 북쪽으로 해서 곧게 편 형태로 매장했다. 그리고 금제 귀걸이, 아홉 개의 보석을 감입한 목걸이의 치레걸이, 흰색 돌 장식과 청동 장식이 있는 금제 버클이 있는 가죽 허리띠, 목제 드리개 장식, 허리띠 등을 부장했고 그 아래에 말발굽 한 쌍을 묻었다.

유적 발굴 당시 생활용품, 마구류, 장신구류, 의례용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토기와 철제품이었다. 그리고 청동손잡이가 있는 목제 철기, 철제 솔, 금제 귀걸이 한 쌍, 석제로 된 허리띠 드리개 장식, 석제 목걸이 장신구, 청동 거울, 한쌍의 골제 젓가락 등이 발견되었다. 그중에서도 호랑이를 장식한 금제 허리띠고리는 몽골에서는 처음 발굴된 것으로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그밖에 무덤 안에는 말머리뼈, 소머리뼈, 소형 가축의 머리 등 의례를 치른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울란 시베르 유적은 유적 전체가 발굴된 흉노 무덤 유적이라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높은 산의 동쪽에 있는 작은 산에 위치하는 흉노의 소형 무덤유적지의 배치 원칙에 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둥근 형태의 외형을 한 흉노 무덤은 산의 남쪽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100기 이상의 대형 무덤 유적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산의 남쪽 편평한 고지대, 언덕 등지에 입지하기 때문이다. 울란 시베르 유적은 흉노가 강성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한 부족의 매장지라고 하기에는 적은 수의 무덤이어서 친인척들의 공동묘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라안 시베르
- 다국어 표기 Ulaan shiver(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Эрдэнэболд Л., Хатанбаатар Д., Ванчигдаш Ч., Бямба-Очир Ц., Туулын хөндийн соёлын өвийн судалгаа. I-р боть. – УБ.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20, 『흉노, 제국의 미술』

I F153 | 울레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지위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Ulema

울레마(Ulema)는 이슬람권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칭한다. 아랍어로 ‘울레마’는 학자(‘Ālim, عالم)의 복수형이며, 동사 ‘알다’(Īlm, علم)의 능동분사 형으로 본래는 모든 분야의 학자들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이지만, 주로 종교학 연구자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었다.

이슬람 종교학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학자들의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학자들 예를 들면 이슬람 법학(Fikh)를 연구하는 법학자(Fakih), 이슬람권의 법률 의견서인 파트와를 발급하는 무프티(Mufti), 이슬람 신학(Kalām)을 연구하는 신학자(Mutakallim) 등이 모두 울레마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이슬람 종교적 지식을 수호하는 자이자 이슬람의 교리를 전하는 자, 이슬람 법률을 해석하는 자들로 간주된다. 그 외에도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Qāzī)이나 설교자(Khaṭīb), 마스지드의 이맘(Imām) 등이 모두 울레마에 포함되었다. 다만 학자들 가운데 이슬람 신학, 특히 수피즘 관련 이론을 배척하는 이들도 있어, 어떤 종류의 학자가 울레마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슬람이 창시된 후 초기 2세기 동안에는 ‘예언자에게서 비롯된 학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고, 또한 무슬림들이 보편적으로 울레마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적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셰이흐 이슬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디나나 칼리프의 수도에 거주하면서 법학에 몰두하는 한정된 수의 학자들만을 올레마라 지칭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공인을 얻었으나 실제로 조직화, 혹은 제도화되지는 않는 대신 올레마에 속한 이들끼리 공통적인 연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학자들은 하디스 전승을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하디스학을 주요 임무로 여기다 보니 학문적 한계를 만날 때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자기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특히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 그곳에 머무르다가 일정 기간 후에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학문 여행 풍습이 생겨났다. 그에 따라 광범위한 이슬람권에 걸쳐 국가나 지역의 한계를 넘나드는 초지역, 초국가적 네트워크 및 학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리다보니 학자 집단의 몇몇 주요 인물들이 넓은 범위에서 명망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적 성과에 대한 지지를 얻게 됨과 동시에 올레마 내에서 부각되

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인물', 혹은 '시대의 축'이라 송양했기에 '셰이흐 이슬람'(Shaykh al-Islām)이나 '쿠틀'(Qutb) 등 이전에 없었던 지위가 등장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런 활발한 교류는 기존의 올레마 집단 내에서의 지역과 소속을 뛰어넘는 공동체 인식과 발전한 신 학문적 경향을 다른 지역으로 재빨리 확산될 수 있게 만들며 학문의 표준화가 구축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마이야-압바스 칼리프조 시기에 올레마는 학자, 고문, 충고자, 법관 등으로 우대를 받으면서도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칼리프들이 우대한 것은 올레마 중에 저명한 인물들일 뿐 올레마 집단 자체를 이용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압바스 칼리프조 세력이 약화되면서 올레마 집단이 보다 자유롭게 조직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서 교육기구인 마드라사와 여러 종교 시설을 후원하는 와크프를 중심으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올레마의 지위가 더 이상 국가 권력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일부 올레마들은 생업을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교육기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지식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올라마들의 전문업종인 무프티, 카디 등이 13세기 이후에 등장했다. 그들은 몽골 제국 이후, 종교를 국가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세속 군주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 관료로 발탁되기도 했는데, 그 결과 각 도시마다 무프티가 존재하거나 이스탄불처럼 셰이흐 이슬람이 존재하는 곳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을 발탁한 세속 정권들이 칼리프조를 대신하는 초지역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올라마들도 이슬람 도시 생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 엘리트가 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넓은 토지나 상업 네트워크 등을 소유한 토착 세력과 결탁하거나, 혼인 등을 통해 그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도시 엘리트들은 비무슬림, 혹은 신실하지 않은 무슬림으로 여겨졌던 몽골-투르크계 세속 군주들의 도시 지배에 도움을 주는 대신 도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올라마

● 다국어 표기 Ulema(튀르키예어), علماء(아랍어), علماء(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몰라, 카디

● 참고문헌(오프라인) Cl. Gilliot, "Ulama," *The Encyclopaedia of Islam* 10, Leiden: Brill, 2000, pp.801~805.

Muhammad Qasim Zaman, *The Ulama in Contemporary Islam : Custodians of Change*, Princeton Studies in Muslim Politics, 2002.

I F154 | 울루 후르투야흐 타스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Uluğ Hurtuyah Tas

울루 후르투야흐 타스(Uluğ Hurtuyah Tas)는 투르크 문화의 발상지인 남부 시베리아의 하카스 지역의 초기 청동기 시대 문화 유적으로서, 하카스 영토 내 오쿠네프(Okunev)마을 인근에서 수행된 발굴 작업 명칭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당시 B.C. 3000년 말~B.C. 2000년대 초반

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쿠네프 시대에 세워진 수백개의 석상들이 이 지역에서 발굴되었는데 울루 후르투야흐 타스는 그때 발견된 거대한 조모(祖母) 석상이다. 길이 3.02미터, 무게는 2.6톤에 다다른 이 거대한 석상은, 수 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하카스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숭배 대상으로 존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가족, 혹은 다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빌기 위해 후르투야르 타스를 방문하지만, 20세기 초반 문헌에 따르면 이 석상은 19세기 전반 하카스 남성들이 결혼할 여성을 납치하거나 혹은 러시아인들의 말을 훔치기 전에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대상이었다고 한다. 사냥터로 나가기 전 사냥꾼들이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며 석상 앞에 모여 포도주와 기름 등을 석상에 바르며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하카스인들에게 조모 석상은 모든 영혼의 주인으로 간주되는 일종의 여신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부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이 석상들과 관련된 기록은 18세기 독일의 식물학자였던 다니엘 고틀리에브 메세쉬미디트(Daniel Gottlieb Messerschmidt)의 일기장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그는 당시 하카스인들을 타타르인이라 묘사하며 그들의 석상 숭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타타르인들(하카스인)은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며, 각각 석상 주위를 세 번 돌며, 이 의식이 끝나면 석상 발치에 음식을 올려놓고 바친다.” 고고학자 엘가 바데트스카야(Elga B. Vadetskaya)도 하카스 영토 내의 이러한 석상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 석상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갖고 다가갔으며, 그들 앞에 엎으려 절을 하고 제사를 올리며, 음식을 바치거나 석상 전면에 기름 혹은 동물의 피를 바르며 경건한 의식을 행했다.”고 전했다.

발굴 당시에도 이와 관련해 의식을 거행할 때 석상 앞에 제물로 바쳐진 많은 양의 동물 뼈와 양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이는 오쿠네프 시대의 석상들이 하카스 영토 내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1835년 예니세이 총독 중 한 명이었던 스테파노프(Stepanov)는 “이 석상들은 묘비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석상 중 일부는 그들보다 이후 건설된 쿠르간(고분) 근처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울루 후르야흐 타스는 하카스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아스키즈(Askiz) 마을 근처 쿠르간(고

분) 중 한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카스인들은 이 석상을 ‘아스키즈 조모’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하카스 대초원에 세워져 있는 석상들은 대부분 여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타나예브(Butanayev)는 이 석상들이 고대 투르크 여신 우마이(Umay)에 해당하는 다산의 여신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조상숭배 전통을 가진 하카스인들은 석상 앞이나 그 주위를 지나가면서 물이나 우유를 뿌리는 의식을 하거나, 석상 앞에 음식을 바치고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도는 의식을 행하며 예의를 갖춘다. 석상을 지나가면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석상을 조롱하거나, 혹은 그것이 인간의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카스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루우 후르투야 타스, 울루 후르투야 타스

● 다국어 표기 Uluğ Hurtuyah Tas/Улуғ Хуртуях Тас(하카스어), Улуг Хуртуях Тас [Большая каменная старуха](러시아어), Ulu Hurtuyah Taş [Ulu İhtiyar Taş Nine](튀르키예어), Uluğ Khurtuyakh Tas(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рнаков, В.А., Цыденова, Д.Т., Образы камня и кургана в религиозно-мифологических воззрениях хакасов (конец XIX–XX век). Вестник НГУ, Серия: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13–3: 256~267, 2014.

Бутанаев, В.Я., Культ богини Умай у хакасов. Этнография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93~105, 1984.

Есин, Ю., Горбатов, Л. Улуг Хуртуях Тас. Абакан: Журналист, 2011.

Степанов, А., Енисейская губерния,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ипография Конрада Витебера, 1835.

Вадецкая, Е.Б., Сказы о древних курганах.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1981.

I F155 | 울루그 베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Ulugh Beg

티무르가 급서하자 티무르 제국 내에서는 5년 간에 걸쳐 승계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를 슬기롭게 진압하고 제위에 오른 인물은 티무르의 넷째 아들 샤희 루흐(Shah Rukh, 1409년~1447년)였다. 제위에 오른 그는 수도를 사마르칸트에서 헤라트로 옮겼고 아들인 울루



울루그 베그가 사마르칸트에 건설한 천문대

그 베그(Ulu Beg)로 하여금 제1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지배하게 한 다음 자신은 남방의 헤라트(Herat)에 머물면서 티무르 제국 전체를 군림했다.

티무르가 불세출의 정복자였다면 샤흐 루흐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통치자였다. 그의 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과 개명적(開明的)인 성격은 아들인 울루그 베그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울루그 베그가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르네상스를 완성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만큼 큰 번영을 이루었다. 울루그 베그는 아버지 샤흐 루흐가 제위에 있던 3년간 사마르칸트를 지배하며 티무르 제국의 문화 부흥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궁정에 학자와 문인,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학문과 예술을 토론했던 시의 중앙광장은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울루그 베그 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의 원형이 되었다.

또한 그는 천문대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천체를 관측하고 몇몇 학자들과 협력해서 천문표(天文表)도 편찬했는데 이것이 17세기 중엽 유럽 세계에 전해졌을 때 그 정확성에 서양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소위 개명 군주라면 학자를 보호하고 학예를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앙아시아 역사상 울루그 베그처럼 군주가 직접 나서 연구에 실적을 이룬 경우는 극히 드

물었다. 그래서 당대(當代)의 사람들은 그를 ‘왕좌에 있는 학자’라고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에 견주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1449년 그는 사망했고 이후 티무르 제국은 쇠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루 벡, 울룩 벡

● 다국어 표기 میرزا محمد تراغای بن شاه رخ (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티무르, 사마르칸트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티무르왕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4050&cid=40942&categoryId=33437>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Abazov, Rafis. “Timur (Tamerlane) and the Timurid Empire in Central Asia.” *The Palgrave Concise Historical Atlas of Central Asia*. Palgrave Macmillan US, 2008.

Marozzi, Justin, *Tamerlane: sword of Islam, conqueror of the world*, London: HarperCollins, 2004.

I F156 |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Ulugh Beg Madrasa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Ulugh Beg Madrasa, 우즈베크어: Ulug'bek madrasasi)는 전체 넓이 56mx81m의 크기로 네 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문 양옆에 미너렛이 존재한다. 전면부의 거대한 이완 내의 오지 아치가 있는 대문을 통과하면 중정을 향해 열린 이완을 통해 중정에 진입하거나 다른 이완 양쪽에 직각으로 이어진 복도를 통해 중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광장을 바라보는 모서리에는 30m 높이에 정사각형 플랜에 돔으로 덮인 두 개의 교실이 있어서 이 교실 문을 통해 바로 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중정을 바라보는 입구 이완과 마주 보는 키블라 이완 뒤에는 기도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키블라 벽과 직각으로 오등분되는 직사각형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도 공간은 마드라사의 키블라 벽 모서리에 자리한 교실과 연결되어 있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다. 중정 양옆에는 2층으로 된 학생 숙소가 존재한다. 마드라사에서 광장 쪽을 바라보는 정문은 건물보다 2배 높으며, 양쪽에서 높고 커다란 벽돌 받침대로 지지하고 있다.

마드라사 외벽과 내벽 모두 다양한 양식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이 타일은 대체로 서체 장식과 기하학 문양으로 되어 있으며 터키석 색, 남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룩벡 마드라사, 울루그 베크 마드라사
- 다국어 표기 Uluğ'bek madrasasi(우즈베크어), Uluğ Bey Medresesi(튀르키예어), Uluqbey mədrəsəsi(아제르바이잔어), Ұлықбек Медресесі(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레기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148>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Cumhuriyetleri Mimarlık Abideleri*, Ankara:Türk Kültür ve Sanatları Ortak Yönetimi Yayınları, 1996.
Beksaç, Engin. “ULUĞ BEY MEDRES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TDV, 2012, pp.129~130.
Г.А. Пугаченкова, Л.И. Ремпель, *История искусств Узбекистана*, Moscow:Искусство, 1965.
Ramazanoğlu, Gözde. *Orta Asya'da Türk Mimarisi*, Ankara:T.C. Kültür Bakanlığı, 1998.

I F157 | 울루그-호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의례 장소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Uluḡ-Khorum

울루그 호룸(Uluḡ-Khorum) 유적은 시베리아 남부 투바 사글라 강과 가까운 사글라 마을의 입구에 위치해 있다. 발굴 과정에서 이 유적은 무덤이 아니라 의례 장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전체 면적은 3,700제곱미터로 이 장소는 애초에 초기 철기시대 스키타이 유목민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1호 유구에서는 말을 매장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덤은 구조적으로 길게 트렌치 방식으로 땅을 파고 돌로 벽을 쌓고 다시 덮었다. 발굴하기 전에 동쪽에 붕괴된 부분과 함몰된 곳이 발견되었다. 안에는 인골이 남아 있었는데 사람의 머리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반면 말 매장은 매장 주체부와 분리되어 매장되었는데, 말은 등이 땅으로 향하고 다리를 하늘로 올린 상태였다.

2호 유구에서는 화장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타다 남은 유물 외에도 철제 갑옷이 남아 있었다. 갑옷은 장방형의 작은 조각을 이어 붙일 수 있도록 생긴 형태이다. 3호 유구에서는 등



울루그-호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

자 및 안장에 달려 있던 버클, 대형의 철제 국자, 가죽 화살통에 7개의 화살촉이 출토되었다. 토기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말과 함께 매장되는 무덤은 6세기~7세기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에서 알타이 초기 투르크 문화인 쿠드리게 단계로 볼 수 있는 5세기~6세기의 등자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말과 함께 부장하는 전통은 6세기~7세기 보다 100년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호 유구에서는 13세기의 몽골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는가 하면 2호 유구에서는 9세기~12세기(후다코프에 의하면) 갑옷까지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유적은 어떤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 아니라 초기 철기시대 스키타이 문화에서부터 몽골시대까지 오랜 시간 의례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도중에 한 때는 말와 함께 부장하는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룩 호름
- 다국어 표기 Улуг-Хорум(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ru.wikipedia.org/wiki/%D0%90%D0%BB%D1%82%D1%8B%D0%BD%D0%B0%D1%81%D0%B0%D1%80>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А. Грач. Средневековые впускные погребения из кургана-храма Улуг-Хорум в Южной Туве// Археология Север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С. — 156~168, 1982.

I F158 | 울루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구역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Ulus

울루스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울루스의 의미는 ‘민족’, ‘세대’란 뜻이다. 또한 이 단어는 중세에는 친위대, 오르다(орда)를 뜻하기도 했다. 여기서 국가

(몽골 울스 Монгол Улс)란 의미가 생겨났으며 몽골 제국의 공후 영지인 차가타이 울루스(Чагатайский улус, Улус Джучи)도 이와 연관성이 있다. 때때로 이 단어는 계층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호라-울루스(хора-улус)는 차곤 이오수(цагон иосу), 즉 ‘흰 뼈’ 계층과 다른 검은, ‘비천한 민중’을 뜻한다. (‘호라’는 검은색을 뜻하는 몽골 단어 ‘하르’와 같은 어원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울루스는 중세 몽골인과 칼막인에게서 특정한 혈연 연합 형태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곤 했다. 이 경우 울루스는 몇몇 씨족이나 같은 기원을 가지는 아이마크들의 연합체를 의미한다. 울루스 자체가 혈연 연합의 형태를 의미하는 데다 울루스를 자주 사용하는 몽골, 칼막, 부랴트 모두 같은 몽골계 민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울루스의 특징은 이동성이다. 울루스는 어떤 정주 농업 민족의 특정 마을에 견고하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확, 목축, 급수 등의 사정에 따라 이리저리 자신의 거처를 바꾸는 몽골계 유목민들의 혈연 연합체이다. 울루스가 목축하는 영역은 경계가 있지만 면적에 따라 광대한 영토에서 이동하며 유동적이며 자유롭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모든 초원을 울루스의 공통 소유로 인정하면서 자신들과 울루스 사이에 특별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갈미키야에서는 ‘지역’과 유사한 의미로 행정구역 단위 명칭으로 사용됐다. 또한 현대에는 러시아의 부랴티야 자치공화국과 사하 자치공화국에서 마을이나 시골을 나타내거나 농촌 지역의 행정구역 단위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울루스

● 다국어 표기 Улус(러시아어), Ulus(튀르키예어), Ұлыс(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 в 86 т. (82 т. и 4 доп.). — СПб., — Т. XXXIVa. — С. 698—700, 1902.

I F159 | 우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공동체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Umma

우마(Umma)는 어원상 악카드어(ummatu), 히브리어(umma), 아람어(umetha)를 거쳐 아랍어로 차용된 말로 보인다. 코란에서 우마는 종교적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62번 쓰였다. 알라는 여러 우마에 사도나 예언자를 보내어 바른 가르침을 전한다. 코란은 이를 두고 10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우마에 사도가 있다. 사도가 와서 정의롭게 판결하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 시대에는 우마가 그리스도교의 교회처럼 신앙인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그 말은 교회 같은 공간 자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공간인 모스크나 예배당과 달리 신앙인들이 연대감을 느끼는 정서적 공동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란 3장 110절에서는 무슬림 공동체를 최고의 우마(공동체)라고 부른다. “너희들은 인류 최고의 우마다. 바른 것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금지하며 알라를 믿는다.” 그 말인즉슨 최고의 우마 하나만이 우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말이기도 하다. “오 사도들이여, 좋은 음식을 먹고 바른 일을 하라. 실로 나는 너희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진정 너희들의 우마는 하나다. 나는 너희들의 주다. 나를 경외하라(23장 51절~52절).”

현대 무슬림 사회에서는 우마가 국가와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법은 유엔을 <연합 우마>(Umma al-Muttahida)라고 부르는 데서 파악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국가로 갈라진 현대 무슬림 세계를 우마로 묶으려는 열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종종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 종교적인 구호로 원용되기도 했다. 현대 투르크 세계에서도 있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마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 다국어 표기 Ummah(아랍어음사), Ümmet(튀르키예어), Umma(우즈베크어), Ümmət(아제르바이잔어), Умма(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taş-Çakır, Ravza. “Umma: A Modern Turkish Approach.” *Muslim World* 109:3, 2019, 289~307.

Denny, F. M. "Umma." In *Encyclopaedia of Islam*, vol. 10, 859~863. Leiden: Brill, 2000.

Gibb, H.A.R. and J. H. Kramers, eds. "Umma." In *Shorter Encyclopaedia of Islam*, 603~604.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3.

I F160 | 읍군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Uvgunt

읍군트(Uvgunt) 유적은 불간 아이막의 부렉항가이의 남동쪽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83년에 몽골-소비에트 연합 조사단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다. 읍군트 산과 운덴트 바위산 면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어서 흉노시대 무덤 46기가 확인되었고 그중 현재까지 발굴된 무덤은 6기이다.

읍군트 유적은 묘도가 없는 원형 무덤으로 매장주체부는 목곽(나무 무덤방)안에 목관묘를 설치했다. 1호의 나무 무덤방 크기는 2m×0.7m~0.5m이고 목관의 크기는 1.7m×0.4m이다. 이 유적의 2호에서는 운뇌연호문경(雲雷蓮弧文鏡)이 발견되었다. 이 거울은 흉노의 귀족무덤으로 꼽히는 골모드 1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유물이다. 거울은 목곽안에서 피장자의 머리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흉노의 무덤에서 거울은 대부분 비단과 직물, 가죽 주머니,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용기 내에서 발견되는데, 이 유물도 어떤 용기 안에서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직경은 17cm 정도로 A.D. 1세기 무렵의 유적인 것이 밝혀졌다. 이곳은 이전까지 발굴된 지상에 원형의 적석만 매장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거울과 같은 유물이 발견되면서 유적 자체의 특별함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몽골에서 흉노 무덤은 현재 60여 곳에서 4,000기 이상의 무덤이 발견되어 있으며 몽골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에도 남아 있다. 중국의 내몽골 오르도스 지역에 분포한 무덤은 흉노 제국 이전 시기에 해당되고, 섬서, 녜하 회족 자치구 등에서 발견된 유적은 한에 복속했던 남 흉노와 관련 있다. 그 외에도 키르기스스탄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견된 유적은

북 흉노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몽골과 러시아에 유적이 흉노의 중심 세력의 유적이며 흉노 제국 시대의 것으로 알려졌다. 읍군트 유적은 A.D. 1세기에 만들어진 흉노 제국의 무덤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우분군트
- 다국어 표기 Uvgunt(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키르기스스탄, 신상 위구르 자치구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2013,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에렉젠, 양시은 2017,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I F161 | 월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Yuezhi

월지(月氏) 또는 대월지는 인도유럽인 계통의 유목민족인 토하라인이 건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중앙아시아의 국가이자 민족 이름이다. 월지는 중국 『사기』에서 나온 명칭으로 실제 이름은 토가라(Thogara)로 추정한다.

『사기』의 <흉노열전>에는 목돌 선우(B.C. 206년~B.C. 176년) 말기에 흉노에게 대패한 후 중앙아시아로 이동했기에 월지의 영토는 흉노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서쪽으로 간 세력을 대월지, 남은 부족을 소월지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B.C. 162년 흉노의 ‘노상 선우’의 공격으로 월지왕이 살해되자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소그디아나로 이동해 대하를 멸망시키고 무역을 매개로 살아갔다. B.C. 130년경 전한의 장건이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서 동맹을 제안했으나 거절하고, A.D. 1세기경 인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쿠샨 제국을 건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의 <대완열전>에는 흉노의 노상 선우를 피해서 서쪽으로 간 곳에는 남쪽에는 대하, 서쪽에는 안식(파르티아), 북쪽에는 강거가 있었고, 동쪽으로 3천리 떨어진 곳에 대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월지족이 인도유럽인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월지

족이 인도유럽인 중에서 어떤 분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 중 어느 하나를 정설로 정하지 않았다.

르네 그루쎄는 당시 중국 문헌과 서방측의 자료를 종합해서 월지는 토하리인과 인도-스키타이의 일종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리스의 역사가 프톨레마이오스가 토가라로 기록했기 때문이고, 지리학자 스트라본이 박트리아를 침략한 민족을 토카로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이론이었다. 하지만 스트라본은 스키타이라는 용어를 인도유럽인의 일종인 이란족 계열의 스키타이뿐 아니라 인도유럽인 계열의 유목민을 가르키는 언어로 사용했다. 따라서 토하리인과 스키타이족이 같은 개념이라고 일반화하기엔 반론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토하리인들이 월지국의 주요 민족이며, 월지족은 토하리인과 동일 민족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 다국어 표기 Юэчж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스키타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ичурин Н. 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Том I.

Mallory, J. P., Mair, Victor H., The Tarim Mummies: Ancient China and the Mystery of the Earliest Peoples from the West. London: Thames & Hudson. ; Westport: Greenwood Press. 2000.

史記, 흉노열전; 史記, 대완열전

I F162 | 위구르 공양자도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회화 ● 유형 소분류2 벽화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Uighur

베제클리크 석굴 등 불교 석굴 벽화 속에서 위구르인들이 과거불(過去佛)에게 서원을 하고 수기를 받는 모습, 부처에게 꽃과 향 공양을 올리는 모습, 녹야원에서 석가모니에게 설법을 듣는 모습, 고승의 불경 강독을 듣는 모습 등 매우 다양한 장면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복식만 보고도 위구르인들은 그자의 신분이 왕과 왕후, 고급 관리, 승려, 부부상, 어린아이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속인 공양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의 등장인물인 석가모니의 전생 인물, 아쇼카왕 등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베제클릭 석굴에 그려진 벽화 중에는 위구르 공양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불교 사원의 후원과 신앙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베제클릭 석굴 20굴 좌측 회랑의 오른쪽 벽에는 한문과 위구르어로 지통도통(智通道統之像)·진혜도통(進惠道統之像)·법혜도통(法惠道統之像)·삼도통(三道統)의 목서명과 세 승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중 맨 앞 지통도통에 쓰인 위구르어를 싹포 살리(Šinqo Sāli)로 해석하고 있어, 이 인물을 당시의 저명한 역경승 싹포 살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당 문 좌측에 그려진 위구르 남자 공양인의 머리 위에 위구르어로 적힌 방제를 해석하면 <Bugela Sāli 都統>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방제의 해석과 공양자상들을 종합해 보면 20굴에 그려진 남녀 공양자들은 10세기~11세기 투르판의 명문가 살리가(Sāli家) 일가족이며, 일반적인 공양자가 아닌 베제클릭 20굴을 조영한 발원자로 볼 수 있다.

베제클릭 석굴 18굴은 12세기 중반~13세기경에 위구르인들이 기존의 벽화를 다시 보수하고 자신들의 모습과 함께 많은 방제들을 그들의 언어로 기록한 석굴 사원이다. 위구르어문 방제를 해석해 보면 18굴에 그려진 위구르 남녀 공양자는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계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샤진 아이구치’라는 존칭을 가진 ‘삼보노’(三寶奴)의 부모와 그 일족들로 볼 수 있으며, 석굴의 좌우 벽면에 표현된 위구르인들은 단순히 공양자의 추상적 상징이 아니라 삼보노의 부모와 그 일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속의 삼보노 일가 중 삼보노 아버지의 본명은 놉치 빌가(Nomci Bilgä), 어머니는 쿠산 차가르 탕그리(Kusän Qacar Tängrim)로 추정된다. ‘샤진 아이구치’는 13세기 『원사(元史)』에서 ‘沙津愛護持…’로 음사 되며, 몽골어에서는 ‘위구르인들 중에서 불교 최고의 권위자’라는 의미이다.

또한 베제클릭 18굴에 있는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 위에 쓰여진 방제를 해석하면 “천신의 은총(恩寵)을 받아 사원을 장엄하는데, 먼저 큐르팻(Körpät)의 부인 세빈네에게 바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석장을 들고 있는 인물은 지장보살과는 관련이 없는 <큐르팻의 초상>라는 것이다. 삼보노 일가가 18굴의 벽화를 개보수한 공덕을 큐르팻과 그 부인에게 돌렸던 것으로 보아, 큐르팻과 그 부인은 삼보노 일가보다 신분이 더 높은 위구르 왕

실 혹은 천산 위구르 왕국을 간접 통치하던 요나라의 왕실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위구르 공양자도

● 다국어 표기 Uyiyur(투르크어), 維吾爾(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조성금, 「成佛에 대한 위구르인들의 念願 :베제클리크 20굴 毘奈耶藥事變相圖」, 『중앙아시아연구』 17-2호, 2012.

조성금, 「베제클리크석굴 18굴 <消除災難經變相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90·291호, 2016.

조성금, 「베제클리크석굴 18굴의 석굴조영과 위구르공양자 一考」, 『東岳美術史學』 20호, 2016.

I F163 | 위대한 세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영화·방송 ● 유형 소분류2 드라마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agnificent Century

「위대한 세기」는 16세기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오스만 제국의 10대 술탄 ‘설레이만 1세’와 전쟁 포로 출신인 노예에서 오스만 제국의 황후 휘르렘 술탄(Hürrem Sultan)이 된 알렉산드라의 일생을 다룬 튀르키예의 대하사극으로, 튀르키예어 명칭은 「무흐테셈 이위즈이을(Muhteşem Yüzyıl)」이다.

원래 휘르렘 술탄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예에서 오스만 제국의 황후가 된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황후이다. 이 사극이 유명해진 것은 튀르키예를 넘어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인기를 모으며 이름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총 139부작으로 2011년 1월 5일~2014년 6월 11일까지 방송되었다. 각본은 메랄 오카이(Meral Okay)가 했고, 휴렘 술탄 역(役)은 메르옴 우제를리(Meryem Uzerli), 설레이만 대제 역은 할리트 에르겐치(Halit Ergenç)가 맡았다.

주인공 알렉산드라는 본래 우크라이나에 살던 정교회 사제의 딸이었다.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알렉산드라의 마을에 타타르족이 쳐들어와서 알렉산드라의 가족들은 모두 살해당하고 알렉산드라는 노예 상인들에 의해 이스탄불로 끌려가 오스만 제국의



‘위대한 세기’ 시즌 3 포스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하렘에 진상된다. 죽은 가족들 생각에 알렉산드라는 하렘에서도 반항을 하지만 하렘의 궁인 니가르 칼파(Nigar Kalfa)로부터 “술탄은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의 여인은 술탄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그 후 권력 암투 끝에 황후를 쫓아내고 본인 스스로 황후가 되어 ‘황후 중의 황후’라는 의미의

‘휘르렘 술탄’으로 등극한다. 이야기는 2014년 6월 11일, 쉴레이만 대제가 헝가리 시게트바르 요새를 공격하는 도중에 병으로 사망하는 139화를 끝으로 시즌 4가 모두 끝이 난다.

이 사극이 유럽에 방영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한류 비슷한 튀르키예 열풍이 일었는데 이스탄불을 찾는 관광객이 50% 정도 증가했으며 프랑스에서는 드라마와 동시에 방영된 오스만 제국 관련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이 덩달아 상승했다. 놀랍게도 튀르키예와 견원관계로 유명한 그리스에서 드라마 방영 후 튀르키예어 학습 열풍이 불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튀르키예 최초로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소수 해외 사극팬들에 의해 화려한 세기(華麗なる世紀), 위대한 세기, 장대한 세기(壮大なる世紀) 등으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이 드라마 계기로 튀르키예어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종편 채널 등을 통해 2019년 7월 8일부터 방영된 적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흐테셈 이위즈이을
- 다국어 표기 Muhteşem Yüzyıl(튀르키예어), Magnificent Century(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0SygyKFMQ>

● 참고문헌(온라인) MuhteşemYüzyıl at IMDb

<https://www.imdb.com/title/tt1848220/>

MuhteşemYüzyıl - Official Website

<https://tims.tv/diziler/muhtesem-yuzyil>

MuhteşemYüzyıl Official YouTube channel

https://www.youtube.com/channel/UckRY4J8G_K8SEWZRLbke-Q

● 참고문헌(오프라인) Bilis, Ali. “Popüler Televizyon Dizilerinden MuhteşemYüzyıl Dizisi Örneğinde Tarihin Yapısökümü”. İstanbul Üniversitesi İletişim Fakültesi Dergisi Issu, 45 December 2013, pp.19~38

I F164 | 위스퀴다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지구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Üsküdar

위스퀴다르(Üsküdar)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지구로 면적은 535,91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535,916명(2012년 기준),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 당 12,000명이다. 이곳은 아나톨리아에 위치하며 보스포러스 해협과 접한 지역으로 이스탄불 교외를 형성하는 구역 가운데 하나로 이스탄불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한다. 현재까지도 상공업의 중심지이며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페리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6·25전쟁 때 튀르키예군(軍)에 의해 유포된 민요로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도시이기도 하다.

도시의 기원을 알아보자면 B.C. 7세기에 메가라에서 온 주민들은 <황금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크리소폴리스(그리스어: Χρυσόπολις)라는 이름의 식민 도시를 건설했으며 비잔티움 제국 시대에는 스키타리온(그리스어: Σκουτάριο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4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크림 전쟁 시대에는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활약한 육군 야전 병원이 설치되었으며 1984년에 이스탄불 주에 편입되었다.

이 도시는 기독교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D. 451년에 바로 이곳에서 제4차 종교회의인 칼세돈(Chalcedon) 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위스퀴다르에 위치한 셈시 파샤 모스크(Semsi Pasha Mosque)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삼위일체의 주제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기독교론 적 주제였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기독교론에 관한 논쟁이 꽤 오래 이어졌는데 431년 에베소 회의 때 그 논쟁이 절정에 달했고, 451년 칼세돈(Chalcedon) 회의에 와서 비로소 두 학파 간의 양해와 일치가 이루어졌다. 칼세돈 회의의 주요 신조는 다음과 같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목소리로 한 분이요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주 예수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그리고 육체로 구성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또한 신성에 있어서는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었고 인성에

있어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는 두 성품으로 구성하시되 혼합과 변함, 분리됨이 없으시니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 품격(one person)과 한 본질(one substance)안에 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두 품격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시오,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선언한 바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바이며, 거룩한 교부들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입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위스큐다르, 위스키다리
- 다국어 표기 Σκουτάριον(그리스어) Χρυσόπολις(그리스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ymcEAeYGOw>
- 참고문헌(오프라인) Hürel, Haldun, *Semtleri, Mahalleri, Caddeleri ve Sokakları A'dan Z'ye İstanbul'un Alfabetik Öyküsü*. İkarus, 2008.
Kumbaracılar, İzzet, *İstanbul Sebilleri*, Kapı, 2008.
Mills, Amy, *Streets of Memory: Landscape, Tolerance, and National Identity in Istanbul*.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0.
Mosque and Street, Scutari, Constantinople, Turkey. World Digital Library. 1890-1900. Retrieved 18 October, 2013.

I F165 | 위제이르 하즈배일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Üzeyir Hacıbəyli

아제르바이잔의 위대한 작곡가이며, 희곡작가 및 출판인(publicist)인 위제이르 하즈배일리는 1885년 9월 18일 아그자베디(Ağcabədi)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애브뉘히세인

(Əbdülhüseyn)은 아르메니아가 점령했다가 탈환한 도시 슈샤(Şuşa şəhəri) 출신이다. 위제이르 하즈베일리(Üzeyir Hacıbəyli)와 위제이르 하즈베이오브(Üzeyir Hacıbəyov)는 모두 필명이다.

위제이르 하즈베일리는 중등교육을 슈샤(Şuşa)에서 받았다. 그는 1809년~1904년에 조지아에 있는 고리 교육대학교(Qori müəllimlər seminariyası)를 다녔다. 졸업 후에는 바쿠에서 교사와 기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교육을 받고자 모스크바로 향했다. 모스크바에서 유명한 작곡가 알렉사드르 일린스키(Aleksandr İlinski)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교육을 중단하고 바쿠로 돌아왔고, 창작을 이어나갔다.

바쿠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대표작 ‘매햄매드 퀴줄리’의 ‘레일리와 매즈눈’ 연작시(pomea)를 토대로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이 오페라는 이슬람 세계 최초로 오페라의 기초를 담은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이 오페라는 1908년 1월 12일 바쿠에 있는 하즈 제이날라브든 타그예브(Hacı Zeynalabdin Tağıyev)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그는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1918년~1920년) 건국에도 참여했다.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 시대에 출판된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 신문의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풍자 시(felyeton,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풍자 시), 기사, 사회-정치적 내용을 담은 칼럼 등을 집필했다. 그리고 이후 그 모든 활동을 종합해 드라마틱한 전개를 담은 오페레타를 탄생시켰다. 당시 공연된 작품 중에 『그것말고 이것(O olmasın, bu olsun)』, 『남편과 마누라(Ər vəarvad)』와 같은 리브레토들은 아제르바이잔 밖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그의 색다른 이력으로는 그가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의 국가(國歌)를 만든 작곡가였다는 점이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이 붕괴된 후 충격으로 한동안 예술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 후 1937년 아제르바이잔 국립 아카데미 오페라 발레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린 오페라 ‘코르오글루’(Köröglü)는 오랫동안 세계 음악의 정수로 받아들여졌다. 이 작품에서 그는 민요와 고전 음악을 능숙하게 결합한 후 아리아, 합창, 발레 등을 추가했다. 이후로도 위제이르 하즈베일리는 300편 이상의 아제르바이잔 민족음악을 악보로 옮겼고, 국가와 칸타타 등을 창작했다. 음악학을 깊이 연구해온 그는 『아제르바이잔 민속 음악의 기본(Azərbaycan xalq musiqisinin əsasları, 1945)』이라는 명저도 남겼다. 아제르바이잔이 소비에트에 속했던 시기

소비에트 연방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국가(國歌)도 그가 작곡했다. 소비에트 붕괴 후,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되찾자 그가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을 위해 작곡했던 국가(國歌)가 다시 채택됐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Azərbaycan Elmlər Akademiyası) 원장, 아제르바이잔 국립음악원(Azərbaycan Dövlət Konservatoriyası) 원장, 아제르바이잔 작곡가 연합(Azərbaycan Bəstəkarlar İttifaqı) 회장,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 예술연구소(İncəsənət İnstitutu) 소장 등을 역임했다.



위제이르 하즈배일리 기념비와 묘석

위제이르 하즈배일리는 1948년 11월 23일 바쿠에서 사망했으며 명예의 묘지에 묻혔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위제이르 하즈배일리의 이름이 명명된 많은 기관과 장소들이 있다. 그가 총장을 역임했던 아제르바이잔 국립 음악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Konservatoriyası)는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을 따고 있으며, 대학교 앞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또한 바쿠 도심에 있는 거리도 그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1981년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작가 ‘아나르’(Anar)는 대본을 쓴 후 『위제이르의 생애와 화음』이란 방송이 제작된 적도 있다. 그런가하면 그의 대표작 『웃을 파는 사람(Arşın mal alan)』과 『그것 말고 이것(O olmasın, bu olsun)』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위제이르 하즈베이오브

● 다국어 표기 Uzeyir Hacıbeyli(튀르키예어), Узеир Гаджибеков(러시아어), Гозэйр Хажібөйле(타타르어), Узеир Гаджибеков(카자흐어), Uzeyir Hajibeyli(우즈베크어), Fəzəyir həjibəkov(바쉬키르어), Гажибеков Узеир(키르기스어), Uzeyir Hajibeyli(투르크멘어), Üzeyir Hacıbəyli(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UBgwYzqTqc>Üzeyir ömrü (II hissə)' <https://www.youtube.com/watch?v=VjHSL4rvThI>

● 참고문헌(오프라인) Abasov Abdulla, *Üzeyir Hacıbəyovun Sənətkarlığı*, Bakı: Gənclik, 1976. Aslanov Mirabbas, *Üzeyir Hacıbəyov*, Bakı: Azərneşr, 1985.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d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Məmmədli Qulam, *Üzeyir Hacıbəyov: Həyat Və Yaradıcılığının Səlnaməsi*, Bakı: Yazıçı, 1984.

Səfərova Zənfira, *Üzeyir Hacıbəyov*, Bakı: Yazıçı, 1985.

Üzeyir Hacıbəyov Ensiklopediyası, Bakı: Azərbaycan Nəşriyyatı, 1996.

I F166 | 위츠 세레펠리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소분류1 건축 ● 유형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Üç şerefeli mosque



위츠 세레펠리 모스크 마름모 무늬 미너렛

튀르키예 에드리네에 건설된 위츠 세레펠리 모스크는 1438년~1447년에 무라드 2세(Murad II, 재위: 1421년~1444년)의 명으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1752년 지진으로 훼손되어 1763년 복구공사를 했고 1930년대에 주요 복구공사가 이루어졌다. 원래 이 모스크에는 코란 학교(mekteb)과 이마렛(imaret: 빈자와 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소) 등 복합단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디스 학교와 시간을 알려주는 곳은 아직 남아 있다. 건축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조를 살펴보면 키블라 방향에 벽을 따라 나열된 오지아치 위에 자리한 지름 24.1m의 돔이 있으며, 그 옆으로 지름 10.5m의 작은 돔을 각각 두 개씩 배열했다. 두 돔 사이에 남은 삼각형의 빈자리를 무카르나스로 지지하는 작은 돔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돔 배치는 오스만 건축사에 있어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가 모스크를 더욱 넓고 웅장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형식의 모스크는 오스만 초기 건축 양식과 시리아 모스크 양식(긴 홀이 있는 모스크)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샤프르반과 갤러리가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중정은 거대한 모스크에 스며드는 것처럼



위츠 세레펠리 모스크

럼 설계했다. 배랑의 갤러리 위에 자리했던 다양한 크기의 타원형 돔 일곱개는 보수 공사 때 바뀌었다. 중정 갤러리의 15개의 돔은 아치로 떠받혀있고, 칼렘 이쉬(kalem işi)로 장식되어 있다. 이 장식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나 18세기 복원 공사 때 부분적으로 바로크 양식의 장식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곳은 최초로 4개의 미너렛이 자리한 모스크이며, 중정 각 모서리에 자리한 미너렛은 각각 꼬인 무늬, 흠이 파인 형태, 마름모무늬, 지그재그 무늬 등 각기 다른 모습과 높이를 갖고 있다. 특히 지그재그 무늬의 미너렛에는 당시 가장 높았던 높이 67m이며, 지름은 6m, 발코니가 세 개 있다. 이 ‘세 개(üç: 위츠)’의 ‘발코니(şerefe: 세레페)’가 있는 미너렛에서 이 모스크의 이름을 따왔다. 이 미너렛의 첫 번째 가장 낮은 발코니에는 3개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 발코니에는 2개, 세 번째 발코니에는 1개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중정의 창문 박공

부분에는 남색과 흰색의 타일로 술탄 무라드 2세의 이름이 쓰인 비문이 있다. 바탕의 구부러진 가지 문양은 할리츠 이쉬 타입 세라믹 문양의 초기 예시이다. 내부에 있는 대형 돔의 푸른색 장식과 미흐랍 장식은 18세기 이후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중정 갤러리의 칼렘 이쉬는 부르사 예실 모스크, 에디르네 무라디예 모스크와 함께 세 번째로 오래된 오스만 칼렘 이쉬 중 하나이다.

위츠 세레펠리 모스크는 오스만 건축사에 있어 통상적인 발전 과정을 벗어난 작품이다. 100년후 건축가 미마르 시난에 의해 이루어질 모스크의 형태 일부분이 나타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훗날 피라미드 형태로 올라가는 돔의 배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오스만 건축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리네 위취 쉐레펠리 자미, 위취 세레펠리 모스크, 위츠 세레펠리 자미

● 다국어 표기 Üç Şerefeli cam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라드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SehirRehberi//GezilecekYer/20190327155025638_9.jpg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7641/medium/ITH0281.jpg?1384689667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SehirRehberi//GezilecekYer/20190327155141657_114.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kçıl, Nersin Çiçek. “ÜÇ ŞEREFELİ CAMİ ve KÜLLİY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 TDV, 2012, pp.277~280.

Goodwin, Godfrey. *A History of Ottoman architectur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97.

Kuran, Aptullah. *The Mosque in Early Ottoman Archite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F167 | 위탕 무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Yutang Site

위탕 무덤 유적은 중국 신강성 일리카자흐자치주(伊犁哈薩克自治州) 신위안현(新源縣)에 위치한다. 반지하식으로 수혈토광묘와 편질묘 두 가지 형태의 묘로 이뤄져 있으며 단독매장 형식이다.

1983년에 공사 중에 무덤이 발견되었고 이후 발굴을 통해 회갱(灰坑) 25기, 도랑 2개, 주거지 13기, 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무덤에는 매장자 이외에 도기, 석기, 동기, 철기편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청동무사상, 곰이 장식된 방형 접시, 고리형 동물장식, 삼족술, 청동방울 등이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청동 무사상은 왼쪽 다리는 들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꿇은 자세이고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듯한 모양이다. 남성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정수리 부분이 구부러진 형태이며 이 모자가 B.C. 5세기~ B.C. 3세기 사카 문화라는 의견도 있지만, 파지리크 족을 상징하는 새부리형 모자와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무사는 일종의 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현대 스코틀랜드 지역의 남성들이 입는 켈트와도 유사해 또 다른 민족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청동무사상이 출토된 공뤄현(鞏留縣) 유적의 유물과도 유사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위탕

● 다국어 표기 魚塘(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2017.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伊犁哈薩克自治州(直屬縣市)卷』, 北京: 科學出版社, 2011.

翰秋, 「新疆鞏留縣發現一件青銅武士俑」, 『文物』6期, 文物出版社, 2002.

I F168 | 위태로운 시대, 사랑의 희생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희곡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Zaharli hayot yoxud ishq qurbonlari

1915년에 쓰인 희곡 「위태로운 시대, 사랑의 희생자(Zaharli hayot yoxud ishq qurbonlari)」는 ‘함자’(Hamza)가 코칸트 극단을 위해 집필한 작품이다. 희곡은 자디드(Jadid) 계몽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는 무지, 후진성, 종교적 광신에 빠진 인물들의 비극이 파노라마처럼 재현된다. 총 4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1915년에 발표됐고, 1916년에 타슈켄트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두고 ‘투르크িস탄이 만든 청춘남녀의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당대의 청년 지식인 마르얌헌(Maryamxon)과 마흐뭇헌(Mahmudxon)이다. 마흐뭇헌은 신식 학교에서 공부한 자디드운동 지지자였다. 반면 마르얌헌은 구식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마흐뭇헌의 영향을 받아 늘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 노력하는 젊은 여성이다. 두 사람은 조국의 아동을 계몽하는 꿈을 꾸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어갔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마흐뭇헌을 강렬한 투쟁으로 이끄는 인물은 마르얌헌으로 바뀐다. 그녀는 투쟁이 실패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나라로 도피할 각오까지 한다. 그리고 샤리아와 이슬람의 율법을 위반하는 하즈랏 에션(Hazrat Eshon)과 같은 광신도들의 비열한 행동을 폭로한다. 그러나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광신도들과 맞서기에 그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기에 두 사람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 그들은 결국 기존 봉건 질서와 사람들의 무지 그리고 광신주의자들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자살을 선택한다.

과거 ‘함자’(Hamza)의 작품은 주로 계급적 관점에서 해석됐다. 따라서 「위태로운 시대, 사랑의 희생자(Zaharli hayot yoxud ishq qurbonlari)」에 등장하는 두 남녀도 계급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곤 했다. 즉, 부유한 마흐뭇헌과 가난한 마르얌헌의 집안에 주목했다. 그러나 두 주인공 모두 계급이 무엇이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목표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성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작가는 인물 그 자체보다도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시대적 환경의 ‘위태로움’과 ‘유해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두 사람의 삶을 비극으로 이끈 광

신도와 무지에 대한 증오를 관객에게 심어주고, 두 인물과 같은 젊은이들이 더는 불행해지지 않도록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함자는 비극과 대화술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특히 마흐뭇현의 감상적인 독백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대사로 남겨졌다.

상연 당시 이 작품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연극 평론가 미르물라 셰르무함메드브(Mirmulla Shermuhammedov)는 ‘우즈베크 극장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고 평했다. 이후 이 작품은 타슈켄트와 코칸트를 비롯한 기타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상연되었고,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자하를리 하요트 요후드 이쉬크 쿠르본라리
- **다국어 표기** Zaharli hayot yoxud ishq qurbonlari(우즈베크어), Отравленная жизн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함자, 자디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hamza-hakimzoda-niyoziy-1889-1929/hamza-hakimzoda-niyoziy-zaharli-hayot-yoxud-ishq-qurbonlari-drama>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aim va boshqalar,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Toshkent: O'qituvchi, 1995.
- Qosimov B. va boshqalar, *Milliy uyg'onish davri o'zbek adabiyoti*, Toshkent: Ma'naviyat, 2004.

I F169 | 유누스 라자비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Guzali Mihrayeva
- 라틴 문자 Yunus Rajabiy

유누스 라자비이(Yunus Rajabiy)는 우즈베키스탄의 작곡가이며 가수이다. 나이(nay)나 두타르(dutor)와 같은 민속악기 연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1897년에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마드라사와 투르키스탄 인민 음악대(Turkestan People's Conservatory, 1919년~1923년), 타슈켄트 고등 음악 학교(1934년) 및 모스크바에서 작곡가 과정(1940년~1941년)을 이수했다.

그는 미르자 코심(Mirza Qosim)에게서 두타르(dutor) 연주를 사사받았으며, 쇼우마러브(Sh. Shoumarov), 호지 압둘라지즈(Hoji Abdulaziz), 토이치 허피즈(Toychi hofiz), 돔라 할림(Domla Halim)에게서 우즈베크 고전음악을 배웠다.

그는 1923년~1925년 사마르칸트 사범 대학교에서 음악교수, 1925년~1927년 사마르칸트 극장 음악감독, 1927년~1924년 우즈베키스탄 라디오 위원회 산하 민속 악기 앙상블(이후 1945년~1959년에는 민속악기 오케스트라의 감독), 1942년~1945년 양기욤(Yangiyo'l) 극장 음악 감독과 우즈베키스탄 TV·라디오 마컴 앙상블의 예술 감독을 맡는 등 음악과 예술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활동했다.

유누스 라자비이(Yunus Rajabiy)는 마컴의 일부를 발췌해 다양한 작품을 작곡했으며, 「파르호드와 쉬린(Farhod va Shirin: Xurshid, 1922년~1925년, Sh. Shoumarov와 공동작곡)»,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 Xurshid, 1926년)», 「루스탐(Rustam: U. Ismoilov, 1933년)», 「아와즈(Avaz: A. Hidoyatov, 1935년)», 「홀리스헌(Xolisxon: Hamza, 1940년)」등 연극무대 배경 음악도 작곡했다.

1935년 그는 로마노브스카야(E. Romanovskaya) 및 아크바러브(Akbarov)가 제작한 『우즈베크 민속음악(O'zbek xalq qo'shiqlari, 1939)』 음악선집에 29개의 전통 민속음악의 멜로디 및 아술라 등 노래를 채록해 악보로 수록했다. 이 음악선집에는 다양한 장르의 멜로디와 아술라, 부하라 샤희마컴(Buxoro Shashmaqomi), 페르가나-타슈켄트 마컴(Farg'ona - Toshkent maqom yo'llari), 캣다 아술라(Katta ashulla)등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그는 1971년에 함자 우즈베키스탄 국가 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공훈 훈장을 받았다. 그의 명성과 공헌은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그 흔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방송국(Uzbek Television and Radio Company) 산하의 '마컴(Maqom)' 앙상블, 자자흐(Jizzakh) 뮤지컬 드라마 및 코미디 극장, 타슈켄트 음악 사범 고등학교(Tashkent Music Pedagogical School), 타슈켄트의 거리 중 하나, 그리고 지하철역은 그의 이름 '유누스 라자비이(Yunus Rajabi)'를 따서 명명될 정도였다.

또한 유누스 라자비이(Yunus Rajabi)의 삶과 활동을 그린 「유누스 라자비이(Yunus Rajabiy: Uzkinochronika, 1967년; 우즈베크텔레비전영화(Uzbektelefilm) 스튜디오, 1990년)», 「인생 노트(Umr daftari: 우즈베크 텔레비전(Uzbek Television), 2001년)」 영화도 제작되었다.



유누스 라자비이 생가 박물관 홈페이지
Source: <https://www.rajabiy muzeyi.uz/en>

유누스 라자비이가 1957년~1976년에 살았던 가옥(Tashkent, Yunus Rajabi Street, 20)은 1997년에 라자비이 박물관(Rajabi House-Museum) 으로 문을 열었으며, 2001년에는 유누스 라자비이 문화 센터가 설립되었다. 유누스 라자비이는 1976년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누스 라자비
 - 다국어 표기 Yunus Rajabiy(우즈베크어), Юнус Раджаб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무캄, 샤쉬마캄, 두타르(dutor),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yunus-rajabiy-1897-1976/>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 Ahmedov M., *Yunus Rajabiy*,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80.

I F170 | 유누스 라티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Yunus Latif

유누스 라티프(Yunus Latif)는 우즈베키스탄 시인이며, 문학비평가이며, 문학연구자이다. 그는 1910년 타슈켄트 카나바드(Xonobod) 마할라에서 태어났다. 1922년 나버이이(Navoii) 교육기술학교에서 공부했고, 1933년 졸업 후 타슈켄트 사범대학교 어문학부에 입학해 1938년에 졸업장을 받았다. 원래 사업가로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1920년대 소비에트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유누스 라티프는 1938년까지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며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유누스 라티프(Yunus Latif)는 교사생활에 머물지 않고 시, 문학 비평과 같은 창작은 물론 문학연구에도 집중했다. 그는 1925년부터 신문과 잡지에 「신문학을 중심으로(Yangi adabiyot atrofida, 1928)」, 「라마키전(Ramaqijon)」, 「어이딘(Oydin)」, 「새로운 문학 적 과제(Yangi adabiy vazifalar haqida, 1929)」, 「아동 문학에 대하여(Bolalar adabiyoti haqida, 1931)」, 「자파르 디요르의 작품에 대하여(Zafar Diyorning ijodi haqida)」, 「무키미 이에 대해(Muqimiy haqida)」, 「나버이이의 교훈(Navoiiy aforizmlari)」, 「민속과 젊은이들(Folklorda yoshlar, 1938)」, 「천재 시인, 위대한 휴머니스트, 나버이이에 대해(Dohiy shoir, buyik gumanist /Navoiy haqida)」, 「나버이이(Navoiiy)」, 「타라스 흐리호로비치 세우첸코(Taras Grigoryevich Shevchenko)」,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마야콥스키(Vladimir Vladimirovich Mayakovskiy)」, 「바흐쉬의 새로운 작품(Baxshining yangi asari)」, 「추억(Xotiralardan)」, 「무니스, 여가히, 아바즈: 세명의 시인(Uch shoir, Munis, Ogahi, Avaz)」, 「알리셰르 나버이이에게 헌정된 전시회(Alisher Navoiyga bag'ishlangan vistavka, 1940)」, 「우리의 여성 문인들(Ayol yozuvchilarimiz)」, 「함사(Xamsa, 1941)」 등 50개 이상의 문학평론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유누스 라티프는 신문사 편집장의 권유로 <우즈베키스탄의 목소리(O'zbekiston ovozi)>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불행히도 그는 그것 때문에 술레이만 아지머

브(Sulaymon Azimov) 반혁명 조직의 일원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다. 결국 1941년 가을에 체포돼 1942년 9월 5일에 사형되고 말았다. 그가 사망한지 12년 후인 1954년 1월 19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명예는 복권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누스 라티프

● 다국어 표기 Yunus Latif(우즈베크어), Юнус Латиф(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aim, *Qatag'on qurbonlari va ularning adabiy-badiy hamda publitsistik merosi*, Toshkent: O'zbekiston Respublikasi Fanlar Akademiyasi, 2015.

I F171 | 유대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유대교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Judaism

유일신 야훼를 신봉하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라는 이미지가 있으나 투르크인 일부와 하자르족 등 몇몇 다른 민족들 중에도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8세기 불란 카간(Bulan Khagan, 재위: 740년~786년) 시대에 우마이야 조의 무슬림과 비잔틴 기독교인 중 일부가 정치적 선택으로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737년 하자르는 우마이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개종을 강요받기도 했으나 우마이야의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이 결정은 취소된다. 그 후 하자르인이 10세기 무렵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대인 측 기록으로는 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비잔틴의 로마노스 황제 시대(Romanos I Lekapenos, 재위: 919년~944년)에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지면서 일부 유대인들이 하자르로 이주했고, 이로 인해 하자르 내에서 유대교가 힘을 얻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하자르 칸국이 받아들였던 유대교는 카라이트 분파이다. 카라이트 분파는 일종의 근본주의 분파로 모세 율법을 고수하고 토라를 제외한 다른 후속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회당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유대교 여성 랍비

따라 탈무드를 중시하는 이라크 유대인과 반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8세기부터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시리아, 북아프리카, 비잔틴, 이란, 아르메니아, 캅카스와 크림 등지로 카라이트 분파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하자르인은 히브리 문자를 사용하여 투르크어를 표기했다.

하자르족 이외에도 당시 카바르(Kabar), 칼리즈(Kaliz), 킵차크(kipchak) 투르크인 일부도 유대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자르 칸국이 차츰 몰락하고 하자르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화되자 유대교를 믿는 인구는 감소했다. 급기야 13세기 몽골 침략 이후 이들 중 일부는 크림으로 이주했으며, 옌파토리아(Yevpatoria), 페오도시야(Feodosia), 망굽(mangup), 스타리크림(Staryi Krym), 시프트칼레(cifitkale) 등에 정착했다.

그리고 1783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이 철수하면서 이들은 러시아 소속이 된다. 하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에 남아 있던 유대교 예배당이 사라지면서

유대교 투르크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오늘날까지도 각자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 날 유대교 투르크인의 대부분은 흑해와 발틱 해협 인근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리투아니아, 크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도 살고 있다. 이들을 카라임이라고 부르며 크림반도의 일부 투르크인의 경우 카라이트 유대교가 아닌, 탈무드를 중시하는 유대교, 즉 랍비 유대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크림차크(Krymchaks)라고 불린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태교, 야후디, 야후디릭
- 다국어 표기 Yahudiylik(우즈베크어), yehudilik(아제르바이잔어), Яһудилик(카자흐어), Ýehudylykda(투르크멘어), Ўһүдилек(바시키르어), Яһүдлэк(타타르어), Yahudili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라임, 크림차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gör, Harun. “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Cilt 3,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463~503.
Musaulı, Kenesbay. “Kırmılı Musevî Türkler Kırmıçaklar”(Aşur Özdemir, Trans) *Atatürk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Dergisi*, 1995, sayı: 3, pp.221~225.
Kuzgun, Şaban. *Hazar ve Karay Türkleri: Tür klerde Yahûdilik ve Doğu Avrupa Yahûdilerinin menşei meselesi*, Ankara: Se-da Yayınları, 1985.

I F172 | 유리잔(흉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Xiongno's roman glass

최근 흉노 무덤에서 로마 글라스가 발견되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골모드 II 유적의 1호 무덤에서 두 종류의 유리잔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완형의 유리잔은 파란색 바탕에 사이사이 불록하게 도드라진 부분에는 흰 줄을 넣은 것이었다. 직경은 7.5cm, 높이는 7cm이고 무게는 250g으로 이 제작기법은 B.C. 1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에서 사용된 것이다. 골모드 II 유적에서 나온 로마 글라스와 비슷한 유물은 독일과 미국의 박물관 전시품과 형태와 크기가 유사하다. 아직까

지 뚜렷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그 존재 자체가 희귀해서 흉노의 외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물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 다국어 표기 Римский бокал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 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몽골 흉노무덤 자료집성』, 2008.

I F173 | 유브하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Yuvha

유브하(Yuvha)는 투르크멘, 호라즘 우즈베크, 바시키르, 카잔 타타르 신화에 등장하는 물과 관련된 악한 존재이다. 카잔 타타르인들은 유하(Юха)라고도 부른다.

유브하는 아름다운 처녀인데, 아지다르하가 백년이나 천년 목계 되면 유브하로 변한다고 한다. 신화에서 유브하는 사람을 먹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처녀로 변해 남자와 결혼하고 천천히 그의 피를 빨아 남편을 말려 죽인다. 투르크멘, 호라즘 우즈베크의 신화에 따르면 유브하는 미리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예를 들면 머리 빛는 모습을 보지 않기, 등을 만지지 않기, 가까이 한 뒤에는 목욕하기 등), 이에 동의한 남자와 결혼하는데 남편이 등에 난 뱀 비늘을 보거나 빗질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를 벌한다. 만일 유브하를 죽이지 않으면 유브하는 남편을 잡아 먹는데, 오직 물이 없는 장소에서만 그녀를 죽일 수 있다.

유브하는 바시키르의 서사시 우랄-용사(Урал-батыр)나 민족의 다른 전설들 등장한다. 바시키르어에는 유브하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유하 이일란(юха йылан)’은 ‘교활한 사람’이란 뜻이며, ‘유할라니우(юхаланыу)’는 ‘가식적이다’란 의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옴하
- 다국어 표기 Yuvha(튀르키예어), Ajdar(우즈베크어), Юха(러시아어), Айдаһа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지다르하, 바시키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Vol. 2.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676.

I F174 | 유스티드 IX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고분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Yustyd IX

‘유스티드 XII 유적’은 알타이의 해발 2,000m의 추야강의 지류를 따라 7개의 유적이 나란히 유스티드 계곡에 위치한다. 이곳은 초기 철기시대 문화인 파지리크 문화부터 투르크 시대까지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모두 28기의 무덤이 발굴되었고, 그중에서 3호, 12호, 14호, 28호와 29호가 투르크 시대의 무덤이다.

추야강을 따라서 있는 B.C. 5세기 스키타이 시대 파지리크 문화의 유적에는 무덤이 일렬로 서 있는데, 투르크 시대에는 이 문화의 무덤의 가장 끝에 1기~3기 정도 무덤을 만들었다. 그중 28호 무덤은 둥근 무덤구덩이 안에 사람과 말을 함께 묻었다. 사람의 두향은 북쪽 방향이고 사지를 뻗은 채 매장했고 말은 반대 방향으로 등을 땅에 대고 다리를 천장으로 향한 상태이다. 29호 무덤에는 구덩이 안에 사람과 함께 말 2마리를 함께 묻었다. 주인공과 함께 활과 화살통이 매장되었는데, 화살통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어졌으며 무덤 주인공의 신체를 덮을 정도로 크게 제작되었다.

무덤 내부에는 화살이 6개 들어 있었다. 말도 재갈, 재갈멈치뿐만 아니라 등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등자가 유적의 시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이다. 알타이 지역에서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이전의 유적은 말의 등자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코크파시 단계와 개마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는 쿠디리게 단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로 학계에서는 전자는 3세기~5세기 중반, 후자는 5세기 중반~7세기로 본다. 유스티드 XII 유적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었기에 알타이에서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기 이전인 쿠디리게 단계(5세기 중반~7세기)의 유적이라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스티드 고분

● 다국어 표기 Юстыд XII(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코크 파시, 쿠디리게, 흥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Д. 1991 : Курганы Юстыда. Новосибирск: 1991. 194 с; Кубарев Г.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ок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F175 | 유스티드 XII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Yustyd-12

유스티드 고분군은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추야(Чуя, Chuya) 평원에 있는 유스티드강 유역을 따라 12km에 걸쳐 있다. 무덤군의 연대는 B.C. 3세기~B.C. 2세기로 흥노가 성립되기 이전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쿠바레프(Кубарев В.Д., Kubarev V.D.)가 1976년부터 14년에 걸쳐 고분군에 속한 총 5개 무덤군을 발견했으며 그중 1호, 12호, 13호 무덤군에 속하는 33기의 무덤을 조사해서 보고했다.

유스티드 1호 무덤군에서 조사된 무덤은 7기였다. 그중 1호~4호 고분의 직경은 11m로 호석은 1열의 돌이 무덤 주변을 원형으로 돌도록 만들어졌다. 무덤방에는 말이 부장되지 않았다. 목곽의 크기는 가장 큰 것이 2.6mx1.75m로 대부분 나무로 목곽 바닥을 깔았고 매장자의 두향이 서쪽인 점이 특징적이다.

피장자 수는 1명~2명 정도로 남성과 여성, 유아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오른쪽으로 몸을

구부러 놓혔다. 그 밖에 토기, 목제 빗, 목제 동물장식, 골제 화살촉, 목제 단검 등의 목제와 골제로 이루어진 유물이 공통적으로 출토되었다. 12호 무덤군은 총 29기며 그중 24기가 조사되었다. 고분의 직경은 6m~11m로 중소형 적석무덤이며 가장 큰 목곽의 크기가 2.1mx1.5m였다. 말은 1~2마리가 부장되었으나 모든 무덤에 부장된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서도 철제 단검, 재갈, 투부조각, 토기 청동거울, 화살촉, 목제 동물 형상 조각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유스티드 고분군에서는 남, 여, 유아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반드시 말이 많이 부장되거나 통나무 관이 쓰이지 않았다.. 또 성인과 유아의 합장묘 보다는 단독의 유아묘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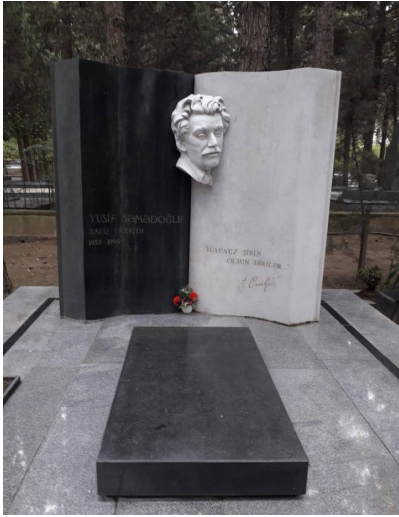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스티드 12
- 다국어 표기 ЮстыдXII(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Д. 1991 : Курганы Юстыда. Новосибирск: 1991. 194 с.

I F176 | 유시프 새매드오굴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Yusif Səmədoğlu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인 유시프 새매드오굴르(Yusif Səmədoğlu)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짧고 간결하며 깊은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산문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35년 12월 25일 바쿠에서 태어났다. 유명한 시인 새매트 부르군(Səməd Vurğun)의 아들인 그는 중등교육을 바쿠에서 받은 후 1953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막심 고리키 문학대학교(Maksim Gork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에 입학했다. 그리고 대학 마지막 학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지금의 바쿠 국립대학교) 아제르바이잔어 문학과로 편입해 1958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유시프 새매드오굴르는 다년간 잡지 <별(Ulduz)>과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의 편집장



유시프 새매도굴르 묘비

을 역임했다. 아제르바이잔 영화 스튜디오(Azərbaycanfilm kinostudiyası)에서 부서장,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Azərbaycan Yazıçılar Birliyi) 산문 부서 서기관을 맡기도 했다. 정치인으로 그는 1990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문학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하면 데뷔는 다소 늦은 편이다. 그의 첫 단편집 『220호 방(220 №-li otaq)』은 1960년에 출판됐다. 그리고 1973년에 단편집 『은하(Qalaktika)』와 1987년에 『살인한 날(Qətl günü)』이란 소설이 출판됐다. 그는 다작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몇몇 작품이 인기를 끌면서 그의 작품을 토대로 「일곱 명의 아들을 원한다(Yeddi oğul istərəm, 1970)」, 「바람(Səmt küləyi, 1973)」, 「살인한 날(Qətl günü, 1990)」 등 다양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됐다.

그는 1979년에 명예 예술가(Əməkdar incəsənət xadimi)와 1998년에 아제르바이잔 민족 작가(Azərbaycanın Xalq yazıçısı) 칭호를 받았고, 1995년에는 영광(Şöhrət) 훈장을 받았다.

그는 1998년 8월 17일 바쿠에서 사망했고, 제1명예의 묘지(I Fəxri xiyaban)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시프 새매트오굴르, 유시프 새매도글루는
- 다국어 표기 Yusuf Samedoğlu(튀르키예어), Юсиф Самедоглу(러시아어), Йосыф Самедоглу(타타르어), Юсиф Самедоглу(카자어), Yusif Samedoglu(우즈베크어), Юсиф Самедоглу(키르기스어), Yusif Samedoğlu(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I F177 | 유시프 왜지르 채맨재민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장주영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Yusif Vəzir Çəmənəminli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작가이자 출판인인 유시프 왜지르 채맨재민리(Yusif Vəzir Çəmənəminli)는 1887년 9월 12일에 도시 슈샤(Şuşa, 아르메니아가 점령했다가 탈환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18세기 카라바크 통치자 '이브라힘할리 칸'의 집안의 일곱 자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문학평론가이자 교사였던 '미르바바 왜지로프'(Mirbaba Vəzirov), 그의 어머니는 세이드 후세인의 딸인 '사이드 아지즈'(Seyyid Aziz)였다.

그의 아버지 '미르바바 왜지로프'는 중앙아시아, 이란 및 오스만 제국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행했기에 견문이 넓었으며 페르시아어와 튀르키예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만큼 자녀 교육에도 열의가 높아 자신만의 독특한 교수법을 만들어 페르시아어-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 사전을 만들기까지 했다. 그들의 집은 슈샤의 예술가, 음악가 및 시인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기에 유시프 왜지르 역시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1895년 블린드만 칼리파(Blindman Khalifa)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09년에 바쿠 레알 학교(Bakı Real Məktəb)에 진학했다. 그러나 1905년~1906년에 슈샤와 카라바크(Qrarbağ) 지역에서 발발한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 내전으로 슈샤를 떠나야만 했고 설상가상으로 1906년 그의 아버지 미르바바 왜지로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가족은 외갓집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쉬가바드에 이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레알 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으며, 지역 아제르바이잔 정기 간행물인 <새다 신문(Səda qəzeti)>에 「사흐굴루의 결혼식(Şahqulunun xeyir işi)」이라는 단편을 발표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그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천국의 영수증(Cənnətin qəbzi)」, 「매르시예한(Mərsiyəxan)」, 「흰 턱에 난 검은 점(Ağ buxaqda qara xal)」, 「고향(Vətən)」 등 많은 단편을 썼다. 특히 시간이 가면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희곡, 학술논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펼쳐나갔다.

1910년 그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키예프(Kiyev)의 성 블라디미르 대학(Müqəddəs

Vladimir adına İmperator Universiteti)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무사바트 당(Musavat partiyası) 우크라이나 파의 위원장이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과 함께 성 블라디미르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사라토프(러시아의 볼가지역)으로 이송되었고, 유시프는 1915년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한동안 사라토프 사법부에서 근무하다, 1917년 아제르바이잔 문화 협회 설립을 위하여 키이우로 돌아와,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1918년~1920년)의 아제르바이잔 대사를 역임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혼란으로 이후 크림반도 심페로폴로 이주하여 사법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리피카 타타르(Lipka Tatars)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리투아니안 타타르>를 출판했으며, 『아제르바이잔 문학 조사(A Survey of Azerbaijani Literature, 1921)』, 『아제르바이잔의 역사, 지리 및 경제(The History, Geography and Economy of Azerbaijan, 1921)』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문학에 대한 기사를 지역 신문에 게재하는 등 아제르바이잔 문화를 대중화 하는 데 힘썼다.

또한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역사소설 저자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들(Studentlər)」, 「두 개의 불기둥 사이(İki od arasında)」와 같은 소설들은 역사와 현대적 주제를 접목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최초의 역사소설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소설 「대학생들(Studentlər)」은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냈던 대학 시절이 담겨 있다. 「두 개의 불기둥 사이(İki od arasında)」라는 소설에서는 ‘몰라 패나흐 와기프’(Molla Pənah Vaqif)의 생애와 도전을 담았으며, 소설 「소녀의 샘(Qızlar bulağı)」에서는 투르크인들의 이슬람 이전 역사를 그렸다. 희곡 작품 「해즈래스-새흐리야르(Həzrəti-Şəhriyar)」에서는 이민자들의 힘든 삶을 다루고 있다.

그는 문학평론 분야에서도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1921년에는 이스탄불에서 비평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대한 고찰(Azərbaycan ədəbiyyatına bir nəzər)』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 중 하나이다.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 붕괴 이후 그는 남동생 미르 압둘라(Mir Abdulla)의 곁인 프랑스로 떠나게 되지만, 당시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인한 많은 망명자들로 인해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파리 교외에 위치한 자동차 기관차 공장에서 일하며 간간히 <동방의 편지(Lettres orientales)>라는 제목의 지역 간행물에 글을 기고했다. 그러던 중 남동생 미르 압둘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유럽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가 아제르바이잔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한다.

1926년 그는 바쿠로 돌아와, 이후 아제르바이잔 대학에서 외국어를 가르쳤으며, 러시아 작가들의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다. 또한 ‘채맨제민리’는 필명으로 다양한 소설을 집필해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또한 1934년 최초의 러시아어-아제르바이잔어 사전 편찬에도 참여했다. 스탈린의 대숙청이 이루어졌던 1937년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에도 관련 대역을 숙청하기 위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의 소설들은 반혁명적 사상을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1937년 결국 아



유시프 왜지르 채맨제민리가 살았던 집

제르바이잔 작가연맹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자신의 문학 경력에 대한 이력을 작성해서 보내지만 어떠한 대답도 얻지 못했고, 다시 바쿠로 돌아와 아파트 지하실에서 몇 달간 숨어 지냈다. 그는 그 시기에 평생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두 세계의 사이(Between Two Worlds)』를 집필하였다. 핍박을 피해 1938년에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대학교(Urgənc universiteti)에서 러시아어 교사로 지내지만,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40년 1월 25일 체포되었고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유배되었다. 그는 8년의 노동 수용소형을 선고받았으며 1943년 1월 3일에 고리키(Qorki şəhəri, 현재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 도시 근처에 있는 수호베즈보드노예(Suxobezvodnoye) 감옥에서 체포된 지 3년 후 영양실조, 및 기타 질병 및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의 작품은 출판이 금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시프 베지르 채맨제민리, 유수프 베지르 체멘제민리

● 다국어 표기 Yusuf Vezir Çemenzeminli(튀르키예어), Юсиф Везир Чемеңземинли(러시아어), Юсиф Вазир

Чаманзаминли(키르기스어), Yusif Vazir Chamanzaminli(우즈베크어), Yusif Wazir Çamanzaminli(투르크멘어), Йосыф Вазир Чаманзаминли(타타르어), وزیر یوسف، چمن زمینلی(페르시아어), Yusif Vəzir Çəmənçəminli(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yev Bəhlul, *Yusif Vəzir Çəmənçəminli Və Olklore*, Bakı: Elm, 1981.
- Axundova Məryəm, *Yusif Vəzir Çəmənçəminli*, Bakı: Yazıçıl, 1981.
-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 Hüseynoğlu Tofiq, *Ədəbiyyatla Yaşayırım*, Bakı: Azərənəşr, 1993.
- Məcidqızı Leyla, *Yusif Vəzir Çəmənçəminli Və Rus Mədəniyyəti*, Bakı: 2002.
- Məmmədov Kamran, *Yusif Vəzir Çəmənçəminli*, Bakı: AzərNəşr, 1987.
-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Dərslik)*, İki Cildde, 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 Sultanlı Vaqif,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I F178 | 유시프 이븐 쿤세이이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Yusif ibn Küseyir Mausoleum

유시프 이븐 쿤세이이르 영묘는 나흐츠반시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아타바바 영묘’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영묘 건축의 흔적이 많이 존재하는 나흐츠반 지역의 대표적인 영묘 중 하나로 특히 팔각뿔 지붕은 아제르바이잔 유적 중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내려오는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이다.

이 영묘는 1162년 유스프 빈 알리(Yusuf bin Ali)를 위하여 건설되었다. 비문에 의하면 그는 아히의 지도자로 보이며 건축가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 건축가인 아자미 빈 아부바크르 나흐치바니(Ajami ibn Abubakr Nakhchivani, 12세기~13세기)였다. 이 영묘의 19세기 이전의 복원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19세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수리를 거친 것은 분명하다.

영묘 건축의 주재료는 벽돌로 팔각형의 몸체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치형의 입구가 서쪽 면에 있으며 몸체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뉜다. 아래층은 지하에 있는데, 동일하게 팔각형이다. 그러나 이 팔각형은 정팔각형은 아니다. 보통의 경우 서쪽 면의 아치형 문을 통해 계단을 밟아



유시프 이븐 퀴세이이르 영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으며 아래층은 돔과 유사한 볼트로 덮여 있다.

2층 내부는 모서리마다 둥근 아치형의 몰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펜던티프로 지지되는 돔이 존재한다. 지붕은 팔각뿔 형태이며 몸체와 지붕 사이는 코란의 구절이 쿠틱 서체로 새겨진 직사각형 패널로 둘러싸여 있다.

입구 양쪽에는 작은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며 문 위에는 첨두아치형의 벽감이 있다. 문을 둘러싼 패널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패널에는 건설 날짜가 적힌 비문이 있다. 건축가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은 서북 면에 있으며 영묘에 쓰인 모든 글씨는 쿠틱 서체로 쓰였다.

팔각형 몸체의 면의 장식은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들어낸 기하학 문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벽돌을 이용하여 모자이크 방식으로 십자가 문양, 마름모, 별 문양, 다각형 장식을 비롯하여 쿠틱 서체의 비문 등이 몸체를 장식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시프 이븐 쿠세이르 영묘, 유시프 이븐 쿠세이르 튀르베시, 유스프 이븐 퀴세이르 튀르베시
- 다국어 표기 Yusif ibn Küseyir türbesi(아제르바이잔어), Yusuf bin Küseyir Türbesi(튀르키예어), Yusuf Ibn Qusayr Maqbaras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아자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7/Nakhichevan_Mausoleum.jpg/300px-Nakhichevan_Mausoleu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Yazar, Turgay. *Nahcivan'da Türk mimarisi: başlangıcından 19. yüzyılın sonuna kadar*, Ankara: Türk Tarih Kurumu, 200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F179 | 유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Jou-jan

A.D. 155년 흉노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4세기 말까지 정치적 힘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흉노 제국 멸망 직후 선비(鮮卑)가 그들의 수장인 단석괴(檀石槐)를 중심으로 몽골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스텝 지대를 일시적으로 지배하기도 했지만 흉노가 남긴 힘의 공백 상태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4세기 말, 새로운 유목 연맹체인 유연(柔然)이 등장하면서 공백기는 종식을 고하기 시작했다.

중국 사서에 따르면 유목 연맹체의 원래 종족명이 유연이었는데 북위(北魏)의 태조 재위(386년~409년)에 그들이 마치 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은 형상을 했다고 해서 연연(蠕蠕)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중국인이 북방 민족을 경멸하는 중화사관(中華史觀)에서 비롯된 표기이다. 한편, 연연 이외에도 중국 사서상에 유연을 지칭하는 한어전사 표기로는 예(芮芮), 여여(茹茹), 유연(蠕蠕) 등이 있다. 어쨌든 유연은 사륜(社崙: 402년~410년)의 등장과 더불어 몽골고원의 유목 제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륜은 권위의 상징으로 자신을 구두벌가한(丘豆伐可汗)이라고 칭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유연 제국을 계승했던 돌궐(突厥), 회궐(回紇), 몽골(蒙古)과 같은 대부분의 유목 제국의 수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의 상징으로 가한(可汗: Qaghan)이라는 관직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사서를 엄밀히 살펴보면 흉노 제국 멸망 후 일시적이거나 몽골리아의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선비의 몇몇 부족장들에 의해 가한(可汗) 또는 한(汗)이라는 관직명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유목 제국의 수장을 지칭하는 관직명으로 가한이라는 관직명이 사용된 것은 유연의 사륜 가한 재위기부터였다.

그 후 534년에 북위가 분열하면서 동서양위(東西兩魏)의 수립으로 상대적으로 유연의 세력은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유연의 아나괴는 동위(東魏: 534년~550년) 및 서위(西魏: 534년~557년) 조정과 혼인 관계를 맺고 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유연의 세력은 520년 발생한 내란 이후 사륜이 군림하던 전성기나 대단가한의 재위기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연의 세력 약화는 곧바로 유연의 복속 민족 중 하나인 돌궐(突厥)의 세력이 성장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사서는 돌궐의 본거지가 알타이산맥 지역으로 본래 유연에 복속되었던 부족이었으며 주로 철작에 종사했다고 전한다.

551년에 유연에 복속되어 있던 철륵(鐵勒)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나괴에 의해 당시 돌궐의 부족장인 토문(土門)이 반란 진압의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토문은 대승전을 거두며 철륵을 유연에 재복속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후 돌궐의 수령인 토문이 유연의 공주와 혼인하기를 요청했는데 아나괴는 유연의 공주가 대장장이 노예 부족인 돌궐과 혼사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에 토문은 유연의 지배에서 독립할 목적으로 540년 당시 아나괴의 침공으로 유연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서위와 동맹을 맺게 된다. 그리고 동맹의 증표로 서위의 장락공주(長樂公主)가 토문과 혼인했다. 552년 초 서위의 지원을 받은 토문은 반란을 일으켜 돌궐의 반군과 유연의 진압군은 회황(懷荒)의 북쪽에서 대접전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유연군은 대패했다. 그 결과 유연의 수장인 아나괴는 자살했고 그의 죽음으로 유연 제국의 내부 분열이 본격화되었다. 패망이 확실해지자 아나괴의 장자인 엄라진(奄羅辰)과 조카인 등주(登注)를 중심으로 한 유연의 일부는 당시 동위를 계승했던 북제(北齊: 550년~577년)에 항복했다. 남은 유연의 잔여무리는 철대(鐵代)를 새로운 가한으로 옹립했지만, 그도 거란(契丹)의 공격으로 살해당했다. 그리고 엄라진과 등숙자를 중심으로 유연 제국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잠시 있었지만 돌궐의 연이은 공격으로 결국 유연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555년 돌궐의 목간가한(木杆可汗)의 공격으로 유연 제국은 완전히 와해되어 패망했다. 그리고 스텝 지대에는 새로운 유목 제국인 돌궐 제국이 건설되었다. 한편 A.D. 557년 유럽사에 등장한 후 약 2세기에 걸쳐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했던 아바르족과 동양사에 등장하는 유연족이 돌궐에 의해 멸망한 후 그들 중의 일부가 서천해서 비롯되었다는 ‘유연-아바르 동족론’ 문제는 아직까지 학계의 논란이 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연연
- 다국어 표기 Jou-jan(영어), Juan-Juan(튀르키예어), 柔然(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돌궐, 선비

- 참고문헌(오프라인) 福蘭騰 著, 송기중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 .内田吟風, “柔然族序說”, 羽田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 京都, 1950.
- 北アジア史研究. 鮮卑, 柔然, 突厥篇, 京都, 1970.
- 馬長壽, 烏桓與鮮卑, 上海人民出版社, 1962. 松田壽南, 古代天山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56.
- 禹憲燦, “柔然史關聯 重要 두 問題에 關한 研究”, 중동연구 제15호, 한국외대중동연구소, 1996.
- Boodberg, Peter A., “The Language of the T’o-pa Wei”,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I, 1936.
- Haussig, H.W., “Theophylakts Exkurs über die skythischen Völker”, Byzantion, Tome XXIII, 1953.
- “Die Quellen über die Zentralasiatische Herkunft der Europäischen Awaren”, Central Asiatic Journal, Vol. II, 1956.
- Howorth, H.H., “The Avar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L, 1912. Kollautz, Arnulf, Geschichte und Kultureines Völker wanderungs-zeitlichen Nomadenvolkes. *Die Jou-jan der Mongolei und Awaren in Mitteleuropa, Klagenfurt, 1970.*
- Mohay, A., “Priskos’ Fragment über die Wanderungen der Steppenvölker”, Acta Archaeologic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24, 1976.
- Olbricht, Peter, “Besprechung von Uchida’s Prolegomena zu einer Geschichte der Jou-jan”, Ural Altaische Jahrbücher, Band 26, 1954.
-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F180 | 유연-아바르 동족론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상
- 유형 소분류2 이론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Relation to Jou-jan and Avar

A.D. 557년 유럽사상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후 약 2세기에 걸쳐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했던 아바르(Avar)족의 기원 문제는 훈족의 기원 문제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학설은 아바르족이 동양사에 등장하는 유연족이 돌궐에 의해 멸망한 후 그들 중 일부가 서천해서 만들어졌다는 ‘유연-아바르 동족론’이다. 이 학설은 아바르족의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 비잔틴 문헌과 사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와 돌궐에 의한 유연 패망을 정설로 전개하는 중국 사서 기록과 사료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호 부합된다는 점 때문에 아직 많은 논쟁거리를 남겨놓고 있다.

7세기 전반에 활동한 비잔틴 사가 테오피락트 시모카테스(Theophylakt Simocattes)의 역사서에 따르면 아바르족은 6세기 중엽 투르크에 의해 멸망되기 이전 동방 유목민족 중 최강자였다. 또한 『위서』, 『북사』 등의 중국 사서는 유연이 6세기 중엽 돌궐에 의해 멸망되기 이전에 북적(北狄) 중에서 최강자였다고 전한다. 또한 테오피락트 시모카테스의 역사서는 아바르족이 투르크에 의해 멸망된 후 그중 일부가 타우가스(Taugas: 중국을 지칭)로 도주했다고 전하는데, 상기한 중국 사서에도 유연이 돌궐에 의해 패망된 후 그중 일부가 서위로 도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아바르와 유연이 사용했던 여러 관직 명과 유사 인명들의 존재는 ‘유연-아바르 동족론’ 성립의 가능성을 더한층 배가시켜주고 있다.

한편, ‘유연 아바르 동족론’의 성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테오피락트 시모카테스가 남긴 다음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즉, 그는 아바르족을 ‘진짜 아바르’(Real Avar)와 ‘가짜 아바르’(Pseudo Avar)로 구분해서 유럽 아바르는 ‘우아르’(Uar)와 ‘훈니’(Hunni) 두 종족 집단으로 구성된 가짜 아바르였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유연 제국이 아바르와 흉노 제국 멸망 후 흉노의 잔존 세력으로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 사료에서 전하듯이 흉노 제국 멸망 후 상당수에 달하는 흉노의 잔여 무리가 선비가 주도한 부족 연맹에 가담했고 유연이 선비에서 갈려 나온 한 분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연이라는 새로운 부족 연맹에도 상당수의 흉노계 종족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오피락트 시모카테스가 ‘우아르’, ‘훈니’라고 기술한 두 종족집단은 ‘아바르’와 ‘훈’(흉노)를 지칭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 문제는 ‘흉노-훈 동족론’과 더불어 동양사나 서양사 양 측면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임이 분명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바르-유연 동족론

● 다국어 표기 Relation to Jou-jan and Avar(영어)

● 연관 검색어 유연, 아바르, 돌궐, 선비

● 참고문헌(오프라인) Barford Paul M., *The Early Slavs: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edieval Eastern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2001.

Bregel Yuri, *An Historical Atlas of Central Asia*, Brill, 2003.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F181 | 으클라스 두켄울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Yklas Dukenuuly

으클라스 두켄울르(Yklas Dukenuuly: 1843년~1916년)는 1843년 카라간다 주 좌나아르킨스 크 군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성장했다. 아버지의 음악 재능을 물려받아 일찍이 카자흐 전통 현악기인 돔브라 연주에 능력을 발휘했다. 으클라스의 부친과 조부 모두 이러한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 있어서 악기 연주는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대개 7대손에 이르는 연주가였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악보보다는 전승되어 내려오던 운문인 큐이(Kyui)를 토대로 돔브라 연주가 행해졌기에 자연스럽게 으클라스는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전으로 전승되던 큐이를 토대로 악기를 연주하는, 19세기에 널리 행해진 전형적인 카자흐 전통 음악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으클라스는 2줄 현악기 코브즈(Qobyz) 및 돔브라 용 연주곡을 많이 만들었고 이들 퍼뜨리는 데 활약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카자흐인들이 으클라스를 통해 전통적 운문을 악기 연주와 함께 접할 수 있었다. 으클라스는 단순히 연주뿐만 아니라 스스로 작곡, 작사까지도 하여 카자흐스탄 전통 음악의 체계를 확립한 음악가였다. 그 소재는 대개 카자흐인들의 옛날 전설, 민담 등이 주류가 되었다.

으클라스의 이러한 노력은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전승되어 현재까지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1990년 알마티 판필로프 공원에 위치한 민속악기박물관 공식 명칭에 으클라스의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보면 카자흐스탄 전통 음악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클라스 두켄울르
- 다국어 표기 Ыкылас Дуқенулы(카자흐어), Ихлас Дуқен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돔브라, 코브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wi_01liA-k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tarih-begalinka.kz/ru/history/modern/figures/ykylas/>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F182 | 으흐아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강덕수, 김근식 ● 라틴 문자 yhyakh

‘으흐아흐’는 하짓날에 열리는 해맞이 축제이다. ‘으흐아흐’는 야쿠트어이며, 러시아어로는 ‘으스아흐’로 발음된다. 전통적으로 으흐아흐는 6월 21일 하지에 열지만 최근에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6월 10일~25일 사이에 개최되기도 한다. 긴 겨울을 보내고 해가 가장 일찍 뜨는 하짓날 아침 야쿠트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 태양신 ‘아이으’를 향해 경배하며 축복을 빈다. 이날 주민들은 음식을 대접하고, 크므스(kumys, 馬乳酒)를 마시고 춤을 추거나 전통놀이, 마상 경주 등을 즐긴다.

주민들은 모두 입구에 자작나무 가지로 피운 연기를 통과하며 심신을 정화하는 통과의를 거친 이후 축제장에 입장한다. 축제는 한 가운데에 설치된 장작더미에 샤먼이 불을 붙여 불의 신을 초대하는 초혼제로부터 시작된다. 샤먼이 알라지(밀가루 튀김의 전통음식)와 크므스로 불의 신을 대접하면 이어서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라지와 크므스를 나누어 준다.

그 다음 울롱호를 주제로 하는 전통 음악극이 펼쳐진다. 울롱호의 영웅 보오투르(bootur, 무사)가 나타나 악령 아바아흐(abaahy)에 의해 납치된 누이동생을 찾아오는 활극이 벌어진다. 싸움 중 주인공은 아바아흐의 힘에 밀려 위험에 빠지는데 이때 여사제 우다간(udagan)이 나타나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출해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준다. 원기를 회복한 주인공 보오투르(bootur, 무사)는 마침내 누이동생을 구출하여 귀환한다. 이윽고 으흐아흐는 절정을 지나 승리의 축제로 마무리된다.

축제 으흐아흐의 마무리는 참가자 모두가 연단에서 내려와 손에 손을 잡고 원무를 추는 것이다. 이 원무를 오후오하이(ohyoхай)라 한다. 한국의 “강강술래”와 같은 모티프로서 이 원무

를 마지막으로 축제는 끝난다.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부근에서는 집에서 만든 특산물들을 파는 장이 열린다. 작은 시골에서는 이 축제를 통해 청춘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으흐아흐의 한 장면

으흐아흐는 그 기원이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의 크므스 축제와

같이서 투바인, 알타이인, 타타르인, 바시키르인 등 투르크 민족의 여름 축제와 유사하다. 17세기 말 시베리아를 통과해 중국을 여행한 네덜란드 여행가 이데스가 으흐아흐에 대해 처음 기록했다. 그에 따르면 야쿠트인들은 장작을 실어와 축제 기간 동안 불을 계속 피웠다고 한다.

이들은 이때 조상을 기리고 대대로 내려온 풍습을 되새기곤 한다. 이 축제가 야쿠트인에게 특별한 이유는 겨울이 매우 춥고 긴 사하 공화국에서 모든 친척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으스아흐

● 다국어 표기 ыһыах(야쿠트어), ысыах(러시아어), Yhyakh(영어), Isiyah(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아이으, 올롱호, 사하 공화국

● 참고문헌(온라인)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Ысыах—символ якутской культуры

<http://ilin-yakutsk.narod.ru/2006-3/04.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Романова Е.Н. Якутский праздник Ысыах: истоки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овосибирск:

Новосибирский филиал ФГУП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94, 14~30.

I F183 | 음절시인 5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시 ● 유형 소분류2 동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BEŞ HECECİLER

오스만 제국이 쇠퇴해가고, 영토가 축소되기 시작한 1900년대는 튀르키예 문단을 지배하는 언어, 역사, 자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사상이 공존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세이피 오르훈(Orhan Seyfi Orhon, 1890년~1972년), 할리트 파흐리 오잔소이(Halit Fahri Ozansoy, 1891년~1971년), 에니스 베히취 코르이위레크(Enis Behiç Koryürek, 1892년~1949년), 유수프 지야 오르타취(Yusuf Ziya Ortaç, 1895년~1967년), 파룩 나피즈 참르벨(Faruk Nafiz Çamlıbel, 1898년~1973년) 등 5명의 시인은 ‘음절시인 5인(Beş Hececiler)’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다섯명 동인들은 발칸전쟁(1911년~1912년)과 세르베티 뛰눈 그리고 지야 괴칼프(Ziya Gökalp)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야 괴칼프는 민족문학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메쉬루티예트(입헌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세계관과 사상을 가진 튀르키예 지식인들의 뜻이 모였다. 당시 그들에게는 가리프 파, 이슬람주의자, 투르크 민족주의자 할 것 없이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문예사조 ‘민족문학’이 부상했다. 처음엔 1911년 테살로니키에서 출간하기 시작한 문예지 <젊은 작가들(Genç Kalemler)>을 통해 언어와 문학 분야에서 민족주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 문학에서 처음으로 순수 튀르키예어와 민족 고유 방식인 음절(Hece)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1897년 메흐메드 에민(Mehmed Emin)이 발표한 「전쟁터로 갈 때(Cenge Giderken)」이다. 이 시는 지식인이 지은 시로서는 처음으로 음절에 따라 지어진 것이었다. 메흐메드 에민은 1898년에 음절로 쓴 9개 시를 엮어 『튀르키예어 시선집(Türkçe Şiirler)』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이 작품은 나라 안팎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르자 테브피크가 시에 코슈마(koşma)와 호흡(nefes) 기법을 사용해 음절을 확장했고, 그밖에 젊은 작가들(Genç Kalemler)도 ‘새로운 언어(yeni lisan) 운동’을 이끌며 음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11년부터 1917년까지 ‘음절시인 5인’이 대중들로부터 민족문학 사조를 인정받기 위해 노

력을 할 당시에는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와 제나브 샤흐베티딘(Cenab Şahabeddin) 같은 세르베티 튀눈 시인들이 여전히 문학적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페즈리 아티 시인들의 명성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튀르키예 시 문단에는 여러 움직임이 요동치고 있었고, 민족문학 사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몇몇 시인은 고대 투르크 역사, 전설, 전통과 연관 있는 스타일에서 시를 썼고(메흐메드 에민, 지야 괴칼프 등), 다른 몇몇은 민족문학을 ‘민중 시로의 회귀’로 간주하며 민중 시 스타일로 썼다(르자 테브피크, 파루크 나피즈, 오르한 세이피, 유수프 지야 등). 메흐메드 에민과 지야 괴칼프 이외에 거의 모든 작가는 개인적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음절시인 5인’은 시는 간결해야 하고, 모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전문학인 디반 문학(Divan Edebiyatı)처럼 특정 지배층을 위하거나 민중 시인처럼 서민이나 시골 사람을 대상으로만 쓰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시를 쓰려고 노력했다. 특히 지야 괴칼프는 구어가 문학에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 시인들이 평생 음절 하나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음절시인 5인’은 민족문학, 민족 고유의 음절, 민족언어를 중심으로 튀르키예 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음절 시는 아루즈(Aruz: 아랍시에서 볼 수 있는 운율)를 잃어버린 대신 튀르키예어가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이 부가되었다. 여기에 구어체가 시로 옮겨졌다.

‘음절시인 5인’은 이 같은 작업에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며 개인의 감성과 조국의 구석구석 아나톨리아에 퍼져 있는 현실을 시에 담아냈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민족적 예술, 역사적 소재를 녹여 민족문학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비평가 쿠쉬(Kuş)는 음절시인 5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음절시인 5인은 ‘민족’이라 외치는 모든 가치를 다양한 곳에서 찾아 수용했다. 그들은 고유한 화법으로 시를 지으려는 욕구를 지녔다. 우리 삶 모든 곳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 민족과 지역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음절시인 5인의 시에 녹아 있다.”

‘음절시인 5인’이 튀르키예 시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나톨리아이다. 독립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아나톨리아는 거의 문학작품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작품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전혀 없었던 아나톨리아 사람들은 ‘음절시인 5인’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시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다. 형식적으로 아루즈 운율을 멀리하고 민중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음절로 글



음절시인 5인

(왼쪽부터 파룩 나피즈 참르벨, 에니스 베히취 코르이위레크, 세이피 오르훈, 유수프 지야 오르타취, 할리트 파흐리 오잔소이)
Source: <https://www.tarihistan.org/images/haberler/>

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음절 시인 5인’의 노력이 이어졌기에 아나톨리아는 더 이상 소외되지 않게 되었다. 튀르키예를 상징하는 순수 튀르키예 말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국가 이념과 함께 문학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주의 흐름은 ‘음절시인 5인’으로 말미암아 튀르키예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이후부터는 음절로 시를 쓰기 시작한 시인이 많아졌다. 단순히 음절로 시를 지은 사람들과 ‘음절시인 5인’의 차이점은 음절시인들은 그때까지 튀르키예 문단이 주목하지 않았던 아나톨리아를 향해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음절주의 시인들
- 다국어 표기 FIVE POET OF SYLLABLES(영어), BEŞ HECECİLE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지야 괴칼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Kocahanoğlu Orhan Selim, *Milli Edebiyat Hareketi ve Beş Hececiler*, Toker Yayınları, İstanbul, 1987.
Kuş Duygu, “Beş Hececiler”de Bir Değer Olarak “Milli Romantik Duyuş Tarzı”, *Balkesir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S.32, Aralık 2014.
Tuncer Hüseyin, *Beş Hececiler*, Akademi Kitabevi, İzmir, 2004.
Uçman Abdullah, “Beş Hececiler”, *Türkiye Diyanet Vakfı İslam Ansiklopedisi*, Cilt: 5, TDV Yayınları, Ankara, 1992.

I F184 | 이그낙 쿠노스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헝가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Ignác Kúnos

이그낙 쿠노스는 1862년 9월 22일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의 하지두삼손(Hajdusámson)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후 고등학교까지 데브레첸에서 다녔으며 부다페스트의 파즈마니 피터 대학교에 진학해 헝가리학과 투르크학을 공부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 밤베리에게서 튀르키예어, 오스만 투르크어를 배웠고, 요세프 부딘즈에게서 위구르어와 차가타이어를 배웠다. 그리고 졸업 후 1885년 이스탄불에서 아흐메드 베피크 파샤의 조언에 따라 술탄의 학교(Mekteb-i Sultani(현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서 문학 수업과 페르시아어 수업을 들었다.

그는 학업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이스탄불을 머무르며 여행을 다녔다. 아나톨리아, 부르사, 에스키셰히르, 앙카라 등을 여행하며 튀르키예어 방언 공부에 집중했고 5년 정도 지난 후 부다페스트로 돌아와 파즈마니 피터 대학교(Pázmány Peter University)와 부다페스트 동양산업대학(Oriental College of Commerce)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교수로 진급한 후 동무역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담당했다.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카롤리 국왕(King Károly)에게 헝가리 국가 훈장을 받기도 했던 그는 1945년 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긴 생애 동안 수백 편의 시, 민요, 자장가, 수수께끼 등을 작품을 출판했고, 아나톨리아에서 풍부한 민속 문학 자료들을 수집했으며, 언어 연구 외에도 특히 민속에 관련된 주제에 중점을 두어 유럽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자로 남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그나스 쿠노스
- 다국어 표기 Ignác Kúnos(헝가리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베피크 파샤, 이스탄불, 앙카라, 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kunos-ignacz>
- 참고문헌(오프라인) Kakuk, Zsuzsa; Kúnos, Ignác. Mischärtatarische Texte mit Wörterverzeichnis: aufgrund der Sammlung von Ignác Kúnos. *Studia Uralo-altaica*, 1996, 38: 1~192.

I F185 | 이니타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Iney Tas

하카스 대초원에 있는 수백 개의 청동기 시대의 석상들 중 하나인 이니타스(Iney Tas)를 위해 매년 6월 이니 타이(Iney tayǵ)라 불리는 ‘노모(Iney)를 위한 희생 의식’이 거행된다. 하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 러시아 정교회가 하카스 땅에 정착하면서 일부 선교사들은 샤머니즘의 유물들 그리고 그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던 지역들을 파괴하기 위해 가혹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샤먼들을 처형했고, 무속 의식과 다양한 전통 의식들을 금지시켰다. 또한 하카스인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던 물건들을 파괴했다.

하카스인들의 이니타스에 대한 진심 어린 숭배와 섬김은 정교회 선교사들에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정교회 선교사들은 석상의 위치를 옮기며 하카스인들의 관심을 돌리려 했으나 이러한 예상과는 반대로 주민들의 강한 원성을 샀다. 20세기 초까지 이니타스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후에는 이니타스가 스탈린스크시로 향하는 철로 가운데 위치한다는 이유로 반종교운동 행위로 간주되어 결국 폭파되었다.

이니타스의 파괴처럼 강력한 소련의 태도는 하카스인들의 종교였던 샤머니즘을 억압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는 하카스인들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니타스는 하카스인들에게 계속해서 추앙을 받고 있다. 하카스인들은 이니타스가 놓여 있던 자리에 특별한 석판으로 이니타스의 이름을 쓰고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카스인들은 이니타스가 있던 지역을 통과할 때 사방에 무혈 제물(술, 우유 등 다양한 식료품)을 공중에 흩뿌리며 이니타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네 타쉬, 이네 타스

● 다국어 표기 Iney Tas/Иней Тас(하카스어), Iney Taş(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Я., Торбостаев, К.М., «Иней Тас»,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Абакан: изда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 (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I F186 | 이데게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Idegey

이데게이는 타타르 민족의 서사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유일한 ‘타타르 다스탄’으로 노가이, 바시키르, 크림 타타르, 카자흐, 카라칼파크, 키르기스, 알타이 민족에게 각기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 이야기는 14세기 말~15세기 초의 킵차크 칸국(Золотая Орда)의 복잡한 역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당시는 킵차크 칸국의 쇠락기였기에 실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주인공들도 실제 역사적 인물이다.

이 서사시는 킵차크 칸국의 통일을 위한 이데게이의 투쟁이 핵심이다. 작품 속에서 이데게이는 킵차크 칸국의 위세를 되살리려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로 뛰어난 정치인이자 행정가이며, 군사지도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모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데게이는 토크타미시(Тактамыш) 칸과 치열하게 싸워 그를 영토 밖으로 추방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며 그런 이데게이의 결단력, 앞을 내다보는 정치력, 25년간 이어온 그의 외교력에 대한 칭송이 이어진다. 이런 줄거리의 전개 속에는 다양한 등장인물과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각기 다른 성격과 운명을 잘 묘사하고 있다. 더불어 나름의 철학과 도덕, 정치, 전쟁과 평화 등의 삶에 대한 요소를 다루고 있기에 타타르 민족의 위대한 중세 문학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작품은 자연과 등장인물의 감정과 시련이 아름답게 묘사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데게이
- 다국어 표기 ايدغو(아랍어), Yedigey(아제르바이잔어), Edigu or Edigey(영어), Идигей or Едиге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дегей : татарский народный эпос : (на татарском языке). - Казань : Тата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94. - 254 с.

I F187 | 이데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소설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İdeal



『이데알』 표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이데알』은 아제르바이잔 작가인 이사 무간나(İsa Muğanna, 1928년~2014년)의 소설로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불타는 마음’(Yanar ürək)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됐는데, 초판의 줄거리는 사랑이 주요 테마였다. 하지만 이후 작가가 다시 작업해 1986년에 ‘이데알’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했다.

주인공 젊은 새매드 애밀리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육성되는데, 그는 마을에서 일하게 된 첫날부터 큰 곤경에 맞닥뜨리고 조국의 재산을 탐내는 적대 세력을 마주하는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그리고 독자는 그가 이런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양심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하며 긴장감 있게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한편 또 다른 인물인 구

달르 래힘은 콜호즈 회장이 되자마자 콜호즈의 주요 임무인 회계와 농장을 친지들에게 맡기고, 민족의 적으로 여겼던 그의 형 매햄매드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다. 그는 콜호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밀리게 만들고, 그 모든 불만이 정부를 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밀리에 집단 농장인 콜호즈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처럼 소설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그려내며 그 안에서 난관을 이겨내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데알

● 다국어 표기 İdeal(튀르키예어), Ideal(영어), Идеал(러시아어), آیدال(페르시아어), İdeal(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İsa Muğanna, *İdeal* (roman), Bakı: Lider nəşriyyatı, 2005.

Cəfərov Nizami, “İdeal”ın işığı, *Ədəbiyyat söhbətləri*, Bakı: Elm və təhsil nəriyyatı, 2018, s. 336~338.

Sadiq Şəmil, *İsa Muğanna yaradıcılığı “İdeal” işığında*, Bakı: Xan nəşriyyatı, 2017.

Ulutürk Xəlil Rza, Sən mənə bir silah verdin: “İdeal” romanını oxuyarkən, *Məndən başlanır vətən*, Bakı: Apostrof nəşriyyatı, 2014, s.307~317.

I F188 | 이덱티그 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İdektığ ton

이덱티그 톤은 19세기 하카스 사가이 및 하아스 부족 여성들이 입었던 전통 의복으로서 모피 코트의 일종이다. 20세기 초에 이르면 하카스 여성들 중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덱티그 톤은, 현지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원이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의복의 특징은 모피 코트의 무릎 부분이 마치 물고기의 꼬리처럼 마치 줄로 무릎을 묶은 듯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모양이라는 점이다. 의복 자체가 전체적으로 얇은 갈색톤의 비단으로 만들어지며, 세이블 혹은 양털과 같이 동물의 모피를 덧대거나, 다양한 전통 문양의 자수를 놓아 장식된다. 또한 코트의 겨드랑이 부분은 매우 폭이 넓지만 손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띤다. 과거에는 뽀뽀하게 세워진 옷깃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후기로 오면서 이러한 옷깃의 모양이 변하더니 현재는 사라져 버렸다

이덱티그 톤은 겨울과 여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다. 과거 투바인, 바이칼인, 동몽골인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복들이 존재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카스 그리고 투바인들에게 이 의복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덱티크 톤
- 다국어 표기 İdektig ton(하카스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my.krskstate.ru/docs/ethnoses/khakasy/>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ибаева, Юлия, А. (1959).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В.И. Ленина. 81.

I F189 | 이드 카흐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d Kah Mosque

카시 지방 중앙에 위치한 이드 카흐 모스크는 텐산 남쪽에서 가장 큰 모스크이다. 건물은 동-서로 120m, 남-북으로 140m의 길이로 전체 16,800제곱미터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드 카흐’, 또는 ‘아이티카’라는 호칭은 ‘축제 광장’이라는 의미로, 이름 그대로 약 6천 명에서 1만 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440년 명나라 때 이슬람이 유입되면서 처음 건설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 구조의 대부분은 19세기에 만들어졌다.

이드 카흐 모스크와 그 복합단지는 신장 지구의 다른 모스크와 달리 중앙에 중정이 위치한 비규칙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직각이 아닌 중정은 중앙 입구에서 기도실 입구까지 이어진 동-서 보도로 이등분된다. 여기서 또 다른 보도가 기도실과 평행하게 중정을 지나가며 중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양 입구를 연결한다. 이맘의 숙소와 강의실, 학생 숙소는 중정의 남쪽과 북쪽에 있다. 또한 모스크의 중정 벽 바깥의 상점은 와끄프 전통에 따라 모스크 유지 및 운영의 기반이 된다.

이 복합건물의 입구는 광장을 향하는 남서쪽 모서리에 있다. 직사각형 형태의 파샤드는 아치로 이루어진 벽감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입구도 아치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파샤드 장식은 노란색 벽돌을 기초로 흰색 석고 포인팅이 있고, 입구 아치와 입구 프레임은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파샤드의 양옆에는 비대칭으로 배치된 벽에 미너렛이 있는데 얼핏



이드 카흐 모스크

다른 크기처럼 보이지만 둘 다 18m정도로 엇비슷하다.

미너렛에는 부하라에 있는 칼라얀 미너렛과 유사한 지붕이 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패턴화된 타일 밴드로 둘러싸여 있다. 입구 바로 뒤 중정 방향으로 세정공간이 있으며, 중정에는 수로와 나무로 이루어진 4개의 큰 정원이 있다. 북쪽의 더 큰 정원에는 수조가 있다. 기도실은 중정 서쪽에 있으며 기도실의 미흐랍 주변은 밀폐되어 있으나 외부 기도 공간 방향으로서는 개방된 텐산 남쪽의 전형적인 형태의 모스크 형태를 갖고 있다.

건물의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38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4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부 기도실은 중앙에서 9개의 정사각형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다. 미흐랍은 서쪽 벽에 벽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기도실은 정원에서 7개의 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고 중앙계단과 만나는 4개 구획으로 나뉜 넓은 테라스가 있다. 내부 기도 공간의 미흐랍은 화려한 타일로 장식되어 있는데 미흐랍 주변은 밝은 녹색, 푸른색, 붉은색 타일로 만들어진 기하학 문양과 식물 문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반면 설교단은 단순한 벽돌로 만들어져 있다.



라마단 기간 이드 카흐 모스크 앞에 모인 무슬림들

그밖에 주목할 점은 다주식 홀의 평평한 천장인데 천장은 푸른색 또는 녹색으로 칠해진 팔각형의 목제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천장을 떠받치는 보는 우아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천장 자체는 외부기도 공간의 중앙 미흐랍 위에 있는 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드카흐 모스크, 아이티카 모스크
- 다국어 표기 Хейтгах Мечити Hëytgah Meschiti(위구르어), هېيتگاه مەسچىتى (위구르어), 艾提尕尔清真寺(중국어)
- 멀티미디어 링크 이드카흐 모스크 전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d/Kashgar-mezquita-id-kah-d0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3964>
- 참고문헌(오프라인) Chang, Jing Qi. "Islamic Architecture in China." *In The Changing Rural Habitat. Volume II: Background Papers* (ed: Brian Brace Taylor), 74. Singapore: Concept Media, for the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 1982.
 Qiu, Yulan. *Ancient Chinese Architecture: Islamic Buildings*(ed:Sun Dazhang), 1Vienna: Springer-Verlag, 2003.

I F190 | 이라마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Yramas

이라마스(Ырамаc)는 추바시 신화에서 신비로운 힘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민중들은 그를 창조자, 현자, 전능자, 예언자, 점술가, 마법사, 무당, 요술사 등으로 불렀다.

이라마스의 사전적 의미는 ‘미덕’, ‘선행’이다. ‘이라’의 어원이 ‘선한’, ‘좋은’의 뜻이다. 추바시 지역의 명칭이 ‘카르탈라 이르’(Карталла Ир)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라마스가 약초와 버섯가지고 주문을 외우며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는 악령의 환심을 사서 귀신들림을 치료하고 사람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다. 추바시어의 이라마스가 오르혼-예니세이의 이르크(Ырк, 점)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오늘날 추바시어에서 이라마스는 치유자, 초능력자를 의미한다.

선과 악을 완성하려는 이라마스의 행동은 소우주 창조의 형태로 제시되며 저주와 주문, 방언 같은 주술이 수반된다. 주술은 아샤(Аша)라는 비기독교 추바시인들의 신들을 향한 것이며, 자연과 세계, 삶, 인간, 질서, 축복 등을 관장하는 신적인 힘을 의미하는 특별한 숫자들(3, 5, 7, 9)을 포함한다. 이는 홀수를 마법적인 힘을 가진 숫자로 생각하는 추바시 미신과 관련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라마스
- 다국어 표기 Ырамаcь(러시아어), Ўрăмăç(추바시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 추바시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enc.cap.ru/?t=publ&hry=116&lnk=852Awahttp://enc.cap.ru/?t=publ&hry=&lnk=851>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алмин А., Система фольк-религии чувашей, СПб:Наука, 2007, 399-400.

I F191 | 이라크 투르크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방언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Iraq Turkish

이라크 투르크어는 오늘날 이라크 국경 내에서 사용되는 투르크어 방언을 의미한다. 현재 약 250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부적으로는 이란(남아제르바이잔), 테헤란, 사베 지역 방언과 튀르키예의 우르파, 디야르바크르, 엘라즈으, 가지안테프지역의 튀르키예 방언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라크 투르크어는 /ŋ/ 음가가 /v/와 /y/로 변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실제 1,400년간 현 이라크 영토에 거주했던 투르크멘의 언어이기도 한 이라크 투르크어의 법적 지위는 지역 언어(방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라크 투르크어는 우마야드 왕조, 압바스 왕조, 셀주크, 몽골, 일 칸국, 잘라이르 술탄국, 아크코윤루, 카라코윤루,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과거 아랍어, 페르시아어, 오스만 투르크어로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이라크 지역에서 1930년 아랍어가 지역 공용어로 채택될 때까지 사용되었기에 현재까지도 이 지역에는 투르크어-이라크어 이중 언어사용자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동부 오구즈어 그룹의 남부에 위치한 이라크 투르크어는 특유의 소리 및 형태적인 특징으로 고대 투르크어의 언어적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라크 투르크멘어, 이라크 방언
- 다국어 표기 Irak Türkmen Türkçesi, Irak Türkçesi(튀르키예어), Iraq Turkish(영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kdağ, B. A. Irak Türkmen Türkçesinin Şekil Bilgisine Dair Notlar. *Uluslararası Türkçe Edebiyat Kültür Eğitim (TEKE) Dergisi*, 1(1), 2012. s.113~123.
Johanson, Lars. *Türk Dili Haritası Üzerinde Keşifler*. Grafiker: Ankara. (Çev.Nurettin Demir&EmineYılmaz), 2009.

I F192 | 이라흐 아알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소설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Yraxxy aalda

하카스 소설가 ‘니콜라이 게오르기에비치 도모자코프’가 1960년 출판한 하카스 문학 역사상 최초의 소설로 기록되는 『이라흐 아알다』는 ‘먼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소설가 니콜라이 도모자코프는 이 소설에서 하카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소비에트 권력 형성과 관련된 시대적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목동 후르타이와 러시아 대장장이 표도르 폴린트세프의 우정을 통해 연결된 두 가족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자는 자연의 시화, 민속 생활의 표현, 사람들의 관습 및 전통을 재생산해내며 하카스 국가의 정체성을 예술적 형태로 담아냄과 동시에 하카스 고대 생활 방식의 조화로운 결합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 소설에는 <아트 아브리르가 (at abyrlirga, ат абырлирға) 의식, 손님 대접, 샤먼 의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해 문학 평론가 트로

야코브(P. A. Troyakov)는 「하카스 문학의 발전과 관련된 논문: Essays on the Development of Khakas Literature(Очерках развития хака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을 통해 음식을 요리하는 모습, 양털로 펠트를 만드는 모습 등은 하카스인들의 실제 생활 모습에 관해 풍부한 지식과 사회 문화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명확하게 표현, 전달해낼 수 있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등장인물들의 행동, 말투 하나하나에 효과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품의 진정성이 작품의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로야코브는 「첫번째 하카스 소설(Первый хакасский роман)」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소설이 하카스어로 쓰여진 매우 자세하고도 생동감 있는 작품이라 평가했다. 이 소설은



『이라흐 아알다』 표지
Source: <https://nbdx.ru/pdf/bx0000337.jpg>

1966년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예니세이(Yenisey)> 저널에 게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라흐 알레
- 다국어 표기 Урахы аалда / Ырахы аалда(하카스어), V dalekom aale / В далёком аале(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Челтыгмашева, Л.В., “Сравнительно-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оригинала и перевод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романа Н. Доможакова “В далеком аале” Научное обозрение Саяно-Алтая, № 2 (14). с. 79~85. 2016.

I F193 | 이란호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Erlanhugou

이란호구 유적은 내몽골 자치구의 우란차부(乌兰察)시에서 1950년에 발견되었다. 무덤은 구덩이식 토광묘로서 길이 2m×1m로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양와신전장(仰臥伸展葬)으로 머리 위에 향아리가 묻혀 있었고, 청동유물은 시신 위에서 발견되었으며 두개골 없는 시신과 두개골만 있는 무덤, 유아를 안고 있는 머리 없는 시신도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외에는 한경: 사뉴경(四乳鏡), 일광경(日光鏡), 장의자손경(長宜子孫鏡)과 동북, 동물장식대구 등이다.

동물 문양은 사슴, 소, 말 등이 등장한다. 중국의 흉노문화는 춘추시대~전국시대에 이르는 기간(B.C. 7세기~B.C. 3세기)에 중국 북부 초원의 오르도스 지역, 영하 감숙 지역, 하북성 북부 등에서 나타난다. 한(漢)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북부지역에서 흉노물질문화가 발견되는데, 이를 남흉노 문화라고 한다.

철기 및 금장식이 증가하면서부터는 오수전, 한경, 철기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서한(西漢) 대에는 흉노 무덤에서 철기가 증가하며, 동물 문양이 전 시기에 비해서 줄어들고, 동한(東漢) 대에는 그 이전의 흉노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중원화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란호구 유

적은 철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경으로 보아서 동한대 유적으로 알려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란호고우
- 다국어 표기 二爛虎溝.(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烏恩, 「試論漢代匈奴與鮮卑遺蹟的區別」, 『中國考古學會 第16次年會論文集』, 1987.
강인옥, 「고고학으로 본 흉노의 발생과 분포」, 『문화재』, 2003.

I F194 | 이레반 칸국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İrəvan xanlığı

이레반 칸국(İrəvan xanlığı, 1747년~1828년)은 아제르바이잔의 칸국 중 하나로, 현재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있는 지역에서 건립되었다. 정확한 위치는 아제르바이잔의 서쪽에 있는 괴이체 호수(Göyçə gölü) 근처이며 수도는 이레반(İrəvan)이었다. 칸국의 영토는 카라바흐 칸국(Qarabağ xanlığı), 나흐츠반 칸국(Naxçıvan xanlığı), 마쿠 칸국(Maku xanlığı) 및 오스만 제국(Osmanlı imperiyası), 카르틀리-카헤티야 차르국(Kartli-Kaxetiya çarlığı), 보르찰르 술탄국(Borçalı sultanlığı), 카작 술탄국(Qazax sultanlığı)과 인접해 있다. 이레반 칸국의 행정 구역은 그르흐불락(Qırxbulaq), 잔기바사르(Zəngibasar), 가르니바사르(Qarnibasar), 웨디바사르(Vedibasar), 시에루르(şərur), 수란(Suran), 대랙(Dərək), 사아틀르(Saatlı), 탈라(Tala), 세이이들리-아하엘리(Seyidli-Axaeli), 세르다라바트(Sərdarabad), 개르피(Gərpi), 아바란(Abaran), 대래치책(Dərəçiçək), 괴체(Göyçə) 등 15개의 지역으로 구분했다.

이레반 칸국의 역사는 나디르 샤(Nadir şah)의 암살 사건부터 시작한다. 갑작스런 암살 이후 이레반(İrəvan)에서 이란 침략을 항의한 미르 매흐디 칸(Mir Mehdi xan, 재위: 1747년~1748년)은 혼란을 틈타 스스로 칸이라 선언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르 매흐디 칸의

동생 해센앨리 칸(Həsənəli xan, 재위: 1748년~1750년)이 이라반 칸국을 장악했고 2년 후 또 다시 그의 형제 휘세인앨리 칸(Hüseynəli xan, 1750년~1780년)이 통치하는 등 혼란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1751년 휘세인앨리 칸이 즉위한 직후, 우르미아 칸국의 패탈리 칸(Fətəli xan)의 장군 아자트 칸(Azad xan)이 이라반 칸을 침략했다. 당시 아바르 칸국(Avar xanı)의 누살 칸(Nusal xan)은 11,000명의 군대를 보내 카르틀리-카헤티아의 영토를 가로질러 이라반 칸국의 대래치책, 괴채, 그르흐불락 아바란(Abaran) 지역들을 약탈했으며, 오스만 제국이 아바르 칸국을 도와 나섰다.

1755년 당시 이라반 칸국의 대다수는 투르크인이었으며 인구의 4분의 1은 아르메니아인들이었다. 칸국 내 위츠킬새(또는 에치미아진, 아제르바이잔어 표기: Üçkilsə, Üçmüəzzin, 영어 표기: Ejmiatsin)에는 이라반 칸이 임명한 아르메니아 정교회 가톨릭코스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라반 칸국을 정복하길 바랐던 카르틀리-카헤티 차르들은 가톨릭코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1765년~1769년 무렵 침략이 10여년이 넘도록 장기화되자 이라반 칸국에 대한 조지아 차르의 공격으로 인해 칸은 일정 세금을 그들에게 지불하게 되었지만, 이후 권력을 잡은 캐림 칸 잔트(Kərim xan Zənd)는 카르틀리(Kartli)의 차르인 이라클리 2세(Erekle II, 아제르바이잔어 표기: Irakli II)에 대한 경의 및 세금 납부를 거절했다.

그러던 중 1779년 캐림 칸 잔드가 사망하자 이라클리 2세는 2만 대군을 이끌고 이라반 칸국을 공격했고 결국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후퇴한다. 당시 오스만 제국과 이라반 칸국의 국경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오스만 제국도 조지아의 침략과 러시아의 확장으로부터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라반 칸국을 방어기지처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라반 칸국의 동쪽에서 나날이 세력 확장하던 카라바흐 칸국(Qarabağ xanlığı)도 종종 이라반 칸국(İrəvan xanlığı)을 공격했는데, 이러한 공격이 성공해 이라반 칸국의 영토가 일부 축소된 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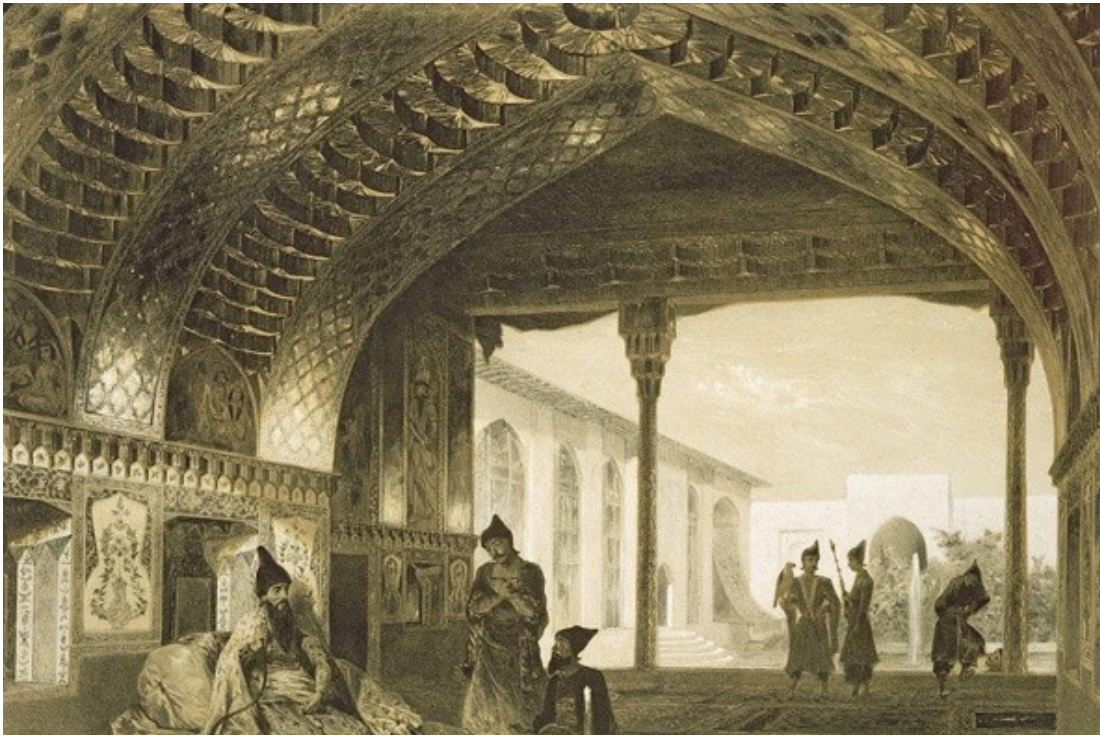
이처럼 수많은 침략과 방어를 견뎌내야 했던 이라반 칸국은 1780년대에 이르자 권력 투쟁의 결과로 칸국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어 한동안 호이 칸국(Xoy xanlığı)에 예속되기도 했다. 남부 캅카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걱정했던 오스만 술탄은 이라반의 새로운 통치자인 굴람앨리 칸(Qulaməli xan, 재위: 1783년~1784년)을 내세워 조지아에 대항토록 했다. 하지만

결국 굴람엘리 칸도 살해당했고 엘리매햄매트 칸(Əliməhəmməd xan, 재위: 1784년~1805년)이 그의 뒤를 잇게 된다. 조지아의 이라클리 2세는 이라반 칸국을 돕기 위해 천 명의 군인을 보냈고 1780년대 말이 되어서야 이라반 칸국은 카르틀리-카케티 차르국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795년 이라반 요새는 35일간의 포위 공격 끝에 항복했으며, 이 사건으로 이라반 칸국의 칸인 매햄매트 칸(Məhəmməd xan, 재위: 1784년~1805년)은 체포되었고, 엘리굴루 칸(Əliqulu xan, 재위: 1805년~1806년)이 즉위했다. 하지만 1797년 ‘아가 매햄매트 샤 가자르’(Ağa Məhəmməd şah Qacar)의 사망 후 이라반 칸국의 민중들은 엘리굴루 칸(Əliqulu xan)을 추방했다. 그리고 가자르 제국(Qacarlar dövləti)의 통치자인 패탈리 샤(Fətəli şah)가 나서 매햄매트 칸을 감옥에서 석방하고 그를 다시 칸으로 임명했다. 이후 칸으로 책봉된 매햄매트 칸은 독립 정책을 추구하며 가자르 제국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러시아 군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라반 칸국의 경제상황은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특히 хү세인엘리 칸(Hüseynəli xan, 재위: 1806년~1827년)의 통치기에 러시아 군대의 공격은 더욱 증가했다. 1801년 카르틀리-카케티야 차르국이 러시아에 정복된 후 1808년 2월, 러시아 장군 시시아노프(Лицианов, Павел Дмитриевич)는 이라반 칸에게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1세의 편지를 전달하며, 아르메니아 총대주교로 친 러시아파인 다닐(Danil)을 선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매햄매트 칸은 편지를 받고 감옥에 가두었던 다닐을 석방했지만 그를 아르메니아 총대주교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시시아노프는 이를 구실로 이라반 칸국을 러시아에 복속시켰으며 캅카스에서 가자르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라반 칸국의 국경까지 쳐들어왔다. 한편 시시아노프의 계획을 전달받은 가자르 제국의 압바스 미르재(Abbas Mirza) 장군은 20,000명의 병력을 모아 아라즈강의 왼쪽 강둑으로 이동했고 본격적인 가자르 제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1804년 7월 15일, 러시아군은 점령된 귀르루(Gümru)에서 위치킬새로 진격했다. 예치민자대와 개매를리(Qəmərlilər)를 점령한 러시아는 이라반 요새를 포위했으며 ‘압바스 미르재’(Abbas Mirza)가 이끄는 12,000명의 병력이 6월 20일 새벽에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그리고 5일간의 전투 끝에 러시아군이 후퇴했고, 1804년 9월 3일 러시아군은 이라반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1808년 러시아군은 다시 이라반 칸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9월 초에 시작된 전쟁은 칸국의 여



그리고리 가가린이 그린 이라반 칸국의 사르다르 궁전 거울 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러 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라반 요새를 점령할 수 없음을 인정한 러시아 장군은 결국 12월 1일 개재로 후퇴했다. 충돌 이후 양국은 1813년 굴리스탄 평화조약 (Gülüstan sülh müqaviləsi)을 체결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략 계획을 완전히 단념시킨 것은 아니었으니 1826년 7월 19일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위반하고 다시 가자르 제국을 공격했다.

다음 침략은 1827년 4월 초, 아르메니아 대주교 네르세스(Nerses)의 지휘에 따라 러시아군이 위치킬새를 공격해 점령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차르였던 니콜라이 1세는 파스케비치(Paskeviç)를 캅카스 총독으로 임명했으니 그는 아르메니아인과 조지아인으로 구성된 러시아군과 함께 이라반 공격을 위해 참전했다. 그리고 1827년 9월 24일 3일간의 끊임없는 포격 끝에 이라반은 결국 점령당했다.

당시 이라반의 칸 휘세인굴루 칸(Hüseynqulu xan, 재위: 1807년~1828년)은 이라반이 점령된 후 마쿠(Maku)와 테헤란(Tehran)으로 도망쳐 패탈리 샤(Fətəli şah)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

다. 그러자 패탈리 샤는 휘세인굴루 칸(Hüseynqulu xan)을 호라산 지역(Xorasan vilayəti)의 총독으로 임명해 다스리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831년 휘세인굴루 칸은 사망했다.

반면 이레반 나흐츠반을 점령한 러시아 군대는 아라르강(Araz çayı) 동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가자르 제국은 캅카스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1828년 2월 10일 태브리즈 부근에 위치한 튀르크멘차이(Türkmənçay)에서 가자르 제국과 러시아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조건에 따라 이레반과 나흐츠반 칸국들은 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아라즈 강은 두 제국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튀르크멘차이 조약 이후 이레반 칸국과 나흐츠반 칸국은 아르메니아 영토로 분류되었다. 당시 가자르 제국에서 4만 명의 아르메니아인과 오스만에서 8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이주하여 무슬림인이 사는 마을에 배치되었고, 이는 이후 캅카스 지역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설립되는 기반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리반 칸국, 레반 칸국

● 다국어 표기 İrəvan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Revan Hanlığı(튀르키예어), İravan xonligi(우즈베크어), Erivan Khanate(영어), Эриван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ллаев Г. В., Из Ис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Азербайджана В 60-80 Гг. XVIII В., Баку, 1958.

Azərbaycan Tarixi. 7 Cildə, 4-Cü Cild, Bakı, 2000, S.14~53.

Azərbaycan Tarixi: Dərslik /Z. Bünadovun Redaktorluğu ilə. Bakı: Azərneşr, 1994, 680 Səh.

Azərbaycan Tarixinə Dair Qaynaqlar. Bakı, 1989, S. 271.

Бабаев Эльгюн. Из Истории Гянджинского Ханства, Баку, Nurlan, 2003, 234 St.

Bün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Dəlili H. “*Azərbaycanın Cənub Xanlıqları (XVIII Əsrin İkinci Yansında)*”. Bakı, “Elm”, 1979, 144 Səh.

Əliyev F. *XVIII Əsrin Birinci Yansında Azərbaycanda Ticarət*. Bakı, 1964.

Əliyev Fuad, Həsənov Urfan. *İrəvan Xanlığı*. Bakı, «Şərq-Qərb», 2007, 144 Səh.

Əliyev Fuad, Əliyev Mirabdulla .. *Naхçıvan Xanlığı (1747-1828)*. Bakı, Azərbaycan Dövlət Nəşriyyatı, 1996, 108 Səh.

Hacıyeva Zəmfıra. *Qarabağ Xanlığı: Sosial-iqtisadi Münasibətlər Və Dövlət Quruluşu*, Bakı, 2007, Səh.

Hüseynov Yunis. “Qarabağnamələr” *Azərbaycan Tarixini Öyrənmək Üçün Mənbə Kimi*, Bakı, “Elm” Nəşriyyatı, 2007, 216.

HüsEYNOV Yunis. *Şuşa Şəhərinin Tarixi*. Bakı: “Şuşa”. 2013. 156 Səh.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16, 288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Qarayev Elçin. *Azərbaycanın İrəvan Bölgəsinin Tarixindən (XVII Yüzdilliyin Sonu–XIX Yüzdilliyin Ortalarında)*. Bakı: Mütərcim, 2016. – 544 Səh Fərzəliyev): I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əh. 248.

Ибрагимбейли Х. «Россия И Азербайджан В Первой Трети XIX Века (Из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Наука», 1969, 287С.

Mahmudov Yaqub . *İrəvan Xanlığı (Rusiya işğalı Və Ermənilərin Şimali Azərbaycan Torpaqlarına Köçürülməsi)*”Bakı–2010

Mustafazadə. Tofiq Qarabağ Xanlığı, Bakı: “Sabah”. 2009. 333 Səh.

Məmmədov Kərəm. *1000 il İrəni idarə Edən Türklərin, Qacarları, “Ədalət” Qəzeti*, 28 Fevral, 2021–Ci il.

Mustafayev T. *XVIII Yüzdillik–XIX Yüzdilliyin Əvvəllərində Osmanlı–Azərbaycan Münasibətləri*. Bakı, 2002.

Nasir Nəcmi. “*Abbas Mirzə*”. Bakı, Yazıçı, 1993, 127 Səh.

Nuriyeva İradə Tofiq Qızı.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də)*.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 Bakı: Mütərcim, 2015. – 336 Səh.

Sərdariniya Səməd. *İrəvan Müsəlman Sakinli Vilayət Olmuşdur*. Bakı, “Zərdabi” Nəşriyyatı, 2014, 202 Səh.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F195 | 이레넥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도자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u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Irenek

이레넥(Irenek)은 1658년부터 1687년까지 키르기스 국가를 다스렸던 인물이다. 이레넥 이외에 <예레넥(Yerenek)>, <차르나(Çarnah)> 또는 <외젠 피그(Öceñ Pig)>라고도 알려져 있다. 키르기스스탄 알티사르 공국(Altısar Beyliği)의 지도자인 이세이 메르겐(İşey Mergen)의 차남인 이레넥은 약 25년 동안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아친스크(Açınsk), 쿠즈네츠크(Kuznetsk), 톰스크(Tomsk), 예니세이스크(Yeniseysk), 칸스크(Kansk), 니즈니우딘스크(Nizhneudinsk) 등지에서 러시아인들이 큰 위협이라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을 단일 칸국으로 통합하려는 마음을 갖고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역사적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임과 동시에 훌륭한 외교관이었다. 1682년 그는 러시아 황제에게 서찰을 보내 자신들이 전쟁을 도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외부 군대(러시아)가 키르기스 칸국에 요새를 건설하려는 의도에 반대했던 것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외교적 노력과 군사 활동을 통해 그는 러시아 제국과 키르기스 칸국 간의 평화 조약 체결에 성공했으며 이후 러시아 제국으로 하여금 키르기스인들의 고유 영토의 국경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가 생전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은 세기가 바뀔 18세기 무렵까지 유효하게 지속되었다.

위대한 영웅이 된 이레넥은 하카스인들에게 황제로서 인정되며, 외젠 베크(Öcen Beg)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레넥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알타이 땅으로 원정을 계획하는 사이에 몽골군의 기습으로 인해 그와 그의 아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키르기스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레낙

● 다국어 표기 Irenek(영어), İrenek / Иренек, Yerenak/ Еренак, Charnah / Чарнах(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ганаев, В.Я. «Иренек».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в Т. 1 (С. 243~244). Абакан: изда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I F196 | 이르샤뵐 뮐룩 베스 셀라틴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İrşadü'l Müluk ve's-selatin

『이르샤뵐 뮐룩 베스 셀라틴』은 현존하는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로 쓰여진 종교 서적이다. 작품은 총 56장, 93편, 총 49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페이지에 아랍어 8행, 킵차크 투르크어 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초에 고전 아랍어로 쓰인 작품을 킵차크 투르크어로 번역한 작품으로, 이 작품의 작가와 번역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베르크 파키흐(Berke Fakih)라는 킵차크 법

학자가 바취만(Baçman)에게 헌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왕과 술탄에게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현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필사된 판본 단 한 권만이 전해지며, 이스탄불 실레이마니예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관련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레셉 토파를르(Recep Toparlı)에 의해 쓰여진 수행된 박사학위 논문(1992년)을 꼽을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르샤들 율록 베스 세라틴
- 다국어 표기 İrşadü'l Müluk ve's-selatin(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adybekov, K. "Peculiarities of Religious works written in mameluke Kipchak Language (Memluk Kıpçak Türkçesi ile yazılmış dini eserler ve özellikleri)",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s Education and Teaching*, Germany, 2015, p119~125.

I F197 | 이르티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Irtysh

이르티시강은 몽골과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접경의 몽골 알타이산맥의 동사면에서 발원하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오스크, 튜멘)를 지나 한티-만시스크 자치주(Ханты-Мансийск)에서 오비강에 합류하는 오비강의 지류이다. 이르티시강의 길이는 4,248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지류이다. 이르티시강은 매우 굴곡지고 불안정하며 많은 지류를 가지고 있다 특히 흑(黑)이르티시, 또는 에르치시헤(Эрцисыхэ)라 불리는 상류 지역은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의 자이산(Зайсан) 호수로 흐르고, 여기서 다른 강들이 합류해 만들어낸 많은 수량이 러시아로 흐른다.

이르티시란 이름은 돌궐 제2제국 시대의 톤유쿱 비문과 쿨-테긴 비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마흐무드 알-카쉬가리가 이르티시의 어원을 처음 분석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 강의 이름은 '빨리 건너가는'이란 뜻의 에르티시막(эртишмак)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 카마크인의



이르티시강 하류 모습

시조인 샤드 왕자의 노예가 강 주위에서 유목하는 투르크인들을 보고는 “멈추라(에르-투스!)”고 말한 것에서 이르티시가 유래한다는 이설도 있으며, 카자흐어로 ‘땅’을 의미하는 ‘이르-’와, ‘파다’라는 ‘티시’가 합쳐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강’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다. 아르티크바예프(Ж.О. Артыкбаев) 교수는 이 강 주변이 배경인 카자흐 영웅서사시의 주인공 에르-토스티크(Ер-Тостик)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르티쉬
- 다국어 표기 Иртыш(러시아어), 额尔齐斯河(중국어), Эрчис мөрөн(몽골), Ертіс(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오비강, 마흐무드 알-카쉬가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гл. ред. А. М. Прохоров. — 3-е изд. — М. :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69—1978.

I F198 | 이리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Irikh

이리흐(Ирих)는 추바시어로는 이예레흐(Иерех)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성스러운’이란 뜻의 고대 투르크어 이두크(Ыдук)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알타이, 하카스, 키르기스, 티바, 투르크멘, 야쿠트의 동물 제물의 명칭(이이이크ийик, Ыйык, 이지크 изык, 이디히идых, 우추크учук, 이티크ытык)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리흐는 정령이나 신 자체를 의미하거나, 신의 형상을 딴 조각, 또는 신이 머무는 공간을 의미기도 한다.

추바시 신화에 등장하는 이리흐는 가정과 집안 살림의 수호신이다. 이리흐의 기원에 대해 아주 오래 전에 액막이치료를 하는 노처녀였다는 설도 있는데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끔 늙은 노처녀의 형상으로 꿈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 여인은 생전에 치료법으로 명성을 떨쳤기에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녀를 기렸고 그것이 전통처럼 굳어져 후대 사람들이 눈병이 나면 그녀에게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병을 치료하는 선한 정령처럼 우상시 되지만 이리흐를 모욕하면 해를 끼친다는 설도 있다.

실제 인형, 조각으로 표현된 이리흐의 형상은 대개 여성의 형상이다. 사람들은 이리흐 형상을 한 인형 등을 헛간이나, 광, 마구간의 벽이나 구석에 걸어 둔 바구니에 놓아두고 바구니에 이리흐에 바치는 제물도 넣어두기도 한다. 결혼하는 처녀는 부모에게서 이리흐를 담은 바구니를 선물로 받는 풍습도 있었으며 집안 여주인이 부탁하면 이리흐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병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무렵 이리흐 인형을 만드는 풍습은 점점 사라져 갔고 그 정확한 모습을 재현하는 법도 사라져 버렸다. 간혹 이리흐를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다 놓는 활엽수나 관목이 자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리크
- 다국어 표기 Ирих(러시아어), Йёрех(추바시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2004, 53~62.

Токарев,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Vol. 1.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1, 598~599.

I F199 | 이마레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종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maret

이마레트(imaret)는 이마레트하네(imarethân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랍어의 ‘복지’라는 의미를 가진 ‘urman’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마레트는 오스만 시대에 빈자와 마드라사 학생들에게 식사를 배급하기 위해 건설된 건물을 의미하는데 때에 따라 부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나톨리아반도에서 셀주크 시대 이래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물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는데 오스만 시대에 이르러 이마레트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다.

실제 오스만 시대에는 와크프에 의해 많은 사회 공공시설이 운영되었다. 보통은 복합단지인 쿨리이에(külliye)의 한 부분이 쓰였으며 간혹 독립적인 건물로서 운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본래의 기능, 즉 빈자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일은 똑같이 실행되었다. 이 관행이 이마레트라는 독립된 공간과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운영비를 비롯해 몇 명에게 어떤 음식을 배분했는지 와크프의 기록에 남기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마레트는 보통 하루 두 번의 식사를 제공했고 라마단 기간에는 이프타르 음식 한 번만을 제공했다. 예배가 있는 금요일과 칸딜(kandil: 이슬람교에서 지정한 성스러운 밤, 주로 튀르키예와 발칸 지방에서만 축하했다)에는 조금 더 질 좋은 음식과 디저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쿨리이에의 부속으로서의 이마레트는 쿨리이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마드라사 학생까지 포함하여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쿨리이에 내에 병원이 있다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도 음식을 제공했다.

이마레트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와 분류는 규모에 따라 달라졌는데 대형 쿨리이에에 부속된



미흐리샤흐 왈리데 술탄 이마레트 입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이마레트의 경우에는 요리사뿐만 아니라 설거지 담당, 빵 담당, 고기 담당, 곡식 담당을 비롯하여 기록 담당자와 청소부까지 그 업무가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기록에 따라 음식의 종류도 표기하고 있으며, 쿨리이에 내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음식을 따로 구분하고 누구에게 주었는지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레트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대부분은 폐허가 되거나 그 흔적만 남아 있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음식을 만들고 분배하는 매우 기능적인 건물이기에 일관적인 어떤 양식을 따르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체로 부엌과 식당 그리고 창고 정도로 이뤄진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입헌제 시대(1908년~1920년)에 두 곳의 이마레트를 제외하고 모두 폐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와크프는 다른 형태로 빈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마렛
- 다국어 표기 imaret(튀르키예어), İmarətxana(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켈리이에, 오스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amsun.ktb.gov.tr/Resim/271282,imarethane-1jpg.png?0>
- 참고문헌(오프라인) Ergin, Osman. *Türk Şehirlerinde İmâret Sistemi*, İstanbul: Cumhuriyet, 1939.
Tanman, Baha. “Sinan’ın Mimârîsi İmâretler”, *Mimarbaşı Koca Sinan: Yaşadığı Çağ ve Eserleri* (ed. Sadi Bayram) 1, İstanbul: Vakıflar Genel Müdürlüğü, 1988, pp.334~353.
Ertuğ, Zeynep Tarım. “İmaret”, *TDV İslâm Ansiklopedisi* 22.cilt, İstanbul: TDV, 2000, pp.219~220.

I F200 | 이맘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mam

‘이맘’은 이슬람교 수니파에서는 예배 인도자, 시아파에서는 이슬람 사회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이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전해진다.

히즈라 이전에 먼저 카바에 도착한 이들의 기도를 인도한 이들은 아부 후다이파(Abu Hudhayfa ibn Utba, ~ 633년)가 풀어주었던 살림(Salim Mawla ibn Abu Hudhayfa)이었다. 그는 난민들의 이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히즈라가 일어나 메디나에 가기 전까지도 카바에 남아 있던 예언자가 그곳의 모스크에서 이맘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카바에서 떠난 후 라누나 계곡에서 첫 금요 예배를 올리게 되었는데 예언자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새로운 지역과 부족 및 민중 중에서 이맘 일을 할 사람을 지정했다. 그들이 선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코란을 잘 읽고 이해한 자들이어야 했다.

무함마드의 아내 중에는 ‘움 살라마’(Umm Salama, 580년 or 596년~680년 or 683년)와 ‘아이사’(Aisha, 613년/614년 or 603년~678년)가 여성들의 기도를 이끌게 되었다. 이 외에도 움 와카라(Umm Waraqa)라는 여성들도 집과 마을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인도할 이맘으로서 무함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맘

마드의 선택을 받았다. 칼리프들은 믿음과 권능의 관점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이맘에 비유되기 때문에 이맘의 호칭이 붙었다. 예언자와 네 칼리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맘 일을 맡기지 않았다.

압바스 시대 이후로 칼리프들은 차츰 정기 예배 시간에 이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식적인 직위로서 다른 이들을 임명했으며, 후에는 금요 예배 시의 이맘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각 정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랐으나 재판관, 주, 도, 시의 지방관이 직접 이맘을 겸직하거나, 이맘을 임명하게 되었다.

시아파에서 이맘은 기도의 인도자라는 의미가 없으며,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의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각 종단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갈리지만, 공통적으로는 4대 칼리프 알리의 후손으로, 종교적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영적 존재이다. 이스마일파의 7명의 이맘, 12이맘파의 12명의 이맘이 그 예이다. 시아파에서 기도의 인도는 몰라(Molla)가 맡으며 알레비파에서는 피르(Pir) 또는 데데(Dede)가 맡았다.

● 다국어 표기 Imam(카자흐어), İmam(아제르바이잔어), İmam(튀르키예어), Imom(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몰라, 피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Küçükaşçı, Mustafa Sabri. “İMAM”, *TDV İslâm Ansiklopedisi*cilt 22, İstanbul: TDV, 2000, pp.171~181.

Madelung, W. “IMAMA”, *Encyclopaedia of Islam*VOI.III (ed; B.LEWIS, V. L. MENAGE,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Brill, 1986, pp 1163~1169.

I F201 | 이맘 마흐디

● 시기 B.C.~A.D.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Imam Mehdi

‘мах디’는 아랍어 동사 ‘하다(hada)’, 즉 ‘인도(引導)하다’에서 파생한 말로 ‘알라가 바르게 인도한 사람’을 뜻한다. ‘인도하다’는 코란의 핵심어다. 코란 첫 장을 펴면 알라에게 “저희를 바른길로 인도하소서!(1장 6절)”라고 간절히 바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인도의 주체가 알라이고, 마흐디는 알라가 이끄는 자다.

코란에 마흐디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초기 이슬람 시대부터 마흐디는 존칭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7세기 초 무함마드 동시대 시인 ‘하산 이븐 사비트’(Hasan ibn Thabit)는 무함마드를 마흐디로 불렀으며 7세기 후반에 이슬람을 원래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재현할 공동체의 지도자를 마흐디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마흐디는 종말론적 인물을 뜻하게 되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을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알라가 세상에 보낸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초기 이슬람 시대에 무함마드를 마흐디로 부를 때는 이러한 종말론적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수니파 무슬림의 마흐디의 존재에 대한 의견은 서로 많이 달랐다. 마흐디라는 종말론적 인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바로 마흐디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예수 재림 때 마흐디가 무슬림 공동체를 이끈다는 견해도 있었다. 코란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알라가 들어 올렸기에 예수는 종말의 시각에 다시 강림했다고도 한다.

이런 마흐디와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수 외에 마흐디는 없다.’는 전승과 ‘마흐디와 예수가 둘 다 세상에 올 때가 바로 종말의 순간이다.’라는 전승이 혼재하고 있다. 시아파의 주류인 12이맘 시아파의 마흐디관(觀)은 수니파와 다르다. 시아파는 마흐디가 종말 시대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죄 없이 순결하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874년 5살 때 사라져 알라의 뜻대로 지금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12번째 이맘 ‘무함마드 이븐 알하산 알아스카리’(Muhammad ibn al-Hasan al-Askari)가 바로 마흐디라고 믿는다. 시아파 전승에 따르면 11번째 이맘 ‘하산 알아스카리’가 죽자 장례를 이끈 12번째 이맘 ‘마흐디’는 목숨을 노리던 수니 압바스 칼리프 조의 칼날을 피해 오늘날 이라크 사마르라의 10번째, 11번째 이맘 무덤 옆 모스크 아래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12번째 이맘은 4명의 충직한 대리인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했다. 그런데 941년 이맘 마흐디는 4번째 대리인 ‘아부 알-하산’에게 내가 6일 후 죽을 터이니 준비를 잘하고 다음 대리인은 지명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직접 서명하여 보냈다. 죽기 직전 4번째 대리인은 누가 다음 대리인이 될 것이냐는 주변의 질문에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알라의 손에 달려 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시아파는 4번째 대리인의 죽음을 기점으로 874년~941년을 12번째 이맘의 소은폐기, 이후를 대은폐기로 나눈다. 더 이상 대리인이 없기에 세상은 12번째 이맘과 소통할 통로가 없어진 당시부터 이맘의 대은폐기라는 것이다. 이맘 마흐디는 대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 종말의 날이 올 때까지 알라의 허락이 없는 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 이제 그를 만날 수 있는 때는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리고 세상이 폭력과 불의로 가득 찬 종말의 시대다. 후세인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시아파를 보고 부활의 희망이 없는 슬픔의 신앙으로 시아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후세인은 부활하지 못하지만, 시아는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맘 마흐디가 오기를 부푼 희망을 안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맘 메흐디, 이맘 마흐디
- 다국어 표기 Imam Mehdi(아랍어), Mehdi(튀르키예어), Mahdi(우즈베크어), Mehdi(아제르바이잔어), Мәһди(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시아, 이맘 알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m, Heinz. *Shi'ism*, 2nd. ed. Translated by Janet Watson and Marian Hill.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Madelung, W. "Al-Mahdī."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5, 1230~1238. Leiden: Brill, 1986.

Moojan Momen, *An Introduction to the Shia Tradition in Islam*. Binghamton, NY: Yale University Press, 1985.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Shi'ah*. Translated by Sayyid Husayn Nasr.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9.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A Series of Islam and Shi'a: Shia, Quran in Islam, A Shi'ite Anthology*. Translated by a Group of Translators.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7.

박현도. 「마흐디 Mahdi: 순니와 시아가 다른 이유」, 『월간조선』, 2017년 8월호, 통권 449호, 520~528.

I F202 | 이맘 무함마드 이븐 이스마일 알 부하리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ḥammad ibn Ismā'īl al-Bukhārī

‘알 부하리’는 810년 7월 20일 부하라에서 탄생했다. 그의 부친은 하디스 학자였던 ‘이스마일 이븐 이브라힘’(Ismail Ibn Ibrahim, 756년~810년)이며 증조부는 ‘알 무그라흐’(al-Mughirah)이다. 그의 증조부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부하라 주지사의 영향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의 어머니도 종교적인 여성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알 부하리는 열 살 무렵부터 하디스 학자들을 사사했고, 어린 시절부터 논리적이었고 암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6살 무렵 어머니, 동생과 함께 순례를 떠난 알 부하리는 가족들은 고향에 돌아갔음에도 메카에 머물며 하디스를 배웠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이슬람학 중심지를 방문하여 유명 학자들로부터 하디스를 더 깊이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던 중 알 부하리는 862년 니샤푸르에 정착하여 수니파에서 권위 있는 하디스 학자이자 『진실한 무슬림(Ṣaḥīḥ Muslim)』의 편찬자인 ‘이븐 알 하지자즈’(Muslim ibn al-Hajjaj, 815년~875년)에게서도 하디스를 배우게 된다. 알 부하리는 자신이 수집 및 편찬한 하디스로 커다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가 수집하고 기록한 하디스의 수가 이십만 편에 달했다고 한다. 알 부하리는 이렇게 수집한 하디스를 다양한 사람을 만나 그 기원이나 오류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코란이 창조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에 있었는데, 그는 <코란 암송은 창조되었지만, 코란 자체는 창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창조론을 지지하던 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하리와 부하리의 의견을 지지했던 니샤푸르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부하리는 후에 니샤푸르를 떠나 메르베로 갔으나 후에 다시 고향 부하라로 돌아왔다.

부하리는 기본적으로 정치가를 멀리하는 편이었으며,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지식을 베푸는 성품이었다. 다만, 궁궐에서 봉사하는 것은 학문적 굴욕으로 여겼기에, 부하라 총독의 가정교사 요청은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부하라 총독은 정치적, 신학적 이유를 붙여 부하리를 추방했고 이후 부하리는 사마르칸트 인근의 하르탕(Hartang 또는 호자 이스머일 Xoja Ismoil) 마을의 친지에게 갔으나 병에 걸려 870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묘소는 이맘 알 부하리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다.

알 부하리가 편찬한 『진훈집(al-Jāmi ‘al-sahih)』은 하디스 6서 중 하나로, 60만여 개의 하디스 중에 선별된 부분을 16년간 편집한 작품이다. 『진실한 무슬림』에는 97개 부분으로 분류된 7,300여 개의 하디스가 수록되어 있다. 그의 『진훈집』이 이슬람 하디스 6서 중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는 수십만에 이르는 이야기와 전설 중에서 제대로 된 하디스를 모으는 과정에서 보여준 섬세하고 꼼꼼한 방식,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하디스를 어떻게 적용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기술한 구성력 때문이다. 『진훈집(al-Jāmi ‘al-sahih)』은 그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관련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었다.

알 부하리는 이 외에도 무슬림들의 예절을 담은 『유일한 예절(Al-Adab al-Mufrad)』, 코란을 암송한 이들의 전기서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al-Tārikh al-Kabīr)』를 비롯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 부하리, 부하리, 부허리이
- 다국어 표기 Buxoriy(우즈베크어), Buxari(아제르바이잔어), Мухаммед эл-Бұхари(카자흐어), Buhārī(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하디스
- 참고문헌(온라인) 종교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32051&cid=50766&categoryId=50794>
이슬람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50358&cid=62098&categoryId=62098>

- 참고문헌(오프라인) EI-A‘Zamî, Muhammed Mustafa. “BUHÂRÎ, Muhammed b. İsmâil”,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6, Istanbul: TDV, 1992, pp.368~872;
- Robson, J. “AL-BUKHARI, MUHAMMAD B. ISMA‘IL” *Encyclopaedia of Islam* VOI.I (ed; H. A. R. GIBB, J. H. KRAMERS, E. LÊVI-PROVENÇAL, J. SCHACHT), Leiden; Brill, 1986, pp.1296~1297.

I F203 | 이맘 알리

- 시기 B.C.~A.D.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Imam Ali

이맘 알리(Imam Ali)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동생이자 예언자의 딸 파티마와 혼인하여 사위가 된 인물이다. 예언자의 아내 카디자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슬람을 받아들인 인물이라는 설과 카디자와 아부 바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설이 있다. 이슬람 역사에서는 무함마드 사후 정통 칼리프 시대의 마지막 4번째 칼리프(656년~661년)로 알려져 있다.

시아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632년 마지막 메카 순례를 마치고 메디나로 돌아오던 중 가디르쿰(Ghadir Khumm)에서 “나를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이여, 여기 알리가 바로 여러분의 지도자다.”라고 한 말을 근거로 알리를 유일한 적법 후계자로 인정한다. 또한 알리를 첫 번째 이맘으로 존경한다. 시아파의 사상에 따르면, 알리는 가장 먼저 무함마드의 빛(Nūr al-Muhammadi, The Light of Muhammad)을 만들어 이로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알리가 만든 무함마드의 빛은 아담 이후 모든 예언자에 내재하는 것으로, 예언자적 지식의 원천이다. 비록 아담부터 시작한 예언자 시대는 무함마드로 끝이 났지만, 무함마드의 빛은 이맘에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 모든 오류로부터 이맘을 보호하는 무함마드의 빛은 알리와 알리가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사이에서 낳은 하산과 후세인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12명의 이맘이 바로 무함마드의 빛을 전달받은 이들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이맘이 무함마드의 영적 계승자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12이맘 시아파와 달리 시리아, 레바논, 튀르키예 남동부에 거주하는 알라위(Alawi)는 알리를 신격화한다. 원래 누사이리로 불리던 이들은 프랑스의 시리아 지배기에 알라위로 알려

지기 시작했다. 튀르키예에는 이와 유사한 알레비(Alevi)가 있는데, 알레비는 무함마드와 알리를 숭배하며 알라위와는 다른 의미로 여겨졌다. 그들은 알라, 무함마드, 알리가 하나의 신성(神性)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믿으며 무함마드와 알라의 빛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튀르키예 인구의 20% 정도가 알레비에 속하는데도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이단으로 취급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현재 12이맘 시아파는 9세기에 시작된 알라위나 14세기에 시작한 알레비 모두 12이맘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맘 알리

● 다국어 표기 Imam Ali(아랍어), Imam Mehdi(아랍어), Mehdi(튀르키예어), Mahdi(우즈베크어), Mehdi(아제르바이잔어), Мәһди(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이맘 하산, 이맘 후세인, 파티마, 알레비, 시아

● 참고문헌(오프라인) Anthony, Sean W. “‘Ali b. Abi Talib (ca.599–661).” In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Islamic Political Thought*, edited by G. Bowering et al., 30~32.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Kazemi, Reza-Shah. “‘Alī b. Abī Ṭālib.” In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 1, 256~261. Farmington Hills, MI: Thompson Gale, 2005.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Shi’ah*. Translated by Sayyid Husayn Nasr.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9.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A Series of Islam and Shi’a: Shia, Quran in Islam, A Shi’ite Anthology*. Translated by a Group of Translators.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7.

Vaglieri, L. Veccia. “‘Alī b. Abī Ṭālib.”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1, 381~386. Leiden: Brill, 1986.

I F204 | 이맘 하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Imam Hasan

하산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첫 손자로 이슬람력 3년(624년~625년)에 메디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알리는 하랍(Harb, <전쟁>이라는 뜻)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으나 무함마드

가 하산이라 불렸다. 4번째 칼리프였던 아버지 알리가 661년 쿠파(Kufah)에서 암살당한 후 칼리프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하산의 칼리프 재임 기간은 짧았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5개월 10일, 또는 6개월 며칠, 또는 8개월 10일 등 사료마다 다른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알리가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와의 도전을 받던 중 카리지파에 암살을 당하면서 부친의 뒤를 이어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은 하산은 무아위야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하산은 대립보다는 화평을 원했고, 결국 스스로 칼리프 자리를 버리고 고향 메디나로 돌아왔다. 무아위야는 자신이 죽을 때 칼리프 자리를 하산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메디나로 귀향한 후 하산은 ‘이혼하는 자(al-Mitlaq)’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시로 혼인과 이혼을 거듭했다. 아내는 60명~90명, 첩은 300명~4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게 지내다가 669년~670년경 세상을 떠났다. 자세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긴 병치레 내지 독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살자로는 그의 아내 자오다(Ja'dah)가 지목되었는데 무아위야 측의 유혹에 넘어간 그녀의 아버지의 꼬임으로 하산을 독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자오다의 아버지를 배신자로 여겨 온 시아파의 편견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살아생전에 하산은 죽으면 예언자인 할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어 했다. 그래서 동생 후세인이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하산이 이미 생전에 이런 반대를 예상하고 반대가 심할 경우에 대비해 남긴 말이 있었기에 그에 따라 어머니 파티마가 묻힌 바끼(Baqi')에 매장되었다. 시아는 여러 파로 나뉘었지만, 모두 하산을 알리에 이어 두 번째 이مام으로 존경했다. 비록 칼리프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당시 하산을 비난하는 시아가 있었지만, 여러 이مام과 마찬가지로 하산을 흠 없는 인간으로 존경하는 면도 있다. 다만 동생이자 3번째 이مام인 후세인의 비극적인 삶과 순교가 준 충격이 너무 커서 시아의 역사는 하산보다는 후세인을 더 자주 중요하게 언급한다.

● **다국어 표기** Imam Hasan(아랍어 음사), İmam Hasan(튀르키예어), İmam Həsən(아제르바이잔어), Имам Хасан(카자흐어), Имом Ҳасан(타지크어), Imom Hasa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이مام 알리, 이مام 후세인, 시아

● **참고문헌(오프라인)** Momen, Moojan. *An Introduction to the Shia Tradition in Islam*. Binghamton, NY: Yale University

Press, 1985.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Shī'ah*. Translated by Sayyid Husayn Nasr.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9.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A Series of Islam and Shi'a: Shia, Quran in Islam, A Shi'ite Anthology*. Translated by a Group of Translators.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7.

Vaglieri, L. Veccia. "Ḥasan b. 'Alī b. Abī Ṭālib."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3, 240~243. Leiden: Brill, 1971.

I F205 | 이맘 후세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Imam Husayn

후세인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두 번째 손자이자 시아파의 3번째 이맘이다 그는 626년 1월 메디나에서 아버지 알리와 어머니 파티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전승에 따르면 할아버지 무함마드는 어린 후세인이 말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말을 사주었는데, 카르발라에서 후세인이 살해당할 때 이 말도 함께 죽었다고 한다. 형 하산이 칼리프직을 포기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알려졌지만, 후세인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680년 3월~4월 무아위야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야지드가 칼리프 자리에 올랐는데 야지드는 유독 후세인의 도전을 염려하여 메디나 총독 왈리드를 시켜 후세인으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후세인은 무아위야가 죽은 것을 알고 애도를 표한 뒤, 충성 맹세는 조금 지난 후에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궁을 빠져나와 메카로 피신했다. 그 후 메카에서 쿠파에 있는 아버지 알리 추종자들의 초대에 응해, 680년 9월 10일에 72명의 후세인 일행이 메카를 떠나 쿠파로 향했다. 그러나 쿠파에 도달하기 전 카르발라에서 야지드가 보낸 4,000여명의 군대에 포위되었다. 야지드는 후세인에게 다시 한번 충성 맹세를 강요했으나 후세인이 응하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리고 결국 물가로 이르는 길마저 차단당하여 후세인 일행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운명의 날인 무하르람 10일(680년 10월 10일) 후세인은 목숨을 잃었다.

후세인의 시신은 살해된 곳에서 다른 죽은 이들과 함께 매장되었고, 그의 머리는 쿠파를 거쳐 야지드가 있는 다마스쿠스로 보내졌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후세인의 두개골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참혹한 살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알리 집안의 남자는 후세인의 아들 ‘알리 자이눌 아비딘’(Ali Zayn al-‘Abidin)으로, 후세인을 이은 4번째 이맘으로 존경 받는다. 시아 무슬림은 아슈라 기일과 아르바인으로 카르발라의 비극을 기억하며 비통의 연대를 이어간다. 지금까지도 시아파는 이맘 알리를 정의와 정직의 표상으로, 이맘 후세인을 순교의 상징으로 여긴다. 후세인의 죽음은 그리스도교의 예수처럼 부활이 없기에 더 절망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아는 종말의 날 정의로운 새 세상을 열 이맘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희망을 갖는다. 후세인의 죽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이맘 마흐디를 기다리는 신앙적 전통을 이어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맘 후세인**

● **다국어 표기** İmam Hüseyin(튀르키예어), İmam Hüseyin(아제르바이잔어), Имом Хусейн(타지크어), Imom Husayn(우즈베크어), Имам Хусейн(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이맘 알리, 이맘 하산, 이맘 마흐디, 무하르람, 아슈라, 아르바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Momen, Moojan. *An Introduction to the Shia Tradition in Islam*. Binghamton, NY: Yale University Press, 1985.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Shī‘ah*. Translated by Sayyid Husayn Nasr.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9.

Tabatabai, Allamah Sayyid Muhammad Husayn. *A Series of Islam and Shi‘a: Shia, Quran in Islam, A Shi‘ite Anthology*. Translated by a Group of Translators. Qum, Iran: Ansariyan Publications, 2007.

Vaglieri, L. Veccia. “Ḥusayn b. ‘Alī b. Abī Ṭālib.”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3, 607~615. Leiden: Brill, 1971.

I F206 | 이맘쿨리 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momqulixon

1605년 부하라 칸국의 ‘발리무함마드’(Valimuhammad, 재위: 1605년~1608년)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토후 세력이 합세하여 쿤두즈(Kunduz) 지역의 통치자 ‘조니 무함마드’(Joni Muhammad)의 아들이었던 ‘딘무함마드 칸’(Dinmuhammadxon, 재위: 1584년~1598년)의 아들 ‘이맘쿨리’를 칸으로 추대했다. 이로 인해 발리무함마드는 사파비로 망명해 그곳에서 도움을 얻어 다시 제위를 찬탈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이맘쿨리는 발리무함마드와의 전쟁에서 카자흐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카자흐인들과 칼미크인들이 트란스옥시아나 지역 국경 마을에 정착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맘쿨리는 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는 이 전쟁에 승리하며 권위를 높이는 데 성공한다.

이맘쿨리의 통치 시기는 대체적으로 평안했으며 칸으로서 권위를 높인 시기였다고 평가받는다. 일단, 전대와 달리 사파비 조의 영토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사파비의 군사적 움직임에 그때 그때 대응하는 정도로 그쳤다. 당시 오스만이 사파비를 협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거절했으며 무굴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 또한 러시아와도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내치에서도 이맘쿨리는 궁정에 있던 샤이흐들과 시인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했다. 대형 건축물 건설과 여러 시인을 후원하며 자신도 시를 짓는 시인이길 자처했다. 이맘쿨리도 중앙집권화를 추구했으나, 토후들의 큰 반발은 사지 않았다. 다만, 토후들도 조금씩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서 후대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말년에 시력이 악화되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형제인 너디르무함마드(Nodirmuhammad, 재위: 1604년~1647년)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메카로 순례를 떠나는가 하면 페르시아를 여행하기도 했다. 사파비의 화가 무인 무사비르(Muin Musavvir)가 초상화를 그린 적도 있다. 그는 1644년 메카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맘 쿨루 한, 이맘쿨리 한
- 다국어 표기 Imamquli(우즈베크어), İmam kulu han(튀르키예어), Imam Quli Khan(영어)
- 연관 검색어 불하라 칸국, 보키 무함마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957~1045.
Gündoğdu, Abdullah. "Şiban Han Sülalesi ve Özbek Ulusunun Teşekkülü",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1046~1066.
Mukaminova, G. "The khanate (emirate) of Bukhara, Part Two: The Janids (Astarkhanid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UNESCO, cop. 2005, pp.45~52.

I F207 | 이불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강인욱 ● 라틴 문자 lvolga

이불가 유적은 대표적인 흉노의 주거유적으로, 러시아 자바이칼 울란우데 교외의 이불가 다찬(라마교 사원) 근처에 위치한다. 이 유적의 전체 평면 형태는 사각형이며 해자(壕)가 있고 서쪽 담의 길이는 348m이다. 이불가 유적의 동쪽은 파괴되었고, 남쪽은 216m, 북쪽은 현재 잔존범위가 약 194m이다. 성의 중앙에는 두 개의 방형 토대가 있고, 주변에는 작은 토대가 있는데 모두 지상건축지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불가 성지는 자바이칼의 대표적인 성지 유적이다. 이곳에서는 목축, 농경, 어업을 비롯하여 토기 제작 및 금속제련을 했던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생산을 성내에서 자급자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주거지는 수혈주거지(豎穴住居址)로 면적은 약 20제곱미터 내외이고, 남과 북 성벽 근처에 있는 주거지는 돌담을 벽체로, 동벽과 서벽 근처에서 발견되는 주거지는 나무로 벽체를 세웠다. 주거지의 동북 끝에는 소위 '간(坑)'이라고 불리는 온돌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연해주 및 서북한의 초기 철기시대에 발견되는 것과 같은 종류로 보인다. 유물로는 토기, 무기, 장식품, 가축골, 수골, 물고기뼈 등이 발견되었다.

지상 건축지는 바닥에 황토를 깔았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문은 남향이고 사면에는 기둥 구멍이 있다. 출토유물로 사발, 동이 등이 있다. 성내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물레로 만든 대형토기, 파수부(杯)를 비롯 수제의 분(盆), 사발(碗), 방추차 등의 토제품과 청동잔, 철도, 유엽형 골촉, 삼능형 골촉등이 발견되었다. 성내에서 발견된 한문비(漢文碑)는 이 성의 건축에 한인(漢人)들이 참가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면 발굴이 이루어진 이불가의 무덤군에서는 1956년 이래 총 216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동물장식 청동패식과 함께 의복의 잔편, 옥류 등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고분은 이미 한번 훼손된 상태로 인골의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아 적대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무덤에 시신은 1기씩만 안치했으며 모두 신전앙와장(身展仰臥葬, 하늘을 바라보고 눕힌 안치방법)이다.

환호는 모두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비주거용으로 목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쪽에서 다수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모두 51기의 주거지와 600여개의 저장공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수혈주거지는 49동이며 거의 모두 온돌이 확인되어서 한반도의 이주민 흔적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었다. 이들 주거지는 모두 동남쪽으로 일정한 방향과 간격으로 축조되었으며 길이는 0.5m~1.1m이고 평면은 소형은 2.8mx3.2m, 대형은 6.85mx6.6m로 한 변의 길이는 대부분 4m~5m이다. 대부분 주거지는 장방형으로 크기가 거의 대동소이하며, 온돌구조는 장축을 정확히 북쪽으로 향하게 했으며, 동북쪽 모서리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ㄱ자로 구들을 설치했다. 전체적으로 이불가 고분군의 경우 토기유물상에서 이불가 성지와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무덤유적과 주거유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불가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흉노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한반도의 이주민이 건설한 온돌과 유사한 문화가 있으면서 북흉노가 정착민들을 이용하여 생산기지를 건설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흉노가 순수한 유목민족 계통의 국가가 아니라 정착민도 함께 살았던 문화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넓게 생각해보면 국가의 체계를 ‘농업’과 ‘목축’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해온 기존 역사학계의 구분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불가의 발견으로 흉노가 정착-유목의 복합사회(sedentary-nomad complexed society)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계의 주장과 달리 흉노는 순수한 유목사회에서 정착민을 포괄하는 영역 중심의 국가로 나아감에 따라 대형고분과 함께 배후기지로

정착민의 성지까지 만들었던 문명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흉노가 투르크 계통의 주민들이 상당수였음을 감안할 때 한국과 투르크 집단 간의 교류관계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볼가
- 다국어 표기 Иволг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니콜라이 크라딘, 「이볼가(Ivolga) 성지 유적의 예를 통해 본 흉노 제국 내 정착민」, 『한국상고사학보』, no. 71. 2011. pp.33~50.

I F208 | 이볼가 무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Ivolga Cemetery

이볼가 무덤 유적은 A.D. 1세기~A.D. 2세기 무렵의 흉노의 무덤으로 자바이칼 지역 셀렝가 강의 지류인 이볼가 강의 테라스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원래 테라스는 강둑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바이칼 지역에서 흉노 무덤 유적이 몇 개 발굴되었는데, 이볼가 무덤 유적은 그 가운데서 가장 대규모로 216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이볼가의 무덤은 동쪽(33개)과 남쪽(183개)으로 2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형성되어 있는데, 모든 무덤이 남성, 여성,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설치되었다. 이 중에서 5쌍의 무덤만이 2개의 무덤칸이 있는 무덤이다. 무덤은 15cm에서 가장 깊은 무덤은 2.55m까지 깊게 파서 직사각형 구덩이를 파고 무덤 시설을 설치했다. 무덤 안에는 관만 설치한 경우 무덤방 안에 관을 설치하거나, 무덤 바닥 시설만 한 경우에는 석관묘이고, 무덤 시설 없이 설치한 경우도 있다. 무덤의 방향은 북쪽과 동쪽 두 경우로 나뉘며 무덤 안의 관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애초에 판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적에서 확인된 무덤은 대부분 무덤관만 썼다. 무덤방을 만들고 그 안

에 관을 따로 설치한 경우도 두 곳(76호와 109호)이 있다. 사자는 모두 등과 다리, 팔을 편 상태로 묻혔다. 무덤에는 성인 195명, 청소년 49명, 어린이 등 244명이 216개의 무덤에 묻혔고 대부분은 단인장이었고 26개의 무덤이 2인~3인 합장묘였다.

무덤에서는 각종 토기와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선(先)흥노의 토기가 발견된 무덤이 4곳이다. 그러나 이 무덤을 근거로 유적 전체가 선 흥노 단계로 올라갈 수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무덤의 방향과 무덤의 구조가 묻힌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무덤방과 같은 곳은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덤의 방향이 다른 이유는 이불가 유적에서 거주에서 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종의 이질성을 보여 준다. 흥노 무덤은 봉분을 쌓는 봉분+무덤이지만 이 유적은 대부분 봉분이 없는 평토장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이불가 무덤 유적은 정착민인 선(先)흥노인과 유목민인 흥노민족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의 공동묘지인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불가
- 다국어 표기 Иволгинский могильни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흥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A.B. Давыдова, Иволгин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Том 2: Иволгинский могильник, 1996.

I F209 | 이브라힘 1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Ibrahim I

이브라힘 1세(1615년~1648년, 재위: 1640년~1648년)는 아흐메드 1세와 그가 총애한 후궁 쾨셈의 아들로, 무라드 4세의 동생이다. 그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오스만 제국에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들이 있었던 시기이다. 그의 삼촌인 무스타파 1세가 두 번 폐위되었고, 이복형인 오스만 2세가 예니체리들에게 시해되었으며 동복형인 무라드 4세는 월정을 나갈 때 정치적으로 위

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이 많은 동생 3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의 무대였던 톱카프 궁의 하렘에서 유폐되어 있던 그가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무라드 4세가 후사 없이 죽은 후 관료들이 그를 즉위하도록 준비시키려 하자 이것이 자기를 처형하려는 의도의 속임수라고 생각해 저항했다. 하지만 경쟁자 없이 즉위했고, 즉위 당시에는 아들이 없었으나 재위 기간에 9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중 3명은 술탄이 되었으니 메흐메드 4세, 쉴레이만 2세, 아흐메드 2세가 그의 아들이었다.

이브라힘 1세 즉위 후 첫 4년간은 안정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대재상 ‘케만케쉬 카라 무스타파 파샤’에 의해 예니체리와 시파히의 인원을 감축했고, 화폐를 안정시켰다. 또한 납세와 국고 지출을 동전으로 하는 등의 개혁 조치 등 행정의 효율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1644년 정쟁에서 밀려나 처형을 당했고, 그의 사후 정치적 혼란은 점점 증폭되어갔다. 궁과 관료계와 종교계에 포진한 이브라힘의 측근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나 그 안에서도 베네치아와의 크레타 전쟁(1645년~1669년) 초기에 전과를 거둔 대제독 ‘유수프 파샤’와 대재상 ‘술탄자데 메흐메드 파샤’ 사이에 정쟁이 벌어졌다. 마침 베네치아의 해협 봉쇄와 전시의 물자 부족 상황에서도 이브라힘 1세가 담비 가죽 등 과시적 소비에 집착하여 정부 요인들과 지방관들에게서 과중한 세금을 거두었으므로 1648년 여름 예니체리, 관료들, 종교인들 대부분이 이브라힘 1세와 그 측근들을 몰아내는 데 합심했다.

결국 올라마의 최고 권위자인 세이힐이슬람이 술탄 이브라힘을 폐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파트와(율법적 의견)를 발표해서 반란자들이 그를 톱카프 궁의 한 쪽에 유폐했고 7세가 된 그의 아들 메흐메드가 즉위했다. 그 후 지지자들이 정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브라힘 1세는 10일 후 교살되었다. 비슷한 패튼의 정쟁은 메흐메드 4세 시대 초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브라힘



『멋진 남자 일곱 명(Yedi Güzel Adam)』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1세, 무라드 4세, 크레타 전쟁(1645~1669)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han Börekçi, "Ibrahim I,"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262~264.

Feridun Emecen, "Ibrahim,"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1, pp.274~281.

I F210 | 이브라힘 파샤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장군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Ibrahim Paşa

‘이브라힘 파샤’(1789년~1848년)는 카발라 출신의 이집트 총독 ‘메흐메드 알리’의 장남으로, 이집트군의 장군이자 한동안 시리아의 총독이었다. 메흐메드 알리의 혈통은 알바니아계로 흔히 알려져 있으나 칼레드 파흐미는 그가 투르크계의 예니체리 집안이라고 보았다.

그는 십 대의 나이에 카발라로부터 1805년 아버지가 불러들여서 카이로로 와서 카이로 성채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807년에는 이집트의 재정 책임자가 되었고, 1816년 동생 ‘토순’이 죽은 후에는 이집트군의 통솔을 맡아 와하비 반란을 진압했다. 그는 이집트군을 외국인 교관들 지도하에 훈련받는 농민 출신의 징집병들로 새롭게 바꾸는 일을 담당했다.

1824년에는 이 군대를 이끌고 크레타섬으로 파견되어 모레아 지역의 그리스 반란을 진압하는 데 동원했다. 이때 이집트군의 성공은 영국과 프랑스에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러시아와 함께 그리스에 선단을 보내 오스만-이집트 함대를 1827년 나바리노에서 격침시켰다. 이에 메흐메드 알리는 이브라힘에게 군대를 거두어 이집트로 돌아오도록 명령했다. 이브라힘은 1831년 11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오스만 영토인 시리아를 침공했고, 그때의 명분은 징집을 피해 시리아로 달아난 이집트 농민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사실상 오스만 제국 중앙에 반기를 든 것이었다.

이브라힘은 성채가 견고한 아크레를 포위하여 함락시켰고,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 그는 오스만군을 홈스 근처에서 패배시킨 후 군대를 이끌고 아나톨리아로 진격하여 1832년 7월 코니아 외곽에서 오스만군을 패배시켰다. 이에 마흐무드 2세는 전세가 기울었음이 확실시되자 이브라

힘을 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이후 그는 시리아 총독으로 8년간 재임했는데, 그동안 아버지 메흐메드 알리가 이집트에서 취했던 정책들을 모두 시리아에 도입했다. 일례로 비무슬림 인구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국가 전매의 실시, 직접 과세, 군사 징집 등을 시행했는데 무슬림 인구는 이에 크게 반발하여 1834년부터 반란이 시리아 전역에서 일어났다.

이런 사태는 오스만 중앙 정부가 시리아를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마흐무드 2세가 시리아에 군사 원정을 나서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브라힘은 다시 한번 군사적 수완을 발휘하여 1839년 6월 니집 전투에서 오스만군을 격퇴했다.

하지만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산지의 드루즈와 마론파가 이듬해 반란을 일으키면서 영국과 오스만군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되자 이집트의 시리아 점령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 이브라힘은 1840년 영국에 항복했고, 1848년 7월 메흐메드 알리가 노망으로 더 이상 통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를 계승하여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으나 곧 사망하여 조카인 압바스 할미에게 이집트 총독직이 계승되었다.

● 다국어 표기 İbrahim Paş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알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Ibrahim Pasha",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264.

P. Kahle and P. M. Holt, "Ibrahim Pash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3. 1986, pp.999~1000.

I F211 | 이브러임 유수퍼브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Ibroyim Yusupov

이브러임 유수퍼브(Ibroyim Yusupov)는 1929년에 침버이(Chimboy) 지역의 어저드(Ozod)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1949년에 카라칼파크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이후 1961년까지 이 대

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1961년~1962년 잡지 <아무다르요(Amudaryo)>의 편집장으로, 이후 3년간 나짐 다브-코라예브(Najim Dav-qorayev) 언어 및 문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카라칼파크스탄(Qoraqalpog'iston) 작가연합 회장을 지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는 신문 <에르킨 카라칼파크스탄(Erkin Qoraqalpog'iston)>의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평화위원회의 카라칼파크스탄지부의 의장(1988년~1994년), '영성과 계몽 센터'의 책임자(1994년~2000년)를 맡았다.

이브러임 유수퍼브는 시인이자 극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그의 대표작은 『나의 고향(Vatanim, 1946)』, 『행복의 서정시(Baxt lirikasi, 1955)』, 『동쪽에서 온 여행자에게(Kunchilar yo'lovchisiga, 1959)』, 『생각들(O'ylar, 1960)』, 『초원의 환상(Dala orzulari, 1966)』, 『토마리스(To'maris, 1974)』, 『영감(Ilhom)』, 『걱정이 많은 세상(Tashvishlarga boy dunyo, 1987)』, 『소금 바람(Tuzli shamollar, 1988)』, 『마음의 넓은 세계(Ko'ngildagi keng dunyo, 1989)』,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Har kimning o'z zamoni bor, 2004)』, 『동지 선생님(O'rtoq muallim)』, 『아카시아 꽃이 만발한 곳에(Akatsiya gullagan yerda)』, 『여배우의 운명(Aktrisaning iqboli)』, 『카펫 짜는 여자(Gilamchi ayol)』, 『오래된 분수의 동화(Eski favvora ertagi)』, 『나이팅게일의 동지(Bulbul uyasi)』, 『천사 달(Farishta oy)』, 『포세이돈의 분노(Poseydonning g'azabi)』, 『조국의 흙 땅(Vatan tuprog'i)』 등이다.

이브러임 유수퍼브는 세계의 유명 문학 작품을 카라칼파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푸시킨(A. S. Pushkin), 레르몬토프(M. Yu. Lermontov), 타라스 흐리호로비치 셰우첸코(T. Shevchenko), 조지 고든 바이런(G. G. Bayron),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프리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의 시,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소네트, 알리셰르 나버이이(Alisher Navoiy) 및 허피즈(Hofiz)의 가잘(gazal), 우마르 하이얌(Umar Xayyom)의 루바이(rubai)를 카라칼파크어로 번역했다.

이브러임 유수퍼브는 『서정시에 관한 토론(Lirika haqida munozara, 1956)』, 『전후 카라칼파크 시(Urushdan keyingi qoraqalpoq poeziyasi, 1956)』, 『국민 시인 압버즈 도빌로프(Xalq shoiri Abboz Dobilov, 1958)』, 『카라칼파크스탄- 마흐툼쿨리의 두번째 시적 고향(Qoraqalpog'iston - Mahtumqulining ikkinchi shoirlik vatani, 1958)』, 『마흐툼쿨리와 카

라칼파크 문학(Mahtumquli va qoraqalpoq adabiyoti, 1957)』, 『마흐툼쿨리의 작품 번역의 일부 오해에 관하여(Mahtumquli asarlarini tarjima qilishdagi ba'zi bir anglashilmovchiliklar haqida, 1983)』 등 문학 평론과 학술 연구로 카라칼파크 문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이브러임 유수퍼브의 시 작품은 카자흐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조지아어, 라트비아어, 불가리아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되어 각 나라에서 출판되었다. 그는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국가의 작사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의 명예 예술가 칭호와 함께 베르다크(Berdaq) 국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또 수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명예훈장(El-yurt hurmati), 우정훈장(Do'stlik)과 여러 상장 및 메달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04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브러임 유수퍼브는 2008년 7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브라힘 유수포브, 이브라임 유스포브

● 다국어 표기 Ibroyim Yusupov(우즈베크어), Ибрайым Юсупов(카라칼파크어 키릴 문자), Ibrayim Yusupov(카라칼파크어 라틴 문자), Ибрагим Юсуп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라칼파크스탄,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letype.in/@yosh_kitobxon_kitoblari_bot/jvouHHqOt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Yusupov Ibroyim, *Қуншығыс жолаушысына*, Nukus: Qaraqalpaq mamleket baspasi, 1959.

Юсупов Ибрагим, *Меридианы сердца: стихи и поэм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66.

I F212 | 이브러힘 라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Ibrohim Rahim

작가이자 기자인 이브러힘 라힘(Ibrohim Rahim)은 1916년 10월 15일 페르가나주 쿠와(Quva)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핀란드 및 독일과의 전쟁에 두 차례 참전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우즈베크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편집장으로, 우즈베크 전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사기를 북돋는 단편소설과 기사를 썼다. 1946년에 군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공화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라디오 위원회 책임자, 1950년부터 1961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목소리(O'zbekiston ovozi)>의 편집자,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우즈베크 필름(O'zbek film)>의 감독, 1966년부터 1970년까지 <굴리스턴(Guliston)>과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잡지 <무쉬툼(Mushtum)>의 편집장을 맡았다.

전쟁 중이던 1939년 서사시집 『용맹(Bahodir, 1939)』을 펴낸 그는 『생명의 샘(Hayot buloqlari, 1953)』, 『진정한 사랑(Chin muhabbat, 1958)』, 집단 농장 속 여성의 위치와 더불어 집단 농업 경제 발전 현실을 그린 『힐릴라(Hilola, 1960)』, 타슈켄트 지진을 소재로 한 『정적이 깨진 도시(Tinimsiz Shahar, 1968)』, 『헌신자들(Fidoyilar, 1972)』,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웅들의 투쟁을 담은 『라브샤노프 장군(General Ravshanov, 1985)』 등 여러 권의 소설을 썼다.

그는 『내 인생 다 바쳐(Jonim fido)』, 『번개(Chaqmoq, 1974)』, 『파르하드의 용기(Farhodning jasorati)』 등의 희곡도 썼는데, 『파르하드의 용기』는 1967년 알베르트 하차투로프(Albert Xachaturov)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브러힘 라힘은 소설 『결말(Oqibat/Последствия)』로 1983년 공화당 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함자 우즈베키스탄 국가상을 수상했으며, 1996년 우정 훈장(Do'stlik)과 1998년 국가 명예 훈장(El-yurt hurmati)을 받았다.

이브러힘 라힘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작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명예로운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2002년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브라힘 라힘, 이브로힘 라힘
- 다국어 표기 Ibrohim Rahim(우즈베크어), Ибрахим Рахим(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uzbek-nasri/ibrohim-rahim/>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 Mirvaliyev S., *O'zbek adiblari*,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2016.

I F213 | 이브러힘 하즈랏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brohim Hazrat

이브러힘 하즈랏(Ibrohim Hazrat)은 1928년 코칸트 서쪽 부와이다(Buwaydah)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피즘 수도승이다. 그를 따르는 약 20,000명의 제자(Murid)를 비롯한 추종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했다.

이브러힘 하즈랏은 매주 금요일 카나카(khanaqa : 수피 지도자들의 숙소)에서 설교를 진행했다. 그의 설교는 시장의 가격이나 수확에 대한 전망과 같은 경제적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등 일상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다. 그는 수피즘을 잘 이해하고 수피의 의식 및 관행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낙취반디(Naqshbandiyah)나 무쟈디디(Mujaddidiya)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는 능력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난한 가정을 돕거나 코칸트의 고아원에 음식 등을 기부하는 자선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그의 추종자는 주로 평민, 일반 관료, 교사, 예술가, 지식인, 기업가, 젊은 경찰 관료 등이었으며, 평범한 우즈베키스탄 민중은 유명 학자들의 글보다 그의 설교와 글을 이해하기 쉽다며 좋아했다.

그는 종종 “왕(파디샤)의 책임은 나라이며, 우리(수피)의 책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알라께 사람들을 부른다.”고 정치적인 목표가 없음을 선언했다.

그가 이끌던 수피운동은 새로운 수피 입문자들을 늘리고, 입문자들에게 수피 의식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지침을 배포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유력 인사나 관리들을 제자로 끌어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늘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전통적인 방식도 활용했다. 기부자들에게는 금융 거래나 경제활동에 대한 축복을 내려 성공 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집단을 유지·발전시켰다.

이브러힘 하즈랏은 2009년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제자 중 커르반 알리 아크메도프(Qurban 'Ali Akhmedov, 1955년~)가 그의 자리를 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브라힘 하즈라트

● 다국어 표기 Ibrahim Hazrat(영어), Ibrohim Hazrat(우즈베크어), İbrahim Hazret(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Muminov, Ashirbek. "Sufi Groups in Contemporary Kazakhstan: Competition and Connections with Kazakh Islamic Society", *Sufism in Central Asia New Perspectives on Sufi Traditions, 15th~21st Centuries* (ed:Devin DeWeese; Jo-Ann Gross), LEIDEN, BOSTON; BRILL, 2018, pp.284~298.

Olcott, Martha Brill. "Sufism in Central Asia.", *Carnegie Papers, Russian and Eurasian Program*, No.84. May, 2007.

I F214 | 이븐 네즈자르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bn Neccar mosque

엘리귀젤 사원(Eligüzel Camii)이라고도 불리는 이븐 네즈자르 모스크(İbn Neccar mosque)는 흑해 연안 지역에 있던 잔다르 공국에 1353년 건설된 모스크이다. 비문에 의하면 이 모스크는 이븐 네즈자르의 아들 하즈 누스렛 이븐 무라드(Hacı Nusret b. Murâd)의 후원으로 건설되었다.

이 모스크는 건물 전체가 마름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9.50mx9.50m 크기의 정사각형이다. 북쪽에 배랑이 있으며 중정과 기도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정은 후대에 추가된 것이며 중정 서북 방향에 오스만 시대에 만들어진 수조가 있다. 첨두 아치로 세 부분으로 나뉜 배랑은 돔으로 덮

여 있으며 배랑 서쪽 벽에는 세 개의 창문이 있다. 중정은 서쪽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기도 공간으로 통하는 문은 건물 중앙에서 약 30cm 서쪽에 떨어져 있다.

팔각형의 드럼 위에 솟은 돔은 지름 5.50m, 높이 9.50m이다. 건물 내부에서 돔은 장식 없는 트롬프로 지지되고 있다. 돔 내부 중앙에 위치한 메달형 장식에는 코란 구절이 적혀 있다. 돔 주변과 창문 주변은 후에 추가된 칼렘이쉬(kalem işi)로 장식되어 있다. 입구 북쪽 내벽에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건물 하단부의 12개 창문, 상단부의 4개 창문, 드럼에 존재하는 4개의 창문으로 채광한다. 설교단은 목재로, 미흐랍은 석고로 각각 만들어졌다.

이 모스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목재 대문이다. 2.10mx0.70m의 문은 당대 목공예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루미 문양을 주로 사용한 패넬이 문의 주변부를 감싸고 그 내부에는 쉘세(şemse : 태양) 문양이 자리하고 있다. 쉘세 안쪽도 루미 문양으로 채웠다. 쉘세 윗부분에는 코란 구절이 적힌 카르트슈가 있다. 이 섬세한 문의 장식은 안카라 출신의 마흐무드 오울루 압둘라(Mahmud oğlu Abdullah)가 1357년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문은 카스타모노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이븐 네즈자르 모스크는 1943년 지진으로 배랑과 미너렛이 무너졌으나 1968년 복구 공사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이 모스크는 높은 돔과 균형을 이루는 몸체가 특징으로 꼽히며, 대표적인 초기 아나톨리아 싱글 돔 모스크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븐 네즈자르 모스크
Source: <https://www.kastamonu.bel.tr/>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븐 네자르 자미

● 다국어 표기 İbn Neccar Cami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이븐 네자르 모스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0686/original/IMG09330.jpg?1384711626

이븐 네자르 모스크_문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0718/original/IMG09362.jpg?1384711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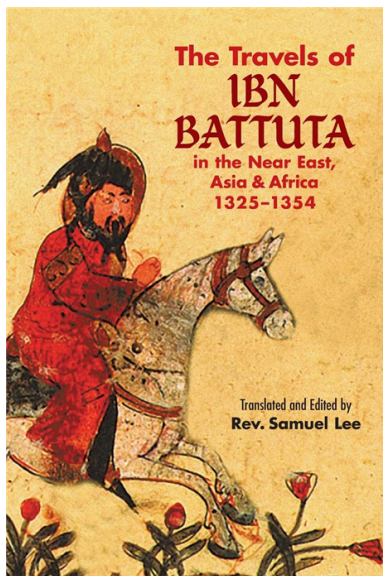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630/media_contents/40686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Yavaş, Doğan. "İBN NECCÂR CAMİİ", *İslâm Ansiklopedisi*Cilt.20, Istanbul: TDV, 1999, p.331.

I F215 | 이븐 바투타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모로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여행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Ibn Battutta



『이븐 바투바 여행기』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a/>

이븐 바투타는 지금의 모로코 왕국의 탕헤르에서 태어났다. 전통적인 이슬람 명문사족에 속한 그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자라며 교육을 받았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했다. 1325년 21세의 나이에 홀로 대장정에 나섰다. 대장정의 동기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메카 성지순례를 결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방 이슬람 세계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여행기를 보면, 그는 멀리 인도까지도 이슬람 명소와 명인들이라면 빠짐없이 찾아갔고 당대 갖가지 이슬람 문명의 전개상을 다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여행과 탐험의 묘미를 느끼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그 지평을 부단히 넓혀나갔다.

그는 30년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각지를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겼다. 그는 카스피해 북부, 인도, 중국, 아프리카 내륙 등 수많은 이교도 지역을 두루 방문했고, 세계적인 여행가로서의 견문과 소견을 그의 여행기에 실사구시적으로 피력

했다. 특히 그는 철두철미한 이슬람 문화 속에서 훈육된 샤이흐이자 법관으로서 모든 사물의 가치 기준을 이슬람교의 교리와 규범에 두고 고찰하고 판단했으며 여행 중 네 차례나 메카를 순례했다. 그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장장 117,000km에 이르는 여정을 답파했는데 귀향 후 이를 불후의 기록으로 남겼다.

인류사상 유례없는 이 탐험기의 원본은 소실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쓸된 아부 아난의 제의로 당대 아랍의 대문장가인 이븐 주자이가 필사 요약한 것이 남아 있다. 이 필사본도 인류의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이븐 바투타는 1368년 모로코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브니 바투타

● 다국어 표기 ابن بطوطة(아랍어), Ibn Batutta(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정수일 역주, 『이븐 바투타 여행기 1』, 창작과비평사, 2001.

정수일 역주, 『이븐 바투타 여행기 2』, 창작과비평사, 2001.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Hill, John E. *Through the Jade Gate to Rome: A Study of the Silk Routes during the Later Han Dynasty, 1st to 2nd centuries CE*. BookSurge, Charleston, South Carolina. 2009.

Grousset, René.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Rutgers University Press. "Xinjiang: autonomous region, China". Encyclopædia Britannica. 1970.

I F216 | 이븐 툴룬 모스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bn Tulun mosque

이집트에서 첫 투르크 국가를 세운 압바스 조의 투르크계 병사 출신인 아흐마드 이븐 툴룬(Ahmad ibn Tulun 또는 Ahmed Tulunoğlu, 835년~884년)은 868년 이집트 지방 총독으로 임



이븐 툴룬 모스크

명되어 이집트에 갔으며, 곧이어 자치 왕조를 건설했다. 그는 이집트 푸스타트(Fustat) 근처에 알 카타이(Al Qata'i)라는 새로운 도시를 세웠고 이곳에 성과 폴로 경기장을 만들었다. 성 안에 만든 궁전의 아홉 개 문 중 하나는 세 개의 거대한 도로와 연결했고, 그 600m 앞에는 모스크를 세웠다. 이 모스크가 이븐 툴룬 모스크이다.

879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븐 툴룬 모스크의 주재료는 벽돌이다. 122mx140m의 직사각 형태의 플랜에 사마라 대 모스크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흰색 스투코의 다양한 문양으로 만든 장식은 벽돌로 건설된 부하라의 모스크 아치 장식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장식이 모스크 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데, 총 2km에 달하는 쿠픽 서체의 코란 구절을 적은 목제 띠 장식이다.

이븐 툴룬 모스크는 네 개의 아케이드로 둘러싸여 있고, 이 중 가장 큰 곳에는 키블라가 있다. 이 아케이드에는 다섯 개의 신랑이 예배 공간에 평행하게 자리하고 있다. 기도 공간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증축되었다. 스투코 몰딩과 각 양면에 아치가 있는 공간이 건설 당시부터 존재해온 오리지널 부분이다. 다른 세 면은 세 개의 신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간으로 주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 키블라가 있는 면 쪽에는 궁전과 이어지는 문이 있다. 이븐 툴룬은 이 문을 통해 바로 모스크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외 모스크의 세 면에는 총 19개의 문이 있고 형태는 유사하다

중정 한가운데 위치한 돔 지붕이 있는 분수대는 13세기 술탄 라친(Sultan Lachin, 재



이브라힘 모스크 벽면

위:1296년~1299년)의 명으로 건설되었다. 이전부터 있던 원래의 분수대(fawwara)는 986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또한 모스크에서 북쪽으로 단독 형태로 분리된 40.5m 높이의 미너렛이 있다. 이 미너렛은 바닥에서부터 나선형으로 쌓아 올렸다. 이는 사마라 대 모스크 또는 말비야 모스크의 미너렛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마라 대 모스크의 미너렛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인데 이븐 툴룬 모스크 미너렛은 정사각 형태이다. 13세기 맘루크 조 술탄 라친 시대에 석재로 아랫단 부분을 수리했다는 설도 있다.

미너렛과 함께 사마라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 부분은 장식이다. 비잔틴 전통뿐만 아니라 사마라 스타일의 꽃문양, 일명 사마라 B 스타일과 사마라 C 스타일이 모스크 전체를 감싸는 목재 패널에 이용되었다.

이븐 툴룬 모스크는 사마라에서 나타난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예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툴룬오울루 모스크, 툴룬오울루 자미
- 다국어 표기 Tolunoğlu camii(튀르키예어), masjid ahmad ibn tulun(아랍어)
- 연관 검색어 이븐 툴룬, 사마라 대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e/Kairo_Ibn_Tulun_Moschee_BW_4.jpg/1920px-Kairo_Ibn_Tulun_Moschee_BW_4.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f/Arches_of_the_Ibn_Tulun_Mosque_in_Cairo.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ehrens-Abousief, Doris. "Early Islamic Architecture in Cairo." *In Islamic Architecture in Cairo: An Introduction*, Leiden; New York: E.J. Brill, 1989, pp.47~57.
Yeomans, Richard.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slamic Cairo*, Reading: Garnet, 2006.

I F217 | 이블리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희곡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The Devil

아제르바이잔의 극작가인 휘세인 자비드(Hüseyn Cavid)의 「이블리스(악마)」는 1918년에 저술된 비극 작품으로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최초로 극장에서 상연된 희곡(poetic drama)이다. 이 작품은 1920년에 압바스 미르재 새리프자데(Abbas Mirzə Şərifzadə)에 의해 아제르바이잔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복잡한 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낭만적인 스타일로도 주목받은 이 희곡은 1924년에 초판이 나왔으며 이후 세계의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이 작품은 중동에서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다. 작품의 주인공 아리프(Arif)는 원래 인간적이고 낭만적인 청년이었다. 아리프는 침략 전쟁 속에서 사람들의 잔인함과 범죄, 배신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세상이 전쟁 중인 것은 누구의 탓인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누구의 탓인가’ 등의 고민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한다. 전쟁으로 집과 동생을 잃은 아리프는 문명화된 세계의 야만스러움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리프는 ‘신은 왜 조용히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만 있는가’라는 질문을 버리지 못한다. 그는 최강자의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세계를 보면서도 사랑과 양심, 동정과 같은 도덕적 본성을 신뢰했다.

그러던 아리프는 래나(Rəna)라는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소녀가 살인당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원했으므로 아리프는 범죄자가 되고 만다. 어느 날 악마가 아리프를 찾아오면서 아리프는 자신의 아내 카베르(Xavər)를 목 졸라 죽이고 동생 와시프(Vasif)도 죽이기에 이른다. 이로써 세상의 범죄와 배신이 인간의 악마적 본성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휘세인 자비드는 이 작품을 통해 물질적 부를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인간 세태를 꼬집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약마

● 다국어 표기 “İblis” (튀르키예어), “Дьявол” (러시아어), “شیطان” (페르시아어), “Der Teufel” (독일어), “Шайтан” (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Cavid Hüseyn, *Dram əsərləri*, Bakı: “Avrasiya press” nəşriyyatı, 2007.

İbadoğlu Əbülfəz, *Hüseyn Cavidin “İblis” faciəsi*, Bakı: AzSSR EA nəşriyyatı, 1969.

Cəfər Məmməd, *Hüseyn Cavid*,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9.

Əzizova Nəzakət, *Hüseyn Cavidin dramaturgiyasında İnsan, İblis, Tanrı*, Bakı: “Nafta press” nəşriyyatı, 2000.

Mədət Famil, *Hüseyn Cavidin “İblis” əsərində insan azadlığı*, Bakı: “Elm” nəşriyyatı, 2013.

Tağioğlu Əjdər, *Hüseyn Cavid yaradıcılığı və dünya ədəbiyyatında demonizm ənənəs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5.

I F218 | 이비릭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Ibirig

중국 문헌 『책부원귀(冊府元龜)』 961장에 의하면 돌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천막 안에 안치했다가 여러 의식을 치른 후 화장했다. 또 그들은 보통 한 계절이 지나 유골을 묻을 시기가 되면 고인의 유족들이 말을 타고 무덤 주위를 도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로마 역사가 이오르다니스(Iordanis)는 5세기 유럽 훈족의 수장이었던 아틸라(Attila)가 사망하자, 그의 시신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평원 한가운데 세워진 비단 천막에 안치했으며, 훈족 중에서 선발된 최고의 기사들이 말을 타고 아틸라가 안치되어 있는 천막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았다고 기록했다.

시신이 안치된 곳의 주변을 빙빙 도는 이러한 의식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주적 이해에 따라 주변 사물 혹은 사람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은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을 만드는 일종의 샤머니즘적 행위이다.

남부 시베리아 하카스인들에게는 아이나자흐(Aynacah)라는 놀이가 있다. 게임 중 쫓기던 아

이가 자신의 주위에 원을 그리면 그 원 안으로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이 게임에서 원은 게임 참가자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집 혹은 거주지’를 의미한다.

‘방황하다’ ‘배회하다’ ‘순환하다’ ‘돌리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의식은 하카스어로 ‘ibirerge’라고 하는데, 동사 어근 ‘İbir-’는 ‘evir-’에서 파생됐다. ‘ibirerge’는 장례식 때 행해지는 종교 의식과 함께, 하카스인들이 고인의 사후 1년~3년 동안 정기적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기념 의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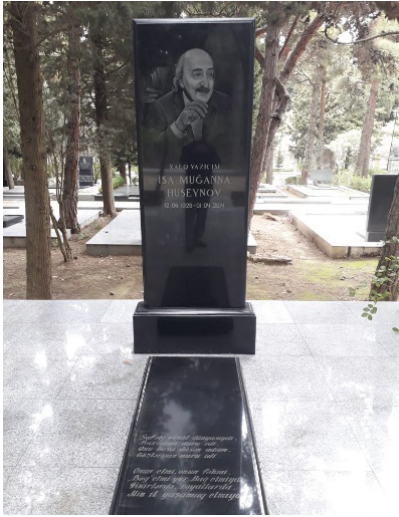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브리크, 이브리그, 이비리그
- 다국어 표기 İbirig / Ибир (하카스어), İbirig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훈, 아티라(Attila)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Davletov,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İstanbul: Ötügen Neşriyat, 2021.

I F219 | 이사 무간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İsa Muğanna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작가인 이사 무간나(İsa Muğanna)는 1928년 4월 12일 아그스타파 소도시(Ağstafa rayonu)의 무간르 마을(Muğanlı kəndi)에서 태어났다. 중등교육을 무간르 마을에서 받은 그는 아제르바이잔 의대(Azərbaycan Tibb İnstitutu)에 입학했지만 중퇴했다. 이후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재의 바쿠 국립대학교)의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와 모스크바에 있는 막심 고리키 문학연구소(Maksim Qorki adına Ədəbiyyat İnstiti)에서 수학했다. 그는 아재르 출판사(Azərnəşr), 아제르바이잔 영화 스튜디오(Azərbaycan film kinostudiyası), 영화 촬영 위원회(Kinomatografıya Komitəsi)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사 무간나는 1949년 문예지 <혁명과 문화(İnqilab və mədəniyyət)>에 「모국어가 읽히는



이사 무간나 묘비

곳에서(Anadil oxuyan yerdə)』라는 작품을 게재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첫 산문집 『우리의 여자들(Bizim qızlar)』을 1953년 바쿠에서 출판한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산문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동틀 녘의 별(Dan ulduz, 1955)」, 「불타는 심장(Yanar ürək, 1960)」, 「친한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Doğma və yad adamlar, 1962)」, 「텔레그램(Teleqram, 1963)」, 「파이프의 소리(Tütək səsi, 1965)」, 「사즈(Saz, 1971)」, 「최후 심판일의 집회장(Məhşər, 1979)」, 「이데알(İdeal, 1985)」, 「우아함(Tüfə, 2009)」, 「묘지(Qəbiristan, 2013)」, 「지옥(Cəhənnəm, 2013)」 등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2009년에는 『작품들(Əsərləri)』이라는 제목으로 6권 분량의 전집을 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전

쟁에 대한 것이다. 전쟁을 다룬 그의 작품 「파이프(작은 플루트같이 생긴 악기)의 소리(Tütək səsi)」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다.

그는 1979년 역사를 주제로 쓴 소설 「최후의 심판일의 집회장(Məhşər)」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문학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이 소설은 이슬람 수피의 한 종파인 후루피즘(Hurufism) 시인인 이마뎃딘 내시미(İmadəddin Nəsimi)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작품이다. 그는 「26명의 바쿠 정치위원(26 bakı Komissarı)」, 「내시미(Nəsimi)」, 「별들은 꺼지지 않는다(Ulduzlar sönmür)」 등 영화 시나리오도 썼다.

그는 두 개의 필명을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이사 휘세이노브(İsa Hüseyinov)를 필명으로 쓰다가 이사 무간나(İsa Muğanna)로 바꿨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소설과 포베스트를 써서 아제르바이잔 산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초기 작품 대부분을 다시 작업해 다른 버전으로 독자들에게 선보였는데, 그의 개인적인 예술 스타일에 심리적 색조가 투영돼 있다.

이사 무간나는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작가(Azərbaycanın Xalq yazıçısı)상을 받았다. 1976년에는 ‘명예로운 예술인’ 칭호(Əməkdar İncəsənət xadimi fəxri adı)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내시미상(Nəsimi mükafatı)을 수상했다. 그는 2014년 4월 1일 바쿠에서 사망했으며, 제1 명예

묘지(I Fəxri Xiyaban)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사 무간나, 이사 휘세이노브

● **다국어 표기** İsa Muğanna(튀르키예어), Иса Муганна(러시아어), İsa Muğanna(투르크멘어), Иса Муганна(카자흐어), Iso Muganna(우즈베크어), İsa Muğanna(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i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üseynova Sevinc, *İsa Hüseynovun Povest Və Hekayələri, Fəlsəfə Doktorluğu Dissertasiyası*, Bakı: BDU, 2002.

Muxtar İlhamə, *İsa Hüseynovun (Muğanna) Nəsrində Milli Koloritin İnikası*, Bakı: Elm Və Təhsil, 2018.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Dərslik), İki Cildə, I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Rəhimova Nərgiz, Sergey Borodin Və İsa Hüseynovun Tarixi Romanlarında Obrazların Tipologiyası, *Fəlsəfə Doktorluğu DisSertasiyası*, Bakı: BSU, 2016.

Sadiq Şəmil, *İsa Muğanna Yaradıcılığı “İdeal” Işığında*, Bakı: “Xan” Nəşriyyatı, 2017.

Yusifli Vaqif, İsa Hüseynovdan...Muğannayadək. *“Azərbaycan” Jurnalı*, №6, 2018, s.47~54.

I F220 | 이사 베흐자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조각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sa Behzat

이사 베흐자트(İsa Behzat)는 1875년 위스퀴다르(Üsküdar)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베스테지 하이다르 베이(Besteci Haydar Bey)이다.

그는 예술 교육을 톱타쉬 중학교(Toptaş Rüştıyesi)에서 시작했으며, 1893년 오스만 제국에서 서구적 의미의 최초 미술학교인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Sanayi-i Nefise Mektebi)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이에르반트 오스칸 에펜디(Yervant Oskan Efendi, 1855년~1914년)의 작업실에 들어갔으며, 조각 이외에 회화 작업도 했다. 1898년 학교를 졸업한 그는 1900년부터 회화 교사로 이즈미르의 학교(İzmir İdadisi)와 카발라의 학교(Mekatibi Hıdiviye)에서 근무했고, 동시에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서 수리 및 보수를 담당했다. 1910년에는 이을드즈 타일

공장(Yıldız Çini Fabrikası)의 사장이 됐다. 회화와 조각 이외에 희곡 집필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1916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작품에서는 스승이었던 이에르반트 오스칸 에펜디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고전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주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경향을 보인다. 그는 특히 민중의 삶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 다른 작가들과 구별된다. 그는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를 졸업한 초기 조각가 중 한 명으로 튀르키예 조각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그의 주요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Saz Şair(사즈 시인), 석고에 청동, 53cmx34cmx49cm, 1910년대, 이스탄불 미술 조각 박물관(İstanbul Resim ve Heykel Müzesi) 소장
- * Sakallı Adam(수염 난 남자), 석고, 50cmx48cmx38cm, 이스탄불 미술 조각 박물관(İstanbul Resim ve Heykel Müzesi) 소장
- * Kitap Okuyan Yahudi(책을 읽는 유대인), 부조, 98cmx71cmx17cm, 이스탄불 미술 조각 박물관(İstanbul Resim ve Heykel Müzesi) 소장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사 베흐자트

● 다국어 표기 İsa Behza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에르반트 오스칸 에펜디, 오스만 함디 베이,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

● 멀티미디어 링크 이사 베흐자트_수염 난 남자

<https://i2.wp.com/www.nkfu.com/wp-content/uploads/2017/05/isa-behzat.jpg?w=335>

● 참고문헌(오프라인) Aydın, Derya Uzun. “Sanayi-i Nefise Mektebi’nin Türk Heykel Sanatındaki Yeri Ve İlk Heykeltraşlar”, Basılmamış Doktora Tezi, İzmir: Ege Üniversitesi, 2013.

Berk. Nurullah, Hüseyin Gezer, *50 yılın Türk Resim ve Heykeli*,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73.

I F221 | 이사 해빡배일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İsa Həbibbəyli

문학평론가이자 비평가인 이사 해빡배일리(İsa Həbibbəyli)는 1949년 10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나흐츠반 지역(Naxçıvan bölgəsi)의 새루르 소도시(Şərur rayonu)인 단직(Danziq kəndi)에서 태어났다. 초등교육을 단직에서 받은 그는 아제르바이잔 사범대학교(Azərbaycan Pedaqoji İnstitutu) 나흐츠반 캠퍼스의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이후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Azərbaycan Elmlər Akademiyası)의 문학연구소(Ədəbiyyat İnstitutu)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의 석사 학위 논문은 「20세기 초 아제르바이잔의 낭만적 시문학(XX əsrin əvvəllərində Azərbaycan romantic lirikası, 1980)」이다. 이어서 박사 과정을 마친 그는



이사 해빡배일리

논문 「재릴 맴매드굴루자대의 환경과 동시대인들(Cəlil Məmmədquluzadənin mühiti və müasirləri, 1996)」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5년까지 나흐츠반 국립대학교(Naxçıvan Dövlət Universiteti)에서 강사로 일했다. 이후 교수로 임용된 그는 나흐츠반 국립대학교의 부총장, 총장(1996년~2013년)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의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Nizami Gəncəv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의 소장을 맡았고, 2023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99년 명예 연구자 칭호(Əməkdar elm xadimi), 2007년 명예(Şöhrət ordeni) 훈장, 2009년 영광(Şərəf) 훈장을 받았다.

그가 집필한 다양한 학술서는 다음과 같다. 『낭만적인 서정시의 특징(Romantik lirikanın imkanları, 1984)』, 『문학적 상승(Ədəbi yükseliş, 1985)』, 『세기가 낳은 천재(Əsrin dühası, 1993)』, 『맴매드 알라즈(Məmməd Araz, 1993)』, 『재릴 맴매드굴루자대의 환경과 동시대인들(Cəlil Məmmədquluzadə: mühiti və müasirləri, 1997; 2009)』, 『스승 맴매드히세인 새 흐리야르(Ustad Məhəmməhüseyn Şəhriyar, 1999)』, 『민족 작가 맴매드 아라즈(Xalq şairi

Məmməd Araz, 1999)』, 『재릴 맘매드쿨루자대(Cəlil Məmmədquluzadə, 2002)』, 『헤이대르 알리에브와 나흐츠반 국립대학교(Heydər Əliyev və Naxçıvan Dövlət Universiteti, 2002)』, 『새흐리야르의 세계(Şəhriyar dünyası, 2002)』, 『문학·역사적 기억과 근대성(Ədəbi-tarixi yaddaş və müasirlik, 2007)』, 『문학의 위대하고 커다란 인물인 맘매드 새이드 우르두바디(Böyük ədəbiyyat nəhəngi Məmməd Səid Ordubadi, 2012)』, 『헤이대르 엘리에브의 국가 직 교육과 근현대(Heydər Əliyevin dövlətçilik təlimi və müasir dövr, 2013)』, 『모든 면에서 창의적인(Bütün yönləri ilə yaradıcı, 2014)』, 『누츠한에서 나흐츠반으로(Nuçixandan Naxçıvana, 2015)』, 『아카데미크 새매트 부르군 배킬로브(Akademik Səməd Vurğun Vəkilov, 2015)』,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근대화 개념과 발전단계(Azərbaycan ədəbiyyatı dövrləşdirmə konsepsiyası və inkişaf mərhələləri, 2019)』

2016년에는 10권 분량의 『이사 해빔베일리 전집(Əsərləri)』을 출간했다. 그의 연구 중 재릴 맘매드쿨루자대에 관한 연구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사 헤비비엘리

● 다국어 표기 İsa Hebibbeyli(튀르키예어), Iso Habibbeyli(우즈베크어), Иса Габиббейли(러시아어), Иса Хабиббайлы(카자흐어), Иса Хабиббайли(키르기스어), İsa Habibbaýly(투르크멘어), Иса Хабиббайлы(타타르어), İsa Hebibbeyl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재릴 맘매드쿨루자대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d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lişanoğlu Tehran, *Nizami Gəncəv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nun beş ili akademik İsa Hebibbeyli ilə*,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8.

Əliyev Kamran, Ədəbi-əlimi düşüncənin İsa Hebibbeyli modeli, “Ədəbiyyat qəzeti”, 18, 25 noyabr – 2 dekabr 2017.

Naxçıvan Ensiklopediyası, Bakı: Elm nəşriyyatı, 2002.

Seyidov Yusif, Akademik İsa Hebibbeyl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09.

Anar, Ədəbiyyat təəssübkeşi, “Ədəbiyyat qəzeti”, 5 oktyabr 2019.

Akademik İsa Hebibbeyli. *Bibliografiya*,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7.

I F222 | 이스라엘 이브라기머프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Israil Ibragimov

이스라엘 이브라기머프(Israil Ibragimov)는 1933년 이식쿨(Issyk-Kul)에서 태어났다. 위구르 출신인 그는 중·고등학교 졸업 후 1952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교의 극동학부에 입학했다. 그러나 곧 학교가 폐쇄되어 1954년 모스크바대학교 지질학부로 이적했다가, 프룬제 폴리테크닉 대학교(Frunze Polytechnic Institute)에 들어갔다. 졸업 후 그는 키르기스스탄 과학아카데미에서 일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76년~1993년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노력으로 1994년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에 위구르어문학과가 개설되었고, 그는 학과장을 맡았다.

그의 데뷔작은 1972년 키르기스스탄의 문예지에 발표한 「마므트베코프의 행복(Счастье Мамытбекова)」이다. 이후 그는 1978년 모스크바에서 소설 『까치밥나무속의 맛(Вкус дикой смородины)』을 출간했고, 1987년에는 소설 『풍차의 별자리(Созвездие мельниц)』를 출간했는데 이 소설은 위구르어로 번역되었다. 이외에도 『병아리와 비행기(Цыпленок и самолет, 1994)』, 『황새의 부리에 요람(Колыбель в клюве аиста, 2001)』 등의 소설을 썼다.

주로 러시아어로 소설을 집필한 그는 작품에서 위구르인의 삶과 꿈과 희망, 전통, 그리고 위구르인이 직면한 고된 운명을 이야기한다. 그는 러시아어로 작품을 쓰는 유일한 위구르 작가인데, 그 이유를 다른 민족(국가)의 독자들에게 위구르인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소설 이외에도 키르기스 영화와 TV 시리즈 및 다큐멘터리의 각본을 25편 이상 집필했고, 50편 이상의 논문 및 논저를 출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라엘 이브라기모프
- 다국어 표기 Ибрагимов Исраил(키르기스어), Ибрагимов Исраил(러시아어), Israil Ibragimov(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위구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udunov A. A., *Literatura uygurov Qirgizistana*, Bishkek, 2001.
- Samsakov Abdulladjan, *Uyguri Ensiklopedicheskiy spravochnik*, Almati: Aris, 2020.

I F223 | 이스릭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생물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Isiriq

이스릭[Isiriq, 카자흐어 아드라스판(Адыраспан)]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대부터 널리 쓰이던 약초 중 하나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자생하는 종은 폐가눔 하르말라 L(*Peganum harmala* L)이다. 고대 그리스 의학자인 갈레노스(Galen)가 이 약초의 치유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븐 시나(Ibn Sina)도 여러 질병 치료에 이 풀을 사용했다. 특히, 신경통이나 관절 통증에 진통제 및 이뇨제로 사용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스릭에서 추출한 성분이 파킨슨, 간질, 뇌염, 뇌의 염증성 합병증, 떨림 치료제와 수면제에 들어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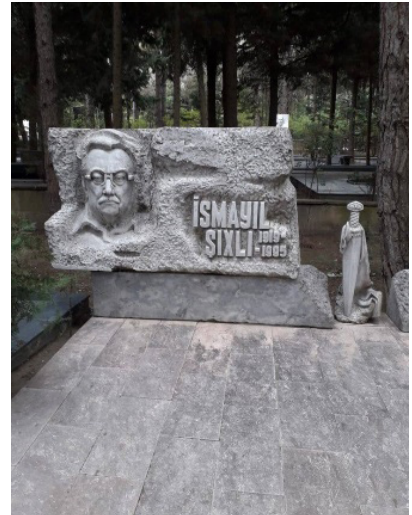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스릭은 모든 재난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전승에 따르면, 집 안에 이스릭을 태워 연기를 피우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스릭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연기와 향이 나쁜 기운을 없애고 마귀나 악령 따위를 쫓아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식물을 문에 걸거나 집 안에 두면 악령을 쫓을 수 있다고 믿는 지역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시리크, 이스리크
- 다국어 표기 Isiriq(우즈베크어), Адыраспан(카자흐어), Гармала(러시아어), Üzerlik(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1부
<https://www.ebs.co.kr/tv/show?lectId=10761205>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I F224 | 이스마이엘 시이으흘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İsmayıl Şıxlı

20세기의 아제르바이잔 작가인 이스마이엘 시이으흘르 (İsmayıl Şıxlı)는 1919년 3월 22일 도시 가자흐(Qazax)의 시이으흘르 제2마을(II Şıxlı)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 교육을 가자흐의 시골 코살라르(Kosalar kəndi)에서 받았다. 이어서 1933년~1936년 가자흐 교육 전문학교(Qazax Pedaqoji Texnikumu)에서 수학했다. 그는 잠시 시골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는 1937년~1941년 아제르바이잔 사범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Pedaqoji İnstitutu)에서 공부했다.



이스마이엘 시이으흘르 묘비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이스마이엘 시이으흘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과 소감을 『케르치 물가에서(Kerç sularında)』와 『전장으로 가는 길에서(Cəbhə yolları)』 등에 담았다. 그는 전쟁 이후 아제르바이잔 사범대학교에서 세계문학사를 강의했다.

그는 잡지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의 편집장과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Azərbaycan Yazıçılar İttifaqı)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의정 활동도 했다.

그는 문학 활동을 1947년 단편 「의사의 이야기(Həkimin nağılı)」를 발표하며 시작했다. 그는 단편소설, 포베스트(povest; 등장인물과 사건이 단편소설에 비해 많은 장르), 소설, 회고록 등을 썼으며, 문학 비평가로도 활동했고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전쟁에 관한 것 이외에 역사 및 전설, 민속 자료들을 이용해 창작한 것들도 있다. 그는 소설 『이별법(Ayrılan yollar)』, 『죽은 자의 세상(Ölən dünyam)』 등을 썼는데 가장 큰 인

기를 끈 작품은 『광란의 퀴르 강(Dəli Kür)』이다. 이 작품은 역사를 바탕으로 창작됐는데,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사실주의 대표 작가인 모파상과 유명한 튀르키예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작품들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국가적인 사고를 문학에 접목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등 아제르바이잔 문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명예의 배지, 노동의 적기, 명성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바쿠에서 생을 마감했고, 명예 묘지(Fəxri Xiyaban)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마이을 쉬으홀르

● 다국어 표기 İsmail Şihli(튀르키예어), Исмаил Шихлы(러시아어), اسماعیل شحلی(페르시아어), İsmoil Shixli(우즈베크어), İsmayıl Şıxlı(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광란의 퀴르 강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İsmayılovYaqub, *İsmayıl Şıxlı: Heyatı, Mühiti, Sənəti*, Bakı: Ayna Mətbu evi, 1999.

Salamoğlu Təyyar, *İsmayıl Şıxlının Bədii Nəsr*, Bakı: EL nəşriyyatı, 2014.

I F225 | 이스마일 가스프랄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Ismail Gaspirali

이스마일 가스프랄르는 1851년 3월 21일 크림반도의 바흐체사라이 부근 아브즈콰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크림반도 해안의 가스피라(gaspira) 마을에서 태어난 타타르군의 퇴역 중위 무스타파 알리오올루 가스프린스키(Mustafa Alioğlu Gasprinskiy)이며, 그의 어머니는 명성 있는 미르자(mirza) 집안의 딸 파트마 술탄(Fatma Sultan)이었다.

이스마일 가스프랄르는 악메스지드 남자고등학교(Akmescid Erkek Gimnazyumu)에서 이

슬람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으며, 졸업 이후 보로네(Voronej)의 군사학교를 거쳐 모스크바 군사 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 이때 러시아인들의 범슬라브족주의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그가 러시아 제국에 흠어져 살고 있던 투르크인들의 계몽이 필요하다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 폭동 당시 그리스 군대에 대항한 오스만 군대의 편에 서서 반란에 동참하며 오스만 제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데사(Odesa)에서 잡히면서 그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차르 러시아에서 군생활을 마친 그는 1868년 크림반도 중부 도시 바흐체사라이로 돌아와 민중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1872년 크림반도를 떠나 이스탄불, 빈, 뮌헨, 슈투트가르트를 거쳐 파리로 이주했다. 파리에서 그는 2년간 유명 러시아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Ivan Turgenev)를 도우며 함께 작업을 했다. 그는 1874년 오스만 제국의 지식인이 되고자 이스탄불로 갔다. 하지만 이스탄불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1년 만에 크림반도로 돌아왔다.

1878년 바흐체사라이 부시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듬해 시장으로 임명되었고 1884년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타르인들을 계몽하고자 했던 그는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의 노력으로 1883년 4월 22일 <테르쭈만(Tercüman)>지가 바흐체사라이에서 발행되었다. <테르쭈만>지는 투르크 국가들 전역에서 점차 읽히기 시작했으며, 주요 선전 도구로 이용되었다. 또한 그는 1884년 바흐체사라이의 카이타즈 아아(Kaytaz Ağa)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워 교육 개혁을 구현했으며, 교사 훈련 및 양성, 교육 프로그램 준비, 장비 조달 및 교과서 인쇄 같은 작업들을 손수 진행해 나갔다. 이러한 시도는 러시아 제국 내의 무슬림 학교를 통해 교육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종의 혁명과도 같았다. 그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를 설립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투르크 지역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교사, 상인, 지식인들이었는데 공통적으로 부유층 무슬림이었다. 이들은 가스프랄르의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그 결과 크림반도의 더 많은 지역에서 학교들이 개교할 수 있었다. 러시아 제국 전체 가스프랄르 학교의 수는 1895년 겨우 100개를 넘는 수준이었지만 1914년에는 약 5,000개나 되었다.

그는 무슬림 투르크 소녀들의 교육도 장려했다. 그는 1893년 바흐체사라이에 첫 자디드(Jadid)식의 여학교를 설립했다. 여학교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

었다. 자디드(Jadid)운동의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는 마드라사에 비해 여러 면에서 교육의 제한성이 적었으며 학생들에게 문화 개혁,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기에 보다 효율적이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후에 러시아의 범투르크 민족주의운동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슬람을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이슬람 세계 모든 지역에서 무슬림의 전반적인 후진성 등의 문제들을 일부 이슬람 국가의 대표자들이 다루는 방법에 대해 주목했다. 1908년 오스만 제국의 헌법 군주제 선언은 가스프랄르에게 새로운 오스만 정권의 지지를 통해 자유로운 여론의 획득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다.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입헌 군주제를 선언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오스만 언론[특히 <스랏트 뮈스타킴(Sırât-ı Müstakîm)>지]이 가스프랄르의 프로젝트에 주목했으며, 의회 소집 단계까지 갔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의회 소집 실패 이후 그는 비이슬람 지역에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하여 1912년 인도 봄베이에서 열린 다양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이슬람의 교육 성공 방식 등을 전파했다. 비록 의회 소집은 실패했지만 그는 변화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 지식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범투르크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안에 투르크인들이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14년 9월 24일 바흐체사라이에서 사망했다. 그의 죽음 이후 대규모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 러시아 전역에서 온 6,000명 이상의 투르크인들이 참석하는 등 튀르키예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투르크인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 그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도 <테르쥬만>지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싣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마일 가스피랄리
- 연관 검색어 자디드운동,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slamansiklopedisi.org.tr/gaspirali-ismail-bey>
<https://kiriminsesigazetesi.com/ismail-bey-gaspiralinin-qabri-basinda-tan-bulbuli/>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gaspirali-ismail-bey>
- 참고문헌(오프라인) Devlet, Nadir. İsmail gaspiralı dönemi ve ruslarla uzlaşma. Türk Dünyası Dil ve Edebiyat Dergisi 2. 1996.

I F226 |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

●시기 B.C.~A.D. 1000년 ●지역 중앙아시아 ●나라 우즈베키스탄 ●유형 예술 ●유형 소분류1 건축 ●유형 소분류2 영묘
●집필자 최선아 ●라틴 문자 Samanid Mausoleum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 위치해 있으며, 사마니 영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영묘의 건설 연도는 사만 조 시대인 대략 10세기 초이다. 이 영묘는 사만 조의 왕실 가족 영묘이나 이스마일 사마니(Abū Ibrāhīm Ismā'īl ibn Aḥmad, 재위: 892년~907년)의 영묘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라는 이름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1568년에 필사된 와크프 문서에 의하면, 이스마일의 아들인 아흐마드 사마니(Ahmad Samani, 재위: 907년~914년)를 위해 와크프에 기부한 것이다. 영묘 내부에는 세 구의 시신이 있으나, 목재 비문에서는 이스마일의 손자인 나스르 이븐 아흐마드/나스르 2세(Nasr ibn Ahmad or Nasr II, 재위: 914년~943년)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

이 영묘는 칭기즈 칸이 부하라를 침략했을 당시 홍수로 인해 진흙 속에 묻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영묘는 발굴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다가 20세기 초 소련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고 1937년~1939년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소련은 영묘 주변의 묘지를 없애고 인근에 공원을 건립했다.

영묘는 정육면체 몸체에 반구형 돔으로 덮여 있으며 외부는 벽돌을 문양을 만들며 쌓아 올렸다. 각 면은 약 10mx10m가량의 정사각형이며, 건물 상부로 향할수록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벽의 두께는 약 1.8m이다. 각 면에는 벽돌로 만든 첨두 아치형 문이 있으며 문 주변 벽감에는 말각조정 형태(사각형 내 마름모, 마름모 내에 다시 정사각형이 있는 문양)의 벽돌 장식이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영묘의 사면에 각각 아치형 문이 있는 형태는 사산 조 조로아스터교 신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면을 이어주는 모서리에는 벽돌을 둥글게 쌓아 올린 기둥이 있다. 몸체 상단부에는 작은 아치형 벽감이 각 면당 10개씩 늘어서 있다. 처마에는 개구부가 있어 내부의 채광을 돕는다. 지붕을 이루는 반구형 돔의 지름은 약 7m이다. 이 돔 주변에도 4개의 장식용 작은 돔이 있다. 내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

부에도 역시 벽돌을 얹어 쌓아 장식성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사각형 몸체와 돔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킨치가 중앙아시아에서 적용된 사례다. 벽돌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재료인데,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에서는 바구니 무늬, 바둑판 무늬, 잎 모양, 로제트, 꽃, 리본 무늬 등을 다양하게 구현해냈다.

이슬람교는 영묘 건설을 억제하라고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는 중앙아시아에 세워진 영묘 중 가장 초기의 것이며, 이후 중앙아시아 영묘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 관점에서, 건축사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건축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마니 영묘, 이스모일 소모니 막바라스
- 다국어 표기 Ismoil Somoniy Maqbarasi(우즈베크어), Sâmhâni Türbesi(튀르키예어), İsmayıl Samani türbesi(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quod.lib.umich.edu/a/ars/images/13441566.0044.003-00000001-lg.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2121>

● 참고문헌(오프라인) Hill, Derek.; Oleg Grabar, *Islamic Architecture and Its Decor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Michell, George, *Architecture of the Islamic World*, 259. London: Thames and Hudson, 1995.

Michailidis, Melanie. "Dynastic Politics and the Samanid Mausoleum". *Ars Orientalis*. 44: pp.20~39, 2014.

I F227 | 이스마툴라 막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smatulla Maqsim

이스마툴라 막심(Ismatulla Maqsim)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했던 수피 종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중국에서 탄생한 자흐리이야(Jahriyya) 종단을 이끌었다. 그는 야샤비야(Yasawiya)와 카드리이야(Qadiriyya) 종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마툴라 막심은 아프가니스탄의 카자흐 디아스포라의 후손으로 러시아 혁명 당시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아시아를 탈출한 난민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야 했다. 한때 그는 무자헤딘 민병대에 속해 있었으며, 소련-아프간 전쟁(1979년~1989년)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고 1996년 카자흐스탄에 왔다고 한다. 이곳에서 자흐리이야 활동을 하려 했으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개원했다는 이유로 금지당했으며, 후에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2000년대에 다시 알마티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자선단체 등록에 실패했으나, 공공협회 '세님. 빌림. 외메르(Senim. Bilim. Omir : 믿음, 지식, 삶)'의 등록에 성공하여 아스타나, 알마티, 오랄, 투르키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주요 활동가는 약 1,500명이었으며 전국에 약 200개의 지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 분포한 추종자들은 대체로 작은 사업을 하거나 엘리트 젊은이들이었는데, 저명한 정치인을 이 단체

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이 단체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정권에 대체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편이었으며, 유지나 주요 인사에게서 받은 기부금은 종단 내 빈자들에게 사용했다. 조직 체계는 피라미드형으로 이스마툴라가 직접 통제하고, 낙쉬반디 종단만큼이나 체계적으로 잘 운용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스마툴라는 그의 추종자 일부와 함께 ‘범죄 조직 구성’ ‘종교적인 극단주의’ ‘감금’ 그리고 ‘상해를 입히는 방식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중독 신앙 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010년 체포되었고 2011년 14년형을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마툴라 막심, 이스마툴라 압두가파르
- 다국어 표기 Исмадулла Мақсұм(카자흐어), Ismatulla Abdugappar(영어), Ismatulla Maxim(영어)
- 연관 검색어 자흐리이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rferl.org/a/kazakh_sufis_jailed/24365092.html
https://www.kt.kz/rus/society/religioznaja_gruppa_pod_rukovodstvom_afganskogo_modzhaheda_imela_v_kazahstane_pokrovitelej_jiz_chisla_visokih_chinov_1153543661.html
<http://old.baq.kz/kk/news/kogam/ismatulla-maksum-kazaktin-egor-bichkovi-ma-5056>
- 참고문헌(오프라인) Muminov, Ashirbek. “Sufi Groups in Contemporary Kazakhstan: Competition and Connections with Kazakh Islamic Society”, *Sufism in Central Asia New Perspectives on Sufi Traditions, 15th~21st Centuries* (ed: Devin DeWeese; Jo-Ann Gross), Leiden, Boston; Brill, 2018, pp.284~298..
 Olcott, Martha Brill. “Sufism in Central Asia.” *Carnegie Papers, Russian and Eurasian Program*, No.84. May, 2007.

I F228 | 이스메트 이뇌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İsmet İnönü

이스메트 이뇌뉘(1884년~1973년)는 튀르키예의 장군이자 정치가로 제2대 튀르키예 대통령(재임: 1938년~1950년)을 지낸 인물이다.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와 더불어 독립전쟁

의 영웅이며 1923년 10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는 의회로부터 ‘밀리 셰프’(Milli Şef : 민족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그는 아타튀르크 재임기에 총리로서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전개했다. 1938년 아타튀르크 사후 대통령에 취임하여 독자적 외교정책을 전개했는데, 특히 추축국을 대표하는 독일과 연합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요청에도 거부하고 철저한 중립 정책을 견지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그는 1972년까지 공화인민당의 당수를 지냈고 1973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오늘날 그의 묘는 아타튀르크의 영묘인 아흐트 카비르 반대편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메트 이노뉘, 이스멧 이뇌뉘
- 다국어 표기 İsmet İnönü(튀르키예어), ismet inonu(영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공화인민당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e/Inonu_Ismet.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Liebmann, George W. *Diplomacy between the Wars: Five Diplomats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London I. B. Tauris, 2008.
Mango, Andrew, *The Turks Today*, New York: The Overlook Press, 2004.

I F229 | 이스탄불(도시 역사 개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이은정 ● 라틴 문자 Istanbul

이스탄불은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반도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다.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으며, 2,000년 넘게 정치·종교·예술·역사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여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도시는 북쪽으로는 자연 항구인 골든 혼(Golden Horn/Haliç), 동쪽으로는 보스포러스 해협, 남쪽으로는 마르마라(Marmara) 해에 둘러

러싸인 반도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이스탄불이란 말은 도성 내의 구시가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는데 점차 갈라타, 에윌, 위스퀴다르 등의 교외 지역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분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점차 팽창했다. 많은 별명들이 있었으나 제국이 멸망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만이 남게 되었다.

비잔티움과 콘스탄티노플이 발전했던 역사적 반도(Historic Peninsula) 지역인 이곳은 5세기 초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가 최초로 건설한 고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스탄불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수세기 동안 유럽과 아시아가 교류한 사실을 반영하는 건축물의 독특한 통합에 있으며,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창의적인 천재 건축가들이 창조해낸 비교할 수 없는 스카이라인에 있다.

이스탄불은 B.C. 7세기 중엽 그리스인의 식민도시로 창건되어 비잔티움이라 불렸다. 당시의 시가는 현재 이스탄불 지구의 동쪽 모퉁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의 돌출부 지구에 있었다. BC 512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에게 점령되었으나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그리스의 도시동맹에 가입했고, 이어서 로마의 대두로 그 속주(屬州)가 되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성벽을 확대하고 시내를 정비하여 330년에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자기 이름을 따서 명칭을 콘스탄티노플(콘스탄티노폴리스)이라고 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후(395년) 동로마(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성벽은 테오도시우스 2세에 의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476년), 동방정교회 세계의 가장 중요한 기지,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하면서 동서 문화의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치세하에서 최전성기를 맞았으나 비잔티움의 긴 역사 속에서 훈족, 아바르족, 아랍인, 불가르인에 의해 포위당하기도 했다.

1204년 제4회 십자군에게 점령되었으나 1261년 미카엘 8세가 탈환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도시는 약탈당하고 황폐화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중엽부터 발칸 진출 계획을 세우고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는 태세를 갖추었으나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군(軍)에게 패하여(1402년), 이 계획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제국이 부흥하자 술탄 메흐메드 2세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여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여러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개축했다. 이에 따라 이슬람 문화의 중심이 이곳으로 옮



이스탄불 전경

겨졌고, 이 때문에 동로마의 학자·문인들은 이탈리아로 피했다. 이는 서유럽이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한 원인이 되었다. 이후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고, 이슬람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의 최대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다. 특히 실레이만 1세(1520년~1566년) 때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19세기 들어 쇠퇴하자 각 분야에서 서구화를 추진했고, 이스탄불도 점차 서구적인 도시로 변해갔다. 19세기 후반 이후 이스탄불은 발칸 문제를 둘러싼 열강의 분쟁지가 되어 자주 전화(戰禍)를 입었다. 특히 튀르키예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 쪽에 참전했다가 패배해 1918년 11월부터 1923년 10월까지 영국·프랑스·이탈리아 연합군에 점령되었다.

이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독립 세력들을 모아 독립 전쟁을 벌였다. 아타튀르크는 기어이 연합국의 세력을 축출하고 1923년 10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시켰다. 아타튀르크는 그 공적으로 튀르키예의 국부로 추앙받는다. 이후 수도는 아나톨리아의 앙카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이스탄불은 1,600년간 지켜온 수도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앙카라의 민족주의 엘리트에 의해 멸시당하고 망각되었던 이스탄불은 1950년대 이후 화려한 중심지로 부활했고, 경제적·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튀르키예의 중심지로서 번영하고 있다. 이스탄불은 198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 유산 유적은 네 지구로 나뉜다. 즉 1953년과 1956년에 지정된 반도의 끝에 있는 고고학 공원, 1980년과 1981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실레이마니예 지역, 1979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이레크 지역, 1981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벽 지역이다. 이 도시의 유명한 기념물들은 도시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폴리스
- 다국어 표기 Istanbul (영어), İstanbul (튀르키예어), İstanbul (아제르바이잔어), Istanbul(우즈베크어), Ыстанбул (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메흐메드 2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heritage.unesco.or.kr/%EC%9D%B4%EC%8A%A4%ED%83%84%EB%B6%88-%EC%97%AD%EC%82%AC%EC%A7%80%EA%B5%AC/>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01』, 2010, 책문.
Brown, DR. Evrick, *Walking in the European City*. 28 May 2014.

I F230 | 이스탄불(오스만 제국 시기)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İstanbul

이스탄불은 비잔티움 제국 시대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렸고,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정복된 후 제국의 수도였으며, 현재 튀르키예 공화국 최대의 도시이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 유럽인들은 이 도시를 계속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으나, 오늘날에 와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튀르키예 역사가와 대중에게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천도함에 따라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던 비잔티움은 1204년에는 십자군에게 점령을 당했다. 그 후 비잔티움은 종교 분쟁, 경제적 축소, 무슬림 투르크인들의 공세를 겪었고, 14세기 말부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스만 세력에게 함락될 위험에 직면했다. 오스만인들은 바이에지드 1세 시대인 1397년~1402년 사이에 이 도시를 봉쇄했다. 또 1411년~1412년 무사 왕자의 세력이, 1422년 무라드 2세의 군대가 이 도시를 포위했다. 이런 압도적인 위협 속에서 비잔티움 제국은 1439년 교황 휘하에서 교회 통합을 받아들일 정도로 다급해졌지만, 도성 주민들의 반(反)라틴 감정을 자극할까봐 교회 통합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콘스탄티노폴리스 도성과 그 배후지 정도로 영토와 세력이 줄어들었고, 비잔티움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결국 비잔티움은 메흐메드 2세에게 정복당했다. 메흐메드 2세는 1451년 즉위한 후 비잔티움 정복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다.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성채를 짓고, 군대와 선단을 동원하고, 최신식 대포를 마련하고, 제노바인 거류지 갈라타와 사전에 교섭하는 등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뒤 1453년 4월 초 포위를 시작했다. 이미 수십년간 함락이 예견되어 온 터라 포위당하기 전에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서 성 안에는 수비 병력이 1만도 되지 않았고, 서유럽으로부터도 약간의 용병 이외에는 도움을 얻지 못했다. 메흐메드 2세는 항복을 권유하는 최후 통첩을 비잔티움이 5월 23일 거절하자 대규모 공격을 가해 5월 29일 도성을 함락시켰다.

메흐메드 2세는 샤리아에 따라 병사들에게 약탈을 허용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도시를 제국의 수도로 신속하게 재건하고자 했으므로 약탈을 가급적 축소시키려 했고 자기 몫으로 돌아온 노예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는 입성 직후 도성 내 최대이자 가장 권위가 높은 성당인 하기아 소피아 성당을 아야소피아 모스크로 만들고 도시를 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개의 궁전이 건설되고 많은 워크프로 모스크, 학교, 도서관, 상업시설, 급수 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종전에 가지들의 문화가 중심이었던 에디르네로부터 데브시르메 출신의 술탄의 심복(Kul)들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주도하는 이스탄불로 수도가 이전한 것이다. 도시의 이슬람적 성격을 강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와 동시대인이자 이슬람 초기의 공동체의 명사였던 아유 알 안사리의 묘가 도성 주변에서 수피 스승 악셈스엠티에 의해 발견되어 성소가 건축되었고(Eyüb Sultan Türbesi), 바이에지드 2세(1481년~1512년) 당시 여러 교회들이 모스크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비잔티움으로부터의 연속

성을 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스탄불에 그리스 정교회의 총대주교청과 기타 성직자들에게 일부 교회 건물을 유지하게 해 주었다. 또 정복 과정에서 크게 감소한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집단에게 이스탄불로의 이주를 권장했다. 그 결과 메흐메드 2세의 치세 말기에는 7만~8만까지 인구가 증가했고 그중 약 40%는 비무슬림이었다.

15세기~16세기 이스탄불은 대단한 번영과 성장을 누렸다. 쉴레이만 1세(1521년~1566년) 시대에 이스탄불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간주되었다. 흔히 50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인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25만 정도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많은 술탄과 황족과 고관들이 살았고, 주요 군부대가 주둔하고, 사치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됐다. 또한 많은 워크프 시설들, 즉 모스크, 학교, 병원, 급수시설, 목욕탕, 상가 등이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했고, 각각의 설립자들은 도시의 구조, 스카이라인, 지형지물의 이름에 자기의 흔적을 남겼다.

수도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국가에 매우 크게 의지했다. 국가가 세운 방위산업 시설인 톱하네(대포 제작소)와 테르사네(조선소)의 존재, 예니체리 등 엘리트 군부대의 주둔, 궁정과 관료계의 중심적 역할 등등이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이스탄불은 국가에 의지해 살아가는 기생도시였다. 국가는 수도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전 제국에서 식량과 상품을 조달해야 했다.

17세기~18세기에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은 비슷한 성격을 유지했으나 제국의 위기와 변형에 따라 많은 곤란에 직면했다. 제국의 주요 기관과 시설이 모여 있는 이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에 매우 취약했다. 이 시대 이스탄불은 민중 반란, 궁정 쿠데타, 예니체리 반란과 권력 남용 등으로 불안했다. 이 같은 시대적 어려움은 당시의 건축 활동이 크거나 수량 면에서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국내적, 국외적 역동에 의해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이스탄불에서 시작되었다. 이스탄불에 사회, 문화적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들은 향락을 즐기는 엘리트의 등장, 공적 공간의 이용 증대, 바로크와 로코코 등 예술과 건축의 유럽풍 양식들, 비무슬림 부르주아지의 성장, 궁정 여성들의 가시적 활동 증대 등이다.

19세기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의 근대 개혁의 중심지였다. 개혁은 유럽을 강렬하게 의식하고 선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탄지마트 개혁 시대에는 서구적 기준에 따른 근대화만이 단 하나의 가능성 있는 모델로 생각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서구적 건축 양식, 도시 생활 및 도시 행정 조직이 자리 잡았고, 신식 학교, 신문, 극장, 전차, 사진, 백화점, 은행, 보험사, 카페, 호텔,



아야소피아 모스크 내부

가로등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대화는 상당히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 서양인과 비무슬림이 밀집한 갈라타와 페라 지구는 빠르게 변한 반면, 이스탄불 도성 내부는 전통과 구식 문화를 유지했다. 비무슬림 엘리트는 점점 더 유럽지향적이 되었고 무슬림 가운데서도 전통주의자와 모더니스트 사이의 간극이 벌어졌다. 민족주의가 대중에게 확산된 후 반란과 학살들이 벌어졌고 결국 지배 엘리트의 이데올로기가 오스만주의에서 이슬람주의와 투르크주의로 변해갔다.

20세기 초 이스탄불은 매우 신기하고 복잡한 도시였다. 100만 인구 중 반만 무슬림이었고, 제국의 수도이지만 유럽의 정치와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근대성을 갖춘 동시에 전통에 깊이 뿌리 박은 도시였다. 이스탄불은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연합군에 점령되지 않았으나 휴전 후 1918년 점령되었고, 점령 통치가 1923년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종식되었으나 수도로서의 지위는 박탈되었다.

● **다국어 표기** İstanbul/Konstantiniyye(튀르키예어), Istanbul/Constantinople(영어), Constantinopolis(라틴어),

Byzantion(그리스어), İstanbul(아제르바이잔어), Istanbul(우즈베크어), Ыстанбул(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Edhem Eldem, "Istanbul,"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286~290.

Halil İnalçık, "İstanbul: Türk Devr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3, 2001, pp.220~239.

I F231 | 이스탄불 국립 고고학박물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박물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Istanbul Archaeology Museums

이스탄불 국립 고고학박물관은 이스탄불 에미뇌뉘(Eminönü)구의 귤하네 공원과 톱카프 궁전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이스탄불 국립 고고학박물관은 고고학박물관(Archeology Museum), 고대아시아박물관(Ancient Eastern Works Museum)과 에나멜 키오스크 박물관(Enameled Kiosk Museum) 등 세 개의 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만점의 예술품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화가 오스만 함디 베이(Osman Hamdi Bey)에 의해 1881년 건축되었다. 고대아시아박물관도 1883년 오스만 함디 베이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1935년 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가 복원 과정을 거쳐 1974년 재개관되었다.

이 박물관의 진수는 역시 카데쉬 협정문서(Treaty of Kadesh)이다. 기원전 12세기 중엽부터 당시 한창 뻗어나가던 이집트의 신왕국과 또 다른 소아시아 내륙의 강국 히타이트 제국은 지금 시리아 남부에 있는 성곽도시 카데쉬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접전을 계속했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Ramesess II, 재위: B.C. 1279년~B.C. 1213년)와 히타이트의 무와탈리 2세(Muwatalli II, 재위: B.C. 1290년~B.C. 1272년) 간의 전투였다. 그런데 이 전투는 한쪽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치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로운 민족이 지중해와 소아시아, 이집트를 침범하자 두 왕국 모두 이 새로운 적을 상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B.C. 1259년, 람세스 2세와 무와탈리 2세의 동생인 하투스illi 3세(Hatusilli III, 재위: B.C. 1266년~B.C. 1236년)는 카데쉬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이stanbul 국립 고고학박물관

카데쉬 평화조약은 세계 최초로 체결된 국제법상의 조약이었다. 조약문은 당시의 국제 언어인 아키드어로 기술되었다. 원래 이 조약문은 은판에 새겨졌는데, 원본은 간데없고 복사본인 점토판 세 개만 발굴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베를린 박물관에, 두 개는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한편 미국 뉴욕 유엔본부 건물 입구에 커다랗게 확대 복사된 카데쉬 평화협정 문서가 있는데, 이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의 표시라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
- 다국어 표기 Arkeoloji müzesi(튀르키예어), Istanbul Archaeology Museums(영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함디 베이, 카데쉬 협정문서
- 멀티미디어 링크 튀르키예 공영방송인 TRT에 보도된 이스탄불국립고고학박물관

<https://www.youtube.com/watch?v=h9bH7z2Z1ac>

- 참고문헌(오프라인) Breasted, James Henry. "Treaty with the Hittites". *Ancient Records of Egypt: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ersian Conquest*. II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6.
- Rowton, M. B. "The Background of the Treaty between Ramesses II and Hattušiliš III".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3 (1). 1959.

I F232 | 이스파한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이주연, 우덕찬 ● 라틴 문자 Isfahan

이스파한은 이란 중서부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이 도시는 고대부터 농경에 적합한 환경과 더불어 자그로스 산맥과 맞닿아 있다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근방의 농경민과 유목 부족 양 세력에 대한 통치 기지로 기능했다. 프톨레미에 의하면이 이스파한의 고대 지명(地名)은 ‘군대를 모으는 곳’이라는 의미의 아스파다나다(Aspadanada)였다.

이스파한은 메디아 제국 시기에 건설되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원 전후까지는 여러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로 선택받지 못했고 주로 지방의 거점으로 기능했다. 많은 중세의 학자들은 현재의 위치에 이스파한이라는 특정 도시가 건설된 시점을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로 소급하기도 했으나, 전설적인 이야기를 배제하면 A.D. 5세기 후반기의 사산 조 페르시아의 왕, 피루즈 야즈드게르드 시대에 건설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만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교의 총주교가 머무는 도시가 바로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세력이 이란을 정복했을 때 이스파한은 압바스 칼리프의 일부가 되었고, 부이 조가 들어섰을 때에는 라이를 수도로 하는 시야계 아미르국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이스파한이 처음으로 제국의 수도가 된 것은 투르크 유목 국가인 셀주크 투르크 조 시기였다. 셀주크 투르크 조는 바그다드의 칼리프를 형식적으로는 섬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었다. 셀주크 투르크 조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이라키 아랍(Īrāq-i ‘Arab)까지는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두지 못했지만, 그 동쪽의 이라키 아잠과 후라산, 투르크계 부족들이 통치하



이스파한 이맘 광장

는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했다. 따라서 그 중심에 위치한 이스파한이 수도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1118년 동부와 서부가 분열되면서 셀주크 투르크 조 동부의 수도는 메르브로, 서부의 수도는 하마단이 되었다.

뒤이어 등장한 몽골 제국은 이란의 서북부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초원 지대를 국가의 중심으로 두어 타브리즈를 수도로 삼았다. 이로 인해 이스파한은 오아시스 지방 도시로 위상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부유한 도시였다. 이후 일 칸국이 멸망하고 수많은 지방 세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스파한은 무자파르 조에 속했다. 이 왕조의 수도는 시라즈였다. 이스파한은 무자파르조 가 샤 슈자의 사후 여러 후계자들에 의해 분열되었을 때 그중 한 후계자가 할거하는 도시가 되었다. 14세기 후반 수 차례 이란 원정에 나선 티무르가 1386년 이스파한을 침공하여 7만 명을 학살했는데, 이는 이스파한이 티무르에게 잠시 복속했다가 반란을 꾀했기 때문이다. 티무

르 사후 이스파한은 티무르의 계승자 샤루흐의 아들인 이브라힘 술탄이 통치했다. 그가 사망한 후에는 카라코윤루 투르크멘의 공격을 계속 받았고, 15세기 중반에는 실질적으로 카라코윤루의 영역에 속했다.

이스파한이 다시 일국의 수도의 반열에 오른 것은 16세기 말 사파비 조의 마지막 수도로 선택되면서이다. 사파비의 수도는 원래 이란 서부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타브리즈였다. 하지만 오스만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사파비 조는 동쪽으로 이동해 카즈빈을 거쳐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다. 한편 이스파한은 사파비 조부터 줄곧 이란을 관통하는 동서 육상 무역로의 거점이며서 수많은 비무슬림 상인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국가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국가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사파비 시기의 이스파한은 화려한 예술의 도시이기도 했다. 이러한 번성기는 1722년 아프간의 침입 및 나디르 샤의 아프샤르 왕조 건설과 함께 끝을 맺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파한은 이란에서 세 번째로 큰 주요 도시이자 문화와 역사의 도시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파흔
- 다국어 표기 اصفهان(페르시아어), İsfahan(튀르키예어), İsfahan(아제르바이잔어), Исфahan(카자흐어), Isfahan(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isfahan-ii-historical-geography>
- 참고문헌(오프라인) J. Sourdel-Thomine, "İSFAHĀN," The Encyclopaedia of Islam 6, Leiden: Brill, 1997. pp.97~107.

I F233 | 이스파한 금요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소분류1 건축 ● 유형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Friday Mosque of Isfahan

이스파한 금요 모스크는 대 셀주크 조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11세기에 건설되었다. 현재 모습의 모스크는 기존에 건설된 모스크를 증축하고 발전시킨 형태이다. 원래의 모스크는 65mx55m 크기의 기도실이 있는 목조 지붕의 형태였다. 12세기 이후 셀주크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 요소



이스파한 금요 모스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라 할 수 있는 네 개의 이완이, 14세기에는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2층 갤러리가 각각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증축과 보수가 여러 시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지만 장식이나 구조 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해 왔다.

이 모스크는 특히 남서쪽과 북동쪽에 있는 돔으로 덮인 두 개의 공간이 유명하다. 모스크 남서쪽에 위치한 돔은 말리크 샤 1세(Malik-Shah I, 재위: 1072년~1092년)의 재상이었던 니잠 알 물크(Nizam al-Mulk, 1018년~1092년)의 명으로 모스크를 재건할 때 세워졌다. 15mx15m 크기의 정사각 형태로 높이는 30m, 돔의 지름은 약 11m이다. 이 돔 드럼에는 말리크 샤와 니잠 알 물크의 이름이 적힌 석문도 있었다. 3면은 아홉 개의 아치로 되어 있다. 모스크 북동쪽에 위치한 돔은 니잠 알 물크의 후계자이자 말리크 샤 1세의 어머니의 고문이었던 타즈 알 물크타이 알 물크(Taj al-Mulk, 1046년~1093년)의 후원으로 말리크 1세의 부인인 테르크안 하툰(Terkan

Khatun)을 위해 1088년~1089년에 건설되었다. 이 공간은 모스크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 기도 공간 또는 여성 전용 기도 공간 또는 도서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모스크에는 정사각형 바탕에 거대한 기둥과 네 개의 팔각형 스킨치로 이루어진 연결 공간과 16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다. 아치의 드럼에는 종교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돔의 안쪽에는 벽돌을 배치하여 장식했고 코란 구절이 새겨져 있다. 남서쪽 돔, 이른바 니잠 알 몰크 돔에서는 스투코 장식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북동쪽 돔인 타즈 알 몰크 돔에는 벽돌이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

모스크에 있는 네 개의 이완은 형태가 각기 다르다. 입구 역할을 하는 남서쪽 이완의 형태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완의 천장은 15세기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이완 앞에 있는 미흐랍에는 샤 타흐마스프(Shah Tahmasp, 재위: 1531년~1532년), 샤 압바스 2세(Shah Abbas II, 재위: 1642년~1667년), 백양조의 우준 하산(Uzun Hasan, 재위: 1452년~1478년)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다.

남동쪽과 북서쪽 이완은 사파비 조 시절에 건설되었다. 이들 이완은 전체적으로 작은 벽돌로 이루어진 무카르나스를 비롯하여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흰색의 유약을 바른 타일로 장식돼 인상적이다.

네 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인 기도 공간은 다주식 홀로 작은 돔으로 덮여 있다. 12세기에 건설된 기도 공간의 천장은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공간은 각기 다양한 형태의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 후에 이 공간이 확장되어 마드라사로 사용되었다.

셀주크 조 시기에 카라한 조와 가즈나 조의 건축 기술이 결합하여 새롭게 발전했고 이런 기술적 진보가 대형 모스크 건축에 적용됐는데, 이 모스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파한 모스크
- 다국어 표기 Masjid-i Jami(페르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62986/medium/IMG28534.jpg?1384726407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1621>

<https://muslimheritage.com/masjid-jami-friday-mosque-isfahan/>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Blair, Sheila S; Jonathan M. Bloom,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slam, 1250-18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F234 | 이스혁켄 토라 이브랏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식인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Is'hoqxon To'ra Ibrat

우즈베키스탄 국가 부흥기의 계몽가, 시인, 학자이자 교육자인 이스혁켄 토라 이브랏(Is'hoqxon To'ra Ibrat)은 1862년 나망간주 토라코르겐(To'raqo'rg'on) 마을의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기 교육을 가정에서 받고, 여러 학교와 마드라사에서 수학했다.

이브랏은 1878년~1886년 코칸트 마드라사에서 수학할 때 코칸트의 문인과 그들의 작품들을 알게 됐다. 그는 마드라사에서 가르치는 과목 이외에도 동양 학자들의 저서를 읽고 아랍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등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 이 시기에 고전 시를 특히 집중적으로 탐구했으며, 동시대를 읽기 위해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발행되는 신문을 읽었다.

1886년 마드라사를 졸업한 뒤 귀향한 이브랏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 특히 학교 개혁과 자디드 학교 개설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적인 과정의 학교는 '무신론자들의 학교'라는 낙인이 찍혀 일부 광신적 종교인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브랏은 1887년 25세에 어머니를 모시고 메카로 향했다. 그의 모친이 순례를 원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모친은 여행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장례를 치른 그는 여행을 계속했다. 카불, 이스탄불, 지다, 메카, 마디나 등을 방문한 후 인도에 도달한 그는 델리와 뭄바이, 캘커타에서 한동안 살기도 했다. 이후 불가리아 소피아, 아테나, 로마도 방문했다. 방문지 사람들의 삶과 생활방식을 연구한 그는 여행 중 아랍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우르두어, 영어를 공부했고, 무엇보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이스헝켄 토라 이브랏 동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에 힘썼다. 이브랏은 1896년 인도, 버마, 중국, 카슈가르를 거쳐 고향인 나망간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그는 『6개의 외국어 사전(Lug'ati sitta al-sina)』 집필에 힘써 1901년 이를 출간했다. 이 사전은 이후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및 다국어 사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1908년 나망간에서 '이스헝키야 출판사(Matbaai Is'hoqiya)'를 설립한 그는 과학, 역사 및 예술 관련 책뿐 아니라 학술 계몽 및 영성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책도 출판했다.

이브랏은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우즈베크어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로도 시를 썼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모아 데번(devon)도 만들었으나 전해지지 않았고, 당시 언론에 실린 시만 보존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시는 주로 계몽적이거나 도덕적이며, 교훈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브랏의 업적 중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설립에 일조했다는 점이다. 그가 구상하고 건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설립한 이스헝키야 도서관(Kutubxonai Is'hoqiya)에서는 책의 대출과 반납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도서 소장 목록에 따르면 다양한 언어(우즈베크어, 튀르키예어, 타타르어,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타지크어)로 된 서적들이 있었는데, 인근 주

민들이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다.

이브라트는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고, 판사(qadi) 지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은 광신도들의 많은 방해를 받았다. 1937년 그의 모든 활동은 금지되었고 그의 저서들은 불태워졌다. 그가 당한 고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37년 스탈린 탄압의 희생자가 된 그는 ‘반소비에트 선전’ 혐의로 투옥되었고, 같은 해 안디잔의 한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그의 매장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브라트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후 무죄를 선고받고 복권되었다. 이후 그의 작품이 재평가되며 재간되었고, 그의 고향에 그를 위한 박물관이 세워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소호콘 이브라트

● 다국어 표기 Is'hoqxon Ibrat(우즈베크어), Исхокхон Ибрат(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o-zbek-mumtoz-adabiyoti/is-hoqxon-ibrat-1861~1937>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 Shokirova R.,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2016.

Qosimov B. va boshqalar, *Milliy uyg'onish davri o'zbek adabiyoti*, Toshkent: Ma'naviyat, 2004.

I F235 | 이슬람 위원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ho'roi Islomiya

1917년 2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전복과 2월 혁명은 당시 러시아 식민지 상태였던 투르키스탄에도 영향을 끼쳤다. 투르키스탄 식민 통치기구가 폐쇄되고 1917년 4월 7일 러시아 임시 정부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임시정부 투르키스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지방 군사 거버넌스 제도가 폐지되고 지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투르키스탄 주요 도시에 러시아 볼셰비키, 멘셰비키 및 노동자당의 지역지부와 노동자 및 군인 대의원회를 비롯하여 무슬림 노동자

및 군인 대의위원회가 점차 설립되었다. 그 외 각종 위원회도 조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디드(Jadid)운동 지도자들은 투르키스탄 원주민의 정치적 인식을 고양시켜 원주민들을 자유, 독립투쟁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신문과 잡지 등을 발행했다. 자디드 운동가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조직을 형성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17년 3월 14일 타슈켄트에서 설립된 ‘이슬람 위원회’이다. 이 조직의 목적은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쟁취였다.

이 위원회의 하위 지부가 투르키스탄 각지에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그 영향으로 설립된 다양한 조직이 현장 투쟁을 지속해 나갔다. 15인으로 구성된 이슬람 위원회의 첫 대표 선거에는 무납바르커르, 압둘라시드허너드, 압두바히드 커르, 미르커밀보이 모보이브, 우바이둘라 호자 아사둘라 호자이브, 살림헌 킬라호노브들이 등 당대의 다양한 자디드 운동가 등이 나섰다. 무납바르커르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연설을 했다. 이는 이슬람 위원회의 투쟁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1917년 4월 16일 전(奎)투르키스탄 무슬림 회의의 소집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슬람 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독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운동 방향이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의 반발을 샀다. 이들 세력은 무장투쟁을 추구하는 ‘울라마 위원회’를 결성했다. 1917년 10월 타슈켄트에서 건립된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에 반발하며 코칸드에서 구성된 투르키스탄 자치정부(Turkestan Autonomy)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르키스탄 자치정부가 소련에 의해 해체된 후 바스마치운동에 참여해 독립투쟁 활동을 이어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소로이 이슬로미야, 소러이 이슬러미야
- 다국어 표기 Muslim Council(영어), Sho'roi Islomiya(우즈베크어), Шура-и-Ислам(러시아어), Шууро-и-Исламия(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무납바르커리 압두라쉬드헌 오글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Q. USMONOV;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F236 | 이슬람 이전 투르크 기록문학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시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Islamiyet Öncesi Yazılı Türk Edebiyatı

이슬람 이전 시대의 기록문학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비문들은 중앙 몽골의 코차-차이담(kaça-Çaydam) 호수 주변 오르콘(Orkhon) 강이 흘렀던 자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이 비문들에 오르콘과 예니세이(Yenisey)란 이름이 붙었다. 이 비문들은 돌궐문자로 새겨졌다. 이 비석들에는 돌궐의 기념비란 의미의 ‘벤귀 타쉬(bengü taş)’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이들 비문에는 중국과의 전쟁 등 돌궐 제국 전체를 새롭게 건국하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에서 싸운 돌궐족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 이들 비문은 J. von Strahlenberg가 『Das Nord und östliche Theil von Europa und Asia』라는 책을 통해 학계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주요 비문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쿨 티긴(Kül Tigin) 비문 : 코차-차이담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옛 몽골 수도 카라코룸(Karakorum)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후돌궐제국 4대 칸인 빌게 카간(재위 716년~734년)이 칸의 자리에 오르도록 현격한 공을 세운 쿨 티긴(쿨 테긴)이 죽자 그의 형인 빌게 카간이 후돌궐의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생 쿨 테긴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732년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동남북 면은 돌궐어로 기록돼 있고, 서쪽 면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자로 쓰여진 중국어 내용은 당나라 현종이 쿨티긴을 위해 직접 작성한 추도문이다.

■ 톤유쿠크(Tonyukuk) 비문 : 돌궐족의 카간(왕) 네 명을 섬긴 빌게 톤유쿠크(Bilge Tonyukuk)가 720년 세운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이다. 이 비문은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과 독립 투쟁, 승리 등에 끼친 톤유쿠크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톤유쿠크는 일테리쉬 카간(İlteriş kağan)과 카프간 카간(Kapgan kağan)을 왕위에 앉혔고 이들과 함께 국가에는 국가의 역할이, 백성에게는 백성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톤유쿠크의 감정과 생각을 설명하면서 문학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 빌게 카간(Bilge Kağan) 비문 : 이 비문이 새겨진 기념비는 빌게 카간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인 텐그리 카간(Tengri Kağan)이 735년 9월 24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에 새겨진 비문

은 마모돼 읽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주된 내용은 흠어진 민족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나로 만들고 민족의 배를 불린 빌게 카간의 공적이다. 이 비문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N. N: Yadrinstev가 처음으로 발표했다.

오늘날 튀르키예어의 기준으로 보면 오르콘 비문의 언어는 충분히 발달한 완전한 형태의 문화 언어(표준어)라고 할 수 없다. 또 말뭉치, 어휘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명과 지명 이외에는 외국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또한 오르콘 비문의 언어는 독창적이고 민족성을 드러내며, 아나톨리아와 튀르키예어의 뿌리이다. 예를 들면, 비문 중 ‘나는 동생 쿨 티긴과 함께,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게 국가가 있고 행운이 있어서 거의 죽어가는 백성을 먹이고 살렸다.(Türk budun için tüm uđımadım, küntüz olurmadım; inim Kül Tiğın birle, eski şad birle ölü yeti kazgandım.)’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 중 일부는 발음만 약간 변했을 뿐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투르크 민족은 전쟁을 치르고, 공격과 약탈을 수반한 이동 생활을 했다. 그러다 이슬람 군대가 중앙아시아를 침략한 7세기~8세기 이후 이러한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투르크 민족은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민간신앙과 토템에서 벗어나 유일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문화 현상의 변화도 나타났다. 신성한 코란을 읽기 위해 아랍어를 익히기 시작하면서 아랍어 단어들이 유입되었다. 10세기 이후에는 문학에서 페르시아어를 선호하면서 기록 언어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지역 언어도 다양해졌다. 16세기부터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기록 언어에서도 명확하게 우위를 보이면서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슬람 이전 시기의 기록문학 작품

● 다국어 표기 Written Literature in Turkic Languages before Islam (영어)

● 연관 검색어 돌궐문자, 오르콘 비문

● 참고문헌(오프라인) Ergin Muharrem, *Orhun Abideleri*. Boğaziçi Yayınları, İstanbul, 1995.

Kaçalın S. Mustafa, ‘Orhun Yazıtları’, *TDV İslam Ansiklopedisi*, C.33, s.390~393, Türkiye Diyanet Vakfı Yayınları, İstanbul, 2007.

Ölmez Mehmet, *Orhun Yazıtları Kül Tiğın, Bilge Kağan, Tunyukuk*, BilgeSu Yayınları, Ankara, 2018.

Özdemir Emin, *Türk ve Dünya Edebiyatında Dönemler-Yönelimler*. BilgiYayınevi, Ankara, 1999.

I F237 |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학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시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Islamiyet Öncesi Türk Edebiyatı

이슬람 이전의 투르크 문학은 주로 유목이나 수렵생활과 관련이 있다. 투르크인들의 신앙과 토tem 문화는 주로 사냥, 잔치, 장례식 등과 관계된 의식과 의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대 투르크 부족들은 ‘오윤(Oyun)’, ‘캄(Kam)’, ‘박스(Baksı)’, ‘오잔(Ozan)’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공동체 내 덕망이 높은 샤먼들이 있었고, 이들이 의례와 의식을 주관했다.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학의 시작은 B.C. 4000년에서 B.C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존하는 첫 기록물이 나타나는 A.D. 6세기 이전을 ‘신화 시대’라고 한다. 신화는 역사, 지리, 시대적 환경과 같은 투르크 역사를 구비문학으로 반영한다. 이처럼 스키타이, 사카, 훈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역사를 배경으로 구비문학 작품들이 탄생했다.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학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구비문학 시기와 기록 문학 시기이다.

구비문학 시기의 작품 대부분은 신화적 특성이 있는 영웅서사시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창조 서사시(Yaradılış Destanı)», 「알프 에르 툽가 서사시(Alp Er Tunga Destanı)», 「슈 서사시(Şu Destanı)», 「오우즈 카안 서사시(Oğuz Kağan Destanı)», 「보즈쿠르트 서사시(Bozkurt Destanı)», 「에르게네콘 서사시(Ergenekon Destanı)», 「출생 서사시(Türeyiş Destanı)», 「아틸라 서사시(Atilla Destanı)», 「이주 서사시(Göç Destanı)」 등이다. 인간 삶의 통과의례와 경험들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구비문학 장르들은 다음과 같다.

- 사브(Savlar, 교훈담) : 자연과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일종의 격언이다.
- 사구(Sagular, 장송시) :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유우(yuğ)’라고 하는 장례식에서 애도하며 읊는 시를 말한다. 아으트[ağıt, 곡(哭) : 울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의 한 장르인 사구의 주제는 고인(故人)의 용맹함과 영웅성, 그의 생전 업적 그리고 죽음에 대한 애도이다. 망자(亡者)가 생전에 베푼 미덕은 무엇인지, 그가 치른 전쟁

의 난이도는 물론 그가 어떤 전쟁에 참전해서 적군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가 어떻게 영웅성을 발현하며 죽었는지, 그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부족민을 포함한 우주만물이 얼마나 비탄에 빠졌는지 등에 대해 묘사한다.

- 코슈크(Koşuklar, 운율시) : 코푸즈(kopuz)로 연주되며, 음악과 함께 암송되는 시를 일컫는다. 일정한 시기마다 행해지는 ‘스으르(sığır)’라는 신성한 사냥 의식, ‘실렌(şölen)’으로 칭해지는 연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등에 행해지는 축하연 등에서 구연된다. 시는 사행시 형식이다. 코슈크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영웅 혹은 사랑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문학 연구자들은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학의 첫 기록 문학작품으로 돌궐어로 쓰인 오르콘 비문을 꼽는다. 수직으로 세워진 돌에 글자를 새긴 이 비문은 돌궐 역사의 단면들을 보여준다. 킬티킨(Kül Tigin) 비문은 732년, 빌게 카간(Bilge Kağan) 비문은 735년, 톤유쿠크(Tonyukuk) 비문은 716년~734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초이렌(Çoyren) 비문은 689년~690년, 쿨리 초르[이헤-휴쇼투, Küli Çor(İhe-Hüşötü)] 비문은 719년~723년, 온기[이쉬바라 타르칸, Ongi(Işbara Tarkan)] 비문은 723년~735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르콘 비문에 새겨진 단어의 수는 1,000개 정도다. 제한된 주제 내에서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의미가 풍부하고 형태적 특징이 일부 변형된 언어로 쓰여졌다. 이는 그 시대의 투르크어(돌궐어)가 단순한 구어가 아니라 기록이 가능한 언어였으며, 문자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돼 왔음을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슬람 이전 시기 투르크 문학
- 다국어 표기 Turkic Literature before Islam(영어), İslamiyet Öncesi Türk Edebiyat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르콘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기록문학
- 참고문헌(오프라인) Kaçalin S. Mustafa, ‘Orhun Yazıtları’, *TDV İslam Ansiklopedisi*, C.33, s.392, Türkiye Diyanet Vakfı Yayınları, İstanbul, 2007.
Ögel Bahaddin, *İslamiyetten Önce Türk Kültür Tarihi, Orta Asya Kaynak ve Buluntularına Göre*, 2. Baskı, Türk Tarih Kurumu Yayınları, Ankara, 1984.
Ölmez Mehmet, *Orhun Yazıtları Kül Tigin, Bilge Kağan, Tunyukuk*, BilgeSu Yayınları, Ankara, 2018.
Özdemir Emin, *Türk ve Dünya Edebiyatında Dönemler-Yönelimler*, Bilgi Yayınevi, Ankara, 1999.

I F238 | 이슬람 호자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재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slomxo'ja

사이드 이슬람 호자(Said Islomxo'ja, 1872년~1913년)는 1872년 히바에서 탄생했다. 이슬람 성직자 가문에서 성장한 그는 히바 마드라사에서 수학했고, 각종 언어에 능통했다. 하즈로사프의 주지사로 정계에 입문했고 1898년 어린 나이에 히바 칸국의 재상(vezir)으로 임명됐다. 무함마드 라힘 2세(Muhammad Rahimxon II, 재위: 1875년~1919년) 시대에 재상으로 등용되어 아스판디요르 칸(Asfandiyorxon, 재위: 1910년~1918년) 시대까지 재상직을 유지했다.



이슬람 호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이슬람 호자는 아스판디요르 칸의 통치 기간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방문했고, 히바 칸국의 서구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의 요청으로 히바 칸국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병원, 우체국, 전신국, 발전소, 자디스트 학교 및 러시아식 학교가 건설되었다. 또한, 그는 영화와 사진 예술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슬람 호자는 호라즘 자디드 우익 지도자로서 군주제를 옹호했다. 다른 자디스트 운동가들에 비해 보수적 경향을 보였던 그는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바랐다. 그러면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처벌 반대와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행정 개혁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그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호자가 칸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아스판디요르 칸에게 그의 제거를 부추겼다. 이에 1913년 아스판디요르 칸이 이슬람 호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나눈 뒤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슬람 호자가 돌아가는 길에 몇몇 사람이 그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이슬람 호자는 사망했고, 그의 아들 압두살람 호자(Abdusalam xo'ja)도 총격으로 사망했다. 아스판디요르 칸은 그를 살해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슬람 코자
- 다국어 표기 Islam Khodja(영어), Said Islomxo‘ja(우즈베크어), İslam hoca(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e/Islamkhodja_%28cropped%29.JPG/800px-Islamkhodja_%28cropped%2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I F239 | 이시 멜리크자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소설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İsi Melikzadeh

이시 멜리크자대(İsi Məlikzadə)는 1934년 5월 1일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아그자배디(Ağcabədi)에서 태어났다. 1952년~1957년 애지즈베이오브 아제르바이잔 산업대학교(M.Əzizbəyov adına Azərbaycan Sənaye İnstitutu)의 석유·화학과에서 수학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1966년까지 석유산업과 관련 기관들에서 일했고, 그는 첫 작품을 이 시기에 썼다.

그가 본격적으로 문예창작을 시작한 것은 문예지 <별(Ulduz)>의 출판부장을 맡게된 1966년부터이다. 동시에 1966년~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영출판사(Azərbaycan Dövlət Nəşriyyatı) 편집자, 1974년~1976년 재패르 잡바를르 아제르바이잔 영화 스튜디오(C.Cabbarlı adına Azərbaycan film kino studiyası) 시나리오 편집위원, 1976년~1980년 문예지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의 편집부 산문부서장, 1980년~1981년 문예지 <별(Ulduz)>의 편집실 산문 부서장, 1981년~1983년 풍자 영화잡지 <모잘란(Mozalan)> 편집자, 1983년~1985년 재패르 잡바를르 아제르바이잔 영화 스튜디오 편집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는 또 1988년~1990년 아제르바이잔 국립 드라마 아카데미(Azərbaycan Dövlət Akademik Dram Teatrı) 문학부서장, 199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잡지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 출판 부장, 1990년부터 아제르바이잔 문학재단(Azərbaycan Mədəniyyət Fondu)의 카라바흐

(Qarabağ) 지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바쿠에서 사망했다.

그의 작품들은 장르적으로 매우 다채롭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별의 끝(Həsərətın sonu, 1964)』, 『타인의 어머니(Özgə anası, 1969)』, 『잘 말리는 날개(Kövrək qanadlar, 1973)』, 『나는 거리에 물을 뿌렸다(Küçələrə su səpmişəm, 1977)』, 『초록 밤(Yaşıl gecə, 1979)』, 『화창한 가을(Günəşli payız, 1982)』, 『할아버지 참나무(Dədə palıd, 1984)』, 『은호수의 전설(Gümüşgöl əfsanəsi, 1987)』, 『이슬에 젖은 목초지의 빛(Şehli çəmənlərin Işığı, 1991)』 등이 꼽힌다. 그의 일부 작품들은 작품들은 연극무대에 올려졌고, 작가가 창작할 때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은 것 중 하나는 영화제작이었다. 문학 평론가들은 서정적이고 심리묘사가 주를 이루는 그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연구했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시 멜릭자데
- 다국어 표기 İsi Melikzade(영어), İsi Malikzade(튀르키예어), Иси Меликзәде(러시아어), İsi Məlikzadə(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Abasova Sevinc, *İsi Məlikzadənin yaradıcılığı*, Filologiya elmləri namizədi alimlik dərəcəsi almaq üçün təqdim olunmuş dissertasiya, Bakı, 2005.
Əhmədov Teymur, *Mir Cəlal*, İki cildə, I-II cildlər,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4.

I F240 | 이에르반트 오스칸 에펜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조각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Yervant Oskan Efendi

조각가 이에르반트 오스칸 에펜디(1855년~1914년)는 이스탄불 사마티야(Samatya)의 비무슬림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하고프 오스칸 베이(Hagop Oskan Bey)는 교육과 교양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으로 교사, 시인, 통역사였다. 이에르반트는 11세에 베식타쉬 마크루한(Beşiktaş-Makruhyan) 아르메니아 학교와 종교학교인 페라 하이르 아나냐(Pera Hayr Ananya)에 입학했다.



오스만 함디 흉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는 이들 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베네치아의 무라드 라파엘얀(Murad Rafaelyan) 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아르메니아어와 프랑스어 수업 이외에 미술 수업에 집중했다. 1872년 이 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탈리아 로마 미술 아카데미 조각과에 입학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엔리코 베케티(Enrico Becketti), 치롤라나 마치니(Cirolama Mazzini)로부터 조각을 배웠고, 회화와 건축 수업도 수강했다. 그는 유럽에서 조각 교육을 받은 최초의 오스만인 학생으로 기록되었다. 이탈리아에 머물 당시 그는 이탈리아 자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르반트는 1878년 프랑스 파리로 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며 예술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파리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파리에 더 머물고 싶어 했으나 가족의 요청으로 1881년 이스탄불로 돌아갔다.

이에르반트는 귀국 후 영국 영사관이 개최한 전시회에 참여했다. 그는 여기서 평생 우정을 쌓은 오스만 함디 베이(Osman Hamdi Bey, 1842년~1910년)를 만났다. 1883년 오스만 함디 베이는 이에르반트를 오스만 제국 최초의 미술학교인 사나이이 네피세 맥테비(Sanayi-i Nefise Mektebi)의 부교장과 조각과 학과장에 임명했다. 이 학교의 첫 조각 교사가 된 이에르반트는 이곳에서 32년간 봉직하며 오스만 제국의 조각 1세대를 기르는 데 힘을 썼다. 그는 '제국박물관(Müze-i Hümayun)'에서 조각 복구도 담당했다. 교사직과 박물관 조각 복구를 담당하면서도 그는 작품 활동을 지속했다. 그의 작품은 1902년~1903년 개최한 이스탄불 살롱 전시회(İstanbul Salon sergi)에 전시되기도 했다.

이에르반트는 주로 석고, 대리석, 브론즈, 구운 흙 등을 이용하여 아카데미하고 고전적인 인상을 주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역사적인 사건, 일상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도 작품 소재로 삼았다. 작은 작품도 조각했다고 알려졌다. 그의 석고 작품은 재료의 특성상 많이 소실되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자연주의로 분류된다. 최초의 오스만 제국 조각가인 이에르반트는 조각과 교사로서 후학을 양성하며 튀르키예에 조각 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인물이다. 이에르반트는 1914년 세상을 떠났다.

■ 주요 작품 목록:

오스만 함디 흉상(Osman Hamdi Büstü), 51cmx54cmx30cm, 대리석, 이스탄불 미술조각박물관 소장

나일레 하눔 흉상(Naile Hanım Büstü), 56cmx47cmx38cm, 석고, 이스탄불 미술조각박물관 소장

그 자신 또는 형제 디르칸 오스칸 흉상(Kendi veya Kardeşi Dirkan Osgan Büstü), 27cmx16.2cmx10cm, 석고, 나히트 카박츠(Nahit Kabakçı) 소장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르반트 오스칸 에펜디
- 다국어 표기 Yervant Oskan Efendi (튀르키예어), Oskan Efendi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함디 베이, 이흐산 외즈소이, 사나이어 네피세 멕테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humakabakci.com/wp-content/uploads/collection/oskan_yervant_2.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Uzun, Derya. "Heykel Sanatının Türk Kültürü içindeki yeri ve Yervant Oskan Efendi", *Batman University International Participated Science and Culture Symposium*, 18~20, April 2012, Batman, pp.280~291.
Giray, Kıymet. "Abdülaziz Heykelinden 1950'lere Uzanan Çizgide Türk Heykel Sanatının Gelişimi", *Türkiyede Sanat*, Sayı:29, 1997, pp.30~38.

I F241 | 이에실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소분류1 건축 ● 유형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Yeşil Mausoleum

이에실 영묘는 1421년 술탄 메흐메드 1세(I. Mehmed, 재위: 1413년~1421년)가 그 자신을 위해 부르사에 건설한 영묘이다. 이에실 영묘에는 메흐메드 1세뿐만 아니라 그의 딸인 셀축 하툰(Selçuk Hatun), 하프사(Hafsa), 아이쉐(Ayşe), 시티 하툰(Sitti Hatun), 아들인 마흐무드(Mahmud), 이우수프 베이레르(Yusuf Beyler)와 그들의 유모가 함께 묻혀 있다. 이 영묘의 건축은 하즈 이바즈 파샤(Hacı İvaz Paşa), 장식 미술은 알리 빈 일라스 알리(Ali bin İlyas



이에실 영묘

Ali), 마흐무드 엘 메즈눈(Mahmud el Mecnun). 알리 빈 하즈 아흐메드 테브리지(Ali bin Haci Ahmed Tebrizi)이 각각 맡았다.

주재료가 대리석과 타일인 이 영묘는 팔각형 몸체로, 가장 좁은 면의 가로 너비가 8.45m, 가장 넓은 면의 가로 너비가 8.87m이다. 몸체의 각 면은 모두 오지 아치(ogee arch)가 둘러 있으며, 남쪽 면과 북쪽 면을 제외한 각 면에 직사각형의 창문과 오지 아치형의 창문이 나 있다. 정문은 동쪽 면에 있는데, 이 문은 대리석 틀에 블라인드 아치가 있으며 창문 주변은 루미 문양이 새겨진 패널이 둘러싸고 있다. 다른 편은 모두 터키석 색의 타일로 덮여 있다. 이 터키석 색의 타일 때문에 이 영묘의 이름이 이에실(Yeşil : 초록색)로 알려져 있다. 창문의 상단 벽감 부분은 짙은 남색 바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칸마다 하디스와 코란의 구절이 적혀 있다. 지붕은 돔이며, 이는 팔각의 드럼 위에 있다. 지지대도 녹색의 타일로 덮여 있다.

영묘 내부의 하단부는 다양한 색상과 문양으로 장식된 다색 유약의 타일로 덮여 있다. 내부에

있는 두 개의 미흐랍의 상단부도 무카르나스로 마무리되고 타일로 치장되어 있다.

이 영묘는 건축 구조보다는 타일 예술과 기술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다. 오스만 초기 셀주크 시대의 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다색 유약 기법과 흰색과 녹색, 노란색이 추가된 타일 모자이크를 배치한 기법, 타일 사이의 빈 부분을 붉은색 반죽으로 채워 넣는 방식, 노란색의 타일과 도금 기법 모두 이전 시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기술이다. 또한, 온전히 식물 문양으로만 채우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윤곽선도 이전 시기에는 보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에실 영묘는 새롭게 발전한 타일 예술이 어떻게 건축에 적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예실 튀르베, 예실 튀르베시, 예실 투르베
- 다국어 표기 Yeşil Türbesi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1세, 예실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20062014/cba38583-ab85-4d3b-86d4-3ad737204f9e.jpg>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20062014/6ffd268f-2de3-4e0a-bf10-c0fa9706881d.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kulturportali.gov.tr/turkiye/bursa/gezilecekyer/yesil-turbe>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Öney, Gönül. *Turkey: Early Ottoman art: The legacy of the emirates: Western Turkey and Thrace*, London : Art Books International, 2002.

I F242 | 이에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lye

이에는 추바시, 투르크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자연이나 문화적 대상물의 정령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산, 숲, 들판, 수원지, 목욕탕, 방앗간, 가축 우리, 폐가 등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최고의 신(神) 투라가 창조한 선한 정령들도 있고, 어둠의 신 슈이트탄이 창조한 악한 정령들도 있

다. 대부분 남성이나 여성 같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외모는 주로 ‘장님’ ‘사팔뜨기’ ‘세 개의 눈깔’ ‘똥똥이’ 등의 단어로 묘사되곤 한다.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이예들은 자신이 머무는 대상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특히 아이)과 가축에게 병을 옮기거나, 수척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예들은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한다. 특히 아궁이 이예와 목욕탕 이예가 그러한데, 추바시 사람들의 민간 신앙에 따르면 이것들은 사람을 마루에서 쓰러뜨리거나 팔을 비틀고 눈을 사팔뜨기로 만들곤 한다.

추바시 민간 신앙에는 이예를 만나거나 이예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여러 관습과 의례들이 존재한다. 이예를 막는 부적으로는 마가목 나뭇가지가 사용되었으며, 이예를 쫓기 위해 병든 장미 가지의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밀가루 반죽으로 인간이나 동물 형상을 만들어 구운 것을 이예에게 바치면 액막이를 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 추바시에서는 명절 식탁에서 아궁이에 빵이나 전병을 던져 넣는데 이는 이예에게 대접하는 행위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이예, 으예
- 다국어 표기 Ийе(러시아어), İyə(아제르바이잔어), İy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인
- 참고문헌(온라인) [ИЙЕ// http://enc.cap.ru/?t=publ&hry=182&lnk=962](http://enc.cap.ru/?t=publ&hry=182&lnk=962)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2004, 95~98.

Ⅰ F243 Ⅰ 이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구조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wan

이슬람 문화권의 건축에서 흔히 보이는 이완(iwan)은 한 면이 개방되고 다른 삼 면이 폐쇄되어 있는 직사각형 공간으로, 천장은 볼트로 되어 있다. ‘iwan’은 페르시아어 에이반(ایوان)을

아랍어식으로 읽은 이완(ايوان)의 서구 언어식 표기로, 한국에서도 주로 ‘이완’이라 한다. 튀르크 국가는 페르시아어 에이반을 튀르크어식으로 변형한 표기를 주로 사용한다. 튀르키예어와 아제르바이잔어로는 eyvan, 우즈베크어로는 ayvon, 카자흐어로는 айуан, 튀르크멘어로는 eýwan으로 표기한다.

이완의 기원은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시리아 건축에서 유사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으며, 1세기 메소포타미아 건축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2세기 이후 파르티아와 사산 조에서 중요한 건물에 이완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초기 예는 크테시폰 유적에 남아 있는 대궁전 일부인 타크 이 키스라(Taq-i-Kisra, 호스로의 아치, A.D. 3세기 또는 A.D. 6세기)이다. 이완은 파르티아 왕조와 사산 조에서 궁전 및 신전의 응접실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문헌에는 ‘의식’ ‘알현 홀’ ‘궁전’ 등의 의미로 기록되었다.

이슬람 이후 중앙아시아와 이란 지역에서 이완은 모스크, 마드라사, 병원은 물론 일반 가옥에도 만들었다. 이완은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그늘을 만들고 공기가 통하여 선선하게 느낄 수 있기에 마드라사의 여름철 교실, 병원의 여름용 진료실로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금요 모스크에서 돔이 있는 미흐랍 앞 공간이 내원으로 개방되는 부분에 조성된 이완은 멀리서도 이를 보고 키블라, 즉 예배 방향을 알게 해준다. 이 때문에 이완은 미흐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졌다.

10세기 이후 이완을 만든 초창기 예로는 현 이란 네이리즈(Neyriz)의 금요 모스크이다. 11세기~12세기 카라한 조, 가즈나 조, 셀주크 조의 중앙아시아, 호라산,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역의 튀르크 국가의 건축물에도 이완이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가즈나 조는 궁전, 카라한 조는 대상 숙소와 리바트에 이완 양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셀주크 조의 이스파한 금요 모스크와 같이 4개의 이완(Chahar Ayvān)이 있는 양식은 이란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이 시기 이후 수많은 건물에서 적용되었다. 일 칸국, 티무르 조, 사파비 조에서도 이완이 있는 건축물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이완이 있는 마드라사 양식은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이집트 아이유브 술탄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의 서쪽에서는 이완 양식 사용이 드물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에서도 이완은 주로 한 건물에 1개나 2개 정도 만들었고, 대상 숙소에 주로 적용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돔 하나가 있는 건축물을 주로 건설했고 이완은 드물게 일부 건축물에만 만들었다. 이란과



시바스 콕 마드라사의 이완

중아시아 건축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이슬람 건축에서도 4개의 이완이 있는 건물은 드물고, 이완 양식이 다른 건축 요소와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반, 이와느
- 다국어 표기 eyvan(튀르키예어), eyvan(아제르바이잔어), ayvon(우즈베크어), айван(카자흐어). eýwan(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에이반, 에이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1/Sher-Dor_Madrasah%2C_Registan_Sq%2C_Samarkand.jpg/1024px-Sher-Dor_Madrasah%2C_Registan_Sq%2C_Samarkand.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yvan-palace>
- 참고문헌(오프라인) Beksaç, Engin. “EYVA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2, Istanbul: TDV, 1995, pp.12~14.
 Grabar, Oleg. “The Visual Arts. 1050–1350”,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ume 5: The Saljuq and Mongol Periods* (ed:J. A. Boy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pp.629~641.
 Grabar, Oleg. “IWĀN”, *Encyclopaedia of Islam* VOL. IV (ed.C. E. Bosworth, E. Van Donzel, B. Lewis And Ch. Pellat. Leiden; Brill, 1997, pp.59~99.

I F244 | 이원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단체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Yön

'이원(Yön: 방향)은 주간 시사 평론지 <이원(Yön)>을 중심으로 부상한 1960년대 튀르키예의 사회주의 단체이다. 이 평론지는 1961년 12월 20일 언론인 도안 아브즈오을루(Doğan Avcıoğlu)에 의해 창간되었는데, 실용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당대 튀르키예 좌파가 갖고 있던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대변하는 대표적 출판물이었다.

'이원 그룹'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1960년대 튀르키예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그룹은 케말주의, 제3세계주의,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절충된 사회, 경제 정책을 옹호했다. 또한 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 매판자본가 계층을 국가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수립을 막는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은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모든 반봉건, 반제국주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원 그룹' 지도부의 전략은 사회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진보적 인사들, 군인 엘리트 및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보다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쿠데타를 선호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이원>의 지면을 통해 의회제도의 모순을 역설했다. 특히 이원 그룹의 리더였던 도안 아브즈오을루는 다당제가 실시된 이후, 총선을 통해 보수주의자들만 집권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이 장악한 의회는 오로지 지배계층, 특히 매판자본가와 대(大)지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튀르키예와 같은 후진적 경제·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는 진보세력이



<이원> 표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보고, 체제의 급진적 변화를 위해 혁명적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들이 주창했던 민족민주주의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소유자는 부르주아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이다. 그들이 지향한 민족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제를 배격하며 모든 반제국주의 세력과 반봉건주의 세력이 혼합된 형태의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용

● 다국어 표기 Yön(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033072>

● 참고문헌(오프라인) Avcioğlu, Doğan, *Türkiye'nin Düzeni:Dün-Bugün-Yarın.*, Ankara: BilgiYayınevi, 1969.

Lipovsky, Igor, "The Legal Socialist Parties of Turkey, 1960~1980" Middle Easter Studies 427, 1991.

Özgen, Hilmi, *Türk Sosyalizmi Üzerine Denemeleri*, Ankara: Ege Matbaası, 1963.

I F245 | 이우누스 엠레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이은정, 박현도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Yunus Emre

아나톨리아 출신 수피 시인인 이우누스 엠레(Yunus Emre)는 1238년~124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고, 시브리히사르(Sivrihisar), 볼루(Bolu), 에스키셰히르(Eskişehir) 등이라는 논란이 있다.

사망 연도는 1320년~1321년(이슬람력 750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는 결혼하여 자녀는 1명 내지 그 이상을 두었고, 다마스쿠스, 타브리즈 등 아나톨리아 밖 지역에서 살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나 확실히 문맹은 아니었다. 아마도 수피 텍케(예배당)에서 많이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느 수피 종단에 속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벡타슈 교단에 따르면 스승 탑두크 엠레(Tapduk Emre)는 핫즈 벡타슈를 따라 수피가 되었다. 벡타슈 종단설과 메올레위 종단설 두 가지가 유력하지만 할웨티 종단, 카디리 종단의 회원이었다는 설도 있다. 그의 시를 보면 그가 코란과 시라(예언자 무함마드의 전기)에 나오는 가르침을 따랐고, 매우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이븐 아라비 계열의 ‘모든 존재는 하나(wahdat’ul-wujud)’라는 종교사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우누스 엠레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아나톨리아 전역에 걸쳐 그의 묘라고 주장하는 성묘들이 10여개 있다. 그의 출생지와 무덤을 두고 여러 도시가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우누스 엠레는 작품집으로 짧은 서정시를 모은 디반(Divan)과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행대구 장편시인 메스네비(Mesnevi)를 남겼다. 그의 시는 수피 전통에 걸맞게 신을 향한 사랑을 주제로 삼았다. 그는 유일신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유누스, 슬픈 수피.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통스럽네. 친구의 손에서 고통으로 괴로워하네. 사랑이 내게 한 일을 와서들 보 시게나.”

그의 시 언어는 소박하고 꾸밈 없는 옛 아나톨리아 투르크어이며, 투르크어의 신비주의적 어휘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통적인 아랍-페르시아 시 운율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시 양식도 사용했고, 대중이 알아듣기 어려운 아랍어나 페르시아어 사용은 가급적 자제했다.

이우누스 엠레는 시를 통한 깨달음을 추구했다. 그는 도시에서 교육을 받았고, 투르크멘 공동체에서 살았다고 추정된다. 민속학자 바쉬괴즈(Başgöz)는 이우누스 엠레 시에 ‘천막’이란 단어가 단 한 번만 쓰였음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사람 마당에 사랑의 천막을 세웠다.” 천막이라는 단어는 이 문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

이우누스 엠레의 시에는 튀르키예어의 정교함, 풍부함, 생생함이 있는데 투르크멘 유목민들과 만나면서 배울 수 있는 문체가 아니다. 이 언어는 투르크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도시의 경제와 관련한 활동도 종종 언급했으며 ‘가게’ ‘자본’ ‘이익’ ‘손실’ ‘구매’ ‘판매’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의 시에 폭넓고 다양한 도시의 활동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도시에서 자란 시인임을 보여준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회는 ‘분쇄기는 돌아가고, 밀



이우누스 엠레 연구소(앙카라, 튀르키예)

은 부서지고, 물과 같이 돌아가는' 사회였다.

이우누스 엠레의 삶과 예술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살았던 13세기 아나톨리아의 사회, 정치, 종교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 시기는 매우 혼란스럽고 살기 힘든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코니아 셀주크 술탄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아나톨리아에 많은 공국(公國)이 생겨났다. 에레트나(Eretna Beyi), 시바스(Sivas Beyi), 말라티야(Malatya Beyi), 엔귀뤼(Engürü Beyi), 악히사르(Akhisar Beyi), 게르미얀(Germiyan Beyi), 카라만(Karaman Beyi) 공국은 왕좌, 재화, 목초지, 병영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다. 당시 사람들은 사회문제, 침략, 반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혼란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과 평온의 원천을 수피 수도승과 텍케에서 찾게 되었다. 텍케 문학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이우누스 엠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활동했다.

몽골의 침입으로 셀주크 제국의 내부가 붕괴하고, 영주들은 곳곳에서 봉기했다. 하레즘

(Harezmi) 제국 사람들의 부담은 계속 쌓였다.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설상가상으로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는 몽골 군대를 막는 것, 이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불러들인 이집트 군대를 보살피는 것 등에도 내몰렸다. 또 사람들은 재



이우누스 엠레가 담긴 튀르키예 화폐

산을 약탈, 몰수당하고, 가혹한 세금도 내야 했다. 아나톨리아에서 흘린 피, 굶주림, 홍수는 사람들의 목을 죄었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의 아나톨리아 역사를 몇 줄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한 압딜바키 귤프나를르(Abdülbâki Gölpınarlı)는 “이우누스 엠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우누스 엠레는 13세기 아나톨리아가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삼은 사회에서 살았다. 자연과 토지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우누스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특징이다.

이주민의 상징이었던 이우누스 엠레는 유목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롭게 정착 생활이 시작될 때 정착을 주도하고자 했던 의도가 작품에 담겨 있다.

그의 예술에 대해 민속학자 바쉬괴즈는 “이우누스는 우리에게 가벼운 웃음, 쓰라린 질책, 뼈있는 풍자를 소재로 삼아 작품을 썼다.”고 평가했다. 에르규벤은 “이우누스는 사실주의를 강조하고 자신과 신 사이에 매개자를 두지 않았으며, 인간만의 고유한 저항으로 행동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다음 시 구절은 그것을 보여준다:

저승사자가 와서

“보관물(목숨)을 내어달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주인에게 말할 것이다.

“드릴게요. 당장 가겠습니다.”

이우누스 엠레는 여행을 많이 다녔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 불멸에 대한 믿음, 지나가는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의 승화, 아름다움에 빠진 사랑에서 아름다운 사랑 자체가 되기, 신실한 수피, 부분에서 하나 또는 전체로 등등 깊이 있는 인간의 삶을 탐구했다.

그의 언어는 과도기에 있는 시인의 언어이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와 함께 투르크어를 사용했는데, 아루즈 운율과 음절 운율로 쓴 시에는 외래어와 합성어가 많이 쓰였다. 일반 백성들과 자랐고, 그 배경을 잊지 않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신비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가 아끼고 존경했던 메블라나처럼 ‘신일합일’을 추구했다.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 민중을 위해 살고자 했다. 그는 어려운 아루즈 운율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 시대의 언어인 음절 운율로도 민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놀라운 예지력과 독창적인 방법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했다. 지식을 감성과 신념으로, 교리를 시와 다양한 문학작품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우누스 엠레는 그가 사는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느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을 떼어놓는 것을 생각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으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 형제여

죽을까봐 무섭다

죽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많아 두렵다

이우누스 엠레의 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나톨리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념적으로 형식화하기 위해 애썼고, 이 세계관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고자 했다. 그는 중세 아나톨리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는데, 그 정착 생활을 더 선호했다. 사상적으로도 수피 이슬람이 자연과 신과 일치한다는 범신론을 확신했다. 농지를 토대로 생산하는 방식이 수피즘의 구조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는 토지와 농경지, 그리고 농경지 경작의

관계와 신과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했다.

수피즘과 같이 세상을 신비주의로 접근하는 사고 체계에서 삶 전체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해석할 줄 알았던 이우누스 엠레는 민중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에도 튀르키예인의 이우누스 엠레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튀르키예 정부는 이우누스 엠레 연구소(Yunus Emre Enstitüsü, 한국 표기명은 ‘유누스 엠레 문화원’)를 열었다. 2009년부터는 세계적으로 모두 58개의 센터를 열어 해당국에서 튀르키예어와 튀르키예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1년을 이우누스 엠레의 해로 지정하고 그를 기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누스 엠레

● 다국어 표기 Yunus Emr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택케

● 멀티미디어 링크 Yunus Emre Enstitüsü.

<https://www.yee.org.tr/>

● 참고문헌(온라인) Edith G. Ambros, Yunus Emre,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Online Version)

● 참고문헌(오프라인) Ambrose Edith G, “Yünus Emre.”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349~350. Vol. 11. Leiden: Brill, 2002.

Barkan Ömer Lütfi, Osmanlı İmparatorluğunda Toprak Vakıflarının İdari-Mali Muhtariyeti Meselesi, *Türk Hukuk Tarihi Dergisi*, Cilt:I, 1942, s.15.

Başgöz İlhan, *Yunus Emre*, PanYayınları, İstanbul, 1990.

Ergüven Abdullah Rıza, *Yunus Emre*, YabaYayınları, Ankara, 1982.

Gölpınarlı Abdülbaki, *Yunus Emre*, VarlıkYayınları, İstanbul, 1957.

Halman Talat S, *Rapture and Revolution: Essays on Turkish Literature*,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7..

Honigman Ernest, *Bizans Devletinin Doğu Sınırı*, İÜEFYayınları İstanbul, 1970.

Köprülü M. Fuat, *Türk Edebiyatında İlk Mutasavvıflar*, 4. Baskı,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1.

Köprülü M. Fuat, *Türk Edebiyatı Tarihi*, 4. Baskı, ÖtükenYayınları, İstanbul, 1986.

Mustafa Tatcı, “Yunus Emr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3, pp.600~606.

Timuroğlu Vecihi, *Yunus Emre Üzerine Bir Deneme*, Eskişehir Sanat Derneği Yayınları, Eskişehir, 2004.

Toprak Burhan, *Yunus Emre Divanı*. Türkiye İş Bankası Yayınları, Ankara, 1966.

Yetkin Çetin, *Türk Halk Hareketleri ve Devrimler*, SayYayınları, İstanbul, 1984.

Yavuz Hilmi, *Felsefe ve Ulusal Kültür*, BilgiYayınevi, Ankara, 1977.

I F246 | 이우수프 악추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식인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Yusuf Akçura



이우수프 악추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이우수프 악추라(1876년~1935년)는 타타르 민족주의자이자 범투르크주의 지식인이다. 그는 볼가강 유역의 심비르스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하산 악추린이 요절하자 1883년 그의 어머니가 여러 아이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우수프를 데리고 카잔에서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그는 이스탄불의 사관학교(하르비에)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실 관련이 없었지만 ‘청년튀르크당’에 관심을 가졌다는 혐의로 체포돼 리비아에 유배되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계속하고픈 마음이 컸던 그는 유배지에서 튀니지로 도망쳤고, 1900년~1903년 파리에서 유학

했다.

이우수프는 오스만 제국과 유럽에서 청년튀르크당 계열의 인사들과 함께 활동했다. 그의 사상은 카잔에서 일어난 타타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스탄불에서 옛 투르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대적 흐름의 영향도 받았다. 그는 1904년 러시아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타타르 언론에 기고했다. 또 정계에 투신해 1905년 니콜라이 2세의 ‘10월 선언’에 의해 제정 러시아 의회인 두마에서 단합된 행동을 하고자 무슬림들을 규합했다. 그는 범이슬람적 관점을 가진 무슬림 정치 문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1908년의 청년튀르크 혁명 후 그는 이스탄불로 이주한 그는 문화적 민족주의 및 범투르크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1911년 <투르크인의 조국(Türk Yurdu)>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지식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1917년~1919년 사이 튀르키예 적신월사(赤新月社 Red Crescent Society) 대표로 러시아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대표와 만났고, 1919년 이스탄불에서 영국군에 체포되었다.

1920년 아나톨리아로 건너간 그는 무스타파 케말 주도의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공화인민당에 들어갔으며 튀르키예 대국민의회(Büyük Millet Meclisi) 의원에 선출되었다. 이에 더하여 역사

학 논저를 출판하고 강연하고 가르친 그는 튀르키예 역사연구회(Türk Tarih Tetkik Cemiyeti, 지금의 Türk Tarih Kurumu의 전신)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주요 정치 사조나 정책들, 즉 오스만주의(모든 종족을 오스만 국민으로 통합하자는 운동), 범이슬람주의(전 세계 무슬림들이 단결해 이슬람을 수호하자는 운동), 범투르크주의(투르크어족의 단결을 추구하며 정치적으로 통합하자는 운동) 가운데 범투르크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범투르크주의의 장애물은 국내적인 것이라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범투르크주의가 종족적 응집력을 높이고, 그것이 영토가 상실되거나 분할되어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무스타파 케말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928년 『투르크인의 해(Türk Yılı)』라는 책에서 범투르크주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이 개념을 여전히 변호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범투르크주의보다 투르크 국민의 단결을 지향하는 튀르키예-투르크민족주의를 옹호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슈프 악추라

● 다국어 표기 Yusuf Akçura(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J. M. Landau, “Yusuf Akçur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11 pp.356~357.
Nuri Yüce, “Akçura, Yusuf,”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1989, pp.228~229.

I F247 | 이이라우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Yyrau

이이라우는 몇몇 투르크 민족의 영웅서사시 구연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영웅서사시를 구연할 뿐만 아니라 교훈적 성격의 시와 노래를 짓기도 한다. 이이라우는 노래, 시를 뜻하는 투르크어 이이르(йыр)에서 나왔으며 투르크어로 ‘가수’란 뜻이다.

이이라우의 창작은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이라우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3세기

로 추정된다.

14세기에 노가이 시문학에서 서사시가 급격히 발달했고 노가이 민족의 문화에서 이이라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가수-음악가’란 뜻의 이이라우란 단어는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Mahmud al-Kashgari)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wan Lughat al-Tur)』에 처음 등장한다. 구연문학 역사에서 이이라우의 창작이 번성했던 시기는 노가이 칸국 때였다. 14세기~17세기 사이 시브라 이이라우(Сыбра йырау), 샬-키이이즈 티렌시 울리(Шал-Кийиз Тиленши улы), 도스맘베트 아자울리(Досмамбет Азаулы) 같은 시인들이 노가이 시문학을 대표했다.

14세기~16세기 바시키르 구연문학도 이이라우에 의해 대표된다. 아산 카이기(Асан Кайгы), 카즈투간-이이라우(Казтуган-Йырау), 하브라우-이이라우(Хабрау-йырау), 샬기즈-이이라우(Шалгииз-йырау)가 유명했다. 이들의 운문 작품은 바시키르, 카자흐, 노가이 등 투르크 민족 공동의 유산이다. 이이라우의 즉흥시에는 민중의 염원과 애환이 담겨 있는데, 이이라우들이 방랑을 하면서 주변 정세나 민족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데 연유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라우

● 다국어 표기 Йыра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노가이

● 참고문헌(온라인) 바시키르-러시아어 사전

<https://ru.glosbe.com/ba/ru/%D0%B9%D1%8B%D1%80%D0%B0%D1%83>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дельбаев М.Х., Аиткулов А.М., «Творчество йырау в авторской изустной поэзи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Эпосоведение, Якутск. №2 (26) июнь 2022, 52.

I F248 | 이이이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lyjyn

바시키르어로 ‘모이다’라는 뜻의 ‘이이이우(Йыйы-бу)’에서 유래한 이이이인은 원래 바시키르인들의 민중 집회, 부족이나 씨족의 자치기구를 지칭했다.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집회가 열렸는데, 이 이이이인 집회에서는 전쟁이나 평화, 관습법의 준수, 부족 간이나 부족 내의 갈등 중재, 토지나 영토의 확정, 분배 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이이인은 다양한 놀이나 시합 등을 하는 축하연으로 마무리되었다.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이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이이이인은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17세기~18세기 바시키르인들의 봉기 시기에 봉기의 시작과 중지, 군대 지휘관의 선출, 러시아 정부 제안의 검토를 위해 다시 활성화되기도 했다. 1735년~1740년 봉기 진압 과정에서 이이이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칙령이 내려졌다. 이때부터 이이이인은 1년에 1회로 개최 횟수가 제한되고, 정치·경제적 문제들은 다룰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축하연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오늘날 이이이인은 바시키르인들의 여름 전통 축제로 남았다. 이이이인에서는 하나 또는 다수의 친족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웃 시골 주민들을 초대한다. 가족들은 유르타나 초막을 짓고, 장마당의 가운데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기둥이 세워진다. 남자들과 청년들은 바이가(중앙아시아 경마), 쿠레시, 활쏘기, 피리 연주 등에 참여하고, 여성들은 노래, 춤 등을 뽐낸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들도 준비된다. 지역에 따라 개최되는 이이이인의 규모는 차이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이인
- 다국어 표기 Йыйы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어, 바시키르인, 바시키르 공화국, 쿠레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5IM7pL97UEw>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башкирская-энциклопедия.рф/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2-statya/13181-jyjyn>

● 참고문헌(오프라인) Фатхутдинов Р.Р., Юсупова Л.Я., “Праздник йййын: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Башкирские праздник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терлитамак, 2017, 43~45.

I F249 | 이자트 술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Izzat Sulton



이자트 술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현대 우즈베크 문학론의 창시자인 이자트 술턴(Izzat Sulton, 본명 Izzat Otaxonovich Sultonov)은 1910년 오시(Osh, Qirg'iziston)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슈켄트 나무나(Namuna) 노동학교와 교육대학교(College)에서 수학했다. 이후 그는 교사로 근무하다가, 1930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했다. 이자트 술턴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우즈베키스탄 국립라디오 방송 국가위원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1948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 및 문학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1955년부터 1958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비서로 활동했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문학 교육과 관련된 『우즈베크 문학의 쟁점(O'zbek adabiyoti masalalari)』, 『우즈베크 소비에트 문학사(O'zbek sovet adabiyoti tarixi)』, 『문학 이론(Adabiyot nazariyasi)』, 『우즈베크 문학비평사(O'zbek adabiy tanqidi tarixi, 1987)』가 꼽힌다.

소설가이자 극작가로도 활동한 그는 『독수리의 비행(Burgutning parvozi, 1939)』, 『모르는 사람(Noma'lum kishi, 1963)』, 『믿음(Imon, 1960)』, 『선각자들(E'tiqodli odamlar)』, 『모르고 밝은 가시(Ko'rmayin bosdim tikonni)』, 『이븐 시나의 어린 시절(Ibn Sinoning bolaligi)』과 압둘라 커디리이(Abdulla Qodiriy)의 소설을 극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지나간 날들(O'tgan kunlar)』을 썼다. 그는 문학가로서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회원, 우즈베키스탄의 명예 과

학자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베루니(Beruni) 국가상과 두 개의 훈장을 받았다. 그는 2001년 세상을 떠났으며, 타슈켄트에 위치한 치가타이묘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자트 술탄

● 다국어 표기 Izzat Sulto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Nazarov B. va boshqalar, *O'zbek adabiy tanqidchiligi tarixi*, Toshkent: Cho'lpon nomidagi nashriyot -matbaa ijodiy uyi, 2012.

Sulton Izzat, *Asarlar*,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72.

I F250 | 이즈니크 도자기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도자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znik Pottery

이즈니크 도자기는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이즈니크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와 타일을 말한다.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한 이즈니크에서는 로마, 비잔틴, 아나톨리아 셀주크 시대, 공국 시대에 다양한 기술을 발달시키며 도자기를 생산해 왔다. 이즈니크 도자기가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이후로, 청화백자와 청화타일을 생산하면서부터이다.

이즈니크가 도자기 제작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과 가까이 있어 납품이 쉬웠다는 것, 이스탄불~아나톨리아반도~실크로드를 잇는 길 위에 위치한다는 것, 가마에 사용할 목재를 수급하기 좋은 숲이 있다는 것, 도자기 제작에 알맞은 토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 등이 꼽힌다. 이들 중 알맞은 토양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4세기 중반 이즈니크에서는 붉은색 점토를 재료로 슬립 기법(Slip)과 하회 기법을 이용한 밀



이즈니크 청화백자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

렛(Milet işi, 또는 밀레투스) 유형의 도자기를 생산했다. 밀렛 유형의 도자기에는 남색으로 보이는 짙은 코발트 푸른색과 함께 밝은 푸른색, 터키 옥색, 보라색, 녹색 등이 사용된다. 문양으로는 단순화된 자연주의 문양, 들꽃을 모티브로 삼은 문양과 부채꼴의 잎사귀, 카네이션 가지와 포도송이와 다양한 로제트가 주로 그려졌다.

14세기 후반에는 붉은 점토를 슬립 기법을 사용하고, 색상이 있는 유약을 발라 푸른색, 녹색, 갈색으로 만들었다. 구부러진 가지 형태의 루미(Rumî) 문양, 양식화된 꽃문양이 등장했다.

청화백자 및 청화타일은 15세기 말~16세기 전반기부터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흰색 점토로 만든 기물 위에 흰색으로 얇게 밑칠을 하고, 반짝이고 투명한 유약과 하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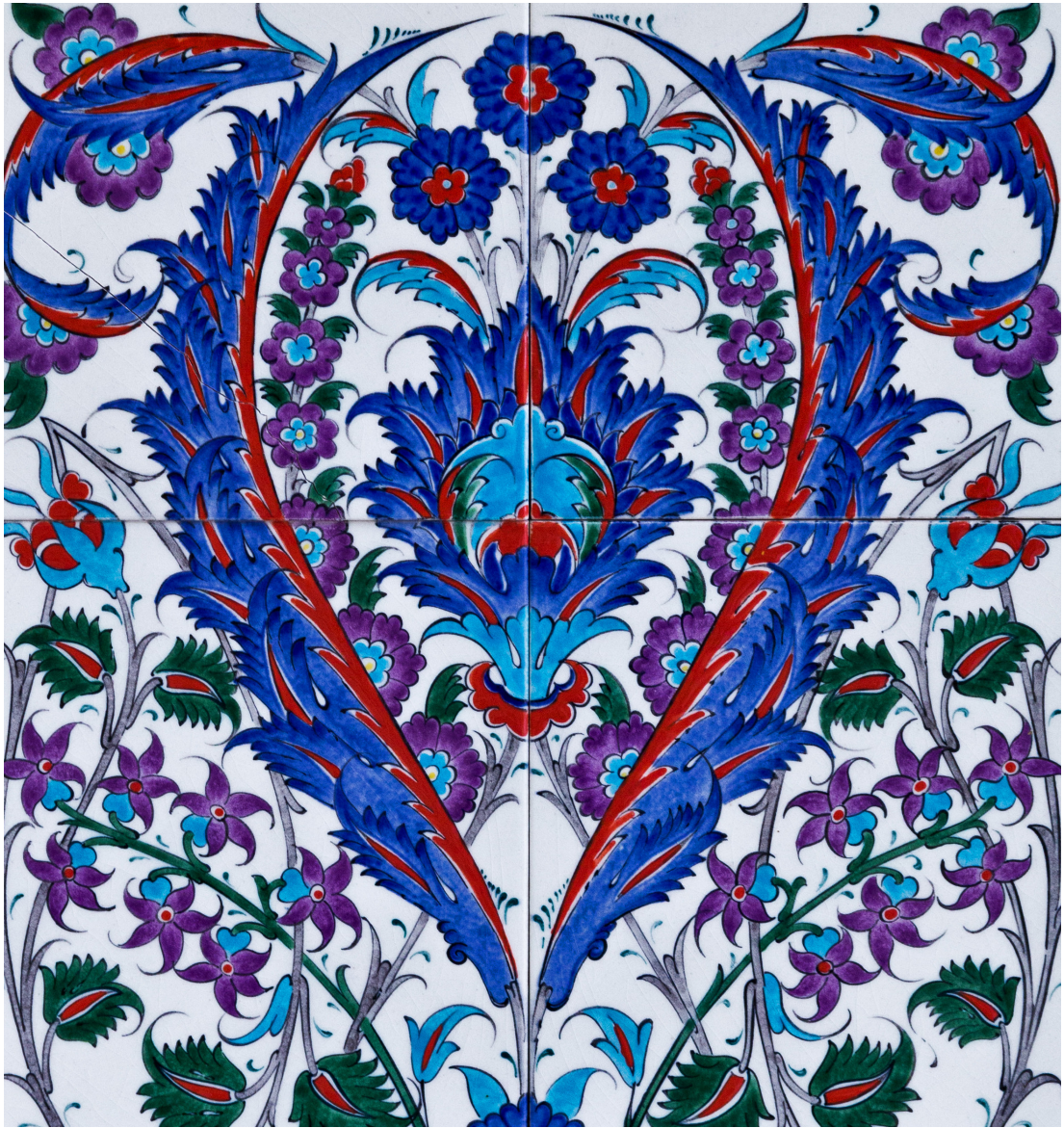
법을 이용했다.

원나라와 명나라의 청화백자에 영향을 받아 제작하게 된 이즈니크 청화백자와 청화타일은 오스만 제국에서 즐겨 사용하던 문양을 이용함으로써 특유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즈니크 청화백자는 문양과 색상에 따라 ‘할리츠 양식(Haliç işi, 또는 골든 혼 양식)’, ‘장인의 기술 스타일(Ustaların Üslubu)’, ‘삼 양식(Şam işi, 또는 다마스쿠스 양식)’, 붉은색이 있는 하회 기법으로 만든 다색 도자기와 타일인 로도스 양식(Rodos işi) 등으로 나뉜다.

할리츠 양식의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진 나선 위에 꽃과 잎사귀를 코발트 블루 톤, 터키 석색이나 녹색, 검은색 안료를 이용하여 그린 도자기이다. 나선을 잇는 점도 루미 문양으로 장식한다.

‘장인의 기술 스타일’은 카네이션, 금잔화, 히아신스와 같은 꽃과 꽃봉오리, 하타이 문양(Hatayi : 꽃의 세로 단면의 모습을 양식화한 문양)과 잎사귀, 동물 문양, 그리고 드물게 사람 그림으로 장식한다.

삼 양식의 경우, 장인의 기술 스타일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문양을 이용하나, 일반적인 청화백자의 색상에서 좀 더 발전하여 보라색과 녹색을 첨가한다. 삼 양식은 16세기 중반 또는



이즈니크 타일

1535년~1560년 사이 짧은 기간 생산됐는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생산되었다고 잘못 알려져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로도스 양식도 과거 로도스섬에서 만들어졌다고 잘못 알려져 로도스 도자기라고 부르게 되었

다. 16세기 중후반~17세 중반 발전한 이 자기는 코발트 블루톤, 터키석색, 초록과 검정 계열 색에 짙은 보라색, 올리브그린색, 검은색으로 다양화된다. 16세기 후반 붉은색과 에메랄드 그린을 첨가했다. 이외에도 갈색이 첨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꽃나무의 가지에만 사용되었다.

이즈니크 타일과 도자기는 오스만 제국 내, 특히 이스탄불의 모스크와 톱카프 궁전 내부를 장식하는 데 많이 쓰였고, 지중해 연안 국가와 발칸반도, 중동과 유럽에 수출되었다. 그 결과 16세기 후반 유럽은 이즈니크 도자기를 다량으로 주문했으며, 이 수입품의 일부를 모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17세기 중반 이후 오스만 제국의 경제적 몰락과 함께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즈니크 도자기 제작소의 상황 역시 어려워졌으며, 당시 이즈니크에 퍼진 학질로 인해 이즈니크 도자기는 쇠락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이후 생산된 제품의 경우 반죽과 유약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색상이 번지고 붉은색이 갈색으로 나타나고 문양이 커지는 등 기술적인 퇴보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한편, 문양에서는 패모꽃 문양, 시클라멘 문양, 수레국화 문양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일어났으며 궁전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문양의 표준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17세기 후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초 도자기 생산의 중심지는 쿠타하(Kütahya)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이즈니크의 도자기 제작소는 문을 닫았다. 술탄 아흐메드 3세(III. Sultan Ahmed, 재위: 1703년~1730년) 시기에 대재상 다맛 이브라힘 파샤(Sadrazam Damat Ibrahim Paşa, 재직: 1718년~1730년)에 의해 이스탄불에서 다시 이즈니크 도자기를 생산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즈닉 자기, 이즈니크 타일
- 다국어 표기 İznik Seramiği(튀르키예어), İznik çin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쿠타하 자기,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9/Iznik_dish_British_Museum_G.21.jpg/920px-Iznik_dish_British_Museum_G.21.jpg,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47013>
- 참고문헌(오프라인) Atasoy, Nurhan, Julian Raby and Yanni Petsopoulos, *Iznik : the pottery of Ottoman Turkey*, London : Alexandria Press in association with Laurence King, 1994.
Öney, Gönül and Zehra Çobanlı, *Anadolu'da Türk devri çini ve seramik sanatı*, Ankara : T.C.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2007.

I F251 | 이즈니크 이에실 모스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znikYesil Mosque

튀르키예 서부 이즈니크 중심에 자리한 이즈니크 이에실 모스크는 오스만 시대의 재상이었던 찬다를르 할릴 하이렛딘 파샤(Çandarlı Halil Hayrettin Paşa, 재직: 1364년~1387년)의 명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그의 사망 이후 아들인 알리 파샤(Ali Paşa)가 완성시켰다. 담당 건축가는 무사 오울루 하즈(Musa oğlu Hacı)이다. 이 내용은 정문에 있는 0.57mx0.51m 크기의 비문과 주랑 현관의 아케이드 축에 있는 문 위에 위치한 0.57mx2.87m 크기의 비문에 적혀 있다.

모스크는 남북으로 위치한 11.0mx11.0m의 정사각형 플랜의 기도 공간과 동서로 배치된 주랑 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랑 현관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다.

기도 공간(sahn)을 포함한 전체 건물은 3개의 돔으로 덮여 있다. 기도 공간 외부 지붕은 팔각의 받침대 위에 얹은 지름 11m의 완전한 반원구형의 돔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돔으로 건물 전체를 덮는 고전적인 모스크의 공간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즈니크 이에실 모스크는 크기는 작지만, 오스만 건축사에서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즈니크 이에실 모스크는 내부와 외부 모두 대리석 블록으로 되어 있다. 동쪽 면과 서쪽 면은 창문을 이용해 2층으로 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런 요소는 후에 부르사(Bursa)에 건설되는 창문이 있는 벽 건축물의 모델이 된다.

기도 공간의 경우 정면은 오지 아치(ogee arch) 3개, 측면은 오지 아치 2개로 나뉘는데 이렇게 나뉜 공간의 가운데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비해 넓고 높다. 이 공간을 재현하려는 것처럼 옆 부분에는 궁륭과 드럼 위에 큰 부분 부분 홈이 파인 돔으로 덮인 입구가 있다. 문 주변을 둘러싼 무카르나스는 셀주크 시대의 전통이다. 모서리 기둥과 무카르나스가 있는 아치,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된 이음매, 루미와 팔메트 문양이 양각으로 조각된 대리석 미흐랍은 오래된 전통인 동시에 새로운 양식 탄생의 전조이다.

이에실(Yeşil) 모스크, 즉 녹색 모스크라는 이름은 모스크의 북서쪽에 설치된 미너렛의 장식



이즈니크 이에실 모스크

과 색에서 기인한다. 받침과 몸체로 이어지는 삼각형으로 된 부분은 대리석으로 덮여 있으나 몸체는 타일과 유약을 바른 벽돌로 장식되어 있다. 이것 역시 셀주크 시대의 전통이다. 특히 색상은 전체적으로 터키석색, 푸른색, 녹색이 주로 쓰였으며 밝은 노란색과 흰색도 써서 색감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다만 근래에 이루어진 복구 공사로 인해 원형은 많이 손실된 상태이다.

이즈니크 이에실 모스크는 셀주크 건축과 오스만 건축 양식을 잇는 건축물로, 후에 피루즈 베이 모스크(Firuz Bey camii)나 일리아스 베이 모스크(İlyas Bey camii)에 영향을 미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즈닉 예실 모스크, 이즈니크 예실 자미, 이즈닉 예실 자미, 이즈닉 예실 모스크, 이즈닉 예실 자미

- 다국어 표기 İznik Yeşil camii(튀르키예어), İznik Green mosque(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01032013/d8b78e68-51be-4bd4-af0c-15d44b00e382.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âp Kitabevi, 2004.

I F252 | 이즈미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İzmir

이즈미르는 에게해 지역 여행에서 관문 도시의 기능을 하는 튀르키예의 대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이오니아 지방에서도 유난히 기후가 좋아 아주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전설에 따르면 B.C. 3000년대에 아마존의 여왕 스미르나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했다고 한다.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인 스미르나는 이 여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어의 변화에 따라 여성 정관사와 함께 이 스미리나라고 하던 것을 튀르키예인들이 이즈미르라고 불렀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서한을 보냈던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가 바로 이곳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때 삼국동맹 측에 가담했던 오스만 제국이 패전국이 되자 연합국은 이즈미르와 주변 이오니아 지방을 그리스에 할양했다. 영국의 사주를 받은 그리스가 1919년 5월 15일 이즈미르를 점령하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독립군을 조직하여 사카리야 전투에서 그리스군을 대파하고 1922년 9월 9일 이즈미르를 해방시켰다.

오늘날 이즈미르는 튀르키예에서 발전한 대도시 중 하나이다. 공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올리브, 건포도, 무화과 등 여러 종류의 농산물 집산지이기도 하다.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현지 4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먼저 공업화된 도시인 이즈미르에는 18세기에 튀르키예 최초의 방적공장이 세워졌고 19세기에는 튀르키예 최초의 제지공장이 들어섰다.



이즈미르 전경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스미르나
- 다국어 표기 Smyrna(그리스어), Izmi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이스탄불,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책문, 2010.

Bosworth, Clifford Edmund, *Historic Cities of the Islamic World*. Leiden, Boston: Brill. 2007.

Izmir | Turkey". Encyclopedia Britannica. Retrieved 2019-04-02.

I F253 | 이지크 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Izig khan

이지크 한은 투바어로 ‘뜨거운 피’를 의미한다. 이지크 한 없이는 풍성한 만찬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투바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음식이다.

이지크 한을 만들 때 잘게 다진 양파를 넣고 소금에 절인 양의 피를 깨끗이 씻어낸 양의 창자에 부어 넣는다. 투바인들은 빨간색에 흰색을 섞는 것이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피에 물이나 우유를 섞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우유가 부드러움을 준다며 첨가하기도 한다.

양의 창자는 끝까지 채워서는 안 되는데, 이는 요리 도중에 터져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피로 채운 양의 창자는 냄비 위의 막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 향신료를 첨가하여 익혀낸다. 이지크 한이 조리되면 맨 먼저 유르트 내의 최고 권위자 혹은 고령자에게 바치며,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돼지의 창자에 채소, 당면, 선지를 넣고 찌서 만든 한국의 순대와 비슷하데, 투바인들은 창자에 피만 넣는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전라도 지역의 피순대와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 이지크 한은 칼로리 함량과 영양가가 높고, 피로 만든 음식이기에 헤모글로빈의 공급원이 되며, 심장과 혈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지크 한은 혈관을 정화하고 소화 기능을 자극하여 대사 과정을 정상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지크 칸
- 다국어 표기 Изиг-хан(투바어), Izig khan(영어)
- 연관 검색어 투바어, 유르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russia.travel/objects/304280/>, <https://www.youtube.com/watch?v=abU3coZB2T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russia.travel/objects/304280/>, <https://www.fondazioneSlowFood.com/en/ark-of-taste-slow-food/tuva-short-fat-tailed-sheep/>, <https://www.tuvaonline.ru/2012/06/25/o-blyudah-tuvinskoy-nacionalnoy-kuhni.html>

I F254 | 이치치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Ichchi

이치치는 야쿠트 신화에 등장하는 사물, 물건, 자연 현상, 전통 신앙에서 정하는 특정 장소의 주인인 정령을 일컫는 말이다. 야쿠트인의 신앙에 따르면 자연은 살아 있으며, 모든 자연의 객체와 현상들은 이치치라는 자신의 정령을 가진다. 자연 객체와 현상들을 신화화하면서 주인-정령이라는 애니미즘적 형상들이 만들어진다. 이치치는 산이나 나무, 호수, 장소의 수호신이 의인화되거나 관념이나 현상의 화신일 수도 있다. 알기스라는 기원 의식을 통해 이치치를 접할 수 있다.

야쿠트인들은 이치치에게 말갈기나 천 조각, 곡물 음식, 마유주, 돈 등으로 장식된 제물을 바치곤 한다. 이치치는 아이이 신(神)이나 악한 정령인 아바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치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인-정령을 다른 투르크 민족은 ‘에예(эе)’나 ‘에지(эзи)’, 부랴트인들은 ‘에지니(эжины)’, 몽골인들은 ‘에드제니(эдзены)’라고 부른다. 잘 알려진 이치치는 다음과 같다.

- 바이아나이, 바아이 바이아나이, 바릴라흐 바이아나이(Байананй, Баай Байананй, Барылах Байанай) - 숲의 정령, 사냥의 수호신
- 델베 아이이(Дэлбэ Айыы) - 출산의 정령
- 이나흐시트(Ынахсыт) - 큰 빨 달린 가축의 수호신
- 시르 이치치테(Сир иччитэ) - 지역 정령
- 수올 이치치테(Суол иччитэ) - 길의 정령
- 하이아 이치치테(Хайа иччитэ) - 산골짜기의 정령

- 에베(Эбе) - 강과 호수의 정령
- 우오트 우흐한(Уот Уххан) - 불의 정령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치지

● 다국어 표기 Ички(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엘러트, А. Х.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о пантеоне якутских божеств и духов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VIII века (статья первая).» Общественное сознание и литература XVI-XX вв.: сб. науч. тр. Новосибирск, 2001, pp.107~124.

I F255 | 이킨디 нама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İkindi namazi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행하는데, 이킨디 нама즈는 3번째 예배로 실물과 그림자의 길이가 같을 때 근행하는 오후 예배다.

다섯 차례의 예배는 새벽(동 트기 전) 예배인 임사크(İmsak, 아랍어로는 파즈르 Fajr), 정오 예배인 외올레(Öğle, 아랍어로는 주흐르 Zuhr), 오후 예배인 이킨디(İkindi, 아랍어로는 아스르 Asr), 저녁 예배인 악시암(Akşam, 아랍어로는 마그립 Maghrib), 밤 예배인 얏스(Yatsı, 아랍어로는 이샤 Isha)이다.

예배 전에 무슬림은 반드시 소정례(아브데스트)를 해야 한다. 크게 오염된 경우에는 대정례 후 소정례를 해야 한다. 무슬림은 예배할 때 신을 향해 절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바로 서서 절을 하고 난 후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일련의 동작을 라크아(rak'a)라고 한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에서 라크아는 총 17번이다. 각 예배에서 규정된 라크아 횟수는 임사크 2회, 외올레 4회, 이킨디 4회, 악시암 3회, 얏스 4회이다.

해의 길이에 따라 오후 예배 시작 시간이 달라진다. 한국을 기준으로 일 년 동안 오후 예배 시간을 살펴보면, 보통 오후 2시 56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진다. 시아파 무슬림은 정오 예배 후 잠시 시차를 두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

- 다국어 표기 Salat al-Asr(아랍어), İkinci namazi(튀르키예어), Asr namozi(우즈베크어), Əsr namazi(아제르바이잔어), Екінті намаз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브데스트, 주마, намаз, 윌레 намаз, 악시암 намаз, 얏스 намаз, 두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h4_HGr5iAA<https://www.youtube.com/watch?v=MlJH7J-MKHE>
- 참고문헌(오프라인) G. Monnot. "Şalât." In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8, 925~934. Leiden: Brill, 1995.

I F256 | 이프타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의례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Iftar

이프타르는 라마단월 단식 기간 중 마그립 예배 후 단식을 깨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식을 깨다’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동사 ‘아프타라’의 동명사로 ‘단식을 깬’이라는 뜻이다. 이프타르는 라마단월 단식 기간에 매일 저녁 무슬림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복돋는다. 해가 진 후 단식을 마치며 먹는 것이 이프타르라고 하고,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먹는 것을 사후르(sahur)라고 한다.

전통에 따라 단식 후 먹는 첫 음식은 대추야자다. 튀르키예에서는 이프타르에 라마단 기간에만 만드는 라마잔 피데시(Ramazan Pidesi)를 비롯하여 뵤렉(Börek), 귤라츠(Güllaç) 등을 함께 먹는다. 라마단월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단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해가 질 때 이프타르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자선행위를 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에 모스크에서 주로 이프타르를 하고, 각 가정에서는 친지, 이웃, 친구



이프타르

를 초대하여 음식을 나눈다. 오스만 제국 술탄은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제4정원에 있는 이프타르 정자(Iftariye Köşkü)에서 이프타르를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프따르
- 다국어 표기 İftar(튀르키예어), İftor(우즈베크어), İftar(아제르바이잔어), ифтар(카자흐어), İftar(아랍어)
- 연관 검색어 라마잔, 라마잔 바이라므
- 멀티미디어 링크 톱카프 궁전 이프타르 정자

<https://en.wikipedia.org/wiki/Iftar#/media/File:Istanbul.Topkapi05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Davidson, Alan and Tom Jaine, eds. *The Oxford Companion to Food*,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Dobrowolska, Agnieszka and Jaroslaw Dobrowolski. *The Sultan's Fountain: An Imperial Story of Cairo, Istanbul, and Amsterdam*. Cairo and New York: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2012.

I F257 | 이흐산 외즈소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조각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hsan Özsoy

1867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이흐산 외즈소이(İhsan Özsoy)는 기초 교육을 마친 후 1883년 오스만 제국의 서구적 의미의 최초의 미술학교인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Sanayi-i Nefise Mektebi)에 입학했다. 당시 조각과에 입학한 최초의 튀르키예인 학생으로 오스칸 에펜디를 사사했다. 1891년 학교를 졸업한 이흐산은 파리로 갔다. 그는 오스만 함디 베이(Osman Hamdi Bey, 1842년~1910년)의 추천으로 장 밥티스트 구스타브 델로예(Jean Baptiste Gustave Deloye, 1838년~1899년)의 작업실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거기서 나와 미술학교(Ecole Des Beaux-Arts)에 입학하여 에밀(Emile Arthur Soldi, 1846년~1906년)과 토마스(Thomas)를 사사했다. 1893년과 1894년 파리의 전시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1895년 졸업한 이흐산은 오스만으로 돌아와 조각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897년 고고학박물관에서 고대 조각 작품 수리 담당 직책을 받고 일했으며 1908년 오스칸 에펜디로부터 조각 교사직을 이어받았다. 1912년에는 여성 미술학교인 크즈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Kız Sanayi-i Nefise Mektebi)에서도 조각과를 이끌게 된다. 1933년까지 교사직을 수행했다. 조각가로서 계속 활동하던 이흐산은 1944년 사망했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양식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및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17세기 프랑스 조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때때로 히타이트와 이집트 조각에도 관심을 보였고, 건축물의 부조와 조각 작업도 했다. 그는 최초의 서구적 의미를 가진 미술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튀르키예 출신 조각가로서 오스만-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조각사에 큰 흔적을 남겼다.

▣ 주요 작품 목록

- 젊은 여자 흉상(Geç Kadın Bütü), 석고, 51cmx45cmx39cm, 이스탄불 미술조각 박물관(İstanbul Resim ve Heykel Müzesi) 소장



긴 머리 여자 흉상(Saçlı Kadın Büt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긴 머리 여자 흉상(Uzun Saçlı Kadın Bütü), 청동, 64cm39cmx27cm, 이스탄불 미술조각박물관(İstanbul Resim ve Heykel Müzesi) 소장
- 쉬레야 오페라 하우스 전면부 부조(Süreyya Opera Binası Röyefleri)-이스탄불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흐산 오즈소이

● 다국어 표기 İhsan Özso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에르반트 오스칸 예펜디, 오스만 함디 베이

● 멀티미디어 링크 이흐산 외즈소이_쉬레야 오페라 하우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6/S%C3%BCreyya_Opera_House_in_Istanbul%2C_Turkey.jpg/1024px-S%C3%BCreyya_Opera_House_in_Istanbul%2C_Turkey.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ydın, Derya Uzun. *Sanayi-i Nefise Mektebi'nin Türk Heykel Sanatındaki Yeri Ve İlk Heykeltraşlar*, Basılmamış Doktora Tezi, İzmir: Ege Üniversitesi, 2013.

Berk. Nurullah, Hüseyin Gezer, *50 yılın Türk Resim ve Heykeli*, İstanbul: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73.

I F258 | 인사디 수트라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문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nsadi sūtra*

『인사디 수트라(*Insadi sūtra*)』 경전은 번역 불경이 아닌 위구르어로 작성된 수트라이다. 1906년 독일 투르판 3차 원정대가 무루투크(*Myrtyk*)에서 이것을 발굴했고, 1974년 세미흐 테즈잔(*Semih Tezcan*)에 의해 출간되었다.

『인사디 수트라』의 저자 혹은 필사자는 치심(*Çisim*) 또는 치심 투(*Çsim Tu*)이다. 작성 연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17세기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나라(13세기~14세기) 작품으로 보고 있다. 다라보살(*Tara*/多羅菩薩)에 대한 진언(*mantra*/眞言)이 여러 번 나온다는 점에서 밀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디 수트라』는 크게 네 장으로 나뉜다. 첫 장에는 다라니(*dhāraṇī*/陀羅尼)와 미륵에 대한 찬송이 나온다. 특히, 이 첫 장에 부처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발된 여성 유행자 순다리(*Sundarī*)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배치했다. 두 번째 장은 인도에서 우기가 끝난 뒤 승려들이 부처의 명상을 기념하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인 파바라나(*Pravāraṇā*)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세 번째 장은 두운체로 된 미륵에 대한 찬송을 담고 있고, 마지막 장에는 미륵을 위한 다라니가 적혀 있다.

번역 작품은 아니지만, 일부분 한문 번역 불경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장의 파바라나 의식에 대해 논하는 유사한 문헌이 없으나 저자는 한역된 『법구경(*法句經/Dharmapada*)』의 주석을 일부 인용하고, 세 번째 장에 한역 문장 일부를 차용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장은 둔황에서 발굴된 『상생례(*上生禮*)』와 유사하다.

『인사디 수트라』는 당시 위구르인의 불교 경향과 신행, 그리고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인사디 경전, 인사디 경

● 다국어 표기 *Insadi sūtr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금강명경

● 참고문헌(오프라인) Raschmann, Simone-Christiane, “Turfan Bölgesindeki Uyğurca Yazmaların Kullanımıyla İlgili Neler Biliyoruz? (tra.Dilek BEKTAŞ)” *Kesit Akademi Dergisi*, (2) , pp.113~134.

Kitsudō, Kōichi. “Two Chinese Buddhist Texts Written by Uighurs”,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Vol. 64, No. 3, September 2011, pp.325~343.

Zieme, Peter. “Local Literatures: Uighur”,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Vol. 1: literature and languages*(ed, Jonathan A Silk; Oskar von Hinüber; Vincent Eltschinger), Leiden, The Netherlands: Koninklijke Brill NV, 2015, pp.871~882.

I F259 | 인산 알 카밀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l-Insān al-Kāmil

인산 알 카밀(Al-Insān al-Kāmil)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의 이슬람교 이론 용어로 일반적으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의미한다. 특히 수피즘 사상가 이븐 아라비(Ibn ‘Arabī, 1165년 ~1240년)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산 알 카밀은 이븐 아라비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고대 철학에서부터 마니교, 마즈다크교, 인도 사상, 중국 사상의 진인(真人), 유대교의 카발라 등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사상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우주인 세계와 소우주인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

인산 알 카밀은 코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를테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칼리프’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타적인 아담은 영예를 받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의 명령 아래에 있었고, 하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으며, 알라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최초의 인간은 신에게 숨을 받았으며, 알라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이들 일부에게 지식을 주었고, 무함마드가 그런 좋은 본보기라는 부분 등이다.

일부 하디스에서, 알라가 아담을 자신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고, 무함마드가 아니었다면 우

주는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 등으로 완전한 인간 개념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 철학사의 발달 과정에서도 소우주-대우주의 사상은 계속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파라비(Al-Farabi, 872년~950년)는 한 인간을 한 세계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마이모니데스, 즉 이븐 마이문(ibn Maimun, 1135년~1204년)도 인간은 한 세계의 부분으로 세계 또한 하나의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 알 사파(Ikhwān as-Ṣafā, 9세기 또는 10세기)가 말한 고결하고 영적인 인간상과 ‘완전한 인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다. 즉 ‘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은 이슬람에서 단독으로 탄생한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종교와 철학이 이슬람과 만나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븐 아라비가 논한 ‘완전한 인간’의 개념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그가 기초로 삼았던 존재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븐 아라비에 따르면, 완전한 존재는 첫 단계에서 유일체가 모든 부분에서 알라와 합일체로 현현(顯現)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인간은 알라의 모습을 본떠 창조되었다. 이것은 신성한 임재, 본질, 속성, 행위를 종합하는 원형이다. 진정한 창조 활동은 이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모든 생물은 여기서부터 창조된다. 이 단계에 주어진 다른 이름이 ‘완전한 인간’이다. 알라는 완전한 인간을 창조할 때 지혜의 단계를 주었으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쳤으며, 천사들에게 그의 단계와 그가 인간의 세계에서 자신의 대리자임을 알렸고, 지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명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알라의 세계에 대한 지배가 완전한 인간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인간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이다. 영원하면서도 일시적으로 그의 존재를 통해서 세계가 완성되었다. 인간은 세계를 보호할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이 완전한 인간이 머무르는 한 세계는 계속 보호된다. 완전한 인간은 알라의 이름의 현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만이 알라를 알 수 있다. 완전한 인간이란 비유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의 이름과 속성이다. 이러한 의미로 완전한 인간이란 예언자 무함마드이다. 또한, 이런 단계에 도달한 또 다른 인간들은 그의 후계자인 것이다. 완전한 인간은 진실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완전한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조밀한 것과 우아한 것, 잔인한 것과 빛나는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열등한 것과 거룩한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수준에서 알라의 현현과 완전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함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많은 이름을 갖게 된다.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알라의 덕으로 도덕화되었기에 도덕적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한 인간은 샤리아, 종단, 진리 및 독창성 측면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의 말은 옳고, 행실과 도덕이 선하고 유능하며, 즉 사물과 지혜를 올바로 안다. 수피즘에서 제시하는 의무를 행하는 목적은 이들 네 가지를 완성하는 데 있다. 즉 알라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알라를 알고자 하는 갈망에 응답하며, 알라의 임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완전한 인간, 카밀 인산
- 다국어 표기 ĩnsân-ı Kâmil(튀르키예어), Kamil insan(아제르바이잔어), komil inson(우즈베크어), Кемел Адам(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Little, John T. "Al-Insan al-Kamil: the perfect man according to Ibn al-'Arabi." *Muslim World* 77.1, 1987, pp.43~54.
- Aydin, Mehmet S. "İNSÂN-ı KÂMİL", *TDV İslâm Ansiklopedisi*cilt 22, Istanbul: TDV, 2000, pp.330~331.
- Arnaldez, R. "AL-İNSAN AL-KAMIL", *Encyclopaedia of Islam*VOI.III (ed; B.LEWIS, V. L. MENAGE,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Brill, 1986, pp.1239~1241.

I F260 | 인질(성경)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경전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Injil

인질(Injil)은 코란에서 그리스도교의 경전을 일컫는 말이다. 코란에는 인질이 모두 12번 나온다(3:3, 3:48, 3:65, 5:46, 5:47, 5:66, 5:68, 5:110, 7:157, 9:111, 48:29, 57:27). 인질이라는 말을 사용한 코란 구절은 모두 메디나 시대의 계시로 분류한다. 코란은 인질을 코란 이전에 계시된 경전으로 예수에게 준 것으로 언급한다.

인질은 그리스어로 복음(福音)을 뜻하는 유왕겔리온(Evangelion, Εὐαγγέλιον)의 시리아어 에왕겔리온(Ewvangellion) 또는 에티오피아어 왕겔(Wangel)에서 아랍어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언어의 영향인지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랍어 고유 단어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인질 표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복음은 예수의 언행을 담은 신약성서의 4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를 지칭한다. 그런데 코란은 이들 복음서를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리아 그리스도교에서 4복음서를 하나로 엮어서 쓰던 페시타(Peshitta)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성경
- 다국어 표기 İncil(튀르키예어), Injil(우즈베크어), İncil(아제르바이잔어), Інжіл(카자흐어), Injil(아랍어)
- 연관 검색어 코란, 테브라트, 제부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Griffith, Sidney H. "Gospel."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pp.342~343. Vol. 2.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2.
- Jeffery, Arthur. *The Foreign Vocabulary of the Qur'an*. Baroda, India: Oriental Institute, 1938.
- Kassis, Hanna E. *A Concordance of the Qur'an*.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De Vaux, Carra and G. C. Anawati. "Indjil."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pp.1205~1208. Vol. 3. Leiden: Brill, 1986.

I F261 | 일 아르슬란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II Arslan Mausoleum

일 아르슬란 영묘 또는 파흐르 알 딘 알 라지 영묘는 몽골 침략으로 폐허가 된 우르겐츠에 남은 몇 안 되는 건축물 중 하나이다. 이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호라산 출신의 이슬람 학자인 파흐르 알 딘 알 라지(Fakhr al-Din al-Razi, 1150년~1210년)의 영묘라는 주장과 호라즘의 지배자였던 일 아르슬란(Taj ad-Dunya wa ad-Din Abul-Fath II-Arslan ibn Atsiz, 재위: 1156년~1172년)의 영묘라는 주장이 있다. 이 영묘의 건축가와 건설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학자 대부분은 지붕 장식과 영묘의 형태로 미루어 12세기 말~13세기 초, 몽골 침략 이전에



일 아르슬란 영묘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재료가 벽돌인 이 영묘는 정사각형 몸체 위에 십이각형의 원뿔형 지붕이 십이각형의 받침 위에 얹혀 있다. 내부 장식은 단순한 편인데 이 원뿔형 지붕은 터키석색의 유약을 발라 구운 벽돌을 마름모 문양으로 구성하여 화려하게 장식했다.

입구가 있는 동쪽 면은 직사각형의 몰딩으로 마무리한 3개의 오지 아치(ogee arch)로 구성되어 있다. 몰딩 패널은 서체 장식으로 채웠고, 글자 사이의 빈자리는 식물 문양으로 장식했다. 패널과 아치 사이의 남은 부분은 테라코타 식물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 동쪽 면을 제외하고 정사각형의 몸체는 단순하게 벽돌로 쌓아 올리기만 했다.

건물 내부 각 면의 중앙에는 아치가 있는 이완이 자리하고 있다. 영묘에 참배하러 온 방문객들이 앉아 있던 장소로 보인다. 내부는 중앙집중형이며 돔으로 덮여 있다. 이 돔은 무카르나스로 만들어진 트롬프로 지지하고 있다. 건물 내부의 드럼 전면에는 작은 창을 내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쿤야우르겐츠 지방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영묘도 이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일아슬란 영묘, 파흐르 알 딘 알 라지 영묘, 마크바라이 파흐르 알 딘 알 라지, 마크바라이 일아슬란

● 다국어 표기 Maqbara-i Fakhr al-Din al-Razi(아랍어), Maqbara-i Il-Arslan(아랍어), Il-Arslan Türbesi(튀르키예어), Fahreddin Razi kümbedi(튀르키예어), Il Arslanyň aramgähi(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호라즘 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4/KonyeUrgenchIlArslanMausoleum.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Kuehn, Sera, "Tilework on 12th to 14th century funerary monuments in Urgench (Gurganj)", *Arts of Asia*, Volume 37, Number 2, 2007, pp.112~129.

Sayan, Yüksel.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 6* (Ed:Kemal Çiçek, Hasan Celâl Güzel, Salim Koca) Ankara:Yeni TürkiyeYayınları, 2002, pp.91~108.

I F262 | 일투트미쉬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Tomb of Iltutmish

삼스 웃 딘 일투트미쉬는 구리 조(Ghurid Dynasty)가 장악했던 인도 북부 지역을 다스린 세 번째 술탄이다. 일투트미쉬는 노예 왕조라고도 불리는 델리 술탄조(Delhi Sultanate)를 실질적으로 세운 사람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일투트미쉬는 부하라(Bukhara)와 가즈니(Ghazni)에서 노예로 지내다 1190년 후반 구리 왕조의 장군이자 총독이었던 쿵트 앳 딘 아이박의 노예가 되어 델리로 이주했다. 이후 일투트미쉬는 여러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아이박에게 충성을 다했다. 1205년~1206년 일투트미쉬가 거둔 혁혁한 전과는 구리 조의 술탄인 무이아즈 앳 딘(Mui'zz ad Din)의 눈에 띄게 된다. 1211년 아이박이 사망한 후 아이박의 딸과 결혼한 일투트미쉬는 아이박의 통치 지역을 계승한다.

1228년 압바스 조(Abbasid Dynasty)의 칼리프 알 무스탄시르(Al Mustansir)는 인도 내 일투트미쉬의 권위를 인정해 자치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일투트미쉬는 압바스 조 칼리프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인도 지역 통치자였다. 1236년 일투트미쉬는 카를루크의 요새인 바미안으로 행군하던 중 병에 걸렸고, 바로 델리로 돌아왔다. 그는 4월 30일 델리에서 사망했다. 일투트미쉬 죽음 이후 델리는 수년 동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일투트미쉬를 계승한 4명은 왕위에 오른 후 살해당했다. 1246년이 지나면서 델리 술탄조는 안정을 찾았다.

일투트미쉬의 영묘는 쿠티프 미나르 복합단지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일투트미쉬가 직접 확장한 쿠티프 모스크 옆쪽에 있다. 사암으로 만든 영묘는 사각 구조이다. 각각의 면은 9.1m, 높이는 8.41m이고, 사각형 구조물을 기반으로 한다. 건축 당시 사용한 자재는 새롭게 생산한 것이었다. 이는 쿠티프 미나르 복합단지 내 다른 건축물이 힌두 사원에 쓰인 건축 자재를 재사용한 것과 다른 점이다.

영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총 3군데로 북쪽, 동쪽, 남쪽에 있다. 서쪽 벽면은 메카 방향으로 중앙에 벽 안쪽에 움푹 파인 니치(Niche) 벽감을 활용한 미흐랍(Mihrab)을 구성하고 있다.



일투트미쉬 영묘

천장부는 하늘을 향해 뚫려 있으며 대리석으로 장식했다. 북쪽에는 일투트미쉬를 매장한 곳이 있다.

무덤의 사각형 구조는 상부로 올라가면서 팔각형 구조로 변한다. 둥근 형태의 아치 구조가 아니라, 상부가 뾰족하게 변형된 아치 장식을 활용했다. 상부에는 천장이 없다. 최초로 건축한 천장의 돔 구조물이 무너진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건물의 외벽이 얇은 편이라 상부에 얹어진 돔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다.

영묘 외부 일부는 규암으로 마감했고, 입구는 조각으로 장식했다. 영묘 외부보다 내부 장식이 더 화려하다. 내부 벽 안쪽은 명문 장식과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던 기하학 패턴을 활용한 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주된 명문은 코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쿠픽체, 투그라체, 나크스체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꽃이나 사슬에 달려 있는 종과 같은 힌두교에서 파생된 조각 장식도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일투트미시 영묘

● 다국어 표기 Tomb of Ilututnish(영어)

● 연관 검색어 쿠툼 미나르 복합단지

● 참고문헌(오프라인) Asher, Catherine.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India: Architecture of Mughal In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4~5.

Balasubramaniam, R. The World Heritage Complex of the Qutub. New Delhi: Aryan Books International, 2005. pp.98~100.

Nabi Khan, Ahmad. Islamic Architecture in South Asia: Pakistan – India – Banglades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31.

Page, J.A. An Historical Memoir on the Qutb, Delhi. New Delhi: Laxmi Book Store, 1970. pp.13~14.

Sahai, Surendra. Indian Architecture: Islamic Period, 1192 – 1857. New Delhi: Prakash Books India, 2004. pp.15~18.

I F263 | 일모바야 파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Ilmovaya Pad

일모바야 파디 유적은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의 부랴트 공화국 카흐타 지역의 우스티-카흐타 시에서 남쪽으로 28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에는 자바이칼 지역으로 귀족의 무덤군이 있는데, 일모바야 파디, 오르코이툼과 차람 유적이 위치해 있다.

1896년 탈코 그린체비치(Талько - Грынцевич)가 이 유적을 발견했고, 소스노프스키(Г. П. Сосновский)가 1928년~1929년에 11기의 무덤을 발굴했다. 이 유적의 남쪽에서는 화강암으로 만든 적석 구조의 무덤 280기가 확인되었고, 60기 이상이 발굴되었다. 1999년부터는 B. B. 다시발로프(Б. Б. Дашибалова)의 지도하에 바이칼 탐험대가 무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흉노족의 무덤으로, 나무로 만든 무덤방 안에 관을 놓는 구조이다. 몽골의 대표적 노유적인 노용 올, 골모드, 도르릭 나르 등 엘리트 고분과 매우 유사하다. 유적에서 확인된 고분의 높이는 1m, 양 변의 길이는 15m~30m이며, 봉분은 장방형이다. 묘도는 남쪽으로 나 있다.

무덤의 구조는 마치 피라미드를 거꾸로 해서 지하에 설치한 모습이다. 무덤에는 여러 종류의

돌로 된 구조물들이 있는데, 바닥은 깊고, 나무로 만든 무덤방 안에는 목관이 있다. 무덤방 안은 모직의 카펫과 실크로 덮여 있다. 이들 무덤 중에는 작은 무덤과 큰 무덤이 있는데, 이는 계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덤에서는 실크, 거울 등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한 경도 있어서 흉노족과 한(漢) 사이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일모바야 파드

● 다국어 표기 Ильмовая Падь(러시아어), Ilmovaya Pad(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osnovskiy G. P.. Раскопки Ильмовой пади, в сборнике: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т. 8, М. — Л., 1946. Талько-Гринцевич Ю. Д. 1999.

Материалы к палеоэтнологии Забайкалья. СПб: Фонд «АзиатИКА». 1999. 124 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сюнну. Вып. 4).

I F264 | 일야스 애팬디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극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İlyas Əfəndiyev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극작가이자 수필가인 일야스 애팬디예브(İlyas Əfəndiyev)는 1914년 5월 26일 아르메니아 카라바흐(Qarabağ)의 소도시 가르야근(Qaryagin)에서 태어났는데, 가르야근은 현재 푸줄리(Füzuli rayonu)이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르야근의 시골 마을인 뷔유크 배흐만리(Böyük Bəhmənlı)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1934년 아제르바이잔 국립 사범대학교의 아제르바이잔어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제명됐다. 이후 그는 다시 아제르바이잔 국립 사범대학교의 지리학과에 입학해 1938년 졸업했다.

「뜻밖의 사랑(Gözlənilməyən sevgi)」이라는 일야스 애팬디예브의 첫 단편소설은 1939년 잡지 <혁명과 문화(İnqilab və mədəniyyət)>에 게재됐다. 그는 이후 『시골에서 오는 편지들(Kənddən məktublar, 1939)』, 「버드나무가 있는 용수로(Söyüdlü arx, 1958)」, 「다리 만

드는 분들(Körpüsalanlar, 1960)», 「산들 뒤에 세 친구(Dağlar arxasında üç dost, 1963)», 「사르코네크와 발레의 동화(Sarköynəklə Valehin nağılı, 1978)», 「늙은이, 뒤를 돌아보지 마(Geriyə baxma, qoca, 1980)», 「위츠아틀란(Üçatılan, 총이름, 1981)», 「가차흐 쉴레이만의 죽음(Qaçaq Süleymanın ölümü, 1993)», 「칸의 딸 길새 누베르와 타르젠(전통 악기인 타르를 연주하는 사람) 사드 그잔의 동화(Xan qızı Gülsənubərlə tarzən Sadıqcanın nağılı, 1996)」 등 소설과 포베스트(povest)들을 출간했다.

일야스 애팬디예브는 극작가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빛이 있는 길들(İşıqlı yollar, 1947)», 「봄의 물들(Bahar suları, 1948)», 「아타예브 가족(Atayevlər ailəsi, 1954)»,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다(Sən həmişə mənimləsən, 1964)», 「내가 지은 죄(Mənim günahım, 1967)», 「나는 잊



일야스 애팬디예브 기념비

을 수 없네(Unuda bilmirəm, 1968)», 「이상한 남자(Qəribə oğlan, 1973)», 「파괴된 다이어리들(Məhv olmuş gündəliklər, 1969)», 「노래는 산에 남아 있다(Mahnı dağlarda qaldı, 1971)», 「정원들에서 들리는 솔(Bağlardan gələn səs, 1976)», 「후르시드반 누태반(Xurşidbanu Natəvan, 1980)», 「크리스털 궁전에서(Büllur sarayda, 1982)», 「세이흐 히야바니(Şeyx Xiyabani, 1986)», 「애인들의 지옥에서 만남(Sevğililərin cəhənnəmdə vüsali, 1989)», 「혼자 있는 향나무(Tənha iydə ağacı”, 1991)», 「똑똑한 사람들과 바보들(Ağıllılar və dəlilər, 1992)», 「왕과 왕의 딸(Hökmdar və qızı, 1994)」 등 다양한 희곡들을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상연했다. 이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79년 아제르바이잔 명예 민족 작가 칭호(Azərbaycanın Xalq yazıçısı fəxri adı)를 수여받았다.

일야스 애팬디예브는 1996년 10월 3일 바쿠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제1명예의 묘지(I Fəxri Xiyaban)에 묻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서정·심리학적 극 장르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일야스 애펜디예프

● 다국어 표기 İlyas Efendiyev(튀르키예어), Ильяс Эфендиев(러시아어), Илияс Ефендиев(카자흐어), Ильяс Эфендиев(키르기스어), Ýlyas Efendiýew(투르크멘어), Ilyos Efendiyev(우즈베크어), Ильяс Эфендиев(타타르어), İlyas Əfəndiyev(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dıgüzel Sedatç, *İlyas Efendiyev Hayatı, Eserleri, Üslup Özellikleri, Sosyaslist Gerçeklik Açısından Kahramanları*, Erzurum; Fenomen Yayınları, 2006.

Bayramov Qurban, *Xalq Yazıçısı İlyas Əfəndiyevin Yaradıcılığı Ədəbi Tənqidde*, Bakı: Yazıçı, 2014.

Əfəndiyev Əmin, *İlyas Əfəndiyev*, Bakı: İşiq, 1996.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l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İsmayılov Yaqub, *İlyas Əfəndiyevin Yaradıcılıq Yolu*, Bakı: Elm, 1991.

Seyidov Yəhy, *İlyas Əfəndiyev*, Bakı: Azərənşr, 1975.

Salahova Aida, *İlyas Əfəndiyev Yaradıcılığının Poetikasi*, Bakı: Yazıçı, 1984.

Qarayev Yaşar, *Xarıbülbülün Nağılı*, Bakı: Azərənşr, 1995.

I F265 | 일 칸국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II Khanate

일 칸국은 13세기 중반에 이란과 그 주변에 세워진 몽골 제국의 칸국이다. 아랍 이슬람의 침공 이후 ‘이란자민(Īrān Zamīn)’이라는 고대 페르시아 이래의 통일국가라는 관념이 사라지고, 여러 독립적인 소영역의 집합체로만 존재했던 이란에 새로이 나타난 통일국가이다.

일 칸국 이후 이란은 14세기 후반에 잠시 분열을 겪었다. 그러나 곧이어 티무르 조가 일 칸국의 강역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후 이란을 통일한 국가들이 연달아 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일 칸국은 이란과 그 주변, 아나톨리아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쳐 독립적이고 분산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투르크 유목 세력들이 현재의 지역에 자리하는 데 큰 동력이 됐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멘 부족 중 일부가 몽골 제국의 공격을 피해 아나톨리아로 이주하여 그곳에 여러 공국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례들 중 하나이다.

일 칸국을 세운 훌레구가 1256년 이란으로 파견되어 군대를 이끌고 오기 전에 이미 몽골 제국의 여러 군사령관은 이란에 주둔하며 그곳을 간접적으로 지배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대체로 세금 징수나 무역 루트의 관리, 치안 유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카즈빈의 카디아자 역사가인 함둘라 무스타피 카즈비니(Hamd-allah Mustawfi Qazvīnī)의 청원이 발단이 되어 훌레구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란과 그 일대의 강역은 몽골 제국의 왕자와 그 자손들이 파견되어 토착 관료의 도움을 받아 직접 통치하는 몽골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동서로 연결된 세계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 칸국 시기는 몽골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수많은 유목 부족과 피지배 정주민들이 어우러진 다인종, 다문화 국가였는데, 페르시아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일종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훌레구는 알라무트 산중에서 악명을 떨치던 이스마일리 세력의 성채를 점령했고, 1258년에는 신의 대리자인 칼리프가 자리하던 바그다드까지도 함락시켰다. 이후 훌레구는 말라가를 수도로 삼았지만, 여전히 이란 북부의 자그로스 산맥 줄기와 캅카스 산맥 남단을 오갔다. 그의 이동 궁정인 오르두를 이끌고 계절 이동을 한 것이다. 한편 당대에 이란 고원과 그 주변에 자리하던 지방 세력들, 헤라트의 케르트조나 예레반의 아르메니아, 카즈빈의 귀족 세력, 야즈드의 아타백들, 키르만의 카라키타이 후예인 쿠톨룩 칸들 등은 훌레구의 지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안정을 추구했다.

이렇듯 일 칸국이 이란에 자리잡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중국에서 이란, 또는 그 너머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 안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정치·경제·문화적 이동과 교류를 하는 전무후무한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다. 몽골리아에서 유래한 다양한 제도들, 즉 오르두, 케식, 야사, 역참 제도 등도 제국 전역에 적용되었다. 이같은 거대한 제국의 등장은 피지배 무슬림에게 이슬람 세계의 유례없는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무슬림들은 이교도나 이스마일과 같은 이단을 물리치고 이슬람권을 통일한 일 칸국이 곧 ‘신의 비밀스러운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파죽지세는 훌레구의 휘하 장군인 키트부카가 1260년 맘루크 술탄 조와의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한풀 꺾였다. 그 뒤에 몽골리아 본토에서 계승 분쟁, 즉 형제인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때 일 칸국은 쿠빌라이의 손을 들어준 반면에, 일 칸국을 둘러싼 금장 칸국의 베르케 칸이나 차가타이 칸국의 알구는 아릭부케의 편에 섰다.

이로 인해 이후 몽골 제국 서부의 여러 칸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몽골 제국의 통일성이 크게 약화됐다. 일 칸국은 북쪽에 위치한 금장 칸국, 동쪽에 위치한 차가타이 칸국과 끊임없이 갈등했다. 특히 금장 칸국은 맘루크 술탄국과 연합하여 친족인 일 칸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 칸국은 유럽에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일 칸국은 아인잘루트 전투 패배 이후 1335년 멸망할 때까지 줄곧 원(元)의 우위 및 대칸의 지위를 인정하는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 반면 일 칸국 내부에서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존속 기간 동안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그 중심에는 1295년 등극한 가잔 칸이 모든 분야에 행한 개혁이 있었으나, 이외에도 다른 분기점이 존재했다.

George Lane은 일 칸국의 발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단계는 1256년~1282년으로, 일 칸국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이다. 그러나 1282년 아바카 칸이 사망한 후 등극한 아흐마드 칸 시대에는 지식인 지배계층의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시기였다. 군대는 맘루크 조에 대한 아흐마드의 개방적인 접근에 반대했고, 그 뒤를 이은 아르군 칸 시기에는 전통을 고수하는 유목 아미르들과 페르시아 문화에 해박한 엘리트들의 갈등이 빚어져,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극한 가잔 칸은 일 칸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가잔 칸이 행한 각 분야의 개혁은, 이후 약 40년간의 찬란한 번영을 이끌어냈다. 가잔 칸과 그 뒤를 이은 울제이투 칸까지의 시기가 번영과 이슬람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316년 등극한 아부사이드 칸의 시기인데, 국가의 마지막 단계가 주로 쇠퇴의 과정을 밟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거둔 시기이다. 그러므로 1335년 후계자가 없던 아부사이드 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더불어 일 칸국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붕괴에 이른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일 칸국
- 다국어 표기 İlhanlar(튀르키예어), سلسله ایلخانی(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티무르 조
- 참고문헌(온라인) <https://oxfordre.com/asianhistory/view/10.1093/acrefore/9780190277727.001.0001/acrefore-9780190277727-e-292>
- 참고문헌(오프라인) David Morgan, *Medieval Persia 1040~1797*, London and NewYork: Longman, 1988.

I F266 | 일한 바쉬괴즈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İlhan Başgöz

메흐메트 일한 바쉬괴즈(Mehmet İlhan Başgöz)는 튀르크 민속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인 학자이다. 일부 자료는 그가 1923년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의 평소 진술에 따르면 1921년 시바스 게메렉에서 출생했다.

그는 1940년 농대에 진학했으나 여러 일을 겪으며 민속학에 흥미를 느껴 앙카라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DTCF)로 옮겼다. 당시 앙카라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에는 타흐신 반구오를루(Tahsin Banguoğlu), 페르테프 나일리 보라타프(Pertev Naili Boratav), 이브라힘 네즈미 딜멘(İbrahim Necmi Dilmen), 압뮐바키 귤프나를르(Abdülbaki Gölpınarlı), 울프람 에베르하르트(Wolfram Eberhard), 페리트 캄(Ferit Kam), 사페트 코르쿠트(Saffet Korkut)와 같은 유능한 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는 1949년 언어역사지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그의 조교직이 취소되었다. 튀르키예에서 ‘조교’는 교수 임용과 같은 것이기에 전례 없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어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예산위원회는 베히제 보란(Behice Boran)과 니야지 베르케스(Niyazi Berkes)가 소속된 학과의 사회학 수업을 폐강하고, 페르테프 나일리 보라타프(Pertev Naili Boratav)의 교수직을 파직했다. 정치적 압력과 정부의 명령 때문에 앙카라대학교 위원회는 조사 한번 없이 같은 결정을 따랐고, 학과는 폐쇄되었다.

바쉬괴즈가 학교를 다녔던 시절은 제2차 세계 대전의 거센 바람이 불던 시기이다. 독일군은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 덴마크, 스칸디나비아를 점령하고 러시아까지 진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에는 반전 목소리, ‘시대의 강자’에 기대어 조국의 문제를 극복하자는 두 가지 기류가 공존했다. 나치에 대한 찬사도 만만치 않았다. 씩씩하게도 강력한 지배 세력에 기대어 조국의 미래를 찾자 하는 이들은 겁 없는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바쉬괴즈는 1949년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토카트 고등학교 문학 교사로 발령받았다. 1950년에는 당시 토카트 주지사였던 베키르 수피 악탄(Bekir Suphi Aktan)의 제안으로 알베르 가



일한 바쉬괴즈
Source: <https://ceus.indiana.edu/>

브리엘(Albert Gabriel)의 저서 『아나톨리아의 기념비(Monuments Turcsd' Anatolie)』 중 토카트 지역 부분을 프랑스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튀르크 민속과 문학을 주로 연구한 바쉬괴즈는 언어역사지리학부에서 만난 은사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의 지도를 받았다. 1952년 프랑스인 에드몽 소시(Edmond Saussey)의 『튀르크 민속문학(Türk Halk Edebiyatı)』과 헝가리 이슬람 학자 이그낙 골지허(Ignac Goldziher)의 『이슬람 율법과 교리(İslamda Fıkıh ve Akaid)』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바쉬괴즈는 오스트리아의 튀르

키에 학자 안드레아스 티체(Andreas Tietze)와 적극적으로 튀르키예 수수께끼 수집에 나서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약 13,000개의 수수께끼가 담긴 1,063쪽 분량의 단행본 『수수께끼: 튀르키예 수수께끼 모음집(Bilmece: A Corpus of Turkish Riddles)』을 출판했다.

바쉬괴즈가 1960년대 미국 민속 연구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면서 세운 가장 큰 공헌은 민속 이야기 공연(라이브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외에 프랑스어로도 출판한 수수께끼 단행본은 튀르크 구전 이야기와 나스렛딘 호자(Nasreddin Hoca)와 관련한 작품으로 세계 민속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1960년대 일한 두만오을루(İlhan Dumanoğlu)라는 필명으로 『마살(Masallar, 1960)』, 『날른즈 파디샤(Nalıncı Padişah, 1960)』, 『구두쇠와 큰손(Cimri İle Cömert, 1960)』, 『황금으로 만든 공(Altın Top, 1962)』 등 설화집을 집필했다.

1978년에는 17세기 아나톨리아 민속시인 카라오을란(Karacoğlan)에 관한 글을, 1979년에는 명창(아시옥 ; Aşık) 알리 잇제트 외즈칸(Aşık Ali İzzet Özkan)에 대해 쓴 글을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민속시인(오잔 ; ozan)과 악기 사즈를 연주하는 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첫 연구였다. 그리고 1986년 단행본 『민속학 저술(Folklor Yazıları)』을 튀르키예와 미국에서 발간한 이후부터는 튀르키예에서 민속 연구, 민속 문학에 집중했다. 1989년 출간된 이우누스 엠레(Yunus Emre)에 대해 분석한 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접근 방식을 깨고 ‘법관 이우누스(molla Yunus)’에서 ‘수도승 이우누스(derviş Yunus)’가 되기까지 이우누스 엠레의 성격을 역사 문화적 근거로 파악했고, 민속시인은 무미건조한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시선

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쉬괴즈는 이우누스 엠레를 연구하면서 수도승이라는 정체성을 밝혔고 이는 튀르키예 지식인들에게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

바쉬괴즈는 1992년 마크 아자도프스키(Mark Azadowski)의 작품 『시베리아에서 온 동화 속 어머니(Sibirya'dan Bir Masal Anası)』를 번역 출간할 때 서두에 긴 글을 덧붙였다. 그의 학문적 연구 방법 등을 담은 이 글은 문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6년에는 2008년 발간된 『튀르퀴(Türkü ; 튀르키예 민요)』는 바쉬괴즈가 학자로서 대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는 2012년에는 『튀르퀴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Türkülü Aşk Hikayeleri)』를 발표했고, 이후 『해설이 있는 투르크 민속시 선집(İzahlı Türk Halk Şiiri Antolojisi, 2014)』, 『작은 민속 백과사전(Küçük Folklor Ansiklopedisi, 2015)』을 출간했다.

바쉬괴즈는 2021년 4월 13일 앙카라에서 “이제 나를 흠으로 데려다주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일한 바쉬괴즈

● 다국어 표기 İLHAN BASGOZ(영어), İlhan Başgöz(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타흐신 반구오을, 사즈, 나스렛딘 페르테프 나일리 보라타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 Pınar, “İlhan Başgöz’le Halk Edebiyatı Üzerine”, *Kanat*, Sayı: 3, 2000.

Başgöz İlhan, *Gemerek Nire Bloomington Nire*, Türkiye İş Bankası Yayınları, İstanbul, 2017.

Gökçe Enver, *Bütün Şiirleri*, Ayko Yayınları, Ankara, 1981.

Şaul Mahir, “İlhan Başgöz’ün Halk Edebiyatı Araştırmalarına Katkısı”, *Milli Folklor*, Sayı: 85, 2010.

I F267 | 임-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Im-tom

남시베리아의 투르크 민족인 하카스인들의 구전문화 산물인 서사시들에는 죽은 자를 소생시

키기 위해 쓴다는 일종의 부적 또는 불사수(不死樹)와 함께 특수 비약(秘藥)이 등장한다. 하카스로 임-툼은 ‘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담 속에 등장하는 생명을 주는 비약은 임(im)과 톰(tom)의 혼합물로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임과 톰은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식물의 약초에서 추출된다. 아흐 치벡 아르그(Ah Çibek Arıǵ)의 서사시에는 “예전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던 각종 약초들이 존재했다(Ol tusta ölgen kızı tırgışçeñ ot köp polcañ poltur.)”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물들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서사시에서 발견되는 불멸의 약초들과 관련된 모티프는 수백 년의 역사의 산물이자, 지금도 하카스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 의학 또는 전통 사상 의학의 기초를 상징한다.

특히 종류가 다양한 약초들의 효능을 활용한 식물요법은 하카스인 샤먼들이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져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르크 길가메쉬왕이 긴 여정 끝에 발견한, 하지만 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 대상도 이 약초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카스 서사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임과 톰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는 높은 지위의 칸이나 귀족들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흐 치벡 아르그 서사시에서는 흰색과 하늘색 약초들로 생명의 비약(秘藥)을 준비하고, 사망한 하녀가 그 비약으로 다시 부활한다. 또한 서사 영웅의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조수였던 그의 말, 개와 같은 동물들도 부활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후반 아르그(Huban Arıǵ) 서사시를 보면, 아르그가 저승 세계로 내려가 황금색 털을 가진 하얀 개의 혼을 다시 불러들여, 개의 영혼과 시신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다양한 약초로 만든 비약을 준비한다. 이 비약을 먹고 부활한 황금색 개는 혈관에 모든 피가 채워지고, 살이 돋는다. 이와같이 하카스 영웅시에는 서사 영웅의 가장 가까운 조수인 개와 영웅을 옆에서 보필하는 보완자로 묘사되는 말 등의 부활 장면도 그려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임툼

● 다국어 표기 im-tom / Им-том(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Davletov,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02.

I F268 | 임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linhu

임호(林胡)는 흉노의 동쪽에 살던 유목민이자 수렵채집인으로 몽골계와 퉁구스계 혼혈로 알려졌으나 특정 종족이라기보다는 여러 민족의 총칭일 가능성이 있다. 누번(樓煩), 동호(東胡)와 함께 삼호(三胡)라고 지칭한다. 기록에 따르면, 임호에 대한 정보는 B.C. 7세기경부터 나타난다. 임호는 B.C. 7세기 중반 진(晉)나라의 북변에 거주하고 있었다. 흉노가 번성했던 B.C. 5세기~B.C.3세기에는 연나라의 북변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진나라의 북변으로 돌아왔다. 전국시대에는 지금의 산서성 삭현(朔縣)에 거주했다. 목축과 수렵에 종사했고 말 키우는 데 아주 능숙한 민족으로 알려졌다.

임호는 조나라의 숙후(肅侯, 재위 B.C. 349년~ B.C. 329년)가 군대를 보내서 장(莊)에서 대패했고, 무령왕이 B.C. 306년에 흉노를 대파하자 그에 복속되어 공물을 바쳤다. 이후 조나라 효성왕(孝成王)이 이목(李牧)을 시켜 흉노 10여 만 기를 격파했을 때 완전히 복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들은 소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민족을 임인(林人), 담림(檀林)이라고도 한다.

『사기』 69권에 소진의 기록으로 B.C. 5세기 연(燕)의 위치가 나오는데 연의 동쪽에는 조선(朝鮮), 북쪽에는 임호와 누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중국 오르도스 고원의 동쪽 지역과 산서 북부의 산림 지역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림호
- 다국어 표기 林胡(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林幹, 『中國古代北方民族通史』, 廈門: 鷺江出版社, 2003. 『史記』 110권, 흉노열전.

I F269 | 잇치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Ichchi

고대 야쿠트인들은 인간이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물과 자연 현상들에 ‘잇치’라는 주인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땅, 물, 숲, 산, 길 모든 곳에 주인 정령이 살며, 인간이 만든 집, 농장, 기구 등에도 고유의 정령이 산다고 믿었다.

잇치라는 정령의 존재는 정령 신앙(animism)이 확산되고, 소유의 개념이 생긴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정령 잇치를 존경과 재물을 요구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잇치는 음식을 대접하고 찬가와 주문을 외워 환심을 구하는 대상이다. 만약 이를 어겨 그들을 화나게 하면 들새들을 보내지 않거나 인간에게 병을 내리고 집에 불이 나게 하는 등 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는다.

가장 존경받는 잇치는 사람과 가축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복을 주는 대지의 여신이다. 전통 서사시 올롱호에서 대지의 여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생각은 자유롭고/ 마음은 정직하고/ 가슴은 가죽 그릇만큼/ 넓고도 깊어라./ 살팽이 털외투를 입고/ 흑담비 모자를/ 머리에 살짝 쓴/ 옛 땅의 여주인/ 아안 알라흐춘이여.”

사냥꾼들의 수호신은 숲에서 산다. 그들 중 으뜸은 ‘바아이 바야나이’이다. 그는 머리카락이 붉거나 검고 술이 많다. 옷은 사슴 가죽 털외투를 입고, 숲속을 뛰어다니거나 순록을 타고 다니는 쾌활한 노인이다. ‘바아이’는 야쿠트어로 ‘풍부한’이란 뜻이다. 산고개에는 ‘아아르특 잇치 테’라는 정령이 살고 있다. 이 정령들에게는 동전이나 형겔과 같은 작은 제물을 바쳐 존경을 표시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트치
- 다국어 표기 Иччи(러시아어), иччиттэ(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야쿠트어, 올롱호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 S Books. 2011. 37~40, 58~59.

I F270 | 잉판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Yingpan Cemetery

잉판 유적은 중국 신장성 바인귀령몽골자치주(巴音郭楞蒙古自治州) 위리현(尉犁縣)에 위치한다. 누란국(樓蘭國)의 대표적인 무덤 유적으로, 누란고성과 마찬가지로 잉판 고성(古城)과 잉판 고묘(古墓)가 복합된 곳이다.

양판 유적은 20세기 초부터 알려져서 스타인, 안데르스 헤딘 등이 조사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문화상이 알려졌다. 신장문물고고연구소는 1989년 잉판 고성을, 1995년과 1999년에는 무덤 132기를 조사했다.

잉판 고성은 성곽 내에 있는 대불탑, 봉화대, 무덤군, 사원지가 조사되었다. 사원지는 성의 북쪽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덤을 지키는 성격의 사원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무덤은 위리현의 남동쪽으로 흐르는 콘체하(孔雀河)의 북쪽 기슭에 위치한다. 장방형으로 구덩이를 2단으로 파서 만든 것인데, 묘실의 형태는 2가지이다. 일반적인 구덩이 형식과 구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파고 다시 옆으로 파들어가는 편실묘 형태가 있다. 그 내부에 마름모꼴에 가까운 관을 짜서 넣었다.

특히 무덤 가운데 M15호에서는 채색된 목관 안에서 남성 미라가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목관은 다리가 붙은 상자식으로 목관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다. 관 안에는 신장 180cm 이상에 갈색 모발을 지닌 30세 정도의 남성이 안치되었다. 이 남성은 상의로 중앙아시아 민족의 카프탄을, 하의로 바지를 입었고, 펠트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외에 직조된 견직물, 면직물 등 다양한 소재의 직물과 활, 도제 녹유완, 목제와 종이편 등도 출토되었다.

이 중에는 시유도기(施釉陶器)도 있었는데, 이것은 4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잉판 무덤에서 발견된 시유도기의 근원에 대해서는 중국 연구자와 다른 지역 연구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잉판이 실크로드 주요 거점지인 누란고성의 서쪽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과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졌고, 한대 연유도기(鉛釉陶器)와 양식이 비슷하다며 중국의 시유도기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현대의 시유도기는 서남아시아 및 로마, 파르티아 왕국의 연유도기에서 기원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특히 파르티아는 중국과 로마의 무역을 연결했는데, 이 과정에 파르티아 연유도기가 중국 현대의 도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한의 시유도기가 등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잉판 출토의 시유도기인 녹유완은 그 과정에 남겨졌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잉판 유적은 잉판 고성과 잉판 무덤의 복합유적이다. 1세기~4세기 누란고성과 마찬가지로 이곳이 실크로드 주요 길목에 위치하면서 동서 문화의 교류장이었다는 사실을 유적의 특징과 출토 유물로 확인할 수 있다.

● 다국어 표기 鶯盤(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新疆古墓葬』, 北京: 科學出版社, 2011.

謝明良, 「中國鉛釉陶起源問題」, 『中國古代鉛釉陶的世界: 從戰國到唐代』: 臺北: 石頭出版社, 2014.

Watson, Oliver. *Ceramics from Islamic Lands*. London: Thames & Hudson, 2006.

新疆文物局·上海博物館, 『新疆維吾爾自治區 絲路考古珍品』,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1998.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이다.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달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앙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앙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술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d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eret edebi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7-5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75 05030
ISBN 979-11-985841-7-5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